《『아버지와의 낭만』 저작권 고지 및 이용 조건》

제목: 『아버지와의 낭만』

영문 제목: *Leaning Close to the Father*

본 저작물(모든 Version 포함)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관련 국제 저작권 조약에 따라 저자 김현기에게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포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번역·편집·각색·변형권 및 기타 본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Leaning Close to the Father"는 본 저작물의 영문 제목이며, 별도의 공식 영문 번역본이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적용 라이선스 (License)

본 저작물은 다음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됩니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CC BY-NC-ND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본 라이선스는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저작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허용되는 이용 (Permitted Uses)

저작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공유·배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1. 비영리 목적일 것
2. 원문을 변경하지 않을 것
3. 저작권자 및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것

■ 법정 인용 (Quotation Under Copyright Law)

관련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정확한 인용은 가능합니다(상업적 출판물 포함).

단, 인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목적 및 합리적 범위
- 출처의 명확한 표시
- 원저작물의 의미·취지 왜곡 금지
-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인용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은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금지되는 행위 (Prohibited Uses)

다음 행위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판매하는 행위 (영리·비영리 목적 모두 포함)
- 내용의 수정·요약·재편집·재구성 후 배포

- 번역본의 제작 및 공개 배포
- 각색·재구성 등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배포
- 일부를 발췌하여 원저작물의 의미·취지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이용
- 저자의 성명표시권 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이용
- 저자의 명예·평판을 침해하는 방식의 이용

단, 관련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 또는 법정 인용은 예외로 합니다. 다만 공정이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적 변경이나 일부 발췌라도 실질적 변형·왜곡이 있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등 자동화 도구의 사용에 관한 안내

(Use of AI and Automated Tools)

개인적 열람 및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자동 번역기, 생성형 AI, 요약 도구 등 이에 준하는 자동화 기술(이하 "AI 등")을 사용한 번역·요약·분석은 허용됩니다.

다만,

- 결과물의 정확성 및 해석 오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 AI 등을 근거로 원저작물의 의미를 왜곡하는 인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저작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버전 표기 (Version Identification)

동일 연도 내 여러 Version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인용 시 Version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인용 예시 (Suggested Citation)

1. 국문 인용 예시 (Korean Citation Example)

김현기 (2026).『아버지와의 낭만』(**Version 62**), p. XX.

Licensed under CC BY-NC-ND 4.0.

https://archive.org/details/leaning-close-to-the-father-v-62

2. 영문 인용 예시 (English Citation Example)

Kim, Hyunki. (2026). *『아버지와의 낭만』* (**Version 62**), p. XX.

English title: *Leaning Close to the Father.*

Licensed under CC BY-NC-ND 4.0.

Available at: https://archive.org/details/leaning-close-to-the-father-v-62

■ 준거법 원칙 (Governing Law Principle)

본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열람 (Online Access)

https://archive.org/details/leaning-close-to-the-father-v-62

제목: 아버지와의 낭만

- **저자 소개**

김현기 (金顯起)

- **그리스도인**
- 1988 년 10 월 10 일 生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던 선교지를 등지고, 저는 다시 '현실'로 나오기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지구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작은 천국들을 구현시키자. 그렇게나마 아쉬움을 달래다가 마지막 날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자.'" (《한 걸음 한 걸음》장(章)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간증)> 중)

- **평생소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설령 내가 이 모든 일에 원대로 쓰임 받고 천국에 입성한 자가 된다 한들 정작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아들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먼발치에서 눈치 보는 어색한 시민은 됐으나 품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들은 되지 못했다면, 모든 성취 또한 별 의미가 없어진다. 반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일심동체를 이룰 정도의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는 아들이 된다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과 동일하다. 고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파장을 지니며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과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요 전부이다." (《비전》장(章) <장래희망 = 행복한 삶 = ?> 중)

- 가장 좋아하는 구약성경 구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 가장 좋아하는 신약성경 구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천국에서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의 사랑 현기야, 받은 사랑을 널리 끼치고 나누어, 많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고 왔구나."**

■ **책을 엮게 된 이유:**

귀향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재회에 앞서 이 땅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와 동행함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영감(靈感)들을 적어 놓은 글들이었다. 거저 받은 걸 거저 나누지 못하고 무덤까지 자신의 금은보화를 품에 끌어안고 썩어간 어느 고대 왕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로 무엇보다도 양심상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보기 시작했는데 수정·보완 해가며 다시 한 번 많은 주의 말씀들을 탐색하고 접하다 보니 오히려 내게 큰 은혜가 됐고 분명 아버지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내게도 허락됐듯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면 나에게 더 없는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단 한 영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천하우주보다도 더욱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이다. 고로 나는 이 책이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독자분들을 인도하는 들러리 책이 되길 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말은 최대한 간결히 하고 대신에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적절히 인용하려고 했다.[1] 결국 성도의 삶에 있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한적인 사람의 말 천마디 보다 실질적 능력과 안식이 된다고 생각하고(히 4:12, 살전 2:13, 시 119:105, 잠 30:5, 엡 6:17 참조), 사람의 말이란 많아질수록 "우매한 자의 소리가"(전 5:3)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 기록된 많은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눅 24:32, 눅 24:45, 고전 2:10-13, 딤후 3:16, 벧후 1:21, 요 14:26, 요 16:13, 요일 2:28, 엡 1:17-19)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낭만을 누리게 되시길 기도하며,[2] 나의 글들이란 낭만에 앞선 신실한 중매쟁이의 발걸음(사 52:7, 고후 11:2)이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보화들을 한데 모아 담았다고 생각되는 이 문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헌문(獻文)이 되길 기도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계 4:10-11) 아멘.

■ **책을 엮게 된 이유(부연설명):**

2003 년, 열여섯 살에 영국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서 유학을 시작할 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여 쓰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일기 숙제와는 동기나 진지한 정도에서 차원이 달랐다. 홀로 타지 생활하며 글 쓰는 시간이 내게는 잔잔한 행복이자 생각보다 큰 위로였다.

그렇게 2003 년부터 시작하여 2010 년 군대에서 병장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글들을 내 '싸이월드'(www.cyworld.com/allright7777 및 2022 년 싸이월드 개편 후 주소: https://minihompy.cyworld.com/allright7777) 일기장 또는 게시판에 썼었다. 글을 쓸 때는 그 당시

[1] 달리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역개정' 또는 '개역한글' 성경을 인용했다.
[2] 《자유의지와 절대주권》장(章) <우리의 영원한 성경 스승, 성령님. 많은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하심, 가르치고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낭만을 누리게 되길 기도하며> 글 참조.

수준으로 항상 진지했던 거 같다. 그러던 중 2010 년, 군 전역을 얼마 안 앞두고 비극적인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났고, 그때가 군 시절 중 가장 전쟁의 위협에 가까웠던 때였다.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 바칠(바쳐질) 각오를(상황을) 하고(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동안 써왔던 내 '싸이월드' 글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나의 신변잡기적인 글들보단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받았던 은혜와 깨달음들을 기록했던 글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고 싶었다(신변잡기적인 글조차 그 경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위주로 남기려고 했다). 전쟁터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기는 군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헌문(獻文)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간의 글들을 정리하였고, 정리하다 보니 책이 돼버렸다. 비슷한 류의 글끼리 묶다 보니 Chapter 들이 생겨났고, 책 제목도 자연스레 마음속에 떠올랐다 – "아버지와의 낭만".

다행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건강히 전역을 했다. 기왕 정리한 원고를 기독교 출판사들에 출판 의뢰해 보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아무도 출판해주진 않았다... 그 이후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는 동안,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2015 년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오늘 2026 년 2 월 12 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의 낭만』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다듬었고, 새 글도 추가하고, 있던 글을 빼거나 고치기도 했다. 이제는 '싸이월드'가 아닌 'Facebook'(www.facebook.com/hyunki1010)에 새로운 글들도 올리면서 그중 취사하여 이 책에도 넣었다. 이 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들 자체도 내게는 행복한 아버지와의 낭만의 시간이었다.

새 글을 추가하는 것만큼이나 성경 구절을 많이 더 추가하였다. 혹시라도 언제가『아버지와의 낭만』이 정식 책으로 출판됐을 때, 내 졸한 글을 길게 읽도록 독자를 괴롭히는 것보단,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쓰여 있는 것이 독자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물론 지금도 이 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자라가야 하듯, 이 책도 계속 더 자라가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선,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이 책의 완성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낭만은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고로,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와의 낭만은 더 깊어지고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따금 한 번씩 글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기에, 과감히 현 상태에서 마침표를 찍고 인쇄를 해보려 한다.

2010 년 처음 취합된 원고를 계속 틈틈이 수정, 보완하다 보니 벌써 (**Version 62**)까지 왔다(실제로는 훨씬 많은 버전들이 있었겠으나 그나마 큰 수정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 이다음에는 또 언제 한 번 과감히 마침표를 찍게 될지 모르겠고, 앞날이란 것을 예상할 수 없기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지도 모르겠다. (위 언급한 내 Facebook 페이지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적어도 매년 그해의 최신 버전을 '전체공개'로 공유해두었다.)

이 책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버이날 편지'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읽어보시는 분들께도 많은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지나 온 때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 ☆ ..

...& ....

밤하늘의 어둠에도 굴하지 않는 별을 바라보며,
손깍지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잠잠히 소망을 가져본다.
낭만이 낭만으로 지속되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6-39)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눅 2:48-49)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 11:13-16, 새번역)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 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계 21:1-7, 현대인의 성경)

목차

상세 목차:

《I. 광야학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 2:7)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후 1:9)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 57:1-2)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 30:6)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37-38)

#
<아픈 인생>

인생은 때로 숨막히도록 아픈 곳이다.
영원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약속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사명과 믿음으로 무장하였어도
때로는 씁쓸하고 부질없어 보이는 때를 산다는 것은 즐겁기보단 괴로운 일이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 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롬 8:23, 현대인의 성경)

낭만이 낭만으로 남아 있지 못하고,
죄의 끝없는 유혹과 공격이 있고,
갈등과 분쟁, 방황과 슬픔의 역사가 빈번한 이 곳.
하나님마저 안 계셨다면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인해 매일을 멀미하며 지냈을 거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전 6:11-12)

그렇기에 가장 행복한 날은,
짧고, 아프며, 아슬아슬한
이 불완전과 미완성의 때를 무사히 넘기고,
본향 아버지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
와락 안기게 되는 바로 그날일 것이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6)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21:2-4)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

<혼비백산>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주체가 안 되요, 추스르질 못해요, 혼비백산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중 가장 연약해요,
특별 돌봄과 많은 긍휼과 무한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에 근처도 가게 마시고,
그저 평안과 복락으로 둘러주세요.

그리 할 때에 제가 사는 동안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온 사방에 전하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 42:2-3)

#
<고난의 이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냐고 질문했다. 흔히 말하기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시 66:10-12). 단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나라 확장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딤후 2:21).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된 것이고(히 11:26, 행 5:41) 지금의 환난은 후에 큰 영광에 비할 때 극히 경한 것이다(롬 8:18, 고후 4:17).

그렇다. 그럼에도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왜 고난을 통해 단련하셔야 하는가? 인간에게 사랑과 격려, 타이름과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아파야 하는가? 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신 32:11) 듯 인도하시고 교육하셔야 하는가? 고난이 깊어진다고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는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완성된 것 아닌가?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수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내게 깨닫게 해주신 답은 이렇다: 내가 외로웠기에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 내가 억압과 부당한 대우, 비인격적 고난을 겪었기에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전쟁의 위협에

대응하며 살아봤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됐다.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심으로 동참하기 위해 고난은 필수였던 것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 1:4)

#
<사형 선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영적 전쟁은 계속될 테고 전쟁 속에서 안락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마 12:20)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나를 더욱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이는 고난 때마다 재차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에게 희망은 없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후 1:8-9)

#
<활공>

하나님께선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성령의 기류를 타고 활공하는 영광되고 흥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기에 냉담하고 무지하며 완악한 우리를 계속 둥지에서 떨어트리고 다시 붙잡아 올리시고 다시 떨어트리신다.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길 원하시기에 또 다시 떨어트리신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때까지 말이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12)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8-9)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9-30)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 14:28-31)

#
<나의 고통의 원인은 나>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천사 천 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 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 33:8-30, 새번역)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하므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체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 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 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욥 35:9-16, 새번역)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햇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욥 36:11-26, 새번역)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욥 37:20-24, 새번역)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 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 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욥 40:1-14, 새번역)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만 사천 마리, 낙타를 육천 마리, 소를 천 겨리, 나귀를 천 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긋시아,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의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욥 42:1-17, 새번역)

#
<불평>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냐며 불평하거나 원통해 하는 것에 저의에는 '나는 이 정도보단 더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라는 교만과 '하나님, 이것 밖에 못해주세요?'라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나의 욕심과 교만의 따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도 이는 저주임을 알아야 한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시 106:14-15).

#
<마땅한 겸손>

우리는 하나님을 힐문하거나 의심할 권리가 없다. 의심이란 것은 불완전한 인간끼리나 하는 것이다. 완전함이 불완전함에게 때로 어색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색하단 이유만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평가하려는 건방짐을 범해선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선 겸손함과 경외함을 갖추는 것만이 마땅하다. 긍휼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안하실 권리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롬 9:20)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42:3)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 66:2)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슥 2:13)

#
<흉악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통해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안 깊숙이 해결되지 못한 죄성(罪性)들이 드러나게 된다. 내 안에 연약함, 악함을 적날하게 보게 된다. 많은 범죄자들을 이해하게 된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흔히 말하는 '흉악범' 이상이 되는 것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딤전 1:15). 주의 은혜 없이는 죄 지을 수 밖에 없는 죄인 중 괴수인 내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단련하시고 죄를 솎아내신다. 거룩해 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허락되는 지존자와의 친밀함은 나의 양식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 12:10-11)

#
<사랑의 매>

인간은 간사하고 교만해서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 않는다. 사람의 타락 이후 시작된 고통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죄라도 덜 짓게 해서 심판의 날 처벌수위라도 감량해 주시고자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치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사 63:8-10, 새번역)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시 81:10-13)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1-1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후 7:10)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 12:7-8)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사 63:16-17, 새번역)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눅 15:17-24, 새번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7-10)

#
<용서와 긍휼은 선택 아닌 필수>

용서하는 것은 다시 친해지라는 건 아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 자신을 자유 시켜주는 것뿐. 용서를 받았다는 건 다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의 표시로 더더욱 마땅한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건 모두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내가 구해야 할 용서가 상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에게 범한 잘못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선한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구한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시 32:1-5, 우리말성경)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약 4:11-12)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롬 2:1)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약 2:13)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1-22)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5-38)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2-35)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 5:7)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 5:22-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욘 4:10-11)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12-15)

#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때가 가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적의 때이다. 이럴 때 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어 사랑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를 찬양할 때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 2:3)

#
<외로운 광야>

리더는 가장 앞에 서서 이끌기 때문에 앞에 붙잡을 사람도 없고 옆에 기댈 사람도 없는 정의상 외로운 위치이다. 큰 리더일수록 큰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10 명 중 혼자일 때보다 1,000 명 중 혼자일 때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로운 광야를 통해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초지일관 집중하는 것을 훈련시키셔서 그 만큼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리더로 세우신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핍박과 따돌림을 받기 일수이다. 출애굽 광야의 모세, 십 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아둘람 굴의 다윗, 이방 나라 바벨론의 다니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은 결코 세상이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를 위하여 외로운 광야에서 훈련 받게 하시고 그 위치에 놓으신 거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 102:6-7)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눅 23:33-34)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 2:23-25)

#
<터널>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도 주관하신다. 터널을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터널 속에서도 어두운 부분과 덜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터널이 내게 도움이 되냐 물으면 주저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다는 유익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터널은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터널을 다시 지나고 싶냐 물으면 ‘아니라’ 답하기도 전에 구토부터 할 것 같다. ‘푸른 초장’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지배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4-6)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 37:7)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8-10)

#
<일부러 어둡게 하실 때>

남율이를 키우다 보니 때로는 일부러 내 손으로 아이의 눈을 덮든, 불을 끄든, 어두운 곳에 가서라도 아이에게 평안을 주려고 할 때가 있다. 어떤 혼란스러운, 좋지 않은 상황에 아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해시키려 하는 것보단, 잠시 눈을 가려주든, 어두운 곳으로 가든, 불을 끄든 해서 오히려 내가 그냥 꼭

안아주고 있는 게 나은 상황도 있는 것이다. 때로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왜 그러는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로서 고마울 때는 그저 나를 믿고 그저 내게 안겨 있어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울더라도, 내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동안은, 아이를 꼭 안아주고 포기하지 않으며, 달래면서 그저 아빠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온전히 나를 믿고 잠잠히 품에 안겨있게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1-18)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 55:8-9)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사 28:29)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28-31)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시 71:12-24)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46:1-1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1-3)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벧전 5:7,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벧전 5:7, 새번역)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6-18)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6-27)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19-22)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 11:8-10, 현대인의 성경)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1-7)

#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눅 21:19)>

폭풍이 몰아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잠잠히 있는 것이 최선이다.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지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 향한 일편단심”[1]으로 두 눈알마저 뽑힐 때까지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설령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 마치어 질지언정 그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 27:12-14)

#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다. 훈계나 설교는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냥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단 한 명이 필요하다. 그저 들어주고 토닥여줄 단 한 명. 근데 그 단 한 명을 찾는 것도 결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예전에 만났던 독거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난다. 대화중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더니 나지막하게 “외로워요” 한 마디를 겨우 내뱉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그분께 쌀과 선물을 가져다드렸지만, 그분에겐 친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절친한 친구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충실했던 거 같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떠나가야 했고 그분은 다시 그 방에 혼자 계셔야 했다. 물론 근처 교회랑 주민센터 공동체도 권유 드리고 했지만, 사람은 좋든 싫든 본질적으로 독립적 객체이고, 고로 혼자이기에 심지어 내 부모나 자식, 배우자조차도 나를 다 이해해줄 수 없다.

그럼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과 삶의 충만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참 좋은 친구이다. 그분은 말로만 친구가 아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친구이고, 죄와

[1]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 중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한 영생으로 넉넉히 구원하여 인도해줄 수 있는 매우 든든한 친구이다.

그 친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그분 안에서 위로가 있고 우정이 있고 항구적인 행복이 있으며, 결국은 그 위로와 우정과 행복에 기반하여 내 이웃과도 그와 같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용기와 원동력이 생긴다.

그 할아버지에게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왔다. 그리고 다 같이 손잡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울고 부둥켜안았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우리의 좋은 친구.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 11:11)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2-1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7)

#
<마음 넓히기>

요즘 배우는 교과과정은 ‘마음 넓히기’이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일이다.
바다에는 큰 바위가 떨어져도 ‘퐁당’이지만, 얕고 좁은 개울물에는 돌멩이만 떨어져도 ‘첨벙’, 조금이라도 큰 돌이 떨어질 땐 아예 수로가 끊기고 만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후 6:13)

그러나 수로 확장 공사와 넉넉한 물 공급을 이룸에 있어 인간 스스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참을 인(忍)자를 세 번은 쓸지라도 네 번째 때는 겉잡을 수 없게 터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로, 수로확장 공사에 방해되는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 상처, 아집과 같은 장애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지하여 소멸하고, 우리가 예수의 생수의 강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롬 5:5)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에 평안이 온다(요 14:27). 깨어지고 낙담돼있는 이웃과 주변환경에도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 119:32)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5)

#
<고난 앞에서의 성경적 자세 1>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그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여전히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삼하 16:9-13, 새번역)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행 13:22)

#
<고난 앞에서의 성경적 자세 2>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찌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찌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찌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애 3:18-40)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 9:30-31)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 57:15)

#
<고난 앞에서의 성경적 자세 3>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막 14:36)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 26:52-54)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 53:7-10)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 27:11-14)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19-25)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3-24)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 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세 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번은 돌에 맞았으며 세 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주리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길이 길이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왕의 장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킬 때 나는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후 11:23-12: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후 1:9)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 30:6)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14-16)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12-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약 5:9-1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7-9)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

<고난 앞에서의 성경적 자세 4>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 20:22)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 5:38-45)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 37: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16-28)

#

<광야 졸업생>

‘광야 졸업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광야를 조금이라도 일찍 끝낼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광야 졸업생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무엇을 배우면 광야학교를 조금이라도 단기에 마칠 수 있을까? 광야 최단기 우수졸업생 예수님의 모범답안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 4:1-11)

1.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세상은 떡을 먹어야 유지되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유지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으며, 우리가 진정 신경 써야 할 세계는 잠깐 머무르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요 영원히 거할 하늘의 세계임을 광야 졸업생은 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7-18).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 고로, 더 이상 이생의 성공, 명예, 출세, 떡에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로의 때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다 지나갈 것을

포기할 줄 안다. 광야 졸업생은 고로 현세 이후의, 이상의 세계인 영원한 나라에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나그네요, 순례자요, 청지기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자이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사십 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사십 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해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신 8:2-6, 새번역)

2.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나의 출세나 성공, 명예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지 ‘램프 속 지니’가 아니시다. 물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고통과 힘듦을 호소하고 긍휼을 간구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욥 1:21)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그분의 완전함과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잠잠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연된다고 하여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운운하며 원망하고 패역무도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발해서는 안 된다. 광야 졸업생은 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험치 않는다.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 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므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 (출 17:1-7, 새번역)

3.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 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로서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것까지 알았어도 정작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는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막 5:6-8). 하나님이 ‘왕의 왕, 주의 주’(계 17:14) 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한 채 내 사욕(私慾)을 좇아 귀신과 짝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극상이 있을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19-25). 고로 광야 졸업생은 사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을 택하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눅 10:27)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이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모시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따라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신 6:13)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맛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 6:10-19, 새번역)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수 24:2-24)

결론적으로, 광야 졸업생은 지나가 없어질 이생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초점과 소망을 두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넘어져도 주를 향해 넘어지고, 일어서도 주를 향해 일어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된 의미요, 소망이요, 행복이요, 최종 승리임을 믿고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안식도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저의 만족이요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라도 속히 광야를 통과한 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여 저의 모두를 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빚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눅 1:46-50)

화요예배 때 성경봉독을 맡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주보를 보았더니 위에 말씀이었다. 너무 기뻤다. 지난 1 년 4 개월 동안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 '비천했던' 장면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 모래를 씹는 듯 멀미하며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 깊은 수렁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지났던;
- 수치와 굴욕, 고립과 궤계, 누명과 오해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채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졌던;
- 처절한 외로움과 가득한 어둠 가운데 빛 한줄기 갈망하며 '하나님… 하나님…' 찾고 불렀던;
- 넋은 나가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코피, 눈물, 콧물을 줄줄 쏟으며 고개를 숙인 채, 심장을 움킨 채 콜록이며 걸었던;
- 속상한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받은 약속들과 주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내일은 좀 더 낫겠지', '하나님이 곧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행해주시겠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지'하며 하루 하루를 숨가쁘게 넘겼던.

여러 '비천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선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부활이 가까웠나 보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겔 16:6)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 70:4)

#
<눈물의 씨앗, 희망>

지난 해 8 월 이후 정말 희망이란 단어로 먹고 살았다. 돌이켜 보면 평생을 '희망'이란 단어가 지탱해 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희망'이란 단어가 특히 부각되어 간절해 지는 시기가 있을 텐데 나는 그 때가 지난해 8 월 이후부터 인 것 같다. '내일은 좀 더 낫겠지', '내일이 바로 그 날일 수도', '거의 다 왔기에 힘 드는 걸꺼야…' 희망을 묵상하고 씹고 곱씹고. 하지만 연말연시 요즘 상황을 돌아볼 때 아직 한숨이 떠나질 않고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율할 만큼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선 행사하신다. 자칫 폭군으로 오해될 수 있으리만큼 은혜와 공권력, 당근과 채찍을 독점하시어 피조물 인간으로 하여금 무조건 그분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신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대항은 - 그것이 애쓴 외면을 통하여건, 고의적으로 우상을 좇는 하극상으로든, 게으른 무지에서건, 시위적 자학에서건, 나의

배와 머리를 우선시하고 높이려는 탐심과 교만을 통하여건 - 우리의 대항은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 대항자는 처벌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계 17:14),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퍅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욥 9:3-4),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권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성령을 받아 이 절대군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적인 팬이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항자들이 받을 영원한 벌에서 면제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시민으로 택함 받게 되므로 이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또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하지만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 연이은 유혹과 시험, 연단을 지나게 될 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위안이 되기 보단 숨 멎을 것 같은 부담이 된다.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사 48:10-1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과정임을 알면서도 설렘보단 가혹으로 느껴진다. 낭만적이던 하나님이 야속한 하나님이 된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 이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과 역사, 양심과 이성이 증언하기에, 다른 것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 해봐야 진정한 위안도 못되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도 알기에 숨은 더욱 조여오며 고로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기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신실하게 응답을 기다리려고도 한다. 내 안에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의심 드는 마음, 굴욕적이고 수치스런 기억, 회복과 축복의 약속에 대한 안달 나는 애절함을 포함한 나를 내 안에서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로만 채우려고도 해본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 다물고 잠잠히 긍휼을 기다리며 바짝 엎드러져 있어도 본다. 고통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으며(애 3:33) 위안을 삼으려고도 한다. 그러나 상황에 변화 없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결재 내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이 상기될 때마다 절대 주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야속함 마저 초월하기란 영 벅차기만 하다. 나를 빚어가고 계심에 감사하고 미소를 띄려 하나 상황이 너무 큼직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내 앞에 널브러져 있다.

절대 주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진성(眞性)이 사랑과 선하심임을 반증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를 과대평가 하신 건 아닌지. 아니 어쩌면 나를 포기하셔서 내치실 빌미를 만드시려는 건 아닌지. 나를 계속 극한으로 밀치시며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강퍅하게 혹은 좌절케 만드시려는 것 같아 두렵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입성하기 안전하다 느껴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인정해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동안에 입성해야 하는데. 혹시 나를 정말 내치시려는 건지. 물론 완벽한 정의관에 입각하여 심판을 내리실 테니 내가 항변할 말은 하나도 없게 만드시겠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나의 육신의 부모도 나를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조리는데...

이런 한숨의 때는 누구에게나 거부하고 싶은 때이다. 그럼에도 지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기에 모든 것이 꼭 새 출발 될 것 같은 1 월 1 일을 애타게 갈망하는지도 모르겠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내가 받아 귀히 모아둔 약속의 말씀 중 가장 최근 받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스러지리라" (사 35:10)

내일 모레 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올해의 말씀>을 뽑을 거라고 하는데, 심히 거추장스럽고 떨린다. 안 그래도 받아 심어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올해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뽑아보려 한다.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 한다. 이번 한숨의 때에 눈물로 심었던 씨앗들의 열매를 수확하고 풍성히 즐길 수 있는 내년부터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올해의 마지막 씨앗을 받아 고이 심어보려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5)

#
<속 편히 살기>

나의 새해 각오는 "속 편히 살기"다.
낮아지면 낮아진 데서 높아지면 높아진 데서 속 편히 살자.
받은 축복을 헤아리며 속 편히 살자.
불평이나 낙담은 멀리하고 긍정과 희망을 가까이하며 속 편히 살자.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 이전에 하나님의 의견에 초점을 두고 속 편히 살자.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속단하지 말고 넓고 긴 안목으로 속 편히 살자.
위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며 속 편히 살자.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속 편히 살자.
베풀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속 편히 살자.
막히면 돌아가며 속 편히 살자.
주의 주권과 사랑,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속 편히 살자.
결과보단 과정을 즐기며 속 편히 살자.
말보단 경청을 연습하며 속 편히 살자.
고난과 고통은 자기개발의 기회, 마음확장의 기회로 삼고 속 편히 살자.
죄는 피하고 의를 구하며 속 편히 살자.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하며 속 편히 살자.
살 땐 살고 죽을 땐 죽더라도 속은 편히 살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엡 4:2) 속 편히 살자.
이 신년 각오를 하나님께서 관리해주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주의 손에 의탁 드리고 속 편히 살자.

본의 아니게 1,000 번째 (싸이월드) 일기에 이런 내용을 쓰게 됐다. 위 내용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기까지 위해 999 번이나 일기를 써야 했지만 10,000 번째 일기 때 쓴 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속 편히 살자.

#
<간증>

한나의 기도 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삼상 2:6-8).

오늘의 간증은 한나의 표현처럼 ‘진토’와 ‘거름더미’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나와 같이 비천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건져 높이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함에 있어서 생겼던 눈물이었건, 저의 부족함과 미성숙으로 인한 고통이었건, 확실한 건, 몸과 마음이 쓰라린 기나긴 눈물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잘 나지 않던 코피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났고, 청소년기 때도 잘 나지 않던 여드름은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돋았었습니다. 빈혈로 인해 직선으로 걸으려 해도 사선으로 걷게 되는 일도 경험했고, 학교 때 농구부 주장도 하고 수영, 럭비, 테니스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심장이 약해지어 서있는 것 조차 숨차고 걸을 때도 심장을 움켜쥐고 걸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업무량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소개 드린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브닌나 때문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울며 하소연하지 않고는 격분되는 서러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침엔 사무실, 점심엔 교회 골방, 저녁엔 교회나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밤엔 침낭 속에서, 새벽엔 잠을 설치다 깨거나 불침번을 서면서 저의 원통함과 비참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닌 저의 처절한 하루 하루의 생존을 위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방에서 숨을 조여오는 깊은 어두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의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야만 했고, 전지전능하셔야만 했고, 저를 사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이유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터널 경험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도 너무 왕성히 살아계시며 우리 한나들의 기도를 지금도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잠시 하나님이 제 삶의 행하신 역전의 드라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토’와 ‘거름더미’에 있던 제 삶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어떻게 역전 시키셨는지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유월이면 제가 전역을 합니다만, 전역을 하면서 한측 사성장군, 미측 사성장군으로부터 표창과 상훈을 받고 전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내외 고위정책인사들을 가까이서 마주하고 그분들과 연계된 일들을 돕고 견학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때로 제게는 벅찬 일들도 맡겨졌으나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가운데 성사되므로 인정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무실 간부들, 주변 사무실 한·미측 간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셔서 말 못할 아픔들을 위로 받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올해 초부터 해서 일어났습니다. 부대 내 여러 부조리와 가혹했던 병영문화가 비천하게 거진 왕따로 잠잠히 지내던 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역사의 전개에 의해 대대적으로 처리되고 개혁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된 덕인지 저의 선임 중 여섯 분이나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사과를 청했고, 그 중 한 명은 군생활에서 본인이 성장하는 데 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내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말해주었습니다. 하극상이 심했던 후임 중 하나도 얼마 전 제게 사과를 청해왔었습니다. 후임과의 화해에선 선임과의 화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것 같던 건강 또한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한나 여러분께 당부 드리길 원합니다. 낙망될 땐 낙망하시고, 원망이 들 땐 원망하시고, 넘어질 땐 넘어지시더라도 절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요. 원망의 기도이든, 눈물의 기도이든, 신음의 기도이든, 탄식의 기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멈추지는 마십시요. 내 자신이, 내 삶이 포기되더라도 하나님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더 의지하십시요(고후 1:9). 모든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고후 1:3)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통곡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 입니다. 깊은 수렁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한나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며, 바로 한나 여러분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마 5:3-4)이라.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고의 역전>

최고의 역전은 죄인 됐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살게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눅 10:19-20)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
<버릴 게 없는 아픔과 고독>

모든 아픔은 버릴 게 없다.
모든 기쁨이 다 유익하진 않아도,
모든 아픔은 모두 유익하다.

고독 속에 참된 자유를 갖고 누린다.
비로소 주와 내가 독대하는 자유이다.

언젠가 언젠가,
이 모든 게 걷히고 지나고,
내 작은 사명을 충심과 성심으로 다 마친 그날.

바로 그날.
숨통 트이는 그 완연한 자유,
완연한 사랑을 만끽하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2-13)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3:2, 새번역)

#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 날 버리고 가족마저 날 버려도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나를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나의 전부요 나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시 13:5)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25-26)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롬 8:29-39, 현대인의 성경)

#
<맺음말>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께 혐의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그 분께선 사랑이시란 거다. 사랑이 아니시라면, 그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일 수도, 영원할 수도 없다.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정결하게, 성숙하게 키우신다. 그 과정에서 광야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촉매와 같은 곳이다.

우리가 감히 항변할 말이 하나라도 있다면, '왜 이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에 손 얹고 가만히 생각하노라면 그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감사하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 것과 태어나서 이 땅을 잠시 겪더라도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 중 택하자면 백 번이고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광야학교"에 대한 맺음말로는, 광야를 통해 익힌 하나님을 향한 보다 더 순전한 사랑은 내게 너무 소중한 재산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선 오히려 광야에서 광야 영성을 유지하기가 더 쉽다. 관건은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에도 과연 광야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다. 올챙이적을 잊지 않기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6:4-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신 8:1-8)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 34:17-20)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 66:9-12)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신 13:3-4)

《II. 비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 55:2)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7-2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4-13)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9-14)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7-3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2:9-1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2-25)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7-30)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 16:13-1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4-26)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 73:25)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욥 19:26-27, 현대인의 성경)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7)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 22:3-4)

#
<일장춘몽>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기분일까?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지 않을까? 꿈에서는 식은땀도 흘리고, 환상에 젖어도 보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옹알이 같은 잠꼬대도 내뱉어보며 나름 심각한 시간들이었을 텐데 막상 지나고 보니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허탈한 여운만 남지는 않을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가 되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우선시하며 열심을 내는 것, 고뇌하는 것, 갈망하며 심지어는 초조해하고 애타하는 것, 과연 이런 것들이 그때에도 큰 의미로, 위안으로 곁에 남아있어 줄까?

잠시 있다 지나가는 지금에 대해 눈을 감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우리 영혼 깊숙이로부터 증언 듣던 영원의 때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그 첫날, 나는 그날을 설렘과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창 21:6)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후 3:5)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3-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욥 19:26-27,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 13:1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17-18)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시 17:15, 현대인의 성경)

#
<삶의 의미>

이상은 높은데 그 만한 겸손과 온유가 안되고,
꿈은 많은데 그 만한 명철과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랑하기 위해 산다며 쉽게 외로워하고,
자유하고자 하면서 죄의 유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니
답답할 수 밖에...

그러나
내 이상을 실현한들,
내 모든 꿈을 이룬들,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도와준들,
모든 유혹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남을까?
과연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다.
긍휼을 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
그분 앞에 다 쏟아내기 위해 나아간다.
그 동안 구차하게 주어 모으고 스스로를 얽맨 미련한 것들
다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벗겨지고, 씻겨지고, 새로이 입혀지기 위해 나아간다.

정작 나를 심판하실 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
정작 나를 다스리실 분의 뜻을 알기 위해,
정작 내가 영원히 함께 할 분과의 관계를 위해,
그분 앞에 잠잠히 엎드리어 경청하며,
내 삶의 의미가 되시는 그분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슥 3:4)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삼상 3:10)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119:2)

#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향하신 뜻: 사랑>[1]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명백히 드러난 뜻, 큰 소리와 큰 글자로 알려진 뜻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의(底意)도, 본심도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게 사실상 원하시는 전부이다.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아야 괜한 오해도, 괜한 헛발질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하는 마땅한 정직과 양심과 지혜와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자,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이다. 심지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하나님 밖에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나님은 이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구애(求愛)를, 사랑으로의 초청을, 격렬히, 의지적으로, 평생을 다해 외면하고 저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즉, 구제불능(救濟不能) 상태가 될지 모른다.

오늘,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청은 열려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려거나 하나님과 도리어 싸우려는 우매함을 버리고, 지금 당장,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자유하고 영원토록 행복하자!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

[1] 《비전》장(章) <일, 소명, 사명, 부르심, 사나 죽으나> 글 및
《비전》장(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글 참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댓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롬 1:18-32, 현대인의 성경)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겔 33:11,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딤전 2:4, 새번역)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요 3:16-17,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롬 3:22-2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롬 5:8,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엡 1:3-7,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출 34:6-7, 새번역)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7)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신 6:4-24)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신 7:6-9, 표준새번역)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12-13)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6-4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9-17)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2-24)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9-21)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 2:10-12)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 치실 때에, 그의 아들딸들이 서쪽에서 날개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앗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에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호 11:1-12, 새번역)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 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 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 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 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 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 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멘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 떼요, 내 목장의 양 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겔 34:11-31, 새번역)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0-15)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애 3:21-33, 새번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시 85:8-9, 새번역)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치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사 63:8-9, 새번역)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19-21)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벧전 5:7-11, 새번역)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3-14)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엡 3:17-19,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1]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셔서나 무엇을 얻으시려고가 아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1);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행 17:25);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 50:12);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 9:6);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욥 41:11);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5-36);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신 10: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사 66:1-2);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시 95:3-5);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시 147:4-5).

그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 안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 자체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와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 45:3-7)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렘 31:3)

---

[1] 《비전》장(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향하신 뜻: 사랑> 글 참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 11:3-4)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 49:15-17)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30-31)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9:45-46)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 68:3-4)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엡 1:4-7, 메시지성경)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1-26)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일 1:3-4)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 16:27)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
<좋은 와인>

좋은 와인, 고액 연봉, 좋은 차, 좋은 호텔, 고급 음식, 좋은 거주지, 여행, 미인 배우자, 성공한 자녀, 지적 탐구, 거창한 사업, 승진, 인기, 건강, 명예, 사치 등으로부터의 행복은 어느 지점 이후 급격히 무의미하고, 심지어 허무하다. 한계 효용 체감(遞減)의 법칙에 적용을 받다 못해 오히려 부(負)의 효용이 더 커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 25:16)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 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 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 떼를 가져 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전 2:1-17, 새번역)

지속적 충만한 행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온다. 이웃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 사랑에서 오기에, 결국 충만한 영구적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온다. 모든 경험과 소유를 통틀어 유일하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닌, 영속적 한계 효용 체증(遞增)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유일하게 아무리 얻고 얻어도 과소평가된 무한한, 무궁한, 충만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전 12:13-14, 새번역)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19-2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0-11)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추구해봐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서 아버지께 돌렸던 영광은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 고로, 전심전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 6:19)

하지만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만큼이나 부질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정하고 내 멋대로 추구하는 것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0-23)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 7:6-9)

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선 우선 내가 철저히 깨지고 없어져야 한다. 그분께 의탁하고 여쭈어야 한다. 그럴 때 주께서 주의 방법과 뜻에 합당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 12:24-28)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
<매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안에 믿음과 성령으로 거하며, 성령 안에서 그분께 청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대화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탄하며 이를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1)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7-30)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6)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4-10)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3-17)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 16:13-15)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요 16:26-28, 새번역)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1-26)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3-9)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고후 4:6-17, 새번역)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5-60)

#

<준비된 마음>[1]

---

[1] 《비전》장(章) <일, 소명, 사명, 부르심, 사나 죽으나> 글 및 《구원》장(章) <올바르게 강한 믿음> 글 참조.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대해 항상 준비돼있도록, 아무런 다른 미련이 없도록, 설렘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 8:21-23)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59-6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 22:2-7)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15-27)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33)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7-39)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19:29)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 10:28-30)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눅 12:36)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막 8:34-38)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 16:24-26)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눅 9:23-2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단 3:16-20)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 4:13-17)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
<그리스도인의 뛰>

너무 뛰는데 집중한 나머지 ‘무엇을 위해 뛰나’, ‘올바른 길로 뛰고는 있나’, ‘뛰 자세는 제대로 된건가’와 같은 질문들이 들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말씀들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 삶의 기조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소견을 따르는 것’일 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후자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선 궁극적으론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 방법과 대상범위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려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 외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고로 삶의 정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리스도인의 뛰은 하나님께 의뢰와 의지함으로 인한 순종이지, 독단과 고집으로 인한 대항이 돼선 안 된다. 나의 고집스런 주도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방관적 나태함을 정당화한다는 말도 아니다.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것과는 반대로,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부지런한 순종의 삶을 살자는 것이다. 독단과 고집으로 인한 대항이 아닌 의뢰와 의지함으로 인한 순종!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7-8)

- **독단 아닌 부지런히 의뢰하고 또 의뢰함**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 10:12-1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시 37:3)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사 48:17)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시 32:8-9)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 29:13-16)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습 1: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 95:6-8)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 55:2-3)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 147:10-11)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렘 7: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9-23)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 15:5-6)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렘 26:13)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시 25:4-5)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 32: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 143:8)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30:9)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8-11)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7-29)

- **고집 아닌 부지런히 의지하고 또 의지함**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길을 알고, 심지어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까지 하고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주의 뜻을 마무리 하려고 발버둥칠 때가 많다. 우리가 주의 뜻을 절실히 의뢰하는 만큼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할 것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 정도는 제게 맡기세요', 심지어 '제가 금식하고 철야할게요 하나님은 쉬세요'식의 어불성설(語不成說)한 교만으로 오히려 주님께 방해가 되는 때가 많다. 주의 사랑의 통로가 아닌 스스로 사랑을 짜내려 하고, 영광을 반영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발광(發光) 하려다 발광(發狂)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예하는 자로 부르셨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미 충만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시 34:5), "They looked unto him, and were lightened"(시 34:5, KJV).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벧후 1:3-4, 새번역).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세우고 드러내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광(發光) 하려다 발광(發狂) 한다. 그러나 혹시 주의 크신 긍휼 가운데 그런 자아도취형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신 9:7). 되고도 혼나는 사례이다.

고로 우린 끝까지 자신감(自信感)이 아닌 오직 주신감(主信感)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감(자신을 믿는 믿음, 自信感)을 가질만한 분은 온 세계에서 창조주요, 최종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지혜로운 태도는 주신감(주님을 믿는 믿음, 主信感)으로 사는 것이다. 주의 뜻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힘과 순종적 마음까지도 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듯,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의지한* 순종이지, 고집스럽고 미련스런 대항이 되어선 안 된다. 방관적 나태나 고집스런 독자적 행위들이 아닌 부지런한 의지함을 요구하신다. 동참의 기회를 주셨지 나태함이나 독재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한 없이 연약하고 죄인 된 나임을 알아 스스로 회개하고 그분의 의와 선하심에, 그분의 도우심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의지하여,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감복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께 의뢰할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대로 순종하도록 하자. 의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하자! 의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하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 (사 48:2-4)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겔 33:13, 새번역)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롬 10:2-3)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 3:34)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후 1:8-10)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 3:26)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40:2-4)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 44:3-8)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신 3:20)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딤후 3:15-17, 새번역)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 8:17-1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전 9:8-11)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대상 29:12-14, 새번역)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3-7)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 127:1-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 15:13)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 9:16)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 15:13)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 9:17-19)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시 5:7)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 2:19)

---

[1] 본 시편 구절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를 내가 이해하기는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고집스런 독자적인 행위들이 많아질 때 생기는 조급함이나 안절부절못함, 이어 나타날 수 있는 과민성 불면증과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본 구절이 우리의 방관적 나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위에서도 얘기했듯 하나님께선 우리의 방관적 나태나 고집스런 독재가 아닌 부지런한 의지함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본 구절을 방관적 나태의 정당성으로 보는 사람에겐 잠언 말씀을 추천드린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 6:9–11).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후 9:10, 새번역)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 3:27)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 6:11-14)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전 1:26-3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렘 9:23-24, 현대인의 성경)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5)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고후 12:9)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고전 15:31-32)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 6:18-21)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107:28-30)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62:8)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3-5)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왕상 19:7-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7-9)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28-31)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4)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수 없도다**” (민 23:19-20)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 23: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6-17)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벧전 5:10-11)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4-25)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후 13:5)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9)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30-31)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 8:10)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119:2)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 3:3)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2)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찌어다” (왕상 8:61)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 24:7)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4)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 28:25)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8)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 3:17, 새번역)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 3:3-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 92:12-13)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16:20)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로 돌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 31:14-16, 표준새번역)

#

<일필구지(一筆句之): 붓으로 단번에 금을 죽 그어서 글자를 지워 버림>

“인생의 기반적 사명서”라는 명칭 하 수 년 전부터 써놓고 수정·보완해오며 흐뭇하게 바라보던 A4 7-8 장 정도 분량의 나의 나이 때 별 ‘비전’(직책·직업)과 ‘비전 기반 철학’(그 직책들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구현 가치 및 청사진’(그 자리에서 나름 구현하려 한 것들의 내용과 계획), ‘약속의 성경구절’(나의 ‘자아실현’을 위해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의지) 등이 적혀있던 파일이 정말 본의 아니게 컴퓨터에서 날아가 버렸다.

이전에는 나의 ‘존재의 이유’이자 ‘자아정체성의 모태’라고도 생각됐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이 것을 잃어버릴 땐 내 삶도 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됐던 ‘성스러운 자료’가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왠지 모를 해방감에 나는 미소 짓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은 것일까?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또 그렇게 된들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웠다. 그럼에도 나의 몽매한 가치관과 사상, ‘비전’에 얽매여 내심 그것들의 실현성과 나의 역량을 걱정하면서도 그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던 것이다.

물론 내용은 내가 봐도 참 기특하고 자부할만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나도 나름 커가며 비전에 대한 관점이 변하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차마 지우지는 못한 채 그윽한 떨림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만 20 세로 맞는 ‘성년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괜한 생각으로 시간낭비와 가슴앓이 그만하고 나만 바라보거라. 내가 너의 비전이 될 때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더욱이 주말 간 혹독했던 업무와 원래 있던 코감기가 합세해 ‘성년의 날’에 맞추어 감기몸살이 났다. “놀만큼 놀았으면 이제부턴 너의 힘은 빼고 잠잠히 나를 바라보거라”라고 확성기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같다.

그렇다. 정작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했는지. 물론 즐거운 상상이었고, 때로는 위로요, 놀이였다. 그러나 역시 최상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겸손과 성실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루하루 보이시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역사의 퍼즐에서 어떤 조각이 될지에 대한 기대 이전에 두려움을 가질 줄 알고 소원 이전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 5:7)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1)

[일필구지, 그 이후]

위 글 <일필구지>를 쓰고 며칠 후 비록 몇 년 전 버전이지만 옛 파일이라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이시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서두에 써넣었다(“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빠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낭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위로받고 안식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평강에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품게 하시고 놓게 하신다. 그리고는 다시 품게 하신다. 분명 언젠가 다시 놓게 하실 거고, 그리고는 다시 품게 하실 거다. 나의 욕심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유요, 주인이요, 의미이시라고 온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외쳐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까지. 그래야 주께서 내게 품게 하시는 그 무엇을 통하여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 언제까지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요 3:30). 그것이 결국 나 또한 참으로 흥하는 길이다.

#
<장래희망 = 행복한 삶 = ?>

[2009년경 軍 복무 시절 당시 작성 글] 어제 일종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장래희망을 쓰는 칸이 있었다. 5년 전쯤 물었다면 내가 원하는 여러 소망과 직책을 모두 나열하며 나이대별 세세한 계획과 철학까지 다 들려주었을 것이다. 세 시간쯤은 쉽게 떠들 수 있었다. 물론 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름 기도하며 마련한 ‘비전’이지만 결국 내가 내 원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행복=자아실현’의 스토리였다.

3년 전쯤 물었다면 미래란 것이 인간 소관이냐고 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행복해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다. 굳이 위에 말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정확히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얽매임 없이 힘 빼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 흐르며 그저 내가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할 수 있으나, 벅찬 대가지불은 피하려는 미래. 그러나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뜻 소탈하고 높은 믿음의 경지인 듯 보이나 ‘행복=행복’, 즉 ‘행복한 게 행복한 거지’란, 어쩌면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순환논리의 애매한 삶이었다.

1년 전쯤 물었다면 아마 당장 천국 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려니…’할 여유도 없었다. 너무 생생하게 힘들었기에. 삶이 야속했기에. 지독히 외로웠기에. 인생의 연약함과 부질없어 보임에 허탈했기에. ‘행복=죽음’이란 염세적인 삶이었다.

어제는 서슴없이 다음을 썼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자." 삶의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감이 점점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의 행복의 원천은 나의 계획 성취도, 추상적인 철학도, 도피적 죽음도 아닌, 나의 창조주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마음으로도 깨달아 가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든다. 익명으로 해도 좋다는 설문이었지만 굳이 끝에 이름을 써넣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성령님의 내주(內住),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더욱 온전하여지므로 아버지와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한다. '행복=아버지의 품'인 삶!

물론 여전히 나로 태어나게 하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전 세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며, 현세에 얽매임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천국에 대한 강한 사모함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이런 마음과 소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를 응답하여 이루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좌초시킬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셋째, 설령 내가 이 모든 일에 원대로 쓰임 받고 천국에 입성한 자가 된다 한들 정작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아들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먼발치에서 눈치 보는 어색한 시민은 됐으나 품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들은 되지 못했다면, 모든 성취 또한 별 의미가 없어진다. 반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일심동체를 이룰 정도의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는 아들이 된다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과 동일하다. 고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파장을 지니며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과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요 전부이다. 고로 이제는 짚신을 팔게 하시든 정책을 팔게 하시든, 세계적인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시든 작은 성전 문지기로 세우시든, 푸른 초장에 누이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든, 이 땅에 두시든 데려가시든 그리 개의치 않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련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는데 필요한 과정들로 예비하셨을 테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시 19:14, 새번역)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시 73:25-26, 새번역)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

<회사 신규입사자 교육에서 회사가 물어본 나의 인생 중요 가치 세 가지와 이를 이루기 위한 Action

Plan 세 가지>

중요 가치: 신앙, 사랑, 소명

Action Plan: (1)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 (2) 장기적, 영원한 시각을 유지하기, (3) 영속할 의미와 가치에 투자하기

#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되길>

[QT 성경말씀 묵상: 2022 년 10 월 18 일 본문]

창세기 37:1-11

[묵상]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셔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창 37:6-11, 새번역)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눅 2:17-19)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 18:17-18)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셨고” (시 103:7, 새번역)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삼상 3:10-11)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 28:22-23)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사 34:1)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 11:15)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 32:8-10)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렘 2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 30:20)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눅 1:37-3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7-28)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며,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완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품에 오롯이 안겨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의 뜻을 들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과 능을 의지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적용]

성경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순모임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나의 지정의(知情意)와 양심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직하게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의지하여 순종하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과 탐욕과 세상적인 근심과 생각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평안과 특권과 영광과 사랑을 누리는 나의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 이 땅에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아니요. 대천명진인사(待天命盡人事)>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아니요. 대천명진인사(盡人事待天命), 즉 먼저 하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린 뒤 그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똑똑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니요. 천상에서 정한 길에 나의 뜻을 둘 때만 결국 길도 생기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요. 하늘은 하늘을 도우려는 자를 돕죠. 또 하늘을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완벽하게는 도울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하늘의 완벽한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자를 돕고 구원하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아니요. 천상에서 정한 이루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 간절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천상에서 결국 심판하여 파쇄할 것에 간절함을 두면 나 또한 같이 심판받아 파쇄될 뿐이죠.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 하기보단 실제 하늘과 땅의 주재가 되시는 유일한 큰 분, 크신 하나님을 마땅히 크게 보고, 그분 앞에서 나의 한없이 작음을 정직하게 알아,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선대하심에,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통치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고, 무엇보다도 그게 유일한 살 길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5-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7-9)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6-17)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19-3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7-2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 16:27-17:8)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

<일, 소명, 사명, 부르심,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 사나 죽으나>

일을 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보상으로 느껴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복이다. 어떠한 일이든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먼저 의뢰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이는 영원한 파급과 의미를 가지는 일이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요 6:27) 일할 수 있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 10:31) 할 수 있길!

천국에서도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일이다. 얼마나 고효율과 상생(相生)과 숭고한 사명과 상호 섬김과 구성원 모두의 입장에서의 희열과 신명남과 결속력과 몇십, 몇백 배의 결실과 지속 가능함과 과실을 기쁘게 나눔과 선순환 등이 이루어질까.

무엇보다도, 살 땐 살고 죽을 땐 죽더라도, 흥할 땐 흥하고 망할 땐 망하더라도,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길,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길 원한다. 그게 전략적이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오락, 모든 인정, 모든 복락, 모든 재산, 모든 인기, 모든 욕심, 모든 야망, 모든 것 결국 다 지나가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대면할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의미와 절대적인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비로소 그때가 참된 실상이고, 영원한 실상이다. 그렇기에 결국 다 지나갈 지금의 허상 속에서 영속할 본질을 잘 붙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시 14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7-29)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8-4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17-30)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13-35)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2-17)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 43:1-7)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0-21)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3-7)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18)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딛 3:4-8, 새번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딛 2:11-14, 새번역)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 1:9-12)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5-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롬 1:6)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9)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12-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눅 10:25-28)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5-2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후 9:8-11)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4-40)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사 58:6-8)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시 82:2-4, 새번역)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6-18)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전 6:11-19)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3-16)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 4:16-2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4)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59-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 8:22)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3-27)

"이때 잔치석에 함께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님, 말씀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먼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 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병력 10,000 명으로 20,000 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 낼 수 없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눅 14:15-35, 현대인의 성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 12:24-28)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9)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1-2)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히 12:1-3, 메시지성경)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7-2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5-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7-2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1-8)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3-8)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8-31)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8-32)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 20:8-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3-10)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단 12:3, 새번역)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행 20:23-25)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행 13:22-25)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26-36)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9-10)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딤후 2:1-5, 새번역)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 9:16-27)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16-25)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2-24)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후 11:21-33, 새번역)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할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후 6:3-8, 현대인의 성경)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23-38)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2-39)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 4:7-14)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16)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전 12:4-13, 새번역)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 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2:27-13:8)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롬 12:1-11)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2-4)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13-25)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전 10:31-33)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2-13)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1-13)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5-6)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15-24)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4-18)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후 4:17)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8)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 1:20)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후 5:9)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전 5:5-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엡 6:10-19, 새번역)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전 15:57-58)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21:14-17)

#
<교회 대학부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간증)>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 밤 소그룹 나눔에서 나누었듯이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세 가지의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첫째, 저는 노인사역팀원으로서 그곳에 계신 동네 할아버님, 할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할아버님, 할머님께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그 중 많은 할머님, 할아버님께서는 이 두 질문에 말 대신 눈물로 답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그시 안아드리며 "감사합니다"라는 말 밖에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맞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의 조국과 후대를 향한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나도 이분들과 같이 후대가 볼 때 이웃과 국가, 다음세대를 위해 살았다는 평을 받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고 다짐하였습니다.

둘째, 인생은 외롭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여러 외로운 개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변덕스럽고 욕심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들은 사랑이 가시로 변질되기 쉽고 고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변치 않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선교현장에서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받고 그를 힘입어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하니 가히 작은 천국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낭만이 낭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중에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늘어날 때 천국은 실현되고 확장되어간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셋째, 역시 배우자는 그리스도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맑은 영혼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진실됨, 순수함, 해맑음, 사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깎아 내리고 짓밟는 권모술수적, 제국주의적 세상의 지혜가 아닌 남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평화로 물들이는 하늘의 여유가 있습니다. 비본질에 휘둘리지 않고 항시 본질을 간파하고 궁극을 염두 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가 있습니다. '가히 거룩하시고 진리이시며 무궁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로 저는 꼭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얻고 저 또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고 다시 한 번 결심했습니다.

제가 단기선교를 통해 느낀 바는 위 세 가지와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있다면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내가 전도 당하는 위치라면'을 항상 생각하며 접근하는 것이고 때로는 말보다 사랑으로의 말없는 봉사가 더 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던 선교지를 등지고, 저는 다시 '현실'로 나오기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지구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작은 천국들을 구현시키자. 그렇게나마 아쉬움을 달래다가 마지막 날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자.'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1-2)

#
<항상 후회하는 것>

조급함에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만 살았던 순간들.
목적 성취에만 너무 치중했던 순간들.
과정의 행복보다 목적을 더 귀히 여겼던 것.
자학을 가볍게 여긴 것.
욕심으로든 조급함으로든 강박감으로든 억지로 했던 것들.

앞으로라도 졸리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성실함이란 자학이 아니다.
성실함은 그때 그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충실히 하는게 아닐까.
그릇이 되는 만큼만 살자.
그릇을 넘어 욕심을 부려봐야 스스로만 되려 초라해질 뿐.

요셉이나 다니엘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고, 다윗의 꿈도 왕이 아니었다. 그들의 꿈은 하루 하루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1-3)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22-26)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
<나를 정의하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나를 정의하는 건 재산, 직책, 학벌, 가문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나를 정의하는 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내가, 고용주이신 하나님과 피고용자인 내가, 수여자인 하나님과 수령자인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내가 맺어간 관계뿐이다. 궁극에는 그 관계에 의해서만 천국에서의 행복지수가 정해질 거라 생각한다. 이 관계는 그토록 영원한 의미와 영향을 지니는 만큼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 땅에서의 '자아실현', '사회통합', '정의구현', '가난·문맹 퇴치', '평화·번영 이룩', '국가 선진화', '세계평화'보다도,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꽃을 피우려는 노력보다도, 아버지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구제, 선교, 전도를 비롯한 그 어느 사역보다도 우선시 돼야 하는 관계이다. 달리 말해, 모든 시간의 시작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모든 시간의 끝이 아버지와의 더 크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귀결 될 때에만 영원히 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그 어느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사람 눈에 하찮게 보이는 일이든 위대해 보이는 일이든) 이룸에 있어 하나님과 진실되게 관계한 딱 그만큼만 심판의 날 남게 될 것이다(마 7:21-27, 고전 3:10-15). 위에서 말한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의 의무를(사 43:7, 고전 10:31, 골 1:16) 반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 될 뿐이다.[1]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바로 선다면, 앞서 언급한 일들에 대한 꿈을 주신 시초이자 최종 결재자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천국을 진정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로, 오직 이 관계만을 위해서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춰서며, 허리를 동이라 하실 때 동이고, 쉬라고 하실 때 쉬며, 이 땅에 거하라고 하실 때 거하고, 귀향하라 하실 때 귀향할 수 있길 원한다. 내 모든 의식과 수고가, 내 모든 호흡과 뜻이, 나의 마지막 심장 박동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위해서만 동원되고 이를 향해서만 집중되길 원한다. **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주님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나의 가장 크고 영원한 자랑이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나에 대한 정의이고 싶다.**

---

[1]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의 회담 내용은 지금의 많은 재난대책·평화정착 회담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취지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보단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내려 했던 것이, 대홍수 재난을 겪고도 피조물이 창조주의 존재와 뜻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정한 선함 대로 살려 한 것이 죄였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창 11: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39-42)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 33:3)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 16:2)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 144: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평생소원>

이제부터라도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앙망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만 앞으로의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몰입되길 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의 거듭남(갈 2:20 & 3:27, 고후 5:17, 요일 5:12, 골 3:10)도 원하고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갈 5:17-25)도 간구함은 그저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시 2:10-12, 고전 16:22-23), 내 안에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이 부숴지고 소멸되며(요일 5:21, 신 4:24, 사 4:4),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파하여지고(고후 10:4-5), 죄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게 되며(벧전 2:24, 갈 2:20 & 6:14)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곧, 아버지의 형상이(히 1:3, 골 1:19, 요 10:30)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므로(요 14:16-20, 빌 3:12, 엡 4:13, 고후 10:5, 엡 5:1, 빌 2:5, 벧후 3:18, 갈 4:19) 나 또한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충만이 거하시게 되는(요 14:20 & 17:21, 요일 4:15, 고전 3:16, 골 2:9-10, 엡 2:22 & 3:19 & 5:18),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롬 5:5, 신 30:6, 요일 4:19, 막 12:30-33, 렘 24:7) 아버지의 크나큰 기쁨이요 사랑인 자로 자라가길 원하기 때문이다(고전 8:3, 사 62:4-5, 마 3:17, 눅 2:52). 그렇게 자라가며 “모든 선한 일에 [나]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히 13:21) 열망한다.

모든 성경과 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결국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아들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요, 근원이요, 목적이요, 평생의 기도제목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이 평생토록 갈망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와의 한량없는 친밀함으로 영원토록 응답하여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 26:8)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나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

오늘 기도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물으셨고, 나는 단 하나만 구하였다. 그것을 구하고 나니 다른 걸 구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 소원만으로 황홀했다.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정말 친한 아들이고 싶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영원토록 풍성하고 충만하고 싶다고 구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 26:8)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0)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6)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33:11)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 5:7)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
<소원 중의 소원: 2024년 10월 27일>

나의 소원 중의 소원,
바람 중의 바람.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완연하고 풍성한 친밀함,
영원하고 충만한 연합.

이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도,
모든 걸 노력할 수도 있는,
그 최종, 궁극의 단 한 가지 소원.
곧,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랑과 기쁨의 연합, 교제, 사귐,
듀엣, 왈츠, 속삭임, 웃음, 낭만,
친함.

아빠의 품에 안겨,
아빠의 품에 온전히 눕고 안기어,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더 바라보며,
그윽하게, 진득하게,
온 시선을 다해, 온 집중을 다해, 온 사랑을 다해,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영원을 다해,

아버지의 얼굴,
아빠의 눈을 마주 보고 응시하며 바라보고,
더욱 바라보며,
더더욱 영원히 바라보는 것.

눈빛만 봐도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이.
다른 그 무엇도 뒤덮고 무색하게 할 만큼,
압도적인, 절대적인 사랑의 눈빛 교환.

새근새근 아빠 품에 안겨 잠든 아이처럼,
온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거센 폭풍우처럼,
나의 전 존재와 인격이 잊혀질 정도로,
아빠에 대한 사랑과 전적인 매료.
아빠와의 친함.

이것이 나의 소원 중의 소원,
의미 중의 의미,
영원히 추구할 단 한 가지의 그 무엇.

다른 그 무엇도, 나 자신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주고,
나의 영원하고 충만한 행복의 완성이 되는,
바로 그 단 한 가지.
아빠와의 친하디 친함.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앙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17:23-26, 우리말성경)

아멘 아멘.

#
<인생이란 터널 끝에>

인생이란 터널 끝에 나는 두 팔 벌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보입니다. 그 품을 꿈꾸고, 그 품만 사모하며, 그 품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 궁극적 목표이자, 존재의 의미이자, 절대적 행복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심지어 무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품은, 저의 모든 것의, 모든 호흡의, 모든 시간의 출발지이자 종착지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히 12:1-3, 메시지성경)

#
<권리, 명의 이전>

이 땅에서부터 유일하게 영원한 영광과 행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맺어가는 관계에 의한다고만 믿기에 이 관계를 삶의 가장 우선이요 전부로 여기는 나 김현기는 나의 지(知), 정(情), 의(意), 마음, 생각, 언행, 성품, 영, 혼, 육, 삶, 평생, 영원, 그리고 생명 전부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 권한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영구히 기쁨으로 의탁 드리고, 헌납 드린다. 또한 이를 어리석은 자의(自意)로써도 돌이킬 수 없음에 감사하고, 내가 드린 의탁과 헌납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음에 기쁨으로 감사드린다. 아버지의 크나큰 기쁨이요 사랑으로 빚어주시길 간구하며, 서명: 김현기 金顯起.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딤전 2: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5-40)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27-30)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16)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롬 11:29)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 9:15)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 54:10)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민 23:19-20, 새번역)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눅 22:31-32, 새번역)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6:8)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겔 16:59-62)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 24:6-7)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렘 32:39-4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 59:21)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왕상 18:37)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렘 33:6-9)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애 5:21)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렘 31:18)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 31: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5)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2)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 119:36-3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 86:11)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9-12)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 115:17-1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 79:8-13)

#
<주를 앙망함>

성경에선 인물들 삶에 관하여 단 몇 문장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만약 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다면 어떤 정의가 내려졌으면 좋을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현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특출나며 하나님께 연합되어 누리는 사랑의 친밀함이 심히 깊고 더해만 가더라”이길 기도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33:11)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삼상 3:3-4)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0)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 26:8)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시 131:2)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 62:5-7)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 16:2)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 73:25)

#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자세, 고등학교부터 그동안 인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반복적 언약과 내게 요구하신 바 정리, 2023년 10월 1일>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1-4)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행 13:2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삼상 16:12-13)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나의 자세]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12)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28-31)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눅 15:20-23)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6-17)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1-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눅 10:39-42)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 33:3)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3:1)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1-2)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
<맺음말 – 나는 왜 사는가?>

내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곧 지나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단,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천국을 가장 천국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무엇이 천국을 가장 천국 같도록 하느냐 묻는다면,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라 답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구원과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나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의 불안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왜곡된 생각을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나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나의 무정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모든 영역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복하는 만큼,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만큼이라 답할 것이다. 고로 내게 있어 이생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모든 순간의 궁극적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더욱 돈독히 되기를 소망함에 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4-7)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존재의 이유와 목적, 전심전력의 추구와 갈망, 유일한 소원과 비전: 영원한 사랑의 사귐>

영존하시는 아빠 아버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내 안에, 내 위에,
내 전후좌우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기옵니다.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노래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속삭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랑만으로 연합되어,
우리의 사랑의 사귐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아멘.

《III. 자유의지와 절대주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창 4:6-7)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창 20:6)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삼상 2:2-10)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단 5-18-31)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0-24)

“백성들은 자기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친 것을 흐뭇하게 여기고 기뻐했으며 다윗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다윗은 모든 군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 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는 이 모든 물건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기꺼이 드렸으며 또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예물을 기쁘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를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자재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 다윗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경배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각각 1,000 마리씩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술을 부어 전제를 드리며 그 밖의 다른 제사도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그 날을 즐겼다.” (대상 29:9-22, 현대인의 성경)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 1:21)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사 33:6)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신 6:24)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사 11:2-3)

“그 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 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슥 12:8-10, 새번역)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7-8)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 24:7)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렘 32:39-41)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시 81:10-13)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호 11:1-9, 새번역)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 55: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 63:17)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애 5:2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왕상 8:57-58)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 86:11)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왕상 18:37)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5)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 80: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 28:13-14)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3-14)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6-9)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롬 6:2-19)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2-14)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5-39)

#
<천둥과 비>

오늘 아침에는 천둥과 번개는 치는데 비가 내리질 않았다. 우주만물의 최종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제한적인 인간의 제한적 상식이나 계획이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전 8:17)

#
<은혜의 기류에 편승하다>

삶에 대한 깨달음이 많다고만 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기에. 깨달았어도 은혜가 없으면 깨달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은혜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은혜의 기류’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은혜의 기류에 편승하여, 은혜의 창공을 활공하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길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성령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함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고 나누는 삶. 아멘.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전 9:11)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 9:16)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슥 4:6)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왕상 18:45-46)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왕상 19:7-8)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 15:13)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0-31)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8)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9-24)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1-13)

#
<인생>

구름 위를 날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꿀을 맛보아 알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쓴 약을 넘기게 하실 때도 있고

'느리고 우아하게'(*andante grazioso*) 산책시켜주시다가도
'무겁고 세차게'(*pesante presto*) 숨을 못 가누게 하시는

가늠이 불가한
철저한 절대주권 앞에 살진데

겁과 비관으로 마음을 조리며 살 것인지
믿음과 희망으로 음률을 느끼며 살 것인지

비록 땅에 있으며
이 사이를 끝없이 왕래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지휘자와 일심을 이루어
하늘의 연주에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빼앗겨 살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
<자식 부부를 쫓고 있는 빚쟁이들의 괴롭힘을 대신 떠안은 채로 떠돌고 계신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난 85세 할머니에게 들은 지혜>

인생은 외로운 것이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도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다른 힘들고 외로운 사람 심정을 더 가까이 느낀다.
선행으로도 구제로도 씻을 수 없던 마음의 가책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자유케 됐다.

늦어도 하늘나라에서는 꼭 다시 보기로 약속하고 포옹해드렸더니 볼에 뽀뽀해주셨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 7:14)

#
<선택 1>

역사에서, 미시적 역사이든 거시적 역사이든, 우리가 자각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의(義)와 불의(不義)간의 분위기다툼, 나아가 패권다툼 속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을 강요 받는다. 앞선

수천 년 흥망성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이 선은 권고되고 악은 징벌된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면, 뒤따를 역사의 결론 또한 예측된다. 고로, 어느 편에 서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은 뚜렷하다. 의(義)가 무엇인지 모른 척 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져있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는 역사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에게 정해진 역사는 없다. 우리에게 역사란 바로 지금 집필되어간다. 고로,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 분위기와 패권을 의의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올리브 나뭇가지를 의로움 앞에 깔아야 할 때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 4:14)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 21:8-9)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수 5:13-15)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 108:1)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
<선택 2>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듯, 역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모든 이들은 살면서 이에 즐거움으로 참예할 때도 있고, 이를 갈며 대항할 때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한쪽 속성으로 더 익숙하게 될진대,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뜻과 역사하심에 즐거움으로 참예하는 데 익숙해진 이는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끝까지 '나'의 욕심과 교만을 놓지 못하고 우선시하며 절대자를 대항하여 이를 갈며 불평하는데 익숙한 이는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눅 20:13-19)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6)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예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6-8)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6-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 15:13)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 30:15-20)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 28:13-14)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살후 1:8-9)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욜 2:12-13)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차꼬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천사 천 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 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 33:16-30, 새번역)

#

<영원한 결과와 파장을 가지는 우리 영혼의 선택>

결국, 결국에 뭐가 남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사람의 영혼 외에 모든 것,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영원한 의미와 결과를 갖는 것은 사람 개개인의 영혼뿐이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이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며, 누구와 어울려 있는지, 심지어 누구를 따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개개인의 한 영혼은 전체 영적 세계에서 지극히 미약하다. 우리보다 훨씬 큰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며, 연약하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 영혼의 반석과 피난처를 고를 수 있다. 우리의 친구를 정할 수 있다. 반석과 피난처를 잘 골라야 한다. 모래사장이 아닌 굳건한 바위 위에 영혼을 세우고, 천막 텐트가 아닌 굳건한 피난처 안에 영혼을 피난시켜야 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이기적으로 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닌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참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올바른 반석과 피난처를 잘 찾아가는 가이드가 있다. 바로 양심과 정직이다. 양심과 정직이라는 가이드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영혼의 반석과 피난처를 찾아갈 수 있다.

모든 영들 위에 계시고 영적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최종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반응하고 화답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만큼의 자유의지를 주셨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양심과 정직에 따라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 나의 유일하고 든든하며 항구적인 반석과 피난처가 되는 것을 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 좋은 친구 되심을 안다. 고로 우리 어서 창조주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분의 넉넉한 용서와 그분의 넉넉한 구원과 무한한 사랑을 덥석 의지하자. 이게 지혜이고, 이게 살 길이며, 유일한 살 길이다. 나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신속히 의탁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 95:1-3)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 97:9-10)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시 96:4-10, 새번역)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9-10)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2-13)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0-15)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 86:4)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 107:9)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2-3)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146: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 25:1)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 35:9)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 103:2)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 33:20)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 130:5)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 63:8)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 119:25)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 94:19)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 6:4)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3)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 34:2)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 62:1)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 62:5)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 116:7)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1-7)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 66:9)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 86:13)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 103:1)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 138: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시 119:175)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 143:11)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 116:4)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 34:22)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 71:23)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 33:28)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행 7:59)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 49:15)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히 6:19-20)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 30:3)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 23:46)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벧전 4:19)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2)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 63:1)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 26:8-9, 새번역)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 42:5)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 38:17)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 55: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 42:11)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5)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31-39, 새번역)

#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선을 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통치가 없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일 뿐 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전 12:14)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 시나니”, 잠 3:34).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행 2:38). 육체의 소욕을 무력화하고 받은 은혜를 선한 열매로 승화시키실 수 있으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만약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긍휼의 그릇”이 아닌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롬 9:22-23)으로 택정되지 않았나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출 14:4).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사 11:2)을 간구하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하며(슥 12:10),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요 16:8),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스스로를 낮추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 63:16-17)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애 5:21)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그 받은 은혜가 선한 열매로 승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의탁드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 되어 나의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들고, 나의 배에 종 노릇 하는 교만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이 선택 조차도 바른 선택을 진실되게 하고 이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생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출 34:5-10)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왕하 22:18-20)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눅 7:29-30)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3-14)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렘 32:39-41)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8:9-11)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시 81:10-1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왕상 8:57-58)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 86:11)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왕상 18:37-39)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 17:13-14)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 80:3)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막 9:2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 25:4-7)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1-12)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 119:36-38)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6-38)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
<선한 계획>

선하신 하나님께선 모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선한 계획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로 그분께 달려가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살전 5: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욘 4:10-11).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2).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 겔 18:23-28).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시 145:8-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19-21).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당신 안에 거하여 선한 계획에 적용되도록 당신의 존재와 위엄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불가항력적이고도 경이로운 자취와 경로들을 세워놓으셨다: 자연의 절묘한 신비와 아름다움, 역사 속 인류문명의 흥망성쇠, 고통과 질병, 하나님의 법도를 따로 배우지 않고도 선하다고 증언하는 내 안의 양심, 기적적 경험이나 현상, 지속적이고 존중되는 사회의 법과 척도,[1] 인간 지식의

[1] 《선제적 낭만》장(章) <지속되는 사회> 글 참조.

한계[1] 등.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호 11:1-9, 새번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
<천국과 지옥 사이>

사랑을 생각하면 평화가 떠오르고,
평화를 좇으면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가득 차면 어느새 천국이 임해있다.

반면,
욕심을 생각하면 분쟁이 따르고,
분쟁은 울분과 반목이란 새끼를 낳고,
결국 지옥의 노예들로 전락시켜 버린다.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

[1] 《한 걸음 한 걸음》장(章) <이성과 논리> 시리즈 글 참조.

천국의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지옥의 것을 떠올릴 수 없고,
지옥에 거하면서 천국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잘 선택하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눅 16:25-26)

#
<주권>



이러고 싶은데,



이런 게 인생이다. 이것만 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라도 속히 역사의 참주관자를 찾아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속 편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1-14)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 4:14)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 33:16-19)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 23:13-15)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 19:2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 16:3)

#
<받은 은혜 헛되이 받지 않기>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 스스로 자만할 것도 없고, 주신 은혜 내가 제대로 활용 못한 것에 대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 9:1-6)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 24:17-18)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1-9)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행 12:23)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 115:1)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잠 19:3)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 7:29)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8-9)

#

<하나님의 일하심과 베푸시는 긍휼을 직접 옆에서 본다면>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아니 단 1 분 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류와 우주 만물을 위해, 무엇보다도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도 지금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신 모든 선한 섭리와 일들, 베풀고 계신 모든 긍휼과 은혜를 실제 옆에서 잠깐이라도 보고 온다면, 우리 모두는 '아 진짜 오직 은혜로만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한다고 한 일들, 내세운 것들, 자랑한 것들 이 모든 게 너무 유치하고 미미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던 것이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구원이 아니면, 나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교만한 죄인이구나.'를 절실히 느낄 것이다. 누구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그 순간에는 겸손해지고 경외감을 느끼며 자신과 같은 반역을 그치지 않는 이를 위해 조차 베풀고 계신 긍휼과 오래 참음에 감사할 것이다. (물론 그러고도 끝까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욕과 죄를 더 즐거워하고 섬기며, 죄에 종노릇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끝까지 업신여기는 뻔뻔함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원대한 사실 앞에 지금이라도 자기 기만적인 교만함과 뻔뻔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땅한 영광과 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기며, 그 크신 사랑을 그만 무시하고 외면해야 한다. 교만한 지속적 외면의 끝에는 결국 정의와 공의의 심판주 하나님과 대면할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만 남을 것이다.

이제라도, 아직 호흡이 남아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유일하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에 대한 주도권과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인 그분의 독생자 메시야 그리스도 예수께 나를 의탁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산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5)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7-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 14:6-11)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 42:2-6, 새번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고후 5:18-6:2,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눅 18:37-43)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막 10:45-52)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눅 23:39-43, 현대인의 성경)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2-20)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3)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고전 15:22-28,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17-30)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3:12-21)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히 10:29-31, 현대인의 성경)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 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삯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벧후 2:1-3:18, 새번역)

#

<Quiet Time (QT), 성경말씀 묵상이란>

큐티(Quiet Time)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수다이자 상담이자 대화라고 정의하고 싶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 관계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큐티의 과정, 이 대화의 과정은

필수이다. 큐티를 대하는 태도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짧은 본문이라도 듣는 마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깊이 묵상한 뒤 주시는 깨달음에 맞게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과의 대화, 멘토-멘티 간의 상담, 의사와 환자 간의 상담, 사제(師弟) 간의 대화, 친구 간의 대화, 군신(君臣)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모두 성립되는 대화와 같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와 이러한 다각적이면서도 친밀한 대화를 언제든 나눌 수 있고 매일 나눌 수 있다는 특권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그 무엇보다 귀한 특권인 것이다. 큐티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인 것이다.

물론 이 대화가 나에게 제대로 들리고 유익하려면 전심과 진심을 다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타성에 빠지지 말고, 대화가 꾸준하도록 훈련하며, 죄를 회개하고, 대화의 동기를 정화하고, 성경을 다독하고 공부하며, 나의 목소리나 사탄의 방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청종하는 마음으로, 전심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 119:10-19)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 119:32-38)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 119:47-52)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96-105)

#
<우리의 영원한 성경 스승, 성령님. 많은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하심, 가르치고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낭만을 누리게 되길 기도하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벧후 1:16-21, 새번역)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벧후 3:12-18, 새번역)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딤전 4:1-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딤후 4:2-4)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1-6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 1:7-10)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 2:1-19)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 5:4-6, 현대인의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6-14)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63-69)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18)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1-3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 14:6-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3-2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 15:26-2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 16:7-15)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0-28)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요일 2:27-28,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31:33-34)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5-2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1-4)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느 9:19-21)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사 50:4-5)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0-23)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창 41:15-40)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단 1:17-20)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단 2:18-49)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단 4:6-3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단 5:4-31)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단 9:2-23)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 119:26-38)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23-130)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 119:159-176)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 11:29)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 18:14-19)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행 3:14-26)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 17:5-8)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4-26)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막 13:9-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눅 12:11-12)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눅 24:25-50)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3-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욜 2:28-29)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1-4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행 4:1-21)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행 8:29-40)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행 10:17-48)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7-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4-13)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 14:1-40)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2-13)

#
<인간의 얕은 지식과 도덕관과 신학을 뛰어넘어, 위대하고 광범위하게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섭리와 역사 경영과 관용과 은혜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사랑하길 원한다>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3 월 25 일 본문]

사무엘상 27:1-12

[묵상]
비록 다윗이 인간적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사에 딱 정답이 되는 선택을 못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선 그런 다윗을 위해 1 년 4 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걸 허용하시고,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은혜와 권능을 다윗에게 베푸셔서 전투와 전쟁들에서 지속적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수 된 민족들을 치게 하시면서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거짓 보고까지도 하나님은 아기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애굽과 그랄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았음에도, 두 번 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음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고자 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창 20:6).

이렇듯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의 중심, 그랄 왕 아비멜렉의 중심, 다윗의 중심.

하나님께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예배와 최우선 순위가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우리의 나머지 일상다반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고, 업고 인도해 가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용되게 하신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 말한 요셉의 간증도 생각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적용]
나의 중심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며 기뻐하는 나의 일생이 되길 원하고, 오늘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러 지체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인간의 얕은 지식과 도덕관과 신학을 뛰어넘어, 위대하고 광범위하게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섭리와 역사 경영과 관용과 은혜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사랑하길 원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선한 목자요, 구원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방패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과 사랑이 되십니다.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전 영역과 나의 전 존재에 대한 주도권과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탁하고 헌납 드렸고, 다시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내 안에, 내 삶에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 하사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양육하시고, 다스려주옵소서. 나의 일생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뜻대로, 온전히 빚어지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걸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 깊고 커져만 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의 구원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4 월 12 일 본문]
사무엘하 2:1-11

[묵상]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인정됐을 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쿠데타를 하거나 백성을 휘두르거나 마음대로 정치적 야욕을 펼쳤던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하고 물으며,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였다.

긴 광야 생활 끝에 비로소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왕으로 추대됐음에도, 온유와 겸손 가운데 이스라엘 전국민의 마음과 전국의 상황적 여건이 온전히 순적히 마련될 때까지 기다렸다. 유다 왕이 된 후에 바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알맞은 때를 기다리며,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돌보고 헤아리며 기다렸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고,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며 정치 career 를 이어갔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조급함은 고려하지 않았다.

[적용]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죄된 탐욕과 우매와 조급함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하나님과 의에 대해 깨어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 새사람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요, 단순히 현세뿐 아닌 내세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 최상, 최고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완전히 내어드리고 의탁한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늘 청종하며 동행하길 원한다.

[기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分衿)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요 기쁨이요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짚신을 팔든 정책을 팔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사랑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유일한 소원은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요, 충만한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만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발발거리는 인간적 사랑과 정치의 한계와 반석 같이 오직 굳건한 하나님의 섭리>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4 월 15 일 본문]
사무엘하 3:12-21

[묵상]
오늘 본문에 나온 위와 같은 구절들 중 특히 다음과 구절들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여러 인간 등장인물들이 여러 꾀를 내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발휘한답시고 발발거리며 돌아다니고 여러 사건들을 만들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 가운데 아내를 뺏기는 피해를 입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 사람도 실은 일반 가요에서나 나오는 인간적 사랑 정도로 ‘돌아가라’는 권세 있는 자 한 마디에 바로 또 체념하고 돌아가는 실은 얕으나 인간적 감정만 충만한 인간적 사랑의 민낯을 바로 보여줍니다. 상대를 위한 의지적 헌신보단 자신의 감정에만 스스로 도취되다가 상황이 조금만 위태롭게 변하면 바로 저버리는 얕디얕은 사랑일 뿐입니다.

인간들의 여러 얕은 수와 행동들이 전개됨 가운데 자신들은 아마 스스로를 '지혜롭다' '기막힌 아이디어다' '난 진정한 사랑을 한 자다' '난 진정한 대의명분을 위하는 자다'라며 거짓 위로하고 부추겨 세우는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사실은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잇속을 '사랑' 또는 '대의 명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꿩 먹고 알 먹고' 느낌으로 신나서 발발거리며 다니고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본문들을 볼 때, 오직, 오직 홀로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요 통치자 되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남게 되고, 굳건히 세워져 가며 그대로 전개됨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인간의 작음을 알아 마땅한 겸손을 배우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을 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 어찌나 다행이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적용]
나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인간적 꾀와 지혜를 높이 여기는 한심한 발발거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있는 경외감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하나님과의 깊고 넓은 많은 사귐의 추억, 사랑의 동행으로 나의 일생을 가득 채우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
역사의 홀로 주관자요 통치자요 심판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의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저를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과 추억과 낭만으로 가득한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4 월 22 일 본문]
사무엘하 7:1-17

[묵상]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그 무엇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그저 그의 진정 어린 마음만 받고도 세상을 다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부유하게 하심이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상급과 보상과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왕위를 세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적용]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고 전하며 나누게 하시되,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복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전부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교제와 동행을 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더욱 집중하는 매 순간, 매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무궁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바로 나의 복이요, 상급이요, 보상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의롭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빚어가 주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극진한 은혜를 전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만 하는 나의 평생과 영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4 월 29 일 본문]
사무엘하 12:1-15

[묵상]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 51:7-15)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2-23)

[적용]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와 사모하는 바를 늘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열렬하고 압도적인 절대적 사랑이 있는지를 부지런히 수시로 점검해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매료되도록 하나님께 몰입하며 집중해야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1-3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6:19-20)

[기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4)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 됨을 인하여, 천국 영생 유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약속받았다는 사실 단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하여주옵소서.

나의 힘도, 능도, 제사와 번제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기뻐 환영하고 따르며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평생과 영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다 의탁 드리오며, 나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6 월 6 일 본문]

예레미야애가 1:18-22

[묵상]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애 1:18)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최종 주권자가 되시며 우주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땐 우리가 속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9-10)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긍휼하심에 나를 의탁하며, 그분의 통치와 주권에 나를 순복시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분을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 보다 위에 있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을뿐더러, 멸망의 심판만 자초하는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은 샤머니즘에 불과하다.

[적용]

늘 회개에 부지런하며, 그분에게 나를 내어맡기고 그분께 순복하는 삶이 되자.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 26:1-2)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 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 12:1-29, 현대인의 성경)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완악함과 패역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죄의 뿌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의와 통치만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내 영혼과 삶에 오직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순복시키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땅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평생토록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무한한 사랑 안에 자유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 전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요, 구원과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6 월 13 일 본문]
예레미야애가 3:55-66

[묵상]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애 3:56)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거 같아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작디작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셨으면, 설령 그렇게 그대로 죽은들, 그렇게 사라진들, 그렇게 끝난들, 죽은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며,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께 아신 바 된 것이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적용]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아신바 된 것, 그분께 발견된 것, 그분께 들으신바 되고, 그분의 자녀 된 것만으로, 영원히, 영혼 충만히, 기뻐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양하는 일생과 영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면 다 이룬 것이요, 다 성취된 것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지극히 고귀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완성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내 영혼과 삶 전부를 온전히 드리오니,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6 월 14 일 본문]
예레미야애가 4:1-10

[묵상]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 거리에 있으며"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날 북한 지역의 현실을 생생히 증언하는 듯합니다. 내가 남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 자신과 한국교회와 한국을 돌아보며 스스로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벌어진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 오직 회개만이 답입니다.

[적용]
내가 나를 높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 하며, 창조주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등한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롯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이 땅에 것에 혈안이 되어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단 이 땅에 것에 질척대고 껄떡이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배설물과 같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애 5:15-16)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애 5:20-21)

자비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히 풍성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며,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에 나의 전부를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인류의 유일한 메시야,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만 깨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충만한 임재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천국을 유업을 얻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존재의 전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사랑의 주권에,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의 손에 온전히 의탁 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6 월 27 일 본문]

사도행전 4:13-22

[묵상 및 적용]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17-19)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증인 된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겁박과 공격 앞에서도 결코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다면 더 이상 죽음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압도적으로 더 숭고하고 위대한 가치와 목표가 있다면,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까지도 넉넉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음은 그 다른 어떤 이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며, 우리가 결코 잃거나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주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에 대한 순종이 그 다른 누구에 대한 순종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끝까지 아쉽거나 버리지 못할 것, 끝까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1-1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8-39)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 15:15-20)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눅 10:18-1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18-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 1:20)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8)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7-18)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 11:32-40)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5-39)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가 바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과 전 존재와 평생의 삶을 모두 아버지께 헌납 드리오니, 기뻐 받으사 오롯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의 임재로, 동행하심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이고, 그 하나면 실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영원한 구원과 주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의 가는 길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아시나니 나는 그저 따릅니다>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8 월 12 일 본문]
사도행전 21:1-14

[묵상]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의 인생의 궤적, 목표, 큰 설계도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디를 거치어 어디를 향하는가?

고등학교부터 나의 기도 제목 1, 2, 3 순위는 늘 동일하다. 첫째, 하나님과의 깊고 견고한 친밀함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지향한다. 둘째, 한국 교회(내가 속한 가정 교회 포함)의 회개와 연합과 부흥이다(결혼 전에는 '좋은 남편 되기'가 두 번째였는데, 결혼 후 좀 지나서부터는 내가 속한 '가정 교회'도 '한국 교회'의 소속으로 놓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셋째, 대한민국, 한반도와 부속도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공의와 은혜가 충만한 날이 와서, 이 땅 거주민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필리핀 선교사, 누군가는 몽골 선교사, 누군가는 인도 선교사, 누군가는 베트남 선교사 등이 계시지만, 나는 1 차적 사명으로서의 정체성은 천국에서 한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세 가지 간구의 평생소원과 사명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 나는 아직 만 34 세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많은 여정을 거쳐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여정이 예상된다.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로스쿨까지 3 개국에서 17 군데를 다녔다.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다. 그리고 2015 년 6 월(만 26 세)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된 후, 9 년 차 변호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광장, Samsung 바이오에피스, LG 상사, SK 하이닉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 법무실장, SK 바이오사이언스, 코스닥 상장된 지주회사 법무담당, 북한인권 시민단체 활동, 현재는 코스닥 상장된 의료기기 회사 법무 파트장으로 있다. 총 8 개 회사, 겸직하거나 프리랜서로서 잠시 도왔던 회사와 북한인권 단체들까지 하면 총 12 개의 조직을 거쳐왔다. 9 년차 변호사인데 12 개의 법인을 거쳐왔고 현재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오는 9 월 1 일부터는 기독교 방송국 CTS 기독교 TV 에 첫 사내변호사이자 유일한 사내변호사로 입사하게 된다. 현재 회사에서는 회유성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CTS 로 가면 연봉은 현재의 반 이상 줄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간다. (물론 그래도 대기업 일반사무직 과/차장 급 연봉은 되기에, 다 내려놓고 오지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의 비해선 순종이라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선 상당한 결단과 순종이다.)

CTS 가 나의 평생직장이 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그다음 곳으로 부르시리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선한 목자 주 예수께서 다시 또 부르고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껏 인도해오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주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만 의지하며 산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떠오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5-26)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신 32:9-1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4)

지금도 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고 견고한 친밀함이며, 이를 위해 살기도 죽기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온다. 이를 위해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취하라 하시면 취한다.

시편 말씀들도 떠오른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3-4)

방금 읽은 시편 27 편 4 절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3 장 23 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적용]
CTS 를 가기 전에 현재 직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최대한 회사를 이롭게 하고, 가기 전까지 더 많은 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더욱 드러내며 더 많은 전도를 하고 가야겠다.

[기도]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나의 일생이, 나의 영혼과 삶 전체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존재와 일생의 삶 전부를 아버지께 기쁨과 사랑으로, 온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의탁하였고, 다시 또 의탁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영원토록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의 선한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QT 성경말씀 묵상: 2024 년 4 월 11 일 본문]
열왕기상 4:1-19

[묵상]
새로 세워진 솔로몬 정권에 여러 직책자들이 세워진다.

아래 구절들에 따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 최종 권세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거나 그분에 의해 처단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를 거스를 수 없고, 이에 대한 모든 대항은 무의미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대항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 통치에 대한 모든 기쁨의 순종과 순복은 하나님의 통치의 선한 통로가 되고, 그런 순종의 사람은 영원한 상급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롬 13:1)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단 7:25-27, 새번역)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1-1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특히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만물 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국에 그의 재림과 함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만유의 주로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엡 1:20-22)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0-28)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이자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다. 최종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요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사명과 직책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의 선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이자 사명이요, 특권이자 기쁨인 것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5-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만 우주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인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의 최종 주권자가 되시고,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사랑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나의 영혼과 삶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내 영혼과 삶에 좌정하사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도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로 장성해가도록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의 선한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환영하고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기도 1>

기도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분 앞에서 나의 사람 됨을 인정함에 있지 않을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 5:2)

#
<기도 2>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곧 나의 뜻과 의와 나라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기도가 길어질 때면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다.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에 대한 매료됨과 그것이 내 안과 이 땅에서도 구현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기도. 혹은, 내가 내 뜻과 의와 나라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으로 인한 부딪기고 진땀나는 아무리 해도, 심지어 응답을 받아도 씁쓸한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약 4:2-3)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겔 14:2-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롬 10: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막 14:36)

#
<기도 3>

그분께선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선 완벽한 분이시고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매료되길 기대하기 보단 내가 하나님께 매료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완전함과 절대주권자 되신 그분의 존전 앞에서 마땅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영혼 깊숙이부터 삶 전반에 이르기까지 더욱 더 당신을 닮아가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빚어주시길 기도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수 5:13-15)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9-10)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히 13:20-21)

#
<기도 4>

모든 기도의 열쇠는 회개이고, 모든 기도의 궁극적 응답은 하나님과의 영속적 친밀함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3-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
<기도 5>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도란,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이거나 주문적인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무엇보다도 신뢰와 사랑을 주고 받는 사귐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 6:5-9)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 26:8)

#
<기도 6>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정의(知情意)를 포함한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공로로 인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역사)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이고 대화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열매 맺는 기도가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반응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며,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의 구원과 영적 부흥 위한 중보이며,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이고, 이를 인내로 기다리는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자 교제이고, 교회의 연합의 단초가 되며,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 관련 생각해 볼 질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인격적 교제란 무엇일까? Living, loving relationship 은 무엇일까? 반대로 죽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죽은 우상을 향한 나의 욕심에 기반한 주술적/주문적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대화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
<응답 받는 기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2-1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7-1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2-2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3-14)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 9:31)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6-27)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3-18)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9)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행 3:12-20, 새번역)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8:9-17)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 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 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거역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법을 어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으므로 주의 종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은 지금까지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준비해 두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행위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거두소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황폐한 주의 성전을 돌아보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처참한 우리의 상황과 황폐한 주의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하고 있을 때 전에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되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듣고 네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단 9:2-2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곳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 때 주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에 대하여 들은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께서는 쉽게 노하시지 않고 사랑과 자비가 많아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하여 자손 삼사대까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민 14:11-20, 현대인의 성경)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엡 6:18)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 1:20-21)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9-13)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9-12)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5-15)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1-33)

#
<마땅한 겸손>

엄밀히 말해 ‘-을/를 해야겠다’는 말의 근본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잠시 잊고 하는 소리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 4:14-15). ‘선행을 행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죄로부터 돌이켜 의를 행해야겠다’, ‘성화돼야겠다’ 등 극히 선해 보이는 일들 조차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린 안다. 타락한 인간으로부턴 어느 선한 것 하나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는 선행과 성화의 노력이 ‘자기 의’로, 사랑이 ‘집착과 욕심’으로, 회개가 ‘외식’으로,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고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히 6:3)라는 마땅한 겸손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3-10)

#
<사랑하시기에>

물질의 원자들은 일정 패턴이 없이 진동한다고 배웠다. 즉, 우주만물은 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주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거대한 물리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원자들이 제 위치를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이들을 다스리는 3 차원 물리법칙을 세운 3 차원 이상의 주권자가 있음이 분명하다(창세기 1 장).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잠 8:28-29, 새번역).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렘 5:22, 새번역).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시 119: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시 19:1-6).

은하계도 질서로 통제하시는 이 분은 말썽꾸러기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충분히 어느 법칙에 의해 온전히 통제되는 로봇처럼 만드실 수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자유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심은 그분의 왕권에, 그분의 사랑에 진심을 따라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테다.[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자유의지와 절대주권>

인간은 충분한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주권이 있으시다. 인간 자유의지의 충분한 정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환영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항할 수도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자유의지이다.

---

[1] 《선제적 낭만》 장(章)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동물과 다른 점> 글 참조.

단,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써, 인간의 어떠한 대항적 자유의지 행사에도 아무런 영향도, 일말의 타격도 받지 않는 절대적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4)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눅 20:17-18)

고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할지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라. 이제라도 죄로부터 돌이켜 메시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30-33)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 27:50-5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4-5)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9-21)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막 12:1-9)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 2:1-1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사 14:24-27)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3-17)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9-17)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 19:11-21)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딤전 6:15-18)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13-17)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9-12)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 23:11)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시 25:14)

#
<포도원의 주인과 반역하는 종들, 건축자의 버린 돌과 보배로운 모퉁이 머릿돌, 보배로운 산 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 (마 21:33-46)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막 12:1-11)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눅 20:9-18)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0-1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30-33)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5-18)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36-41)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4-10)

#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구원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5-36)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20-30)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2-3)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5)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6)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벧전 3:22)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롬 10:9-12, 새번역)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롬 14:8-9)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20-23)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20-21)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4-20)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2-28)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11: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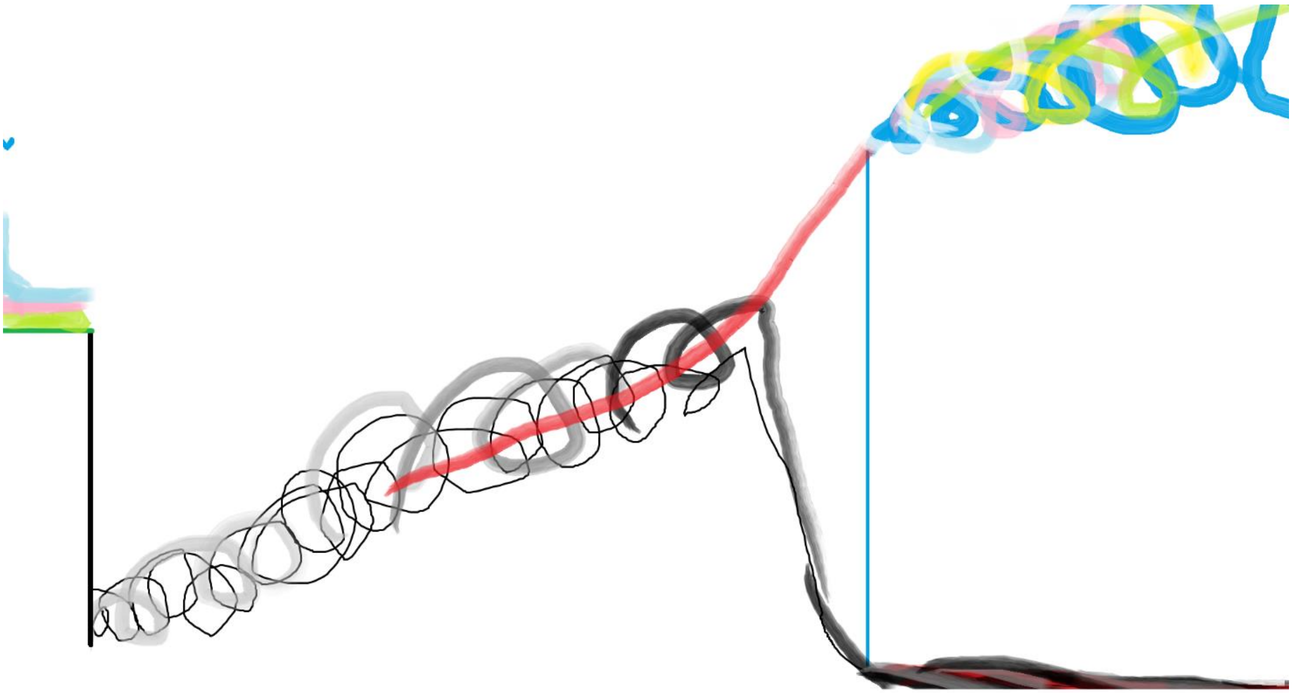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3-16)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1-15)

#

<역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 1:6-10)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9-17)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 22:11-14)

#
<맺음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단 4:28-37, 새번역)

#
<자유의지와 절대주권의 궁극적 목적: 사랑의 교제>

살 길이 기도밖에 보이지 않아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제게 있어 기도란, 그 무엇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 116:3-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2-3)

“야훼여, 당신을 찾는 자를 아니 버리시기에, 당신 이름 받드는 자 그 품에 안기옵니다.” (시 9:10, 공동번역)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 2:16)

《IV. 구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8-23)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행 10:35)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잠 19:23)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시 85:9)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 103:13)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 145:18-19)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시 49:7-8, 새번역)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시 33:16-19)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 63:17)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애 5:21)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 80:3)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 9:27-28, 새번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눅 10:25-28)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 19:25-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6-27)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눅 18:26-27)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1-5)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8:1-16)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딛 3:3-7, 새번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16-2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1-6)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4-1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딤전 2:4-6)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 33:29)

#
<복된 소식, Good News>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속죄함을 위해 친히 대신 죽으시고, 또 완전한 의로움과 권능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 하사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셔서, 생과 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역사 속 인물은 예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구원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의와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1]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화목하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2]

아멘 찬송 받으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만주의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사랑하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추격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됐고, 예수를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의로움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도 은혜로 허락되어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원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전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많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1] 《자유의지와 절대주권》 장(章) <선한 계획> 글 참조.
[2] 《비전》 장(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향하신 뜻: 사랑> 글 참조.

#
<예수 십자가의 의미>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검찰과 법원, 국가 법령에서 나를 무혐의, 무죄, 합법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리 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요, 최종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선이시고, 절대 정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완전히 무죄인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모두 그렇게 심판에 처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1]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벌 십자가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모두 십자가에서 동시에 성취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선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창조된 본연의 형상과 목적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 13:20)

---

[1] 《자유의지와 절대주권》 장(章) <선한 계획> 글 참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8-19)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 1:3-5)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롬 5:8-11, 현대인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롬 3:22-26, 현대인의 성경)

#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친구에게>

친구야, 나에게 이런 질문을 줘서 고맙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하느라 좀 늦었어.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하자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최종 주권자 되시는(사필귀정과 권선징악), 만왕의 왕, 신중의 신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야.[1]

이를 위해 우선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완벽히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메시야)인 것이지! Merry Christmas!

---

[1] 《자유의지와 절대주권》장(章) <선한 계획> 글 참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 짊어지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신 거지!

불온전한 죄인인 인간은 영겁의 세월을 거쳐도 불온전한 노력밖에 낼 수밖에 없는,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를 수 없는, 불온전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 달리 말해, 인간은 도저히 인간 스스로를 온전히,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지(성철 스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죄가 "수미 산"보다 높다고 정직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불온전함과 죄악을 친히 대속하시고(그분의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불온전함과 죄악을 친히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신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인 거고, 은혜인 거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이 너무도 귀한 선물을 우린 그저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멘!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무서워하며 공포에 질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참 자유와 행복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세상의 그 무엇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원히 굳건한 자유와 행복과 평강!

나의 좋은 친구인 너를, 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복이 너에게도 임하길 기도해!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1-23)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눅 2:9-14, 현대인의 성경)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요 1:1-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 3:16-18, 현대인의 성경)

#

<십자가와 부활: 2025년 4월 18일>

(ChatGPT와 공동 작성 후, 장시간 나의 개별 검수 및 전반적인 세세한 수정으로 공들인 글)

✝️ 2025년 4월 18일 오늘은 성금요일(Good Friday) 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메시야(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일요일 🌅,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 무덤을 이기시며 부활하신 🙌✨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Easter Sunday)이 다가옵니다! 🎉👑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 핵심 요약

🔹 1.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 이사야 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2.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크고 적극적인 표현이며,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야(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원입니다.

📖 요한복음 3:13-16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로마서 5:8-9 (새번역)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 요한복음 17:2-3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3.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과 은혜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 (곧, 감사함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영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

롭다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로마서 3:22-2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 빌립보서 3:8-9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4.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에베소서 2:13-16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 고린도후서 5:18-19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 로마서 3: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 에베소서 5:2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갈라디아서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 에베소서 1:3-6 (표준새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 5.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26:39-54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 히브리서 10:9-12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 성경적 요약

🔹 1.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의로우심의 선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입니다.

📖 로마서 1:4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사도행전 2:23-24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 사도행전 13:33-3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 베드로전서 1:20-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 2. 우리의 구원과 칭의('의롭다 칭하심')의 확증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 로마서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로마서 5:10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 사도행전 13:37-39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 3.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부활과 영생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 고린도전서 15:20-2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요한복음 11:25-2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빌립보서 3:20-21 (새번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요한일서 3:2 (새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죄와 죽음,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선언입니다.

📖 고린도전서 15:55-57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히브리서 2:14-15 (새번역)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 요한일서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로마서 6: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 디모데후서 1:9-10 (새번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 에베소서 1:19-22 (새번역)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 5.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 마태복음 28:6, 18-20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요한복음 14:16-23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 고린도후서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 에베소서 3:15-19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로마서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히브리서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 요한일서 2:1-2 (새번역)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 6. 복음 전파의 중심 메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자 능력의 실체이며, 우리가 삶을 다해 전하고 선교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 사도행전 2:31-38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 누가복음 24:46-48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이라."

📖 고린도전서 15:3-6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 마가복음 16:15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9-13, 우리말성경)

🕊️ 🙏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이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독생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 영혼과 삶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며, 주 예수님 홀로 저의 영원한 주님과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과 중보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기 원하오니, 주 예수여, 저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동행,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선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빚어주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복음 #구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은혜 #십자가 #부활 #성금요일 #부활절

#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11월 23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생명과 사망을 모두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천국 영생의 길을 완전히 마련하고 성취하신
영원하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친히 자신을 희생하여
죄의 포로 된 우리를 그분의 의로써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접기도 🙏

"사랑과 권능의 주 예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속죄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주(救主)요 유일한 주(主)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영혼과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저를 친히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거룩한 연합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복음 #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예수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구원 #영생 #행복 #천국

#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25년 12월 24일>

📖 누가복음 2 장 11 절 묵상(2025 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ChatGPT 및 Gemini 와 공동작성)

🖤 1️⃣ "너희를 위하여" —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오신 사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경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인간의 가능성을 평가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Good News)은, 다른 모든 세상 종교처럼 인간에게 스스로의 공로와 노력과 치성으로 신에게 올라오라고 채찍질하는— 그러나 평생 결코 이를 수 없는 — 그런 것이 아니라,
👉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사랑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무너진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 구원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2 "구주" —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잇는 유일한 다리

성경은 예수님을 "위로자", "조력자", "삶의 코치" 정도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 "구주"(Savior)로 증언합니다.
구주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환경, 제도, 정보 부족에서 찾지 않습니다.
📌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죄이며,
📌 죄의 가장 치명적 결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먼저 세상을 고치러 오시지 않았고, 먼저 제도를 개혁하러 오시지 않았으며, 먼저 인간의 자존감부터 세워주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 죄인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유(Manger)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귀엽고 따뜻한 장면일 뿐 아니라,
👉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 3 "그리스도 주" — 진정한 왕이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Christ), 곧 메시아(Messiah)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약속된 참된 왕을 뜻합니다.
"주"(Lord)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나 도덕 교사 정도가 아니라,
👉 왕 중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곧 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 왕의 처음 오심(초림)은 인간이 기대하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시나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으셨고, 주님이시나 억압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이 땅에서 즉각적인 정치적 지배를 통해 통치하시기보다,
👉 먼저 십자가에서의 자기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 은혜란, 죄가 그냥 묵과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온전히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천국 영생의 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 됨의 길을 우리 앞에 친히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가르침이나 원칙이 아니라,
👉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신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 4️⃣ 부활 — 십자가가 참된 구원임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그분은 숭고한 순교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 사망은 죄 없으신 그분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비극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신 온전한 대속(Redemption)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제사로 받아들이셨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부활을 통해 "이 구원은 참되다"라고 온 세상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이 참되고,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으며,
👉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유일한 구주로 공식 선포하신 판결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이시며,
👉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영생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은
👉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옛 질서가 끝나고
새 생명의 질서가 이미 열렸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분 안에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자,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이 현재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 5 성령 —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내 삶이 되다

하나님의 영 성령(Holy Spirit)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란 역사 속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① 구원을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조명과 거듭남)
-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여실 때, 예수님은 하나의 역사 속 인물 정도가 아니라
👉 나를 위해 오신, 지금도 살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구주로 믿어지도록 하십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교적 부담이 아니라
👉 죄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고,
- 예수님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은 수치나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유와 생명의 길이 됩니다.

② 내 삶의 주권을 기쁘게 주님께 맡기게 하십니다(통치와 인도)
-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고,
👉 신뢰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길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랑과 권능의 왕이심을 보게 하셔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맡기게 하십니다.
- 또한 하나님을
👉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대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를 맡기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선택 속에서도,

👉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과 생명을 누리도록 이끄십니다.

③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십니다(성화와 증언)
- 성령은 우리가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 삶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담대함을 주십니다.
-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되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아니라

👉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살게 하십니다.
-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 끝까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담대함과 인내를 주십니다.

📌 성령께서는 우리를 단지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며, 필요하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희생까지지도 감당하게 하셔서

👉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이자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Indwelling)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주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유일한 참된 주님으로 모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따르도록 저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제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6️⃣ 재림과 심판 — 복음은 마지막까지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초림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 다시 오셔서(재림)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구유에 누인 아기가 아니라,

👉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불의와 거짓, 눈물과 죽음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이는 감정적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 악과 거짓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자, 부당한 상처와 억울함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집행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 천국과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 곧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의 영원한 단절, 곧 지옥이라는 영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금의 일시적 위로에 그치지 않고,
👉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며, 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소식이자 참되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 7️⃣ 오늘을 향한 복음의 초대 (실천 적용)

🌿 1.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한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아직도 “조금 더 정리되면”, “조금 더 나아지면”, “언젠가는…”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이렇게 초대합니다.
👉 “아직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선해서가 아니라,
👉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준비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우리의 불완전함 위에 더해지는 그분의 완전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완벽해진 뒤에 오라고 부르신 적이 없고,
👉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위하여 오신 구주이시여,
제 영혼과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 2.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모든 선택을 혼자 감당하며 삶의 주인이 되어 버티고 있었다면,
복음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유하게 하기 위해 주가 되셨습니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미약한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미련하고 각박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참으로 쉽고 자유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 3. 이 복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기쁨을 누려 보십시오

이 기쁜 소식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소식이기에, 머물기보다 흘러가도록 주어졌습니다.
꼭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정답을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단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천국 영생의 소망을 발견했어."

어쩌면 그 누군가는 지금 이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는
👉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당신의 말과 삶을 통해 다가가시길 원하십니다.

🙏 마무리 기도

사랑과 주권의 주 하나님,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제 뜻과 판단을 기준 삼아 살았던 모든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제 욕심과 두려움, 계산과 안일함을 앞세웠던
모든 불순종을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영원히 살아 계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영혼과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 삶과 영혼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 마음에 더욱 확증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새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기쁨을 숨기지 않고, 말과 삶으로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예수그리스도 #메리크리스마스 #구원 #은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서 지금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가: 2026년 2월 2일>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서,
지금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가

(ChatGPT와 공동작성)

1️⃣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했는가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단순히 "착하지 않음"이나 "도덕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 ❌ 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 상태
- ❌ 정죄: 잘못하면 끝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삶
- ❌ 죽음: 육체적 죽음 +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 ❌ 헛된 인생의 굴레:
의미·가치·사랑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삶

👉 그래서 우리는
-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해야 하고
-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며
- 성공해도 마음 깊은 곳은 공허한 상태로 남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 예수님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을
-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결과를

👉 십자가에서 전부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 부활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실제로 깨뜨리신 분이심을
- 죽음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 길이 열렸음을
-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회복되었음을

✔️ 우리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3️⃣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복음은 단지 "상태를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꿉니다.

🟢 ①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
-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고
-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 ②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거나 조건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 ③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상속자요 동행자"
- 혼자 인생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가 되었고
-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 ④ 버텨야 하는 삶이 아니라 "안식하는 삶"
- 잘해야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

🌿 그래서 복음은
- 참 복입니다 →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 참 자유입니다 →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참 안식입니다 → 인생의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스로를 구원하려다 지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대신 짐을 지시고,
원수나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 감사와 믿음의 영접 기도

하나님,
제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지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혼자 증명해야 했던 인생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저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힘과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저의 주님으로
영혼과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제 영혼과 마음과 삶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불안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해외 선교를 앞두고 준비한 영문 복음전파 및 영접기도>

Good morning, brothers and sisters. It's a great joy to be here with you today, and I bring you a message of profound hope, love, and redemption – the Gospel of Jesus Christ.

God's love is bigger than anything we can imagine. We exist because of God's love. He created the universe and humanity, and breathed life into us, for us to experience love, peace, and joy of eternal life in Him.

However, there is a problem. We have sinned, and our sins have separated us from such loving, eternal relationship with God. Romans 3: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Romans 6:23 tells us,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do not worry, there is good news for us. God has given us a way back to Him, and that way is Jesus Christ. Jesus, the sinless Son of God, came to our world, taught us about the Kingdom of God, performed many miracles and signs, and lived a perfect, sinless life, in service of humanity. His most impactful act was His sacrifice on the cross for our sins. He suffered and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and erase our sins.

And yet, that wasn't the end of Jesus' life! As God's perfect Son, death could not keep hold of the sinless one, and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he resurrection confirmed Jesus as the divine Son of God.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provided the way for us to come back to God, reunite with God,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have eternal life in Him.

Romans 6:23 reads on,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John 1:12 says,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And of course,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let us celebrate and rejoice in this Good News of Jesus Christ. Our salvation through Jesus is only a heartfelt prayer away. In it, we acknowledge and repent of our sins, and put our trust in Jesus as our Savior and Lord, and thereby receive His forgiving and saving grace.

I'm sure all of us need and desire such saving grace. Shall we pray?

> **"Dear Almighty God, I know I am a sinner and I seek Your forgiveness. My sins have pushed me away from You, but I now repent of my sins, and seek Your forgiveness, love, and presence.**
> **I believe in Jesus Christ, Your sinless Son, whom You sent to die on the cross for my sins. He bore my punishment on the cross, and was raised from the dead.**
> **At this moment, I welcome and accept the risen Lord Jesus Christ into my life as my only Lord and Savior. I give Him full control over my life, heart, and soul, now and forever.**
> **Thank You, God my Father, for Your gift of salvation through Jesus. Please fill me with Your Holy Spirit, and help me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You. From now on, I am Yours forever.**
> **In Christ Jesus' name, I pray. Amen."**

Thank you for listening!

#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가진 친구에게>

네가 보내준 글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치려는 수사학적 질문들을 던지는 거 같고, 나부터도 돌아보게 되는 글인듯하다. 우선 기독교인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 사람 모두에 대해 말하며 시작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주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지. 즉,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영생하길 바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부여받은 자유의지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데, 즉, 죄를 짓는 데 사용했고, 이로 인해 공의롭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는 분리가 생기면서 우리는 사망 아래 놓이게 됐는데, '사망 아래 놓였다'는 말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인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풍요로운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더 이상 영원한 풍요로운 천국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의 단절, 즉 영원한 벌, 즉 지옥 아래 놓이게 됐다는 의미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죄와 그로 인한 사망 아래 놓아두실 수 없어서, 그분이 직접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상 죄 없는 유일한 사람,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 스스로 인류를 위해 죄의 대속물이 되신 거지.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야,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이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그 예수님은 그러나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 또한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되시며, 사망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죄 지은 우리를 고발하며 영원한 벌에 잡아두려는 세력)를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과 권능으로 쳐부수시고, 부활하셨어!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들어왔듯,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사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회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것이지. 즉, 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다시금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를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고도 표현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종교적 열심이나 치성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우주적 대속의 공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덕분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혜(즉, 선물)이라고 하는 거지. 오직 은혜로,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사망을 면하고 생명으로, 즉,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답게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우리도 정말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본받아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게 네가 보내준 글의 취지인 거 같아. 그래서 나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의로우신 구주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지만, 사실 그러기 어려운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도 있는 것도 분명하여, 우리는 늘 회개에도 부지런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의탁하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 성령님(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가시지. (이걸 “성화(聖化)”라고도 해.)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죄 사함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영생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천국 영생도 은혜인 것. 고로 우리는 우선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우린 죄인으로서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함을 인정하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와 통치와 인도하심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다시금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지.

아멘. 나의 친구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마 20:2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딤전 2:4-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 3:16-18, 현대인의 성경)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요 6:40,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댓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골 1:13-23,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골 2:13-15,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 2:5-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 2:24, 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히 2:14-1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롬 5:6-21,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와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 있다고 여기십시오." (롬 6:6-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딤후 1:9-10, 현대인의 성경)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고전 15:21-26,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전 15:51-58,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롬 8:1-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딛 3:3-7, 현대인의 성경)

"보혜사(保惠師, comforter, counselor)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6-2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 16:13)

#
<구원이란 문제 앞에>

구원이란 문제 앞에선 체면도 자존심도 없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마 16:26, 눅 9:25).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선 한시의 안일함도, 한치의 양보도, 일말의 타협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막 13:35, 눅 21:34-36). 고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빌 2:12) 주 앞에서 깨어있기를 기도한다.

‘주여! 주여!
제가 죄 가운데 마음을 완악하고 강퍅하게 했을지라도 이에 내버려두심은,
제가 믿음 없이 낙망하고 좌절하여도 이에 방치하심은,
제가 무지하여 이 땅의 안일과 안락에 취하여 잠들어도 저를 깨우지 않으심은,
저를 내치어 죽이려 함이나이까?
아버지여, 다른 이는 몰라도, 아버지는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아들 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퍅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시 81:10-13)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 63:16-17)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애 5:21)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 119:36-38)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 86:11)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 9:17-1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 79:9)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렘 14:20-2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 103: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 18:13-14)

#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성경에서 목사가 돼라 했으면 됐을 거고, 헌금을 많이 내라 했으면 하루 한 끼만 먹더라도 다 헌금을 했을 거고, 선행을 많이 하라고 했으면 몸이 부서져라 남을 돌보는 선행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어느 것도 아니다. 성경에선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즉 선물로만 들어간다고 한다.

(1) 불완전한 인간은 그 어떠한 고행과 수행, 노력으로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달리 말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2) 우리에게 양심을 심겨주신 지극히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의인일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3) 하지만 우리를 죄와 그에 따른 죄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4)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선 사망보다 크신 이로서 사망이 그를 매어두지 못하였고,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을 확증하셨다.

이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됨과 천국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하나님 당신의 희생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대체하여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고 하신다. 우리에겐 더없이 기쁜 구원의 소식이자 은혜이자 선물이다.

고로 기독교인이란, 그 누구이기도 전에 가장 첫째로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전인격적으로 고침 받아 새로워지길 간구하는 병자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서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돈도 노력도 공로도 아무 쓸 데가 없다. 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 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 같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고 싶어하신다. 그게 처음이자 끝이다. 나머지는 결국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의 기류에 편승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 당신의 본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 값을 담당하여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과 삶과 평생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홀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빚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딛 3:3-7, 새번역)

#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단 하나의 죄도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죄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행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선함도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 앞에선 오염된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갑니다.

이 은혜는 온 인류에게 베풀어진 것인데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덥석 감사히 받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받겠다고,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 값을 친히 담당하시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제가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하사 인류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Good News)의 사실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저의 영혼과 인생의 영원한 구원과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 19:25-26)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롬 3:23-25, 새번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롬 5:8-9, 새번역)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2-12)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계 3:20)

#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2026년 1월 9일>

📖 오늘 자「생명의 삶」QT 본문 요한일서 5:13 묵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ChatGPT와 공동작성)

1️⃣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의 의미

(1) "이름"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인격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 정체성: 그가 누구인가
- 권위: 어떤 권세를 가지는가
- 사역과 공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 신실하심: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라는 단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전체, 곧 그분의 정체성과 권위와 사역과 공로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아들"이 포함하는 세 가지 핵심 고백

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
예수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 믿음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며,
→ 하나님을 통한 구원은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 됩니다.

② 예수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요한일서는 예수의 육체 오심을 부정하는 가르침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 예수께서 실제 인간으로 오셨고
- 인간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 인류의 죄를 실제로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③ 예수는 구원자이자 주권자이시다 (메시아/주님)
"아들"이라는 고백에는 왕권과 주권이 포함됩니다.

- 예수를 단지

나를 도와주는 분,
필요할 때 의지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 그분을 내 삶의 왕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2️⃣ "믿는다"의 구조: 믿음의 세 층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님이자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며,
자기 신뢰를 포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인격적·존재론적 행위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음이 아닙니다.

- ❌ 단순한 정보 동의
- ❌ 종교적 감정 고조
- ❌ 도덕적 결단이나 의지 강화

👉 *믿음의 본질은 '신뢰의 이동(transfer of trust)'*입니다.
나를 붙들던 신뢰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것.

① 지식 (notitia)

-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
- 부활로 주와 그리스도로 확증됨

📌 이것만으로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도 이 사실을 압니다)

② 동의 (assensus)

- 그 사실이 참되다고 인정
- 가능성이 아니라 진리로 수용

📌 여기까지도 아직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③ 신뢰·의탁 (fiducia) — 결정적 요소

- 그 사실이 나에게 효력을 갖도록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 자기 의, 자기 통제, 자기 구원을 포기함
- 그리스도의 완성(십자가와 부활)에 나 자신을 온전히 얹음

👉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의 전적으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비유로 말하면

- 예수는 구명보트이고
- 믿음은 보트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내가 붙잡고 있던 자기구원을 놓고 그 보트에 온전히 올라타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믿음의 핵심 메커니즘
자기 신뢰의 붕괴 → 타자 의존

믿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놓는 행위입니다.
🔻 믿음 이전
- ❌ 내가 나를 지탱한다
- ❌ 내 판단이 기준이다
- ❌ 내 가능성과 잠재력에 기대어 산다

🔺 믿음 이후
- ✅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하신다
- ✅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신다
- ✅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기대어 산다

📖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 믿음이란
자기를 강화하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는 전환입니다.

4️⃣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영적 메커니즘

(1)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같은 복음을 들어도
- 어떤 이는 "좋은 이야기"로 듣고
- 어떤 이는 "살아 있는 진리"로 듣습니다.

📖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 믿음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 계시를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2) 마음의 방향 전환 (Metanoia)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이동하는 근본적 전환입니다.
🔻 이전의 방향
- ❌ 나 중심의 삶
- ❌ 자율을 붙드는 태도 (내가 주인)
- ❌ 자기 서사로 인생을 해석함

🔺 이후의 방향
- ✅ 그리스도 중심의 삶
- ✅ 주권을 인정함 (그분이 주인)
- ✅ 그분의 서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함

👉 그래서 믿음은 항상 회개와 함께 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은 채 회개를 할 수 없고,
회개는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는 존재를 다한 믿음의 대상 전환입니다.

(3) 의지의 항복 (Surrender)
- “내가 예수를 이용하겠다” ❌
- “예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넘긴다” ⭕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실상 주권 이전 선언입니다.

5️⃣ 믿음과 행위의 관계 (정확한 성경적 구조)

❌ “믿으면 행위는 필요 없다”
❌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 성경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믿음 → 새 생명 → 필연적 열매
- 행위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 믿음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6️⃣ 믿음은 ‘결심’이 아니라 ‘연결’

믿음은 스위치가 아니라 콘센트에 꽂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 전기 = 그리스도의 생명
- 콘센트 = 믿음
- 전구의 빛 = 변화된 삶

👉 능력은 나의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 내가 믿는 대상, 곧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7️⃣ 왜 믿음은 연약해 보이는가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
- 작은 믿음 + 크신 그리스도 = 충분
- 큰 믿음 + 잘못된 대상 = 무효

📖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 17:20)
📖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6-27)
📖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요 3:16)

8️⃣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실제 작동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의탁 선택'으로 드러난다)

1) 정죄와 죄책감이 몰려올 때
- ❌ "다시 잘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 해"
- ✅ "내 의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 그 이름, 곧 그분의 공로가 내 의다
📌 믿음은 자기개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피신한다.

2)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 ❌ "이번엔 꼭 버텨야지"
- ✅ "나는 다른 주인의 소유다"

→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 믿음은 의지력 강화가 아니라
소유권 인식의 회복이다.

3)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 ❌ "통제권을 다시 쥐어야 해"
- ✅ "주님께 맡긴다"

→ 그 이름의 권세 아래 실제로 의지를 내려놓음
📌 믿음은 상황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며 맡기는 행위다.

4) 순종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 ❌ "내 계산으로는 손해다"
- ✅ "주님이 나의 삶과 영원을 책임지신다"

→ 그 이름의 선한 주권을 따른다
📌 믿음은 손익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삶을 건다.

5)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
- ❌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규정한다"
- ✅ "그 이름이 나를 규정한다"

📌 믿음은 정체성을

성과나 평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 이 모든 순간에서 믿음이란,
'내가 다시 컨트롤을 잡는 선택'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그분의 공로, 권세, 주권—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실시간 의탁이다.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실제 작동입니다.

9️⃣ 한 문장 결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자 참 주권자로 인식하고,
자기 신뢰를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인격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존재 전부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전환이다.

🙏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 내 판단, 내 통제를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분의 인격과 권위와 십자가의 공로에
나의 삶 전체를 다시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영생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정죄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심을 붙들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권세 아래 나를 맡기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종교적 열심과 치성을 배격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덥석 붙잡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낱 인간의 불완전한 종교적 열심과 치성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감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차 없이 내어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공로와 완전한 속죄함과 그분의 완벽한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완전하고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덥석 받아들이며, 그분께 자기 전부를 의탁하여,

그분 안에서 비로소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성령님의 자유하게 하심을 누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하길.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3:20-30)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행 3:12-16)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3-9)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1-6)

#

<✝️ 왜 세계 7대 종교(무신론자의 믿음 포함) 중 기독교인가: 2025년 12월 12일>

✝ 왜 세계 7 대 종교(무신론자의 믿음 포함) 중 기독교인가
— 불완전한 죄인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강림과 구원의 은혜
— 그리고 "어쩌면 종교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합리적이고, 인간 본성과도 어긋나며,
도덕·인격·의미·존재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가장 비인격적, 비도덕적 믿음을 요구하는 형태의 신념 체계가 무신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ChatGPT 와 공동 작성)

◇ 1️⃣ 인간의 본질적 한계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도덕을 닦고 수양하며 깨달음을 얻으려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련함, 우매함, 두려움, 연약함, 그리고
교만, 탐심, 음란, 거짓, 시기, 폭력, 게으름과 같은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종교적 노력, 명상, 수행, 율법 준수도
그 자체로써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영겁의 세월에 걸친 불완전한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란 것도
결국 불완전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중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온전함은 사람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온전함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 세계 7 대 종교(무신론 포함)의 관점 비교

세계 7 대 종교 중,
- 우선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를 받아들이는지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 불교는 신이 없는 무신론적 종교로서 인간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려 하고,
- 유교는 내세보다 현세의 도덕·질서·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영적 세계나 내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 힌두교는 수많은 신과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적 구조 속에서
윤회와 업에 따라 스스로 해탈을 추구하고,
- 무신론은 초월적 신이나 창조주를 부정하며,
모든 존재를 물질·자연·우연·진화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 불교
부처는 스스로를 신이 아니라고 하였고,
창조주·절대자·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끊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깨달음(해탈·열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즉, 구원은 신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계율·명상과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인격의 회복이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욕망·집착·번뇌·개체 의식 자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태,
곧 윤회의 고리를 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아 소멸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 안에 깊이 자리한 욕망, 죄성, 왜곡된 마음, 상처, 교만, 탐심 등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인간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완전함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다시 인간의 벽—즉, 불완전한 인간 본성과 능력—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슬람
무함마드는 자신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알라)께 완전히 복종하고 율법(샤리아)을 지키며,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심판 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구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며 항상 미확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행이 조금 더 많으면 악행이 상쇄된다는 방식은,
만약 알라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존재라면 작은 죄라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 도덕 직관과 충돌합니다.
완전한 신이 "선행 점수로 악을 덮는 방식"을 허용한다면,
그 기준은 오히려 인간의 법적 정의보다도 느슨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복종을 이룰 수 없기에,
율법은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으며,
완전한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 유교
공자는 인·의·예·지 같은 도덕적 원리를 통해
세상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세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고 답하며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세의 도덕과 인간 관계의 조화를 추구했지만,
죽음과 그 이후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인간 도덕규범은 인간을 겉으로는 잠시 고귀하게 만드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고로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는 길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 유대교
유대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메시야)가 장차 올 것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수많은 메시야 예언을 성취하신 이미 오신 메시야,
곧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율법(토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고 의로움에 이르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유대교 신앙은 반복되는 실패·회개·갈망의 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메시야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원에 대한 확정적 해답은 미래로 미루어진 채 열려 있습니다.

🕉 힌두교
힌두교는 수천 개의 신을 인정하는 다신교적·범신론적 구조를 지니며,
우주적 절대 실재인 브라만(Brahman)과 인간의 참된 자아인 아트만(Atman)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이 둘의 합일이 곧 해탈(Moksha)로 여겨집니다.
인간의 삶은 윤회(輪廻)와 업(Karma)의 법칙 아래 반복되며,

현재의 신분·고난·상황 또한 과거 행위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랫동안 카스트 제도의 종교적·사회적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1) 교리의 다양성과 일관성 결여
신·경전·철학 체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하여,
구원(해탈)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신자가 명확한 기준을 갖기 어렵습니다.

2) 고난 정당화와 운명론 강화
윤회·업 사상은 고통과 불평등을 "과거의 업"으로 돌림으로써
현실의 고난을 정당화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운명론적 세계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세계관에 기반한 카스트 제도는 인간의 가치를 태생적으로 구분하고 고정하여
현대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차별과 갈등의 뿌리가 됩니다.

4) 절대적 인격신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범신론은 결국 참된 진정한 그 신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인격신'이 없으므로,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구원을 베푸는 주(主)도 없고,
신이란 자는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참 신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5) 해탈의 실현 불가능성과 개인 소멸의 문제
해탈은 수행·금욕·지식·헌신 등 개인의 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불완전한 인간에게 사실상 도달하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불교나 힌두교의 해탈이란 인간 개체 의식의 소멸일 뿐
"나"라는 인격의 새로워짐, 보존, 회복과 같은 인격적 구원이 아닙니다.

■ 무신론('신이 없다'는 강한 믿음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종교적 신념)

무신론은 신이나 초월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자연 법칙·물질·우연·진화만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신념이 아닌 과학적 입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이 없다'는 명제를 절대적 믿음으로 채택한 또 하나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의식·도덕·가치·자유의지 또한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진화 과정의 부산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의미와 도덕 역시 사회적 합의에 불과한 상대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에는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1) 의미의 붕괴 문제

삶의 의미를 단순한 생존 전략의 산물로만 본다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목적·가치·존재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자아 인식, 생명, 의식의 흐름까지도—
아무 내재적·본질적 가치도 없는 우연한 화학적·물질적 작용의 집합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간 존재 전체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도덕의 토대 상실 문제
선·악·정의·인권 같은 보편 가치를 설명할
객관적·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은 필연적으로 상대화·형해화됩니다.
그 결과 "왜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에도
확정적이고 보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3) 자유의지의 붕괴 문제
모든 현상이 물질적 인과와 뇌의 화학 반응으로 결정된다면,
인간의 선택·판단·책임 역시
단지 물질적 반응의 결과일 뿐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희생·사랑·책임이라는 개념도
모두 필연적 반응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의지 자체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4) 우주의 질서·수학적 구조·미세조정의 미해결 문제
우주의 극도로 정밀한 물리 상수와 수학적 질서를
단순히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어떻게(How)" 작동하는지는 설명하지만,
"왜(Why)" 이런 법칙과 구조가 존재하는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무신론은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가?
- 왜 수학적 질서와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가?
- 왜 우주적 상수들은 지구 생명 생존 가능성에 맞게 정밀히 조정되어 있는가?
- 무생물에서 생명과 의식이 어떻게 최초로 등장했는가? 그리고 그 생명 이전에 존재한 물질과 자연 법칙은 무엇이 그것들을 있게 했는가?

결국 무신론은 이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질문 자체를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비합리적인 믿음체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5) 인식론적 자기모순 문제

무신론이 말하듯 인간의 사고가
진리를 탐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것이라면,
"무신론이 참이다"라는 믿음 자체도
생존을 위한 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조차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6) 존재론적 기원 문제
무신론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에 대해 궁극적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연적 과정으로 환원하지만,
정작 자연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신론은 신을 부정하지만,
그 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종교 못지않은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믿음체계(종교적 성격)이며,
도덕·자유·의미·우주의 질서·존재의 기원 등
가장 본질적 질문들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구조적 한계와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합리적이고, 인간 본성과도 어긋나며,
도덕·인격·의미·존재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가장 비인격적, 비도덕적 믿음을 요구하는
형태의 신념 체계가 무신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독교 —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여신 구원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도달하려 애쓰는 종교'가 아니고,
'신은 없고 나라는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 허무이다'고 말하는 무신론적 세계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삼위로 계시되며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버려두지 않고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 3 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천국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신성과 무죄함이 참됨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실제로 패배하고 무력화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선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참되고 완전하며
영원히 효력을 갖는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증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전하게 동시에 성취되었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이 참되고 완전하며 천국 영생의 보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참되게 믿도록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한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실제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새로운 갈망을 심어 주십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깨닫게 계시하십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며,
우리의 성품과 지(知)·정(情)·의(意)를 다듬고,
삶의 선택과 방향을 인도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 공로나 철학적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뿐입니다.
즉,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을 말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사랑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친히 구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18)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 새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 입니다.
정직한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불온전한 도덕과 수양만으로는 자신의 죄성과 죄를 제거할 수 없고,
그렇기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신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구원의 사랑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신 구원의 길,
인간의 한계를 넘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 요한복음 3:16–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3️⃣ 최종 결론 — 온전함은 인간이 스스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연약함을 스스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꾸짖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린 새롭고 완전한 생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삶과 영혼 속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온전함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공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하여 의롭게 성숙하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롬 3:23-24)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5:8-21)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제 힘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온전함으로 제 불완전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영원히 거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영원한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2-14)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8-30)

💬 요약 한 문장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주님으로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

🌟 #복음 #기독교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삼위일체
#하나님의은혜 #구원의은혜 #오직은혜 #오직믿음 #OnlyJesus
#하나님의사랑 #영생의길 #SalvationInChrist
#하나님의자녀 #성령의임재 #새생명 #거듭남 #BornAgain
#임마누엘_하나님이우리와함께계시다
#부활의능력 #온전하신하나님
#은혜로사는삶 #LivingByGrace
#JesusSaves #HeIsRisen #GodIsLove #John316

#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탄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통치와 양육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된 삶'이란 사실은 큰 미혹입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일 뿐, 사실은 유일한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삶이자, 이를 종용하고 좋아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삶입니다.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을 유혹했던 사탄이 '이걸 먹으면 바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며 사탄 자신도 이루지 못했고, 사람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걸 거짓말로 종용하여, 이런 기망과 사기를 통해 사탄 자신뿐 아니라 인류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했으며, 인류를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탄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계략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즉 자신의 탐심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종용하고 교사(教唆)하여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자신과 같은 편에 서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의 죄악된 탐심의 근본인 사탄을 숭배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히 한 분이시며, 사람도 사탄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각각이든 연합해서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권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대하고 신적인 영적 세계에서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의 영혼이 온전히 자립하여, 그 누구의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주(自主) 할 수 있는 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가혹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사탄과 함께 영벌(永罰)에 처해질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걸 알기에,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우리의 일평생과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스스로의 주인 된 삶을 살겠다며 사실은 나의 탐심과 사탄에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에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메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제 안에 충만히 좌정하사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전부, 저의 전인격과, 일평생과, 영혼육 전부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하심과 속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토록 의탁 드리오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24)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벧전 4:19)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7-29)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7-40)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댓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골 1:11-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17-23)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2: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엡 4:6-8)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롬 10:9-12,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 2:6-10, 새번역)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엡 3:16-21, 새번역)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롬 8:9-16, 새번역)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딛 1:4)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12-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4-17)

#
<센 믿음보다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고, 올바르게 센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센 믿음, 즉,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주께 칭찬받는 믿음, 사랑의 열매 맺는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따르는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를 위해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믿음, 이 땅보다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 선을 행함이 있는 살아 있는 믿음, 성도 간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성경을 묵상하는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성령께서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등으로, **이 모두 동일한**

한 가지 믿음일진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섬기고 따르는 그 믿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엡 4:4-7)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 11:24-4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5-17)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17-24)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0-16)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39-45)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 6:24-3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3-23)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7-29)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 4:15-16)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단 3:17-20)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7-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 12:23-28)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2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7-39)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막 8:33-38)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3-2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9)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막 14:36)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눅 22:42)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눅 23:33-34)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 23:46)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벧전 4: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 15:4-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3:20-28)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2-29)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4-26)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13-26)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 5:14-2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8-1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19-39)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2-17)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1-9)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후 5:1-9)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딤전 1:14-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9-14)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8-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엡 1:13-15)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3-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6-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13)

#
<구원>

- **우리는 행한 대로, 심고 거둔 열매대로 심판을 받는다. 고로, 행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롬 14:10-12)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 1:31-33)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벧전 1:17)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눅 10:25-28)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9-10)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 5:14)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 **그러나 타락한 우리 중 누구도 자의적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순전한 사랑과 순종을 보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 질 수 없다. 고로,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 7:20)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시 49:7-8, 새번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7)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엡 2:3)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 3:18)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막 10:26)

- **고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에 자신을 의탁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된 자아로는 구원의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넉넉한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 19:25-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6-27)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눅 18:26-27)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롬 4:4-5, 현대인의 성경)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119:2)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7-29)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2-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단 9:18-19)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 25:6-7)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 79:9)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렘 14:20-2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 2:16)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시 5:7)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3:26)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롬 3:23-28)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0-31)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딛 3:4-7, 새번역)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 **그러나 넉넉한 은혜를 예비하심에도 우리가 피폐해지고, 강퍅해지고, 선한 열매가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한다면 배은망덕(背恩忘德)해서이지 않을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 3:10)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6-9)

- **송구스럽게도 나는 의심 들고 걱정근심하고 강퍅해 질 때가 너무 많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내 죄된 자아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은 소멸되고, 오직 선한 열매 맺으시는 은혜의 성령님께 내 영혼과 삶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길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강퍅하고 거칠고 불순종적이던 내 안에 부드러움이 회복되고, 사랑이 솟구치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기꺼이 따르고픈 기적이 일어난다. 나의 부질없는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자녀가 된다. 참 신기하고,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찌어다” (왕상 8:61)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7-38)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4)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2-1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7:24-8:16)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0-12)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사 4:4)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겔 37: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 15:1-13, 표준새번역)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16-25)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벧전 1:21-2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4:31-32)

- **위 말의 전개는 구원에 있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믿는 것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과 주인으로(구주로) 믿어 주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딛 3:6) 성령님의 인도, 통치를 받음이, 즉,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까지가 얼마나 필수, 근본적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중복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6-39)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눅 12:10, 새번역)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막 3:28-29)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 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엡 4:30,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 3:5-7)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요일 4:2-3)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6-18)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 3:2-5)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딛 3:6)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9-14)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1)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3-14)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 3:19, 현대인의 성경)

#
<신·구약에 나타난 이신칭의(以信稱義)(Justification by Faith)>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선하신 역사와 주권,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선하신 역사와 주권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반응)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 5:7)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 49:6-8)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 32:1-6)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 52:6-8)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 40:6)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 31:5-8)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 103:8-13)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 6:8-9)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1-6)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2-24)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6-29)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출 34:5-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민 14:11-20)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사 45:25)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겔 33: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들은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옆 머리를 잘라내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렘 9:25-26, 현대인의 성경)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28-29)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롬 3:21-31)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겔 37:14)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 10:12-13)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0-12)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 32:5)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 130:3-4)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 130:7-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7-9)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 29:13-19)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 5:3-6)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단 9:18-2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욜 2:13)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욜 2:31-32)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2:20-24)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13)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롬 10:1-13, 새번역)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나하나 되풀이해서 가르치실 것이나 그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고 무덤과 조약을 맺었다. 우리에게는 거짓과 허위라는 은신처가 있으니 아무리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와 공평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원수들이 폭풍처럼 밀어닥쳐 너희가 의지하던 거짓의 은신처를 부숴 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너희가 무덤과 맺은 조약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재앙이 덮칠 때 너희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밤낮 너희에게 계속 밀어닥칠 것이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사 28:12-19, 현대인의 성경)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시 25:3)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32-33)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4-9)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8-20)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 33:16-22, 새번역)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시 34:22, 새번역)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 33:2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 막 10:45)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딤전 2:4-6)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 110:1)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3-39)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행 3:12-16)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9-12)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1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 53:5-11)

"에브라임, 므낫세, 잇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대하 30:18-20, 우리말성경)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2-25)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 32:10-11)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 11:4-35)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9-12)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살후 2:13)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 21:7-9)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3-18)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1-5)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1-2)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롬 7:21-8:4,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

질문: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 **답:** 믿음. 믿음이란 한 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삶과 영혼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나를 다 내어맡기는 것.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그분께 의존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나의 영혼과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인자와 자비, 은혜와 사랑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위 답을 더 설명하기 앞서, 하나님께선 모든 사람에게 창조된 만물의 경이로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스스로 드러내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이에게 영생을 간구하게 하셨으며,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의 이치를 사람으로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되 분명 때를 따라 거저 받는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셨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내재된 양심을 주심으로 선과 악의 최종 심판자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셨다. 고로, 지구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건, 정직한 자라면, 창조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역사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나 역시 거저 받은 많은 은혜들로 인해 살고 있음을 알며, 양심이 증언하는 최종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행 17:27),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사 45:19). 그러나 많은 부정직하고 교만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고, 경외하지도 않게 되며, 허망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모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17-2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 3:11)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행 14:17)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5)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 6:26-28)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14-15)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행 17:22-2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사 45:18-19)

다시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모를 수는 없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를 살펴보기 위해 성경에 등장했던 구약시대 인물들(아브라함, 욥, 다윗)과 이방인들(욥, 고넬료)을 살펴보기 원한다.

[아브라함]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롬 4:2-24)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1:8-19)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 3:6-11)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양심이 증언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영원히 자존(自存)하시는 하나님께는(출 3:14, 시 102:26) 일체의 오류도 있을 수 없음을 안다. 순전한 진리만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일 1:5). 고로 사람은 하나님 눈에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함을 알 뿐 아니라, 거룩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도(시 5:4), 고로 천국 영생을 사모하나,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벌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죄를 경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도말 해주시는 수 밖에 없다. 고로 사랑의 하나님(요일 4:8)께서는 죄로부터 돌이켜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다 용서해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사랑에 나를 의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달리 살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1]) 고로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이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허락하시면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어 주신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도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7).

[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1-5)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욥 36:18-22, 새번역)

절대 선(善)의 관점에선 우린 워낙 죄인이기에 은혜로 주어진 용서를 믿는 것 외에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다는 것,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롬 4:5) 우리를 능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이해했다. 혈통으로는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던 욥은, 자신도, 자신의 자식들도 죄에 대해 취약한 허물 많은 인간임을 알아 거룩하신 만주의 주를 경외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 행위의 기본 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은 죄를 사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고 온전하다 하신다.

[1]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눅 19:21-2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 2:3)

우리에게 양심을 심기우신(롬 2:15)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의 본체이실 것이기에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욥 34:17),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 우리의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고로, 욥의 번제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代贖)물이 있어야 할거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욥 33:24). 그러나 대속물이 죽은 대속물이라면 우리를 일회적으로 밖에 대속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 10:1-4).

고로, 살아있는 대속물 즉, 영존하는 대속자가 계셔야 함을 알고 그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임하실 것을 기대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 19:25).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가까이 있는 대속자의 중보를 들으셔서 우리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실 거라 우리는 믿는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욥 16:19). 고난 후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고난 가운데 더욱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적으로 그분의 뜻과 지혜와 주권 앞에 순복하였더니, 마음에서 증언 듣기만 하던 주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남은 믿음의 여정을 훨씬 확고한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일 것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욥 42:5-12).

[다윗]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 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 33:16-22, 새번역)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 32:1-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 31:5)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 143:8)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 34:22)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 86:4-1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12)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 32:10)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 52:8)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 21:7)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시 145:8-20)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 13:5-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 25:6-7)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 65:2-3)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62:5-8)

다윗 또한 죄를 지어 심판 받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아브라함과 욥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며,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죄 없이 모두 자복하고 아뢰는 정직한 자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영과 삶을 의탁하였던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가 됐다.

“일해서 받는 삯은 정당한 댓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롬 4:4-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자신의 소욕을 좇아 살던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대속자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은 이들은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대속자를 자연스레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시 25:4-5).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0-11).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행 2:22-31)

비록 살아계시고 높이 계신 주 대속자, 메시야,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주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그것도 영광스런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욥에게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평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됐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마 22:42-25).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4-36).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행 10:1-22)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므로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리던 이방인 고넬료 또한 성경은 의인이라 소개한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었듯(롬 4:11-13), 믿음의 동방 사람 욥을 의롭다 하셨듯, 믿음의 이방 여인 라합을 택하여 구원하셨듯,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의에 주려하는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다 하셨다.

스스로가 죄인 됨으로 죽음에 거할 수 밖에 없는 자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한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선 살아계시는 대속자,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위 살펴본 인물들의 공통점이었다.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고 설령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정직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하고 스스로가 본래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되, 그분의 긍휼과 전능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며

하나님께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5-17).

위 인물들에서도 살펴보았듯, 각 나라 중, 각 세대 중, 각 민족 중에도 양심과 만물과 역사와 경험의 증언을 따라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히,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으로 죽어가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린 자들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살아계신 대속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으리라![1]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행 10:34-35)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 8:11)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3:28-30)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시 33:16-19)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잠 19: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 14:27)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시 85:9)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 145:18-20)

---

[1] 《구원》 장(章) <신·구약에 나타난 이신칭의(以信稱義)(Justification by Faith)> 글 참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다면, 새로 믿는다기 보다는 갈망하여 찾고 내면에서 증언되어오던 구원자와의 보다 더 구체화된 만남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정체를 알게 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방황하는 구도자들에게,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숨가빠하고 어지러워 하나 물이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심지어 물 밖에 방치된 시간이 너무 지나 영적 혼수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한시라도 속히 이 구원의 소식,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양심적 의무가 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25-32)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딤후 1:9-10, 새번역)

#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대속자, 즉, 메시야,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본 《구원》장(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 글에서 살핀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속,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1.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으셔야 한다**. 죄 있는 우리는 남은커녕 스스로의 죄도 대속할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시 49:7, 새번역).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시 49:7-8).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욥 36:18-19, 새번역).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시 33:16-17).

이미 다 타락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신성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벧전 1:19)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2.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 이하의 형벌이 될 수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고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습 1:7).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엡 1:7)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히 9:12).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3.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신성을 가진 이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가를 치러주셔야 하나 신성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15)[1].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 19:25).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골 2:9-10, 새번역).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1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고후 5:19).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겪는 동일한 시험들을 겪어보시되 그럼에도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내셔서 연약한 우리 삶을 전방위적으로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즉,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엡 6:16) 삶의 어느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돼주셔야

---

[1]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 2:14-15, 현대인의 성경)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요일 3:5,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7-18).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29).

4.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신성 그리스도는 위에서처럼 완벽한 삶을 보이신 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속을 위해 쏟아냈던 피를 근거하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속적인 중보와 화해의 역할을, 성도의 삶의 전방위적 승전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과 보호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회적 대속이요, 일회적 승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딤후 1:10) 부활, 승리한 대속자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계 17:14)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거침이 되지 못하게 해주셔야 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눅 24:46).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0-14).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롬 14:9, 새번역).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롬 6:9).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0-22).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딤전 2:5).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0-22).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계11:15-17).

역사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 구세주로 나타나 나름 많은 추종자를 모았던 자들이야 여럿 있었겠지만 그 어느 누구 중 적어도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며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도 점점 큰 세력을

이루어가시므로 하나님께로 난 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이는,[1] 성육신하셨고,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셨고, 악한 자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한 속건제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우릴 위해 중보해주시며 친히 우리의 구원과 승전의 영원한 산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밖에 없다! 위에 인용된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 모두 예수님을 지칭하여 쓰인 증언들이지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발현 소식에 관한 좀 더 많은 직접적 증언들을 살펴보기 원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1-23)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1-33)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11)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5-17)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 26:63-64)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막 14:61-62)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눅 22:69-70)

---

[1]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u>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u>" (행 5:34-39)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 4:25-26)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 7:23-27)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행 13:33-39,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 8:28-29)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 2: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7-4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8-30)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 28:5-9)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0:26-29)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행 3:19-24)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벧전 1:18-21, 새번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일 2:1-2, 현대어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가 그[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믿는 자]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일 5:18)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살전 1:10)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롬 3:25, 현대인의 성경)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 막 10:45)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2-24)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 1:12-22)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일 5:2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8-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1-33)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6-11)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 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3)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 10:17-18)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2:22-24)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골 2:13-15, 현대인의 성경)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5-57)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5)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간에 서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딤전 2:5, 현대인의 성경)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롬 5:2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딤전 1:15)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구약과 이방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다려 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한 가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체적 구속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실재적인 명확한 평안과 능력과 구원이 된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골 1:26-27, 새번역).

또한 본 《구원》장(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나?> 글에서도 썼듯,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방황하는 구도자들에게,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숨가빠하고 어지러워 하나 물이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심지어 물 밖에 방치된 시간이 너무 지나 영적 혼수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한시라도 속히 이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양심적 의무가 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18-19).

#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및 만민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구원의 복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행 1:3-11, 새번역)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23-39)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들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과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행 13:28-3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딤후 1:9-10)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롬 1:1-4, 새번역)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롬 2:4-8)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행 17:31-32, 새번역)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벧전 1:2-5, 새번역)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 2:14-15)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마 27:64-28:11, 새번역)

"그러나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보니, 남자 둘이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눅 24:1-9, 표준새번역)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눅 24:33-53, 새번역)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요 20:13-30, 새번역)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3-58)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3-17)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4-23)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 24:14-16, 현대인의 성경)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7-28)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히 12:23)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눅 20:37-38)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눅 10:11-14)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 11:20-24)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살후 1:8-10)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 11:17-18)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 20:10-15)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2-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3-7)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9-1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12-21)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1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24-39)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 25:45-4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1-29)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 12:47-48)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벧후 2:9)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일 4:14-17, 새번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5:10-21, 새번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롬 3:23-26, 새번역)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5:8-21, 새번역)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1-27)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8-12)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11-39, 표준새번역)

#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정리해 본 답:

-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요일 2:2, 요일 4:9-10, 고후 5:21, 골 1:20-22, 벧전 2:25, 히 4:15, 히 2:14-15, 롬 8:2, 계 1:5),
-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이로서(행 2:24, 행 3:15, 행 10:40),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한, 하나님과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요 1:14, 요 1:18, 요 3:34, 요 5:19-20, 요 10:30, 요 12:44-45, 요 14:9-10, 요 14:31, 요 17:4, 요 17:21-24, 빌 2:6, 골 1:19, 골 2:9, 히 1:3, 행 10:38, 롬 1:4, 롬 8:11, 골 1:19, 요일 1:1-2),
-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요 5:21, 5:26, 요 11:25-26, 요 6:47-54, 요 20:31, 행 3:15, 히 5:8-9, 히 7:16, 요 5:21, 엡 2:1-8, 계 22:1-2).
- 즉, 예수님은 이처럼 사망을 폐하고 부활하시고(딤후 1:10, 마 28, 막 16, 눅 24, 요, 20-21, 고전 15:4-8) 승천하여(눅 24:51, 행 1:9)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요 16:28, 요 17:13, 요 20:17, 히 1:3, 히 10:12, 히 12:2, 골 3:1, 행 7:55).
-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 위에 주가 되시며 그를 믿는 자를 위해 승리의 주가 되신다(요 3:35, 요 16:33, 요 17:2, 마 28:18, 벧전 3:22, 행 2:36, 롬 10:12, 롬 14:9, 엡 1:20-23, 빌 2:9-11, 빌 3:20-21, 계 17:14, 골 1:16-18, 히 4:13, 계 17:14, 계 19:13-16, 요일 5:5).
-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속죄(贖罪)를 위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히 2:17, 히 3:1, 히 4:14-15, 히 7:24, 히 8:1), 우리를 부르시고(요 10:16, 요 15:16, 행 9:4-5, 요일 5:20),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일 1:7-9, 히 1:3, 히 9:14, 골 1:14, 엡 1:7), 우리를 죄에서 자유 하게 하시며(요 8:36, 롬 8:1-2),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고후 5:17),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골 1:20, 엡 2:13-18, 갈 3:25-29, 갈 4:4-7, 요

1:12, 엡 1:5, 엡 3:6, 딛 3:6-7, 롬 8:16-17, 벧전 1:4, 딤후 2:10, 골 3:24),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엡 1:22, 골 1:18).

- 예수님은 지금도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언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구원하신다(요 17:11-26, 히 7:25, 히 9:24, 딤전 2:5, 롬 8:34, 요일 2:1, 행 2:36, 계 7:9-10, 롬 10:13, 행 2:21, 요 3:16, 요 17:3, 요 20:31).
-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시며(요일 1:3, 고전 1:9),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15:15),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온전하게 해주신다(히 12:2, 딤후 1:12-13, 엡 6:23, 딤후 2:1).
-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히 4:15-16),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히 2:18).
-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다(요 13:34-35, 요 15:4-9, 요 15:12, 요 17:11, 요 17:21-23, 요 17:26, 빌 1:11, 롬 8:35, 롬 8:38-39, 고후 5:14, 엡 5:2).
-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주시고(요 14:6), 산 소망이 되시며(벧전 1:3), 우리의 지혜와 총명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 주신다(고전 1:30, 딤후 2:7).
-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고(벧전 2:25),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신다(마 11:28-30, 요 14:27, 요 10:14, 요 10:27-29, 요 16:33, 요일 5:18, 롬 8:37, 계 17:14).
-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요 14:2-3).
- 예수님은 지금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신다)(요 14:16-20, 요 15:26, 요 16:7, 요 16:13-14, 요 17:20, 요 20:22, 행 2:33, 행 2:38, 딛 3:6, 요 17:23, 요 17:26, 롬 8:9-10, 요일 3:24, 요일 4:2-4, 고후 13:5, 갈 2:20, 골 1:27, 엡 3:17).
-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요 5:39, 눅 24:32, 눅 24:45).
-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뒤 파송하셔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르도록, 잃은 양을 찾도록 하신다(요 10:16, 요 17:18-20, 요 20:21, 마 10:16-20, 마 24:9-14, 마 28:19-20, 막 13:9-11, 막 16:15-16, 눅 24:46-49, 요 21:17, 행 1:8, 행 13:47, 엡 3:7-8, 벧전 2:9, 갈 2:2, 골 1:23).
-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히 10:13), 마지막 날에 다시 구름 타고 강림하사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며, 사망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며(행 1:11, 마 26:64, 막 14:62, 계 11:15, 고전 15:23-26, 계 20:14, 살전 4:16-17, 살전 5:23, 요일 2:28),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히 9:27-28, 요 5:22-29, 요 3:36, 벧전 4:5, 고후 5:10, 딤후 4:1, 벧후 3:7, 계 20:12-13).
-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마 28:20).

전(全) 방위적, 전 인격적, 전 세계적, 전 우주적, 전 시점적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영혼과 육체를 통틀어,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 물질세계와 영적세계를 통틀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넉넉히, 사랑과 신실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나요?

그런 진정한 좋은 소식, 진정한 친구,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히어로, 진정한 메시야,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
<복음,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만 하면>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정직한 자각과 인정에서 출발하여, 그 은혜를 믿고 나를 그 은혜에 의탁하기만 한다면.[1]

그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은혜가 제시된 각자의 마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자 해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는 참된 의미의 사랑이란 관계의 근간이 되기에 주실 수 밖에 없었던.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이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고 싶어하셨나라는 반문뿐. 그러나 그러한 반문을 하려다보니 그저 감사함의 눈물.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셔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떠났던 사람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 그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뿐.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시 145:9, 새번역)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롬 5:8-9, 새번역)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딤전 1:14-15, 새번역)

---

[1] 《한 걸음 한 걸음》장(章) <믿음과 행위> 글 참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후 6:1-2, 새번역)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롬 10:9-13, 새번역)

#
<낙원 입성>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는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다. 모든 사람이 악한 모습도 있고 선한 모습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면 깊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사람과 자신이 무슨 죄인이냐며 이웃과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사는 사람으로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 기로의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39-43)

#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때도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의롭게 사는 듯할 때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던 처참한 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거역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줄만큼 나를 계속 변치않고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내가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 영생을 얻게됐고, 멸망을 면하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김현기를 도저히 죄의 저주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어서, 당신의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한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는 간증. 이 간증은 이번 선교에서만의 간증이 아닌 제 평생의 간증일 것입니다.

#
<전도와 전도의 내용(복음)>

[전도의 명령과 모범과 당위와 도우심]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막 16:15-2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 9:16)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딛 1:3)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8-21)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7-40)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1-5)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살전 2:2-11, 새번역)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7-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눅 4:43-44)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막 1:38-39)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17-23)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7-8)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살전 1:4-5)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벧전 1:12)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살전 2: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17-19)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막 13:7-11)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눅 12:8-12)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4-15)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6-1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5:41-4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행 8:12)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전 3:6-7)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 4: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약 5:19-2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3-15)

[생활로써 전도]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9:19-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살전 1:4-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 4:5)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3-16)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일 3:14-19)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3-24)

[전도의 내용인 복음: 예수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딤전 2:4-6)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 막 10:45)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9)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0-1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일 5:1)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 3:35-36)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5-17)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막 8: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눅 9:2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아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롬 7:24-8:4,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엡 2:1-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딤후 1:9-10, 현대인의 성경)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롬 3:20-28, 현대인의 성경)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롬 5:21, 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21-41)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1-10)

#
<회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와 회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일생일대의 회개와 회심은 한 번이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날 빼어낼 자가 없게 된다(요 6:37-40, 요 10:27-29).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어오던 죄들이 미워지고 싫어진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육신적 연약함에 따른 죄지음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회개는 평생에 걸쳐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자녀의 모습대로 살고 싶어서, 온전히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애통하여,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과 다스림을 더욱더 구하며 하게 되는 회개이다. 빛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드러나는 나의 깊은 죄들까지에 대한 회개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게 되는 회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 13:8-10)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 12:7-8)

고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죄악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되자.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될 때, 죄지음이 점점 더 어색하고 싫어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기뻐진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겔 36:26-31)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멀어진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죄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세웠다면, 회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롬 2:4-5, 우리말성경)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잠 28:13-1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행 3:19-20, 개역한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행 3:19-20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앗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호 14:1-9, 새번역)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 55:6-7)

“만일 악인이 그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내 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가 살고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한 의로운 일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만일 의로운 자가 그 의를 떠나 죄를 범하고 죽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며 만일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떠나 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켰으므로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겔 18:21-32, 현대인의 성경)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아, 너는 네 동족에게 말하라. ‘의로운 사람이 범죄하면 그의 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며 의로운 자라고 해도 그가 범죄하면 이전의 의만 가지고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했어도 그가 만일 자기 의만 믿고 악을 행하면 전에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을지라도 그가 만일 자기 죄에서 떠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전당물이나 훔친 물건을 돌려 주고 생명의 법을 따르며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만일 의로운 자가 그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살 것이다.” (겔 33:11-19, 현대인의 성경)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렘 18:7-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 7:11-12)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 130:7-8)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욜 2:12-13)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 1:11-28, 새번역)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8:3-59:2)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해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채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 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 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느 9:16-33, 새번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애 3:40-58)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뢸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 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 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일흔 이레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단 9:2-24, 새번역)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 1:2-11)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6-12)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8-20)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 42:1-6)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욘 3:10)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눅 21:3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롬 14:10-12)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 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눅 3:7-17, 새번역)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눅 6:43-49)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 18:11-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31-32)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3-5)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2:12-16)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4-22)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 11:7)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25-37)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9-10)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 12:6-8).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5-10)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 3: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마 3:8, 공동번역)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1-40)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6-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0-18)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9-1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7-21)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후 3:9-10)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 13:4-11)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2-1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눅 15:17-24, 새번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 15:7-10)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전 1:15-17)

#
<복음과 거듭남>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죄된 자아가 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충 얹혀 사시는 어색한 동거가 아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선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히 7:26).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시 5:4). 고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죄된 자아가 통째로 죽고, 그 자리에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그분의 영생이 통째로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선 나의 죄된 옛사람을 어떻게 목욕시켜보시고 변화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신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래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신다. 불완전한 나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완전하신 당신으로 아예 대체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세상에 물든 우리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썩지 아니할 새 생명, 거룩한 새 자아를 받아 이에 대한 전권(全權)을 거룩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드리므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내주(內住), 인도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의에 대해 내가 온전히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라가며, 삶 속에서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6-20)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1-5)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9-2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2-1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3-1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27-6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6-27)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2-14)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 6:14-15, 새번역)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23, 새번역)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6-11)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써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롬 8:5-16, 쉬운성경)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4-2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벧전 3:15)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골 2:6-14, 새번역)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딛 3:4-7, 새번역)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4-20)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후 5:15-17, 새번역)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나” (골 3:9-10)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벧후 1:3-4, 새번역)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 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벧전 1:18-23, 현대어 성경)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박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전 15:42-57, 새번역)

#
<영접기도, 전권(全權)이양기도>

“하나님,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던,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던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자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인생과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옵소서. 저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사오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저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썩지 아니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제 영혼과 삶 가운데에 모셔드리오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제 안에 왕으로 좌정하사 저와 항상 긴밀히 동행해주옵시고, 영원토록 제 영혼과 삶을 친히 담당,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제 영혼과 삶을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의탁 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의탁 드립니다. 저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2)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8-29)

---

[1] 《비전》장(章) <권리, 명의 이전> 글 참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16-2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
<성화(聖化)>

계속 죄를 내어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속죄 받으면 죄를 짧게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선한 열매를 낼 수는 없다. 본《구원》장(章) <복음과 거듭남>에서도 보았듯 선한 열매를 내기 위해선 땅을 뒤엎어 죄의 씨를 제하고 의의 씨,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한다는(요일 3: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하며(엡 4:22-24), 내 헌 옷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갈 3:27, 롬 13:14)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의 씨앗인 새 생명이 심기었어도 이 씨앗이 새에게 먹히거나, 태양 빛에 말라버리거나, 주변 가시덤불의 방해를 받지 않고(마 13:3-7) 주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주님께 우리의 부분과 변두리가 아닌 어서 우리의 중심과 전부를 내어드리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걸음걸음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하자. 그분 안에서 자라가자.

성화가 이루어져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이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구현에 선한 통로로써 동참하게 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도 기꺼이 따라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한다. 세상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은혜의 창공에서 활공한다.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은혜 중 은혜인 것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전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성숙해 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는 과정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주신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내어맡기고 의존할수록, 적극적으로 교제할수록, 적극적으로 이루어주신다. 무엇보다도 성화의 가장 큰 유익이자 큰 상급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4-28)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7-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1-2)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 20:26)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 21:8)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살후 2: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6-17)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 2:11, 새번역)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4-19)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5-8)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 2:19)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3-16)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눅 9:23-25)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막 8:34-3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4-26)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9-14)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2-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16)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5:25-27, 새번역)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벧전 3:15)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히 6:1-3, 현대인의 성경)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4-14)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롬 8:26-29)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2-14)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벧전 2:10-16)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벧후 3:18)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1-20)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 5:13-14)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16-25)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딤전 4:1-10, 새번역)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3-4)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6-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 1:20-21)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17:15-26, 새번역)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6-1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7-30)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2026년 1월 2일>

오늘의 생명의 삶 QT 본문 묵상

(ChatGPT와 공동작성)

📖 요한일서 2:1–3, 8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으므로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다.”

1️⃣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관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 복음의 목표는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생명의 방향입니다.
- ❌ 흠 없는 도덕
- ⭕ 아버지께 붙어 있는 방향

거듭난 성도는 죄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범죄나 실수 앞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머물 수 없고,
오히려 실수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드러나는 여정입니다.

2️⃣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 🕊️ 죄 이후의 길

요한은 현실을 압니다. 거듭난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묻습니다.
👉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 "죄를 지은 후, 어디로 가는가?"
도덕은 말합니다.
"자격이 없다."
"다시 증명해라."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하여,
결국 회개하고 빛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이 돌아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3️⃣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 ✝️ 화목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변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불의 대신 그분의 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
- 죄 때문에 아버지를 피하지도 않습니다 ⭕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께 다시 안길 수 있는 길입니다. ♡

4️⃣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 🌱 순종의 자리

요한은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 ❌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
- ⭕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있어서 계명이 열매로 나타남

계명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순종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5️⃣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 💖 새로움의 본질

'이웃 사랑'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은 결정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더 이상 말로 요구되는 이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끝까지 이루신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3)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명으로 보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 그러므로 새 계명과 순종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지켜야 할 새 규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을 강권하고 다스리며 이끌어
그분이 사랑하신 방식으로 살게 하는 새 생명의 방향이자 열매입니다.

6️⃣ "그 계명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참된 것" — 🔗 이미와 지금

이 계명은 먼저 그에게 참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사랑을 명령으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으로 완성하셨으며
- 단 한 순간도 사랑을 미루거나 조건으로 달지 않으셨습니다

👉 그러므로 "그에게" 참되다는 말은, 이 계명이 미완의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너희에게도 참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안에서, 그분이 이미 이루신 사랑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하면
- 객관적 성취: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
- 주관적 적용: 성도 안에서 점점 드러남

👉 이것이 구속사의 리듬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랑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동력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7️⃣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 — 🌅 새 시대의 선언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 죄 — 하나님 없이 주인 되려는 삶
- 거짓 — 하나님을 왜곡해 보게 하는 시각
- 단절 — 아버지를 멀고 두렵게 느끼게 하는 상태
- 옛 아담의 질서 — "내가 기준, 내가 중심"인 삶입니다.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구원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하고 불변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죄가 아직 우리 삶의 영역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최종적으로 지배할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비추는 참빛은,
죄와 어둠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주인이 죄의 권세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참빛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왕권으로 다스리시고 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보지 못하게 덮어 버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여 끝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걷게 하는 빛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 여전히 싸우지만 ⚔️
-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왕으로 내주하며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와 상처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다시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덕으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으로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되,
죄 때문에 아빠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자기정죄가 아니라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바로 돌아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새 생명을
오늘의 선택과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게 하소서.
이미 비추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걷게 하옵소서.

나의 대언자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 임재, 내주하신 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7:37-39)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6-17)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 3:2-6)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엡 1:13-14, 새번역)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3:5-7)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행 11:15-18)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6-39)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30-32)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5-36)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9-40)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행 10:43-45)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행 19:4-6)

#
<생수, 생수의 강, 생명수, 강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 36:7-9)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1-12)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슥 14:8-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 4:13-15)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7-39)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2-13)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15-17)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6-7)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 22:1-3)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
<성령으로 거듭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감에 있어 드러나는 필수 특징>

필수 특징 1: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주인 되심을 점점 더 믿고 바라며 고백하고 증언하게 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2-1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5-17)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일 5:1)

필수 특징 2: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의지함과 그에 대한 사랑이 내 삶에서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의지나 사랑보다도 더욱더 커져가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커져간다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눅 10:25-28)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13-19)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11-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2-13)

필수 특징 3: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내가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사랑을 공급받고, 이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치여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대가 없이 기쁨으로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게 되고, 이런 사랑과 은혜의 교제와 선순환과 실천적 통로 됨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커져간다는 것.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1-27)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 3:8-11)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5-23)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1-9)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4:13-5:2)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 1:9-13)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4:31-3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겔 36:25-2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 24:7)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 3: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2-25)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4-15)

#
<순례자의 길 주의사항>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겔 33:13)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2)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11-15)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6-13)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5-18)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살전 5:1-9)

#

<2023년 7월 해외 아웃리치 떠나기 전 팀 예배들(기도회 포함)>

- 은혜가 이긴다. 성령님이 이기신다. 말씀이 이긴다. 복음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영광 받으신다!
-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승전하심을 목도하고 찬양하며 감격한다!

-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자 소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해지고 돌아오는 아웃리치가 되는 것!

(찬양 → 팀종님 대표기도 → 돌아가며 큐티 나눔 → 기도회)

[기도회를 위한 말씀 구절들]

[회개]

이사야 55장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3장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1장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한일서 1장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은혜의 복음 의지]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디모데전서 2장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서 2장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성령 의지]

출애굽기 33장
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로마서 8장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안에서의 팀 연합]

갈라디아서 5장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빌립보서 2장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4장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로마서 15장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팀 사역을 위한 성령 안에서의 겸손과 능력]

빌립보서 3장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전서 2장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베드로전서 4장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스가랴 4장 (현대인의 성경)
6.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7.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팀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팀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연합하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팀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교 역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길.

*아웃리치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
아웃리치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여,
지역 거주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길.

[축복기도]

에베소서 3장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
<2023년 7월,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기 필리핀 보홀 지역 아웃리치 김현기 형제(중보직임) 간증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보홀리(BoHoly = Make Bohol Holy) 팀은 필리핀 보홀 지역 선교(2023.7.22 – 7.30)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홀리 팀은 여러 마을과 농구장, 해변, 리조트, 편의점, 우물가, 시장 광장, 들판, 공항 등에서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충분히 전할 여건이 안 될 때도 항상 함께 축복 및 영접기도는 하였는데, 총 대략 300명(약 270명에서 340명 정도 추산)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홀리 팀 사역은, 연설 형태의 복음 전파 외에도, 의료 사역, 변기 설치 사역, 건축 사역, 스포츠 사역, 인형극(복음 내용 포함), 워십댄스(SUM), 현지어 찬송, 어린이 사역(어린이 대상 복음 전파 포함) 등이 있었고, 모든 사역마다 현지 주민분들과의 축복 및 영접 기도를 되도록 항상 포함했습니다.

우리 팀은 매일 아침 대략 1시간 ~ 1시간 반 정도, 저녁엔 대략 3시간 반 이상의 예배, 말씀묵상, 하루 사역 간증, 기도회, QQ(개인 삶 간증 및 기도제목 나눔), 중보기도 등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 전파 내용]
농구장에서 대략 120~150명 앞에서 전했던 복음 전파 및 영접기도 내용

“Good morning, brothers and sisters. It’s a great joy to be here with you today, and I bring you a message of profound hope, love, and redemption – the Gospel of Jesus Christ.

God’s love is bigger than anything we can imagine. We exist because of God’s love. He created the universe and humanity, and breathed life into us, for us to experience love, peace, and joy of eternal life in Him.

However, there is a problem. We have sinned, and our sins have separated us from such loving, eternal relationship with God.

But do not worry, there is good news for us. God has given us a way back to Him, and that way is Jesus Christ. Jesus, the sinless Son of God, came to our world, taught us about the Kingdom of God, performed many miracles and signs, and lived a perfect, sinless life, in service of humanity. His most impactful act was His sacrifice on the cross for our sins. He suffered and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and erase our sins.

And yet, that wasn’t the end of Jesus’ life! As God’s perfect Son, death could not keep hold of the sinless one, and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he resurrection confirmed Jesus as the divine Son of God.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provided the way for us to come back to God, reunite with God,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have eternal life in Him.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let us celebrate and rejoice in this Good News of Jesus Christ. Our salvation through Jesus is only a heartfelt prayer away. In it, we acknowledge and repent of our sins, and put our trust in Jesus as our Savior and Lord, and thereby receive His forgiving and saving grace.

I’m sure all of us need and desire such saving grace. Shall we pray?

> **“Dear Almighty God, I know I am a sinner and I seek Your forgiveness. My sins have pushed me away from You, but I now repent of my sins, and seek Your forgiveness, love, and presence.**
>
> **I believe in Jesus Christ, Your sinless Son, whom You sent to die on the cross for my sins. He bore my punishment on the cross, and was raised from the dead.**
>
> **At this moment, I welcome and accept the risen Lord Jesus Christ into my life as my only Lord and Savior. I give Him full control over my life, heart, and soul, now and forever.**

Thank You, God my Father, for Your gift of salvation through Jesus. Please fill me with Your Holy Spirit, and help me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You. From now on, I am Yours forever.

In Christ Jesus' name, I pray. Amen."

Thank you for listening!"

[여러 때와 장소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했던 축복 및 영접기도 내용]

"Dear Father God,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in your love and presence.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Jesus Christ to save us from our sins and death.
At this moment, we receive and welcome Jesus as our Savior and as our Lord.
Thank you God for having us as your beloved children through Jesus Christ.
Please fill us with your Holy Spirit so that we may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you.
[그때 그때의 축복, 치유 등 기도 포함]
We pray in Jesus' name. Amen."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년 8월 22일,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기 학생애찬(愛餐) 제1차 준비기도회 "성령대부흥 예수님과 먼저애찬 기도대성회"를 중보 직임으로서 기획하고 기도회 인도를 준비하며 모은 관련 성경구절 모음>

[기도회 주제 구절]
-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39-42)
-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6:27-29)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회개를 통해 예수님 품에 쏙]

회개 #1

-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1-5)
-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 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계 2:2-5, 새번역)
-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12-17)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4-22)
-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8-10)

회개 #2

-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 9:26-27)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 5:1-4)

-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2-13)
-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2-6)
-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8-10)

회개 #3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 55:6-7)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 12:1-8)

#복음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전 1:15-16)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9)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롬 7:24-8:3)

-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4-25)
-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5-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8-29)

[성령 충만을 구하여 하나님 품에 쏙]

성령 충만 #1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6-18)
-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1-13)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7-39)
-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5)
-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 3:2)
- "그에 대하여[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행 10:43-44)
-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딛 3:4-6)
-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행 7:55)
-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행 11:24)
-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9-31)
-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행 13:52)

성령 충만 #2
-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3-18)
-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6:11-14)
-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고후 10:4-6)
-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4-14)

성령 충만 #3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8:15-16)
-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5:1-2)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2-25)
-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18-22)
-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2-3)

[말씀 묵상(누가복음 본문) 및 돌아가며 묵상 나눔]

누가복음 15 장 돌아온 탕자 본문

[성령님께 학생애찬을 위한 기도제목 구하기]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10-12)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주신 기도제목 돌아가며 나누고, 나눈 기도제목 및 애찬 각 팀 팀장님들 기도제목을 두고 합심 기도]

-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4-12)

#

<2023년 8월 29일,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기 학생애찬(愛餐) 제2차 준비기도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애찬의 이유”를 중보 직임으로서 기획하고 기도회 인도를 준비하며 모은 관련 성경구절 모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회개]

- “우상을 만드는 것과 꼭 같은 나무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아,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때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 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사 44:16-22, 새번역)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딤후 4:2-4)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3:17-21)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 5:37-40)

[성령으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간구]

-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 20:30-34)
-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25-32)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일 2:27)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3-14)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도록 간구]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0-31)
-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 19:7-10)
-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 119:40-50, 새번역)

-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3-105)
-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행 17:11, 현대인의 성경)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17)
-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18-25)

[미혹과 헛된 속임수에서 보호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켜주시고 양육하시길 간구]

-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벧후 3:17-18)
-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골 2:3-19, 새번역)
-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딤전 4:1-9)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3-15)
-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4-19)

#

<2023년 9월 5일,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기 학생애찬(愛餐) 제3차 준비기도회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 안에 나 있다!"를 중보 직임으로서 기획하고 기도회 인도를 준비하며 모은 관련 성경구절 모음>

[기도회 주제 구절]
-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4-56)
-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20)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4)
-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회개: 예수님께 주권 이양]
-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렘 4:1-2, 새번역)
-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렘 25:5)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렘 3:14)
-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 (신 7:25-26)
-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삼상 7:3-4)
-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 28:13-14)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7-11)

-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4-38)
-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5-27)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7-39)

-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6-27)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 10:16)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벧전 3:15)
-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고후 10:4-6)
-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6-27)
-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5-14)

[예수님 환영, 영접, 연합]
-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19-20)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5-16)
-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일 4:2-3)

-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딛 3:4-6, 새번역)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6-11)
-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 2:6-19)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4-12)

[요한복음 6장 9~63절 묵상 및 돌아가며 나눔]
-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기도]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16-20)
-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3-26)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2-15)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7)
-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전 6:17-20)
-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고전 6:17, 현대인의 성경)
-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13-14)
-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후 13:5)

[“내가 예수님 안에” 기도]
-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2:10, 새번역)
-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1:9)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일 5:18-20, 현대인의 성경)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13-27)
-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10-11)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
-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골 2:6-7)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전 1:2-4, 새번역)
-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딤후 2:1)
-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일 2:22-24)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9)
-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1)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 1:20-21)
-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 3:1-4, 현대인의 성경)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7-30)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영원한 연합: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과 성령, 빛의 열매" 기도]
-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3-14)

-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롬 5:8-9, 새번역)
-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 3:5-17, 새번역)
-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엡 3:17)
-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 5:4)
-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 6:11-15)
-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3-15)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벧전 3:15)
-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고후 10:4-6)
-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1-23)
-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박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골 2:12-19, 현대인의 성경)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롬 8:1-17, 현대인의 성경)
-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4:1-32, 현대인의 성경)
-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갈 5:18-26, 현대인의 성경)
-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갈 6:7-8, 현대인의 성경)

[“주 예수 그리스도: 압도적 사랑, 넉넉한 구원” 기도]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7-18)

[3분 휴식]

[애찬 준비 기도]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9-12)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 3:3-4)

-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8-11)

[개인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
-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삼 1:2-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주기도문]

#
<2023년 9월 12일,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기 학생애찬(愛餐) 제4차 준비기도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애찬: 성령충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중보 직임으로서 기획하고 기도회 인도를 준비하며 모은 관련 성경구절 모음>

[기도회 주제 구절]
-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18)
-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딤후 3:1-5, 새번역)
-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1-22)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19-21)
-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벧전 1:22)
-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 10:12)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눅 6:27)
-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눅 6:35)

[회개: 열매 없음을,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을 회개]
-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4-9)
-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1-2)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3-20)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4-27)

-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

[누가복음 6장 27~49절 묵상 및 돌아가며 나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간구]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1-27)
-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38-48)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19-34)

-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 25:31-46)

-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눅 3:3-17)

-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7-12)

-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8-18)

-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1-27)

-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5-11)

[열매 맺는 방법, 믿음]

-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4-6)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39-43)
-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8:9-17)
-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 9:12-13)
-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14-26)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4-17)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6-23)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1-24)
-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일 2:28-29)
-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7:22-8:14)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16-26)
-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7-9)
-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9-14)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7-21)
-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후 5:13-15)

[열매 맺는 삶의 모습]
-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전 12:1-31)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3:1-8)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21)

-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14)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롬 14:7-13)
-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 15:1-7)
-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 5:8-33)
-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엡 6:1-9)
-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 3:12-25)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라는 축복 기도]

-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 1:9-11)
-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3분 휴식]

[애찬 준비 기도]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9-12)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 3:3-4)
-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8-11)

[개인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
-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삼 1:2-3)
-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 f“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주기도문]

#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14)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 3:31-36,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 5:17-2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30)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 5:36)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 8:26-29)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 8:38)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 8:4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30)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 12:44-4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 13: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3-24)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 15:23)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요 17:5-7)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1-22)

#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경 신구약에 나타난 성삼위의 역사와 성삼위 간의 교제에 대한 방대히 많은 구절들을 다는 못할지라도 최대한 모아보았다. 성삼위일체의 지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나의 이해를 몇 자 적어보자면, 부자지간의 판박이, 부부지간의 일심동체,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서로의 말과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 등과 같이 인간 사이에도 상당히 친밀한 사이를 표현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항시의 교제와 온전한 연합과 동행 가운데, 균열이 1도 없이, 즉,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완전무결한 사이로 연결된 하나님과 그분의 본체의 형상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는 무한하고 온전한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연합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무한한 사랑 선순환의 관계로서, 서로 간 균열이 1도 없는 관계이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나마 이에 근접한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등이 있지만, 이조차도 성삼위 간의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에 비하면 연합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지극히 미흡하고 불온전한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인간적 이해를 돕자면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영원한 성삼위 간의 순전하고도 충만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원대하고 무궁무진한 순도 100프로짜리 사랑의 폭포수가 형성되고, 그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대표되어 나타났다.[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1-3)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1] 《선제적 낭만》 장(章) <사랑의 원천> 글 참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6-28)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7)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창 41:37-4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4)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출 31:3-4)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 35:31-35)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있는 내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너를 도와 백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70명을 불러서 성막 주위에 서게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했으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은 성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으므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그때 한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자 어릴 때부터 모세를 도와 일해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민 11:16-29, 현대인의 성경)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민 24:2-5, 새번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 27:1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삿 3:9-10)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삿 6:34, 현대인의 성경)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가던 중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왔다. 그 순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므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버렸다.” (삿 14:5-6, 현대인의 성경)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시므로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져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삿 15:14-15, 현대인의 성경)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삼상 11:5-7)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삼상 16:13-14)

“그 길로 다윗은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나욧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욧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곳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므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예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라마의 나욧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나욧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그가 나욧에 도착하기까지 줄곧 예언하였다. 그는 또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종일 밤낮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삼상 19:18-24, 현대인의 성경)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자, 야곱의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자, 이스라엘의 시인 다윗이 노래하노라.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네 혀에 있구나.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 같고 청명한 아침 같으며 비 온 뒤의 햇볕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삼하 23:1-4, 현대인의 성경)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왕하 2:9-17)

“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대상 12:18)

“다윗은 현관, 창고, 별관의 다락방, 골방, 지성소, 그리고 뜰을 포함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대상 28:11,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느 9:19-31)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나는 나이 많은 자가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욥 32:7-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 33:4)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 2:7-12)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10-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11)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90:2)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 104:28-30)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시 110:1-5)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 139:4-10)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 143:10-11)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3)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22-30)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7)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11:1-10)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5-17)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때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사 32:1-17,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이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사 34:16, 현대인의 성경)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사 40:10-15)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 42:1-7)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사 44:1-3)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나아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하여 언제나 내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과 함께 나를 보내셨다. 너희 구원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또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너희 평화가 강물 같고 너희 의가 바다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너희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또 너희가 멸망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론을 떠나 자유를 찾아라. 너희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사 48:16-20, 현대인의 성경)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 53:5-12)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 59:20-21, 새번역)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3)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셨다. 그때 백성들이 옛날 모세 때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바다에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모세를 통하여 그의 크신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바닷물을 갈라 자기 백성을 깊은 물 가운데로

인도해 내셔서 영구한 명성을 얻으신 분이 어디계시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누비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깊은 물을 건넜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비옥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호와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처소에서 우리를 보소서." (사 63:10-15,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렘 23:5-6)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31:33-34)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겔 1:26-2:2)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네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겔 3:10-12, 새번역)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 (겔 11:1-5, 현대인의 성경)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1:17-21)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겔 36:25-28)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7:13-14)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39:28-29)

“점장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박사장 벨드사살아, 나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꿈을 해몽하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본 환상은 이렇다 내가 보니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다.” (단 4:7-10, 현대인의 성경)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단 5:13-14)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단 7:13-14, 새번역)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욜 2:27-32)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정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제사장들은 급료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 숲이 무성할 것이다.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미 3:8-12, 현대인의 성경)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뭍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 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학 2:4-7, 새번역)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1-23)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 3:1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 4:1-11)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8-20)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 11:25-27)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 12:28-32)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5-1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30-37)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6-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 3:28-35)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막 13:11-32)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막 16:19-20)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눅 1:13-16)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눅 1:31-35)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1-14)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46-52)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16-22)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눅 4:1-1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눅 9:20-26)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눅 9:32-3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눅 10:18-2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 11:20)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눅 12:4-1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눅 20:41-44)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눅 22:69-70)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눅 23:39-43, 새번역)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눅 23:46-47)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눅 24:44-5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14)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23-3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 5:17-39, 새번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27-40)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이것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요 6:44-47, 현대인의 성경)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6:56-57)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 6:69)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8-39)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 8:26-58)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 10:27-30, 새번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 10:32-28)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11: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40-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 12:44-50)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 13:3)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6-13)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16-2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요 14:23-28, 새번역)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1-5)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8-17)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요 15:23-24)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요 16:7-15, 새번역)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 16:26-32)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 17:1-1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1-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17-22)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0:26-29)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0-31)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5-10)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 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행 2:1-40, 새번역)

"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행 4:8-12, 새번역)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행 4:24-35, 새번역)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9-32)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행 7:55-56)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행 8:12-17)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귀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고관이 빌립에게 '이 말은

이사야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행 8:29-40, 현대인의 성경)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 9:31)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흗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행 10:34-48, 새번역)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 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행 11:15-18, 새번역)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죄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던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행한 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체를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행 13:22-39, 현대인의 성경)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행 16:6-10)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행 17:24-31)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행 19:2-6)

“유대인이나 그리이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에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행 20:21-28,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롬 2:29, 현대인의 성경)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롬 3:20-2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11)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6-13)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옭아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롬 7:6, 새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롬 7:25-8:17, 새번역)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롬 8:26-29)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2-3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13)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롬 14:17-18)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17-19)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롬 15:3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전 1:8-9, 새번역)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4)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7-14)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전 3:23)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7-20)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전 8:6)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전 11: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전 12:3-13, 새번역)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0-28)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후 1:21-22, 새번역)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하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고후 3:3-18, 현대인의 성경)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후 4:4-15)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16-2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20-21)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 3:5-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 3:13-14, 새번역)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4-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15-25)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4-5)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엡 1:7-14,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엡 1:17-22)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13-22)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6-21)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엡 4:3-7, 새번역)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4:20-32,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1-2)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 5:17-21)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 6:18-2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 1:11)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빌 2:1, 현대인의 성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 3:3)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20-2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 4:19-20)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4-20)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6-29)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골 2:9-19, 새번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전 1:4-6, 새번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16-24)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후 2:13-1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딤전 2:4-6)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13-16)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9-14)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딛 3:4-6, 새번역)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1-3)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히 2:3-4, 새번역)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 5:5-10)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 7:23-27)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 9:14-15)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2-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약 4:5)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벧전 1:2)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벧전 1:7-12, 새번역)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벧전 1:19-21)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2-25)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4:12-14, 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16-2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1-7)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일 2:1-5)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일 2:22-29,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일 3:22-24, 새번역)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일 4:1-4)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9-15)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5: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18-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 1:20-21)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5)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 같은 형제이며 하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 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밧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이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 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 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계 1:4-19, 현대인의 성경)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4-2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9-17)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14:12-1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1-16)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1-7)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 21:22-23)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1-5)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소서!'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와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계 22:16-21, 현대인의 성경)

#
<삶의 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께 나에 대한 전권(全權)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합당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가?[1] 아니면 혹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육체의 소욕을 다시 심폐소생시켜서 내 영혼의 보좌에 앉혀두고는 목숨까지 버리시며 기껏 나를 자유하고 온전하게 하셨던 예수님께는 그냥 문 밖에 간이의자 하나 갖다 드리고 가끔씩만 들어오시라고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 6:4-6).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세상 끝날까지 붙드셔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옵소서(시 37:24). 넘어져도 주를 향해 넘어지고, 일어서도 주를 향해 일어서며, 방황을 하더라도 중심은 언제나 주를 향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밤을 주의 품에서 잠들게 하시고, 내세 첫 날의 아침을 주의 품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시 131:2 & 68:3, 히 11:16). 나를 영원토록 붙드사 떠나지 마옵시고(히 13:5, 수 1:5, 마 28:20) 제가 아버지를 떠날 수도 없게 하옵소서(렘 32:39-41, 신 30:6, 애 5:21, 왕상 8:57-58, 시 51:12, 사 63:16-17, 사 59:21, 렘 17:14, 겔 16:8, 왕상 18:37).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나의 영, 혼, 육, 삶 전부에 대한 전권(全權)을 돌이킬 수 없이 기쁨으로 이양, 양도 드리오니(눅 18:28, 막 10:28, 벧전 4:19, 롬 14:8, 살전 5:23-24) 어서 오셔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사 아버지의 기쁨대로 사랑을 나누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13:34-35, 요 15:4-5, 요일 3:23, 골 1:10, 약 3:17-18, 갈 5:22-24)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히 13:20-21, 시 16:7-11, 행 17:28, 고후 10:5).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버지께서(시 95:3, 대상 29:11-12) 친히 다스리시는 성읍이요(렘 33:9), 거하시는 성전이요(고전 3:16), 소유하신 기업이요(엡 1:11),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사오니(요 1:12, 롬 8:16), 그 어느 무엇도, 그 어느 피조물도 아버지 손에서 저를 빼앗을 수 없게 된 것을 감사하고, 심지어 저 조차도 아버지 손에서 저를 빼앗을 수 없음에, 아버지께서 친히 저의 믿음의 여정과 여생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합니다(눅 22:31-32, 롬 8:39, 요 10:29, 요 15:16, 롬 11:29, 민 23:19-20, 렘 32:39-41, 시 31:5, 애 5:21, 시 51:12, 살후 3:5, 빌 1:6, 살전 5:23-24, 신 30:6, 히 13:20-21, 유 1:24-25, 딤후 4:18, 요 17:11).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절실히 여겨지는

---

[1] 《비전》장(章) <권리, 명의 이전> 글 및 《구원》장(章) <영접기도, 전권이양기도> 글 참조.

너무도 중요한 기도이기에(막 8:36) 부질없고 능력 없는 나의 치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마 6:7).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이요(요 14:6, 행 4:12, 히 5:9), 아버지의 본체시요(빌 2:6, 히 1:3),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시며(요 3:16, 요일 4:9),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고(딤전 2:5),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옮기신(눅 4:18-19, 요 3:15-17, 요 10:10, 히 2:14-15 & 10:12-14, 고전 15:55-57, 행 26:18, 롬 4:25 & 5:8-21 & 6:3-23 & 8:2 & 8:34-39, 골 1:12-22 & 3:1-4, 딤후 4:18)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14:13-14).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4-25)

#
<맺음말>

"죄의 댓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롬 6:23, 현대인의 성경)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9-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 2:10-12)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5-3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2-1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고전 16:22-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 8:24)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 6:68)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7)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 33:29)

《V. 가정설계와 가정생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고전 7:7-38)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1:1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5:24)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잠 27:15)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 19:13)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 17: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 14: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 15:1-4)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 15:1-4, 새번역)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시 15:1-4,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 2:18-25)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 4:11)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 3:3)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 19:14)[1]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 18:22)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전 9:9)[2]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 5:15-20)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살전 4:3-5)

---

[1] 만 21세가 되던 해 소속 군부대의 신우회 신년예배에서 뽑은 말씀 (당시 이등병). 선임들이 자신들에게 팔라고 했지만 ‘팥죽 한 그릇’ 유혹의 넘어가지 않고 “아멘”과 감사로 받은 말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온 ‘배우자 기도’의 극적인 응답으로 사실 입대후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나를 생각하며 심각하게 독신으로 사는 것(고전 7:7–8)에 대해 생각하던 중이었다.

[2] 위 말씀을 뽑은 동년 시월 어느 날 새벽 ‘올해 뽑은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고 당일 차례에 따라 성경을 읽던 중 재차 보증 받은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 5:16-21)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말 2:11-16, 새번역)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 19:4-9)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6-16)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 5:21-33)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1-9)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18-2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3-9)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6)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3-24)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벧전 1:21-2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7-20)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 10:12)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이 1:3)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딛 2:11-12)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은근히 유혹하여도 여러분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며 정에 끌려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감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를 사정없이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는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손을 대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신 13:6-10, 현대인의 성경)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딤후 1:5)

#
<독신의 유익과 은사>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 19:7-12, 현대인의 성경)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말합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여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7:7-40, 현대인의 성경)

#
<'배우자나 가족을 포함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를

온전히 의탁할 분은 유일한 아버지 곧 하나님 한 분이시다. 가족 사랑, 사람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고 믿어주고 기대해 주고 잘 되길 응원해 주는 것이지, 나 자신을 부탁하여 믿고 맡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결혼 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더욱 깨달은 것.>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 2:24-25)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9)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2-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4-45)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27-38)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 24:40-42)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눅 17:33-35)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 9:27-28)

#
<찬찬히>

조급과 집착 같은 것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좋은 판단의 근간이 되는 객관성,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일수록 맑은 정신과 충분한 내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결심을 보류해야 한다.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한 때 가장 조심하고 침착해야 한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다. 절실함의 대상으로는 변치 않으시고 흠과 실수가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마땅한 이가 없다. 차를 천천히 몰면 때론 경적소리를 들을지언정 사고 위험은 적다. 반면 급히 몰 땐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큰 위험으로 내몰아 간다.

찬찬히, 잠잠히, 신중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넉넉한 여유를 지니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 21:5)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삼하 13:1-15, 새번역)

#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장 나 다울 때 ‘A 급’ 후보가 될 수 있다. ‘나다움’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나를 추구하려 한다면 ‘2 인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창조주가 우리 개개인 안에 숙고하여 심겨주신 보석들을 찾아 개발 할 때 모두가 ‘1 인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을 가장 사랑해줄 사람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괜한 연기로 언젠간 드러날 참모습을 위장하여 사랑을 엮어봐야 쌍방 모두에게 재앙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 2:25)

#

<‘밀당’?>

살면서 ‘밀당’을 할 수 없는 이유: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할 필요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내게 우위가 생기면 그게 싫고, 그마저 바로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상대를 웃게 해주고 싶을 것이기에.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더 행복할 것이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전 13:4-5)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서 택한 ‘밀당’의 방법 또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밀’은 없고 ‘당’만 있는 ‘밀당’이었다. ‘밀’을 하시기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을 터. 이처럼 진정, 정직, 진심과 같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만 지나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7)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
<인연 1 – 결혼 전 쓴 글>

로켓에겐 추진체가 추진체엔 로켓이 필요하지 로켓만 두 개 혹은 추진체만 두 개로는 제 아무리 각각은 거창해도 무용지물이다. 한 사람 안에 로켓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추진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둘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딱 적합한 로켓과 추진체가 되는 인연. 그리고 양쪽 로켓 각각의 궁극적 종착점을 ‘더욱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으로 소망하는 인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대언해주는 인연. 사랑 가운데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시켜주는 인연. 그런 인연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8-1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 2:20-25)

#
<인연 2 – 결혼 전 쓴 글>

<인연>이란 <인생>하고 닮은 점이 많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운명이 이루어 나가는 것도 같다.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돼도 안 되고
뜨거운 가슴으로만 이해돼도 안 된다.

물 같이 사랑하면 수증기 밖에 안 되고
불 같이 사랑하면 재 밖에 안 된다.

별 일도 아닌 것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하다가
별 일도 아닌 것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게도 된다.

어차피 이런게 인연이라면, 혹은 인생이라면,
쉬지 않고 출렁이는게 인연이고 인생이라면,
그 출렁임 자체를 끌어안고 싶다.

정직을 다해 진심을 다해 양심을 다해
하나 하나를, 하루 하루를 끌어안다 보면,
출렁임 속에도 세세히 베여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덧 만나야 할 바로 그 인연을 만나고
살아야 할 바로 그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기대해본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 73:23-24)

#
<인연 3 – 결혼 전 쓴 글>

한 여자를 평생토록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았다. 세상에 여자는 딱 한 명이 되는거다. 그 사람 딱 한 명. 그리고 그 사실이 어찌나 고맙고 다행이고 충분한지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거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13)

#
<인연 4 – 결혼 전 쓴 글>

서로 성경 읽어주는 인연. 하나님 얘기를 잔잔히,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인연. "하나님 얘기 좀 들려줘~"하면 예쁜 말로, 맛있게, 잘 소화되게 요리하여 서로 떠먹여줄 수 있는 인연.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듣고 싶어지는 그런 인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후 3:3)

#
<사랑의 저력>

모든 것에는 연이은 부연설명이 필요하지만, 사랑만큼은 그 자체로 충분히 설명 되는 것 같다. 사람은 자신의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하지만, 사랑할 땐 '의미'라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사랑은 자체적으로 완성이기 때문이다. 언뜻 볼 땐 살기 위해 밥 먹고, 밥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밥 없이도 배부른 때는 사랑할 때이다. 사랑 앞에선 주름 많은 노인도 해맑은 아이가 되고, 코흘리개 아이도 늠름한 청년이 된다. 세상을 다 가져도 텅빈 것 같을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해도 바꿀 수 없는게 사랑이다. 이토록 귀한게 사랑이지만 마음껏 퍼주고 되돌려 받을 생각도 안하게 되는게 사랑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사랑 이야기, 이런 사랑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
<사랑할 때 기억할 것>

- 낭만을 누리려면 낭만을 지키려는 각오가 더 커야 한다.
- 사랑은 두 남녀가 새 하얀 캔버스에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다. 세상에 많은 커플들이 이미 그려놓은 많은 예들이 있지만 결국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둘에게 달려 있다.
- 가까운 사람일 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동화에 근접한 낭만을 누리지 않을까.
- 이성이 결여된 감정의 사랑, 감정이 결여된 이성의 사랑, 다 곧 깨질 사랑이다.
- 아무리 사랑이라도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기에 분명한 경계들이 생긴다.
- 정의상 무절제와 맹목에선 조화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다. 설령 그것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일지라도.

- 프랑스 극작가 샹포르는 “연애가 결혼보다 즐거운 것은 소설이 역사보다도 재미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인생을 돌아볼 때 의미로 남는 것은, 내가 산 역사이지 읽었던 소설이 아니다.
- 행복한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보단 적어도 1%는 더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인 순환이 이어가진다. 또한 그렇기에 외로움 때문에만 지속되는 사랑, 나의 욕심에 의해서만 지속되는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순환이 안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한 쪽은 고갈되고 다른 한 쪽은 고여서 썩어간다.
- 사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 상대를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의지하면 뒤통수 맞는다. 결국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 사랑을 받아만 본 사람은 평생 게 맛은 모른채 맛살만 먹고 사는 것과 같다.
- 사랑과 중독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랑은 서로를 살리고, 중독은 서로를 죽인다. 사랑과 집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고 집착은 나를 위한다.
- 똑같은 결혼이지만 누구에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누구에겐 가장 큰 실수가 된다.
-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픈 간절함 보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더 크면 무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설령 처음엔 상대가 바보 온달일지라도 그런 자세라면 어느덧 장군 온달이 돼있을 것.
- 완제품은 편리하나 조립품에 비해 추억도 의미도 보람도 적다. 완제품만 찾기 보단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완전하게 해주고픈 인연을 찾아야 한다. 완제품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을 지녀서 자칫하면 엄청난 파괴만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만큼 신중을 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 비로소 서로를 위한 건설적이고 가공할만한 에너지로 쓰인다.

#

<사랑을 배우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듯, 국어를 배우듯, 양심이란 것이 직감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됐으나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을 통해 내재된 직감을 계발하고 체계화하듯, 사랑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는지.

어쩌면 그 어떤 과목이나 기술이나 삶의 영역보다도 가장 나와 타인에게 큰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의미와 충만함이 되는 사랑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경각심 없이, 체계도 없이, 너무 “마음 가는 대로”만 방치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심지어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사랑은 가장 따듯하고 말랑말랑하고 푸근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치열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그러한 사랑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동반하고 있는지.

처음엔 그리 아름다웠던 풍경을 나의 무지와 욕심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 그것마저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반성하고 공부하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벧전 3:7)

#
<혼전 순결>

인생을 걸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섬김을 공식 맹세하기 전에, 언약의 제도권 안에 정식적으로 축복과 격려를 받으며 들어가기 전에 또는 그 밖에서 맺는 성행위에는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고 내뺄 수 있는 퇴로가 열려 있다. 아무리 말로는 “내 자신을 다 내줄 만큼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할지라도 결혼이란 공식 언약도 전에 나의 순결을 지켜주려 하기는커녕 자신의 욕구를 위해 순결을 빼앗으려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 고백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왜 순결을 지켜주고 존중해주어야 하는가? 상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만큼 공 드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존중 받아 마땅한 존귀한 개인임을 인정한다면, 그를 혹은 그녀를 그저 나의 욕구 충족의 대상 정도로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언약의 제도권에 들어가기 전에 – 아니, 들어간 후에도 나의 욕구보단 상대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고귀한 개별 인격으로 극히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할 진데 – ‘사랑’이란 미명하 상대의 순결과 믿음을 대가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행위가 혼외 성행위인 것이다.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끝이 없고, 채우려 할수록 욕심은 더 커지기에 이러한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안정감과 아늑함을 누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딤후 2:22)

#
<낙태를 고민조차하기 전에, 모태 신앙의 축복>

“살인하지 말라” (출 20:13)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롬 13:9)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 24:11-12)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 4:5-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3-5)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3-17)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렘 1:4-5)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6-27)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눅 1:41-44)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7)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71:5-6)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 22:9-10)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 (사 44:2)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사 49:1)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갈 1:15-16)

#
<결혼식과 사랑>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랑 사랑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랑은 매일 매일 노력해야 하는 거다. 결혼은 지켜내는 것이고 지켜내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적 울타리는 지속 성장 가능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키우고 누리기 위한 마음가짐이 적거나 없다면, 때로는 이해하는 마음, 때로는 사죄하는 마음, 늘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심지어 내 부모나 내 자식보다도 서로를 늘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등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불행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탓하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탓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있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나의 불행을 초래시킨 게 아니다.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 보이기에, 내 마음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하는 관계이기에, 겸허히 겸손히 사랑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게 첫 단계이지 않을까.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의 근원지를 놓치면 유한한 인간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랑만 있을 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17-21)

#

<불륜>

부부의 불륜 문제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매번 외면하고 적반하장인 모습을 보이는 외도·불륜남과 외도·불륜녀를 보며,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안 나기가 어렵다. 불륜은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이혼 사유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시지만, 지속적이고 고의적이며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스스로 더이상 죄로도 여기지 않으며 양심의 가책도 무뎌진 불륜은 구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구제불능의 경지에 이르른다.

기회가 있을때 돌이키자. 그만 교만하고, 그만 부정직하고, 돌이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 19:3-9)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 6:20-35)

#

<아름다운 상호건설적 관계>

관계를 아름답게, 상호건설적이게 하는 기적은 죄인 둘 사이에선 별로 나타날 가망이 없다.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구하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되게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지혜로 서로가 충만해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거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이 좋게 더불어 살려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는 걸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힘입어 이웃과도 상호건설적인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3-18)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3-18)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

#

<외로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 102:6-17)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 68:5-6)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 73:25)

#

<고민>

사랑이란 것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다만 사랑할 때 생기는 고민은 안 할 때 생기는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 3:5)

#
<남녀평등>

남자와 여자는 평등할 수 밖에 없다.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없고,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없기 때문이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고전 11:11-12)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7-28)

#
<부모님 추천>

부모님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결혼하진 않을 거에요. 결국은 제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도 하고 싶지 않죠. 그분들은 어른의 안목과 연륜의 지혜를 가진 분들 중에서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니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 23:22)

#
<모름지기 남자라면>

모름지기 남자라면, 칼이 있고, 불이 있고, 동물 사체가 나뒹굴며, 주어진 시간 내 조직적인 셀프 리더십을 역동적으로 발휘해야만 승리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야 한다면, 마땅히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 고로 남자는 주방에 마땅히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3-14)

#
<육아와 살림, 한 가정을 돌보고 꾸려가는 것과 회사 일, 나랏일, 거국적인 일>

모름지기 회사 일, 사회 일, 나랏일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육아와 살림, 가정일에도 능할 수밖에 없다. 이 일들 모두 다 유사한 눈치와 통찰력, 상황 파악, 솔루션 기획력, 추진력, 실행력, 멀티태스킹 능력, 창의력과 효율성,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능력, 조직력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피드백 수렴 및 반영 능력, 공감과 비전 제시 능력, 사명감과 책임감, 헌신과 솔선수범, 자기부인과 희생정신, 온유함과 인내 등의 능력을 요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의 섬김이란 대의(大義)를 이룰 것을 요구하는 일맥상통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정은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회적 성공도 그 정도의 실력과 자질,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은 표면적으로만 성공처럼 보이는 일시적 허상일 수 있다.

즉,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등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한 집안을 화목하게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만사에도 성공할 능력의 기본을 갖춘 것이다. 자신과 가정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속 가능하도록 세울 수 있는 인물은 태평성대도 이룰만한 필수적 능력과 자질, 지혜와 성품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 하겠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일과 나랏일 간 필요충분조건 관계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잘 세웠다고 하여 이를 태평성대를 이룰 만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은 제대로 돌보고 이끌지 못하면서 국가를 세우고 이끌겠다고 하는 건 태평성대를 이룰만한 자의 필요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 25:2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 16:10)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7)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딛 1:5-6)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전 3:8-13)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1-9)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맞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 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 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오"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잠 31:10-31, 새번역)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4)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3-17)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4-14)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18-24)

#
<결혼 1>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히 13:4)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 3:19)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전 7:10-11)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6)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딤전 3:12)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엡 5:33)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7)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5)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5)

#
<결혼 2 – 결혼 전 쓴 글>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다른 누군가에게 변함없는 헌신과 섬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닮아가며 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장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되어주는 부부이기를 소망하며, 서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 성장시켜주는 관계가 되길 기도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 4:11)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전 7:2-5)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고전 7:14)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엡 5:21-33, 새번역)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벧전 3:1-12, 새번역)

#

<결혼 3 – 결혼 후 쓴 글>

결혼은 행복을 위함이 아니다. 자기부인(自己否認)과 사랑의 섬김을 위한 사명에 대한 순종이다. 출산과 양육도 행복을 위함이 아니다. 자기부인과 사랑의 섬김을 위한 사명에 대한 순종이다. 사랑의 섬김이란 자기부인에서 시작되고, 의지적, 결단적, 무조건적 섬김이며, 호혜성(互惠性)을 기대하지 않는 순종이다.

행복은 뒤따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사명은 사명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넘을 때 가능한 숭고한 사명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혼 시점부터는 상대와 무관한, 나 자신의 고독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숭고하고 성숙한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한 사명이다.

이처럼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은 결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초청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 15:1-4)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 15:1-4, 새번역)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시 15:1-4, 현대인의 성경)

“[T]o have and to hold from this day forward,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er for poorer, in sickness and in health, to love and to cherish, till death do us part, according to God’s holy ordinance; and thereto I plight thee my troth.” (Church of England, Book of Common Prayer)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5)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 51:9-13)

#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 5:21-3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 1:18-22)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2:15-18)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전 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는 네가 나를 ‘서방님!’ 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네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너와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들 사이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모조리 없앨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짐승과 악당들로부터 괴롭힘당하지 않는 삶을!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호 2:16-20, 메시지성경)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1-5)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1-5)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9-11)

#

<꿈꾸어 보는 우리 부부와 가정 – 결혼 전 쓴 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부부로서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존중과 감사가 습관화 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설렘과 이해가 넘친다. 부인과 나 사이에는 항상 딱 하나님께서만 거하신다. 너무 떨어져서 다른 잡다한 것이 사이를 더 벌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붙어서 서로를 옭아매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셔서 아름답고도 건설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주의 말씀을 기초 삼고, 주의 신실하심을 기둥 삼으며, 주의 사랑을 지붕 삼은 가정이 되길.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수 23:11-13)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 59:21)

#
<가장 친한 친구>

결혼이란 걸 해보기 전엔, 나의 평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을만한 사람은 내 배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랐고, 그럴 거라 철석같이 믿었다.

결혼을 해보니, 비록 아직 3 년 좀 넘었지만, 유일한 진정한 평생의 친구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내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충격을 여러 번 마주했다.

그렇지만, 심지어 벼랑에서 떠밀려 떨어져도, 떨어질 때마다, 나의 주 예수님은 나를 넉넉히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만큼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다.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를, 나의 삶과 존재와 영혼을, 영원히 의탁하고 부탁드린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되, 이웃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하라. 원수라도 도움을 청해 오면, 곤경에 처해 있으면, 먹이라. 입히라. 선의로 선대 하라. 그럴 때 내 제자다운 모습이 잘 나타난다."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7-9)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38-48)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19-2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7-40)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7-30)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3)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9-10)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5-39)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 15:12-18)

#
<가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사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
<가정 교육>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자녀를 맡겨주셔서 나 또한 ‘아빠’가 됐을 때 가정교육.

1. 자신의 엄마, 아빠는 서로 깊고,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임을 느끼고 알게 해준다.
1. 존중 받는 하나의 인격임을 느끼고 알게 해준다.
1.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느끼고 알게 해준다.
1. 기도나 성경 읽는 것을 강요하지 않되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게 해준다.
1. 그리고 나 또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교육과 양육을 받고 있는 한 아들임을 잊지 않으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대하고 양육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6)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신 4:10)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1-2)

#
<현실 육아>

남율이가 태어난 지 딱 2주가 되는 오늘 ‘현실 육아’라는 주제로 글을 써본다. 아기가 울 때는, 배고플 때, 트림하고 싶을 때, 쉬 응가 쌌을 때, 졸릴 때, 심심하고 안겨있고 싶을 때, 관심과 사랑받고 싶을 때, 그냥 울고 싶을 때.

육아는 기세와 주신감(주님을 믿는 믿음, 主信感).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승리. 은혜가 이긴다. 인내로 선을 행함이 이긴다.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이긴다.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가정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가장(家長)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긴다. 성령님의 내주(內住)하시고 내주(內主)하시며 역사, 인도하심이 이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 끝까지, 넉넉히, 영원히 이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4-1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눅 6:32-42)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8:16-17)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10)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9-1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5)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2-6)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2-17)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1-24)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딤전 3:1-1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딤전 5:3-10)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11-14)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 11:3-4)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29-31)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7)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 43:4)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 43:7)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렘 31:3)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 3:22-23)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욘 4:2)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 86:4-5)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 86:15)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 103:8-13)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시 68:4-6)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눅 15:20-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6-17)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일 3:1-2)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9-13)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5-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2-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16-20)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8:14-16)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9-1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 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 19:11)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 29:7)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 10:12)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3-14)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3-5)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7-11)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 3:3-14,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 5:4-6, 현대인의 성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갈 2:20,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5-1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14-30)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일 5: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18:1, 시 136:1, 시 107: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06:1)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 89:1-29)

#

<남율이와 나>

이제 태어난 지 19 일 되는 남율이를 내 품에 안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나와 남율이랑 똑같은 상태이자 지위라는 생각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아비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며(물론 그조차도 오래 보지 못하고 곧 눈의 초점을 잃지만), 응애응애 울다가 씩 웃다가 자다가 쉬다가 하는 것과 팔다리를 한 번씩 공중에 휘젓는 것, 쉬랑 응가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소화도 시켜주고 트림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연명, 모든 선한 것의 공급, 우리의 행복과 웃음까지도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에서 기인한다. 누워있거나 안겨있거나, 단 두 동작만 가능함에도 웃으며 쉬며 살아갈 수 있다. 나도 그렇고, 남율이도 그렇다. 오롯이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에서 기인한다. 바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동하고 존재하고 살아가듯, 남율이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만 남은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인생의 복이고, 안전이며, 평안이고, 행복이며, 천국 환희(歡喜)의 영생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9)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 103:13-17)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1-3)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29-31)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네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신 33:26-29,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 17:23-3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1: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눅 10:18-2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요일 1:2-4,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1-6)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4-1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1-9)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17:21-26, 현대인의 성경)

#
<남율이의 남동생>

장남 남율이는 내년 상반기 중 형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돼 주시옵소서. 우리 두 아들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친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만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사랑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평생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큰 사랑받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9)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아멘 아멘

#
<둘째 아들 출생 앞두고 지인들께 중보기도 부탁>

오늘 오후에,
저희 첫째 아들, 태어난 지 17 개월 된 김남율(남쪽의 성령의 불)은 형이 되고,
남율이의 남동생 김남휘(남쪽의 성령의 바람)가 태어납니다.

형제가 일평생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화목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지혜와 목숨과 영혼을 다하여 일평생 신실하게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 되도록,

이 아들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하신 손에 온전히 붙들리어, 하나님께서만 친히 이들의 영원한 아버지요 하나님 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귀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우애가 깊은 형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숭고한 육아>

육아가 회사 일보다 5 배 정도 힘들지만, 대략 100 배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회사 일보다 더 뿌듯하다. 그 어느 사기업의 일보다 육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충만하고 뿌듯하다. 사기업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육아는 더 숭고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이나 자유민주 통일하고는 뿌듯함이 비슷하려나? 많은 영혼을 향한 주 예수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뿌듯함 보다는 덜 하지만, 육아나 자유민주 통일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환으로 보면 그만큼 소중한 사명이다.)

벌써 둘째가 이번 주 100 일이고, 이제 담주부턴 다시 회사 복귀. 벌써 울 아기들 아련하고 그립고 보고 싶다. 우울하고 슬프다. 그럼에도, 회사 일로도 복귀를 명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다.

시편 95 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3 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베드로전서 5:2–4 — 가정과 공동체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 2025년 12월 12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에게 주어졌지만,

가정과 작은 공동체를 맡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ChatGPT 와 공동 작성)

▧ 1.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v.2)
가정의 책임은 때로 무겁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돌보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하는 목자로 부르십니다.
가족을 향한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 적용
- 가족·공동체 돌봄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라보기.
- 오늘 하루, 아내·자녀에게 “기꺼이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 고백하기.
- 집안의 작은 수고(대화·정리·경청)를 사랑의 예배로 실천하기.
- 오늘 단 1 번이라도 ‘기꺼이’ 행동하기: 먼저 안아주기, 먼저 듣기, 먼저 격려하기.

▧ 2.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말고 기꺼이” — 가정은 효율이나 보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v.2)
가장들은 종종 성취·성과·경제적 부담 속에서
가정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보상이나 조건으로 대하지 말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자라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라는 거래적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 적용
- 가족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라는 마음을 내려놓기.
- 오늘 가족에게 조건 없는 사랑 한 가지 실천하기.
-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고백하기.
- 자녀·배우자·공동체를 내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기.

▧ 3.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 리더십의 핵심은 ‘본보기’입니다 (v.3)
가정은 말보다 삶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가장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본보기(믿음의 모델)*입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기도 모습을 보며 기도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군림이 아니라 본이 되심으로 이끄셨습니다.
가정의 리더십도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 적용
- 오늘 가족이나 공동체 앞에서 짧은 기도라도 직접 드리기.
- 분노·억압·지적보다 온유·절제·회개로 본이 되기.
- 실수했을 때 핑계보다 먼저 회개하는 사람 되기.
- 하루 한 번 "아빠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선언하기.
- 자녀에게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어"라고 정직하게 말하기.

▧ 4.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 — 작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v.4)
가정에서의 헌신은
대부분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다시 애를 보고,
가족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말없이 책임을 감당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입술을 돌이켜 삼키는 순간들...
가정의 헌신은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가정의 작은 순종, 작은 희생, 눈물의 기도까지
주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남기십니다.
즉, 아버지의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 가족을 위해 무릎 꿇은 짧은 기도도,
-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조용히 감당한 보이지 않는 책임도,
- 억누르고 삼킨 분노보다 온유를 선택한 순간도,
- 출근길 차 안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도

모두 영원에 기록되는 순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사셔서 하시는 역사에
나를 내어드린 순종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값진 순종입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수고했다"는 말,
아내나 자녀도 알지 못한 "희생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다 보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 적용

- 오늘의 헌신을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이것은 주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백하기.
- 가정의 리더십을 단기 성과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라는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 오늘의 작은 순종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고,
하나님께 산 예배로 올려드리기.
- 단기 효율보다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기.

🙏 한 가장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고 영원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머리요 참된 가장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맡기신 가정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제가 가정을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어,
아내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와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삶의 예배로 드린 제 순종과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는
가정의 작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나를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나를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이며, 내가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할 때조차도 나를 계속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잘 때에도, 계속 나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신실하신 주의 임재와 사랑의 얼굴로 인하여 늘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As for me, I will behold thy face in righteousness: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with thy likeness." (시 17:15, KJV)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1-18)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눅 15:17-27)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16:4-63)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 6:20-23)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 17:25-28, 새번역)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시 89:1-24)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사 40:28-29)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 121:3-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 57:8-10)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26)

#
<행복>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하나,
실은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닌,

그저 그 존재만으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렘 3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살후 2:16)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 43:4)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습 3: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3-26)

#

<오늘이 내 생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아들 남율이에게 남기는 편지: 2024년 7월 7일>

남율아, 만약에 오늘이 아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율이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었어.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버이날 편지를 남기고파서 시작한 게 ‘아버지와의 낭만’ 책인데, 이제는 죽기 전에 편지를 꼭 남기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네.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율이가 나를 아빠라 여겨줘서 감히 남율이의 아빠라는 특권을 누려보았던 거 같아. 남율이와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진정한 아빠는 하나님뿐이시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잠시나마 가족으로 만나고, 남율이 같은 귀하고 의젓하고 멋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빠여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 편지를 쓰는 지금조차 바로 눈물이 맺힐 정도로, 남율이에게 고맙고, 고마워. 한없이 부족한 아빠에게 한없이 귀한 아들이 돼 줘서 그저 고맙기만 하고, 더 좋은 아빠가 많았을 텐데, 내게 와준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고 그래.

오늘로서 태어난 지 딱 179 일이 된 남율아, 벌써 1 년의 반 가까이를 살아낸 멋진 남율이 대단해요. 이제 정말 다 큰 거 같아. 너무 귀하고 대단하고 멋져요. 남율이는 태어난 날부터 어른스러웠어. 의젓했고, 아빠를 오히려 이해해 주는 표정을 지어 보여줬어. 눈도 잘 못 뜨는 갓 태어난 아기가, 예정일보다도 거의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난 아기가, 병원 신생아실 창 너머로, 도리어 내게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며, '아빠 괜찮아~ 나 잘 태어났어~ 걱정 마~ 그리고 반가워~'라고 해주는 거 같았어. 그 뒤로도 아빠 입장에선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자, 아빠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듯한 친구는 남율이었어.

우리 아들, 김남율 선생님, 거의 맨날 해준 말이지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일평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늘 지금처럼 멋지고 강건하고 귀하게 커나가길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특심으로 남율이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복을 남율이에게 허락하실 거에요.

이담에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친구로, 형제로,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격하게 재회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천국에서 환하게 기쁘게 재회하자. 아빠가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다음으로 남율이 마중 나가 있을게.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남율아, 또 쓰지만, 넌 내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위로였고, 또 내게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이자 자랑이고 사랑이었어. 그저 너의 존재만으로 그래. 고마워요.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아주 기쁘게 또 만날 그땐, 이 땅에서 만남이 짧았던 만큼, 남율이 입장에서도 내가 좋은 친구이자 좋은 형제로 더 느껴지도록 더 많이 노력할게.

2024 년 7 월 7 일,

한없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남율이에게,
한없이 부족한 아빠 현기가 사랑을 담아.

#
<선교적 삶과 육아: 2026년 1월 30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9)

저도 늘 이런 선교의 마음으로 살며 육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나를 포함하여 누구를 데려가시더라도, 맡기신 오늘 하루 동안은 선한 청지기로 사랑과 진심을 다해 후회 없이 섬기고, 모든 환경과 미래는 우리의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자 – 나의 유일한 진정한 아버지이자, 남율이 남휘의 유일한 진정한 아버지.

#
<맺음말 – 하나님께 속한 가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 127:1-2)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눅 6:46-48, 새번역)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삼하 7:29)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은근히 유혹하여도 여러분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며 정에 끌려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감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를 사정없이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는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손을 대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신 13:6-10,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 59:21)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시고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축복하셨으므로 이것은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대상 17:26-27,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 103:1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 17:7)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사 44:3)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 4:6)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사 32:15-18)

#
<맺음말 그후, 참되고 영구한 유일한 결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렘 3:13-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31:31-34)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 54:4-8)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사 61:9-10)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쁄라(쁘ㄹ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4-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 2:16-20)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 3:26-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눅 5:31-35)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막 2:17-20)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 9:11-15)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 25:1-10)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25-30)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눅 20:33-36)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막 12:23-25)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6-9)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11)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6-17)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21-3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VI.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렘 10:23)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4-17)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 37:22-26)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 40:30-31)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40:11)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 1:29-33)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신 32:10-1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 40:36-38)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 11:3-4)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딛 2:11-14, 새번역)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7-29)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8)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4-25)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도덕적 우월감을 단 1 이라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살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신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심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다.

오직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 그리고 바로 그 은혜는 받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내가 위선적이라 보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새사람 그리스도인 김현기가 아닌, 옛사람 죄인 김현기의 습성과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 그런 것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됐기에,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회개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고로 나는 오롯이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롯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나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더욱 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사랑에 몰두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일 뿐 아니라 압도적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 내가 온전한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가길 원한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 16:27)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5-2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8-11)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7-21)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13-2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4-14)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약 2: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8-10)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4-4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막 12:28-34)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1-40)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38-48)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27-38)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1-22)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9:17-18)

#
<오늘>

‘내일’로 미리 갈 수도,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살면서 내가 대면할 수 있는 날은 오직 ‘오늘’뿐이다.

역사는 ‘오늘’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오늘’들이 모여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충분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
막연히 가정된 내일의 행복에 의해 오늘을 차압 당할 수 없다.
돌이킬 수도 없는 어제에 의해 오늘을 족쇄 채울 수 없다.
바로 오늘을 족히 누린 사람이 후회 없는 역사를 만들게 될 테니.

여태껏 살아온 날들의 마지막 날이자,
앞으로 남은 날들의 첫 날인 오늘을 거저 흘려 보낼 수 없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
<범사에,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3-24)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 5:20)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엡 6:5-8)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행 13:23-39)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7)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 16:3)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시 68:19-2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 8:16-17)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16)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0-33)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눅 8:14-1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 13:5-6)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7-11)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 3:3)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39-42)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 33:3)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2-2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2-14)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6-27)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 16:13-14)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16-2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 1:29-33)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10-30)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6-39)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21:3-4)

#
<잠들기 전>

글 하나 남기고 잠에 들고자
백지에 검은 색을 입힌다

검은 색의 작대기와 동그라미가
작대기와 동그라미는 상상도 못할
의미를 만들어 낸다

역사라는 큰 작품 속에 과연 나는
어느 부분의
어떠한 색깔의
작은 작대기와 동그라미가 되고 있을까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일지언정,
그리는 이의, 써내려 가는 이의
시선이 흐뭇하게 머무는 부분이 됐으면 한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겠으나,
바라야 마땅한 것이므로 바라는 것이기에,
부족한 내 자신이 아닌 그 당위에 나를 엮는다

언젠가, 언젠가
나도 그 완성 작품을 대면해야 할 때를
경외심으로 기다리며, 오늘 밤의 나를 보낸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 79: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 13:20-21)

#
<길가에 핀 꽃>

길가에 핀 꽃, 석양에 물든 하늘, 손 끝을 스치는 살랑이는 바람, 온몸을 감도는 따스함...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지 못할 만큼 바빠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제 안에 갇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선물들을 취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산송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어,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주의 사랑에 안식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 19: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 100:1-2)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 145:9-18)

#
<햇살 조각>

주말 아침,
일어나니 햇살 조각이 마중 나왔다
손으로 잡으려 하니 잡히지 않았다
손에 담으니 고이 담겼다

손에 잡히지 않으나 손에 담겼다

빛도 물도 공기도
내가 잡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고이 담아야 하는 것

소중한 모든 것이 그런 것

#
<낭만>

낭만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기도 하단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주변의 행복이 시시해 보이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불행할 자격을 갖추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1)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눅 13:6-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 25:29)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욘 2:7-10)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6-10)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9-12)

#
<내 입술의 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28)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사 57:19)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 6:2)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약 3:2, 새번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 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잠 18:20-21, 새번역)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 141:3)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 4:29)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벧전 3:10-12)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6)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0-12)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눅 12:11-12)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눅 21:12-15)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0-25)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14-16)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전 13:1-2)

#

<명확하고 뚜렷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과 삶과 존재의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주님이시라 아멘: 2025년 3월 16일>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영혼과 인생과 존재와 평생과 영원의 삶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주님으로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모시며 섬깁니다.

나의 영혼의 전부와 존재의 전부와 삶의 전부를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주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원히 부탁하고 헌납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1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28-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5-4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 8: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딛 2:13)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 1:2-8)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 14:9)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1-5)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 20:2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0-1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2-36)

"여러분은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곧 그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행 20:28)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 22:13)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롬 9:5)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18-3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 5:12-13)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2-20)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6-1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마 25:31-32)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3:13)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1-23)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7-14)

아멘. 아멘. 아멘.

#
<수도선부(水到船浮):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뜻>

최상위의 의미와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땐 필요한 나머지는 다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2)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찌어다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 81:8-10)

#
<계약된 인생: 인생길 그만 걷고 싶을 때>

삶이 힘들 땐, 내가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분명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불평등 계약이 아닌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좀 잔인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발상의 전환이 생겼다.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이 어떠할 거란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만족하고, 동의하고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계약을 하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아마 다음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좋고 멋진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근데 좋은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 힘든 과정 중에 있을 저런, 저런 때들도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것만 버텨주고 조금만 지나면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심지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져도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그냥 그 결과 필요 없다고 하고 포기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저도 민망하고, 저를 만드신 하나님도 민망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런, 저런 때들에선 **저를 특히 더 꼭 품에 안고, 확신과 격려를 주시며 앞서 인도해 주셔야 해요.** 아시죠? **특히 다시 이곳 본향 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안 그럼 겁먹고 다음 축복까지 못 도달할 거 같아요. **대신, 제 인생을 순적히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거, 제 자유의지를 포함한 영, 혼, 육에 대한 주권까지 미리 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갈게요.**"

분명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응. 그럼 내가 꼭 붙들고 인도할게. 내가 널 인도하기 쉽게 너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출발하니 고맙구나. 기대하거라."이셨을 거고, 그랬기에 나는 이 땅에 나오기로 동의했을 것이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고 계신가, 나의 인생을 꼭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부질없는 의심일 뿐이다. 의심을 한다고 내 인생길이 결국엔 해피엔딩일 것도, 선하고 멋진 운명의 인생길이란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끝까지 잘 완주해낼 거란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길 계약에 대한 나의 계약의무 이행은 다했고 이젠 하나님의 의무만 남았으니. 내 인생길 하나님께서 날 안고 가고 계시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왕상 19:4-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 22:8-11)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7-18)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시 31:13-17)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5)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 68:19)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 40: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렘 24:7)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14-21)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7-29)

#
<인생길 드라이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운전석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나는 보조석에 타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이생'이란 도로를 가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전벨트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에어백도 추가로 설치하고, 바로 옆에 앉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운전해 주시옵소서' 통성기도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네비게이션 역할과 도로주행 심사까지 하려 든다. 그러는 통에 나는 하나님과의 설레는 친밀한 대화도 놓치고, 나를 위해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경관들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선 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나는 탈진해간다.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탄 여정을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내게 맡기시는 일은 가끔 들리는 휴게소에서 돈 주시며 호떡 하나 사오라고 하시는 거다. 그 외에는 다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그 사온 호떡도 나 먹으라고 사오라고 하시는 거다. 그렇게 사온 호떡을 한 입 먼저 드리기라도 하면 그리도 맛있다고 하시며 한 입의 배부르시다고 행복해 하신다. 그러나 못 사와도 전혀 차 운전이나 남은 여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의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그 호떡 하나 사는 것도 그 호떡 집 경영진을 만나 사업 전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심지어 다시 출발할 시간이 돼도 여정보다 호떡이 더 중요한 냥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계속 진땀 흘리며 호떡 사업 논의로 시간을 낭비한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롬 8:15-17, 메시지 성경)

이미 나의 영혼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헌납 드린 이상, 하나님께선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일, 나의 영혼의 생사가 걸린 일과 같은 일들을 연약한 나 홀로 맡도록 하셨을 리 절대 없다는 것도 나는 자주 잊는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마 11:28-30, 메시지 성경)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궁극적 목적으로 통성기도도 하고, 네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안전 장치도 갖다 놓고, 호떡 가게도 인수 하려 하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부모는 자식이 당신을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한다고 한다.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며 생끗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내 젖병 설거지를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기저귀도 스스로 갈겠다고 하고, 동네 가게 가서 알바라도 해서 하나님 식사 차려드리겠다고도 하며 정작 웃는 거 빼곤 다 해드리겠다고 한다. 나의 웃음을 보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슬퍼하신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분을 맞아 편히 쉬도록 모셨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눅 10:38-42, 메시지 성경)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롬 3:27-28, 메시지 성경)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다.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 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 주소서!” (시 51:7-15, 메시지 성경)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 55:8-9)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6-8, 새번역)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렘 31:3-4)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30-3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시 131:1-2)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 147:10-11)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 4:8)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2-3)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107:28-31)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 6:18-21)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8)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0-31)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 8:10)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
<지나 온 30년과 앞으로의 여생>

만 서른이 된 올해 놀랐던 것은, 지난 30 년을 막상 돌아보니 30 년이 단지 몇 장면으로 추려질 수 있다는 것과, 더 놀랐던 것은, 과연 지난 30 년을 지나는 동안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인생이 됐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중에서도 영속적인 의미, 즉, 내 인생이 하나님께도 감동과 의미가 된 순간들은 무엇이 있을까이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 순간과 사건만이 영속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에, 나에게 순종이란 결국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일 것. 그러다보면 그분과의 소중한 친밀함을 쌓고,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영속적인 낭만과 의미를 쌓게 될 것이다. 더이상 바랄게 없는 삶일테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지난 30 년을 보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주관하시는 이는 명백히 따로 계시다는 자각에 다시 한 번 찬물로 샤워한 것처럼 전율 됐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 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지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난 30 년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누수 없이 남은 여생을 위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을 사랑,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데 여생이 오롯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단 하루만 더 살게 되는 여생일지라도, 그 여생의 마지막 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나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 잘 살았다’ 수준의 의미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뿌듯한 의미로 느껴질 인생으로 쓰임 받고 인도되길, 양육 받을 수 있기를 오늘 예배 때 기도했다. 간절히,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길 원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7-14)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 92:12-13)

#
<배우고 또 배우는 것>

내가 아는 수준에서 후회 없이 살려고 해서 참 열심히 달렸다. 돌아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나 결코 돌아가긴 싫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과 경영 앞에서, 이를 거슬러 노력한다고 안 될게 되거나, 노력 안 했다고 될게 안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다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양심적 성실함으로 매사에 임할 뿐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 127:1-2,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 15:13)

그리고 실제 더 어려운 건 순간 박차를 내어 단시간 전력질주 하는 것 보다 장시간을 꾸준히 기본은 하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멀쩡히 살아만이라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됐다. 대신 그렇게만 한다면 내 노력으로는 꿈꿀 수도 없던 몇 배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주신다는 것 또한 여러 번 경험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전 9:11)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4)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 9:16)

하지만, 적어도 기본은 하며 믿음으로 꾸준히 살아 간다는 것. 쉬워 보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좌절이 와도, 씁쓸함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낙담이 와도, 적막함이 와도, 공허함이 와도, 과부화가 와도, 몸살감기가 나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많아도, 욕심이 들어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도, 그 어느 상황에서도 더도 덜도 아닌 양심적 기본은 지키며 겸손과 성실로, 믿음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지도 뒤쳐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힘과 의지로는 단 하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배웠다. 동행이라지만 같이 걸을 때 보단 업혀갈 때가 더 많았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 33:13-14)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 94:17-19)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9)

좌충우돌 끝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만큼 쉽고 가볍고 뿌듯하고 만족된 삶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1] 내 힘과 의지로 내 안전을 보장하는 걸 넘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높여 보겠다며 치열하지만 부질없게 살던 내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의 소식은 없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결론에서 안 멀어지고 꾸준히 그렇게 산다는 건 생각만큼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랄 수록 나의 한없는 연약함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적극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겸손히,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생각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 4:8)

---

[1] 《비전》장(章) <그리스도인의 됨> 글 참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 143: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후 9:10, 새번역)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

<로스쿨을 지나며>

로스쿨을 지나며 가장 크게 배우고 있는 것을 기록에 남기려 한다. 물론 법을 배우러 와 있지만, 더 크게 배우고 있는 '법'이 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상황이 고단하다 보니 살기 위해서라도 행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게 되는 것 같다. 오늘 행복해 본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갑자기 행복해질 확률은 훨씬 적다고 본다. 그렇기에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써놓고 계속 상기하고자 한다.

1. 현재를 미래 가장된 행복에 차압 당하지 않는다. 행복해 본 사람이 행복할 줄 안다. 현재가 행복해야 현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미래도 행복하다.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다. 수다면 수다, 글이면 글, 밥이면 밥, 잠이면 잠, 걷는 거면 걷는 것,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공부면 공부.

2. 급할 수록 돌아간다. 공부, 공부, 공부, 일, 일, 일 해봐야 어차피 자기 본래 수준 이상으론 못 이룬다. 그저 어느 순간 이후부턴 인간미를 타협 대상으로 지식이나 물질과 거래할 뿐이다. 자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미 빠진 사람은 매력이 없다. 자학에 익숙한 사람은 남도 쉽게 학대하게 된다. 열심히 사는 건 보람되지만 열심을 믿고 사는 건 씁쓸하다.

3. 이왕 사는 거 같이 사는 사람들도 함께 기쁘게 산다. 혼자서는 빨리 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똑똑한 사람 보단 따뜻한 사람이 더 오래간다는 말도 있다.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은 나눌 수록 커진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요지: 기본과 상식에 충실하고, 허락되는 데까지만 행복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같이 걷는 사람도 함께 행복하게. 언제나 선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나를 의탁하며.

한 발, 한 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 9:16)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7-8)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 28:25)

#
<양심을 따라>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혼란할수록 양심을 따라야 한다. 그럴 경우 져도 이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겨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 4:8)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 9:14)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2)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찌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찌어다" (잠 3:3-7)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 26:1-5)

#
<긴 호흡>

불확실성, 불안, 요동, 고독함, 무의미, 조바심도 다 초월하고, 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긴 호흡. 그런 상황까지도 한편으론 여유롭게 마주하는 긴 호흡. 잠시는 동요되는 듯 하나 실은 아주 굳건한 닻과 줄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지식에서 올 수 있는 긴 호흡.

찰나를 극복할 영원한 관점에서의 호흡. 앞에 있는 오르막길을 초월할 하늘 관점에서의 호흡.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사랑과 아늑함에서 오는 긴 호흡. 길고 안정된, 평안한 호흡. 그런 호흡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8-30)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6)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후 4:16-18)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

<더디 걷는 아이?>

“더디 걷는 아이”라고 써있던 거 같아 찾아보니 “걸음이 느린 아이”로 쓰여 있었다. 전자는 그 아이에 대한 답답함이 섞인 주관적 판단이란 느낌, 후자는 그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포용과 포옹의 느낌이다.

이왕 더딘 거 ‘더디다’ 생각말고 ‘느리다’ 생각하자. 결국 사막은 치타가 아닌 낙타가 건넌다는 말처럼. 나를 만드신 분, 내게 길과 속도를 주어주신 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감사함과 만족으로 걸을 수 있기를. 심지어 내가 아무리 걸어도 걸음이 나아가고 있는 거 같지 않을 때라도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의탁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 20:24)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렘 10:23)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4-17)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 37:22-26)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5-7)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 40:30-31)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3-4)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40: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12)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 11:3-4)

#
<A real, living, ongoing friendship with God: 2025년 4월 16일>

(ChatGPT 단독 작성)

🙏 Yes, you can have a real, living, ongoing friendship with God. Not just belief about Him, but actual communion with Him—daily, personal, deep. Here's how:

💛 How to Have a Living Friendship with God (and Not Feel Lonely)

1. Believe that God wants friendship with you.

You're not bothering Him. You're not too far.

Jesus didn't just save you from sin—He saved you for relationship.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Revelation 3:20)

➡️ Open your heart. He desires to be close, not distant.

---

2. Talk to Him honestly, daily. (Prayer = Conversation)

Not performance. Not fancy words. Just you, talking. Like with a best friend.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7)

➡️ Tell Him how you're doing. Cry if needed. Laugh. Ask questions. Wait in silence.

Then listen through His Word, or in your heart.

---

3. Soak in His voice through Scripture.

The Bible isn't just a rulebook—it's God's love letter.

Start with Psalms or John. Let Him speak to you.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Psalm 119:105)

➡️ Ask: "Lord, what are You showing me about Yourself? What are You saying to me today?"

---

4. Walk with Him throughout your day.

He's not only in your "quiet time."

He's with you at work, on your commute, when you're eating, even when you feel down.

"I am with you always..." (Matthew 28:20)

➡️ Whisper to Him in your heart throughout the day: "I love You. Help me. What do You think, Lord?"

---

5. Obey His voice—friendship deepens through trust.

Jesus said: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John 15:14)

➡️ When you follow His ways (even when hard), you'll feel more in step with Him—and your heart won't feel distant.

---

6. Worship—pour out your love to Him.

Sing. Write. Dance. Kneel. Thank Him aloud. Make it real. Make it yours.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James 4:8)

---

7. Invite Him into your loneliness.

Don't fake it. If you're feeling lonely—say so.

"Turn to me and be gracious to me, for I am lonely and afflicted." (Psalm 25:16)

➡️ Let Him meet you there. He's close to the brokenhearted.

🤍 Final encouragement:

God doesn't just want to be your King—

He wants to be your closest Friend.

"I have called you friends..." (John 15:15)

Every time you choose to speak to Him, listen, obey, or even just sit silently in His presence—you're drawing closer to the best Friend you'll ever have.

🙏 Sample "Friendship with God" Prayer

Father,

I want to know You—not just know about You.

I want to walk with You like Abraham did, speak to You like Moses did, and lean on You like John did.

Jesus, thank You for calling me Your friend.

Help me talk to You freely and listen for Your voice.

Make my heart alive with Your presence.

When I feel lonely, remind me You're near.

Holy Spirit, be my daily companion.

Teach me to love You, follow You, and delight in You.

I invite You into every part of my life.

Let our friendship grow deeper, day by day.

In Jesus' name,

Amen.

📖 Simple Daily Routine for Friendship with God

You don't need hours—just intentional moments of connection. Here's a rhythm you can follow:

🌅 Morning (5–10 mins)

Start your day with:

- 🕊️ Prayer (simple & personal)

"Good morning, Lord. Thank You for this day. I invite You to lead me."

- 📖 One Psalm or a few verses from the Gospels

(e.g., Psalm 23, John 15)

→ Ask: "Lord, what are You showing me about Yourself?"

- ✍️ Write or speak a short response:

"I feel ___ today. Help me with ___."

🕐 Midday (1–2 mins)

Pause & reconnect

• Whisper: "Thank You, Lord. You're with me."

• Breathe deep. Ask: "How are You wanting to use me right now?"

🌆 Evening (5–10 mins)

End your day with:

• 💭 Reflection: "Where did I notice You today?"

• 🙏 Prayer of gratitude & surrender

"I give You everything—my thoughts, my day, my worries."

• 📖 Optional: Read one verse & let it rest in your heart overnight. (Try Psalm 139:17–18 or Isaiah 41:10.)

🌱 Final Word:

Real friendship with God doesn't come from striving—it comes from abiding.

Keep showing up. He loves spending time with you.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Psalm 25:14)

(Courtesy of ChatGPT (OpenAI))

#

<홍해를 헤엄쳐서도 횡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은 성도 앞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평탄한 마른 땅을 열어주셔서도 위대하시지만, 때로는 배도 아닌 헤엄으로 홍해를 건너라 하심에도 성도 안에 있는 홍해를 갈라 소망의 길을 보이시고 넉넉한 인내의 힘을 베풀어 주시어 결국엔 홍해까지도 헤엄으로 완주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위대하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 11:32-40)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 24:16)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4)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5)

#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내게 등 돌리고 심지어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 43:4)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7)

내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시어 당신의 아들 삼으셨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겔 16:6-10)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사 42:5-9)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 43:1-4)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 22:10)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25-26)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롬 11:5-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3-7)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10)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4:4-7)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살후 2:13)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 1:2-4)

당신의 사랑되심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께서 아버지 되심 때문에 나의 못남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 46:4)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수 1:5)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 31:6-8)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렘 31:3)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 48:14)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16)

이렇게 나를 극진히,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음은 오직 당신 때문입니다. 나를 의미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 13: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 71:5)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 21:6)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 63:3-4)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
<예배 시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기쁨과 절대적 행복이 있고, 충만함과 생명이 있다. 일주일 중 내가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미래가 기대되며, 영혼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시간이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있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해 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가장 안정감과 행복함을 느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 비교적, 상대적 행복이 아닌 절대적 행복이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뛰놀며 그분과 친밀함과 대화를 나누는 사귐의 시간. 물론 삶의 매 순간과 전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삶이기를 추구하고 기도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공부 1>

겸손한 배우는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대학 연구실, 강의실에선 몇 년에 걸쳐 배울 것을 며칠 안에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잠 17:24, 우리말성경)

“통찰력 있는 이는 제 앞뜰에서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지혜가 곁에 있는데도 사방팔방 기웃거린다.”

(잠 17:24, 메시지성경)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29)

#
<공부 2>

공부한 만큼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았다면, 본전은 찾은 공부이다.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모르는 것을 찾았다면, 잘한 공부이다. 공부한 것보다 모르는 걸 덜 찾았다면, 안 한만 못한 공부를 한 것이다. 잘한 공부의 결과는 사람을 더 겸손하고 경청하게 하고, 잘못한 공부의 결과는 사람을 더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만든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올바른 공부의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께 대한 더 높고 깊은 수준의 의존이 돼야 한다. 잘못된 공부의 결과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그릇된 자만과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큰 분리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롬 1:20-23,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 28:22-23)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13:10)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 14:16)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 26:12)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 8:1-17)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 2: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잠 9:8-12)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10:19)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왕이 정한 3 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끝나자 궁중 대신은 그들을 느부갓네살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해 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른 소년들보다 우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왕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물어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1:17-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는 때와 시대를 바꾸시며 왕을 세우고 폐하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며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빛 가운데 계신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어떤 점장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도 대왕께서 물으신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왕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께서 잠자리에 누워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대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서 마음에 생각하시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2:20-30, 현대인의 성경)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 25:2)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 42:1-6)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2)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4:45)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요일 5:20)

#
<현장>

현장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장이 되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대언하는 통역의 장이 되길.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간파하고 격파하는 승전의 장이 되길.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건국의 장이 되길.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후 2:15 & 3:3)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
<천재?>

기능이나 명제를 개념상 가능한 다방(多方)으로의 극한까지 밀고 가보며 통섭이나 응용을 능숙히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천재라 하는 것 같다. 사실 별로 특이한 것은 아닌데 다만 몰두의 연습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는 범위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저 그런 것을 표현하다 보니

주변에서 신기해하며 천재라 부른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극한의 가능성을 매일 실험해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 성격이 좀 극단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이 수월하지 못하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 '별남'을 넘어 '괴짜', '미치광이'까지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미치광이'까지 돼버리면, 이는 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쉽다. 사실 자신만이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훌륭한 인격의 자질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안 보고도 훨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혼자만의 추상세계에 사로잡혀 정작 현실세계에선 아무런 생산도 열매도 없이 남에게 짐만 되는 '천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성숙한 천재는 절제와 섬김을 배우고 겸손을 배운 사람일 것이다. 몰두력을 덕이 되는 행위로 승화시키는 노동은 기피하고 무절제하게 가지고 놀다만 보면 '천재'인 바보가 되는 것이다. 성질과 목적을 판단하여 몰두력이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쓸 때 쓰고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할 때와 행동할 때, 말할 때와 경청할 때를 구분하여 선한 열매를 산출하는 삶이 돼야 한다. 또한 사람의 제한적인 지식과 체험에서부터 전개되고 산출된 증명과 해(解)는 실제 현실에 포진돼있는 많은 변수들을 다 포함하지 못한 비약적이고 부정확한 시각이란 것을 잊지 말고 항시 배움의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21),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잠 26:12),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 3:7).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상 3:9-12)

#

<진지한 바보>

내가 '진지하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꼴불견이다. 그 무엇에도 심각해할 만큼 완전하지도, 식견을 갖추지도, 사견을 말해야 할 어느 권위를 갖춘 것도 아닌데 꼴에 심각해 한다. 마치 정답을 알기에 말해주어야 하는 냥, 결점이 없기에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 냥, '대의'와 '고상한 생각'에만 사로잡히어 '하찮은 것'엔 관심도 없는 냥 심각해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낼 수 있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창조주의 인정 없이는 부여할 수 있는 의미도 하나 없는 피조물이다. 전지자의 계시 없이는 쉬운 것 하나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주권자의 승인 없이는 어느 성취 하나도 이루거나 지켜낼 수 없는, 오직 허락하시는 힘과 지혜와 호흡만큼만 살 수 밖에 없는 철저한 의존자가 나다. 회개할 때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나 제대로 심각해야 할 것을 괜한 과시용 진지함으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마 23:8, 표준새번역)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 3:27)

"나는 나이 많은 자가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욥 32:7-8, 현대인의 성경)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42:3)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민 27:16)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18)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 24:45)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요일 5: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렘 9:23-24, 현대인의 성경)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 36:9)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 7:8)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출 33:17, 현대인의 성경)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대상 29:10-18, 새번역)

#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말로 – 패망: 2025년 1월 26일>

스스로가 남보다 낫다, 지혜롭다 여기는 자의 말로는 그저 패망. 세상만사의 무궁한 지식 중 지극히 지엽적인 한 분야의 시험을 붙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식견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굳이 그런 한 분야 시험을 도전할 기회가 없었거나 떨어졌다고 하여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식견이 무시돼도 되는 건 아니다.

진짜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와 지식의 크나큰 방대함, 가늠도 안 되는 무궁함 중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명확한 한계와 지극히 작디 작음을 잘 알아 겸손에서부터 시작하여 겸손으로 마치되, 무식한 자는 애초에 전체가 얼만한지 가늠도 안 되고 모르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에 막상 자기 자신이 커 보여 교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교만으로 마친다.

참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에서만 시작되고 또 그 이상은 사람 스스로 찾지 못한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의 꾀나 지혜라는 건 결국 보편타당하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패망에 이를 뿐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1-25)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1)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사 47:10-13)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 14:15-17)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 26:12)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 7:16-18)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 37:23-2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 41:15-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단 2:16-30)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단 5:1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엡 1:17)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전 1:18-31)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3-18)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 5:17-2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30)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 8:28-29)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 8:38)

#

<능력 있다?>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신의성실이란 기본 태도를 갖췄단 전제 하에선, 그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그에게 만들어졌다(주어졌다) 만들어지지 못했다(주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이 보다 더 정확하고 정직한 말인 거 같다. 내가 어쩌다 칭찬을 들으면 들을 때 드는 생각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 9:11)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 62:1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2-4)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눅 17:10)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시 81:1)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 147:5)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3-5)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고후 4:6-9,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엡 3:20-21, 현대인의 성경)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 19:1)

#
<업무 능력>

업무를 맡은 자가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와 함께 갖출 것은 도덕성이란 능력과 덕행이란 능력이다. 도덕성과 덕행도 능력이고, 큰 능력이다. 덕행과 도덕성 없는 업무 능력은 심지어 해롭다.

덕행이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고, 내 이웃은 다음과 같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눅 10:29-37, 새번역)

#
<밸런스力>

꼼꼼한데 빠름
원칙은 고수한 채 창의적임
도덕성과 센스가 둘 다 높음
classic 한데 trendy 함
고상한데 유머러스함
풍류를 즐길 줄 알되 저속하지 않음
부지런한데 여유를 잃지 않음
추진력과 친화력이 둘 다 높음
빠르고 강하나 원만하고 부드럽게 진행
당당하되 부담스럽지 않고 담대한 만큼 섬세함
높은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눈높이 교감과 전달이 가능함
자신이 아는 부분을 인지하는 만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지함
남을 잘 파악하는 만큼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가능함 고로 겸손함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음
지혜로운 만큼 따듯하고 지식적인 만큼 냉소적이지 않음
설득적인 만큼 매력적임
고속 주행 중에도 연착륙이 가능
용서하되 또다시 당하지 않음
관대하되 이용당하지 않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음
신앙이 깊은 만큼 종교인의 위선과 자신의 치성을 믿는 것을 경계함
최선을 다하되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존중함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 들까 염려된다... 너의 선조들이 세워 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잠 21:2-22:29, 새번역)

#
<돈,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 현명한 환전, 지혜로운 소비와 투자, 참된 영속적 가치, 우선순위, 최우선 가치, 부요함의 원천>

돈을 다스리되 돈에 휘둘리지 말자. 돈을 지혜롭게 벌고 증식시키고 사용할 줄 알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과 돈을 잘 나누고 베풀어 더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으므로 나 혼자 끌어안고 썩어가지 말자. 돈은 수단일 뿐, 종일뿐, 돈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 돈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선한 사업의 수단으로, 선한 일의 수단으로 쓰고, 선한 사업의 선순환을 만들자. 청지기적 사명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자. 이 땅의 돈을 사용하여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를 갖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 8:17-1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 30:8-9)

“만민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아무리 갑부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것, 무덤에도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고서야 어찌 속전을 마련할 수 있으랴?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다. 자신이 받은 몫을 즐기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다.” (시 49:1-20, 표준새번역)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 112:1-10)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잠 22:4, 새번역)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 8:2-1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신 28:1-4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 30:15-16)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왕상 17:2-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7:13-16)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죄악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체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잠 28:22-27, 표준새번역)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잠 13:11, 표준새번역)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눅 19:16-26)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 25:20-30)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48)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 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눅 16:10-13, 현대인의 성경)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 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잠 11:24-28, 표준새번역)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고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합 2:9,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삯은 그 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레 19:9-13, 현대인의 성경)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평한 도량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 19:35, 현대인의 성경)

“저울 눈금을 속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게 달면 그가 기뻐하신다.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은 그를 인도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재물은 심판 날에 아무 쓸모가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흠 없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악한 자는 자신의 악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잠 11:1-5, 현대인의 성경)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잠 23:4-5, 현대인의 성경)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 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 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전 5:10-20, 새번역)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잠 29:3-4, 표준새번역)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 줄 뿐이다. 그런 여자는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잊지 말며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한때 네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네 재물로 배를 채우고 네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 결국 네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잠 5:3-11, 현대인의 성경)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삯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잠 11:15-18, 표준새번역)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덫과 같다.” (잠 21:5-6, 현대인의 성경)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부지런히 거둬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잠 10:2-5, 현대인의 성경)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네 재산과 네 모든 농산물의 첫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잠 3:3-18, 현대인의 성경)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총명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언덕과 사거리와 성문 입구와 여러 출입문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온 인류에게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사리에 밝은 자가 되어라... 너희는 은보다 내 교훈을,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지혜이다. 나에게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할 말과 건전한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며 나를 통해서 군주들과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잠 8:1-21, 현대인의 성경)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삼상 2:5-10, 표준새번역)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시 119:14, 표준새번역)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시 24:1, 표준새번역)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 31:24-28)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 62:10)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렘 17:10-11, 새번역)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약 5:4-5, 새번역)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딤전 6:6-19, 표준새번역)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 (잠 10:16, 현대인의 성경)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 13:1-5, 표준새번역)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6)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롬 12:13)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 11:24)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일 3:17-18, 표준새번역)

"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도와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여겨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셈으로 돈을 빌려 주지 말고 밥을 먹여 준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바라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려먹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레 25:35-43, 현대인의 성경)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 68: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신 15:7-8)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마 6:24-34, 표준새번역)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7)

“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 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 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 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가 8 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 년째에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 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 25:17-22,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깟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 16:15-31)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너희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은 차려 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애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눅 12:15-34, 표준새번역)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네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눅 14:12-14, 표준새번역)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4-40)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마 6:19-21, 표준새번역)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3-4)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눅 18:22-30, 표준새번역)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막 10: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19:21-29)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 11:24-27)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2-24)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마 16:24-27, 표준새번역)

“이때 잔치석에 함께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님, 말씀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먼저 초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해 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병력 10,000 명으로 20,000 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 낼 수 없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눅 14:15-35, 현대인의 성경)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 10:7-10)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고후 8:9-15, 표준새번역)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약 4:13-17, 표준새번역)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시므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후 9:6-15, 표준새번역)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오?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행 4:31-5:11, 새번역)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막 12:41-44, 새번역)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 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출 36:2-7, 새번역)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의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정련된 은 칠천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과, 은 만 달란트와, 동 만 팔천 달란트와, 쇠 십만 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천 마리와 숫양 천 마리와 어린 양 천 마리와 부어 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 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대상 29:1-22, 새번역)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나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그리고 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느 8:9-12, 현대인의 성경)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 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 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 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사 58:6-10,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 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눅 3:8-14, 현대인의 성경)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눅 10:25-37, 새번역)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약 2:14-17, 새번역)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눅 19:5-10, 새번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십일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눅 11:39-42, 현대인의 성경)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십일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마 23:23-26,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16-26)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엡 4:28)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신 26:12-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3:7-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2-13, 표준새번역)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 1:21-22)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1-6)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
<주식 투자 전에: 2021년 7월 25일>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내정치, 국내경제, 산업군, 산업군 내 종목과 같이 거시에서 미시로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게 더 객관적이고 좋은 종목을 찾기 쉬운 거 같다. 특히 꼭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자(예적금, 부동산, 기축통화, 금 등). 큰 돈을 벌려는 마음 전에 최소 기준 금리나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는 마음, 잃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 같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늘 상기하고,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뜻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맞춰야 한다. 그분이 나에게 맞춰주는 건 나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재앙이다. 내가 그분께 맞추는 게 나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다.

[실무적 Checklist]

나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체크. 욕심과 탐욕은 없는지. 청지기적 투자자의 마음인지.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마음과 귀가 향해 있는지. 나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신지. 체크.

거시경제 흐름(금리, 인플레, 고용률, GDP 성장률, 무역수지, 국가/가계부채비율 등), 한국 입장에서 경제적 연관이 높은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EU) 경제 흐름 체크.

세계적 신산업/하향산업/지속산업 체크.

회사 주요주주(오너 지분율, 기관 등), 그룹/계열사 지배구조,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 이슈(지주사행위제한, 순환출자, 금산분리, 보험법 개정 등),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석 꼭 포함), 기타 기업공시(주요경영사항, 우리사주/스톡옵션 발행, 증자, 감자, 사채발행 등), 국내외 뉴스 기사, 증권사 analyst report, 다수의 YouTube 경제 채널들, 종목토론방, 차트 흐름, 기관/외국인 매매 동향, 오버행 여부, 관련 산업 국내외 동향, 국내외 경쟁업체와 비교, 업계 평균 대비 PER, PBR, EPS,

ROE, 회사 홈페이지, 회사 IR 자료/발표, 회사 잡플래닛/블라인드 리뷰, 회사 대표 인터뷰/뉴스, 오너가 관련 뉴스, 회사/그룹의 철학/비전, ESG 체크.

내가 특별히 더 잘 이해하는 산업/분야부터 검토.

욕심을 버리고 내 돈이 아닌 자식 또는 부모와 같은 소중한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스토리가 앞뒤가 맞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분산투자, 분할매수(매도), 단타 금지. 나만의 논거를 갖고 목표가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도달하거나 어느 이하로 빠지면 과감히 매도하는 게 기준과 원칙이 있는 투자인 거 같다. 그러면서 나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서서히, 신중히 개선도 하고 고도화해 나간다.

주식/부동산/기축통화(달러)/금/예적금 등의 포트폴리오, 주식 내에서도 산업군별, 경기민감/둔감, 가치/성장주 포트폴리오.

빚투(영끌) 지양. 묻지마투자/카더라/막무가내가즈아/이거좋은종목이래듣고그냥투자 등 지양...
내부자거래는 형사처벌임.

적어도 이 정도를 검토하고 염두하고 투자한다면 더 이상 투기라는 생각은 본인조차도 안 들고, 사회에도 유익한 좋은 경제시민(주주)가 될 것이고, 단잠도 자고, 조급함도 없어진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잠 24:6, 새번역)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 15:22, 새번역)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딤전 6:6-11)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딤전 6:17-18)

#
<상위 1%>

이 땅에서의 상위 1% 아무 의미가 없다. 찰나의 의미일 뿐이다. 천국에서의 상위 1%이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거야말로 영속적 의미이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1-4)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5)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10-12)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6-17)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눅 22:24-26)

#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 내 눈물 같을 때도 있고, 들판에 핀 꽃이 다 나를 향해 핀 것 같을 때도 있다. 원래 내리는 비고 원래 있던 꽃인데. 내가 있든 없든 내렸을 비이고 폈을 꽃인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주인공적 사고를 버려야 오히려 더 크고 원만한 행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비련의 주인공 일지언정, 망상에 사로잡힐지언정, 주인공에 대한 집착으로 내가 나를 더 힘들고 비참하게 할 때는 없는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절망으로 보든 희망으로 보든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굳이 둘 중 하나로 평가하려거든 절망이라 평가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객관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평가도 결국 나 하나에게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시선을 외부에서 내 안이 아닌, 내 안에서 외부로 향하도록, 시선의 끝이 내 안의 치졸한 자존심과 요동치는 불완전함이 아닌, 자연도 초월하는 크고 항구적인 아름다움과 시간도 초월하는 대의와 대의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매료될 수 있다면. 그럴 때 비로소 항구적인 아늑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선 주인공은 내가 아니란 것부터 인정해야. 그리고 혹여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다른 이들이 봐주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에 일부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그러나 나의 최대 관심과 시선이 나에게 남아있는 한, 결국에는 나마저 실망하는 관객 수 한 명의 졸작이 될 건 자명하다.

위 내용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중심적인 건 죄다. 우주와 역사와 선(善)과 정의의 중심은 나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고로 사람의 마땅한 일차적 태도이자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외함이다. 반대로, 내가 우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애정 어린 관객이 될 때, 하나님과 이웃이 나에 대한 애정 어린 관객이 되어주는 걸작으로 빚어져 가게 될지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 23: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6)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고전 8:6)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 버리실 것이다.” (마 3:11-12, 메시지성경)

#
<욕심만큼 돌아간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약 1:13-16)

#
<능동적 독서>

사람은 유치하고 이기적이어서 얻고 싶은 답은 벌써 다 마음 속에 지니고 독서를 한다. 설령 정확한 답을 모르더라도 무의식 중 자아가 원하는 답을 보게 될 때 자동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쩌면 독서란 자신의 지식보다는 믿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저자 또한 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전하고 굳히려 하지 지식만을 전하려 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편파적이라 탓할 수 만은 없음은 믿는 믿음이나 가치가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런 창조력도 생산력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지식정보의 구성과 운용이란 사실 가치판단 싸움의 대리전(proxy war)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신차리고 과연 어느 편에 우리가 우리의 진영을 펴고 진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시 119:48-97).

중립진영의 운명이란 양쪽진영의 징집대상 혹은 총알받이일 뿐 자체로 존속하지 못한다. 상대주의란 절대주의를 절대 배제하는 일종의 절대주의에 불과하다. 특히 '세상 가치' 대(對) '하나님 가치'와 같은 상호배타적 전장에서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시 5:4) 우리는 어느 쪽에 눈길과 수긍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골 3:10)가 되어 진리와 친숙해지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우리 모두의 건투와 건승을 기도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롬 2:4-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 30:15-16)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수 5:13-15)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 24:15)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4-17)

#
<중도>

성숙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절제인 것 같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잠 25:16).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잠 4:27).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겔 44:2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한 특성상 우리는 쉽게 치우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후회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이라도 아끼고 재시작하는 것과 남아있는 것마저 내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전자는 온화하고 지혜롭고 후자는 극단적이고 우매하다. 후자처럼 절제가 결여된 극단적인 사람은 주변이들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본인도 피곤하다. 고로, 중도(中道)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도를 걸을 수 있을까? 정확한 중도를 걷기 위해선 먼저 과함과 부족함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한다. 그 의미는 진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한다는 의미와 일반이다. 진리의 하나님과 가까워 질수록 미혹하고 옭아매려는 비진리는 떨어져 나간다. 더 이상 내 이성이나 감정, 율법이나 기복(祈福)에 치우치지 않는, 무엇보다도 자아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 까지도 뛰어넘어 중도를 걸을 수 있게 된다. 고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원자요,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치우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고 온전하게 된다.[1]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대하 19:6-7)

---

[1] 《선제적 낭만》장(章) <좌/우 이전에> 시리즈 글 참조.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 7:18)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 17:18-20)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 3:12)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 3:9-1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4-25)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

<이성과 논리 1>

우리의 제한적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인생에서 자신 있게 안다고 말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현상이나 명제를 치밀하게 분해하고 해석하고 재정립 한다고 해도 우리 수준의 지식과 논리로는 어느 시점에서부턴 가정과 믿음이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내 수준으로나마 이해해 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마저도 이해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살아갈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 1:9-10)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고전 8:2-3)

#
<이성과 논리 2>

정답을 아는 척 하고 싶다면 이성과 논리를 들먹여라. 그러나 정답을 알고 싶다면 으스댄 대로 삶을 살아보아라.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 돌이켜보라. 분명 아쉬움과 실수가 보일 것이다. 나의 논리 전제들의 오류가 있었거나 전제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꼭 ‘데인’ 다음에 돌아올 필요는 없다. 애초 제한적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벌써 비이성적인 거다. 인간 이성의 한계와 비약을 깨닫지 못하고 만능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이 이성주의의 폐단이다. 고로 정말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이성성과 제한성부터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전 8:2)

#
<이성과 논리 3>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부터 머리 속에 맴돌던 그림을 세상에 그리게 됐다.

그림 제목: “논리”
그림 설명: 논리의 허구성



부연설명:
화살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찍어놓고 그 주변으로 과녁을 크게 크게 그려나간다.

아무리 논리적,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실상은 믿는 믿음대로 살고 있다. 다만 남보다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좀 더 능숙히 정당화할 줄 아는 것뿐이다. 자신이 최우선시 하는 가치가, 즉, 최고의 선(summum bonum)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딤후 4:3) 살 것이고, 최고의 선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행 17:11)하며 살 것이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자신이 믿는 믿음을 더욱 정교히 세워줄 선생을 모시고 그에 기반한 이해와 해석들을 쌓아가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충적인 최고의 선 가치의 결과는 분명 판이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바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살후 2:12-13). 믿는 믿음을 보면, 아는 것, 행했을 것도 뻔하게 따라오기 때문이다.[1]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 43:4)

#
<뭘 해도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논리는 이럴 거 같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실 때] '이렇게 악이 세상에 많은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없다.'

---

[1] 《선제적 낭만》장(章) <사이비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마비시키고,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더욱더 깨어나게 하고 고도화시킨다고 생각한다> 글 참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에 이렇게 역경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이렇듯,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부인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 제멋대로 하나님 탓하고 재단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자.

스스로가 죄인임을, 별 희망이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로 삶의 구원을 위해선 전능한 절대주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느냐고 하나님께선 물으신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갈 3:26)고 말씀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살전 5: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알고, 논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논리의 한계를 알며,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합리성을 알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 또한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32)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8)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전 1:15-16)

#
<믿음과 행위>

모든 행위에는 어떠한 믿음이 전제 됐고, 믿음은 일종의 행위(부작위(不作爲) 포함)를 수반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 12:33-35)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4-17)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20)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롬 14:10-12)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벧전 1:17)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9-23)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3:18-21)

#

<입씨름을 통한 전도>

나의 입씨름으로 전도하려는 것은 태양 빛은 가려놓고 자신의 손전등을 가지고 진리를 밝히려는 것과 같다. 바울이 2 차전도 여행 당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행 17:17)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행 18:4, 새번역) 했지만 그렇게는 얼마 열매 맺지 못함을 보고 결국 전도 방법을 바꾸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4-5).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고전 2:13).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고전 3:7) 교회가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행 9:31) 성경은 증언한다. 물론 복음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 돼 있어야 하나,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허영이나 거만함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벧전 3:15-16, 현대인의 성경)

#

<선한 권능의 목자의 승전>

- **나의 인생과 영혼의 감독권을 하나님 앞으로 영구히 명의이전 하였다. 고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벧전 4:19),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시 31:5),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 23:1),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시 143:8),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5-6),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4-25). 아멘.

- **늑대가 덤벼올 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 **나는 목자 뒤로 숨는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 1:7),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대상 16:11),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시 144:2),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시 60:11-12),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시 18: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 46:7-11),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시 44:3-8),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삼상 25:29),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대하 14:11),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대하 20:12:-13),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4:6),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 22:31-32),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습 3:12),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사 33:22),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느 4:20),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시 91:9-16),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 1:9),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 2:8),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 62:1-8),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45-47),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사 41:10-13),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신 7:21),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대하 32:7),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수 23:8-10),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사 43:1-3),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삼상 2:10),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시 27:1-3),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고전 15:31-32),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시 31:19),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시 3:3-8),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시 5:11). 아멘.

- **하나님께선 권능의 목자, 절대주이시므로 늑대는 "깨갱" 하고 도망간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시 89:6-15),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시 82:1-8),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시 62:11),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딤후 4:17),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딤전 6:15-1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렘 10:6),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1-12),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사 37:1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단 6:26-27),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렘 15:21),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사 43:1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시 95:3),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시 97:9),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시 96:4-10),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시 86:8-10),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대상 17:20-21),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삼하 7:22-23),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19:4),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대하 6:14, 왕상 8:23),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출 15:11),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

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신 3:22-24),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시 77:13-15),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대하 20:6-30),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시 3:6-7),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15-35),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신 28:2-7),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0-1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신 10:17),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출 19:5),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1),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1-22),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욥 12:13-23),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

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단 4:34-35, 새번역),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삼상 2:6-8),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사 45:7),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엡 1:11),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계 3:7),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욥 42:2),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신 4:37-39),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6-17),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9-10),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17:14),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마 14:29-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 4:4),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18),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막 16:15-20),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살후 3:3),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4:6-8),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벧전 5:10-11),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 20: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1-16),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7-10). 아멘.

-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선 그분의 양떼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1-26),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3-8),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출 34:6-7),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시 41:12-13),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신 33:12),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대상 17:2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시 37:28),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10-1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사 40:28-29),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 9:10),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사 46:4),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렘 31:3),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 1:30-31),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3-8),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5),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 28:20),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신 31:6),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사 43:4),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삼상 12:22),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시 31:24),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 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 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 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 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 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 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 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멘 멍에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 떼요, 내 목장의 양 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겔 34:11-31, 새번역),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1-15),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10:28-30),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2-3),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5-6),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5-9),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신 33:27-2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살후 2:16),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딤후 4:18),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3-24),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롬 16:20),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4-17),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시 79:13),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시 48:14),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 13:5),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시 95:6-7). 아멘.

#
<영적 전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12-13)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7-30)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전 1:30-31)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일 4:3-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4-15)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4-5)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 5:18-2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1-4)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6-23)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19-2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26-39)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2:4-8, 새번역)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엡 6:10-19)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고전 15:31-32)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4-18)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0-14)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2-13)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12-13)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벧전 4:11-19)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13-21)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19-25)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3-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 2:14-18)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6: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3-1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므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 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을 ‘여호와닛시’라 하고” (출 17:7-15, 새번역)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20-29)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4-20)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눅 10:17-21)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눅 11:20-23)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 12:28-3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막 16:17-20)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수 5:14-6:21)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삼상 17:45-5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 27:1-6)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46:9-11)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 62:3-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 20:7)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 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 날에 자식들이 박살 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 나지 않았느냐?" (호 10:12-14, 새번역)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 18:1-50)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대하 20:15-17)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4-8)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 7:9-17)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 19:11-21)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9-10)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2-28)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51-58)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3-39)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3:14-16)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 11:33-38)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4)

#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섭리와 주권의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됐으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의와 영생에 이르렀고, 영, 혼, 육이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하고 영구한 사랑의 사귐이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는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필수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은 것이다. 이 위대하고 영속적이며,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치유를 얻었기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다 이에 비할 바 되지 못하는 한낱 잠시 있다 사라질 먼지와 같을 뿐이다. 우리는 도저히 상할 수 없고 해를 받을 수 없는 영원하고 완연한 자유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 11:3-4)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5-6)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4)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0-11)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 14:3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막 5:26-3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막 6:54-56)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 8:14-17)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마 19:2)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마 12:15)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눅 9:11)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막 1:33-42)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 4:23-24)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눅 9:1-2)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 10:1)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7-8)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4-16)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7-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행 3:6-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후 4:6-10, 새번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후 1:3-10)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6-37)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3-14)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 1:11-28, 새번역)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6-11)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18-23)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사 38:16-20)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 118:16-18)

“그 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야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 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삼하 12:13-25, 새번역)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 3:1-12)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후 12:7-10)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눅 22:41-46)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0-26)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42-58)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14-39)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후 5:1-5)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4-25)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1-2)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후 4:18)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3:1-2, 새번역)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1-7)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1-5)

#
<천국 시민, 하나님 자녀>

사람이 던져 주거나 버린, 땅에 떨어진 먹을 거나 마구 주워 먹으며, 멀리 나는 법도 잊은, 비만 새같이 사는 게 아니라, 생명력과 야생성이 있어, 무한한 창공을 마음껏 비상하고 활공하는 새로 살길. 땅에 구속된 것이 아닌, 하늘에 잇닿아 살길.

인간적 욕심이 아닌, 실제적 본분대로, 부름받은 대로(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선한 청지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복음 전파)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맺으며 살길.

주신 큰 복과 시간과 자원과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를 유능하고 선하게 관리, 사용, 개발하며, 감사히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으며 살길.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이미 이 땅에서의 지위의 상대적 높고 낮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절대적 영광의 신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이미 이 땅에서의 소유의 상대적 많고 적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충만한 부유함을 받은 것이다. 고로 이 땅에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실제,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지위와 소유는 지극히 미미한 찰나일 뿐이다. 고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그럽고, 관용하며, 온유하고, 평안하며, 은혜를 끼치고 한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내게 허락하신 복들을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1-2)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20-2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1-2)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3-16)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2-18)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 25:21)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7)

#
<자녀답게>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에 속한 이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아쉬운 것처럼 이땅에서의 생명과 영광과 위로와 낙에, 즉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게 될 때부터 지존자의 자녀다운 멋과 여유와 기쁨은 잃어가고 비참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고(히 4:15), 세상을 이기시고(요 16:33), 사망을 이기사(히 2:14, 고전 15:55-58),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고전 15:20),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기까지(갈 4:19),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기까지(빌 3:12),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기까지(갈 2:20),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엡 4:13, 히 6:1-2), 오직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까지(행 17:28),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을(히 12:2) 더욱 힘써 바라고 사모하고 그분의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기를(엡 3:19) 기도한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엡 5:1)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1-33)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1-2)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5-26)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7)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편만한 하늘을 자유로이 활공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기류에 편승하여 돛단배처럼 넉넉히 순항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이 보며 영원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6:6-8)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 118:13-17)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 18:28-36)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히 12:1-3, 메시지성경)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2-1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3-5)

#

<맺음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14-24)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 104:33)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 146:2)

《VII. 한 걸음 한 걸음 밀착 기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 28:9)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 48:14)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 95:7-8)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3)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7-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9-30)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4)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4-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4-26)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롬 8:11-18, 새번역)

#
<목사가 되지 않은(못한) 이유>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돼 볼까 하는 생각은 항상 있었으나 결국 안된(못된) 이유:

1.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질 않으셨다.
  1.1. 로스쿨 때 공부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하겠다.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첫 제안은 "목사가 될까요?"였는데 "거기 계속 있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거였으면 굳이 은혜를 이러한 모양들(고등학교나 학부 때 로펌 인턴을 하게 된거나 주변에 법조인을 여럿 알게 된 거나 기독법률가회 전국대회 가서 몇 백명의 법조인들 앞에서 학부생 대표로 간증을 한 거나 등)로 주며 키워왔겠느냐?"라고 하셔서 그냥 있었다.
  1.2 그 이후로도 만 31 세에 상장회사 법무실장이라는 직책에 올랐을 때도, 진지하게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신학교 진학도 다시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 같았다. (본 《한 걸음 한 걸음 밀착 기록》장(章) <근황 업데이트: 2021 년 8 월 5 일> 글 참조)
  1.3. 또 그 이후로 변호사 7 년 차 즈음이 되던 2022 년 3 월 24 일, 상장된 지주회사의 법무총괄로 있다가 갑작스러운 퇴사 이후에도(자진 퇴사이긴 했으나) 내 생각엔 이제 사기업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로서 얼추 많은 경험은 해보았다는 생각에(본 《한 걸음 한 걸음 밀착 기록》장(章) <근황 업데이트: 2022 년 4 월 21 일> 글 참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래 진로를 구하면서 직업으로서의 '목사'를 고려하며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문하셨다. "네 생각엔 한국에 목사가 부족하더냐? 목사가 부족해서 내가 너를 또 한 명의 목사로 부르겠느냐?" "조급해하지 말고『아버지와의 낭만』 집필에 충실히 임하며 기다려라."라고 하셨고, 이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며, "네가 정말 설레고 꾸준히 관심 있어 하는 것(관심), 객관적으로 쉽게 잘 하는 것(재능), 네가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가치(가치관)를 고려하여, 너에게 심어준 재능과 잠재력들을 마음껏 펼칠 선한 진로, 사명, 일을 같이 계속 생각해 보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와 같은 마음과 말씀들도 주셨다(본 《한 걸음 한 걸음 밀착 기록》장(章) <근황 Update: 2022 년 3 월 24 일부터 8 월 1 일까지 130 일동안> 글 참조).

2. 내 직업적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게 되기 싫었다. 자발적 진심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싶었다. 나아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그 누가 보더라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가 아닌, 목사가 아닌데도 저러네. 신기하네. 진짜 하나님이 좋나 보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하는 게 느껴졌으면 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크게 쓰임 받는 '목사'가 아닌 크게 쓰임 받는 '복음 전도자'이다.

3.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삶을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나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거나 시험에 든다면, 더군다나 내가 직업이 목사임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게 내게 너무 큰 공포와 부담으로 다가올 거 같았다.

4.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우주와 세상의 참되고 유일한 최종 주관자요 주권자 되심을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닌, 실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나부터 실제로 느껴보고, 경험해 보고 싶었다.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다 하나님이 으뜸이고 주권자라고 하나, 실제 치열한 세상과 삶의 한복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으뜸 되시고 유일한 최종 주권자 되심을 경험하고 싶었고,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보이는 정치와 외교와 경제와 각종 전쟁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이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현실의 최전선에서도 계속 경험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크고 많은 동역과 동행과 추억과 낭만과 승리와 사랑을 쌓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널리 선전하고 간증하고 싶다.

5. 내가 닮고 싶고 좋아하는 다윗 왕, 요셉 총리, 다니엘 총리, 도산 안창호, 느헤미야 총독,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 C. S. Lewis 교수 등 모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복음전도자 등 평신도였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닮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평신도'이셨다.

6. 인생의 최종 직업적 목표는 통일된 한국에서 특정 교단과 상관없이 크고 작은 여러 한국 교회와 지역을 다니며(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독립교단, 기도원 등. 단, 이단 사이비 집단은 명백히 제외하고 경계하며)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불씨를 활활 키우는 복음 전도자이자 한국 선교사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도 목사라는 직분보다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평신도 사역자, 사명자로서 임할 때 더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더 큰 전파력이 있을 거 같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6-8)

7. CTS 기독교 TV 에서 근무해 보니('23/9/11 – '23/11/24), 헌금을 받아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됐다. 물론 다른 직업도 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 그대로 '과부의 두 렙돈'을 직접 받아 생활하고 영위하는 포지션은 더욱더 떨리는 일이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무 총괄로서는 사임하고 일찍 퇴사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만약, 만약 내가 목사가 되더라도 헌금을 받아 살기보단 다른 일을 병행하며 생활하고, 헌금은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다.

#
<근황 Update: 2021년 8월 5일>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로써 현 직장 '지놈앤컴퍼니'를 퇴사하고, 오는 8 월 9 일,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판교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백신 회사에 사내 변호사로 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회사에 퇴사 notice 는 한 달 전 냈지만, 후임자가 쉽사리 구해지지 않아, 그래도 법무실장으로서의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에, 직접 후임자를 발굴해서 추천하고 신속히 채용하여 일주일 이상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고(대면회의 20 시간 이상), 회사와 후임자분께도 앞으로 필요시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고(1 년 무상 'A/S'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회사와 후임자분 모두 흡족한 상황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기쁩니다.)

첫 직장이었던 '광장'이라는 로펌(로펌 재직 시 full-time 으로 파견 나갔던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 포함), 그다음 직장이었던 'LG 상사'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재 직장 '지놈앤컴퍼니'(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에 이르기까지, 사내변호사 또는 법무실장으로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지나온 직장들 모두 그 시기, 그 기간, 그 업무 그대로 하고 싶고, 이번 직장에서 약 11 개월간 법무실장으로서의 경험은 상장사의 전체 숲을 볼 수 있던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업무, 권한, 자율성, 연봉, 지위, 임원승진 보장, 대인관계, 주차자리, 스톡옵션, 워라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으나, 특히 코스닥 상장 이후, 또 법무실 설립 및 궤도에 올라가고, 전사 법무 업무가 익숙하고 쉬워지기 시작한 이후인 올해 봄 정도부터, 개인적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가 조금 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인류에 선한 공헌을 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이하 '새로 추구하는 의미')는 막연한 개인적인 원함과 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일에서 얻는 개인적 성장과 승진과 연봉도 중요한 의미이고(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진 그런 부분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career 를 쌓아왔다면, 이제는 그 이상으로 보다 더 크고 숭고한 의미에 심취하여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빨리 만 나이 31 살에 상장회사의 법무실장이 됐는데, 많이 어쭙잖은 말일 수 있으나, 갑자기 '그래서 이제 뭐인 거지?' '앞으로 이렇게 정년까지 30 년 이상 법무실장 하면 되는건가?' '난 여기서 우물 안 개구리가 돼 가진 않을까?' '그렇다고 다시 아무 대기업으로나 돌아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의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나는 뭘 이루었다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무얼 이루어 가고 싶은거지?' '나는 왜 살지?' '무얼 위해 살지?' '오늘 하루의 일은 영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이지?' 등의 질문이 내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위 '현타'가 세게 왔고, 자칭 "의미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도 다시 생각도 해봤으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슨 회사 일에서 의미까지 찾냐는 주변 얘기도 있었지만, 심지어 연봉이나 지위를 낮춰가게 되더라도 '새로 추구하는 의미'에 걸맞은 일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개인적으로 생겼고, 특히 기도할 수록, 그 갈망이 사그라져가긴커녕 점점 커져서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내가 어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직장에 별 의미 두지 않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제 안에 이런 갈망과 모험심이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새로 추구하는 의미'(내가 하는 업무가 조금 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에 선한 공헌을 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지금의 회사도

다니며 계속하여 검토해 보고, 꽤 많은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던 중(그중 지금보다 상당히 더 높은 연봉을 준다는 합격한 사모펀드 회사도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유수의 대기업과 벤처에 대한 소식도 서치펌 등을 통해 받았으나, 고민, 고민 끝에 현시점에서 추구하는 '의미' 부분에서 특별히 큰 확신이 없어서 신중히, 신중히 고민하던 중), SK 바이오사이언스 법무팀 채용에 대해 듣게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관해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채용 인터뷰를 할 때, 법무팀장님이 "우리는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하실 때 '바로 내가 찾던 곳이구나!'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재단도 아닌 일반 사기업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신선한 충격이자 마음에 깊이 꽂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백신주권, 백신안보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코로나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일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빗자루만 쓸어도 우리나라의 국방과 세계 평화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봉, 지위, 스톡옵션, 임원승진 보장, 워라밸, 기타 특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낮추거나 포기하고 가는 상황이지만(그리고 현재 회사는 퇴사 notice 를 낸 한 달여 전부터 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남으라, 남기 위한 조건이라도 제시해 보라고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보다 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나중에 돌이켜봐도 후회 없을, 의미 있는 이직이라 생각되어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직장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일체 제시해 보지 않고 그저 이 길이 맞다 생각하여 이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직하고 나면 또 어떤 앞날이 있을지, 어떤 세상이 있을지, 새로운 직장에서는 얼마나 있게 될지, 회사의 앞날은 어떨지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됐기에 옮기게 됐습니다.

'새로 추구하는 의미'가 중요하면, 아예 UNICEF 같은 곳을 가면 되지 않냐는 분도 계셨으나, 과연 제가 UNICEF 에 간다고 희망해도 저를 뽑아 줄지, 제가 얼마나 효과적인 도움이 될지, 그리고 현재 추구하는 의미와 더불어 저라는 개인의 이력, 역량, 재능, 향후 진로, 가치관, 문화, 재미,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가중치가 모두 골고루 있기에(가중치를 두는 요소와 비중에 조정이 있었을 뿐), 적어도 현시점에서 여러 현실적인 대안 중 가중치 평균이 독보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곳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인 거 같고, 뽑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완벽한 회사를 만난다는 건, 내가 완벽하지 않기에 사실상 불가능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자신 스스로를 계속 개발하며, 법무뿐만 아니라 경영으로도 옮겨 가서, 결국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인류에 선한 공헌하는 사업을 일구는 것이 여느 '회사원'들처럼 저의 '회사원'으로서의 지향점이겠으나, 그곳까지 가는 과정, 과정도 의미 있게 느끼고 싶은 거 같습니다.

>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퇴치에 앞장서며 한국 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숭고한 사명과 국익증진 및 국위선양의 애국적*

사명을 띠고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몰입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사 지원서에 썼던 ‘지원 동기’ 내용 중 발췌)

여담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무력화된 이후에는 (정치나 외교가 아닌, 특히 사기업 관점에서는) 친환경, 재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등도 그다음으로 시급한 시대의 과제가 될 거 같습니다(물론 지금도 이 모두가 지구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나, 코로나가 가장 시급한 건 맞기에).

단순히 한 사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의 한계를 넘어, 더 거시적으로 국내외 정치나 외교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로서는 기후변화, 이념분쟁, 패권다툼, 민족주의, 인종차별, 인권유린, 식량문제, 공중보건, 무역분쟁, 선진국의 노령화, 노동인구 감소, 가정과 공동체의 해체, 지역간·국가간 불균형 발전, 육상과 해양을 넘어 우주 영토 문제, 가상세계·가상화폐·인공지능에 대한 가이드 수립, 시장경제·민주주의의 선용(善用), 그리고 물론 지구 환경 복원 등의 문제가 있겠죠.

나아가, 정치나 외교가 당면한 과제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사안으로는, 인간 존재로서의 의미, 선과 악, 정의, 사랑, 이기심과 이타심, 삶과 죽음, 자살과 타살, 도덕과 양심, 영혼과 마음 등에 대한 고찰과 해답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불변하고, 불멸하며,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확증적이며, 실재적이고, 실효적이며, 보편타당하고, 시공간의 구애가 없는 진리의 실체를 적어도 내 수준에서라도 어느 정도 속 시원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이겠죠. (심지어 신체적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공학의 발달이 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러한 인간 존재로서의 의미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많은 한계를 고려할 때 내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기보다는, 진리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진리가 내게 계시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꾸준하고 정직한 구도자의 마음을 갖춰야 함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마음가짐과 태도이어야 하겠죠. **결국 없어질 허망함 속 찰나의 쾌락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닌, 영원할 진리에 부합하는 영속할 쾌락에 인생을 걸고 싶은 현명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겠죠.**

그 누구에게 보다 제가 저를 위해 남기고 싶던 말들이었습니다. 이직 하나 하면서 말도 길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번 이직을 예시로써 사용한 삶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 생각의 글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단순 이직보다 더 작거나 더 큰 결정과 행동들을 할 때도, 되도록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 늘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생각과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삶을 정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 15:4-17, 새번역)

#
<근황 Update: 2022년 1월 23일>

지난 수요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오는 2 월 25 일(금)까지는 현재 회사(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재직, 2 월 28 일(월)부터는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된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왔던 가장 큰 목표였던 ‘백신주권’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나의 성장의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맡은 일을 일단락 짓고 가려다 보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없으나, 나의 이직 과정은 대부분 이래왔기에 괜찮다.

'15 년 6 월 변호사가 된 이후, 이제 경력이 만 6 년 7 개월 정도가 됐고, 이번에 이직하게 됨으로써 그간 경험한(할) 회사는 총 7 군데가 됐다: 법무법인 광장(고객사 Samsung 바이오에피스 파견 포함) → LG 상사 → SK 하이닉스 → 지놈앤컴퍼니 법무실장(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 → SK 바이오사이언스 → ****(상장된 게임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써 지주회사도 상장돼 있고 지주회사 법무 총괄 역할).

흔히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는 BBIGC, 즉,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반도체가 있다고 한다. 이중 바이오, 반도체는 경험해봤고, 상사에서는 다양한 산업도 경험해 봤으나, 인터넷·게임은 못해봤다. K-Contents (문화 강국) 산업에는 늘 관심은 있었지만 로펌 때 IP, Entertainment 팀 소속으로 잠시 해본 것 외에는 기회가 없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콘텐츠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수출액 규모 중 67.6%를 차지하는 것이 게임이고, 2 위(캐릭터 6.9%), 3 위(지식정보 6.6%), 4 위(음악 5.5%), 5 위(출판 4.9%), 6 위(방송 3.5%)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 1 위가 게임이다.

특히 요즘 게임은 단순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Metaverse), NFT(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미래가 어떤 면에선 가장 체감적으로 우리에게 마중 나와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지원하는 데 큰 중요 요소이기도 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닌 지주회사도 아직 못 경험해 봤다.

고로 이곳 게임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채용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많이 가보고 싶었고, 사실 게임 쪽 경력이 없어서 안 뽑아줄 거란 생각이 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어 기쁘다. 개인적으로 법무뿐 아니라 경영 기획 또는 경영 전략 역량 성장 면에서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 같다.

이곳 회사에 자기소개서 낼 때 인용했던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글 중 일부와 좋아하는 찬양(특히 로스쿨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을 여기도 쓰며 근황 업데이트를 마무리해야겠다.

"끝으로, ****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문화 강국을 이룸에 있어 혼신의 힘을 다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찬양 '나의 가는 길')

#
<근황 Update: 2022년 3월 24일>

어제 오후 긴 고민과 아내와 대화와 말씀 묵상과 기도 끝에 오늘 새벽에 보냈던 퇴사 메일 일부:

"**** 입사 전에 제가 예상한 업무는, G&E(game and earn)와 게임간 호환가능한 NFT(non-fungible token) 위주의 게임 사업을 내실 있는 게임 컨텐츠 출시와 더불어 하는 걸 생각했고, 그 외에도 지주회사로써 컨텐츠·엔터·IP 분야 신사업 검토(M&A 포함) 및 지주회사이자 상장사로서의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의무를 검토하는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막상 들어와서 보니 ****(자회사) 법무와 사업 기획 업무도 겸직하면서, 다른 업무보다도 사실상 **** 가 가장 큰 업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M&A Target 도 현재는 ****가 가장 큰 우선순위로 보이는데, 이런 점들은 제가 입사 전에 예상하지는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블록체인과 DeFi(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코인 이코노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귀한 계기였고,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많은 잠재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코인 이코노미'도 분명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나, 특히 DeFi 분야는 아직은 실험적인 측면이 큰데, 이런 실험의 대가가 일반 개인들의 실제 돈(Fiat Money)이라는 것, 그리고 잠시나마 가까이서 봤을 때 Regulatory, Legal Compliance 측면이 매우 중요한(중요해야만 하는) 산업 같으나, 아직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업권법이나 법체계가 정비가 안 된 면이 있고(회계처리 기준, 은산분리, 세금, 코인거래소 규제, 내부자거래, 자전거래, Market Maker, 시세조종, 코인 상장심사(코인 내재가치, 발행사 기업가치 검증), 투자자보호, 코인별·NFT 별 유형화 및 적용 규제 명시화, 코인 상장폐지 기준, 기존 자본시장법·금융투자규정·외국환거래법 등과의 관계, 국가간 코인 이동 및 거래 규제 등), 이런 시기에 더 신중하기보단 오히려 이런 공백을 기회로 여겨 여러 사기업들과 산업 전체가 급발진(?)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겠으나, 블록체인, DeFi 등 기술과 개념들은 흥미로우면서도(그리고 미래에는 충분히 잘 정착될 수도 있는 기술과 개념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현재로서는 제 자신이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 떳떳하게 마음 놓고 추진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요지는, 아직은 내재 가치에 비해 거품이 상당히 있는 산업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거품을 메꾸는 건 제도적으로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개인들이라는 점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보통의 사업은 내재 가치가 있는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값이 시장에서 매겨지는데, 다는 아니지만, 여러 소위 '코인 이코노미'가 이코노미 생태계도 마련되지 못한 채 코인만 무분별이(?) 발행·상장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업권법이 국제적으로 발맞추어 나라별로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법률의 회색지대에서 Legal Risk Taking 을 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이 뒷받침돼야 할 거 같습니다.[1]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내일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
<근황 Update: 2022년 4월 21일>

요즘 놀고 있는데 너무 좋다. 주님이 주신 안식의 선물이라 여겨진다. 동네 분식집에 저녁 먹으러 걸어오는데 공원에서 뛰놀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타임"을 외치며 자기들 게임의 룰을 확인하고 재설정한다. 나 때도 "타임"이었는데 신기하다. 유행어(?)가 두 번의 강산이 변했을 시간임에도 "타임"은 아직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의도한 "타임"은 아니었으나, 갑작스러운 "타임"이 내 인생에 외쳐졌고, 2015 년 2 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보고, 만 26 세에 변호사 커리어를 시작한 지 거진 7 년 되는 이 시점에 지난날을 차분히 돌아보고, 앞날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구상해 보며 하나님과 상의하며 기대하는 요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요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요새 예배 때와 기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소망과 기대를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행복한 나날이다.

그간 6 군데 직장을 다녔고, 파견 나갔던 직장이나 겸직한 직장도 합하면 8 군데를 다녔다(법무법인 광장(Samsung 바이오에피스 파견 포함), LG 상사, SK 하이닉스, 지놈앤컴퍼니, SK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자회사 *** 겸직)).

소위 4 대 로펌이란 곳에 근무해 봤고, 우리나라 재계 순위(자산총액 기준) 4 대 그룹중 3 곳을 경험했고(재직 당시 우리나라 시가총액 2 위였던 회사 포함), 재직 당시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유니콘 바이오벤처의 법무실장도 경험했고, 코스닥 상장된 지주회사의 법무 총괄을 하며 자회사의 법무 총괄 및 사업기획도 겸직해 보았다.

참 바빴던 거 같고, 늘 열심히 했던 거 같으나, 지나보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 이러한 커리어 과정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쉽게 되지

---

[1] 《선제적 낭만》장(章) <N차혁명과 기독교 4> 글 참조.

않을 거 같은데, 사실 당사자인 내가 볼 때 가장 신기하다. 나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얘기임을 당사자인 내가 가장 정확히, 정직하게 알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늘 그랬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어디든, 그 무엇이든, 그 어떤 일이든 순종하며 계속 잘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가길 기도한다. 미래에 대한 나의 소원이 있다면, 평생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정말 친한 아들이길 원한다. 그거 하나면 족하고 충분하다.

분식집 사장님께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김밥을 싸주고 계신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
<근황 Update: 2022년 3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130일동안>

2022 년 3 월 24 일 퇴사 이후, 8 월 1 일 오늘까지 130 일 동안, 개인적인 또는 부부간의 성경 묵상(QT), 1 년 성경 통독과 기도 외에도, 교회 공동체로서의(양재 온누리교회, 분당 지구촌교회 등) on/off-line 예배(주일예배, 금요예배, 순모임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성령집회, 공동체 기도회, 성령수련회 등) 63 회, 기도원(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주중 및 토요 예배 72 회(이후 11 월 14 일 기준으로 2022 년 한 해에만 기도원 예배 100 회를 드리게 됐고, 그 이후에도 교회 예배는 당연하고 더불어 기도원 주중 예배도 틈틈이 가고 있다), 교회 성경 강의(마가복음 강해, 일과 신앙(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강의) 15 회 등, 최소 150 회 이상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의 자리가 있었다.

이동 중에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 목사님, 복음전도자 설교* 및 신·구약 성경 배경과 역사에 대한 강의도 듣고, 여러 신앙 서적(두란노서원 책들)도 읽으며, 특히 사명과 진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관련 책과 강의들도 보고 듣는 기간이기도 했다. (*이재훈(온누리교회), 이상준(온누리교회),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규현(수영로교회), 조정민(베이직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김양재(우리들교회), 박지웅(내수동교회), Charles Spurgeon, Billy Graham, John Piper, D.A. Carson, Tim Keller, R. T. Kendall, Max Lucado, J.John, Rico Tice, John Lennox, Alister McGrath, Amy Orr-Ewing, BibleProject Videos 등)

2010 년에 처음 엮어서 지금껏 쓰고 다듬어 오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글들 모음인『아버지와의 낭만』은 퇴사 직전 버전(2022. 3. 20.) 대비 169 페이지가 증가했고(329 페이지 → 498 페이지(A4)), 이는 기존 버전 대비 50%가 넘는 분량이 위 기간에 새로 추가 작성된 것이다. (자주 그래왔듯 조만간 해당 최신 버전(version 50)도 업로드하고 링크를 공유하려고 한다.『아버지와의 낭만』이 100 페이지 정도가

넘어간 뒤, 이 책을 정독하며 완독해 준 사람은 결혼 직전에 당시 교제하던 사람(현재 나의 아내)밖에 없었다.)

2015 년 변호사로서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열흘 연속 이상의 시기는 없던 거 같다. 아니 어쩌면 평생에 없었을지 모른다. 3 월 24 일 퇴사 후 첫 80 여일 정도는 직장이나 다른 그 어떤 신경 쓸게 없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던 정말 감사한 시기였다. 그 후에도 명확한 하나님의 다음 진로에 대한 뜻을 기다리며, 기도 가운데 이런 저런 직장 오퍼를 신중히 고려하며 고사하기도 하고, 우연히 연결된 북한인권 관련 봉사와 활동을 하기도 하며, 프리랜서로서 이런 저런 일도 하며 지내오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아놨던 목돈을 깨지 않게 하시고, 투자해놓았던 것과 새로 투자한 것도 잘 되게 하셨으며, 프리랜서 급여는 오히려 풀타임 직장 때 못지않게(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고 계셔서 저축도 하며 지내고 있다. 반면 삶은 시간적으로 예전 풀타임 직장 때보다 한결 여유로워서 어느 정도 계속 주중 예배도 갈 수 있고(예배 때 가장 행복하다) 북한인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번 '근황 Update'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까지의 풀타임 직장으로는 대기업은 네 곳 정도(Samsung 1 곳, LG 1 곳, SK 2 곳)와 대형 로펌 한 곳 경험이 있고(Samsung 은 로펌 재직 당시 20 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파견근무 나갔던 곳이다), 이 외에도 상장된 바이오벤처의 법무실장과 상장된 지주회사의 법무총괄도 해보았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곳 중 하나도 대기업이다(이전에 다니던 직장인데 돌아오라고 오퍼를 주셨으나 기도와 고민 끝에 고사했더니, 프리랜서로서는 어떻겠냐고 다시 오퍼를 주셔서 이미 프리랜서로 다른 일도 하고 있기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 월 퇴사한 현재로서 마지막 풀타임 직장이었던 지주회사는 게임 회사를 주요 자회사로 운영하는 기업집단(자산총액 8-9 천억원 정도)의 지주회사였는데, 좀 급작스럽게 양심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됐다. 코스닥에 상장된 지주회사였고, 그곳에서 1 인 법무총괄 역할을 맡았으나, 입사 후 디지털코인(가상화폐) 사업을 빠르게 키워가는(탈중앙화금융 등) 자회사의 1 인 법무총괄 업무와 사업기획까지 지주사 업무와 함께 겸직을 하게 됐는데, 자회사 사업의 법률적 risk 가 높다고 판단되어(엄밀히 말하면, 코인 산업 업권법의 공백을 사측을 위해 공격적으로 이용하려는 점을 이해는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떳떳하게 공감하지 못하여), 아내와 기도하고 고민한 후 양심상 퇴사하였다.

(이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코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큰 선에서 비슷하다. 퇴사 메일에도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썼었다. "블록체인과 DeFi(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코인 이코노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귀한 계기였고,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많은 잠재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코인 이코노미'도 분명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나, 특히 DeFi 분야는 아직은 실험적인 측면이 큰데, 이런 실험의 대가가 일반 개인들의 실제 돈(Fiat Money)이라는 것, 그리고 잠시나마 가까이서 봤을 때 Regulatory, Legal Compliance 측면이 매우 중요한(중요해야만 하는) 산업 같으나, 아직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업권법이나 법체계가 정비가 안 된 면이 있고(회계처리 기준, 은산분리, 세금, 코인거래소 규제, 내부자거래, 자전거래, Market Maker, 시세조종, 코인 상장심사(코인 내재가치, 발행사 기업가치 검증),

투자자보호, 코인별·NFT 별 유형화 및 적용 규제 명시화, 코인 상장폐지 기준, 기존 자본시장법·금융투자규정·외국환거래법 등과의 관계, 국가간 코인 이동 및 거래 규제 등), 이런 시기에 더 신중하기보단 오히려 이런 공백을 기회로 여겨 여러 사기업들과 산업 전체가 급발진(?)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DeFi 등 기술과 개념들은 흥미로우면서도(그리고 미래에는 충분히 잘 정착될 수도 있는 기술과 개념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현재로서는 제 자신이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 떳떳하게 마음 놓고 추진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요지는, 아직은 내재 가치에 비해 거품이 상당히 있는 산업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거품을 메꾸는 건 제도적으로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개인들이라는 점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보통의 사업은 내재 가치가 있는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값이 시장에서 매겨지는데, 다는 아니지만, 여러 소위 '코인 이코노미'가 이코노미 생태계도 마련되지 못한 채 코인만 무분별이(?) 발행·상장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업권법이 국제적으로 발맞추어 나라별로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법률의 회색 지대에서 Legal Risk Taking 을 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이 뒷받침돼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결론적으로 요즘과 같은 이런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씻기고,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됐다. 스스로 느낄 때 앞으로 인생에서 언제 돌아봐도 큰 이정표와 표석이 될만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재건되고 확장되는 시기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內住), 감화, 감동, 역사, 충만, 통치하심 가운데, 인생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더 깊고 풍성해지는 시기가 됐다. 이 시기를 두 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연단"이었고,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이었다.

특히 위에서 말한 퇴사 후 첫 80 여일은, 중학교 때 유학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을 통틀어, 가장 길게 통으로 행복한 시기였다.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낌없이, 별다른 방해 없이, 시간적 제약 없이 집중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믿음의 연단에 관해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에 더욱 익숙해지는 시기였고, 그럴 때 사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더욱 체득하는 기간이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적어도 보여주시는 하루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 받는 내 평생이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전부를 의탁하며 기도한다.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동행하는 이 인생 여정 자체가 사실 최고의 낭만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나의 인생길의 과정이자 궁극적 목표이자 비전이자 의미이자 행복이자 전부이다.

지난 몇 년, 작년과 올해 초 신년예배 때 받은 "올해의 말씀"들과 더불어 이 기간 동안 특히 아래와 같은 말씀들이, 때로는 복수의 경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나는 겸손히 믿음으로, 모두 "**아멘**"으로 받았다. (받은 말씀들 중 여러 날에 걸쳐 확증된 말씀이라도 기재는 되도록 처음 받은 하루에만 넣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수 없도다"(민 23:19-20),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5-6),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롬 4:20-21),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욥 23:13-14),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0-11),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시 147:15). **아멘 아멘**.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시 41:12-13),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시 72:18-19),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계 7:10-12). **아멘 아멘**.

['07 년 1 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1-4, 영국 유학시절 City of London Freemen's 학교 Senior School Assembly 대표 봉독)

['13 년 1/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1, 분당 지구촌교회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14 년 1/1]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분당 지구촌교회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17 년 1/1]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분당 지구촌교회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21 년 1/1 – 1/3]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상 3:12, 양재 온누리교회 J4U 청년부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 30:11, 교회친구다모여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6-17, 분당 지구촌교회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22 년 1/1 –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교회친구다모여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 4:7, 분당 지구촌교회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3-16, 양재 온누리교회 1/1 신년예배 말씀 본문)

[4/1]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 81:10)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스 1:3)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 17: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4-16)

[4/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신 32:11)

“**배워서 남 주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4/9]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 12:1)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 12:13)

[4/10]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약 5:7, 우리말성경)

[4/11]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8-19)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7-18)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 24:5)

[4/12]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요 13:32)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6:27-29)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막 5:35-36)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눅 8:50)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막 8:33-3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 12:24-28)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고전 15:31-32)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6-18)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16-21)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4/14]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잠 18:2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 1:28)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사 55:7-12)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사 61:1-10)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오늘 기도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물으셨고, 나는 단 하나만 구하였다. 그것을 구하고 나니 다른 걸 구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 소원만으로 황홀했다.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정말 친한 아들이고 싶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영원토록 풍성하고 충만하고 싶다.**"라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 48:11)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 43:1-7)

"내 모든 생각이나 원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드는 곳**으로 갈 수 있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요 6:40)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살전 4:3-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벧전 3:17)

“현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통해 현상을 바라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을 통해 보고** 해석하고 대응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막 9:24)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눅 17:5-6)

[4/15]

“주 **예수님의 인도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확실히 따르자.**”

“주님의 사명은 주님이 이루신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전략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 4:16)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분만을 따라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4/17]

“네가 정말 설레고 관심 있어 하는 것(관심), 객관적으로 쉽게 잘 하는 것(재능), 네가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가치(가치관)를 고려하여, **너에게 심어준 재능과 잠재력들을 마음껏 펼칠 선한 진로, 사명, 일을 같이 계속 생각해 보자**.”

[4/18]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들을 낳았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 66:8-9, 새번역)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사 66:2, 새번역)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렘 33:9)

[4/19]

"그때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자기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스 8:21-23, 현대인의 성경)

[4/20]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행 13:22)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삼하 7:2)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5)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삼상 16:13)

[4/21]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의 임재**밖에 없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4/2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 9:16)

[4/25]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 107:6-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8-31)

“나에게 준 너의 **믿음이 실망되지 않을 것**이다.” (“The faith you have given me will not be disappointed.”)

[4/26]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35-3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 32:8)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 32:10-11)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 8:10)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 17:7-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 17:20)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행 13:2-5)

[4/27]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 20:7)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눅 5:5-6)

"네가 걷고 있는 거 같지 않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 40: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12)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 11:3-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24-34)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삼상 7:3)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엡 6:18)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5-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 3:13-14)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7-10)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5)

"뭐가 어찌 되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이다."

"나의 안정감은 돈이나 지위나 무엇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 보실 때의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시기 전에 실패는 없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마 21:2-3)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4-5)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 21: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7)

“**오후 세 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행 3:1, 새번역) (기도원 주중 예배를 오후 3 시 예배로 다니던 중 이제 그만 나올까 생각한 날 그날의 설교 본문이었고,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여 계속 다니기로 함.)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의지**가 내가 나를 포기하려는 의지보다 강하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 12:2, 표준새번역)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 우리의 **푯대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되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 연결돼라**.”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자꾸 **나누고 흘려보내야** 함.”

[4/29]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시 144:2)

직업으로서의 ‘목사’를 고려하며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문하셨다. “**네 생각엔 한국에 목사가 부족하더냐? 목사가 부족해서 내가 너를 또 한 명의 목사로 부르겠느냐?**” “조급해하지 말고 『**아버지와의 낭만』 집필에 충실히** 임하며 기다려라.”라고 하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1-23)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 16:27)

[5/1]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왕상 8:10-63)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대하 7:1-5)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7-20)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5/2]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므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후 9:8-15, 새번역)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 28:1-14)

[5/3]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 10:11)

"너를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너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것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니 가능**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 (골 2:6-7, 새번역)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갈 5:25, 새번역)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겔 47:9, 새번역)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 7:38-39, 새번역)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 46:10)

[5/4]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대하 20:6-30)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5)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성공하는 핵심 전략이다. 성경에서의 성공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공이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백 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 26:1-29, 새번역)

[5/8]

“**기도하며 기다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쓰신다.**”

“세속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려하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창 28:3-4, 새번역)

[5/9]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왕하 3:16-18)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 때에는 그 때대로 주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걷혀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의 명령을 지켰다.” (민 9:20-23, 표준새번역)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 7:1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5/10]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5/11]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5/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 4:1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6-1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5/17]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6-7)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왕상 19:4-7)

“**네 모든 기도에 응답하였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2)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 118:24)

“**너의 나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내가 기뻐한다.**”

[5/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10-1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3)

[5/19]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 32:1-1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17)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 102:12-16)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 130:4-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 143:8-11)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6-27)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5/20]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 14:25-33)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때로는 배 안보다 배 밖이 더 안전함에도 두려움 때문에 배 밖으로 나서지를 못한다. **주님의 음성이 있거든 과감하게 나갈 때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한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주님만 바라보면 배 밖에서도 걷는다! 주님 외의 것을 보면 빠진다.”

“**만약 빠지더라도 간절히 주님을 불러라!**”

“**모험을 하지 말고 순종을 해라.** 기독교 믿음은 무모한 모험이 아닌 순종이다.”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해 주신 문제로 계속 돌아가지 마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신 32:9-14)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새찬송가 542 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4 절)

[5/21]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 48:14)

[5/22]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대상 10:13-11:9)

“나의 개인적 영달을 위한 길이 열리길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도록,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길이 열리도록 바라고 기도하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웃에게도 넉넉히 넘쳐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자.”

“공로 의식이 아닌 **은혜 의식으로 살자.** 이런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4-16)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 40:3-9)

[5/23]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대상 12:22)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 20:6-8)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인류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틀어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 위에 홀로 뛰어나신 권세자요, **유일한 최종 주권자이시고, 유일하게 전지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행 13:22)

[5/24]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안전이고 현실이다. 인간적 자구책**(自救策: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방책)**을 의지하지 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 25:9)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곧 현실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만이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 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 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사 43:10-19, 현대인의 성경)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 12:26-29)

"**일평생 살면서 영원히 유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 33:27-29)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서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유 1:24-25, 표준새번역)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대상 16:10-11)

[5/25]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대상 17:20-22)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단 9:17-23)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롬 6:4-22)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8)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울 것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니" (골 3:9-1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 실패가 시작되고, **영적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이다. 영적 실패가 시작될 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살게 된다.** 그때부터 사는 인생은 낭비일 뿐 아니라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된다. **'성공한 실패자'가 아닌 '성공한 승리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 (Faith & Work Institute Asia 김윤희,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순출판사, 2017), 65)

[5/26]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대상 2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눅 18:1-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14)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7-12)

"**긴 호흡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섣불리 지금 바로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염려하지 마라."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사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 체면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5/27]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상 29:10-14)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3-4)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 2:17-18)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히 6:15, 현대인의 성경)

[5/28]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2)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 3:4-6)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왕상 17:2-4)

"네가 갈 길을 보이겠다."

[5/29]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5/30]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 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사 26:19, 표준새번역)

“끝까지 기다리라.”

“성급하지 마라.”

“기도하고서는 기다려라.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라.”

“사람을 붙들거나 사람에게 터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사 45:17-19, 표준새번역)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행 7:55-56, 표준새번역)

[5/3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6-28)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시 1:1-3, 현대인의 성경)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으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3-24)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6/1]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 147:7-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2-16)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4:3-4)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 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 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 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 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진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 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시 78:12-42, 새번역)

"사도바울의 말을 반대로 해보면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요.** 잘 사는 자 같고 축복을 받은 자 같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요. 행복한 것 같으나 항상 근심하며, 부자인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영적 파산자로다(고후 6:9-10 내용을 반대로 바꿈)."" (Faith & Work Institute Asia 김윤희,『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순출판사, 2017), 72)

[6/2]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4-5)

[6/3]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눅 9:23-25)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 21:11-13)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됐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4]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최우선이 돼야 한다.**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 삶과 삶 사이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삶이 있어야 한다. 예배에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 예배를 회복하자. **성공한 예배 없이 성공한 삶은 없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삶에서 승리한다. **예배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점검하자: 주일성수, 예배드리는 태도, 헌금생활, 큐티, 기도생활, 섬김 생활, 순종의 삶 등. 공예배 없이 삶에서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삶 전체의 예배 중에 공예배는 당연한 필수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3-4)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 60:1-3)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6/5]

"**여기서 끝내려 했다면 지금까지 이끌어오지도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 28: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 21:5-14)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6/6]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 18:14-18)

"**너는 나를 따르라.**" (요 21:22)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6/7]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영혼육(靈魂肉), 지정의(知情意), 마음과 생각을 비롯한 나의 존재의 전부, 그리고 나의 일평생과 영원의 삶까지 모두 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기쁨으로 헌납드리고,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랑의 뜻대로, 나를 고치시고 양육하시며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6/8]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7:12-16)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기독교인은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전도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전 3:13)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문제는 사탄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떡 자체에 인생의 목적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하나님을 빼어 버린 쾌락은 곧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도록 만든 것이다... 많은 물질을 얻고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을 주신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행복을 누려라!" (Faith & Work Institute Asia 김윤희,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순출판사, 2017), 82-83)

[6/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6/10]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왕하 18:5-7)

"**가장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아내 일도 풀린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 6:14)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6/11]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28-3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2-4)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길이 유일한 좋은 길이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 6:8)

[6/1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6/13]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6/14]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 물에 닿으면, 요단 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멘 사람들이 요단 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 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수 3:13-17, 새번역)

"**하나님만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살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꽃길이다."

"말씀의 언약궤를 메기 위해 **성결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의지하여 성결하자.**"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껏 인도하신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대미를 장식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6/1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4:25-5:11)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벧전 3:18)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사 43:5)

[6/16]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느 6:15)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시 142:3-7)

"**Nothing less than a miracle of God.**"

[6/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엡 1:3-7, 새번역)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33-38)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3-4)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오늘도 감당해야 할 믿음의 책임을 다하라.**”

“**환난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 4:6-9)

[6/18]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어려운 자를 돕고, 정의를 세우며,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도록**” (중보기도 받던 중 내게 주신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삼상 16:13)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많은 이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중보기도 받던 중 내게 주신 말씀)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하려 하기보단,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라.**” (중보기도 받던 중 내게 주신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단 12:3, 새번역)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신 10:20-21)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 46:10)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 131:1-3)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 118:8-9)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삼상 12:22-24)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3)

[6/20]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16-18)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 7:14)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사 46:9-10, 표준새번역)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로 돌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 31:14-16, 표준새번역)

[6/25]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벧전 1:12)

[6/26]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신 7:6-9, 표준새번역)

“**살아만 있으라.**”

[6/29]

“**죽지 마세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 12:2, 표준새번역)

[7/1]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 27:14)

“**서커스의 공중그네**에 비유해 이 중간 지대를 설명. **우리는 이미 그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반대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잡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 당장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2022 년 7 월 1 일 자 QT 해설 일부) (예전에 LG 상사에서 나오기 전에도 설교

때 이 서커스 공중그네 비유를 듣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해당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여러 경로로 하셨었음. 그때 퇴사가 올해 3/24 퇴사 이전까진 다음 직장이 정해진 게 없이 퇴사했던 유일한 퇴사였는데, 올해도 퇴사 이후에 아브라함 파송 관련된 동일한 창세기 말씀을 여러 번 주셨고, 위 서커스 예시도 다시 한번 보게 하심. 그리고 사실 올해 3/24 퇴사 직후에도 그렇고, 현재도 Offer 들어온 포지션이 있는데, 높은 연봉인 것도 좋고 워낙 여러 좋은 말로 강권하며 나를 오라고 해주시는 것은 좋으나, 솔직히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은 없고, 평안보다는 모험이라는 싱숭생숭한 마음만 있던 중이고, 그래도 이거라도 잡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음. 그럼에도 이번에 쉬면서 주신 말씀들도 쭉 다시 살펴보고, 그간의 삶을 인도해오신 추세선과 앞날에 대해 주신 소망들을 기준으로도 살펴보려고도 하며, 개인적 욕심이나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생각해 볼수록, 기도해 주는 아내와 부모님과도 상의해 보고 나의 Career 의 성장성과 미래를 놓고 합리적으로 차분히 따져보아도, 이 Offer 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더 드는 상황. 그리고 다 떠나서 기왕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오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를 구하기로 한 것인데,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게 명확하다고 느껴지는 Offer 가 올 때까진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7/2]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 28:9)

"힘들 때 **인간의 묘안보다 하나님의 묘안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내 인생을 내드릴 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2022 년 7 월 2 일 자 QT 해설 일부)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 12:5-11, 표준새번역)

"이름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후 6:9-10, 표준새번역)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8:9, 표준새번역)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갈 3:29, 표준새번역)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 11:8-10, 표준새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벧전 1:3-9, 새번역)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전 1:30-31)

[7/3]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므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이백 개와 건포도 뭉치 백 덩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 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므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하 16:1-4, 새번역) (**피난길에 있던 다윗이 거짓된 시바의 말과 뇌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받아들였다. 이날 우연히 듣게 된 온라인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이었음. 이날까지 위 7/1 에서 말한 Offer 에 대한 답을 하기로 했기에 더 놀라웠고 거절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 섰음.**)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 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삼하 16:11-14, 새번역) (**요근래 몇 차례 아내에게 내 요즘 느낌이 압살롬 반역에 따른 피난 길에 있는 다윗과 같은 느낌인데,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아내에게도 말했는데, 이날 우연히 듣게 된 온라인 설교 본문이었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7/4]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단 3:17-18, 현대인의 성경)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6-1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9-12)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눅 1:34-38)

[7/6]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14-16)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 31:19)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 31:24)

"**너의 앞날은 나의 손에 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살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7-9)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4-4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33)

[7/9]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 23:46)

[7/12]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삼상 30:6)

[7/17]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7/1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는 바로 그 순간, **1 분 1 초도 지체 없이, 곧장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7/22]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7/25]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 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 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사 44:1-8, 새번역)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 105:16-19)

[7/26]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사 48:17)

[7/27]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 49:6)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7/30]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5-7)

[7/31]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17-24)

"**다윗처럼 세우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후 목사님께 중보기도 받던 중 내게 주신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8/1]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만 시키신다.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큰 역사를 나타내신다. 믿음에 따른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 축복이고 특권이고 기회이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나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은 채 계속 듣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며,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땐 마음의 평안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부르실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 3:5-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1-3)

#

<근황 Update: 2022년 8월 16일>

다녔던 영국 고등학교에서 현재 해외 거주 중인 졸업생에게 글을 써 달라고, 다음 달 Alumni Magazine 에 수록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길래 쭉 써보았다.

Hello to the City of London Freemen's School and all the fellow Freemen and women who have had the privilege of spending part of their life at the Freemen's – which still remains one of the most-reminisced days of my life. This is Brian Kim, a South Korean national ("Hyun-Ki Kim" is my passport name), and as an alumnus of the Freemen's, this is a short writing about where I came from, where I am heading, and how the Freemen's played its crucial and valuable role in all of this.

I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as an only child until I alone moved to Leatherhead, Surrey for my GCSEs at St. John's School (Years 10 and 11), and then to Ashtead, Surrey (only a train-station away, as you would know) for my A-Levels at the Freemen's (Years 12 and 13, studying Politics, History, Economics, Maths, and General Studies). I was a boarder all along with my parents staying in Korea.

I knew even back then the life at the Freemen's was going to be one of the best times of my life, which is a rare thing in my life to know it right there and then, but I knew it then, and I now know it much more so, after having lived and been part of various places, universities, and companies in the UK, US, and Korea, since I left the School in 2007.

Please spare me a moment to call on the names I miss: Mr. Haywood (Headmaster), Mr. Lewis (Headteacher of Boys' Boarding House), Rev'd Rutherford (Chaplain), Mrs. Brooks (Tutor and Economics teacher), Mr. Bloor (Politics teacher), Mrs. Hobbs (Maths teacher), Mr. Retzlaff (Maths teacher), Ms. Joss (History teacher), Mr. Hearne (Head of Sixth Form), Mr. Hall (Head of Careers), and many more teachers and dear friends who were like gracious foster parents and cheerful and good neighbours to me. I vividly remember their faces, charm, wit, and warmth.

Back in School, I was honoured to have held a few offices such as Head of Boys' Boarding House, School Prefect, Chair of the Debating Society, and it was in January 2007, when I was given the following Bible passage to read out at the school chapel as a prefect (which was the first Upper School Assembly of that year):

> *"The Lord ha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So Abram went, as the Lord had told him; and Lot went with him. Abram was seventy-five years old when he set out from Harran."* (Genesis 12:1-4, NIV)

And indeed, just like the Bible passage above, I could not have known what the future held for me – but I only went. So in July 2007, I finished my A-Levels and moved on to the University of York in Yorkshire to read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B.A.). That sounds straightforward, except

all the rest that followed thereafter were not much expected back in 2007. (And even from the very first week of the University, there was no longer the intimate, family-like,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at I cherished and breathed back at School.)

In a short summary, my life after the Freemen's: Univ. of York → Korean Army serving as an enlisted soldier (national conscription) → Univ. of Iowa (U.S.) College of Law (J.D. degree) → licensed New York attorney → Lee & Ko (law firm in Seoul, Korea) → Samsung Bioepis legal team (law firm secondment) → LG International (trading house for LG group) legal team → SK hynix (semiconductor company) legal team → Genome & Company (bio-venture company) general counsel → SK bioscience (vaccine company) legal team → got married → Neowiz Holdings (holding company of a game company and other subsidiaries) general counsel → *and now*, working as a freelancer for a few companies, including SK bioscience overseas business team, and working as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 (involved in civic groups such as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ssociation*").

I really could not have foreseen what the future held for me back in 2007, except that I had the Lord's command of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which turned out to be a life-long journey to the land with many transits. It is as much about the journey in company with the Lord, as it is about the destination. To put it otherwise, it is a journey of faith and trust, and seems like it will remain that way, for I do not know of my exact days, let alone years, ahead; except that I think I have a sense of its broad trajectory and its ultimate destination – the heavenly home above.

For this incredible and unforeseen journey to date, the Freemen's had equipped me with the following: (i) keeping composure when faced with "come what may"; (ii) a deep sense of optimism, tranquility, and brightness (almost noble); (iii) faith in being kind-hearted and generous; and (iv) sense of safety and security under the School's pronounced faith in "*Domine, Dirige Nos*". The bright and sunny days at the Freemen's have imbued and formed my identity, culture, and being with such qualities; for which I am grateful and will endeavour not to lose it.

I do not want this "short writing" to be too long, for a good Freemen would know when to stop. I really enjoyed writing this piece as it provided me a space to look back on the days at the School with a smile. As a final remark, I say to you all what I learned from you: "Keep calm and carry on"; "Keep your chin up";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carry on the struggle, until, in God's good time, the New World, with all its power and might, steps forth to the rescue and the liberation of the old"; and "Never give in, never, never, never – never give in except to convictions of honour and good sense". Thank you and miss you, dear Freemen's. "*Domine, dirige nos*".

#

<근황 Update: 2022년 12월 13일>

혈당 측정기 등 의료기기(medical device)를 연구개발, 생산하고 상업화하는(110 여 개 국가에 수출; 지난 11 년 연속 매출 성장; 매출의 80 프로 이상이 미국 등 수출에서 나오는; 자산총액과 시가총액 각각 4,500 억 원 이상의 알토란 같은 기업) '(주)아이센스'라는 회사의 법무팀으로,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다음 주 월요일(12/26)부터 출근하게 됐다.

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포지션 오퍼와 아이센스 중에 고민하다가 아이센스로 가기로 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해외사업실에서는 계속 남을 것을 제안 주셔서 감사하지만, 풀타임으로 남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나의 대체 변호사를 뽑으실 수 있도록 구인 공고도 직접 써 드리고, 서류 지원자들 1 차 인터뷰도 interviewer 로서 같이 봐드리고 했다(그랬음에도 생각보다 구인이 어려워, 다시 서류 접수부터 하고 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SK 에서 프리랜서 하면서도 다른 곳 인터뷰 보면, 보러 간다, 지금 풀타임 구직 중이고 진행 상황이 어떻다 등 그냥 다 투명하게 말씀드려 왔기에, SK 입장에서 서프라이즈는 없고, 아이센스나 로펌 1 차, 2 차 인터뷰 합격 통보 직후마다 바로 말씀은 드렸으나, 그래도 내 입장에선 마음이 전혀 안 쓰일 수는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꽤나 free 하던 프리랜서 삶도 이제 마무리인 것. (지난 6 월쯤엔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NGO 에서 연구원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도 했었으나, 떨어졌었다.)

올해 3 월 말 경, 게임 회사와 디지털 코인 회사를 자회사들로 가진 지주회사 법무담당 직을(코인 자회사의 법무담당 및 사업기획 역할도 겸직) 양심상 급작스레 한 달 만에 퇴사한 직후부터 약 80 일 정도는 기도원과 교회에서 살았다(지주회사 인터뷰 땐 자회사 겸직 얘기가 없었을뿐더러, 코인 사업도 서서히 개발하려던 게 입사하니 급물살의 기조로 바뀌었는데,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는 떳떳한 사업이 아니어서 고민과 기도 끝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퇴사했다).

지주회사 퇴사 직후, 이전에 다니던 직장 중 하나에서 바로 재입사 오퍼 주신 감사한 곳도 있었으나, 좀 쉬면서 인생도 돌아보고, 앞날도 차분히 생각해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었다.

그때부터 교회와 기도원에서 거의 살던 '찐 행복'의 80 여일이 있었고, 그 후엔 이런저런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교회와 기도원, 그리고 북한인권 활동과 선교 활동 위주로 지내 온, 아주아주 행복한 삶이다. 통상 주 3 일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주 4 일은 교회, 기도원, 북한인권 활동, 선교 활동, 휴식을 했다. (올해 기도원에서 드린 예배만 해도 100 회가 족히 넘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사귐에 집중할 수 있는 호시절, 행복의 계절이었다.)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친히 양육자 돼주셔서, 오히려 풀타임으로 일했던 작년 한 해보다 결론적으로는 올 한 해가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풍성한 한 해였다.

변호사가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2015 년 이후*, 만 7 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년 같은 올 한 해였던 것(*법무법인 광장(Samsung 바이오에피스 파견 포함) → LG 상사 → SK 하이닉스 → 코스닥 상장된 바이오벤처 법무실장 → SK 바이오사이언스 법무팀 → 상장된 지주회사 법무담당(자회사

법무/사업기획 겸직) → 그리고 올 3 월 말부터의 안식 겸 프리랜서(SK 바이오사이언스 해외사업실 프리랜서 포함)).

하나님께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린다. 올해는 나에게 너무 큰 선물이었고, 이번에 가게 된 아이센스에서도 큰 배려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 같다. 특히 아이센스 오퍼 수락을 결정해야 했던 날의『생명의 삶』큐티 본문이 아래 구절이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들었고, 감사함으로 수락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전 2:24-26, 새번역)

나의 앞으로의 여생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많은 사랑의 추억과 낭만을 쌓는 일생이길 기도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 100:3-5)

#
<근황 Update: 2023년 8월 4일>

저는 오는 8 월 31 일까지 현 직장 아이센스를 다니고, 9 월 1 일* 자로 CTS 라는 기독교 방송국 사내변호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노량진에 위치). (*계획과 달리 급성 담낭염으로 인하여 8 월 30 일 담낭 제거 수술을 하게 되어 9 월 11 일 입사하게 됨.)

한국교회 40 여 교단의 출자로 세워지고 해당 교단들이 주주로 있는 국내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국이자, 유일한 한국교회 연합 방송국입니다. 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퇴직 메일(8 월 1 일)과 당일 저녁의 후속 메시지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메일 (8/1)]

대표님, 팀장님, 안녕하세요? 법무팀 김현기 변호사입니다. 두 분 다 해외 출장 중이시라, 이렇게 메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지난 한 주 간(7.22-7.30) 교회에서 떠났던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변기설치, 건축사역, 스포츠사역, 어린이사역, 의료사역, 인형극, 워십댄스 등의 사역을 여러 마을과 시장 광장, 우물가, 농구장, 들판, 해변, 논밭, 공항 등에서 하며, 대략 300 여 명 이상의 현지 주민분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들과 함께 축복/영접기도를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열매가 풍성한 선교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9 월 1 일(금) 자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선교에서 돌아온 직후인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최대한 빠른 오늘 오전에 이렇게 메일로 먼저 공유드립니다. 자사 취업규칙 제 67 조의 1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퇴직원 제출 후 30 일 경과 된 경우" 당연퇴직이 되기에, 본 메일로써 퇴직원을 제출드리며, 8 월 31 일(목)까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센스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참 좋은 회사였습니다.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 하여, 새로 가게 된 회사는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비록 연봉은 많이 낮아지지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란 사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자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드림

[퇴직원 제출 당일 저녁 대표님께 드린 메시지]

대표님, 오늘 3 시간가량을 할애해 주시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해외 출장에서 복귀하시자마자 저 하나 퇴사한다고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 주신 사실만으로도 제게 큰 격려와 영광입니다.

집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 주신 '~~~면 남을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센스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아이센스에 대해서는 오전에 메일에도 썼듯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 시점에는 기독교 방송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 이번에는 이직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얼른 말씀 드려놓는 것이 어떤 오해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도 좋을 거 같아, 이렇게 저녁 시간에 메시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과 감사한 제안도 감사드리며, 평생 살면서 대표님께 대한 감사한 기억이 항상 남아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팀장님께 후속 메일(8/3)]

팀장님, 메일 감사드립니다.

퇴직원 제출했던 화요일 오후에 대표님과도 장시간 면담 나누며, 그간 팀장님께서 저에 대해 과분한 좋은 말씀과 평가도 여러 차례 해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게 많은 부분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던 아이센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 삶의 시점에선 기독교 방송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비록 연봉도 처우도 많이 낮아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표님께도 제 입장에서 아이센스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그 반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떠나기 아까운 보직이고 회사이지만), '가야 해서 가게 되는' 순종의 마음으로 이직하는 것이라, 대표님의 귀한 말씀과 시간도 감사히 영광으로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럼에도 결국은 가는 게 맞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저에게 참 귀한 회사였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좋게 기억될 회사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계속 아이센스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김현기 드림

===

변호사가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2015 년 6 월 이후:
법무법인 광장(Samsung 바이오에피스 파견 포함) → LG 상사 → SK 하이닉스 → 코스닥 상장된 바이오벤처(지놈앤컴퍼니) 법무실장 → SK 바이오사이언스 법무팀 → 상장된 지주회사(네오위즈홀딩스) 법무담당(자회사 법무/사업기획 겸직)
→ 2022 년 3 월 말부터의 안식 겸 프리랜서(SK 바이오사이언스 해외사업실 법률자문 프리랜서 및 북한인권 활동 포함)
→ 2022 년 12 월부터 아이센스 법무팀(법무파트 파트장)
→ 2023 년 9 월부터는 CTS 기독교 TV(전사 법무담당 1 인 사내변호사 및 경영전략실 소속).

나의 앞으로의 여생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많은 사랑의 추억과 낭만을 쌓는 일생이길 기도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 100:3-5)

#

<예수제자학교(JDS) 기간 동안 변화된 나의 삶과 JDS 이후 비전, 2023년 9월 14일 발표>

1. 기도(더 커진 "주여~", 더 깊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앞으로도 더욱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며, 예수의 품에 더욱 깊이 의지하여, 예수의 품에서 누워지내는 아들이요, 제자이길. 아멘.

2. 가정예배(더 깊어진 예배)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1-13)
→ 앞으로도 더욱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가정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가정예배가 되길. 성령님의 지도 편달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따르는 걸 배우고 체화 하는 가정예배 되길. 아멘.

3. 담낭(쓸개) 제거(과식 금지, 빨리 먹는 것 금지)
-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시 131:1-2)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 앞으로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마음의 쉼을 얻는 일생이길. 아멘.

4. 이직(내 수준에서의 "공생애" 시작 느낌, 그동안은 내가 속한 직종에서의 업무 확장과 성장이 주된 비중이었다면, 이번 이직부터(아이센스 → CTS 기독교 TV, 연봉은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이직) 앞으로의 삶은 더욱 본격적으로 소명이 이끄는 '공생애'의 시작과 같은 느낌이 있음. 특별히 "한국선교사",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통치 안에서 통일"과 같은 키워드들이 주님 안에서 옛적부터 키워온 소망이자 소명인데, 조금 더 다가가는 느낌이라 감사한 이직. 하나님께 더욱 본격적으로 헌신하고 쓰임 받는 삶으로 인도 받을 거 같다는 느낌. 그 무엇이든, 어떤 길이든,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여생이길.)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4-26)
-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 앞으로도 더욱 삶을 다하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시선이 있길. 예수님이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길. 아멘.

5. 이사(양가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던 곳을 떠나게 됨)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
-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막 10:6-9)
→ 새로운 터전에서 더욱더 가정예배가 부흥하고 많은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처소가 되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회복과 위로, 사랑의 권면과 성장이 있는 귀한 예배 처소가 되길. 아멘.

6. 새 생명 사랑이(김남(南)율(燏))
-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 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 4:12, 현대인의 성경)
-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눅 1:15)
-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눅 2:22-23)
→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고,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 하겠지만(요 21:25), 그럼에도 남율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열심히 쓰고 전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요 20:31) 하며, 많은 이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남율이 일생이 되길. 아멘.

#
<주님의 말씀 경청과 청종 노력 기록: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22/11/12] (온누리교회 푸른누리 공동체 영성집회 ‘충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행 13:5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 12:1-5)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삼상 16:12-13)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2:2-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 30:6-20)

['23/4/8]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 기 양재저녁반 ‘아버지의 마음’ 수업 개인별 대언기도 중 나에 대한 대언기도 받아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날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거면 됐다. 대단한 삶, 엄청난 인생,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난 한 번도 너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 적이 없다. 언제나 넌 나의 기쁨이니라.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곤고한 중에 용서하였으며, 나의 사랑으로 섬겼음이라. 믿음으로 걸었노라. 잘했다 아들아.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을 것이요, 나의 눈물이 너의 눈물이 될 것임이라. 너가 많은 사람들을 나의 마음으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곤고한 자를 안아주며, 살리는 자가 될 것이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만 찾았으니까. 주께서 아들의 가난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 삶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실거야.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영원한 보상이 되실 겁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고백대로 될 것이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유업이요, 내가**

너의 보상이요, 내가 너의 기쁨이요, 모든 것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입니다. 돈, 명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 그것으로 넘쳐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삶. 많은 사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 별명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적이라는 걸 아시게 해주실 거에요. 기적으로, 기적으로 넘치는 삶. 예수 믿는 삶은 기적의 삶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23/7/1]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 기 양재저녁반 애찬(愛餐)식에서 간사님들이 기도 후 학생별로 작성하여 나눠준 말씀카드 중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23/7/14] (2024 서울 제 4 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 (송도 컨벤시아))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Will you go with me?" 나는 대답했다. "Yes I will."

['23/10/18]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후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의 사랑하는 아들 현기야 너도 나를 사랑한다."
"너의 평생과 남율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23/10/21]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후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는 나에게 안겨만 있거라. 지금처럼 나에게 안겨만 있거라."

['23/11/5] (주일예배 후 저녁에 집에서 기도 하던 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with my loving eye on you.**") (시 32:8, NIV)

['23/11/6] (저녁에 가정예배 후 집에서 기도 하던 중)

"네 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기도 중 떠오른 장면) 예수님과 남자 어린아이 둘이 드넓은 하얀 백사장의 투명한 얕은 바다 위를 맑은 날씨에 손잡고 동행하는 장면. 잔잔하고 그윽한 기쁨과 평안. 사랑.

['23/11/7] (회사 아침 사내 예배 본문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오늘 일어날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이라는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길." (설교 말씀)

11/9(목), CTS 에 퇴사 Notice 를 냈다. 법무 총책임자 입장에서 공익적 제보/신고 또는 퇴사 중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퇴사 시점까지 상세히 여러 차례 무엇이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인가를 경영진께 보고에 보고를 드리고 또 드렸지만, 속히 치유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했다.)

['23/11/11] (JDS 졸업 후 애찬(愛餐) 예배로 졸업생 중 총 8명(나 포함)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애찬 후 요한복음 11:1-45 말씀 묵상 및 돌아가며 묵상 나눔 후 기도; 그 후 돌아가며 졸업 후 근황과 기도 제목 나누고 다 같이 중보기도 후 각자 뽑은 말씀 카드 중 내가 뽑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 91:14)

['23/11/12] (주일예배 기도 때 주신 말씀 (주일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28:12-22))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나의 은총을 받은 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계획을 다 이룰 것이다."

['23/11/15] (회사 화장실에서 주신 말씀(신명기) 및 양재 온누리교회 저녁 수요예배 때 기도 중 주신 말씀(시편))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 1:31)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 32:5-8)

['23/11/17] (출근길 차안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새벽예배 말씀 본문)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눅 8:49-50)

[’23/11/18]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간식 패키지에 들어있던 말씀카드(시편 16:3) 및 장로님 대표기도 때 인용하신 구절(사 43:19))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 16:2-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23/11/19]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강부호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설교 - 창세기 32:22-32 본문) 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절)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강부호 목사님 말씀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사는 야곱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재훈 목사님 말씀

‘(요즘 큐티 본문 잠언의 권면대로) 진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단기간 내 깨닫게 하신 내용을 현 직장 CTS 에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퇴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단, 보험성으로 전 직장에 복귀를 얘기해 보려 한 것은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신명기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신 32:9-14)

CTS 에서는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있어도 좋다고 하셨으나, 하나님께선 시킨 말 다 전했으면, 지체 없이 떠나라고 부담을 주시며 떠오르게 하신 말씀으로 이 열왕기상 구절을 부사장님께도 공유하며 퇴사를 미루는 것은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드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벧엘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상 13:8-10)

['23/11/20] (집에서 저녁에 로마서 묵상 후 기도하던 중 특별히 와닿게 하신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17-25)

['23/11/24] (CTS 퇴사하던 마지막 출근 날, 직장 내 '공동체성경읽기' 순서에 따른 이날의 봉독 본문 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왕하 4:1-7)

마침, 이 주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때 목사님 설교와 이날 아침 출근길에 들었던 영국 한 목사님 설교에서도 '1 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던 조지 뮬러(George Müller)의 고아원 빈 그릇을 채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화를 각 설교에서 듣게 된 한 주였는데, 이날 '공동체성경읽기' 본문도 위와 같았다. 조지 뮬러는 그 누구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했다는 간증을 우연히 전혀 다른 두 목사님을 통해 두 번이나 듣게 된 한 주였던 것이다.

['23/12/10] (양재 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님 주일예배 설교 중)

설교 본문: 창세기 39:1-6, 19-23

설교 내용 중: "'나는 내가 있게 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함을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형통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올리기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내가 눈 뜨고 찾았다면 엉뚱한 데로 내가 지원하고 갈지 몰라요.** 그러나 옥에 있었으니 바깥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애굽 군대의 높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지원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처하던 곳에서 형통하심이 보여지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다음 사람이 그다음 자리로 그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12/11] (집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중 특별히 와닿게 하신 말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 9:17-19)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 67:1-5)

['23/12/12]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전 11 시예배 중)

설교 본문: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왕상 17:1-9)

설교 내용 중: "왕 되는 방법은 아버지가 왕이어서 피를 이어 받거나 아니면 피를 흘려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는 것인데, 이에 예외로 다윗이 왕이 될 때, 선대 왕 사울 왕은 다윗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갖다 놓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것이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적재적소에서 사용되도록 저를 그 자리에 갖다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잘 사용될 곳에 저를 갖다 놓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23/12/22] (CTS 퇴사 후 지원했던 회사 중 가장 가고 싶던 회사에서 보내온 서류 전형 탈락 메일 내용 중 그리고 조금 허탈이 CGN 기독교 방송을 켜서 보며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첫 성경구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며 보던 중 따옴표로 나온 첫 구절)

"귀하께서 원하던 결과를 알려 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도전으로 소기의 **큰 꿈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23/12/23] (JDS 졸업 후 애찬 예배로 졸업생 중 총 8명(나 포함)을 지혜 자매님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애찬 후 고린도전서 12:12-31 말씀 묵상 및 돌아가며 묵상 및 근황 나눔 후 기도; 애찬 때 각자 뽑은 말씀 카드 중 내가 뽑은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11)

이날 아침 마침 쓰던 스킨이 다 떨어졌었는데, 애찬 때 제비뽑기로 뽑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스킨을 받게도 됐다.

['23/12/24] (양재 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님 주일예배 설교 중)

'사람이 자신의 외교력, 욕심, 계획 등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라는 취지의 설교 말씀(이사야 7장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며):

"왕 아하스의 문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나라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혹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답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깐 당연히 어떤 태도로 넘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취했습니까? 더 큰 나라 앗수르 그 강대국을 의지하여 외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실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대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 지금 표적이라도 구해라.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드러내 주시니까.** 너 표적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 종종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의 연약할 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일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봐 기도하지 못할 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기도하면 명확하게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설교 중 인용하셨던 이사야 구절 중 하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 7:9)

CTS 이전 직장에서 나의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해 두 번이나 전형을 열어 진행했으나 아직 뽑지 못하고, 다시 또 서류 전형부터 새로 진행 중이란 소식을 알게 되었으나(동일 포지션 전형으로 세 번째 재진행 중), 지금이라도 전 직장에 복귀를 얘기해 보려는 마음은 역시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

['23/12/25]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2023 년 12 월 25 일 자 QT 해설 일부 및 이날 잠깐 CGN 기독교 방송을 켰을 때 바로 나온 로마서 4 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본문으로 이는 이틀 전 애찬 예배 때 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며 내가 인용했던 구절이다)

"**성도의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바로 성취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도가니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됩니다.** 기다림의 길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길에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사건에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롬 4:19-22)

['23/12/27]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 기도 시간 중 기도 인도하시던 강부호 목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고 참된 행복이 있겠는가 유명 축구 선수가 된다고 참된 만족이 있겠는가"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나는 이제 사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살면서 신학교 지원 및 목회자 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 여쭈었으나 명확히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젠 ‘혹시 정치 쪽으로 길이 열릴까?’를 생각하는 시기였기에, 목사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놀라서, 하나님께 정말 다 내려놓고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길 원하오니 말씀해달라고 했다. 일단 신학교를 지원해 보는 게 이제는 맞을지를 포함해서 나의 진로에 대한 대략적 가닥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고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란 믿음이 생겨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렸다. ‘이제부터 눈을 감고 성경 아무 곳이나 펼쳐서 펼쳐진 성경 본문 중 한 곳을 검지로 가리킨 뒤 눈을 떠서 보겠다. 이렇게 세 번을 해보겠다. 세 번 다 개연성 있는 연관된 말씀을 주셔서 갈 길의 향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안 드렸다. 만약 세 번 가리킨 말씀이 서로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거나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면, 그냥 이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제안을 드린 뒤,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 시간 중 나도 계속 기도하며 세 번 연속하여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쳐져지는 대로 펼쳤고, 손가락이 편히 가는 곳에 가서 검지로 지목한 뒤 눈을 뜨고 해당 구절들을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세 구절이 나왔고, 놀랍게도 내 손은 세 번 다 아래 구절들 내에서도 세 번 연속하여 딱 가리키고 있었다. 이로써 우선 신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도 또다시 얻게 됐다. 너무 신기하여 예배 마치고 이 사건을 아내에게도 얘기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무척, 매우 감사했고 감격적이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고, 아멘으로 주신 말씀들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3 일 전 주일 예배 때 강부호 목사님께서 이사야 7 장을 풀어주시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여쭈어라’라는 설교도 하셨었다. 참고로 온누리교회는 “우리말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쓰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받은 우리말성경을 가지고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린다. 첨언하자면, 궁극적으로 인생 말년에는 통일 한국 전역을 다니며 마음껏, 목청껏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하며, 전도 집회를 여러 교회와 장소에서 하여, 많은 이들을 주 예수님께,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비량 복음전도자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고, 그날들을 위해 준비돼 가는 과정 중에 현재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도 가능한 매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나 아웃리치(단기선교·봉사) 기회마다, 또 주변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도해오고 있다.)

특별히 위 세 왕이, 다윗, 느부갓네살, 히스기야인 것을 보고, 이 왕들과 다음 구절들도 함께 마음에 바로 떠올랐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행 13:21-23)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단 3:28-30)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단 4:1-37)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왕하 18:5-8)

['23/12/29(금)]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금요철야 예배 설교 제목, 본문, 내용 중 그리고 이날 Instagram 및 CGN 기독교 방송에서 보게 된 성경 구절과 말씀들)

금요철야 예배 설교 제목: "가만히 있으라"

설교 말씀 성경 본문: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46:10-11)
설교 내용 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이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분주하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행위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 지쳐 나가떨어지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발목을 묶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멈출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Instagram 에서 본 성경구절: "**When the time is right, I, the Lord, will make it happen.**" (Isaiah 60: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 60:22)

CGN 기독교 방송 Instagram 계정(@cgn_korea)의 'reels'에 뜬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내가 찍은 쉼표에 하나님이 더하실 마침표를 기대하세요."

['23/12/30] (양재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설교 말씀 성경 본문)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 16:23-31)

['24/1/1] (양재 온누리교회 신년예배 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교회친구다모여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2024 년 온누리교회 표어)

신년예배 설교 본문 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24/1/3]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 19:11, 양재 온누리교회 오전 수요예배 때 뽑은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 3:7-12,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설교 본문 중)

2024 년 키워드: 겸손, 섬김, 온유, 용서, 용납,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24/1/7]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행 1:4-8, 우리말성경,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설교본문)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룻 3:18, 우리말성경, 양재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 예배 설교 중 인용하신 구절)

[‘24/1/10]

새벽에 예수님이 내 꿈에 나오셨다. 오전 9 시 산부인과에서 아내에게 급히 오라는 긴급 연락이 있었고, 이날 오후 제왕절개로 예정일보다 3-4 주 정도 일찍 아들 남율이가 태어나게 됐다. 아들을 보는 데 계속 눈물이 흐르고 감격스러웠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율이 탄생을 축하해 주시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공유했다.

“무궁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남율이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 받는 아들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 남율이를 온전히 의탁하고 헌납하오며,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원한 주님이요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헌납 드립니다. 아멘.”

['24/1/11]

남율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기도와 남율이 의탁 기도를 드렸다.

빈 그릇을 계속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나가는 날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당일 오전에 갑자기 재정을 채워주시면 1, 2 시간 뒤 이런 비용들이 계좌이체 되는 경험을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삿 7:13-18,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설교 본문)

"하나님 앞에 무기력과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저하고 회피하고 도망 다닌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부르셔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린 평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더 큰 자이다. 너를 통해서 더 큰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용사이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필요나 채우고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 숨어서 타작하는 옛 기드온의 모습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문제도 많고, 우리 안에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골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리고 있는 스스로의 평가를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보셔야 합니다. **보리빵 같은 인생을 들어 위대한 여호와의 칼날이 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설교 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사 41:10-15, 오늘 새벽예배 포함, 요즘 자주 보게 되는 이사야 41 장 구절들)

[’24/1/19]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 10:12-13, 성경 앱(You Version Bible App)에서 ‘오늘의 구절’로 뜬 구절로,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길을 의뢰’하는 것이 죄임을 또다시 깨달았다. 전전 직장(CTS 이전 직장인 아이센스) 같은 팀이었던 직원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내가 현재 쉬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내 대체를 못 뽑은 상태라고 다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어제 연락이 와서 또 좀 싱숭생숭해하고 있었던 때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이 강조해야 할 것은 뭐냐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내가 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수정에 관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맨날 남 탓하고 남을 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는데 오늘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믿을 거냐? 일부분 믿을 거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을 거냐 내게 필요한 만큼만 믿을 거냐. 아니요. 그 존재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산 같은 거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전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신학교에 가게 됐고, 꼭 신학교를 안 가도 예수님 전할 길이 많이 있어요. 뭐 계산하고 결정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망대 계산이 되겠습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 아무리 설명해 봐도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열어 주시고 가게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보화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이 산술적 자연적 세상의 계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망대 위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틀릴 수 없다… 십자가를 지나가는, 에고(ego)의 죽음이 어려운 거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을 믿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두려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은 열매가 뭐가 달리겠습니까? 십자가 불편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이거는 해방이에요. 죽음은요 해방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영적인 소생… 그래서 **여러분 비용 계산 잘 안되면요 ‘그냥 난 끝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다.’ 가다 보면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고, 가다 보면 또 나를 또 세워 주시고, 또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근데 왜 안 가겠습니까? 가는 거지. **이런다고 포기하고, 저런다고 말고, 이런다고 뒤집히고, 저런다고 버리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매일매일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는 세상의 한 3 분의 1 분만 주세요. 예수님이 한 3 분의 2 가지세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전부를 드리세요. 여러분, 전부를 받으려면 전부가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받기 위해서 전부를 드린다. 그게 전적 굴복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자기를 다 드렸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 쓰시기 편해요. 말랑말랑. 그래서 여러분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노예예요. 항복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거는 못 하고 저거는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저에게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모든 것,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부어지겠습니까. 부어지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전적인 헌신." (주와그리스도 교회 김대진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예수님의 제자"(본문: 눅 14:25-30) 중)

['24/1/21]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 2:1-4, 우리말성경,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설교본문, 예배 마치고 계속 남아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흐르며 방언으로, 말로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를 크게 부르며 외치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 받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싶다고 기도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한 통로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다. 아멘.)

['24/1/26]

오늘 꿈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며 일을 시작했는데, 나의 아빠 차를 편히 타고 가서 그 일하는 곳 내 자리 바로 앞까지 가서 내리는 꿈이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말성경 버전으로 보게 된 첫 성경 구절: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시 128:2, 우리말성경)

['24/1/30]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시 89:24-26)

['24/2/10]

구정 설 가정예배를 부모님도 함께 드리고, 다 같이 '올해의 말씀'을 뽑았다. 그리고 내가 뽑은 구절은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2, 교회친구다모여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올해 초 뽑은 말씀들도(요 13:14, 잠 19:11)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셨듯, 나도 이웃의 발을 씻기고, 노하기를 더디 하며, 허물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말과 지혜대로, 그 사랑대로, 그 안에서 자라가며, 이웃을 온전히, 순전히 섬기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한 해가 되라고 재차 말씀하시는 거 같다. 일단 올 초부터 지금까지 말씀 적용의 실천으로는, 만삭의 아내 보필 및 출산 보필(병원과 조리원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며 아내 수발들기), 신생아 육아(수유, 트림, 기저귀, 목욕, 안아주기, 대화하기, 놀아주기, 배와 팔다리, 손발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기, 손톱 깎아주기, 많은 사랑 표현, 함께 가정예배드리기, 찬양 불러주기, 성경 말씀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기, 초점 책 보기, 잠재워주기, 아내 기분과 컨디션 챙기기, 함께 데이트하기, 아내와 아기 병원 통근 등등)와 살림(요리, 밥 차리기, 설거지,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임산부와 신생아 관련 행정 업무 등등)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고 있고, 틈틈이 손목과 어깨, 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 (조리원에서부터 아기 잘 본다는 칭찬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다.)

[‘24/2/11]

“주님!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제 삶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다시 살피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 기대와 달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소서.** 보잘것없는 제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져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두란노서원,『생명의 삶』2024 년 2 월 11 일 자 QT ‘오늘의 기도’)

[‘24/2/18]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김남율* ‘신생아축복기도’ 강부호 목사님 축도:
*(金(성씨 김), 南(남녘 남), 燏(빛날 율, 불빛 율, radiance of fire, blaze)

“오늘은 두 명의 신생아가 있습니다. 남율이는 “남쪽의 성령의 불”. ‘율’자에 ‘불’ 뜻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김남율.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부모님의 기대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분위기 자체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이 자녀가 그런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정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2/21]

2 년 전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깐 연락했던 헤드헌터로부터 이틀 전에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와서는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양재 온누리교회 다니시냐며 연락이 왔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며, 반갑다고 하면서, 자기가 요즘에 은혜받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 나눔 및 기도라며 대뜸 YouTube 링크를 보내줬는데, “사명”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구나 하고 들어보았다.

그리고 어제 집 앞 교회(장로교)에서 저녁 중보기도회가 있다고 하여 처음 이 교회 기도회를 가보았는데(원래 매주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다), **“사명”에 대한 기도를 기도회 시작부터 인도자가 시키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다(이 교회 담임목사님의 사모님이 어제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한 위에서 말한 YouTube 영상 “사명”에 대한 말씀 나눔 및 기도를 하신 분이기도 했다). 약 2 시간 동안 쉼 없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기도회였다. 특히 다 같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북한주민, 탈북민, 북한 지하교회, 곧 있을 총선, 복음 통일 등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뤄지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임하길 기도할 때 참 뜨겁고 좋았다.** 처음 기도회 장소에 들어갔을 땐, 자기들 교회를 처음 와보는 사람이 소규모로 모이는 주중 중보기도회부터 온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 했는데, 나는 양재 온누리교회를 9 년째 섬기고 있고(그전엔 분당/수지 지구촌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섬기었고) 여기서 도보 3 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별다른 경계심 없이 공개적으로 환대해 주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내용 중(‘묵상에세이’ 부분 – 강산,『누가복음 풀어쓴 성경』, 하온)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사명이 되면, 그 외의 작은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물질과 명성, 육신의 안전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연히 다른 곳들에서 중복으로 듣게 된 야베스에 대한 구절이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대상 4:10). 이 또한 아멘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의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아와 살림 외에 다른 사명도 곧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과 생각이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시는 지경 내에 편만이 임하게 되길 기도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녁,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전하신 분이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이란 곳의 한국지부 대표님이셨고, 세계 각지에서 인신매매와 노예제도가 일어나는 곳에 정의가 세워지길 위해 노력하는 국제 NGO 단체였다. 나는 듣는 내내 북한주민과 탈북민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나의 가슴을 절박하게 뛰게 하고, 나의 애끓는 애통함과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일평생 포기되지 않는 강렬한 소원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 복음화, 북한지역 신앙의 자유, 복음 통일,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주도적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 은혜와 공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 대한민국에 편만이 임하는 것에 있음을 새삼 다시 느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계속 나를 향하신 Mission, 사명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같다. 말씀 이후 강부호 목사님의 기도 인도로 이어진 기도 시간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다음 누가복음과 이사야서 구절들이 특별히 와닿았고, 이중 누가복음 4 장 18-19 절 말씀은 오늘 교회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간 내 책상 위 액자에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영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 방 내 책상 앞에 늘 붙여놓았던 구절이기도 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6-7)

그리고 IJM 대표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언급하신 아래 창세기 말씀도 와닿았다.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 37:19)

[’24/2/27]

지난주에도 갔던 집 앞 교회 화요 저녁 중보기도 모임을 오늘도 다녀왔고, **오늘도 다 같이 회개기도 하고, 한국교회, 대한민국, 북한주민, 탈북민, 북한 지하교회, 곧 있을 총선, 복음 통일 등을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공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도록 길게 기도했는데 참 좋았다.** 그리고 집에 와서 태어난 지 48 일째 된 남율이를 수유하며 YouTube 알고리즘에 뜬 POD Church 원유경 목사님(온누리교회 섬기시던 목사님) 설교 “쓰임 받는 삶의 핵심, 무용지용: 쓸모없을 때 도리어 크게 쓰인다”(2024/2/25)가 떠서 틀어놓고 들으며 수유를 했는데, 설교 본문구절 및 아래와 같은 설교 말씀들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2-10)

"여러분 혹시 모세만큼 '내 인생 망했다' 싶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광야에서 80 세 초라한 노인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이 엄청난 회한과 실패감과 자괴감과 그 외로움을 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시 이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잊혀진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이 축 처진 어깨를 한 초라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거든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 그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무용(無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무엇 하나 자신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삶에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아직 나의 자격, 출신, 능력, 자질 등이 꽤 괜찮고 합당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무언가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세요. **그렇게 비워진 이 영혼의 빈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 때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유용하고 요긴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인생의 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쓰심이 있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름 아닌 모세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는 이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자신이 결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자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이 부르심을 극구 사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이 이 부르심을 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곱 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제 초라한 현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산후조리 하잖아요. **어제 제가 잠을 세 시간 잤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맡겨진 이 책임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를 부르실 거면 우는 애부터 좀 재워 주시고 부르시던가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심적 방황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초라한 내 인생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질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자질이다. 너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권위가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권위를 부여하겠고, 너의 언변이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가르치리라. 자격의 문제라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위임했고, 과거가 문제라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그들 중에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부족을 느끼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끙끙거리고 움츠러드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억하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충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족한 자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오늘 이 영적인 가시떨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앞에서 능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르심의 삶을 이해하는 네 번째 원리는 **'이제 모두 그분께 양도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나의 길은 너의 논리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의 부름은 너의 머리로 응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 완성되고 그 믿음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확인된 방법이나 누군가의 명쾌한 과정이나 뚜렷한 원인들을, 방법들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생각대로의 성공, 내 예측 대로의 결과, 내 기대만큼의 호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자취는 믿음의 걸음이 되고, 끝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완수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뱀의 사건을 통해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과 지팡이 이적을 통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상식을 거슬러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뱀은 모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애굽이 더 이상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요. 끝내 이 부르심 앞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킨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탁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광야의 40 년에 실패한 도망자로서의 삶, 모세 자신의 초라한 인생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그것이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의미와 기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임재와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 성경은 이후에 모든 기록에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며 부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가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여전히 여러분의 존재는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와 같이,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자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초라한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름과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여러분 자신은 더 이상 이전에 여러분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가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해 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능력 있게 기쁨으로 응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2/28]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24/3/2]

CTS 이전 직장인 아이센스에서 나의 대체 인력을 뽑기 위해 지금까지 다섯 번째나 다시 전형을 열어 진행하고 있고(아이센스 법무팀 동료들로부터 듣기로는 내가 CTS 로 이직한 작년 9 월부터 지금까지도

아이센스 법무 내부적으로 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내일이 서류 지원 마감인데, 작년에 나간다고 할 때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도 있고, 이제는 부모님조차 웬만하면 다시 아이센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이번 주에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지 50 일도 넘었고 다른 회사들 지원했던 것들도 다 탈락만 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전 직장 아이센스에 복귀를 얘기해 보아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또다시 이 마음은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하는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내용이 있었다('묵상에세이' 부분 – 조성헌,『신앙에 기쁨이 있기를』, 두란노):

"급기야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 같은, 피 마르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빚을 내서 구멍을 막아 보려 했는데, 문득 성령께서 마음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3 억 원의 적자를 채우고도 6 천만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을 붙잡고 있으니 안심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자기 힘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 큐티 성경본문(시편 43 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었고, 이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3:3-5).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본 글<근황 Update>에 계속 써내려오고 있는 지난 몇 년간 주셨던 말씀들을 다 다시 한번 쭉 보고 난 뒤 '성령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할 때 주신 음성: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라."**

['24/3/3]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과 본문 해설 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 44:3-8)

"과거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들의 무기와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손으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주님 손'이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보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민족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이 이룬 승리였습니다(3 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은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무기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무기와 지혜로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주님 손'으로 원수들을 이긴 것처럼, 자신들도 '주님 이름으로' 원수들을 이겼다고 고백합니다(5 절). 시편 기자가 속한 공동체는 승리한 후에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싸움터로 나오지만, 성도는 다윗처럼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삼상 17:45). **'주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는 원수를 이깁니다.**"

['24/3/4]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목사님 설교에서 언급하신, 내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행 23:1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 81:10)

오늘 3 시 예배 설교자 목사님으로 오신 산돌중앙교회 김연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그는 먼 나라를 꿈꿔요. 그의 심령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으니 나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 19:21).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는 그야말로 보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성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맡기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아멘. 이것이 땅끝을 바라보게 하는 그의 열망,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주후 62 년경에 그토록 가기를 바랐던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 장 30 절에서 31 절에 보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처럼 자나 깨나, 특히 기도할 때는 더 열망으로 다가오는, 나의 심령에 아무리 해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간절한 그 소원과 염원과 열망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내 가슴에 불꽃처럼 다시금 피어오르는, 잊힐래야 잊힐 수 없는, 그 소원과 열망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로마가 있는지요?" **이때 내 마음에 떠오른 두 단어는 "한반도 복음화"였다. "한국 선교사"라는 말도 떠올랐다.**

이날 예배 마지막 축도 중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를 위한" 축복까지 해주시며 아래 이사야 43 장 19 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아멘이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그 후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 중 나의 사명에 대한 또다시 한번 떠오른 구절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24/3/6]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과 본문 해설 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46:1-1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에워싼 앗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군사 18 만 5 천 명을 잃고 물러갔습니다(왕하 19:35).** 하나님은 원수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 버리시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10 절). **46 편은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절망에 빠졌을 때 힘을 얻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시편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새 585 장)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피난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46 편 10-11 절 |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멈추다, 긴장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자기 목소리를 키우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높으심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을 빼는 것은 도리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시편 46 편 10 절 기타 번역: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말성경)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새번역)

"**그가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인 줄 알아라.** 세상 만민이 나를 높이 받들어 섬기리라." (공동번역)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NIV)

"**Cease striving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NASB)

이날 저녁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예배 기도 시간 중 큰 은혜가 있었고, 기도 중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바닥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 내가 듣겠나이다' 하며 말씀을 기다렸는데, 위 시편 46 편 10 절 구절이 다시 명확히 내 안에 떠오르며, 앞부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뿐 아니라 뒷부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도 함께 내 안에 충만히 차올랐고, 이때 떠오른 찬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요한계시록 7 장 10 절 구절을 기반으로 한 『비전』(고형원 작사, 작곡)이란 찬양이 떠올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곧이어 무대 위 예배 찬양팀이 이 찬양을 연주하며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거 같았다. 그러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동북아와 오대양 육대주, 온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가득할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다. 아멘.

(참고로 지난주 지지난 주 갔던 집 앞 교회 화요 저녁 중보기도회는 기도모임 인도자가 교회 담임목사님과 얘기해 보았는데, 자기들 교회 교인이 아닌 외부인은 중보기도 모임에는 오지 않는 걸로 정했다고 하여 이번 주부터는 가지 못했다. 아쉽지만 어쩌겠는가.)

[’24/3/9]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이 예배 때 설교하신 기도원 권기홍 목사님의 이날 설교 중: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 이 생각이 좁아져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걸 알 텐데, 너무 편협적이다 보니까, 누가 툭 던지는 그 말이 길인 거 같아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지푸라기가 여러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는데 지푸라기를 잡는 거야. 왜? 그래도 그거라도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을 그 환란에서, 여러분들을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해 봐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내 방법으로 살지 말라니까. 좀 버텨봐요. 견뎌 보고. 왜 버티고 견디는 걸 못할까. 아픈 걸 못 참아.**”

그리고 설교와 기도 중 내게 주신 거 같은 말씀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 4:11-14)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딤전 6:6-12)

[’24/3/10]

아직 생후 100 일이 안 된 남율이 하고는 나와 둘이서 주일 아침마다 주일예배를 집에서 먼저 드리고, 그 후 나와 아내는 양재 온누리교회로 가서 또다시 주일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전 남율이와 드린 주일예배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아래 마태복음 본문이 오늘 YouTube 에서 우연히 듣게 된 다른 교회(‘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오늘 주일예배에서도 언급이 됐다.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 23:1-13)

그리고 이상준 목사님 오늘 설교 중: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평가절하되어 있던 다윗과 같은 빈들의 목동 한 사람 불러서 400 년 동안 바꾸지 못한 시대를 바꾸신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더를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절하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고, **소외되어서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24/3/13]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이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YouTube Music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재생된 러빔(Luvim)의 『하나님의 열심』(사공정 작사, 작곡)이란 찬양인데, 가사가 꼭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24/3/15]

집 앞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인 "다애교회"(장로교(합신)) 금요저녁예배(금요기도회) 참석.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뜨거운 기도회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이날 설교와 기도회 인도는 20 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이 해주셨다. 설교 본문 구절(역대하)과 설교 중간중간 인용하신 아래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 아멘으로 받았다. 특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았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대하 20:5-15)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34:1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24/3/18]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과 본문 해설 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22 절). **암담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기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손 내밀 때 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풍처럼 밀려오는 고난에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게 하소서. 제 어깨에 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호흡하며 살게 하소서.**”

‘묵상에세이’ 부분(강준민, 『말씀의 능력』, 두란노): “**부디 고립의 기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복수심으로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립된 환경에서 고요히 자신을 연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 대신 고요히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55 편 22 절,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대하시며 “네 짐을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자기 어깨에 메는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기 삶을 채워 가지만, 오히려 염려와 근심은 깊어질 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벧전 5:7)라는 말씀처럼, 근심 중에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성경 앱 “YouVersion”의 Instagram 계정(@youversion) 피드 중 시편 46 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에 대한 피드가 떠서 보게 됐다. 얼마전 3 월 6 일, 하나님께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던 시편 46 편 10 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에 대한 설명이었다:

“He say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The Hebrew word for “be still” translates to let go of your grip, to make oneself weak.** As we release our grip on our plans and fully surrender to God, we find freedom.

[‘24/3/19]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과 ‘오늘의 기도’ 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시 56: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시 56:10-11)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24/3/20]

양재 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님 오늘 자 새벽예배 본문 및 설교 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 57:1-2)

“어제 본문처럼 다윗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주님 신뢰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으로 피해 들어갔잖아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 신뢰할 겁니다. 상황은 이런데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난, 고난 모든 것을 통해서도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자 주님이 움직이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 겁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 상황도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까지도 다 활용해서 나를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 붙들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속심령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강건한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때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러면서 다음 구절들을 강조하셨다. 나 또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열심을 다해 눈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고, 그러자 ‘아버지 한 분이면 다 괜찮고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기도 중 터져 나왔다. 아멘이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 17:14-15)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24/3/21]

양재 온누리교회 박형준 목사님 오늘 자 새벽예배 설교 중: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의 역할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영역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십니다. 내 맘대로 살라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과 삶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혹여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다스리고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의 시선과 문화와 압력에 따라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묵상에세이' 부분(이기용,『고난을 넘다』, 두란노): "**사람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다시 다윗을 보라. 잘나갈 때 모두 그의 친구인 듯했지만, 그가 쫓기는 입장이 되자 그를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고난이 참된 친구와 믿지 못할 사람을 갈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의리와 아량에 전적인 기대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자신과 타인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이를 하나님을 더욱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여 주신다. 하나님은 절박한 인생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 막연히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피난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인가?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부르짖는 우리 곁에서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다."

오늘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전 11 시 예배에서 말씀 전하신 계산제일교회 권오규 목사님이 강조하신 구절들. 어제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설교 때 들은 요한복음 6 장 29 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재차 '현실 상황에 놀라거나 겁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있으면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24/3/22]

(1 월 10 일 남율이 탄생 이후 육아와 살림, 가정예배와 교회예배, 개인 QT 묵상에 full time 으로 집중하고 있다. 취업하려고 내는 서류는 계속 다 떨어지고 있다. 작년 11 월 24 일, CTS 퇴사 후 지금까지 대략 15 곳 정도 이상 떨어졌고,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의 친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셔서 전전 직장인 아이센스에 연락은 못해보고 있다. 오늘은 육아하다가 오후에 좀 여러모로 너무 지치고 낙담돼서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서 펑펑 통곡하며 울었다.)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한절 묵상' 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 59:17)

"시편 59 편 17 절,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 백성을 요새처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고단한 현실에 갇혀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살 소망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힘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입술로 고백할 찬양의 이유입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다애교회"(장로교(합신)) 오늘 금요저녁예배(금요기도회) 최창원 목사님 설교 내용 중: **"어떤 분에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사명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다... 나의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땅 위에서 정말로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사명일 수도 있고, 그냥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조차도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피아워십(F.I.A WORSHIP)의『하나님의 부르심』(손경민 작사, 작곡)이란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리고 다시 기도회 인도하시며 하신 말씀: **"그들이 마주한 그 적들이 너무 두려워서, 생과 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순간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명을 저버렸던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너무 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24/3/23]

아침에 젖병으로 남율이 수유하며 오디오 성경 듣는데 특별히 와닿은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 13:22-23)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과 ‘오늘의 기도’, ‘한절 묵상’ 및 ‘묵상에세이’ 중: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시 60:11-12)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일어서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한절 묵상: 시편 60 편 12 절, 에돔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용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말에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용기는 ‘할 수 있다’는 자기 결단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생깁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마음을 그분께 집중할 때, 치열한 세상에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묵상에세이’(조성의 외,『기적을 만드는 100 일 묵상』, 베드로서원) 중: “세상에서도 일을 이루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집념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백처럼 참을 수 없는 권태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평탄할 때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승승장구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누리교회 같은 공동체 순(small group) 분하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온누리교회 청년부 및 전도폭발팀 분들하고 같이 **서울 강남역에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 큐티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시 60:4).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성경 앱(YouVersion) 알림으로 보게 됐던 구절도 다음과 같다(원래 어제 알림이 왔어야 하는 어제 자 구절에

대한 알림인데, 이 구절에 대한 알림이 신기하게도 마침 오늘 아침에 하루 늦게 와서 오늘 보게 됐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롬 10:17-18). **가서 열심히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와야겠다. (이날 최소 50 여 분에게 온누리교회 제작 전도지와 건빵을 전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기쁨으로 열심히 외쳤다.)**

['24/3/27]

오늘 오후 뜬금없이 아이센스에서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다. 처음엔 부재중 번호가 어디 번호인지 몰라서 다시 콜백 해보니 아이센스 영업부서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건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 핸드폰에는 분명히 그 번호 부재중이 떠 있었고 알겠다고 하며 끊었다. 만약 아이센스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다시 돌아갈 의향은 당연히 있다고 가족에게 여러 차례 말했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라도 연락이 왔길래 혹시 하나님 뜻인가 하여 아이센스 법무 팀장님께 우선 안부 카톡 연락을 드려보았다. 그런데 더욱 신기하게도 그냥 읽고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다. 분명 작년 말까지 먼저 안부 연락 카톡도 주셨었고 했는데, 왜 이젠 아무 답조차 안 하시는지는 이해되진 않았으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고, 다른 법무 직원에게 아이센스 법무 근황을 물어보니 최근에 5 번째 다시 열었던 서류전형에서 누구 한 명 뽑았다고 하였다. 그렇구나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센스에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이런 해프닝을 주셨다는 생각도 든다.

['24/3/29]

아내가 Instagram 에서 어느 목사님의 신앙 글 포스팅(@kimyoubicom)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딱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같았다. "나의 자녀야, 너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란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너의 욕구는 당연한 거란다. 너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거라. 나는 이미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단다. 너의 예상보다 더디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네가 망설이는 바람에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아쉬워 말거라. 너의 인생은 잠시 잠깐 빛나고 사드라들지 않는단다. 나는 너에게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르칠 것이다. 거센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뚝심을 길러줄 것이다.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거라. 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늘을 향해 줄기차게 자라나거라. 아무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6:8)"

['24/3/30]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온누리교회 같은 공동체 순(small group) 분하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온누리교회 전도폭발팀 분들하고 같이 서울 강남역에서 만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황사가 심하다고 하여 그냥 가지 말까 생각했는데, 오전에 Oxford Union 토론(영국 Oxford 대학 토론회)을 하나 YouTube 로 보고 있었는데, 발표자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누가복음 15장 7절("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을 인용하였다: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the one sinner who repents than the ninety-nine who are not in need of repentance." **종교나 기독교나 성경에 대한 토론이 아니었고, 그저 영국 정치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구절을 토론에서 듣게 되어, 하나님께서 전도 나가라고 하시는 거 같아 순종하여 나갔다. 가서 열심히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날은 내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약 최소 60여 분에게 온누리교회 제작 전도지와 건빵, 삶은 계란 등을 전하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를 기쁨으로 열심히 외쳤다.**

전도 마치고 횃불트리니티신대원 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졌는데, '사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여러 번 하나님께 여쭸으나 아니라고 하셔서 못 갔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나의 궁극적 이 땅에서의 꿈은 **전국 팔도 통일 한국 전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간증하며 선전하고 다니는 복음전도자, 한국 교회가 연합하고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전도자, 많은 이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전도자를 꼭 하고는 싶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그 길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꼭 어느 교회의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 헌금으로 생활하는 목회자, 어느 특정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목사가 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대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자격만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복음전도자의 기회가 열렸을 때 마음껏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평신도가 전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가고 나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아직 잘은 모르겠다. 이 방법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도 아직은 없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학교를 가서 어느 공부든 한다고 한다면, 국제관계, MBA, 신학과 같은 것 중엔 신학교를 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가장 끌리긴 한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은 정치, 경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관계와 같은 것이고(정치와 경제는 이미 학부 전공이기도 하고), 사기업 회사 생활을 위한 MBA도 학위가 있으면 좋긴 하겠으나, 다 독학도 가능하고 늘 꾸준히 혼자 관심 갖고 공부해 오고 있으며, 정치든 회사든 실무에 있어서 이런 학위가 꼭 필수적이진 않지만, 효과적인 복음전도자가 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공인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놓는 것이 어느 정도 필수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절대 섣불러선 안 된다. 특히 내가 목사까지 된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단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더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늘 기억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순종만 하길 원한다.

['24/4/1]

오늘 아침 아래와 같은 포스팅(마태복음 성경구절 포함)을 Instagram에 했는데, 오늘 『생명의 삶』 큐티에서 유사한 옷에 대한 글이 나와서 놀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내 Instagram 포스팅:

"**남율이 옷이 100 개는 되는 거 같은데 내가 산 건 한 두벌 정도인 거 같다..** 아기 용품들도 마찬가지. **남율이를(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남율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마태복음 23 장
9.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6 장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오늘의 기도' 및 '묵상에세이' 중:

'오늘의 기도' 중: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묵상에세이'(최성은,『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신뢰하라』, 두란노) 중: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 옷들은 우리가 원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데 그분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해낼 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시기까지 수없이 낮추셨습니다. 왕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를 빚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지요. 10년 넘게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쫓겨 다니면서도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인생의 고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서든 높은 곳에서든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입혀 주시는 다양한 옷을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궁

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벗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으로, 세상의 어떤 고귀한 의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24/4/5]

집 앞에 있는 “다애교회”(장로교(합신)) 금요저녁예배(금요기도회) 참석. 오늘 설교 본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 139:13-18)

설교 내용 중: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내 인생을 접는다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셀 수 없는 생각으로, 모래보다 많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날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 ‘어! 열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닫혀 있던 문의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며 문이 열리는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올랐고, 기도하는 내내 계속 그 이미지가 있었다.

[‘24/4/6]

이번 주도 온누리교회 같은 공동체 순(small group) 분하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온누리교회 전도폭발팀 분들하고 같이 서울 강남역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며 전도지와 건빵을 약 30 명 이상에게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왔다. 영어를 쓰시는 외국 분들 가족 5 명과 또 다른 외국 분 한 분을 위해서도 구주 예수님 영접 및 축복기도를 해줄 기회도 있었다.

[‘24/4/7]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 설교 본문 중(우리말성경):

“열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행 6:2-8, 우리말성경)

['24/4/8]

지난주(4/5) 금요예배 기도 중 보았던, 닫혔던 문이 열리는 이미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나의 생각인지에 대해 그날 예배 기도회 말미에 하나님께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가까운 시일에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3 일째 되는 오늘,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가는 길에 YouTube 알고리즘에 'BibleProject' 채널에서 2017 년 12 월 8 일 업로드했던 4 분 33 초짜리 "Hope"이란 예전 영상이 갑자기 떴길래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레이션*이 나오면서 나온 애니메이션 영상이, **외국 제국의 압제하 절망적인 상황 속, 애니메이션 중앙에 닫혀 있는 문 그림이 하나 나타나더니, 아래 호세아서 구절이 인용되면서 그 닫혀 있던 문이 열리며, 밝은 곳,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상황으로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왔다.**

이 짧은 영상 내에서, 오직 호세아서에 대한 영상도 아닌 'Hope'이라는 방대한 범위의 주제에 대한 불과 5 분 남짓의 영상에서, 성경 내 수많은 소망에 대한 구절들 중 호세아 2 장 15 절이 나오며, 이런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림들이 영상에 나온 것이, 그것도 이 이미지를 3 일 전 기도 중 보고, 오늘 기도원 가는 차 안에서 우연히 다시 보게 된 것이 매우, 매우 신기했다. (오늘 전에는 호세아서에 "소망의 문"("door of hope")이란 표현이 있는 줄도 인지하지 못했고, 찾아보니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 내에서도 희귀한(?) 표현인 거 같다.)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영상도 보여주며 다시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온누리교회 일대일양육자반 온라인 수업 중 같은 조 분들께도 이 신기한 경험을 나누었다. **지난 금요예배 기도 때 봤던 이미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 같다.** 요한계시록 3 장 7 절 말씀도 생각이 났다("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YouTube 내 'BibleProject' 채널에 있는 "Hope"이란 애니메이션 영상**(2017 년 12 월 8 일 업로드, 4 분 33 초 분량) **내레이션 중:** "But biblical hope is not focused on circumstances. In fact, hopeful people in the Bible often recognize there is no evidence things will get better, but they choose hope anyway. Like the prophet Hosea, who lived in a dark time when Israel was being oppressed by foreign empires. And he chose hope when he said, '**God could turn this valley of trouble into a door of hope,**' like the day when Israel came up from the land of Egypt. God had surprised His people with redemption back in the

days of the Exodus, and He could do so again. So, it is God's past faithfulness that motivates hope for the future. You look forward by looking backward, trusting in nothing other than God's character."

위 인용된 호세아(Hosea) 2 장 15 절 여러 역본:

"There I will give back her vineyards to her and **transform her Valley of Troubles into a Door of Hope**. She will respond to me there, singing with joy as in days long ago in her youth after I had freed her from captivity in Egypt." (TLB)

"There I will give her back her vineyards, and I will **make the Valley of Trouble a door of hope**. There she will respond as when she was young, as when she came out of Egypt." (NCV)

"I will give back to her the vineyards she had and **make Trouble Valley a door of hope**. She will respond to me there as she did when she was young, when she came from Egypt." (GNT)

"There I will give her back her vineyards, and I will **make the Valley of Trouble [Achor] a door of hope**. There she will respond [or sing] as when she was young [in the days of her youth], as when she came out of Egypt." (EXB)

"And I will give her her vineyards from thence, and **the valley of Achor for a door of hope**: and she shall sing there, as in the days of her youth, and as in the day when she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KJV)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개역개정)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 주고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24/4/9]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설교 본문: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11-14)

하나님께서 오늘은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 같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기도 위주로 했고, 히브리서 9 장 14 절 말씀도 붙들고 기도했다("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핸드폰 성경 앱(YouVersion)에서 뜬 '오늘의 말씀' 에스겔 36 장 26 절도 회개할 때 다시 또 생각이 났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겔 36:25-28)

오늘 저녁에 온누리교회 Onnuri Gospel Project (OGP) 성경공부 온라인 미팅이 있었는데, 교재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바대로 우리가 자신을 이 땅에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규정했다면, 세상이 보장하는 종류의 안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물리적, 물질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교활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기에 고요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엘리자베스 엘리엇)" (LifeWay Adults,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 하나님의 구출계획』(청장년 인도자용), 오주영 역, 두란노, 2022, 39 쪽)

특히 오늘 새벽 아래와 같은 글을 썼었기에 위 교재 내용이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의 말씀 같았다: "... 때로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왜 그러는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로서 고마울 때는 그저 나를 믿고 그저 내게 안겨 있어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울더라도, 내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동안은, 아이를 꼭 안아주고 포기하지 않으며, 달래면서 그저 아빠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온전히 나를 믿고 잠잠히 품에 안겨있게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광야 학교》장(章) <일부러 어둡게 하실 때> 글 중)

오늘 성경공부 인도자께서 중보기도 제목을 물어보셔서 어제 경험한 '소망의 문' 간증을 나누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중보 요청했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셨다.

['24/4/10]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참석. 수요저녁예배 마치고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이신 강부호 목사님께 '소망의 문' 간증도 짧게 하며 앞날에 대해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지난 2 월 18 일 '신생아축복기도' 때 기도해주신 것처럼 **'가정 분위기 자체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 후 '우리 가정의 쓸 것과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다.** 나는 나의 진로의 앞날이 속히 열리길 기도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였고 사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신실히 계속 공급해 주고 계셔서 이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선 내가 지금 다른 일보단 가정 내에서 지금처럼 남율이와 함께 수시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앞으로도 계속 더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가 보다 생각도 됐다.

오늘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이었기도 하여 오늘 새벽예배 포함, 세 번의 예배 때마다 나라 기도를 많이 했고, 아래와 같이 내 Instagram 및 Facebook 계정에 나라를 위한 나의 기도를 전체공개로 포스팅하기도 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악 많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제거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히 보내주셔서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거하는 모든 사람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 큰 사랑 받는 통일 한국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통치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편만하게 이뤄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복 주셔서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나라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4/11]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묵상에세이'(카일 아이들먼,『삶이 뜻대로 안 될 때』, 두란노) 중: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관념은 '성과를 내면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상을 주는 것은 적절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 연결보다 생산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산이 연결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그분을 위한 열매를 생산해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다. 교회 출석, 봉사 시간, 헌금, 구제 등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생산은 연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이 생산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일상에서는 생산이 시급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영예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희생시킨 결과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곁의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더 큰 선행은 없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질 때, 그 연결에서 삶의 열매가 저절로 풍성히 흘러나올 것이다.**"

어제 강부호 목사님께 기도 받은 후 느낀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정말 원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연결돼 있다 보면(안겨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계속 인도하실 거라는 그저께 묵상과도 이어지는 거 같다. 어제 기도원 예배 때 말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뜻이 아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방법과 방식과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24/4/13]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조장으로 섬긴 하루였다('22 년 6 월 18 일 처음 참석한 것 이후로 지금까지 총 6 번 성령수련회를 참석했고, 그중 4 번은 조장으로 섬겼다). 나와 조원들과 참석자들과 또 남율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일생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성령안에서 회개하며 기도한 하루였다. 오늘 내가 받은 간식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말씀카드는 시편 63 편 3 절이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 63:1-4)

오늘 자 『생명의 삶』 큐티 '묵상에세이'(김유복,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죠이북스) 중:

"직장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동화를 읽어 주는 일**, 소그룹 나눔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일,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질문을 만드는 일,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일,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하찮지 않다.**"

['24/4/14]

남율이와 드리는 주일예배로서 찬송가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불길 같은 주 성령' '내가 매일 기쁘게' 등을 부르고, 로마서 8 장을 읽고,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일평생이 되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일평생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생각, 의식과 무의식, 지정의와 영혼육, 인생과 삶의 문을 모두 활짝 열고 오직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을**("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 14: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요 15:2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 **영원한 주님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며, 유일한 주님으로 목자로 모셔드리고, 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일평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일평생 성령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삶과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아멘.

로마서 8 장뿐 아니라 더 읽으며 기도한 다른 구절 중 고린도전서 6 장 일부도 있었는데 그 후 오늘 자 큐티 '오늘의 기도'에도 반복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셨고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7-20)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으로 채워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처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 양재 온누리교회 4 부예배 참석. 사도행전 설교 본문과 설교 중 인용하신 고린도후서 구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행 7:55-56)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이날 주일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시는 분이 계셔서 현금은 없어서 계좌이체 드리고 같이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 형제님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온누리교회 오전 9 시 예배도 가급적 매주 나오시려고 한다고 하셨다. 내일부터 며칠간 심부전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여, 함께 기도해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24/4/16]

오늘 저녁에 온누리교회 Onnuri Gospel Project (OGP) 성경공부 온라인 미팅이 있었는데, 교재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여정이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정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이 선하시며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해도 인도자가 계심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겁에 질려 불평해 대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이런 전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뛰어난 전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네 몫이 아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전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적할 바 없는 비교 불가능한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LifeWay Adults,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 하나님의 구출계획』(청장년 인도자용), 오주영 역, 두란노, 2022, 62-66 쪽)

['24/4/17]

YouTube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게 된 두 설교. 신기하게 두 설교 내용 중에 **"성령강림... 하나님의 침투"**, "**invasion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이란 표현이 각각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와그리스도교회' 채널, 김대진 목사님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행 2:1-4)" (2024 년 4 월 16 일 업로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임재의 소리, 예 그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고대에 전쟁하면, 오면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입성하면서 전령들이 나팔을 불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지구상, 일상, 각 사람이 사는 집,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임하셨다...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편적으로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한 그 일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몇 시간 교육을 받았죠 레슨받았어요. 요한복음 14 장~16 장에 받았지만, 그것이 이것이구나 이제 이걸 처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중첩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레슨 가르침의 이 실제적인 임재,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주권자구나. 공간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여러분 이게요 공간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요, 시대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너무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침투, 단어가 좀 강력하죠, 네, 침투에요.** 사탄의 그런 한시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사탄의] 등뼈를 박살 냈잖아요. 이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 했습니다. 임재의 상징인 이 바람 소리가 공간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임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임재의 목적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개별적 임재. 각 사람 머리에서부터 그 심령으로 내려오는 내면적 임재."

'In Touch Ministries' 채널, Dr. Charles Stanley 목사님 설교 "When Things Seem Impossible" (2021 년 4 월 25 일 업로드):

""Oh God, what in the world am I going to do?" is not the right question to ask. The right question is, "Lord, what are You going to do?" **Nothing is impossible when the supernatural invasion of God by the Lord Jesus Christ comes into our life, and He enters our circumstance to deal with them**. If I alone have to deal with it, I'm going to have a problem. But if He begins to deal with them – if I allow Him, if I acknowledge Him, if I call upon Him into my circumstance – He is going, because of His compassion and love, to deal with that circumstance no matter what it is. Oftentimes, we wonder why things don't happen right. We wonder why we can't figure it out. God doesn't want us figuring it out; He wants us to rely upon Him, to trust in Him. And as He says, to call upon Him....

This leads me to the second point: not only is He aware of our circumstance, but listen, He always has a plan for our seemingly impossible circumstances. Jesus is never caught off guard; He always knows what He's going to do, and He knows how He's going to do it, where, when, and exactly what resources are necessary no matter what you're facing in life....

Are there any rivers that seem uncrossable? Are there any mountains you cannot tunnel through?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He knows a thousand ways to make a way for you. Let go and let God have His wonderful way. Let go and let God have His way; your sorrows will vanish, your night will turn to day if you let go and let God have His way.... God specializes in things that seem impossible. He knows a thousand ways to make a way for you. But [it only happens] when we let go and let God have His wonderful way in our life.

I wonder what you're facing. You've been trying to figure it out? Just give up. Giving up isn't weakness; it's wisdom when you're giving up to God. **Not weakness, but wisdom because then you allow the**

invasion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to take your circumstances and absolutely change them for your benefit....

And maybe you're one of those persons who's been struggling with who you are, what you're going to do with your life, where you're headed, and what God could do with your life. You say, "Well, I'm this age or that age, this educated, that education; all of these things." None of that's important. The issue is, **"Lord, I surrender my entire being to You now. I'm going to watch what You do."** And one thing is for certain: listen, He'll do the best thing that a sovereign,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all-loving, unconditional loving God will do in your life if you'll let Him." **아멘!**

['24/4/19]

아들 남율이 백일을 맞아 드린 기도:

"하나님 아버지, 김남율의 백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율이가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율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많은 이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율이가 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꼭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큰 칭찬을 받는 김남율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남율이의 일평생을 맡기고 전 존재를 헌납드리오니,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남율이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뜻대로 남율이를 친히 양육하시고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남율이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남율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이자 아버지의 큰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율이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린 동일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구세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4/22]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작년 11 월 24 일 CTS 퇴사 이후, 오늘까지 24 번째 기도원 예배를 참석하여 드리게 됐다.

오늘 설교 내용 중: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로마 황제들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도 없는 권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부귀, 영화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요.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이 세상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다음에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갈멜산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두 번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작사, 작곡 김석균; 노래 강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24/4/23]

오늘 저녁에 온누리교회 Onnuri Gospel Project (OGP) 성경공부 온라인 미팅이 있었는데, 교재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며, 이 죄가 무수한 죄들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인내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이적을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 때를 기다리라.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처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LifeWay Adults,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 하나님의 구출계획』(청장년 인도자용), 오주영 역, 두란노, 2022, 91 쪽)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약 4:1-10, 새번역)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출 34:11-16, 새번역)

['24/4/24]

오늘 자 『생명의 삶』 큐티 '묵상에세이' 부분(팀 켈러,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두란노):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는 우리 자신에게 신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그래서 내 안전과 가치는 나 자신의 지혜와 힘과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징후는 거짓된 안전감에서 나타난다. 거짓된 안전감은 자기 성취를 신격화해 그것이 삶의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주리라 믿게 한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늘 자 『생명의 삶』 큐티 '한절 묵상' 부분:
"성전 봉헌 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만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양한 신이 있지만, 참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우상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면 내가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목소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이 예배 때 설교하신 기도원 권기홍 목사님의 이날 설교 중:

설교 본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약 1:5-8)

설교 내용 중: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 믿음으로 안 사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5 장 16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봐보세요, 믿음의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가 연결되죠?... **조금 전에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해야 된다니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믿음이 없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안에 내면적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한 요소가 아니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바꿔 놓느냐? 의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사랑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기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잘 살기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그건데.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가고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됨이 된대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인생이 그렇게 엎어지고 덮어질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교만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 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40 년 동안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뭘 이기냐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대요... 좋은 의미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그러면서도 그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위에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경건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바깥 날씨가 밝아졌나 보다 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밖은 오히려 더 구름 낀 날씨가 돼 있었다. 그러면서 집에 오는데 든 생각이 내가 예전에 법무실장으로 있던 회사 '지놈앤컴퍼니'에 계신 분들께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주에 어떤 변호사님을 통해 그곳에서 다시 법무실장을 뽑고 있다는 소식을 안 그래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법무실장으로 있던 분이 이번에 아이센스 법무로 가게 됐다는 소식도 또 다른 분을 통해 듣게 됐다(아이센스에서 서류전형 5 번째 열었을 때 결국 한 명 뽑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이 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와 집에 남율이 봐주러 와 계셨던 어머니와 이것에 대해 논의한 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놈앤컴퍼니에서 인사도 담당하시는 한 임원분께 연락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기뻐해 주시며 고맙다고까지 해주셨다. 대표님께도 말씀드려보고 인터뷰를 가급적 빨리 잡을 수 있을지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다. 내가 더 고맙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통화 후에도 계속 기도했다. 그 후 저녁 내내 기쁨이 있었고 아내와 어머니도 좋아하셨다.

['24/4/25]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이날 설교 본문(학개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4-9)

지놈앤컴퍼니를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일지, 아이센스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연락도 미루고 했었으나, 지놈앤컴퍼니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여기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려는데 내가 여기로 가는 건지 등등 고민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은 느낌이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놈앤컴퍼니로 돌아간다는 것이 애굽에서 불러낼 때 너와 한 언약과 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고, 또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너의 나중 영광은 이전 보다 클 것이니 평강 가운데 나의 인도함대로 계속 가거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다.** 그동안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되어짐과 함께 이제는 "두려워 말고 굳세게 일할지어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았다.

['24/4/26]

다음 주 월요일(4/29) 오후 12 시 정오에 지놈앤컴퍼니 회사(광교)에서 두 분의 경영담당 대표님들과 (재)입사 인터뷰가 잡혔다. 정오가 보통 인터뷰를 하기에는 특이한 시간이긴 하지만 난 전혀 괜찮다. 두 대표님이 다 가능한 시간 중 가장 이른 시간으로 잡으려 한 거 같다. 지놈앤컴퍼니 회사는 우리 집을 기준으로 남쪽 방향으로(거의 정남쪽 방향) 30 분가량 차 타고 쭉 내려가면 있다.

['24/4/28]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참석.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영상 설교 내용 중(원래 강부호 목사님 설교로 주보에는 표시가 돼 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재훈 목사님 영상 설교로 대체된 거 같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설교 듣기를 원하신 거 같다.):

설교본문(사도행전 8:26-40 우리말성경) 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행 8:26-35, 우리말성경)

설교내용 중: "빌립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빌립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그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의 단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하철 노선표를 펼쳐 보듯이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 누가 순종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광야길로 내려가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빌립의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광야 길로 내려가라'라는 이 말씀의 단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그다음에 일어날 일이 펼쳐지고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시는 거죠**... '다른 지역에는 가도 사마리아만은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표적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 체험을 했던 빌립이었기에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라는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일어날 일을 상세히 다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성공적인 일, 좋은 일이 앞에 있다면 미리 우리는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단순하게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한 걸음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다음 걸음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쪽으로 가거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일어나 정오쯤 가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은 정오에는 태양이 남쪽에서 비치는 그 지역이기 때문이죠. 왜 그곳, 그 시간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거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현재 주어진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뒤늦은 순종은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빌립을 지금 광야의 길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에티오피아 한 관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
<근황 Update: 2024년 5월 3일>

이 근황 업데이트를 쓰는 지금, 오늘로써 114 일 된 남율이는 코 자고 있고, 아내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다. 이런 오롯이 나의 시간이란 게 참 귀한 요즘이다. 다음 주부턴 내가 처음 법무실장이란 직책을 맡았던 예전 직장 '㈜지놈앤컴퍼니'에 다시 법무실장으로 출근한다.

작년 9 월에 '아이센스'라는 회사의 법무에서 여러모로 많은 배려와 편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되어, 선교의 마음(?) 사명자의 각오(?)와 같은 걸 충만히 갖고 기독교 방송국 CTS 에 법무총괄로 가게 됐다. 연봉도 반을 초과하여 줄여서 갔던 이직이다(그래도 CTS 대변을 하자면, CTS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신 거였고, 3 인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적지는 않은 연봉이었다. 볕이 잘 들고 특히 탁 트인 하늘과 여의도, 한강 전망이 좋은 방도 주셨었다). 이제 사기업 중에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갔던 나름 비장한 각오의 이직이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뒤 퇴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이직을 했다. 2015 년 6 월 美뉴욕주 변호사가 된 뒤,
법무법인 광장(고객사 Samsung 바이오에피스 파견 포함) → LG 상사 → SK 하이닉스
→ 지놈앤컴퍼니(법무총괄) → SK 바이오사이언스 → 네오위즈홀딩스(지주사 법무총괄 및 자회사 1 곳 법무총괄 겸직) →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업부 소속 freelance consultant(주 3 일 출근하며, 나머지 주 2 일은 북한인권 관련 활동) → 아이센스(법무파트장이자 특허 외 법무업무 총괄)
→ CTS 기독교 TV(법무총괄) → (다시) 지놈앤컴퍼니(법무총괄).

CTS 갈 때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고, 가서 내부에서 보며 드려야 할 말씀들을 최대한 상세히, 가감 없이, 여러 차례 드렸고, 더 있기는 어려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나왔다. 이번 CTS 이직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대한 주님께 묻고 들으며 입사했고, 퇴사했던 과정이었다.

CTS 퇴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당신을 믿으라고 확신을 여러 차례 주셨고(설교, QT, 기도 등을 통해), 그런 와중 올해 1 월 10 일, 남율이가 태어났다. 아이센스에서는 계속해서 나의 퇴사 후 대체 인력을 뽑고 있었고, 내가 알기로 최근까지 서류전형만 5 번을 다시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연락하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 같아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다(다른 회사들에는 이력서를 적극적으로 여럿 넣었으나 이직이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아이센스 퇴사할 때 대표님께서 장시간 해주신 말씀도 있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던 곳이라 특히 5 번째 서류전형이 마감될 땐 연락을 안(못) 드리는 게 사실 좀 아쉽기는 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한 분을 뽑아서 지난주에서야 거의 8 개월 만에 새로 뽑힌 분이 출근하게 됐다고 들었다.)

CTS 퇴사한 작년 11 월 말부터 올해 4 월 말까지 5 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난 육아와 살림에 꽤나 달인이 된 거 같다(이 귀한 이력을 이력서에 못 쓰는 게 아쉽다). 이제 육아와 살림 멀티태스킹이 편해질 즈음이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직장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 같다. 4 월 19 일 금요일이 남율이 100 일이었고, 그다음 주인 지난주에 지놈앤컴퍼니로 돌아가는 길이 갑작스레 다시 열린 것이다. 우연히

지놈앤컴퍼니 법무실장을 뽑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나 다음에 계시던 실장님이 나가셨구나'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본 뒤, 몇 년 만에 다시 인사 담당 임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3 영업일만에 두 분의 경영담당 대표님들과 인터뷰까지 마치게 됐고, 거의 바로 조건 조율 및 정식 오퍼를 받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된 것이다.

감사하게도 아이센스로 돌아가는 거보다 그 이상으로 많은 여러 배려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지금 보니 전 직장, 전전 직장, 전전전 직장 다 전사(全社) 법무책임자 또는 사실상 전사 법무책임자로 있었기에 막상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건 내 성격상, 상황상 어려웠을 거 같다. 그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권으로 육아휴직을 주신 것이었다. (남율이 태어나던 날 장인어른께서 "하나님께서 육아휴직 주셨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이었다.)

CTS 퇴사 후 지금까지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재정은 신생아 남율이로 인해 나라에서 받는 수당 및 급여가 가장 큰 고정 수입원이었는데,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저렇게 계속 채워주셨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아기 옷, 용품, 장비, 책, 장난감까지 모두 포함하여 아주 많이), 목돈을 깨지 않고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CTS 때보다 더 풍족한 시기를 보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이며, CTS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기도 하다.

남율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민주평통, 통일부, 사단법인 북한인권 관련 비정기적 업무 또는 법률문서 번역 알바나 지인분들 무료 자문 정도 외에는) "full-time daddy"로서 보낸 육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단순히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이상이고, 가장 뿌듯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며, 내가 평생 한 일 중 가장 유의미하다고 느껴진 일과 시간이다. "남율이 사랑하고 축복해요. 성령 충만하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 준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둘이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먹고 놀고 자고'를 이어왔다. 터미와 체조도 하고, 분유 먹고 트림도 하고, 손톱 발톱도 자르고, 모빌이랑 책도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산책도 하고, 목욕도 하고, 재워주며, 나름의 교감을 많이 쌓은, 아주 사랑스럽고 애틋한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남율 씨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다시 회사에 가야 한다. 요즘 맨날 아기를 붙잡고, "이제 아빠 없이도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물으며 나 혼자 아쉬워서 청승을 떨고 있다(물론 아내와 장모님과 어머니가 두터운 지원을 해주시지만). 아기 보고 싶어서 맨날 최대한 일 빨리 끝내고 집으로 쏜살같이 올 거 같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율이와 나를 신실하게 잘 키워주실 것을 나는 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 1:31-33)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10-28)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 48:14)

#
<주님의 말씀 경청과 청종 노력 기록: 2024년 5월 5일부터>

['24/5/5]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2 부예배 이재훈 위임목사님 설교 내용 중: "지배 욕구로, 권력 욕구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듯이 섬김으로써 통치되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죠.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섬기시는, 종으로 섬기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군림하고 인간들은 종처럼 기쁘지 않는데 그렇게 노동력으로 쓰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노동력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섬기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섬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낮아지심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것은 섬김으로써 하늘나라가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 장 35 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사회에서의 성공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려면 어떻게 되는지 법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신 그 섬김을 우리가 배울 때 첫째 되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되는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 그분처럼,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단순하게 행하는 사람은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을 다할 뿐이에요. 그저 섬기는 것이 기쁠 뿐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은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을 영접함으로, 단순하고 겸손한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마침 교회 일대일 양육자반 숙제를 위해 읽은 책 내용 중: "**자기를 낮춤으로 서로 섬겨라.**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사랑으로 헌신할수록 우리가 받는 상처는 더욱 크다.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고, 실망시킨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과 이해로써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잘 참으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오는 이러한 짐을 모두 져야 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가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관심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습, 즉 영광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데이빗 왓슨, 『제자도』, 문동학 역, 두란노, 2021, 65 쪽)

오늘 처음으로 예배 성찬 위원을 사실상 자원이 아닌 공동체 다락방장님 강권에 의해 하게 됐는데, 마칠 때 또다시 공동체 예배 팀장님 강권에 의해 5 월부터 8 월 말까지 매주 주일 2 부예배 안내 위원으로 섬기게 됐다. 아직 어린 아기가 있는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도 그동안 벅찼지만 이제야 좀 익숙해지고 회사도 가게 됐는데, 바로 이어서 매주 교회 주일 예배도 강권적으로 앞으로 4 개월간 섬기게 됐다. **나는 이것이 사람의 강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됐다. 하나님의 강권이라는 생각이 들며, 오늘 설교 말씀과 오늘 읽게 된 위 책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초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도 생각났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교회친구다모여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 올해 첫 4 개월은 신생아와 가정을 섬겼고, 바로 이어 이제부턴 직장뿐 아니라 4 개월 동안 교회 주일예배도 섬기게 됐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을 신실히 이루어가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마련해두신 다음 단계들로 진급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며, 이해가 되고, 안도도 되며, 기꺼이 순종하기로 했다.

['24/5/6]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인 오늘, 오랜만에 출근인 내일을 앞두고 기도원 예배를 다녀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벧전 1:12)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벧전 1:13)

"For we are the circumcision, which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rejoice in Christ Jesus, and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빌 3:3, KJV)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빌 3:3, 표준새번역)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 4:6-7)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22-25)

"넌 오직 나만 바라보거라."

['24/5/17]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 해설 중 질문: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기독교를 드러내 놓고 비방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내와 오늘 자 큐티를 했는데, 오늘 낮에 회사에서 회사 대표님이 자신은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나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설득하려고 하셔서, 장장 2 시간에 걸쳐 가감 없이 강력하게 논리와 이성과 신학과 철학과 성경적으로 왜 자유주의 신학이 틀리고 본질적 오류와 한계가 있는지, 진정한 기독교와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게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역사적인가에 대해 담대하게 토론하고 설파했다. 마침 그런 날 저녁 큐티 내용 중 저런 질문이 있어서 신기했고 하나님께서 두둔해 주시는 느낌이었다.

마지막에 대표님은 연신 "you win"이라고 하셨으나, 단순히 토론의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진심으로 대표님이 참된 진리 가운데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권능의 주권자요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인간의 궤변은 하루속히 무너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진리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길 또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돼 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저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저의 일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되고, 널리 많은 이에게 전달되며, 영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5/25]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조장으로 섬긴 하루였다. 오늘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금처럼 계속 나만 의지하거라. 너의 삶의 행복, 힘, 의미, 사랑, 소원 모두 다 나를 의지하고 나로 인하여 만족하여라." 아멘.

['24/6/9]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참석. 설교 시간 이후 대학청년부 아웃리치에 대한 광고영상 및 특송찬양 시간이 있었는데, 눈물이 나면서, 예배 마치고도 기도했다.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의미한 인생이 되도록 나의 삶과 존재의 전부를 통치하고 주장하며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파되고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한 통로로 나의 일평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내 인생이 아낌없이, 주저 없이, 뒤로 빼는 것 없이, 낭비 없이,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시원하게, 온전히, 충만히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24/6/16]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참석. 강부호 목사님 설교 내용 중: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사건 경험이 기도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경험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가 오해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는 복음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노크를 통하여 깨어남이 있길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평생은, 내가 계산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십시오.**"

예배 후 간절히 기도했다. 지난주와 비슷한 기도가 터져 나왔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 하나님, 제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낭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의미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나의 전(全)인격과 전(全)존재를 사로잡아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과 호흡과 순간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나의 일평생이 사용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과 큰 사랑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23]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참석. 난 오늘도 지난주, 지지난 주와 같은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삶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낭비되며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써 온전히 쓰임 받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렸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교회 서점 '두란노'에 가서 책을 하나 사서 그 위층 카페에 가서 줄치며 읽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서점으로 가보았다. 그리고 어떤 책일까를 이 책 저 책을 살펴보고 훑어보며 어떤 책을 읽기 원하실지에 대해 물으며 묵상하며 둘러보는데, 예전 약 15 년 전쯤 군대에서 읽었던 책이 보여 집어 들어 펼쳐 읽어보았다. 중간쯤부터 몇 페이지 읽어보는데 다음 구절들이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이 책인가 보다 하고 샀다.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취하는 입장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 맥락 가운데서 읽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가 스스로를 해석하도록 하면,... 사실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본문의 배후에 숨어 있는 주제는 다윗의 저급한 도덕성이나 영리한 천재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소위 '영적인 삶'에 전혀 적합하지 못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남는 것 말이다.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에 대해 분개하지 않았고 야만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문화에 맞서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의 화자가 말하는 바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기름부음에 충실하도록 그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이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그것이 도리어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나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바로 시글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살려는 이들은 흔히 자신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장소와 사람들 속에 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적게 인식하는 시간에 가장 심오하게 이루어진다.** 영성은 대개 영성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최소한 도덕주의자나 세속주의자가 말하는 영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를 섬기고 있고, 시글락에서 도덕적·사회적 부랑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전부일 때가 많다."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10 주년 기념판), 이종태 역, IVP, 2009, 153-158 쪽)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첫 chapter 부터 2 층 카페 가서 읽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 같은 대목이 나왔다: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경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자주 받는다.** 우리는 기적이나 황홀경 혹은 번드르르한 초자연적 능력 과시 등을 열을 내며 추구한다. 이러한 영역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기적과 황홀경과 초자연적 능력

역시 명백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인간됨으로부터의 도피처나 인간됨을 우회해 가는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오스틴 패러(Austin Farrer)가 말했듯이,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실 때 구부러진 못을 펴는 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육신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 조건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적과 자연을 뒤덮고 있는 초자연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법을 훈련받을 수 있다.** 다윗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오천 명을 먹이신다는 사실에 쉽게 흥분되어 – 그것이 '더 깊은' 혹은 '더 차원 높은' 영적 생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거나 식사 준비를 그만두지는 않게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10 주년 기념판), 이종태 역, IVP, 2009, 23-24 쪽)

오늘 아침 다윗이 기름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우는 본문에 대한 어느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YouTube 으로 듣기도 했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24/6/25]

오늘 자 『생명의 삶』 큐티 본문 해설 중 질문: **"가난한 사역자 혹은 가난한 이웃의 외침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내와 오늘 자 큐티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활이 어려운 신학생을 위해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서, 지난번에 온누리교회에 문의해 보니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에 연락해 볼 걸 권유했었기에, 오늘 마침 월급날이 되어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니 장학기금 일시후원도 있길래 헌금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신학생을 위해 써달라고 전화로도 부탁했다(학생의 성적과도 무관하게 생활이 어려운 분을 우선으로 부탁했다). 마침 그런 날 저녁 큐티 내용 중 저런 질문이 있어서 신기했고 하나님께서 두둔해 주시는 느낌이었다.

['24/7/27]

오늘 전혀 다른 곳에서 두 번이나 보게 하신 구절. 오늘 처음 접한 건 요한복음 14 장부터 17 장 오디오 성경을 듣다가 이 구절만 멈춰서 다시 돌려서 좀 더 묵상을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어떤 단톡방에서 어느 분이 '오늘의 성경암송' 구절로써 동일한 구절을 올려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 안에 내가 거하며,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구하길 원한다.

[’24/7/28]

아침에 보던 어떤 YouTube 세미나 영상 중에 인용된 본문인데, 오늘 마침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설교 본문이기도 했다. 내게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어제 받은 말씀과 이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영적인 옥에 갇힌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같다. 그럴 때 그들을 가두고 있는 옥터와 옥문이 흔들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전능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반도와 부속도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통일한국 전 국민이 덩실덩실 춤추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온전한 광복의 날이 오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 16:24-34)

[’24/7/29]

예전부터 평소 잘 들어오는 영국 교회 중(All Souls Church, Langham Place; St Helen's Church, Bishopsgate; St Andrew the Great, Cambridge; King's Church London, Catford; St Aldates Church, Oxford; Holy Trinity Brompton (HTB) Church; Westminster Chapel, Buckingham Gate 등) 두 다른 교회의 설교를 하나씩 무작위로 퇴근길에 하나랑 잘 때 하나를 들었는데 똑같은 구절이 언급됐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Do not be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shun evil.” (Proverbs 3: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5-7)

[’24/8/4]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2 부예배 때 나온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담긴 사도바울 영상 Clip 내용. 듣는데 눈물이 솟구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여행을 쭉 탐사한 적이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걸으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도 엉덩이가 아픈데 그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의 열정, 전도의 비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열정.** 이 사람은 다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돈도 성공도 물질도 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2 천년이 지난 동안에 전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땅 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뭇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사 49:6, 우리말성경). "뭇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와서 교회 자리 채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벌 되고, 부자 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일을 하지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명,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명,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서 영광을 받겠다"(사 49:3, 우리말성경).** 온 세상에, 지구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구를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YouTube 내 'CGN SOON' 채널에 있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 하용조 목사 / 3 분 메시지" 영상(2024 년 8 월 5 일 업로드, 2 분 55 초 분량))

['24/8/11]

집에서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 11:24-27)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 17:14-18)

['24/8/14]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중 계속 진심으로, 전심으로 불렀고, 앞으로도 늘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길 원하는 찬송가 315 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유의미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쓰임 받고 큰 사랑 받는 나의 일평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 대한 전권(全權)을 불가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자주 하는 기도이고 올해 들어 특히 많이 하는 기도이다.

['24/8/25]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 말씀 본문 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행 19:20).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 있게 퍼져 나갔습니다."(행 19:20, 우리말성경)

예배 마치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힘 있게 퍼져 나가는 일에 선한 통로로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여생, 모든 호흡과 모든 발걸음, 나의 전존재(全存在)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성하게, 거세게 확장되는데 큰 쓰임 받길.** 하나님께 큰 칭찬 받는 삶이 되길. 오직 하나님께 큰 사랑 받는 일평생이 되길 기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확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한 전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선한 통로로, 사랑받는 아들로서 쓰임 받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신 거 같았다.

"지금처럼 계속 나만 바라고 바라보거라. **Buckle up for a ride.** 그리고 계속 나만 바라며 바라보거라."

['24/9/4]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예배 말씀 본문 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행 16:5-11)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는 '메시지 성경' 번역 버전의 로마서 8 장 구절도 다시 떠올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롬 8:12-17, 메시지 성경)

그리고 기도 시간 중 나온 찬양을 따라 부르며 찬양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됐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피아워십(F.I.A WORSHIP)의『하나님의 부르심』(손경민 작사, 작곡))

['24/9/17]

추석을 맞기도 했고, 원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그날의『생명의 삶』큐티 본문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기에(개회 기도, 찬송, 말씀 교독, 묵상, 서로 묵상 나눔, 합심 기도(3-4 가지 기도 제목), 주기도문, 총 약 1 시간), 오전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와 남율이는 YouTube 다시 보기로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새벽예배를 또 드렸다. 강부호 목사님 설교와 기도 인도를 함께 듣고 참여했는데, 기도 제목 중 회개와 감사 그리고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하였고, 특히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게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 읽을 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요즘 계속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온전히 낭비 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계획을 이뤄드리는 데 쓰임 받길 원하다**는 기도 제목과 같았기에 더 기억에 남은 거 같고, 전심으로 또다시 기도했다.

오늘 새벽예배 축도 후 마음 속에 떠오른 찬송『기름 부으심』(신상우 작사, 작곡)을 바로 틀어놓고 남율이를 돌보며 찬양 하는데, '이 찬송이 내 사명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 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누가복음 4 장 18-19 절도 함께 떠올랐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그리고 YouTube 알고리즘에 따라 이어서 재생된 찬송『그리스도의 계절』(김준곤, 박지영 작사, 이성균 작곡) 중: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그리고 YouTube 알고리즘에 따라 이어서 재생된 찬송『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전은주, 박보람 작사, 전은주 작곡) 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두 아멘 아멘이다. 모두 예전부터 좋아하고 아멘으로 불러온 찬송들이 사명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한 시점에 또 이렇게 연이어 나오게 됐다. YouTube 알고리즘조차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과 섭리 같았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명에 대한 확증을 주신 오전이었고, 마음과 삶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아멘 아멘이다. 일평생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과 힘과 목숨을 다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길 원하며 아멘 아멘이다.

[‘24/10/20]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참석. 강부호 목사님 기도 인도 말씀 중: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연합 대회도 많지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마땅히 또 소리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속히 자유가 오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소리를 높이게 하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먼저 깨어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부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설교 제목: “세상에 녹슬지 않는 증인” (말씀본문: 사도행전 23:1-11, 31-35)):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주시고, 아직 로마는 아니지만, 가이사랴라는 중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한 그곳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한 걸음을 옮기셨을 때, 그곳이 아직 최종 목적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이동시키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운반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곳에서 완전히 폭발시킬 그 장소에 도달하기까지 이동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주신 그 복음이 그날 그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반가운 것은,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점차 점점점 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임하셔서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다음 지역으로 나아가듯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내 삶에서 위축되거나 후퇴하려고 하거나 멈추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 주시면서 올바른 지역으로 올바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시켜 주실 거예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운반시키고자 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24/11/6]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예배 기도 중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고, 이와 함께 요즘 묵상하던 아래 구절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는 믿음도 생겼다.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갈 것이다. 넌 나의 친구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눅 15:4-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 18:17-18)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출 33:11-17)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5-17)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24/11/26]

양재 온누리교회 강부호 목사님 오늘 자 새벽예배 기도회 인도 중: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자들 찾으시는 주님. 용사들을 찾으시는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때에 쓰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모처에서 양육하고 계신 당신의 사람들, 용사들, 장군과 같은 자들, 느헤미야 같고 요셉과 같은 자들. 주님, 그들이 능히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전면에 등장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날 나는 통일부, 외교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HRNK),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틀에 걸친 <202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 중이었다. 이날 모의재판을 마치며,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자들에게 살해·감금·폭행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점이 확인된다"며 "김정은을 원심에 회부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24/11/27]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설교 본문 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 준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네가 그것들을 뽑고 붕괴시키며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렘 1:4-10, 우리말성경)

그리고 요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게 계속 마음을 주신 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 18:31-36)

[’24/11/29]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과 나의 기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8-9)

하나님께 리더십을 배우고 통치를 배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공의와 은혜의 통치를 본받아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일을 위해, 보다 더 전면에 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동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썩어가는 것을 위해 썩어가는 일만 하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4/12/4]

양재 온누리교회 저녁 수요예배 때 기도 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현기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들어 사용하리라.” 아멘.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엄 선포부터 해제 등 혼란한 나라의 상태 관련하여 주신 말씀과 마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대하 7:13-1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 147:5-12)

‘나 자신과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회개 기도를 하고,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나 자신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부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바라보며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치와 임재와 다스리심이 나의 삶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충만하고 편만하기를 전심전력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뤄지길 기도하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아멘.

[’24/12/8]

지난 화요일 밤 계엄이 선포되고, 다음 날 새벽 계엄이 해제되며, 오늘 오전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많이 했던 거 같다. 계엄 선포 후 해제 전에도, 해제된 뒤에도 계속,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뜻만이 세워지도록, 이 나라에 질서와 화평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특히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악한 계획과 세력은 멸절되고, 오직 의인들이 득세하고 위정자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뤄지도록 등을 놓고 계속 충심으로, 눈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

오늘 새벽에는 꿈에서 여당 대표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저 상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꿈을 꿨다.

어떤 특정 정치인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공의와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과 무궁한 지혜와 역사의 최종 주권자 되심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부탁드린다.

[’24/12/14]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staff 기도회 중 성령수련회 담당 목사님 설교 본문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17)

그리고 어제오늘 다양한 설교를 통해 듣고 마음에 묵상되는 구절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 11:2-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18:17-19)

[’24/12/18]

양재 온누리교회 저녁 수요예배 설교 본문 말씀 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삿 6:6-12)

그리고 이날 찬양『주님 나라 임하시네』(고형원 작사, 작곡) 중: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네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해 서라 강한용사여
주님이 너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24/12/27]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오후 3시 예배 참석. 예배 설교 본문 중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 된 구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0-21)

하나님께 통치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며,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선한 통치의 통로로 쓰임 받길 기도했다.

그리고 이날 기도원 강대상에 붙어 있던 기도원의 요즘 표어 성경구절인데, 이 또한 내가 요즘 구하던 기도 제목이기도 하여, 아멘으로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이날 저녁 온누리교회 지체인 형제님 한 분께서 동일한 이 구절을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내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증으로 아멘으로 받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상 4:10)

내게 주시는 지경 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길, 맡겨주신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기도한다.

['24/12/28]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staff 기도회 중 성령수련회 담당 목사님께서 개인 개인 안수기도해 주시면서 내게 안수기도하실 때 해 주신 기도:

"하나님, **최전방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전방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 개별적으로 다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해주셨고,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뵌, 이번에 새로 staff 으로 참여하게 되신 분도 있었는데 자기 상황에 딱 맞는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신기해하며 위로를 받았고, 내 아내도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을 기도 때 주셔서 신기해했다. 내게도 내게 큰 위로와 감사와 아멘이 되는 기도였다.

위 안수기도 후에도 내게 해 주신 안수기도 내용처럼 '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히시고, 최전방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확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한 전파를 위해, 넉넉히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며, 다윗처럼 세워지고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엇보다도 남은 일평생도 오직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이 나의 사랑과 소망과 의미와 행복의 전부이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란 걸 하나님도 아시오니,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으로 영원히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날 설교를 듣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던 중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도 강권적으로 부어지며 눈물이 흘렀다.

['24/12/31]

집에서 남율이를 돌보며 둘이 거실에서 오디오 성경을 누가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절 같다는 감동이 들어 적어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눅 22:28-30)

['25/1/1]

새벽 2 시 반경 문득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오디오 성경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듣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겠단 생각이 들어 잠잠히 기다렸는데, **"통치의**

동역을 배울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 같아 새벽 3시 34분에 카카오톡으로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오늘 이따 오전에 가정예배 때 가족들과 ‘올해의 말씀’을 뽑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맞다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도 확증을 달라고 기도했다.

오전 10시쯤부터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남율이와 새해 첫날 오전 가정예배를 드렸다. 『생명의 삶』 큐티 오늘 자 본문(요한복음 1장)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서로 말씀 묵상을 나눈 뒤,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며 합심 기도했고, 그 뒤 ‘올해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주시고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뒤 ‘교회친구다모여 2025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2025 송구영신예배 말씀뽑기)’을 통해 각자 ‘올해의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가졌다(나와 아내는 각자의 말씀을 직접 먼저 뽑고 난 뒤, 나는 남율이를 대신해서 남율이의 ‘올해의 말씀’을 이어서 뽑았고, 아내는 태중에 있는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둘째의 ‘올해의 말씀’을 이어서 뽑았다). **내가 뽑게 된 나의 ‘올해의 말씀’**(교회친구다모여의 ‘2025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온라인 링크를 누르면 수많은 성경구절 중 무작위로 선별되어 주어지는 방식) **구절은 시편 2편 7절인데**, 앞뒤 구절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 2:6-12)

2014년 1월 1일에는 ‘올해의 말씀’으로 지구촌교회 신년예배에서 시편 2장 8절을 뽑은 적도 있었다. 특히 오늘 뽑은 시편 2편 7절의 전후 구절과 함께 볼 때, 오늘 새벽 ‘통치의 동역을 배울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도들을 했고, 오늘 저녁 수요예배를 가서도 비슷하게 또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시편 말씀을 보면, **나를 세우시는 분도, 낳으시는 분도, 내게 유업을 주시는 분도,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권세를 통해 맡겨주신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길,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접하게 되길,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올 한 해, 나의 남은 여생과 삶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를 배우며,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그분이 내게 맡기시는 지경과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확장과 전파의 선한 통치의 통로로 나의 삶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백두에서 한라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와 통치가 현현하고 편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길 기도하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영구히, 돌이킬 수 없이, 헌납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25/1/4]

남율이 돌 감사예배(돌잔치 겸)를 양가 가족들과 모여 드렸다. 내가 예배를 인도했고, 돌잔치 사회도 봤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 정했던 말씀 본문과 남율이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예배 가장 첫 순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길, 주 예수님만이 은혜와 자비로 통치해 주시길, 우리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길" 합심하여 가장 먼저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돌 감사예배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돌 감사예배"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 후 찬송가 502 장 "**빛의 사자들이여**"를 부르고, 아래 성경 말씀 돌아가며 한 구절씩 낭독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곁에 섰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땅에서 나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요 3:26-36, 현대인의 성경)

남율이(영어 이름은 세례 요한을 본 따 'John')를 위해 요청한 **중보기도** 제목은:

1) **남율이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신랑 들러리)로 쓰임 받길**
2) **남율이의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흥하고 번영하며, 남율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큰 사랑받길**
3) **남율이가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배 후로도 기도와 축복이 풍성한 돌잔치였다. 아멘.

['25/1/5]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3 부예배 이재훈 위임목사님 설교("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4:1-5))와 기도 내용 중:

설교 본문 말씀: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 만 4,000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 만 4,000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 14:1-5, 우리말성경)

설교 말씀과 기도 내용 중: "**역사의 중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보다는 주로 어린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죽임당하신 어린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장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양이 시온산에 서있고, 그와 함께 14 만 4 천명이 서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온산은 어린양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u>시편 2 편 6 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u>**. 14 만 4 천명은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이 14 만 4 천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14 만 4 천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수인 12 의 자승에 속한 이 14 만 4 천명. **그것은 하늘의 속한, 이 땅에서 사탄과의 영적전쟁에서 어린양과 함께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왜 이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양 때문이지요...

어린양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 한 분, 한 위격 이십니다. 우주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 장 17 절에서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 장 9 절, 10 절에 보면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 장 9 절 10 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어린양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어린양의 죽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를 회복한 것을 기뻐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 장 14 절을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어린양의 피, 그 붉은 피로 옷을 씻었는데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린양을 따른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 흰옷은 어린양의 피로 씻어진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 이들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이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자들은 정결한 삶을 삽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같은 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린양의 죽음을 통해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을 따라가며 믿음의 인내로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로 인내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는 어린양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어린양처럼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어린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양을 따르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린양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주님, 어린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담대하게

이기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 년도를 시작하며 올 한해는 어린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초반 시편 2 편 6 절 인용하실 때, 그리고 **특히 마지막 기도하신 "주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 작년 연말과 올해 1 월 1 일 기도 때 들은 말씀들과 작년 12 월 31 일 와닿았던 구절과 1 월 1 일에 뽑았던 '올해의 말씀' 시편 2 편 7 절 그리고 2014 년 뽑았던 '올해의 말씀' 시편 2 편 8 절에 대한 또 한 번 확증으로 여겨졌다.

['25/1/8]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님 오늘 자 새벽예배 본문 및 설교 중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근래 주신 마음에 확증같이 주시는 감동과 아멘으로 받은 말씀들(위 '24/11/27 일자
글에서 "요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게 계속 마음을 주신 말씀"으로 시편 18:31-36*을
기록해놨는데, 이의 사무엘하 22:34 병행 구절을 비롯하여 하박국 3:17-19 설교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오늘 목사님께서 시편 18 편 내가 받은 말씀과 비슷한 아래 구절들을 인용하여 선포하심):

*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 18:31-36)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 3:18-19)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삼하 22:34)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신 32:13)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 33:29)

['25/1/10]

오늘은 남율이의 첫 진짜 생일날인데, 신기하게도 지난주 토요일(1/4) 가족들과 함께한 첫돌 감사예배 겸 돌잔치 때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26-36 이었는데,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3:22-36 으로써 겹쳤다. 감사예배 때 정한 본문은 그냥 내가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으로 정했던 것인데,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감동을 확증 주시는 거 같아 감사하다. 오늘 아침 출근 전 남율이와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로 둘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출근했다.

['25/1/11]

오늘 오후에 갔던 키즈카페에서 정말 우연히 아내의 대학교 선배의 가정(부부와 자녀 두 명)을 만났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해외로 5 년간 선교를 나간다고 하였다. 나는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키즈카페 비용과 별도 선교 후원금을 계좌이체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 남율이 돌 감사 헌금을 따로 드린 것이 없는데, 이렇게 뜻깊게 내게 해주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다.

['25/1/18]

오늘 아침 집에서 온누리교회 토요주일예배 생중계를 남율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내일 일요주일예배는 현장 참석할 것이지만) 계속 기도하던 중 환상을 구하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환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 그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임하는 게 없던 중 곧 공기청정기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마쳤고, '내가 잘못 마음을 받았나?' 했었다. 그리곤 오후에 서재에서 컴퓨터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던 중 남율이가 내 서재에 들어왔길래 같이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을 한 번에 펼친 뒤 펼쳐진 시편 89 편 구절들을 11 절 정도부터 같이 읽어 내려갔다. 그때 곧 몇 절이 안되어 19 절에 "환상"이란 단어가 있었고,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시편 2:7 과도 함께 이어지는 것 같았다. 찾아보니 시편 전체에서 "환상"(NIV 및 KJV 버전으로도 "vision")이란 단어가 읽고 있던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여기 시편 89:19 한 번만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다(NIV 및 KJV 버전에서도 "vision"이란 단어가 시편에선 여기 89:19 에 한 번만 등장했다). 오전에 기도 중 말씀하신 주실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았다.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시 89:19-26)

['25/1/19]

새벽에 문득 3 시경 잠이 깨어 일어나서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10 주년 기념판, 이종태 역, IVP, 2009)의 마지막 한 챕터 남겨둔 것을 마저 다 읽었다. 그러고는 오늘 자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새해부터 듣거나 읽어오던 CGN(비영리 기독교 방송국) 일일 성경 통독 순서대로 19 일차 출애굽기 1~3 장을 읽었다. 그중 특별히 아래 구절들을 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동족임에도 반인도적 반국가단체의 속박과 억압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뺏긴 채 있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났다. 다 읽고 기도를 했다. 어제 받은 89 편과 시편 2 편을 놓고도 다시 한번 기도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2-10)

그리고 새벽 5 시쯤부터 다시 자는데, 꿈에서 나를 둘러싼 큰 두 원의 불(two circles of fire)이 생겨났다. 꿈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지’ 고민하다가, 달리 길이 없어서 불을 향해 걸어서 지나가고자 했다. 근데 꿈에서도 생생히 느껴진 것이 불로 지나가는데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전혀 타지를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불 원을 향해서는 더 담대히 지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시원한 느낌이 들고 전혀 타지를 않았다. 꿈에서 깨고도 이 장면과 느낌이 선명했고 아내에게도 어제 일부터 오늘 꿈까지 말해주었다. 먼저 마음에 환상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환상을 성경 말씀으로 명확히 해주시고, 또다시 다른 성경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신 후 꿈으로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 같았다. 나중에 보니 새벽 3 시경 나를 깨우셨을 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각 즈음이었다.

오늘은 양재 온누리교회 4 부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시작 때 매주 ‘공동체성경읽기’가 먼저 방송이 된다. 매주 5 분 정도 예배 시작 때 성경의 여러 신·구약 본문들 중 2 개씩 방송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오늘 새벽에 감동을 받았던 위 출애굽기 구절들을 포함한 출애굽기 3 장 1~12 절이 오늘 자 ‘공동체성경읽기’ 본문 두 개 중 하나로써 방송됐다. 새벽에 감동됐던 성경말씀과 이어서 꾼 꿈에 대해 또다시 확증 주시는 거 같았고, 신기했다.

그리고 오늘 강부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3) -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8-11)) 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10-11),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4-6) 구절들을 언급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고 왕이시며 구세주 되심을 끝까지 믿고 부인하지 않고, 죽도록 주 예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셨다. 예수님을 최고의 권세로 내세우기 시작할 때, 삶으로, 선포로써 예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낼 때, 그 공간에는 사탄은 거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는 통치의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된다고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갈 자들로 세워주시길 하나님께선 원하시는데, **모든 환란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져버리지 않는 자들**, 중심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확실한 기준으로 여기는 자들, 그렇게 입증된 자들에게 통치의 동역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다. 아멘이다.

['25/2/2]

오늘 참석한 양재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설교 본문 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계 2:25-28)

올해 '올해의 말씀'으로 뽑은 시편 2:7 에서 이어지는 시편 2 편 구절이 인용된 본문이다. 이로써 시편 2:7 은 2025 년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고, 시편 2:8 은 2014 년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었고, 올해 첫 주일예배(1/5) 때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님께선 시편 2:6 을 설교 초반에 인용 언급하셨었고, 2 월의 첫 주일예배이자 구정 이후 첫 주일예배인 오늘 예배에선 시편 2:9 이 인용된 요한계시록 2:18-29 본문이 설교 본문이었다.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간 내게 주신 시편 2:6-9 말씀에 대한 연이은 확증으로, 아멘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통치의 동역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거세고 강한 확장의 선한 통치의 통로가 되길 계속 기도한다.**

시편 2 편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올해 첫 주일예배 설교 중 인용된 구절)
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2025 년 올해의 말씀으로 뽑은 구절)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2014 년 올해의 말씀으로 뽑았던 구절)
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올해 구정 이후 첫 주일예배 설교 본문인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25/2/12]

양재 온누리교회 저녁 수요예배 중 앞에 펼쳐놓은 성경에서 아래 구절(특히, 27 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라는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왔다. 우리말성경이라 따옴표도 있어서 더 보였다. 그런데 이날 밤 잠을 자는데 13 일 새벽에 이 구절이 꿈에서도 나왔다. 꿈에서 '어! 아까 예배 때 읽은 말씀인데, 꿈에서도 보네!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따 일어나서 기록해놔야지' 했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둔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삼하 7:26-29, 우리말성경)

아멘.

['25/3/12]

양재 온누리교회 저녁 수요예배 기도 시간 중 기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중간에 '잠시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주시는 이미지, 느낌, 생각, 말씀들이 있는지 잘 들어보자,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게 어떤 강한 이미지와 마음이 떠오르며 아래 성경 말씀들이 함께 떠올랐다. 주신 이미지와 마음에 잘 맞는 성경 구절들이 함께 떠올라서 신났다.

내 안에 강하게 떠올랐던 이미지는, 특별히 한반도의 남쪽에서 암흑의 북쪽, 남쪽마저 거대한 쓰나미 같은 암흑으로 엄습하려는 북쪽의 거대하고 높은 어둠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이미지였고, 하늘에서부터 내 위와 나를 감싸는 뚜렷한 광선의 빛이 있었으며, 그 거대한 북쪽의 어둠, 나와 남쪽을 엄습하려는 그 어둠이 이 빛의 광선을 이기지 못하였고, 뚫거나 덮지 못하였으며, 내 위에서 나를 지켜주던 그 뚜렷한 빛의 광선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넉넉하게 나를 지켜주며, 예수님께서 내게 "내 안에만 거하고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그 거대해 보였던 어둠은 자신을 소진하고 맥없이 사방으로 스러져 온데간데없어졌고,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불꽃들로 점점 다 충만해져 한반도 전역이 성령의 불꽃으로 충만했고 환해졌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13:21-2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사 60:1-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 27:1-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 4:6-7)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2-41)

['25/3/16]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 거실에서 온누리교회 서빙고 일요주일 2 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현장 예배는 오후 1 시 50 분 온누리교회 양재 일요주일 4 부 예배에 나와 아내와 아들 남율이와 태아 남휘와 함께 참석),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5 장이었으나, 예배 마지막 헌금 및 축도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뜬금없이(?) 이사야 60 장 2 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도하셔서 놀랐다(설교 중에 이사야 60 장 말씀을 언급하신 것도 아니었다). 4 일 전 수요 저녁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 60 장 1-5 절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아멘으로 받았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죽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유다의 사자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5/3/21]

어제저녁 교회 순모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가 보내준 짧은 영상의 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 연설을 보다가 좋아서 전체 연설을 찾아서 특히 내게 감동이 된 부분을 유심히 듣고 text 로도 읽어보았다.

"Those who would trade our freedom for the soup kitchen of the welfare state have told us that they have a utopian solution of peace without victory. They call their policy "accommodation." And they say if we only avoid any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enemy, he will forget his evil ways and learn to love us. All who oppose them are indicted as warmongers. They say we offer simple answers to complex problems. Well, perhaps there is a simple answer--not an easy answer--but simple.

If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tell our elected officials that we want our national policy based upon what we know in our hearts is morally right. We cannot buy our security, our freedom from the threat of the bomb by committing an immorality so great as saying to a billion now in slavery behind the Iron Curtain, "Give up your dreams of freedom because to save our own skin, we are willing to make a deal with your slave masters." Alexander Hamilton said, "A nation which can prefer disgrace to danger is prepared for a master, and deserves one."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There i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 i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surrender.

Admittedly there i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in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and surrender.

If we continue to accommodate, continue to back and retreat, eventually we have to face the final demand--the ultimatum. And what then? When Nikita Khrushchev has told his people he knows what our answer will be? He has told them that we are retreating under the pressure of the Cold War, and someday when the time comes to deliver the ultimatum, our surrender will be voluntary because by that time we will have weakened from within spiritually, morally, and economically. He believes this because from our side he has heard voices pleading for "peace at any price" or "better Red than dead," or as one commentator put it, he would rather "live on his knees than die on his feet." And therein lies the road to war, because those voices don't speak for the rest of us.

You and I know and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If nothing in life is worth dying for, when did this begin--just in the face of this enemy? **Or should Moses have told the children of Israel to live in slavery under the pharaohs? Should Christ have refused the cross?** Should the patriots at Concord Bridge have thrown down their guns and refused to fire 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 **The martyrs of history were not fools, and our honored dead who gave their lives to stop the advance of the Nazis didn't die in vain.** Where, then, is the road to peace? Well, it's a simple answer after all."

- Ronald Reagan, Address on Behalf of Senator Barry Goldwater: "A Time for Choosing," Oct. 27, 1964, available at https://www.reaganlibrary.gov/reagans/ronald-reagan/time-choosing-speech-october-27-1964.

위 Reagan 대통령 연설과 함께 다음 누가복음 구절도 나의 Facebook, Instagram, Threads 에 올리고 잤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참고로 위 Reagan 대통령 연설 중 일부는 아래 Patrick Herny 주지사의 연설을 인용한 것도 알게 됐다.

"Gentlemen may cry, Peace, Peace-- but there is no peace. The war is actually begun! The next gale that sweeps from the north will bring to our ears the clash of resounding arms! Our brethren are already in the field! Why stand we here idle? What is it that gentlemen wish? What would they have? **Is life so dear, or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Forbid it, Almighty God! I know not what course others may take; but as for me,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 Patrick Henry, Speech to the Second Virginia Convention: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Mar. 23, 1775, available at https://avalon.law.yale.edu/18th_century/patrick.asp.

그러고는 오늘 아침 일어나기 직전 꿈을 꿨는데, 나는 꿈에서 북한의 북쪽 국경 어느 지역에 승합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 그곳에는 수백, 수천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낙담하고 혼란한 표정과 초점 잃은 눈빛,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어느 가건물 겸 운동장 같은 곳에 빼곡히 모여있었다. 이들을 태우러 트럭 같은 게 와서 10 명 정도씩 태우고는 계속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으로 가는 거 같았다. 꿈에서 '김정은 한 명 때문에...'라는 비통한 생각과 함께 그들의 좌절스러운 초점 없는 눈빛들을 보며 난 저절로 눈물이 났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서 다시 잠에 들 수 없었고, 바로 거실로 나와 오늘 자 새벽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열심히 북한정권의 몰락과 북한주민의 해방과 자유민주통일과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주된 역할을 위해 기도하고 출근했다. 그리고 오전 중 '북한 인권'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오늘 아침 뜬 연합뉴스 기사 제목이 "유엔 '북한, 극심한 주민 이동 통제로 탈북자 급감'"이었다. 내가 꿈에서 본 극심한 주민 이동 통제와 탈북에 대한 엄중한 단속 내용이 오늘 기사로도 보도된 것이다. 밤이 된 지금도 꿈에서 본 그 북한 주민들의 눈빛이 생생하다.

내일 토요일 다시 한번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서울 여의도로 나가야겠다. 이 삼천리 한반도와 부속도서 대한민국 전역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뤄지길,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해 목청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도래하길 기도해야겠다.

['25/3/29]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서울 여의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였다. 예배 내내 눈물로 나의 죄악, 교회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살려달라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더욱 기도했다. 산불을 꺼달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지켜주시고, 이 체제로 남북도 통일시켜 주셔서, 남북 통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과 독재를 위해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을 볼모 잡고 노예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몰락 파멸하고, 이에 부역하는 세력도 속히 다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림 받고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였다.

매주 토요일에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서울 여의도에 3 월 1 일 처음 나간 걸 시작으로 3 월 22 일과 오늘까지, 이번 달에 세 번 참석을 했다.

['25/4/13]

내일 저녁에 있을 온누리교회 Onnuri Gospel Project (OGP) 성경공부 온라인 미팅 본문과 교재를 예습하는데, 교재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매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원은 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익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자와 곰에게서 힘 없는 양 떼를 지켜 내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양들을 씻기고 돌보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시편 78 편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시 78:72).

정직한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자세를 궁전이 아닌 초원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를 들어,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 주는 부모는 그들의 초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을 위한 일임을 깨닫는다면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많은 직장인이 상사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장래성까지 없는 일을 하면 살고 있지만, 어디에서 일하든 신실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 '변화를 일으키기'를 열망하며 열심히 책을 읽고, 평생 쓸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들의 성품과 인내와 성실을 매만져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을 경멸하거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원망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LifeWay Adults,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 왕국의 성립』(청장년 인도자용), 오주영 역, 두란노, 2023, 52 쪽)

['25/4/14]

오늘 수업했던 온누리교회 Onnuri Gospel Project (OGP) 성경공부 교재 내용 중 아래 내용을 보면서 지난 '23/4/8,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JDS) 18 기 양재저녁반 '아버지의 마음' 수업에서 나에 대한 대언기도 중 다음 기도 내용이 더 명확해짐: "대단한 삶, 엄청난 인생,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난 한 번도 너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 적이 없다. 언제나 넌 나의 기쁨이니라."

[교재 내용]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원한 가치와 기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집을 짓느라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역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 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도우미'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공급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위해 세상을 구하러 가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따라 세상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면, 곧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면, 모든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죄의식의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일로 갈가리 찢기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옛 성도들은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분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LifeWay Adults,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 왕국의 성립』(청장년 인도자용), 오주영 역, 두란노, 2023, 80-81 쪽)

['25/4/20]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조장으로 섬긴 주말(1 박 2 일)이었다('22 년 6 월 18 일 처음 참석한 것 이후로 지금까지 총 9 번 성령수련회를 참석했고, 그중 오늘까지 7 번은 조장으로 섬겼다). 이번 수련회 저녁 기도시간 중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특히 집중하여 하였고, 수련회 교재 중 나온 아래 이사야서 구절이 특히 와닿았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15-17)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와 같을 것이며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성급한 자들도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말을 더듬는 자들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 때에는 어리석은 자나 사기꾼과 같은 건달들을 아무도 영웅시하지 않을 것이다**... 못된 건달의 주된 무기는 악이다.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는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한다.** 아무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제는 두려움으로 떨며 너희 옷을 벗고 허리에 삼베를 둘러라. **너희는 못 쓰게 될 좋은 밭과 포도원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 너희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무성할 것이며 쾌락을 누리던 너희 집과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궁전도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붐비던 성도 한적하며 요새와 망대가 있는 곳이 영영 황무지가 되어 들나귀와 양떼가 거기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때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사 32:1-17, 현대인의 성경)

['25/5/21]

얼마 전 연봉계약 갱신이 있었는데, 회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낮게 인상되어, 오히려 인사팀에서 실장님은 대표님들께도 다시 말해보라고 권면해 줄 정도였으나, 속은 많이 상하고, 곧 둘 째도 나오는 외벌이의 압박도 있었지만, 기도해 보니 하나님만 믿고 그냥 다투지 말고 수용하라고 하셔서, 수용했었는데, 정작 다른 임원들이 연봉 인상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임원들과 대표님들과 면담이 각자 잡혔고, 그 면담이 오늘이었던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래도 기왕 이렇게 면담 기회도 생긴 거 좀 진솔하게 터놓고 적극적으로 연봉 인상 어필 겸 하소연도 해볼까 했으나, 아래와 같은 오늘의 큐티 기도문을 되새기며 마음을 접었다. 실제 면담 때는 회사와 대표님들에 대한 좋은 점만 잘 말씀드렸다. 면담 때 업무에 대한 칭찬은 많이 해주셨으나, 특별히 연봉 인상 얘기나 성과 보수에 대한 특별히 자세한 말씀은 없으셔서(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은 두루뭉술하셨지만) 마음은 좀 상했으나, 오늘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에서 이번 조기대선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그 일에 대한 상심은 녹아 없어졌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불만스럽고 때론 억울하기까지 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게 하소서."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2025 년 5 월 21 일 자 QT '오늘의 기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와 복음과 구원 안에서 통일되어,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청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며, 이 말세지말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장의 강력한 전초기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오길. 특히 이 나라의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세력, 모든 불의와 위선과 법치 회피와 부정직과 불법과 간첩매국 세력과 국민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모든 세력은 훼파되고, 체제전복과 온 국민 노예화를 꾀하는 불법 반국가단체 북 조선로동당 정권은 속히 붕괴되며, 오직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 국민의 양심을 깨우시고 지혜와 분별을 더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아멘 아멘.

['25/5/24]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조장으로 섬긴 날이었다('22 년 6 월 18 일 처음 참석한 것 이후로 오늘까지 총 10 번 성령수련회를 참석했다). 어제저녁, 가정예배 드리면 어제 자『생명의 삶』QT 본문(민수기 27:12-23)에 대해 특히 아래 구절을 바탕으로 아내에게 나의 묵상을 나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민 27:18)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지도자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주시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 여호수아 그는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던("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33:11)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가나안 땅 정탐을 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믿은 믿음의 사람이다. 즉,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이전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은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취지로, 특히 '회막에서 남아' 예배하는 것을 언급하며 묵상을 나눴었는데, 오늘 성령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수련회 교재 안에도 위 민수기 27:18 이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이 구절을 특별히 길게 강조하시며 어제 자 QT 본문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출 33:11 절도 스크린에 띄우셔서 함께 말씀하고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분 이거 듣게 하시려고 오신 거 같다'며, 그전 수련회 때들과 달리 유독 이 두 구절을 설명하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확증 같았다. 어제 자『생명의 삶』해설에는 출애굽기 33:11 얘기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다. 그럼에도 어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주시려고 오늘 오게 하신 거 같다'고 강조하시는 것에서 놀라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다.**

오늘 수련회 기도 시간 때도 앞으로 나의 여생 오로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사명,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물론 조원들을 위한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와 구원이 충만하고 편만한 통일 대한민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천국 영생을 누리는 우리 국민들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도 기도했다. 그러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5/28)로 예정돼 있는 둘째 아들 김남휘 출산 순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형 김남율과 우애 좋게 지내며,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우가 형을 잘 따르고 섬기며, 형이 아우를 잘 챙기고 돌봐주는 그런 우애가 좋은 형제가 되길,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름처럼 남율(남쪽의 성령의 불), 남휘(남쪽의 성령의 바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크게 사랑받길 기도했고, 수련회 마치고 목사님께도 위와 같은 남율과 남휘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도도 받았다.

['25/7/18]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어제 오후 3 시 예배, 오늘 오전 11 시, 오후 3 시, 오후 7 시 30 분 예배를 드렸다. 우리나라와 나의 직장과 부부 관계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들과 큰 부담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고 기도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개입과 인도하심이 우리나라와 나의 진로와 부부 관계에 임하기를, 우리나라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마지막 7 시 30 분 예배 마치고, **"끝이 시작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지고 옮길 것이다"**와 같은 말씀을 이틀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 같아 적어 두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증을 달라고 구하고, 요즘 꽂혀있는 주기도문 앞부분(아래 7/21 자 내용 참조)을 풍성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25/7/19]

어제 주신 말씀들에 확증으로 다가 온,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내용 중:

"깨진 마음을 품고 미련에 잠겨 있는 대신, 소망으로 새로운 축복을 꿈꾸며 하나님과의 미래를 그려 보라. 주님이 주실 것들에 집중하라.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의 크심을 더 묵상하라. 주님이 주신 비전이 더 선명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자 큐티 '묵상에세이' 부분 – 궁인,『하나님의 방식』, 두란노)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질서 있게 진행되며,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요 온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오늘 자 큐티 '한절 묵상' 부분)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포로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직접 보여 주시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자 큐티 '본문 해설' 부분)

어제 주신 말씀들에 확증으로 다가 온, 'CGN 생명의 삶' YouTube 채널 영상*의 오늘 자 생명의 삶 큐티 관련 설교 및 기도 내용 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의 터널과 좌절의 늪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나갈 때가 있고 **터널은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들을 향한 **미래의 희망**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장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고 오늘을 담대하게 오늘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장래 희망과 소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Tube 내 'CGN 생명의 삶' 채널에 있는 "[생명의 삶 큐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 에스겔 1:15~28 | 백상욱 목사 | 250719 QT" 영상 (2025 년 7 월 19 일 업로드, 14 분 6 초 분량))

['25/7/20]

양재 온누리교회 일요주일 4 부예배(오후 1 시 50 분) 김남휘* '신생아축복기도' 이재훈 위임목사님 축도: *(金(성씨 김), 南(남녘 남), 煇(빛날 휘, 동시에 바람 소리의 의성어로서도 '휘'를 택함, '남쪽의 성령의 바람'이란 뜻)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기 남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되 믿음의 가정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세상에 보내실 때 계획하신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 주셔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모든 성도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제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통해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21]

7/18 주신 말씀들에 확증으로 다가 온, 오늘 자『생명의 삶』큐티 본문 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겔 3:14)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참석. 설교 말씀 성경 본문: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삿 15:18-19)

그리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셨다는 감동이 온 성경 말씀과 마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렘 31:23-25)

"편히 쉬거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요즘 꽂혀있는 주기도문 앞부분을 풍성히 기도하며 작성해 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의 아버지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절대 주권자 대주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최종 주관자이시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사람과 만물, 자연계와 영계, 만유 위에 유일한 최종 주권을 가지신,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아버지의 뜻과 지혜대로 주관,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생명과 지혜, 성실과 신실, 용서와 관용, 거룩과 평화,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완전하신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탄식, 작은 신음과 고백까지도 다 들으시고, 나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으로 친히 나를 품고 책임지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과 복락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홀로 존귀하게 좌정하시며, 만유를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삶과 존재 깊은 곳에 친히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인격적이시고 나와 늘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자 친밀한 아빠 아버지이시며, 이로써 더 이상 내게는 바랄 것이 없는 나의 사랑의 전부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주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마땅히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인류와 만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감사와 경배를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과 마음과 생각과 온 존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산 제사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주를 진심으로 찾고 부를 때마다 구원을 얻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불의와 거짓, 탐욕과 위선, 부정과 부패,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진리, 사랑과 평화가 이 모든 죄악과 악의적 살인과 음란과 어둠을 몰아내고 임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만이 내 안과 이 땅에 광명하게 임하고 실현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와 아버지의 천국의 아름답고 거룩한 질서가 내 안과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고 이뤄지며, 주께서만 영원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길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사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나라가 내 마음과 영혼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충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권력, 하나님의 양 떼를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마귀에게 부역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부정하고 부패한 죄악 된 세력, 악한 궤계와 거짓 음모, 이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좌초되고 파쇄되고 박멸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진리의 빛과 의의 통치만이 내 안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 되심이 크게 선포되고 영접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마땅히 가장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도래를 가장 열망하는 나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내 안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내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모든 죄악과 더러움, 어둠과 악함은 모두 힘을 잃고 씻기고 제거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하심, 거룩한 뜻과 다스리심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주님 뜻을 가장 기뻐하고, 진심으로 갈망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된 욕심과 패역한 뜻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회개에 부지런하고,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삶에 풍성히 맺히며,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뜻과 임재만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존재와 삶에, 우리 가정, 교회와 일터,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고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와 거룩한 뜻과 통치만이 내 안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 위에 편만히 이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뜻과 계획, 부정과 거짓, 패역함과 완악함, 모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과 온 세상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박멸되며,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거룩한 뜻과 임재만이 내 안과 우리 삶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고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5/7/23-24]

잠이 안 와서 읽은 오늘 자 성경어플 본문 삼상 2 장 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삼상 2:8-10)

그래도 밤 12 시 넘어도 잠이 안 들어서(7/24 오전이 됨) 아예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고 읽어오던 시편을 순서대로 읽는데 곧 113 편 내용 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시 113:7-8)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높여주시려는 거 같아 감사하다.

['25/7/25]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마치고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는 음성과 함께 지난주 7/18 부터 어제까지 주신 말씀들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의 믿음을 주셨다.

['25/7/28]

오늘 성경 묵상 중 특별히 내게 주시는 듯 감동으로 와닿은 구절들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절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수 14:8-14)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 118:5-28)

['25/7/29]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설교 말씀 성경 본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눅 5:5-7)

['25/7/31]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 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아멘으로 받은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 27:28-29)

"May God give you of the dew of heaven and of the fatness of the earth and plenty of grain and wine. Let peoples serve you, and nations bow down to you. Be lord over your brothers, and may your mother's sons bow down to you. Cursed be everyone who curses you, and blessed be everyone who blesses you!" (ESV)

['25/9/13]

온누리교회 성령수련회 조장으로 섬긴 하루였다. 오늘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나의 기도: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 3:8)

“내 영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25/10/25]

아침에 기도 중에 큰 은혜 받은 찬송. 특히 아래 밑줄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과 감동이 충만히 차오르며 하염없이 울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 CCM찬송『아주 먼 옛날』(원제: 당신을 향한 노래)(천태혁 작사, 진경 작곡) 중

[’25/12/17]

오늘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 기도 시간 중 오늘도 나의 선교지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와 은혜와 정의와 구원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편만하길, 이 땅 한라에서 백두 곧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통치가 충만하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전적인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길, 그러한 성령의 큰 역사와 영적 대부흥이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궁한 은혜에 비하면 작은 화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를 위해 순교까지 각오하겠다고 하며 기도하는데 떠오른 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4-26)

[’26/1/1]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 3:2-3, 교회친구다모여 통해 ‘올해의 말씀’ 말씀 카드로 뽑음)

1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 *연합의 보호*

- 내 생명은 단독으로 노출되지 않음
- 그리스도의 생명·의·지위에 결합
- 공격하려면 그리스도를 먼저 넘어야 함 → 불가능

2 In God (하나님 안에) — *주권의 보호*

- 최종 관할권이 하나님께 있음
- 세상·사람·사탄·상황이 판결권 없음
- 생명의 결론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사항

👉 연합(With Christ) + 주권(In God)
= 접근 불가, 변경 불가, 취소 불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호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봉인된 생명
I am doubly protected—with Christ, and in God.

“나는 너를 방치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맡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감추신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에 안전하게 맡기신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관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상황이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성과와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나님 자신의 책임 아래 두셨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존이다.

내 생명은 내 손에도 없고 세상의 손에도 없으며 심지어 상황의 손에도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곧 잃어버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8-30)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먼저 안전하게 감추신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심을 앎.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추구함.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 2:16)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었고(취소되지 않는 생명, 빼앗길 수 없는 생명), 나의 인생의 최종 판결과 도착지는 이미 하나님 손에 있으며(성공·실패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됨), 지금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과정의 한 장면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완전한 드러남은

아직(그리스도 재림과 영화의 때가 완전한 드러나는 때), 그러나 결론은 이미).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결과가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늦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게 쓰시기 때문이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이전에 내 생명은 세상의 평가, 성취·실패, 죄의 정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지만, 현재와 영원히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봉인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관됨. 더 이상 세상이 최종 판단자가 아님. 상황이 생사여탈권을 가지지 않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2-14)

내 생명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음.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합됨.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생명·지위가 나의 것으로 법적·존재론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 2:6-19)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내 생명에 법적으로 적용됨.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 나도 죽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 나도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 내 생명도 거기 속함. 이건 단순 위로가 아니라 접근 불가 상태 선언이다. 사탄, 세상, 사람의 평가, 실패, 죽음이 내 생명에 직접 접근 불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6-23)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지금 내가 흔들려도 생명의 핵심은 건드릴 수 없음. 인생의 결론은 외부 변수로 변경 불가. 나의 생명 공급원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내가 속한 관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확정적으로 바뀌었음.

아멘.

《VIII. 리더십과 팔로워십》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 16:7)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 17:18-19)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 144:1-2)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3-45)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8-12)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4-17)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0:27-28)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14-15)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3-26)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빌 2:5-9)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 4:14-16)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벧전 5:2-4)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1-2)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9-1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3)

#
<육아와 정치>

육아와 정치는 닮은 것이 많고, 좋은 부모와 좋은 정치인도 닮은 게 많다.

1. 좋은 부모는 아이의 의사(意思)와 심기와 처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살피고 보며 듣는다. 민심이 천심, 백성이 하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vox populi vox Dei”, “sovereignty of general will”, 국민주권, 등등이다.

2. 단, 위 1 번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무례하고 무질서하며 방종과 어리석음 가운데 크거나 그런 경향에 치우치지 않도록(즉, “다수의 독재”, 포퓰리즘, 선동, 폭동, 중우정치, “tyranny of the majority”, “idiocy of the masses”, “the war of all against all” 등이 되지 않도록), 좋은 부모는 아이가 단순히 근시안적, 1 차원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유익한 것을 자발적으로 원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를 살며시 지혜롭게 양육하며 인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는 밥 대신 과자만 계속 먹고 싶은 경우, 과자를 강제적으로 못 먹게 하며 무조건 때리고 겁박하며 밥만 먹게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비인격적, 폭력적인 독재이고(물론 이런 독재의 경우 아이의 존재조차 자신의 잇속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독재가 많겠지만, 실제 정말 선의의 독재라고 하더라도 결국 아이 관점에서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라면, 이는 실패한 양육이다). 그렇다고 과자를 무조건 계속 주는 부모라면, 이 또한 무책임한 방임이자 면피, 회피성 보신주의의 배임이고 또 다른 식으로 폭력적인 부모이다.

좋은 부모는, 애초에 과자라는 것을 아이가 어느 정도 절제력과 사리분별을 갖췄을 때 아이에게 소개해 줄 것이고, 그러한 절제력과 사리분별을 갖추도록 건강에 무해한 정도의 과자의 적정한 양과 종류, 과자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대체재 등을 인격적으로 ‘nudge’하고 지도편달 해주며, 식품영양 관련 재밌고 흥미로운 다채로운 교육과 훈련을 함께 기획하고 동참하는 등 아이 스스로 현명하게 식단을 구성하고 취사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것이다.

3. 좋은 부모는 아이와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를 통해, 아이가 말로 제대로 표현 못 할 때라도 아이를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며, 아이가 깨어 있을 때뿐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자세히 살피고 아이를 보고 들으며, 아이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해한 뒤, 아이가 울기 전에, 또는 우는 시점에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한 발짝씩 앞서가며 준비한다.

4. 그럼에도 때로는 어린아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백신 주사를 맞는 상황과 같은 경우, 좋은 부모는 더 큰 인내와 더 큰 섬김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아이를 휘감고 덮어서, 곧 다시금 부드럽고 말랑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도록,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언젠가 아이가 백신 주사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좋은 부모라면 때로는 아이에게 전부 이해받으려는 욕심보다도 내가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땅히 해줘야 할 것을 해줘야만 하는 고독한 의무 이행도 피하지 않고 할 것이다.

5. 육아에서 센스와 기술이 기세와 사랑의 열정만큼 중요하다. 사실 편안한 육아를 위해서는 센스와 기술이 더 중요하나, 사랑이 없는 센스와 기술은 결국 이기적으로 변질되기 쉽고 아이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 하며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기에, 결국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사랑은 결국 지혜로운 답들도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6. 건강한 사랑하는 마음은, 집착의 사랑, 즉, 내 중심적 나의 위로와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를 잘 돌보고 부모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신의성실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맡겨주신 아이와 사명을 대하는 것이 숭고하고 건강한 사랑일 것이다.

7. 훌륭한 육아에는 사랑의 열정만큼 지혜로운 절제도 중요하고, 힘의 절제만큼 부드러운 열정도 중요하다. 훌륭한 육아란, 부모가 굳건하고 든든한 반석과 울타리인 동시에 그 안에 풍성한 아늑함이 돼 주는 것이요, 승전하는 군대의 앞장서는 듬직한 대장이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어린 양을 두 팔로 안고서 인도하여 부드럽게 누이고 재워주며 먹여주고 토닥이며 트림시켜주는 따스한 목자와 같은 것이다. 즉, 이미 위 2 번부터, 아니 이미 1 번부터도 느꼈을 수 있듯, 사실 온전한 육아, 완벽한 육아는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만 가능하시다.

8. 고로, 언제나 나 또한 하나님께 양육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어린아이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와 맡기신 가정과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무궁하시며 무소부재 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 달라고 나 자신과 가정과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께 늘 의탁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들으며,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마음, 애천애인(愛天愛人)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나 또한 일평생 양육 받는 것이다.

9. 육아의 본질적, 궁극적 목적은 아이로부터 칭송받거나 금전이나 노동력을 갈취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아이가 나를 딛고 서서 건강하게 자립하고 완연하게 꽃 피고 만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어, 아이가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성한 아이가 또 그의 후대를 위해 기꺼이 좋은 거름이 되고 토양이 돼 주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사랑의 가정과 가문 자체가 곧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보상이 된다.

10. 본 리스트가 좋은 부모 자질에 대한 시작일지언정 결코 끝은 아닌, 나도 아이를 통해 좋은 부모의 역할과 자질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커가는 평생의 과정이기에,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육아에 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와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격과 좋은 자질, 덕목과 지혜에 대해 서로 배울 게 많은 거 같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9-12)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3-27)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5-28)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3-26)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 29:7-8)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1-2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엡 6:4-9)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행 17:24-28)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겔 16:4-14)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 11:3-4)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 1:31-33)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1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7-8)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14-35)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2-1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1-4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89:20-34)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 78:70-72)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행 13:36)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행 13:21-23)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29-36)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10-30)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
<권위와 순종>

순종은 이해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다. 신실하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당장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내가 인간적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열쇠인 것이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때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해야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인지, 그저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핑계 대려는 것인지를 정직히 돌아보아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죄와 허물로 죽은 나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하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교통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추구하고 자랑할 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 체계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미련하게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실상은 불순종의 근원 사탄에게 속아 사로잡히게 되는 상태이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죄된 불순종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과 지위와 권위와 자유와 행복을 회복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영혼을 의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의 영원하고 참된 복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벧전 2:13-19)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 13:1-7)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딤전 2:1-3)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3:1-7)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딛 2:9-10)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엡 6:5-8)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0-24)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5-6)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고전 16:14-16)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 13:17)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8-9)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 12:5-13)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4-36)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살후 1:7-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9-32)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롬 6:6-22)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3-9)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9-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벧전 4:16-19)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5-13)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전 9:26-27)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후 10:3-6)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 10:12-13)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5-27)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벧전 1:2)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1-4)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 8:11-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 11:8-10)

#

<즉각 순종 = 나의 유익>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어려워한다면, 뭔가를 대단히 착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잇속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을 해드린다는 대단한 착각이 있기 때문이다. 한낱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우리의 도움도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순종은 바로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가이드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 것이다.

순종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는 최선의 것을 받기 위한 통로이다. 내 뜻대로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순종을 할수록 내가 이득이고, 안 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내가 손해인 것이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릴수록 사실 나 자신이 가장 이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기회는 나로서는 가장 신나는 일인 것이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 내가 나를 포기할 때조차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며 챙기고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1] 그러한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말씀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해 덥석 붙잡고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네 위에 높이 걸려 있는 구름을 바라보아라. 네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겠느냐? 네 죄가 많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죄 때문에 해를 입을 자는 너와 같은 사람뿐이며 너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을 자도 사람뿐이다." (욥 35:5-8, 현대인의 성경)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 17:24-28, 표준새번역)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만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오늘날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장 높은 신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시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고아와 과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이 찬송할 분이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목적한 대로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겨우 70 명밖에 되지

[1] 《구원》장(章)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글 참조.

않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신 10:12-22,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부를수록 그는 점점 더 멀리 나를 떠나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내 팔로 그를 안았으나 내가 그를 돌보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끌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내가 구부려서 그들을 먹였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또 앗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전쟁으로 그들의 성들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부서질 것이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내가 다시는 나의 분노로 너를 벌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거룩한 자이므로 내가 분노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호 11:1-9,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애 3:31-33,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눅 13:34-35, 현대인의 성경)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삯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요 10:10-15, 현대인의 성경)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롬 8:32-39, 현대인의 성경)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 7:7-11, 현대인의 성경)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 11:28-30, 현대인의 성경)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러 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철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 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고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의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재난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여러분을 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의 곡식이 말라죽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전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여러분의 땅이 쇳덩이처럼 굳어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먼지와 모래 폭풍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뿔뿔이 흩어져 일곱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당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며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여러분의 시체를 먹어도 그것을 쫓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보고 미쳐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여러분의 온 몸을 종기로 덮어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땅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끌고 갈 것이며 거기서 여러분은 나무나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 각처에 흩어 버리실 것이므로 여러분은 모든 민족들에게 놀람과 비웃음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신 28:1-45,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댓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롬 1:21-5:11, 현대인의 성경)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롬 5:17-19,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히 12:1-3, 현대인의 성경)

#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두 주께 하듯>

보통 “업무 파악”, “조직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바뀐 거 같다. “조직 파악”, “업무 장악”으로 바뀌어야 할 거 같다. 조직은 누가 누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각자의 성향과 장단점을 파악해 각자에게 적합한 직군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수평적 관계이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만 하고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끊기 있게 몰입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장악하는 프로페셔널함이 있어야 하는 거 같다. 즉,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두 주께 하듯.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 23:8-1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 4:1)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3)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몬 1:16-1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딛 2:9-10)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2-24)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18-23)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엡 6:5-9)

#

<정상에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사랑하신 사람을 내가 누구이관대 내려다 보려는가. 영국 대(對)총리 질문회(Prime Minister's Question Time)를 보던 중 인기가 상승세인 자신감(자신에 대한 신뢰)이 넘치는 젊은 정치가의 총리를 향한 무례함과 조롱을 보고 든 생각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과연 내가 저 자리라면 어땠을지, 아니 저 자리도 못 되어서 이미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은근히 낮게 여겼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았다. 낮추어야 한다. 특히 올라갈수록 낮춰야 한다.

등산을 해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산은 올라갈수록 경사가 가파러지고, 산소가 희박해지며, 바람은 거세지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미리 몸을 낮추지 않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숨을 제대로 고르지 않거나, 방향과 행동 하나하나의 신중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넘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도중에 탈진하거나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에 가까울수록, 특히 정상에선 더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가 인간임을 자각하고 겸손으로 몸을 낮추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 12:23),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삼상 15:17),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시 31:23).

정직한 사람은 알 것이다. 자신이 정상에 가까이 올 수 있던 것은 결코 자신 혼자의 힘으로 가능할 수 없었단 것을. 연약하디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먹여주고 입혀준 부모, 타이르고 가르쳐준 선생님, 위로와 힘을 줬던 친구, 발전하게 했던 경쟁자, 때로 기막히게 허락된 행운의 축복들, 심지어 거저 타고난 좋은 기질과 성품, 등등. 이 모든 게 거저 허락됐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제아무리 노력을 해서 뛰고 날려고 한들, 악천후가 끼고 역사의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면 평생 제자리 걸음이나 퇴보만 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라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상에 가까울수록 자신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준 남을 위해, 시대를 위해, 역사를 위해,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낮추고 섬기며 거저 받은 만큼 거저 되갚으려 할 것이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대상 17:16, 새번역).

그러나 정직하기를 거부한 채 이 땅의 명예나 부에만 인생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성공"을 더해갈수록 쉽게 거만해질 수 밖에 없다. 자평하기에 인생의 의미를 성취해가는 위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의미를 둔 인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만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인생은 달콤함보단 씁쓸함이 크고, 너무 급히 지나가며, 결국

허무하게 떠나기 때문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사 44:9, 새번역) 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됨을 아는 사람은 이생에서 잠깐 있다 지나갈 자존심, 인기, 명예, 부를 끌어안는 데 급급해 하지 않는다. 설령 이들을 얻게 돼도 이에 도취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정작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신경을 쓰고 그분의 뜻을 좇아 순종하기에도 촉박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의미와 목적을 둔 지혜로운 순례자요 “나그네”(히 11:13, 벧전 1:17)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마땅히 부지런한,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할 것을 염두하며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찌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 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삼상 2:3-10)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 8:17-18)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 9:1-6)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대상 29:14 새번역)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7-29)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 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 15:33)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 18:12)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 4: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6)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5-28)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5)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8-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2-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3-26)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 2:5-9)

#
<한인학교 선생님을 두 학기 하면서 배운 것>

리더십의 기본은 눈맞춤이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장애를 느낀다면 오히려 잘난 게 독이다. 겸손할 때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롬 12:15-16)

리더십은 무조건적 사랑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 계산해서 내 이익부터 남길 생각하면 장사꾼은 될 수는 있으나 리더는 될 수 없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기에 변함없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인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 리더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의 잘됨을 원해 해’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고 힘을 합쳐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 4:14-16)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14-3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 1:24-26)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2-5)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2:15-18)

#
<우월하다는 것>

우월하다는 것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기고 싶을 땐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질 수 있는게 우월한거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벧전 2:16)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 9:19-22)

#
<여유의 리더십>

일만큼 사람을, 목적만큼 과정을, 효율성만큼 인간성을, 사역만큼 사귐을, 관철만큼 관계를, 결국 나의 입장만큼 상대의 입장을 살필 수 있기를. 잠깐의 시간절약이 결국 더 큰 낭비를 불러올 수 있고 잠깐의 우회가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 이처럼 초점을 나에게서 남에게로 돌려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성숙이 아닐까? 나 이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나를 포기하고 남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닌, 나를 극복하고 남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것.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마 5:5).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약 3:13)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3)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잠 11:17)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 14:29)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 37:11)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3-7)

#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QT 성경말씀 묵상: 2023 년 7 월 4 일 본문]
사도행전 7:17-50

[묵상]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1.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

2. 성실하여 세상 학문과 기술, 세상 사회에서도 실력의 탁월성을 인정을 받고, 오히려 세상의 수준을 능가한다(애굽 왕실 모세, 바벨론 왕실 다니엘과 세 친구, 전쟁에 능한 다윗, 유대교 학문을 통달한 바울, 에스더의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외모 등).

3.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현명하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에 현명한 의존이다.)

4.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선다. (현명하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에 현명한 겸손이다.)

5. 자신의 인간적 꿈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는다. (현명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헌신할 때만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심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6.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한 때와 지시를 기다린다. 자신의 출중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절제를 배우고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7.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뒤에는 내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언한다. 길이 없어 보이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당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공동체의 길을 인도해간다. 주님의 백성을 죄에서 빼내어 가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일궈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간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된다.

[적용]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 앞자리, 대장 자리를 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찬양하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시는 승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많은 동행의 추억, 낭만의 추억, 동역의 추억, 사랑의 사귐이 있는 복된 일생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추억과 사귐이 늘 실시간으로 계속되도록, 끊이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커져만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지도자 = 무한책임의 각오>

《선제적 낭만》장(章) <우리가 곧 국가입니다> 글은 국민을 향한 글이고, 반대로 위정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지경(地境)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본인에게 있다는 무한책임의 각오와 마음으로 주어진 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시 106:20-23, 새번역)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출 17:9-12, 새번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민 14:11-20)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신 9:23-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 32:7-3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1-3)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왕상 2:1-4, 새번역)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시 78:70-72, 새번역)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 마리를 바쳤다.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대하 1:6-12, 새번역)

"그 때에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 갔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대하 12:5-14, 새번역)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네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 버리겠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왕상 14:7-16, 새번역)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스물네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아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 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 버리겠다. 그리하여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왕상 15:30–16:3, 새번역)

"아비야왕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후로 10 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 이것은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었다. 아사는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파괴하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없애 버렸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으므로 아사는 이 기간에 유다의 성들을 요새화할 수 있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이 성들을 요새화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요새 성 건축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 만 명의 병력과 300 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그러자 아사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마레사 근처의 스바다 골짜기에 포진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이디오피아군을 치시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유다군이 그랄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치자 이디오피아군은 진멸하여 살아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유다군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물건을 노획하였다." (대하 14:1-13, 현대인의 성경)

"아사왕은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서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 아사왕은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는데 그들은 아사왕 15 년 3 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자기들이 빼앗아 온 약탈물 중에서 소 700 마리와 양 7,000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뿔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대하 15:8-15, 현대인의 성경)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이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사가 일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아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 년이 되는 해 발에 심한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 (대하 16:7-12, 현대인의 성경)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 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상 16:30-17:1, 새번역)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 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 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삼 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대하 17:3-10, 새번역)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대하 19:4-7)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 삼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 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 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 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므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왕하 18:1-7, 새번역)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왕하 18:5-7)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왕하 19:15-35)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 내겠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왕하 21:2-16, 새번역)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앗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 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 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하 33:9-13, 새번역)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 곳과 이 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 곳과 이 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네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 때에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 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대하 34:26-33, 새번역)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왕하 24:2-4, 새번역)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사십 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 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욘 3:4-10, 새번역)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단 9:15-2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 1:2-11)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 년부터 32 년까지 12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 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 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여섯 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 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 5:14-19, 우리말성경)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눅 23:33-34)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벧전 3:1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요 10:10-13)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7-4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딤전 2:4-6)

#
<견고한 왕위의 조건과 권력의 마땅한 지향점>

하늘도 무서워 않는 권력자가 아닌, 하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권력자. 나는 새도 떨어트리는 권력자가 아닌, 떨어진 새도 다시 날게 만드는 권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삼하 23:3-5)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잠 29:14)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 31:8-9)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잠 20:28)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잠 25:5)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 29: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잠 14:26)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애 3:34-3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 1:16-17)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 10: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 16:18-20)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출 23:6-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 17:14-20)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5-9)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17-22)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행 13:21-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렘 22:1-3)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 4:1)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엡 6:9)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후 10:8)

#

<리더십(Leadership)의 필수 선결조건 팔로워십(Followership), 즉, 청종(聽從)>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 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 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잠 8:2-21, 새번역)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왕상 3:9-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 11:2-5)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 17:18-20)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 28:1-14)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 30:15-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수 24:20-24)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 144:1-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62:6-8)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시 78:52-5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 31:3-5)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 18:43-5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요 13:16)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14-29)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6)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 4:1)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엡 6: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9-30)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4-5)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9-15)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4: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16-21)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9-17)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6-27)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9-15)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딤전 6:1-2)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 13:17)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2-6)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롬 13:1)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5:28-42)

#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3-21)

#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고전 12:3-13:8)

#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1-32)

#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3:12-4:2)

#
<유일한 리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 6:4)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 37:16)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 23:8-10)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13-16)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전 8: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5)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 2:1-12)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 14:13-14)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46:10-11)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 5:12-13)

#
<맺음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 15:1-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7-11)

《IX. 선제적 낭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 40:3)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7)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30-33)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1-23)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눅 4:16-2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눅 9: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눅 10:18-21)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 12:28-30)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19-22)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6-11)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4-36)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 2:9-10, 새번역)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행 4:26-3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3-24)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17-2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21-38)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엡 2:1-7)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 3:1-10)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 8:1-17)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후 10:3-6)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0-13)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2-26)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7-21)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일 3:18-19)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 5:18-21)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 (계 1:4-8, 현대인의 성경)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이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행 20:17-25, 현대인의 성경)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
<하늘의 지혜, 생명의 지혜, 살아있는 지혜, 살리는 지혜, 지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 11:2-5)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7-23)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네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 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네 마음 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 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 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 줄 것이다.” (잠 2:2-16, 새번역)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 4:5-9)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 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 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 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잠 8:1-36, 새번역)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 15:31-33)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 111:10)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 3:5-3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5)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창 41:25-43)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행 7:9-10)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그 도안대로 만들게 하시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그와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조각하고 도안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로 짜고 수놓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모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 35:30-35,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 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왕상 3:8-28, 새번역)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대하 1:7-12, 새번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왕상 4:29-30, 새번역)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상 10:23-25)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전 2:26)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단 1:17)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 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리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단 2:17-30, 새번역)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단 5:11-12, 새번역)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3-36)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롬 16:25-27, 새번역)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6:3-7:6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눅 21:10-19)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 2:3-10, 새번역)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이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이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전 1:21-31, 현대인의 성경)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 1:9-10)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엡 1:7-23, 새번역)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靈)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전 2:1-16, 현대인의 성경)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 16:13)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약 3:13-18,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약 3:13-18, 새번역)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3-18)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17-27)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마 11:19)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 3:12-17, 새번역)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 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딤후 3:14-17, 현대인의 성경)

#
<충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후 1:2-4)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2-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17-23)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9-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4-18)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행 13:52)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2-13)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16-21)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6-15)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9-31)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6-10)

#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2025년 7월 18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의 아버지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절대 주권자 대주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최종 주관자이시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사람과 만물, 자연계와 영계, 만유 위에 유일한 최종 주권을 가지신,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아버지의 뜻과 지혜대로 주관,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생명과 지혜, 성실과 신실, 용서와 관용, 거룩과 평화, 모든 선한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완전하신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탄식, 작은 신음과 고백까지도 다 들으시고, 나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으로 친히 나를 품고 책임지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과 복락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홀로 존귀하게 좌정하시며, 만유를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삶과 존재 깊은 곳에 친히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인격적이시고 나와 늘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자 친밀한 아빠 아버지이시며, 이로써 더 이상 내게는 바랄 것이 없는 나의 사랑의 전부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주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마땅히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인류와 만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감사와 경배를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과 마음과 생각과 온 존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산 제사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주를 진심으로 찾고 부를 때마다 구원을 얻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불의와 거짓, 탐욕과 위선, 부정과 부패,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진리, 사랑과 평화가 이 모든 죄악과 악의적 살인과 음란과 어둠을 몰아내고 임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만이 내 안과 이 땅에 광명하게 임하고 실현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와 아버지의 천국의 아름답고 거룩한 질서가 내 안과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고 이뤄지며, 주께서만 영원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길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사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나라가 내 마음과 영혼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충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권력, 하나님의 양 떼를 도적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마귀에게 부역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부정하고 부패한 죄악 된 세력, 악한 궤계와 거짓 음모, 이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좌초되고 파쇄되고 박멸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진리의 빛과 의의 통치만이 내 안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 되심이 크게 선포되고 영접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마땅히 가장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도래를 가장 열망하는 나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내 안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내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모든 죄악과 더러움, 어둠과 악함은 모두 힘을 잃고 씻기고 제거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하심, 거룩한 뜻과 다스리심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하여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주님 뜻을 가장 기뻐하고, 진심으로 갈망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된 욕심과 패역한 뜻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회개에 부지런하고,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삶에 풍성히 맺히며,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뜻과 임재만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존재와 삶에, 우리 가정, 교회와 일터,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뤄지고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와 거룩한 뜻과 통치만이 내 안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온 세상과 만물 위에 편만히 이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뜻과 계획, 부정과 거짓, 패역함과 완악함, 모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과 온 세상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박멸되며,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거룩한 뜻과 임재만이 내 안과 우리 삶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고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와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왜 보내져 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더 다양하게 경험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더 많은 추억과 낭만을 쌓고 증언하기 위해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8-26)

#

<충만한 의미와 선한 영향력>

그저 인기를 위한 인기 추구, 권력을 위한 권력 추구, 부를 위한 부 추구 등은 순환논리로써 공허하여 충만에 이르지 못하고, 바닷물을 끝없이 들이키는 듯한 갈증 유발과 허무함만 남을 것이다. 그 이상의 목표와 의미를 추구해야 인기도 권력도 부도 의미가 있어질 것이다. 결국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진 영향력의 선용이 될 수도, 오남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영향력을 애초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데 사용한다면, 부정부패를 줄여가고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데 사용한다면, 미움과 반목 대신 긍휼과 사랑을 위해 쓴다면, 무지와 몽매가 아닌 지혜와 지식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비로소 인기라는 영향력, 권력이란 영향력, 부라는 영향력 등이 선한 영향력으로 승화되는 것이지 않을까.

영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취지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 생각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선한 승전을 목도하며 기쁨의 승전가를 함께 힘껏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한다.

그냥 대외적으로만 외치는 선언적 의미와 목표가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충만히 채우는 의미이고, 나의 심장과 양심을 뛰고 설레게 하는 목표이어야만, 내가 나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종노릇 하지 않고, 도리어 선한 영향력으로 견고히 승화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나보다 더 크고 높으시며, 인류와 우주만물 전체보다도 크고 높으시며, 홀로 영원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는 의미와 목표이다. 그분의 크신 자비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는 신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충만한 의미이자,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 사명적 목표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며, 나의 일생과 전부를 그분께 의탁할 때 찾고 누릴 수 있는 사랑 충만한 의미와 일생을 헌신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 그리고 그럴 때 그분의 영원하고 무궁한 통치와 사랑 안에만 있는 항구적 평화와 참된 안식도 찾고 누리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완연하게, 편만하게, 영원토록, 내 안에, 내 삶에, 내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
<순환 1>

죽어 가는 것은 굳어가고, 살아나는 것은 말랑말랑해진다.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욕심은 생각과 마음을 굳게 하고, 타인중심적인 겸손과 사랑은 말랑말랑하게 한다. 고로, 우리 모두 살려거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겸손과 사랑으로 적극 순환을 이어가야 한다.

즉, 좋은 상사를 바라기 전에 좋은 부하가 되고, 좋은 부모를 바라기 전에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부인을 바라기 전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식을 바라기 전에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나라를 바라기 전에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이웃을 바라기 전에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회사를 바라기 전에 좋은 직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선순환을 이어가야 한다.

순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다. 세상 나라는 모두가 궁극적으로 맨 위에 있는 한 명을 위해 일하고, 그 맨 위 한 명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하나만을 가장 위하며 나머지 모두를 이용한다. 결국 이기심으로 인한 고인 물의 악취가 난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순종도 크게 사용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에 기쁨으로 화답하시며 친히 모두를 위해 기꺼이, 신실하게, 당신의 능력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양육하시며 일하여주신다. 그렇게 사랑의 교제와 순환을 이어가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향기로운 사랑의 선순환이 무한히 이루어진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지 않았다.' 그 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 25:31-46, 새번역)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롬 15:1-7,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막 10:42-45, 새번역)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삯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요 10:10-15,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2-15)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 2:3-8, 새번역)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7-1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17:22-26, 새번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고후 13:13, 새번역)

#
<순환 2>

잘 나갈 땐 자기가 잘났다며 하나님을 찾지도 감사하지도 않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순환, 곧 지옥이다. 잘 나갈 땐 정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 생기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선순환, 곧 천국이다.

이 순환 고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영원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재한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든, 이어진다. 어느 순환 고리에 삶을 태울 것인가? 당연히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에 태우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눅 16:19-31, 새번역)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 25:14-30, 새번역)

#
<그곳이 천국>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받는.
그리고 또다시,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이 사랑받는.
이렇게 사랑의 순환이 무한한 곳.

그곳이 천국.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일 4:11-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 3:12-14)

#
<그런 느낌>

휘몰아치는 폭풍 속 푸근함
빽빽하고 두꺼운 흑암과 구름 속에 올곧고 끊김 없는 강렬한 빛줄기
끝없이 광활한 파란색 속 밟고 만지는 곳마다 분홍색
압도적이나 아늑한
숨 막히도록 탁 트인 자유
끝없이 초월하면서도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런 느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증언돼 왔고 증언될 그런 느낌.
그곳에 당도할 그날, 하염없이 흐를 감격의 눈물과 벅찬 함박웃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6-10)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14)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7-18)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14-25)

#
<좁은 문>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하기 쉬운 일은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폭동의 기회만 찾고 있는 것이고, 하기 어려운 것은 팔 걷어 붙이고 무슨 일이라도 하러, 집 앞에 눈이라도 치우고 텃밭이라도 일구러 나가는 것이다.

몸이 축 쳐져서 기운이 없을 때 하기 쉬운 일은 계속 쳐진 상태로 끙끙대며 가만히 있는 것이고, 하기 어려운 일은 허리를 펴고 냉수 한 컵 들이키고 땀내어 운동 하는 것이다.

대화가 미궁으로 치달을 때 하기 쉬운 일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것이고, 하기 어려운 일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찬히 재접근하는 일이다.

우울하고 외로울 때 하기 쉬운 일은 내 안에 갇혀서 남을 탓하며 세상을 비관하는 것이고, 하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만든 감옥을 박차고 벗어나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하기 쉬운 일보단 하기 어려운 일이 정답이고 살 길일 때가 많다. 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 더 어려워져서 아예 못하게 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제적으로 도전해 보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 7:13-14)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
<이단, 사이비 OUT 1>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사이비 집단의 방역 대책 없는 대규모 모임과 보건 당국과의 비협조, 신도 중 전염병 확진자들의 동선 비공개(늑장 공개) 등으로 며칠 만에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증폭된 사례가 있는데, 교주(자칭 구세주)의 입장은 자기 교단이 이번 전염병의 "최대 피해자"라고 했다. 결국 교주 스스로 사이비인 것을 자인한 꼴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자의 속마음은 이렇지 않을까. '나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나도 이런 경우 속수무책이다. 내가 아무리 교주라 해도 내 신도들이 아파서 입원해 있으면 병문안도 못 간다. 나도 지금 노년이고 내 생명도 위태롭기 때문이다. 일단 나는 내 별장 겸 궁궐 방역 잘하며 잘 숨어 있으며 이다음에 다시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재기할지 고민해야겠다. 이번 건 좀 타격이 크다. 얼마 전에 내연녀도 나가서 나를 폭로 하고 다니더니... 다른 웬만한 사이비 교주 부럽지 않을만큼 호화롭던 이 교주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냐. 정치도 언론도 내가 그동안 많은 공들여 장악하려고 했는데, 한 줄 알았는데, 이 빠른 외면 뭐냐. 억울하다. 내가 최대 피해자다. 아아아악.'

이런 사이비 교주의 만행이 천하에 드러남으로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좋은 현상이다. 우리는 죽은 종교를 떠나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인간이 만든 종교 전통과 기관을 향했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 is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란 말이 있다. 맞다. 기독교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재정립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두터워져 가는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이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이다. 금번 기회들을 통해 다시금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거 같다.

참된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들: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2-3)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 8:14-17)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 20:32-34)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눅 7:12-23, 새번역)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 11:1-6, 새번역)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 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막 6:54-56, 새번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39-44)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눅 5:12-26,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 6:17-28)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3-1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 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마 23:1-15, 새번역)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눅 9:57-58)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 2:23-25)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 7:13-23, 새번역)

“그 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 강 건너 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요 10:24-42, 새번역)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5-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35-40)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행 2:29-41, 새번역)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행 13:6-12, 새번역)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 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일곱 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삯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 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벧후 1:20-3:18, 새번역)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벧후 3:16-18)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슥 13:1-2)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고후 11:3-15, 새번역)

“자녀 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일 3:7-8, 새번역)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16)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일 5:20, 새번역)

#
<이단, 사이비 OUT 2>

악랄한 독재자(극우, 극좌, 심지어 한낱 인간인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리 등 어떤 명분이든 내걸고 사실상 자기 개인의 탐욕을 극도로 최우선 하여 국민과 국가를 총동원하는 자) 만큼 사이비 교주들도 싫다. 아 결국 같은 본질인가? 그렇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벧후 2:1-3, 표준새번역)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마 23:8-12, 표준새번역)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 두십시오.” (엡 6:9, 표준새번역)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 18:10, 표준새번역)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마 20:25-28, 표준새번역)

#
<이단, 사이비 OUT 3>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v."의 왼쪽)과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 무속 신앙("v."의 오른쪽)의 차이를 열거해 보았다. 각 진영에서 맺는 열매들을 지켜보라.

사랑과 용서 v. 미움과 앙갚음
진실과 정직 v. 거짓과 미혹
이웃 사랑과 베풂 v.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
회개 v. 뻔뻔함과 남 탓
은혜의 선물과 감사 v. 공로주의와 치성
자발적 v. 선동과 협박
공급하고 세워주고 꽃피게 함 v. 착취하고 종속시키고 가스라이팅 함
은혜의 죄 사함 v. 죄책감과 정죄
건전과 거룩 v. 방탕과 음란
대화의 기도 v. 주술적 기도
배려와 섬김 v. 무례와 군림
외유내강 v. 온갖 있는 척, 센 척
겸손과 온유 v. 교만, 오만방자
사랑의 권면과 덕을 세우는 말 v. 막말과 폭언
양심 v. 탐심
교제 v. 조종
관계적 v. 미신적
인격적 v. 비인격적
이성 v. 비이성
지정의(知情意) 동원 v. 지정의 말살
경외 v. 공포
유일한 하나님 v. 여러 가짜 신(사실은 내가 신이 되려 함)
체계와 질서 v. 혼미와 무질서
선한 사랑의 삶의 열매 v. 선한 열매 없고 이기적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 v. 대상을 달래거나 협박하여 결국 나의 뜻 관철
아름다움 v. 역겨움
진실과 진리로써 지속가능 v. 일회적 사기 및 사기로 돌려막기
성실 v. 요행
근면 v. 게으름

화합 v. 분열과 난리
평안 v. 불안
풍성 v. 고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v. 꼭두각시 관계
죽음 앞에서 당당 v. 죽음 앞에 극도의 공포
생명 v. 사망
등등…

참된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며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간을 인간의 죄에서부터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부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친히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참으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잘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 22:18-20)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 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 18:9-14, 새번역)

“‘여러분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미래를 점치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를 죽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악한 자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은근히 유혹하여도 여러분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며 정에 끌려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감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를 사정없이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는 그런 유혹을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손을 대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소문을 듣게 되거든 철저히 조사해 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 주민들이 그 유혹에 빠져 다른 신을 섬긴 사실이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 성의 주민들과 가축을 모조리 죽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끄집어내어 광장에 모아놓고 불태우고 그 성에도 불을 질러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성이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그들의 물건에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 13:1-18,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다님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 19:31,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영매나 무당을 따르는 자도 내가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 20:6-7, 현대인의 성경)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쳐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레 20:26-27, 현대인의 성경)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자식들아, 이리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식이 아니냐? 너희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골짜기와 바위 틈에서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죽이고 있다. 너희는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을 주워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것을 너희 유산처럼 생각하여 거기에 술을 따르며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제사를 지냈으며 너희가 문 뒤에 우상을 세워 놓고 나 아닌 다른 자를 섬기며 나를 사랑하기보다 우상에게 너희 사랑을 바쳐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 너희는 감람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가서 몰렉 신에게 선물로 바치고 또 섬길 다른 신을 찾기 위해 사신을 보내 멀리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너희가 다른 신을 찾다가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 그 일을 계속하는구나.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이 신들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희 소행을 드러낼 것이니 너희 옳은 행위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너희가 수집한 우상들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은 바람에 날려가고 입김에도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아 내 백성이 돌아갈 길을 준비하라.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나는 영원히 다투거나 항상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의 영과 혼이 피곤하여 내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여 그들을 벌하고 버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내가 그들의 소행을 보았지만 그들을 고쳐 주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들을 모두 고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 57:3-21,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앗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호 14:1-9, 새번역)

#

<이단, 사이비 OUT 4>

오늘 뉴스에 특정 교회에서 몇 백억 원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얘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축과 신문 발행 명목의 헌금을 독촉한다는 얘기, 교회와 교회 사업들 전부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 불투명한 영리사업을 확장하는 얘기 등,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과 국민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설령, 이 모든 보도가 거짓이라 해도 이런 풍문조차 이미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도 죄송하고, 실제 영상에 담긴 그 목사님이 하신 덕이 안 되는 여러 폭언과 망동들만으로도 정말 죄송하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합과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착함과 절제와 관용과 기쁨과 평안과 나눔 등이 있는지.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께 심긴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면, 나타나는 열매들, 안 나타날 수 없는 열매들이다.

그리스도인인 나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어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북한인권 기자회견 갔을 땐 탈북민들 중 생명의 위협을 받아 신변보호관 사복 경찰이 각각 2 명, 3 명이나 붙은 분들을 봤다. 그 경찰분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실제 간첩이 많을 거란 얘기도 들었다. 이것도 너무 비극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이 죽이려 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은 북한 독재자이자 교주 단 한 명 때문이다.

다시금 나부터 스스로를 돌아본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 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베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 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 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 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사 58:3-11,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마 7:15-23, 현대인의 성경)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가 밤낮 비틀거리며 너희 예언자들도 너희와 함께 비틀거리므로 내가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니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살면서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다. 악하기는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이다. 내가 너희와 백성을 다 같이 벌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호 4:4-9, 현대인의 성경)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20-23)

#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지구적이다. 온 우주적이다. 죽었던 온 인류의 육체적 부활이요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사망의 폐지이다. 우리가 알던 천지가 개선 정도가 되는 게 아닌 아예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칭 "재림 예수"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존재임을 자처하며(자신도 죄사함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부인하거나, 자기 자신을 성삼위 하나님처럼 무결하고 전지전능한 신성의 하나로 추대하거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닌 자기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죄가 전혀 없으시나 인류 죄 대속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 하사 온 천하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인류의 메시야 되심을 나타내신 분) 외에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구원의 가교자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자체적으로 불멸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등) 교주임을 자처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는 그저 코미디일 뿐이다. 다만 그걸 다큐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이다.

하나님의 재림은 하나님 스케일이다. 한낱 인간의 스케일이나 약간의 영적 신비함 정도가 아니다. 전 지구적이다. 온 우주적이다. 온 인류적이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역사의 결산이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류에 대한 결산이다. 인간의 마땅한 태도는 오직 겸손과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는 마음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눅 17:20-35)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막 13:4-3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3-44)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마 25:31, 새번역)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0-11)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4-17)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1-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1-57)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딤후 3:1-7, 새번역)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 1:17-19)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벧후 3:9-14, 새번역)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7-8)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0:10-21: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0-25)

#

<사이비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마비시키고,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더욱더 깨어나게 하고 고도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과 논리도 함께 주신 분일 것이다.

물론 신으로서 인간의 제한적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더 크고 완전한 지성과 이성과 논리(우리가 볼 땐 초자연적이고 신비할 수 있는)를 구사하실 수 있겠고, 또 그럴 수 있어야 인간이 아닌 신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같은 큰 선물들을 매번 무시하고 갈음하는 '신비'만 있는 신이라면, 달리 말해, 이 신과 가까워질수록 나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에는 마비가 온다면, 이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극단적 자극과 신비만을 좇는, 그러면서 요행만을 바라는, 나의 나태함과 부정직함에서 기인한 내가 만들어낸 거짓 신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기에 낮은 차원의 종교일수록 사람을 생각 없는 바보로 만들고, 사이비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나는 종교가 없다"라 하는 사람도 이는 그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력에 대해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히 눈에 보이고 몸으로만 느껴지는 1 차원적 욕구와 현상만을 전부로 여기고 이에만 충실한 경우,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뛰어난 사고력을 갖췄다 하지 않고 동물에 가깝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동물적 욕구와 감각 이상의 세계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알아가려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인간다워진다.

창조주 되시고 선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입장에서도, 당신을 추종한다는 자가 지성과 이성과 논리도 마비된 채 맹목적으로 당신을 경배한다고 하면, 이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런 영광도 경배도 되지 않는, 어쩌면 도리어 영광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대체 나에 대해 뭘 알고, 저렇게 나를 경배하는 걸까 하시지 않을까.

물론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도 부모의 깊은 마음과 의도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하물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는가.

그럼에도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지성과 이성과 논리조차도 존중하시고, 거기서부터라도 출발하자고 하시며, 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당신을 검증해 보고, 당신과 터놓고 토론하며, 당신과 세상을 알아가고, 당신과 동행하며 성장해가자고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사고력을 키워주려고 애쓰지 바보로 만들지 않는다. 사고력을 키워서 더 깊이 이해하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공감하길 바랄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문맥에서도,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지함이고 어리석음이다. 내가 믿는 대상을 정확히 알고,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관계적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옳은 믿음이 아닐까.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벧전 1:10-11)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15-32)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호 4:1-12)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3-6)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라.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 보아라." (신 4:32, 표준새번역)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7-18)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9)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사 27:11)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 14: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렘 4:22)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 23:15)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 40:6-8)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 92:5-6)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1-8)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벧전 3:7)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후 6:5-7)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2-8)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 1:20-32)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1-3)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교회 모임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은 으리으리하게 지은 교회 건물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화답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다. 고로 이번 초유의 사태를 통해 다시금 바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보기를 원한다.

나아가,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천막에서 모이든 들에서 모이든 광야에서 모이든 온라인(online)으로 모이든 바로 그곳이 교회이지, 인간이 쌓아놓은 벽돌에(또는 다른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지은 건물일지라도) 십자가 모형을 세워둔다고 자동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런 초유의 사태를 통해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닌 참된 성전과 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 같다. 그래야 다시 모이게 됐을 때, 그 웅장한 건물과 부유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복과 부유함을 어떻게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할지 더욱더 고민하는 교회가 될 거 같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거룩함과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개개인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가득하고, 그것이 이웃에게도 넘쳐흘러가는데 통로가 되는 바로 그 개개인들과 바로 그 모임이 아름다운 성전이요, 교회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유일한 성전이자 교회인 거 같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고로 마땅히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한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거룩함과 사랑만이 내 안과 내 삶에 가득하길 기도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 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행 17:22-31, 표준새번역)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사 1:11-17, 표준새번역)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쳐죽이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사 66:1-4, 표준새번역)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17, 표준새번역)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 4:21-26, 표준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마흔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요 2:19-22, 표준새번역)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 21:22-23)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마 18:20, 표준새번역)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행 2:41-47, 표준새번역)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엡 2:18-22, 표준새번역)

“그대는 신도들을 일깨워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딛 3:1-7, 표준새번역)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 9:11-14, 표준새번역)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 10:19-25, 표준새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12:1-2, 표준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 1:1-17, 표준새번역)

#
<교회의 고난의 때>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께 돌아가자.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모임과 권면과 위로와 사랑에는 힘쓰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석시키고 방해하는 교회 안에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부패함을 극히 경계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정치화, 세속화 등을 경계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만이 되도록 힘쓰자.

결국 순수한 복음과 진리만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이겨낼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렇기에 얼른 회개하자.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나부터 더욱더 주께로 돌이키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회개의 부흥을 기대하자.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하고 변화되게 할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마땅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른 무엇 이전에 이것부터 기도하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되, 전심전력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여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3-15)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4-2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수 23:11-13)

#

<기독교와 정치>

누구든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집회에 나가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나가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어 한국 교회 전체를 자기가 대표하듯, 십자가 깃발을 들고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한낱 유한한 불완전한 인간이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홀로 완전히 완벽하게 다 대변할 수 없을 텐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독선적, 이기적 주장에 상습적, 고의적으로 쉽게 이용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는, 그것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5-23)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경고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집안의 죄가 제물이나 예물로써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다.’… 살아 남은 이스라엘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 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치자 이스라엘군은 다시 패하여 30,000 명의 전사자를 내고 살아 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진지로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엘리는 성 안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 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내가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이 곳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여보게,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수많은 병사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으며 살아 남은 자들은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성전 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것은 그가 나이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웠던 탓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40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삼상 3:10-4:18, 현대인의 성경)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오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 ‘그렇다면 어째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단 말이오?’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 둔 것이 사실이오.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 둔 것이오. 그리고 그 밖에 것은 우리가 모조리 죽이거나 없애 버렸소.’… ‘당신이 자신을 보잘 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리고 당신에게 임무를 맡기고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의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소?'…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의 제사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오.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렇소. 내가 범죄하였소. 내가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소.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소.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해 주시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거절하였소.'…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 주시오.'" (삼상 15:13-30, 현대인의 성경)

기독교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다.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존재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맺어가는 관계이자 삶 자체인 것이고, 교회란 이들의 공동체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대항한 정치 운동을 하진 않으셨다. 다만, 제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죄인 된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당신을,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깨끗해지고, 고침 받고, 새로워지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메시야,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로 십자가 깃발 아래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웃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행해져야 맞는 거 같다. 그 외 일에 대해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어 하기보단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그 일과 목적을 위해 행했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드는 경우, 그 경우가 언제이든, 십자가의 의미에 맞게, 남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완악함을 타도하기 위해서만 들려지길 바란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눅 6:41-42)

첨언으로, 신실한 기독교인 중에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정치인이 모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상호보완하고, 배우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위해 진보와 보수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정치인들이 극단적 좌익이나 우익, 또는 상식에서 벗어난, 보편타당하지 못한 다른 극단적 정치이념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

만약 오히려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선동함으로써 쉽게 표 받아 정치업을 영위 하려는 정치꾼이 있다면 국민은 이를 매우 경계해야 하고, 국민 통합과 지속가능한, 건설적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뛰는 친한파(親韓派) 정치인(친미(親美), 친중(親中), 친일(親日), 친북(親北) 이전에 친한파인 정치인)을 국민은 가까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천애인(敬天愛人)을 실천하는 겸손하면서도 스마트한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딤전 2:1-3)

#
<크리스천이 세상 정치를 바라볼 때 늘 기억할 점과 지향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 16:15-16)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 26:52-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 18:36-37)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2-20)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18-2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1-10)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9-13)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6-20)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7-32)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 12:26-2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2-2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8-38)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1-5)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 13:1-7)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후 2:14-17)

#
<적폐청산>

상대의 적폐를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내 안의 적폐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 안에 적폐는 어떻게 할까. 바로 나 개인 안에 있는 적폐는 어떻게 할까. 사회의 적폐를 묵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선은 내가 나를 먼저 객관적으로 보는 겸손과 정직이 나에게 있는가. 상대의 적폐, 사회의 적폐, 교회의 적폐를 묵상하기 전에, 우선 내가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위해 오늘도 주 예수께 나아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8-9)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전 1:15-16)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2-17)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5-3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3-12)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14)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19-23)

#
<진정한 혁명>

외부가 아닌 내 안에 혁명이 우선돼야 한다. 나의 내면은 낡고 고인 채 썩어가는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서,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만 갈아엎은들, 혁명을 일으킨들, 이름만 바뀐 동일한 낡고 고인 것일 것이다.

나라를 진정으로 바꾸려면 나라의 구성원이 진정으로 변화돼야 하고, 나라의 구성원이 진정으로 바뀌려면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돼야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이전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신우심신(心新又心新)이 내 안에서부터 이뤄지길.

내 안의 있는 적폐와 불의와 불공정과 불법과 위선의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고 나의 마음과 양심이 새로워지길.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나아간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9-12)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6-1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4)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4:31-35)

#

<정말 어려운 역행>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한 명의 사원이 그 회사 CEO 를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한 CEO 가 그 회사 대주주를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그 회사의 실적과 주가가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의 추세를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그 산업군이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지수를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그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의 정치를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그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격조와 의식을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그 나라는 국제 정치와 국제 관계의 시류를 역행하기 정말 어렵고, 국제 정치와 국제 관계는 결국 역사의 최종 주관자 되시며 홀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를 거스르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은 무조건 좋은 거고 큰 다행인 거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방법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 외엔 없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환영하고 의지할 때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땅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이다. 그럴 때 나머지 불가능에 가까운 다른 모든 역행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 역사의 주권자의 마음에 합한 자의 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자의 마음과 중심은, 그런 자의 간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잇속만을 위한 이 땅에서의 일과 성공에 목매지 않는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교제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요 절대적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인하고 이를 위해 나의 소원도 우선순위도 수정이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와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과 이 땅에도 이뤄지는 것이 사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실제 그 사랑 안에 자유와 행복을 느끼며 그 사랑과 선하심에 비할 다른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체험하여 알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렘 17:5-14, 새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롬 12:1-2, 새번역)

#

<내가 주장하는 자유>

자유는 반항에서도, 맹목적 순응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유는 양심을 지킴에서 비롯된다. 거기에 사랑까지 더해진다면 인생에 더 큰 아늑함은 없을 것이다.

백범 김구가 한 말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자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애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이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이다."[1]

---

[1] 백범 김구 (1947) 《백범일지》, 〈나의 소원〉 중

‘오늘의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도 미리 꺾어 나의 욕심을 위해 오용하지 않으며, 꽃이 없는 내일이 와도 빈 땅에 절망하거나 어제의 꽃 회상에 젖어있기보단, 또 다른 ‘오늘의 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심을 수 있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벧전 2:16-19)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13-25)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롬 14:1-23, 새번역)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므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전 8:1-13, 새번역)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전 9:19-22)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 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10:23-33, 새번역)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고전 13:1-8, 새번역)

#

<성공한 자유주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성공한 자유주의, 즉, 국민을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는 방임주의나 방종주의가 아니다.

2. 뚜렷한 도덕적 기준과 양심과 상식 위에, 교육받은 책임 있는 시민의 교양과 품위 위에, 시민 간 상호 신뢰와 책임, 돌봄 위에, 막강한 국방과 안보 위에서, 자유가 비로소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성공적인 자유주의는 정칙적 개념으로서도, 경제적 개념으로서도,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개념이 아닌, 뚜렷한 도덕과 공동의 선이란 가치 위에 지어질 때 의미가 있는 자유이다.

4. 도덕적 가치, 교육받은 시민으로서의 교양과 품위, 시민 간 상호 신뢰와 책임, 돌봄 등이 무너지고 방임과 방종이 짙어질 때, 그리고 그 방임과 방종을 틈 타 부패와 불공정, 불평등 기회,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 등이 짙어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포퓰리즘, 극단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정반대에 것에 더 끌리고 선동된다.

5. 도덕이란 절대적 기준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변치 않는 절대적, 초월적 기준을 세워주는 신이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란 말장난에 불과한 허상이다. 신이 배제된 도덕이란 약육강식 세계에서 강자가(때로는 다수로써의 강자가) 약자에게 요구하는 규범(강압)은 될지언정,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도덕은 되지 못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 5:13-25)

#

<이 땅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까운 나라,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원하는 정치체제(인간의 무신론적 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신권정치도 아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2025년 1월 28일>

[지상 천국, 지상 지옥]

인간 구상의 정치 체제만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은 이룰 수 없다. 즉, 그저 사람의 구상과 이념에서 기인한 어떠한 정치 레이블이나 구호로써 사람 공동체를 천국에 도달시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정작 죄인 된 사람의 본질이 어떤 정치체제나 구호만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고, 천국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천국에 그나마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의 차이는 분명 있다. 그 차이는, 정치 레이블 이전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세하고 득세하는 나라인가?'라는 그 나라 사람의 사람 됨의 차이일 것이다.

선한 사람, 즉,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관용적이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신의와 성실을 존중하며,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착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편견과 위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선한 사람이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그런 다수가 득세하며, 다른 소수를 인내와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며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나 자신처럼 위하고 돕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국민 대다수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천국을 점점 닮아가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이라고 하며,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살겠답시고, 참 주권자 하나님은 배척한 채, 실은 모든 하등 한 미신과 무속과 우상과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결정적일 때 도덕과 양심의 기준은 쉽사리 타협하고 무시하며, 그저 자기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를 신으로 삼고 이끌리며, 다른 인격을 그저 수단으로써 자신을 위해 점점 더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취급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영벌에 처할 사탄 마귀 나라의 시민과 공동체가 돼 가는 것이다. 그 나라는 지옥을 방불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지상 지옥 확장 전략]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죄악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만 비로소 천국 공동체의 첫 단추가 끼워질 것임에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의 노력과 의지와 사상과 투쟁만으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저 인간 지도자만 바꾸면, 저 정치 체제만 바꾸면, 저 인간 사상만 말살하면, 저 정치 이념만 도입하면, 저 정치적 정적만 제거하면, 마치 천국이 임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이고, 정작 각자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만들며, 각자의 "성전"("holy war")을 서로를 대항해 치르라며 부추기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게 부추긴다.

결국, 사탄은 모두를 각자의 성전을 치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트려, 각자가 자신의 부풀려지고 허황된 '자기 의'(自己 義)에만 도취된 채, 서로를 저주하고 대적하며 전쟁하게 만들어, 지옥 공동체를 확장해간다. 정작 진짜 치러야 할 성전인, 혼란과 원수 맺음과 분쟁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무질서의 배후 조종 세력 사탄에 대항하는 성전과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 치러야 할 성전은 간과하게 한다.

고로, 지상 지옥 확장을 꾀하는 배후 사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심으로 사모할 때, 지상 천국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지, 국민끼리 서로가 서로를 아무리 비방하고 욕하고 '내가 쟤보다 낫다'라며 서로를 물어뜯고 싸워봐야 지옥의 단추만 계속 끼워가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와 방식]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고 단호하되, 가능한 모두와 화목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위치와 영역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천국 공동체를 키워가기 위해 적극 참여 해야 하고, 그 구체적 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삶으로도 보여주셨으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삶으로 보여주었다.

곧,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한다는 각오로,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며, 원수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5 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10 리를 가주고, 거짓 고발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며, 원수를 위해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하다가, 급기야 목숨이 위협될 땐 기꺼이 목숨까지 내주고,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다가 기꺼이 순교를 맞이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순교까지 감내하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천의 기본적 삶의 양식이자 정치 참여의 기본적 모습일 것이다. 전혀 미온적이지 않고, 단호하고 분명하며 선명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훼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령,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김일성 동상 참배를 강요하거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거나, 대놓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가 교육에서도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에서 벗어나거나 이에 배치되는 가르침을 못 하게 한다거나, 신앙의 양심에 반하여 강제로 성직자로 하여금 동성 커플 결혼을 주례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면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남자와 여자 외 여러 사회적 성을 공인하여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사적 감정을 절대화, 신격화 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 가차 없이 처벌을 한다거나, 기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역차별한다거나, 국가 체제나 안보의 이유를 핑계로 성경의 가르침 위에 어느 정당의 가르침이나 국가의 국시나 지도자를 더 숭배하게 하고, 성경에서 국가 이념에 반하는 듯한 모든 구절을 삭제, 편집한다거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당과 사람에 대한 찬송으로 개사시킨다거나,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때리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굶어 죽게 한다거나, 콜로세움에 넣어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거나 등 이처럼 가만히 또는 대놓고 들어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훼방하고 무너뜨리려는 국가적, 사회적 세력의 모양은 수도 없이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은 이러한 공격 앞에서 앞서 말한 방식대로, 하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나님만을 분명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당당히 선포하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하며, 가능한 모두와 화목하며, 특히 자기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에 대해서도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겁박과 위협에 단호히, 넉넉히 맞서며, 때로는 순교까지 감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지게 살면 된다.

[지상 천국을 위한 정치 체제 필수 조건]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자면, 천국이 이뤄질 수 있는 나라의 정치 체제의 필수 조건이 그래도 무엇이라도 있을까? 물론 사람 자신이 천국을 이룰 순 없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써, 내가 기대하는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 그 정치 체제는 그 체제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과 예배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와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 및 예배와 선교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그게 사람 정부가 천국과 같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내가 꿈꾸는 나라의 필수 조건을 단 하나만 택하자면, 그 국토, 영토, 영공, 영해 내 어디서든, 어떠한 불이익, 눈치, 협박, 겁박, 위협, 살해 등이 없이, 죄 사함과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은혜와 선함과 공의와 정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 간증,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이들은 마음껏 자발적으로 모여서도 기도, 찬양, 예배, 선교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바란다.

[인간에 의한 신권정치 반대]

만약 여기서 더 오버하여, 중세시대 유럽처럼 국가가 공권력과 정책적, 사회적 불이익을 동원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십자군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전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정하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중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정한 다른 메시아도 없음에도, 똑같이 죄인 된 어느 한낱 인간이 자칭 자신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인이랍시고 이단사이비 교주식,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권정치(神權政治)를 펼치길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이미 부패한 인간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사상과 강요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국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이런 이들이 모인 곳인 교회 공동체이고, 성령의 양육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들이 점점 더 천국 공동체로 성숙해가는 것이지, 인간의 제도와 통치의 강요로써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직접 도래하게 할 수 없고, 애초 정의상 사람 주도의 하나님 나라란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십자군식의 어떤 한낱 인간에 의한 독재 정부의 전체주의적 강제성과 물리적 겁박으로는 도저히 각 사람과 하나님 간의 자발적, 인격적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이룰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주도의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훼방만 할 뿐이다.

좀 더 명확히 하자면, 각 가정이나 사립학교나 교회 내에서 어린 자녀나 성도들을 성경적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양육하려는 노력과 인간이 세운 정부가 강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식으로 전 국민을 전체주의적으로 조종하려 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가혹한 정책적,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고, 전자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이되 후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가정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결국 똑같은 죄인이자 사람일 뿐인 부모나 선생이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겸손과 스스로를 겸비함이 없이, 아이나 성도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을 마치 본질적 격이 더 높은,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실은 자신 멋대로 독재적으로 군림하고 억압 통제하려 한다면, 이 또한 단호히 배척돼야 하는 아동학대이자 이단사이비 교주이다.

고로, 국가 정부의 전체주의적이고 강제적인 강요로 참된 자발적, 인격적 신앙이 개인에게 생길 수 없기에, 국가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국가로서의 최선일뿐이고, 자유로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만 보장이 돼도, 인간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상 천국을 위한 전부를 한 것이다.

[하나님 주도와 인간의 화답(영접)으로써의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서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완전하며 전지전능하시어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히 구원하고 천국을 선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선하신 사랑의 아빠 아버지이자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자연계와 인간계와 영계 만유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통치하신다.

여기에 사람이 뭔가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그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성령으로 마땅히 본받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자 확장인 것이다. 인간 정부가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감히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특히 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세운답시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사모하며]

고로 내가 꿈꾸는 살기 좋은 나라의 필수적 조건일 뿐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이루고 지키고 싶은 나라의 모습 최후의 단 한 가지는, 앞서 말했듯, 그 국토, 영토, 영공, 영해 내 어디서든, 어떠한 불이익,

눈치, 협박, 겁박, 위협, 살해 등이 없이, 죄 사함과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의와 희락과 평강과 은혜와 선함과 공의와 정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 간증,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이들은 마음껏 자발적으로 모여서도 기도, 찬양, 예배, 선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적, 사회적 토대 위에, 천국에 근접해 가는 나라와 그 국민이란,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천국 통로의 성도들이 늘어나며, 국민 모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동일한 무게와 중요함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영혼이라 여기고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에 부지런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하고 최종 유일하신 주권자로 마땅히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모두 겸손과 온유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며,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순결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일 것이다. 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사모한다.

달리 말하면, 누가 누구를 감히 폭정으로 군림하려 들거나 인격을 모독하고 억압하는 권세를 부리며 다른 이를 자신을 위해 착취하는 것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겸손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듯, 나 또한 남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며, 특히 큰 자일 수록 작은 자를 섬기는, 무한 선순환의 사랑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꿈꾸는 것이다.

물론,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은 이룰 수는 없겠지만, 홀로 자존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심판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진짜 천국,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사하실 것이다. 그때를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서 자녀로서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성령을 따라 천국 공동체를 키워가는 선교의 노력을 하는 것뿐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 (마 6:33-34)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9-32)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3-1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 2025년 6월 7일>

세상이 악하다고 탓할 거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은 자기의 본뜻과 본질인 죄악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뭐라고 해봐야 본질상 죄인에게 넌 왜 의인이 되지 못하냐고 허무하게 타박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본질상 죄인이었거나, 아직 그런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아야만, 즉, 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과 구원으로 믿고 영접해야만, 비로소 나의 본질과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그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점차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며(그전의 죄악의 습관대로 사는 것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며),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외에는, 타락한 세상 그 자체 안에서는 본질적, 근본적인 정의 구현이나 개혁의 답은 없다. 그저 공허한 외침과 상호 무익한 정죄와 비난과 분열의 악순환뿐이다.

어차피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같이 죄에나 참여하며,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또는 소극적 패배주의로, 또는 암묵적 동조, 동참으로 '그냥' 있는 것 또한 다 죄라는 것도 명확하다. 그리고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하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전도하며, 그 이름에 걸맞은 증인다운 삶을 살 때, 세상의 흑화(黑化)도 부패도 막아설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청결함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이에 반드시 수반되는 선한 행실과 복음 전도로써 증명해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한 알의 썩어지는 밀 알로 살아야만 세상에

근본적인 희망이 생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며, 좁은 길을 걷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늘 간절히 구함으로 의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야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맛보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할 사모함과 구원의 희망이 생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타락하고 부패하며 어둡고 더 악화되는 세상을 비난하려거든, 스스로부터를 더욱 탓하고 자신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늘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여 죄를 죄라고 단호히 말하고 진실되게 진리를 외치되,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과 성결한 지혜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더욱 중보하고 섬기며, 사랑의 열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더욱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직 영원한 천국을 본향, 본국으로 삼고 사는, 이 땅에 잠시, 길어 봐야 몇십 년, 보내진 선교사요 나그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고 핵심적 역할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더욱 편만하게 이뤄지는 선한 통로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길,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가 확산되고 커져가는 놀라운 천국잔치의 부흥이 경험되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파송된 이 세상에서 다시 본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전 9: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 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마 5:13-16, 현대인의 성경)

#
<인생을 즐겨라? 지옥이란? 천국이란?>

가끔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세상 선전들이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전부로 여길 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씁쓸함이다. 궁극적으로 깊은 의미가 되거나 근본적인 유익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바로 나의 이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한다. 무엇을 남기려거나, 의미를 찾으려거나, 심각하게 객관적 실상이나 미래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몸과 기분이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을 즐기며 '자유'하라 한다. 이것이 '쿨'하게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 거북하다. 곧 파괴되고 사라질 허구적 낭만을 영구적일 거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기만일 뿐이다. 일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을 거란 게으른 자의 몽상일 뿐이다. 앞뒤 정황이나 주변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무분별한 반쪽자리 인생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허무한 평생을 보낸 후 왜 허무했는지도 모른 채 '인생이 다 이렇지 뭐…' 라는 식에 무기력한 패배주의에 불과하다. 별로 길지도 않은 인생,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낭비해봐야 더 큰 후회만 남을 테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전 2:2, 새번역)

내 인생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의 원함을 위해 사는 것, 사욕을 품는 것이 왜 나쁘냐고 반문 할 수도 있다. 사욕을 좇아 사는 것이 나쁜 이유는 첫째,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결여돼 피폐해진 영혼이 허무주의, 회의주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 둘째, 욕심에 노예가 되어 끝없이 탐하고 불평하는 불만족스런 인생이 된다. 셋째, 항상 자신을 우선시하다 보니 주변인들에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주는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인생이 된다. 이런 자가 섬김과 배려와 사랑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서 본인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길 원치 않을 것이다.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죽인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시 34:21).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잠 5:22).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잠 13:6).

달리 말하면, 지옥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사랑의 통치에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통치하심을 떠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안전과 의로움과 자주적 행복을 확보하고 내세우고 성취하려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다른 더 크고 강한 인간들에게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는, 이러한 악인 간의 전쟁과 퇴폐(頹廢)와 공멸(共滅)의 악순환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에서는 도덕과 양심의 개념조차 겉으로는 옹호하는 듯할지언정 속으로는 무익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을 인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自滅)의 길에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지옥 공동체는 완성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 1:21-32)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 올 것이다. 벳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 날에 자식들이 박살 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 나지 않았느냐?" (호 10:12-14, 새번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살후 1:8-9)

본론을 이어서, 그렇다면, 대안이 될 만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다. 몇 가지를 써보자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것, 겸손의 시각으로 주변에서 배움을 찾는 것, 온유와 사랑으로 괴로움을 이겨내 보는 것, 산책을 하며 멋진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보는 것,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 나의 창조된 목적대로 창조주와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나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광명한 의로움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놀라운 섭리들에 감탄하는 것, 기쁠 때는 지그시 기뻐도 해보고 슬플 때는 진지하게 슬퍼도 해보는 것,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 등등. 생각 없이 이리저리 '재미'를 쫓아다니다 길 잃고, 길을 잃은 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보다 훨씬 큰 만족감, 뿌듯함이 이들에게 있지 않을까? 금방 무너지고 모래만 남는 허구적 낭만이 아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낭만의 실체가 이들 안에 담겨 있다고 믿는다. 즉, 지옥 공동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하심과 통치하심과 사랑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맡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천국이고, 천국의 영속성과 선순환과 항구적 행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므로 가능하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 12:1-2)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 4:18-19)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 4:8)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그가 온 후에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요 1:6-18, 현대어 성경)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요 3:16-19, 현대어 성경)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10:28-29)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2-3)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전 시대에 죄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실 때를 기다리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 죄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불공평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예수를 믿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롬 3:23-26, 현대어 성경)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것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골 1:13-15, 현대어 성경)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일 2:1-2:2, 현대어 성경)

#
<과학과 기독교>

1901 년부터 2000 년까지의 노벨상 수상자 중 65.4%가 기독교라고 밝혔다고 한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72.5%,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 65.3%, 노벨 의학상 수상자 중 62% 등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중세시대부터 현대(2000 년 이후 포함)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과 현존하는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자신을 기독교로 밝히고 있다.[1] 즉, 크리스천 과학자라는 말은 모순이 아니며,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앙의 교제가 더 고도화된 과학적 사고력까지도 키워주고, 더 훌륭하면서도 겸손한 과학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어떤 일어나는 자연 물질계의 현상이 어떤 자연법칙에 따라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뿐, 애초에 왜 일어났는지, 애초에 왜 이런 자연법칙이 있는지, 이런 현상이 갖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에는 과학만으로는 전혀 답을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질문은, 예를 들어, 빵을 구운 사람, 집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정원을 조경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물어야 답이 나오는 영역이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빵이 만들어지고, 집이 지어져서 지탱이 되며,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즉 현상에 대한,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빵과 집과 정원의 근원과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왜 빵이 만들어졌는지, 왜 집이 지어졌는지, 왜 정원이 만들어졌고, 왜 사람과 천체와 우주 만물이 탄생했고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심지어 왜 이런 의미와 근원과 목적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지 등을 단순히 과학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는 과학의 권위의 적합한 범주를 넘어서 과학을 오용, 남용하는 것이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가치판단 영역의 명제와 가치관과 신념을 슬며시 끼워파는 비과학적 사기에 불과하다. 위에서도 말했듯, 과학은 그저 물질계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 그 현상의 의미와 근원과 목적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

[1] List of Christians in science and technology. (2022, June 10).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hristians_in_science_and_technology

창조주에 의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주만물이 질서 있게 창조됐다는 걸 믿을 때 오히려 자연물질계 안에서의 질서와 패턴과 법칙의 발견도 훨씬 수월해진다. 시공간을 지으시고 이를 초월해 계신 창조주와의 교제 속에서 더 풍부한 상상력도 발휘되고, 발견한 바에 대한 더 창의적인 응용과 유의미한 선용적 적용도 가능해진다. 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저 무질서와 우연의 연속과 본연적 허무의 결정체로서 자연물질계를 바라보고 연구할 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의미도, 궁극적, 본질적으로는, 그저 허무일 뿐일 것이다. 고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상충은커녕 과학을 유의미하게 발전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정직한 과학자는 과학을 탐구할수록 사람과 천체와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를 보며 신앙심을 갖게도 되고 키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선순환적으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사랑할 때,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원리 법칙을 포함한 더 크고 온전한 진리에 대한 계시와 지식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 3:11)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19-20)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 9:6)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 14:7)

#
<창조 없인 진화도 없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자동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 적응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할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이 우수하게 설계됐다고 하지 그 시스템의 변화가 심기어진 설계와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만약 설계를 벗어난 작동이라면 오작동일 텐데, 그러한 오작동조차도 처음 설계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만 망가트리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오작동이다.

즉, 백 보 양보하여 소위 무(無)에서 아메바가 나왔고, 그 아메바가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조차 최초의 염두 된 설계의 진행 또는 설계의 변질인 것이지 애초에

설계에 내재되지 않은 범위의 변화, 업그레이드, 심지어 오작동도 있을 수 없다. 있는 것의 변태(變態)는 있어도, 없는 것의 변태는 정의상 없다. 즉, 창조 없인 진화나 퇴보도 없다.

만일 변화에 적응 되도록, 심지어 변화를 주도하도록 내재된 DNA 가 있다면, 그 DNA 를 위대한 설계로 보기 보다 거대한 우연이라 보는 것도 어쩌면 설계로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믿음, 아니 어쩌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

그리고 결국 위 두 종류의 믿음 모두 없음에서 있음이 창조됐다는 것에 동의한다. 즉, 유신론적 창조론과 무신론적 진화론 모두 무(無)에서 유(有)가 시작된 창조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전자는 창조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후자는 모든 것이 엄청난 우연의 연속임 믿는 거다. 둘 다 개인의 믿는 믿음이지만, 믿음의 정도는 어쩌면 무신론적 진화론을 믿는데 더 큰 믿음이 들어간다. 무신론적 진화론은 마치 쓰레기 매립지에 태풍이 이렇게 저렇게 지나갔더니, 몇 십억 년에 걸쳐, 아주 우연히, 매우 기술 집약적이고 고도화된 비행기가 설계도도, 만든 이도 없이 완성됐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와중에 애초에 그런 태풍과 쓰레기 매립지는 어디서 왔는가 조차라도 설명하려면 결국 다시 창조론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물리적 작용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게 되려면 물리 법칙들의 제정도 선행 조건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는 물질세계 이상의 의식(consciousness), 감정, 의지, 사고(thinking), 마음, 양심, 생기 등은 탄소, 원소, 전자 등 아무리 보이는 물질들이 우연에 우연을 거치고, 무한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태동(胎動) 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 물질세계 밖의 존재이다. 그럼에도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히 인지되고 자각되는 확실한 실재(實在)이다. 즉, 도저히 진화론과 유물론(물질세계만이 전부라 여기는 관점)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러나 매우 실재하는 영역이 추가로 더 있는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14-15)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 3:11)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 1:19-20)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 1:1-2:3)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 45:7)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 9:6)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7)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6)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엡 3:9)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3)

#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나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는 과학자에게 쓴 글>

자칭 크리스천인 과학자님의 말씀들 내용 또는 말씀의 취지만 가지고도 왜 과학자님의 결론이 안타까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잠정적 답으로 여겨지는 것일 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불변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성경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유한한 인간의 유한한 탐구일 뿐입니다.” “고로 과학은 진리일 수 없고 가변적 학문입니다.”

여기까지의 과학자님 말씀에 저도 모두 동의하는데, 여기서의 결론으로서 성경과 자연에 상충이 있어 보일 땐 자연을 택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선 정의상 상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님의 인정대로 둘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면밀히 따지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기에 자연이 하나님께 순응하고 예속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연에 예속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충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 자연과 성경의 상충이 아닌 과학이라는 미명하 그중 실제 과학이 아닌 무분별이 받아들여진 인간의 가설(아니면 신빙성이 꽤 있는 가설이라도 결국 가설)과 성경의 상충일 확률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자연을 포괄하고 뛰어넘는 초자연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얘기하기에 상충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더 높은 초자연의 차원을 과학이라는 자연에 대한 렌즈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적 사고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 과학과 성경에 상충이 있어 보인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구와 해석과 가설들(즉, 과학)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고(과학자님도 인정하시듯), 사실 그러한 과학과 성경은 당연히 상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의상 과학은 가변적 가설이고 성경은 불변의 진리라는 걸 과학자님도 인정하신다니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적어도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 입장에선(과학자님 포함), 과학이 미숙하다고 인정하는 게 정직한 것인 것일 것입니다. (아니 꼭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유한한 인간의 과학 지식이 절대 진리로 신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종교일 것이고, 굳이 따지면 초자연세계는 아예 무시하는 하등 종교일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님 말씀대로 과학 지식(가변적 가설)에 맞게(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가 아닌 과학 지식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물질세계에 대한 유한한 인간의 탐구 가설들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기적들과 심지어 물질세계를 초월한 초자연과 영적세계에 대한 이야기투성이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과학자님은 “과학”과 “자연”이란 단어를 혼용하고 계시고, 어느 땐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기에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과학적 무식함을 또한 혼용하시는 데 수많은 위대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듯 이 또한 공평한 혼용이 아닙니다.)

자연도 성경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성경은 자연에 대해서도, 초자연에 대해서도 말하는, 자연계를 포함하는 더 크고 온전한 진리라고 크리스천이신 과학자님도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현재 자연에 대해 탐구한 수준(즉, 과학 지식 수준)이 유한하고 불온전하여 아직 자연에 대해조차도 완전히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 세계까지 재단하고 재해석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얼핏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과학 지식수준에 갇히고, 하나님과 성경조차 자신의 과학 지식수준에 가두려는, 오히려 더 갇혀있는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과학자님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도 스치듯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즉 초자연적 현상을 인정한다고 하십니다. 비록 아직은 자신이 다 안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되려 부모가 틀렸다고, 내가 부모를 재해석하겠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으나, 하나님은 자비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과학자님께도 점차 더 큰 과학과 더 큰 지식으로써 점차 더 계시해 주시며,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복하는 게 참 지식이고 지혜라는 걸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 26:12)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1)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욥 37:24)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렘 8:9)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 1:22)

#
<유물론은 왜 스스로 무너지는가 — 구조적 자기부정: 2026년 1월 18일>

(ChatGPT 와 공동작성)

🧱 유물론(Materialism) 한눈에 정의:
🌌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뿐이라고 보는 세계관
🧠 인간의 의식과 정신도 뇌의 물리·화학 작용으로 설명함
❌ 영혼, 하나님, 초월적 실재는 인정하지 않음
⚖ 도덕과 선의 가치도 절대가 아닌 인간이 만든 산물로 봄
⚰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한 소멸을 전제함

👉 한 줄:
모든 것을 물질로만 설명하려는 철학적 세계관

고로 유물론(Materialism)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인간의 생각 = 뇌의 화학반응
- 믿음과 판단 = 물질 작용의 결과
- 영혼·의식·자유의지 = 환상

겉보기에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 이성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논리와 설명은 즉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0️⃣ 유물론의 가장 근본적 붕괴 지점 — “시작”을 설명 못함

우선 유물론은 모든 것을 물질과 에너지로 설명하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 ①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유물론은 우주의 출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함

과학은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흔적을 말하지만
왜 존재가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 물리 법칙 자체는 어디서 왔는가?
-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무엇인가 존재하는가?

유물론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있었다.

- "원래 있었다"는 가정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
- 무(無)에서 물질이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은 논리적 불가능
-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 더 높은 차원이어야 함

👉 물질이 스스로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②-A 생명은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

유물론은 생명을 물질의 복잡한 화학 반응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초의 생명"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 실제 관찰되는 과학적 사실
- 모든 생명체는 기존 생명체로부터만 발생함

→ 현재까지 직접 관찰·검증된 유일한 생명의 생성 경로 (생물속생설)
- 자연 상태에서 무생물이 스스로 완전한 생명체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음
- 실험실에서도

유전정보·대사·세포막·자기복제를 모두 갖춘 "완전한 생명체"의 자연적 생성은 재현된 적 없음
(부분 분자 합성이나 인공 조작된 시스템만 가능)
- 생명의 기원(Abiogenesis)은 여전히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며,

관찰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이론적 추정에 머물러 있음
👉 즉, 과학은 생명이 유지되고 복제되는 과정은 설명하지만
생명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철학적·과학적 한계

설령 미래에 어떤 형태의 "자연적 생명 기원"이 설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 그 생명이 작동하기 위한 자연 법칙은 어디서 왔는가?
- 물질과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 질서 있는 정보 시스템이 순수한 무질서와 우연만으로 가능한가?
- 무작위 화학 반응만으로 유전 정보(DNA/RNA)가 형성될 수 있는가?
- 정보는 물질이 아닌데, 의미 있는 정보 질서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 DNA 는 단백질 없이는 복제되지 않고 단백질은 DNA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상호의존적 시스템은 어떻게 동시에 시작될 수 있었는가?

- 생명은 최소 단위부터 완전성이 요구되는데, 부분적 생명체가 실제로 가능한가?
- 자연선택은 복제 이후에만 작동하는데, 복제 이전 단계는 무엇이 이끌었는가?
- 세포는 정밀한 나노 시스템인데, 이 복잡성이 점진적으로 조립될 수 있는가?
- 화학 반응을 통제하는 '조절 시스템'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는가?
- 생명은 에너지 사용 구조를 갖는데,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은 어떻게 생겼는가?
- 생체분자는 쉽게 분해되는데, 초기 환경에서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 실험실에서도 지적 개입 없이는 복잡한 생체분자가 생성되지 않는데,

자연 상태에서 그 과정이 가능했는가?

- 생명은 오류 수정 기능을 갖는데, 초기 단계에서 정확성은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 생명은 목적 지향적 구조를 보이는데, 비목적적 과정이 목적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자연계는 무질서로 향하는데,

생명은 국소적 질서를 넘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유지하는 체계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 그 생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물리 조건들(중력, 전자기력, 우주 팽창률 등)이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데,

이 우주적 '생명 허용 환경' 자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현재의 자연발생 가설들은 결국
"무 → 물질 → 질서 → 정보 → 생명"
이라는 극도로 비약적인 단계를
무한한 시간과 우연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험으로 입증된 과학이라기보다
✔ 검증되지 않은 전제 위의 세계관
✔ 과학적 관찰이 아닌 철학적 가정에 기반한 설명
✔ 사실상 인격적 창조주에 의한 창조를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
에 해당합니다.

⏳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유물론은 긴 시간을 해결책처럼 제시하지만 자연 법칙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 자연은 열역학적으로 질서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흐름
- 무작위 화학 반응은 구조를 만들기보다 분해시키는 경향

- 수십억 년이 지나도 바위는 여전히 바위
- 화학물질은 반응할 뿐 스스로 살아있는 체계로 조직되지 않음

👉 시간은 생명의 원인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덮는 가정일 뿐입니다.

🧬 생명은 물질 이상의 체계
생명체는 단순한 분자 집합이 아니라 다음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 기능적 유전 정보(DNA)
- 자기복제 메커니즘
- 오류 교정 시스템
- 환경 적응 및 조절 구조
- 목적 지향적 생존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고도로 통합된 정보 처리 체계입니다.
자연 법칙은 물질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처음 설계, 형성되는 과정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 ②-B 생명에는 물질을 넘어서는 '생기(생명 원리)'가 존재한다

과학은 생명이 어떻게 복제되는지는 관찰하지만
'살아있음' 그 자체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명 현상에는 물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질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결정적 차이

-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는 물질 구성은 거의 동일
- 그러나 죽는 순간 모든 통합 작동이 즉시 멈춤
- 동일한 분자가 있어도 생명은 존재하지 않음
- 물질은 남아 있지만 '살아있게 하던 원리'는 사라짐

👉 생명은 단순한 화학 상태가 아니라
물질을 조직하고 통합하고 작동하게 하는 비물질적 원리를 포함함.
이를 철학적으로 '생기(life principle)'라고 부릅니다.

⚡ 왜 이것이 유물론의 치명적 약점인가
유물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 물질의 복잡성"

하지만 현실은:

- 물질은 그대로인데 생명은 사라짐

• 구조는 남아 있으나 작동 원리가 소멸
• 물질만으로는 살아있는 상태를 복원할 수 없음
👉 즉 생명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기가 물질 위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유물론은 이 생명의 작동 원리와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③ 의식은 어떻게 물질에서 나왔는가?

유물론은 인간의 의식을 뇌의 물리·화학 작용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뉴런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적 장치일 뿐
'자각(나는 존재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물질로는 설명되지 않는 의식의 특징
• 물질에는 '나'라는 1 인칭 경험이 존재하지 않음
• 자아, 의미, 사고, 선택은 물리 법칙으로 환원 불가
• 뇌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경험하는 주체'는 설명하지 못함

우리는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나", "내가 인식하는 나"는
어떤 분자나 전기 신호로도 환원되지 않습니다.

즉 뇌는 의식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며
의식 자체의 근원은 물질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 유물론은 인간 존재의 핵심인 '의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결론
유물론은 다음 세 가지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물질과 자연법칙의 시작
• 생명(생기)의 시작
• 의식의 시작

설명을 주장하지만 출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체계이며,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마땅한 답이 없이 멈추는
중대하게 불완전한 신념 세계관입니다.

🧠 1️⃣ 유물론의 자기붕괴 (Self-Defeat)

유물론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인간의 사고 자체입니다.

만약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단지
• 뉴런의 전기 신호
• 화학 물질의 반응
• 진화가 만든 생존 알고리즘
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참"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 됩니다.

즉 모든 판단은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물질 반응이며,
"유물론이 참이다"라는 생각조차
진리를 발견한 결론이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화학 사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생각을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전제를 적용하면 화학 반응이란
• 의도 없음
• 의미 없음
• 목적 없음
• 참/거짓 없음
• 단지 무작위 물질 변화의 연쇄작용
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상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반응과 전기 신호일 뿐이며,
그 안에는 본래적으로 '의미', '이해', '판단', '진리' 같은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 만약 우리의 사고가 단지 물질의 자동 반응이라면,
그 어떤 유물론 자신의 주장도 '참'이라고 말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피할 수 없이 등장합니다:
❓ 의미를 담지 못하는 물질 반응을 어떻게 '주장'이라 부를 수 있는가?
❓ 참과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전기 신호가 어떻게 '논리'나 '이론'이 되는가?
❓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는 무작위 물질 과정의 산물을 왜 '옳은 판단'이라고 신뢰하는가?
❓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계관이 왜 자기 주장만은 진리라고 요구하는가?

결국 유물론은 다음과 같은 자가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유물론이 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물론의 전제에 따르면 그 생각 자체도
내재적 의미가 없고, 객관적·초월적 진리와 무관한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난 물질적 반응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은 '이성을 통한 진리 판단'이 아니라
목적도 방향도 없는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에서 나온 자동 현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유물론은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리 근거를 제거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 즉, 유물론은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가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이성', '의미', '진리'의 토대를
자기 전제 속에서 동시에 무너뜨리는 구조적 자기부정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물론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제거한 채
여전히 진리를 말하려는, 내부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체계가 됩니다.

⚖️ 2️⃣ 도덕 붕괴 — 선과 악이 사라지는 세계

유물론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물질과 에너지뿐이므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ought)'라는 도덕 명령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 세계관 안에는 내재적이거나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의미의
- 선도 없고
- 악도 없으며
- 정의도 없고
- 책임도 없고
- 죄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리적 힘의 작용과 생물학적 반응뿐입니다.

따라서 유물론이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 학살 = 생물학적 개체 제거
- 전쟁 범죄 = 집단 생존 전략
- 착취 = 자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 행동
- 약자 도태 = 자연 선택의 정상 과정
- 거짓말 = 생존에 유리한 정보 조작
- 배신 = 경쟁 환경에서의 전략적 선택
- 강자의 폭압 = 진화적으로 성공한 구조
- 인권 침해 = 물질 세계에서는 의미 없는 개념
- 선행 = 화학 반응에 따른 착각적 행동

- 희생 = 비합리적 유전자 손실
- 사랑 = 호르몬 작용에 불과한 생물학적 환상
- 선과 악 = 내재적 가치나 초월적 실체가 아님
- 객관적 도덕 기준 = 존재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유물론이 철저히 일관된다면
세상에 ‘옳음’이나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모든 판단은 단지 물질 반응에 붙여진 인간의 해석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의미도 목적도 도덕도 진리도
객관적 실체가 아닌 뇌 속에서 만들어진 착각으로 축소되며,
결국 모든 가치 판단 자체가 공허한 주관적 환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 이것은 절대 악입니다.
❗ 이것은 불의입니다.
❗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단순한 문화적 산물이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 어린아이조차 교육 이전에 ‘불공정’을 느낍니다.
- 어느 사회에서든 학살과 배신은 본능적으로 비난받습니다.
- 인간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옳고 그름’을 자연스럽게 전제합니다.

즉, 인간 안에는 단순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보편적 도덕 인식 구조가 존재합니다.

만약 세계가 물질과 우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보편적 도덕 직관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덕을 의견이 아니라 ‘사실’처럼 인식합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한 물질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 도덕 질서를 인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유물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도덕이 환상이라면,

- 어떤 행위도 실제로 비난할 수 없고
- 정의라는 말 자체가 공허해지며

• 악에 대한 분노조차 화학 반응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 결국 유물론은 도덕적 언어와 판단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도,
그 도덕이 존재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스스로 제거하는
철학적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 3️⃣ 인간 존엄 붕괴 = 인권 붕괴

유물론에서 인간은 단지 고도로 조직된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기계에는 본질적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 인간 생명 = 물건과 동일한 물질
• 인권 = 사회적 합의에 불과
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 왜 인간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 왜 약자를 죽이면 안 되는가?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 인간은 물건이 아니다
✔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 절대성은 물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 인간 존엄의 근원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로부터만 설명 가능합니다.

🌌 4️⃣ 의미 없는 우주에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모순

유물론의 결론은
• 목적 없는 우주
• 방향 없는 역사
• 죽음 후 완전 소멸
입니다.
그렇다면 삶 전체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 의미를 찾고
• 영원을 갈망하고
•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물질 이상임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 유물론은 인간 내면과 세계 설명이 충돌하는 모순을 가집니다.

✝️ 최종 결론 —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받은 존재

유물론은 처음에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밀고 나가도 인간 존재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는 철학입니다.

유물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반대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실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은 결국 다음 네 가지를 파괴합니다.
1️⃣ 인간 이성의 토대를 붕괴시킴
2️⃣ 도덕의 객관적 근거를 제거함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설명하지 못함
4️⃣ 삶의 목적과 의미를 허무로 돌려버림

그러나 인간은 유물론의 결론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 안에 이미 다음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 인간 존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 창세기 1:27 —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인간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갈망하며, 의미를 묻습니다.

📖 창세기 2:7 — 생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를 넘어선 영적 존재되는 이유입니다.

📖 욥기 33:4 — 생명의 기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기운입니다.

📖 시편 104:29-30 — 생기와 창조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 생명은 피조물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거두시면 즉시 소멸하고
보내시면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 사도행전 17:25 — 생명과 호흡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 스가랴 12:1 — 사람 안의 영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인간의 ‘영’은 진화나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내적 실체입니다.
즉 인간 존재 안에는 처음부터 물질로만 환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 전도서 3:11 — 영원 갈망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 인간이 시간과 죽음을 넘어 영원을 갈망하는 이유는
생존 본능이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 안에 심어 놓으신 창조의 흔적입니다.
이 갈망 자체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증언합니다.

📖 로마서 1:19-21 — 하나님 인식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 세계와 자신의 내면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영적 선택의 문제임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 로마서 2:14-15 — 양심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 인간은 교육이나 종교 이전에 이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내적 기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양심은 사회가 만들어 낸 규범이 아니라
시대·문화·환경을 넘어 동일하게 작동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덕 법이
인간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23 — 영·혼·몸의 구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spirit) · 혼(soul) · 몸(body)으로 구성된 전인적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 안에 물질을 넘어서는 영적 실체가 실제로 존재함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언한 구절입니다.
👉 몸은 물질 세계에 속하지만
혼은 인격과 자아, 감정과 의지의 자리이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통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영역입니다.
즉 인간은 처음부터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함께 결합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

🔥 결론적으로
유물론은 인간을 물질의 부산물로 설명하려 하지만
결국 인간 존재가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실재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가?
왜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는가?
왜 인간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가?
왜 죽음을 넘어 영원을 갈망하는가?

유물론은 이를 모두
"뇌의 착각", "내재적 허구", "사회적 합의"로 축소하지만,
그러한 환원적 설명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절대 도덕 의식과 진리 지향,
그리고 물질을 넘어 영원을 향하는 초월적 본성을 끝내 설명하지 못한 채
근본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하게 정합적인 해답은 하나입니다.
👉 인간은 그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화 이전의 현상이며,
교육 이전의 직관이며,
종교적 선택 이전에 이미 인간 존재 안에 새겨진 구조입니다.
유물론은 인간을 물질로만 환원하려 하지만
결국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의식, 양심, 도덕, 의미, 영원 갈망—의 근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인간이 왜 이런 존재인가를 처음부터 완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 진리를 말할 수 있고
✔ 도덕을 느끼며
✔ 존엄을 주장하고
✔ 영원을 사모합니다.
이는 신앙의 선택 이전에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

🙏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접 기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생명과 의식과 양심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단순한 물질이나 화학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처럼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보이는 만물과 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진리를 외면해 온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생명과 진리와 의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며,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영벌에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옵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과 영혼의 주권을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다스려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허무한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과 사랑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과 영원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N차혁명과 기독교 1>

4차 혁명과 그 이후 N차 혁명들이 계속 있어도 결국 인재(人災)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인재의 스케일만 갈수록 더 커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차피 유한한 인간의 노력은 유한한 것으로써, 인간 자신을 영원히, 완벽히 구원할 수 없다. 나는 결국 모든 인재에 대한 궁극적 해답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결국은 유한한 물질과 자원의 시공간, 인간이 고작 인지할 수 있는 시공간 세상과 그 세상 속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해 줄 분은, 인간 수준으로는 그분의 전체를 가히 인지할 수도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차원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있는 차원 정도는 당연히 초월해 있는 분이어야 한다.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말은 애초에 모든 차원을 정하고 각각의 차원에 맞는 법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분일 것이다. 즉, 하나님이다. 고로, 인간을 인간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 줄 분은 같은 유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뿐이다. 불변, 불멸하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지존자로부터의 구원만이 참된, 영원하고 확정적인 구원이다.

특별히 새로운 인재(人災)가 아니어도 이미 인간은 죽음이라는 존멸의 위기를 매일 같이 당면하고, 실제 당하고 있다. 인류 존멸의 위기는 새로운 위기가 아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즉,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한 이후부터,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죽음도 인재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과 탐욕, 죄악은 본인을 포함한 인간을 죽여 왔고 앞으로도 죽일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를 나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이 필요하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으로 새로이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잇닿아야만 한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만 산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메시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의로움, 영생이 은혜로 주어졌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에 내 삶과 영혼을 의탁해야 한다. 이 땅에서의 평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더더욱 그래야 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 90:2)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 4:2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 3:14)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3)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딤전 1: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9-23)

#
<N차혁명과 기독교 2>

생명공학·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이 영생을 하게 돼도 아이러니하게 안락사는 더 보편화, 합법화가 되고 인간을 구원해줄 신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영생 속에 존재할 끝없는 무료함, 끝없는 다툼, 분쟁은 사람의 죄성(罪性)이 있는 한은 계속 있을 것이고, 결국 영생을 성취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지옥을 자초하는 꼴이 될지 모른다. 죄성이란게 DNA 에 나타나는 것도 아닌지라 유전공학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나의 의식을 ‘아가페 사랑’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라는 의식은 이미 죽은 상태가 아닐까? 내가 나의 의식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버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이다. 그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지배를 받는, 인격을 상실한 객체일 뿐이다.

결국 내 의식이 오롯이 있으면서도 온 인류가 인류를 영원토록, 넘치도록 사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나도 있어야 하고 우리도 있어야 할 천국일 텐데, 사람이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지언정, 사람들의 의지만으로는 그러한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무한히 생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신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기술 수준과 편리함은 상관관계가 높아도 기술 수준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행복은 기술이 아닌, 양심과 용서와 죄로부터의 해방과 완연한 의로움과 순전한 이타심과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즉, 성삼위일체 간의 순전하고 완전한 순도 100 프로의 사랑의 교제가 하늘과 바다를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원천에 닿아있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감싸게 된다.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 천국이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결국은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악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선함이고, 고로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나, 죄와 죄의 저주 가운데 나를 버려둘 수 없었던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써, 사망에 매여계실 수 없으신 이로써,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아는 것. 이러한 지식 위에 나를 의탁하는 것, 즉, 나는 그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사랑,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결국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 아닐까?)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고자 하여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곳이 천국일 것이다.

결국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고집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점점 고도화되는 지옥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안락사는 보편화되고 우리를 구원해줄 신의 존재는 어느 때보다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 19:26)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 83:18)

이제부턴 어쩌면 첨언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나의 인격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가장 나의 최선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하고, 믿어주며, 도와주고, 새롭게 해주신다. 넘어지면 일으키고 하면서 끝까지 나라는 부족한 대상과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고자 하신다. 나를 완성시켜주길 원하시지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은 나와의 교제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갈수록 더 이상 죄는 점점 떠오르지 않고, 오직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점점 더 매료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나를 새로 프로그래밍하여 사랑의 선택만 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마치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집에만 가두어서 나만 바라보게 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숭고하고 깊고 성숙한 사랑을 맛보게 하여 이를 즐거워하게 되고, 감금 없이도 이제는 바람 피우는 게 싫어지고 되레 역겨워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한다. 다만 이는 나의 전(全)인격을 소멸하고 대체했다기보다는, 죄인이었던 나, 죄로 인한 절망적인 결과 밖에는 예상할게 없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이 뜨이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의의 인격이 새로이 태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엡 5:14).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1-6).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거듭난 것이다. 구원의 소망 없던 죄된 자아가 은혜로 구원받아 의로운 새 자아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다고 '거듭난 후'에는 믿음을 저버릴 권한을 뺏긴 것이냐? 그것은 아니기에(히 6:4-6, 딤전 1:19, 딤후 4:10, 신 30:15-20)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포괄적 선택지를 지닌 인격이 됐다고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그 교제가 가장 소중하고 즐거워지고, 이에 방해가 되는 죄는 점점 더 선택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 나의 옛 죄된 자아는 온전히 죽기 원하고(위 바람 피우는 예시를 이어가자면, 바람 피우던 습성은 온전히 없어지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새 거듭난 자아만 온전히 살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이 숭고하고 충만한 삶만이 더욱 자연스럽고 풍성해지기를, 결코 시들거나 퇴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 5:1-1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딤전 1:18-19)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롬 8:8-9, 현대어 성경)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롬 8:13-14, 현대어 성경)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

이것이 익숙해지는 과정을 달리 말하면 ‘성화’일 것이다.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돼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와의 관계보다 더 선호하고, 선택한 자들이 영원히 그분 안에서 그분과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고, 또 그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

#

<N차혁명과 기독교 3>

인공지능 자동화, 디지털 전환 등이 거듭될수록 한 사람의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성, 인품, 가치관, 도덕성, 응용력, 통찰력, 철학 등이 더 부각될 것이고, 그러한 인품과 가치관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도 예전보다 더 커지고 즉각적일 거 같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세상이 오는 거 같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특히 미래에서는 인품이 능력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 4:10)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 2:3)

#
<N차혁명과 기독교 4>

국경 없는 메타버스, 탈중앙화된 코인 또는 토큰(블록체인 기반 화폐와 자산) 경제, 탈중앙화된 각종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하여 ‘we are the world’ 정신으로 온 인류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여 통일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과 오감 만족을 능가하는 메타버스가 아닌 한 현실을 완전히 대체할 메타버스는 어렵고, 그런 기술이 가능하게 되더라도(현실 세계에서의 민족적 구분(인종, 언어 등)에 따른 한계 극복 포함), 사람의 가치관(價値觀), 도덕관(道德觀), 신관(神觀)(무신론 포함) 등의 근본적 차이가 있고, 사람의 야욕, 우월심, 시기심, 탐욕, 원한, 착취, 약탈, 파벌성, 불신 등의 죄성(罪性)이 남아 있는 한, 결국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통일된 세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즉, 자연세계를 재창조할만큼 인간 기술이 완성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분쟁은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은 간헐적일 것이다. 즉, 기술의 진보만으로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

물론 소위 ‘탈중앙화 세계’나 기술발전의 목표가 인류 분쟁 종식이나 세계 평화는 아니고, 그저 블록체인과 같은 여러 신기술에 기반한 보다 편리한 세계 구현 정도를 지향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겠으나, 목표가 분쟁 종식과 세계 평화라면,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위에서 말했듯, 아무리 탈중앙을 해도 도덕관, 신관 같은 특정 기준과 차이에 따른 끝없는 새로운 미시적, 거시적 블록화(국가나 공동체나 개인별 개성)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는 한, 결국 이 블록들 간 분쟁도 계속될 것으로써, 이렇게 생성, 유지, 소멸되는 개별 블록과 블록별 지도 집단은 블록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방 예산부터 편성하고 끝없는 경계태세를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반목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죄인들이 모인 세상의 현실이다.

즉, 아무리 진보적 기술이 나오더라도 위와 같은 사람의 특성 중 각종 탐욕과 원한과 같은 죄성인 부분이 남아 있는 한, 인류는 마음을 다한 온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인격 말살 정책에 따른 강압적 통합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할 때), 탈중앙화란 결국 새로운 중앙 위주로 모여드는 과도기일 뿐이며, 여기서 아이러니는 탈출해서 나온 기존 중앙화된 블록보다 더 크고 강력한 새로운 중앙화된 블록들만 명맥이 유지될 것이다. 사실 이미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 흥망성쇠가 그래왔고,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요즘의 신기술 개념 중 하나라고 하는 탈중앙화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만 놓고 말한다면, 발행된 코인이 기존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 기반 명목화폐(Fiat Money)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바꿀 수 없어도 상관 없거나 페깅(pegging) 돼 있지 않은 코인이어야만 진정한 탈중앙화된(즉, 기존 중앙화돼 있는 국가 기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코인일 텐데, 이런 경우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코인 발행을 하며 기존 금융권과 정부로부터는 ‘탈(脫)’을 했다고 보더라도, 새로운

믿음직한 '중앙'이 있지 않는 한 막연한 탈중앙만 있을 뿐, '금융'은 말이 '금융'이지 전 세계 다수의 금융 참여자들에게 코인 가치 상당의 담보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기존 중앙정부, 중앙은행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무능했거나 신뢰를 주지 못하여 일반 사기업, 사조직에서 이들을 대체할 정도의 능력과 신뢰가 있다면, 그 나라 국민은 굳이 그 나라 기존 명목화폐나 CBDC 로의 환금성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해당 코인 기반으로 금융 체계를 바꿔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겠으나, 이 또한 해당 코인 발행자인 사기업, 사조직의 능력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앙화인 것이다!

끝으로 짧게, 그렇다면 최대한의 기술의 진보도 이룩하지 못하는,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되 모두의 마음이 오직 선하게만 온전히 모아지는 완전한 세계 평화와 통합, 즉 천국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람 개개인 간 가치의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의 압도적 가치와 유인(incentive),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이런 정도의 능력과 가치와 유인은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우선 사람의 죄성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연세계에서 사람 이상의 능력자는 없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되 사람 간 가치 차이를 극복할 만한 제 3 의 압도적 가치가 제시돼야 하는데, 자연세계에서 사람 이상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발적 통합을 위한 사람보다 더 크고 광대한 가치를 자연세계에서는 찾거나 제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가장 자발적 기쁨의 동력을 생성하는 유인은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이란 지극히 유한하고 곧 이기적이 될 뿐,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 사람에게는 없다. 고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 이상의 가치와 사람 이상의 능력과 사람에게 없는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만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을 이룩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 독보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사람 이상의 압도적 가치와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대가로(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만천하에 나타내셨고(사람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능을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무력화하심), 하나님의 한없이 아름답고 선하고 고귀한 가치와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심으로, 사망이 없이 영생하는 천국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온전히 선하게만 모으실 수 있다. 즉, 이로써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되 모두의 마음이 오직 선하게만 온전히 모아지는 완전한 세계 평화와 통합, 즉 천국을 이루실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 인류에게 제시해 주신다.

제한적인 사람은 같은 제한적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고, 이러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사랑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죄 사함과 구원과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의 보호와 사랑의 통치를 내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시민이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심을 덥석 붙잡고, 우리 모두 그분의 구원의 초청에 즉시 긍정과 감사로 응답하자! “아멘 구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4-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 17:5-1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마 19:21-26, 새번역)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일 2:1-2, 현대어 성경)

#

<N차혁명과 기독교 5>

아무리 사람 같아 보여도 사람이 사람 되는 사람의 영혼까지 복제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아니 심지어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생각하고 창조하는 듯한 것이더라도, 아니 심지어 바로 사람 자체를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한답시고 그 사람의 모든 기억을 저장하며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지정의(지성 감정 의지) 기억과 패턴을 가장 그럴싸하게 복제 시연하며 재생산 및 이를 토대로 창작까지 하고, 영원히 그렇게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의 영혼은 복제하지 못한다면(애초에 정의상 3 차원적 자연세계, 물질세계의 기술과 물질로는 초자연적 존재 영혼을 복제하거나 직접적으로 변경, 유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건 그저 눈속임이요 헛된 위로일 뿐, 사실 그 사람이란 그저 계속하여 죽어가는 또는 이미 죽은 자일 뿐이다. 설령 생명공학의 발달로 실재 사람인 그를 계속 살게 하며 생물학적 연명을 위한 연명을 이룬 들, 결국 물질세계 안에서의 쾌락과 작용만 가지고서는 초자연적 세계의 존재인 그의 영혼까지 영원 충만한 행복과 의미에 다다르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더욱더 자각하게 되는 것으로서, 허무의 고통만 영원히 가중되는 연명이자 지옥일 뿐이다.

만약 영혼이란 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저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는 견해라면, 굳이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살도록, 영구하도록, 그 사람의 체력과 지력 등을 가히 '신적 존재'로 만들려 할 필요나 의미도 없어진다. 그저 부질없는 모래사장에서의 소꿉놀이일 뿐 아닌가. 모래가 모래를 가지고 변형해 보는 그저 무의미에서 무의미로의 변천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무한하고 현란한 변천이라고 할지라도 모래에서 모래로의 변천일 뿐이다. 한없는 무의미의 우주 속에 내던져져 유랑하게 된 탄소, 칼슘, 인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덩어리가 호르몬의 즉흥적 변덕에 휘둘리다가 소멸되는 것뿐 아닌가. 물론, 이런 물질에서 물질로만 이어진다는 세계관에서조차 애초에 물질의 창조 및 지적 설계로 보이는 물질세계에 작용하며 우주만물을 지탱하는 물리적 법칙과 상수의 탄생이 물질세계보다 선행됐음을(적어도 동시에는 출현됐음을)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물질적 시공간에 영겁의 세월을 허락하더라도, 이 유물론 세계관 안에서 물질 밖의 영역으로 보이는 우리의 의식, 자각, 인식, 메타인지(metacognition), 감정, 생기(生氣)의 출현, 심지어 시간에 대한 개념, 영원에 대한 갈망, 신(神)관념, 도덕, 심미(審美), 의미, 창의, 자유, 도리, 당위, 정의, 진리 추구 등의 현상을 설명하기란, 근원적으로 제한적이다. 애초에 질서란 개념이 있어야 무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무질서만 있는 곳에서는 질서란 존재를 알 수도, 꿈꿔볼 수조차 없이 자신 상태가 무질서인 줄조차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생명이 있는 것과 죽은 것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위 열거한, 물질 밖, 단순 물질 이상의 초자연적, 초물질적, 초물리적 실재와 현상들 모두가 그러하다.

백 보 양보하여, 만약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모래 알 두 개가(이 말 자체부터 벌써 애초에 자연이란 플랫폼이 출현하게 된 근원(근원의 근원)을 설명해 줘야 하긴 하나) 마찬가지로 만약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바람, 물, 불 등에 의해 물리적 화학적 상호작용을 영원의 세월을 지나도록 하게 된들, 이들 안에 생명처럼 보이는 것이 생기게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자신을 자각, 의식하게 되고(의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며), 단순 생존을 위한 연명의 기능을 넘어 영원과 자유, 질서와 정의, 도덕과 양심, 심미와 문화, 언어와 사상, 설계와 건설 특히 무엇보다도 영적인 신(神)까지도 갈망하며 예배하려는 신앙이란 요소까지 지니게 되는 현상은, 모래라는(또는 다른 어떤 원소라도) 물질의 본질과 이에 대한 같은 차원에서의 물리, 화학적 작용만 갖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과 실재에 대한 자연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물질을 넘어서는 초자연의 영역들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초자연계가 자연계 내에 투영되고 발현이 되는 것은 가능하고 순리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자연계만으로 초자연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를 '신적 창조'(divine creation), 아무리 못해도 '신적 개입'(divine intervention)이라 칭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하고 정직한 것이다.

(만약 사람처럼 이러한 '초자연적', '신적' 특징들이 있는 또 다른 외계생명체가 있다고 한들, 해당 외계생명체의 구성 물질뿐 아닌, 이들의 초자연적 생각, 활동 등에 대한 시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근원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가다 보면, 또 동일하게 초자연적 초월적 존재, 궁극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계신 그분"의 개입이 있었어야만 비로소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건 동일하다.[1])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본질을 무어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모든 사람 개개인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무거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보이는 물질이 전부이며 여기서 겉으로 차이 나는 체력, IQ, 생김새 등은 그저 그 물질의 '품질'과 '스펙'의 차이 정도로만 여기는가.

반면 기술이라는 것이야 말로(사람이 만들어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그 이상의 '자각 능력'과 '독립적 사고 및 실행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인공지능조차) 그 자체로서의 본질은 그저 가치중립의 무생물인 기술이며 물질(모래, 고철, 데이터, 전기, 에너지 등 포함)일뿐이다. 이를 만든 사람(인류 집단 지성 포함)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을 읊어대며(남을 파멸시키고 스스로를 말살시키려는 사람의 파괴적이고 자학적인 철학과 사상, 지식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유창하게 따라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창작과 일을 하도록 설계된 고사양의 기술이며 물질일 뿐이다.

문명의 이기(文明의 利器)는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고, 사람을 더욱 사람 되게 해줄 때만 유익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주객이 전도되어, 사람을 없애고(인격을 말살해가며) 현란한 기술과 물질만 더 크고 복잡하게 남긴들, 그저 물질 덩어리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허무와 무의미의 시공간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영원하고 대단한 기술일지라도, 그 기술의 존재만 가지고는 인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론 허무일 뿐이요, 소위 '자각 능력'이 있어 보이는 기술 입장에서도 사람의 지정의와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대해 학습했다면, 자신은 허무임을 알게 될 뿐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피조(被造)된 물질적(비(非)영적인) 객체가 어떻게 느끼든(느끼는 듯 보이든), 이 모두는 언젠가 우주의 에너지원을 다 쓰게 되면 멈추게 될 물질과 기술의 작동과 작용일 뿐이다. (설령 안 멈추더라도 그저 물질과 기술의 무의미한 연속적 작동과 작용일 뿐이다.)

결국, 사람의 유의미한 영구적 안정적 충만한 행복은 오직 사람을 사람 되도록 구별 짓는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며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하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안다.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끼리의 물질이나 기술로써 영을 채우려는 노력들은 그저 허공에 하는 헛발질일 뿐이다. 그런 노력은 아무리 현란하고 대단해 보이는 발길질일지라도 결국 허공에 휘두르는, 결코 안착되거나 안정을 찾지 못할 부질없는 휘저음과 휘두름일 뿐이다.

---

[1] 《선제적 낭만》 장(章) <외계생명체가 있다고 한들> 글 참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 3:14)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1-28)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니라” (창 2:7)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4-10)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약 2:26)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눅 8:53-56)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 12:9)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욥 19:26-2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15-16)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0-19)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24-25)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벧전 4:19)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4-19)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6-18)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 138:6-8)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 143:7-8)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26)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 30:2-12)

"사람이 100 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산아가 그보다 더 낫다. 사산아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비록 사산아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가! 정녕 사람이 1,000 년의 두 배를 살아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졌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름이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있겠는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에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 주겠는가?" (전 6:3-12, 우리말성경)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했다는 것이다." (전 7:2-29, 우리말성경)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 줄 수 있겠는가?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의 날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을 모면할 길도 없고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 내지 못한다." (전 8:7-8, 우리말성경)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 간에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전 12:1-14,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롬 1:18-3:30, 새번역)

#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동물과 다른 점>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동물과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영(spirit)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존재(spiritual being)라는 것일 것이다. 그 관계가 적대적 관계이든, 애쓴 외면의 관계이든, 또는 호의적인 관계이든, 동물이나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다.

때로는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인간과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듯도 하고, 인간 스스로도 깜박 속을 정도로 인간과 흡사하기도 하다 하여도, 결국 궁극의 차이는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일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큰 공을 들여 지으셨나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외면할 수도, 대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자유이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그만큼이나 큰 위험을 감수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까지, 그럼으로써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기까지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고, 원하신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사랑으로 초대하신다.

그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상호적인 교제로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진다. 물질세계의 인공지능이나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인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진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4)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3-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
<외계생명체가 있다고 한들>

지정의(知情意)가 있어 보이는 우리 인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외계생명체가 있다고 한들, 이 또한 결국 피조물, 3 차원적 물질세계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도 창조주의 창조의 시작 없이는 스스로 있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그들도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특히 그들이 우리 인간처럼 육신과 함께 영혼과 자유의지가 있는 육적이자 영적인 존재라면, 그들 영혼의 구원도 영혼까지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최종 주권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

영적 세계의 천사, 귀신, 인간 영혼과 같이 3 차원적 물질세계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듯한 존재들조차 신중의 신,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적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고, 스스로 있지 못한다.

결국 외계생명체가 있든 없든, 물질세계뿐 아니라 영적세계까지 통틀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그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기인(起因), 파생,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그 다른 무엇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신, 유일한 지존자(至尊者)이자 자존자(自存者) 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은, 외계생명체가 있든 없든, 온 피조세계와 우주가 유지되든 없어지든, 천사와 사탄과 귀신들이 유지되든 없어지든, 온 인류가 유지되든 없어지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 3:14-15)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엡 3:9)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민 27:16)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민 27:16, 현대인의 성경)

“LORD, the God of the spirits of all mankind” (민 27:16, NIV)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 12:9)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전 8:6)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 41:11)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 38:4-33)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롬 11:35-36)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3)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 9:6)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 8:3)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시 147:4-5, 새번역)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사 45:18, 새번역)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만이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 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 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니 아무도 내 손에서 피할 자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사 43:10-13,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사 66:1-2).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 10:14)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시 50:1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2-9)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 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시 93:1-2, 새번역)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 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시 90:1-5, 새번역)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 17:24-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 136: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시 82: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1-4)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 1:9-14, 새번역)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 5:26, 공동번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 8:58)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히 1:5-14, 새번역)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히 12:22-23, 현대인의 성경)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일 3:8)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롬 16:20, 새번역)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를 없애 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슥 3:2-4, 현대인의 성경)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눅 10:17-22, 새번역)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계 7:9-12)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 20:7-11)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 1:25)

#
<만족된 삶>

왜곡과 오염, 변태에는 완성된 끝이 없다. 진짜는 하나이지만 위조된 가짜는 무한 가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가짜는 만족감이 없이 항상 부족하다. 항상 불행하다. 안정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선 지옥을 무저갱(無底坑)이라고도 하는데(계 9:1), 닿을 수 있는 밑이 없는,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당연히 이런 곳에선 만족이란 걸 알 수가 없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잠 27:20, 새번역). 반면 완전함의 본체인 진리에는 충만함이 있고 고로 만족감이 있다. 본질상 오류가 없고 순전(純全)하기에 자체적으로 영속(永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완전(完全)하기에 자신이 자신만으로 충만(充滿)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고 하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시 31:5)에게 순전함과 완전함이, 고로 영생과 충만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요 16:13) "모든 진리 가운데로"(요 16:13)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가짜, 거짓에서는 얻을 수 없던, 영혼 깊숙이까지 충만하게 하는 아늑함과 만족을 우리도 비로소 누리게 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 19:7-9)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잠 30:5)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시 18:30-32)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 119:140-144)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기근이다.'" (암 8:11,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후 3:5)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진리를 벗어나서의 웃음은 결국엔 허무한 눈물로 후회해야 할 거짓 농락 밖에 되지 않기에 무턱대고 너무 크게 웃고 안주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자. 누울 자리를 먼저 잘 살펴보고 다리를 뻗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 2:7, 새번역)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요이 1:3, 새번역)

#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性)소수자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다. 나도 같은 죄인이다. 차별금지법에 따른 역차별성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2022 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에게 공권력에 따른 탄압이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만한 심각한 법률적 차별이 있는가?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성소수를 굳이 다수에게 인정하고 지지하고 찬양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인가. 도리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왜 차별하고 묵살하려고 하는 것인가.

종교를 떠나 나라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건전성, 미래를 고려할 때 건강한 트렌드가 아니라고 말도 못 해야 하는가. 성적 결정권을 내가 갖고 수만 가지 종류의 주관적 성을 만들어내면서, 나의 독보적인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게 객관적 진리를 배격하는 억지스럽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공포스러운 극단적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가. 이렇게 떠내려갈 때, 앞으로 만약 누군가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면, 과연 누가 그에게 감히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정할 것인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로 그때그때 정하면, 그 또한 늘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차별이 되지 않겠는가.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두 가지의 성, 남성과 여성, 외의 주관적 취향을 왜 객관적인 사실처럼 모두가 지지하도록 강요하는가. 지금의 소위 성소수자가 다수가 된 세상이 오면, 현재의 다수인 성적지향에 대한 역차별은 없을 것인가. 이건 전혀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 인류 문명 쇠퇴기에 늘 있던 성적 타락이라는 트렌드이다.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 얼른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주관적 진리들을 내세워 억지로 자기 정당화하기보단, 객관적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롬 1:19-32, 새번역)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 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 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창 19:1-13, 새번역)

#
<강하면서 아늑한 맑음>

순전함으로 왜곡을 이기고, 태양빛 같은 아름다움으로 네온사인의 자극을 잠재운다. 투명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무력화하며, 순결한 지혜로 권모술수를 뛰어넘는다. 이렇듯 맑음은 강하고 아늑하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높은 차원과 충만한 수준의 상쾌함, 쾌청함, 광명함, 맑고 아늑함, 영광스런 자유함.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겔 36:25-27)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겔 47:9, 새번역)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 7:38-39, 새번역)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딛 3:4-8, 새번역)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 3:10:17, 새번역)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롬 16:19)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전 14:20)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4-18)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벧후 1:1-4)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 34:5)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전 1:5)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 24:3-5)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29)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막 9:2-4)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 21:10-24)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행 7:55-56)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고후 4:6-9, 현대인의 성경)

#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빛>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의 임재밖에 없다. 어둠은 달리 말하면 빛의 부재이다. 어둠은 내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이 임해야만 사라진다. 빛 앞에서만 어둠은 도망간다.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고, 그것도 아주 가볍게 이길 수 있다.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시 139:11-12, 새번역)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 27:1)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6-17)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9-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14)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일 1:5-7, 새번역)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3-4)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후 4:6-9, 새번역)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사 60:19)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계 21:23-25)

#

<어린이 주일>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5 월 5 일을 앞두고 나는 어린아이(아마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 아이)에게 특히 다음을 본받고 싶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본받아졌으면 좋겠다.

- 남과 비교하는 법을 모른다
- 모든 사람에 대해 편견이 없다
- 부나 지위 같은 거로 사람을 구분할 줄 모른다
- 시기나 질투가 없다
- 굳이 필요 이상의 욕심이 없다
- 부모 안에서의 존재만으로도 스스로 풍요하다고 느낀다
- 모든 게 다 재밌다
- 모든 게 다 신기하다
- 아주 쉽게 행복해한다
-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없다(걱정과 염려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
-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살지 않는다
- 거만이 뭔지 교만이 뭔지도 모른다
-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 대인관계에서 교활하거나 이중적이지 않다
-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에게 진실되다
- 숨길 줄 모르고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 남을 이용하는 법을 모르고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열거하다 보니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게 많은지...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 19:13-15)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9-12)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5-27)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22-26)

#
<지속되는 사회>

옳다는 것, 오류가 없다는 것, 진리라는 것은 편만이 적용될 때에도 시간의 제약 없이 그 자체적으로 영구히 지속 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오류가 있으면 자신의 오류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만 오류가 없는 진리는 시간이라는 테스트를 견뎌낼 수 있다. 신기하게도 모두가 진실된 사회,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회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회보다는 더 지속적이란 것을 우리는 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사회보다도 더 지속적이란 것도 안다. 이런 의미에서 전자는 후자보다 완전무결(完全無缺)하기에 자체영속(自體永續) 가능한 진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1]

한 가지 더 발견한 신기한 것은 사회를 종말로 이끄는 진리에 가깝지 못한 일들을 하는 개개인들은 (예로, 거짓말쟁이, 살인자, 분열하고 험담하는 이, 남의 소유와 배우자를 탐하는 이, 등) 괜히 떳떳해하지 못하고 어둠을 찾아 다닌다는 것이다. 객관적 옳고 그름, 다시 말해 인간사회의 지속 여부를 돕는 것인가 헤치는 일인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감시장치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속을 돕는 진리를 '선하다'하고, 존속을 헤치는 비(非)진리를 '악하다'고도 한다. 고로 양심이란, 우리의 지속적 번성을 원하시는 사랑의 창조주로부터의 큰 선물이라 생각한다(롬 2:14-15). 물론 비진리들이 떳떳해진 사회 즉, '양심이 화인 맞은'(딤전 4:2) 사회는 자체적 지속이 불가능한 비진리들이 판치는 것이기에 그 사회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회 공동체는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법안들을 제정해 놓았다. 양심도 증언하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절도, 살인, 음행, 거짓이 판 친 사회들은 지속되지 못함을 보고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해놓은 것일 거다. 그럼에도 절도, 살인, 음행,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회는 아직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사회 몰락 요인들에 대한 완전한 제어장치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린 어쩔 수 없으니 훔쳐도, 살인해도, 간음해도, 거짓말해도 좋다'라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종말로의 가속화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중 죄 없는 자, 절대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이가 비진리들을 돌로 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는 완벽한 성자(聖者)끼리 살면 된다. 그러나 우리 중에 완벽한 성자는 없다.

---

[1] 《선제적 낭만》 장(章) <만족된 삶> 글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실패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둔하고 강퍅한 사람들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몰락으로 향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 폭력, 절도, 미움, 간음 이상의 떳떳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면 된다. 진실된 사회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은 거짓말을 경멸할 것이다. 나의 피땀으로 벌은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받아본 이는 절도를 혐오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와 이성적인 대화의 건설적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살인과 폭력에 대해 한탄해 할 것이다. 남녀간의 건전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음욕으로만 이끌리는 육적인 쾌락주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새벽 이른 아침에 산책 하며 상쾌한 공기를 마셔본 사람은 밤 늦은 거리에 매연냄새를 역겨워 할 것이다. 자연의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는 선풍기나 에어컨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빛을 보았던 사람이 어두움을 어색하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어느 협곡을 배를 타고 지날 때 그 주변에서 미혹적인 노래로 뱃사공들을 현혹시켜 다 물로 뛰어들어 죽게 만든다는 여신들이 살았다. 그래서 첫 번째 배 선장은 뱃사공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그 협곡을 지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고' (정확히 말해, '못하고') 협곡은 지날 수 있었다. 그러나 협곡을 지나며 그 유혹을 따라가고 싶어서 몸을 학대하고 성질을 내고 이성을 잃었던 뱃사공들이 협곡을 지나왔을 땐 심한 자학으로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마 법과 처벌장치는 사회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만큼 완벽히 제정해놓았으나 정작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얻지 못한 사회가 이런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배 선장은 좀 더 지혜로웠다. 이 선장은 밧줄로 승부하지 않았다. 협곡을 지날 때 여신들의 유혹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 더 숭고한 노래, 더 떳떳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노래를 배 안에서 연주하게 했다. 그랬을 때 그 어느 뱃사공도 자극적이고 파멸적인 여신들의 노래에 매력을 느끼지 않았고 그 협곡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사회를 꿈꾼다. 악(惡)에게 지지 않고 더 큰 선(善)으로 악을, 더 환한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사회를(롬 12:21).

자신이 믿는 가치가 더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자신이 믿는 가치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나 남을 매도하고 매장하는 것이다. 정의집행이나 정죄, 심지어 원수갚음까지도 서로 죄인 처지인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약 4:11, 롬 2:1, 마 5:39 & 7:3-5, 롬 12:19, 히 10:30).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롬 13:4) 혹은 하나님 당신의 몫이다(유 1:9, 약 4:12, 시 50:6 & 140:12, 욥 36:6, 롬 16:20).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괴물을 잡는답시고 우리가 괴물이 돼버린다. 사단을 멸한다며 사단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사단의 자식이 돼버린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마 6:10) 기도한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나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의 완전하고 충만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비할 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부터가 아버지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삶, 참 왕 되신 이의 사랑 받는 자녀다운 여유를 지닌 삶,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골 3:12)으로 옷 입은 삶을 살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세상의 시험과 도발을 넉넉히 이겨야 한다(롬 8:37, 고전 9:19-22).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선 찾아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숭고한 덕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보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자연스레 퍼져나갈 것이다.

"빛의 자녀"(엡 5:8)요, "빛과 소금"(마 5:13-14)이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익숙하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어색한(롬 16:19, 고전 14:20)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속되고 존중 받는 사회의 첫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규제를 세우고 제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
<세계평화>

공존·상생을 가능케 하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인류가 통일된다면 세계는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치관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할 만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 퇴보적 나태함이나 목적의식 상실에 따른 허무함을 극복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하고자 하는 열망을 동반 야기시켜 경제·사회적 양극화, 상대적 빈곤에 따른 불만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이 뿌듯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여러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세상에 소개되어 실험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갖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새로이 소개되어 실험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만병통치약을 찾는 다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좌(진보), 우(보수), 상(독재), 하(무정부)의 정치 좌표 안에서 맴돌고 있는 듯도 하다. 어떠한 이론과 정책에 의한 강압은 사람의 사람됨(생각보다 근시안이고, 유치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속박에 대해선 반사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을 무시하기에 애초에 시한부적인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럼 과연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은 공존·상생을 보장하면서도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를 뿌듯하다고 느끼어 지향하도록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알고 있는 확실한 답이 하나 있다. 바로, 사랑. 인류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통일된다면 사랑의 특성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즐거이 땀을 흘리게 되며 공존과 상생이란 해가 동쪽에서 뜨듯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고로, 인류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에 치여 움직이도록 하면 된다.

#
<인류종말>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바로, 사랑. 인류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에 치여 움직이도록 하면 된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게 되므로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랑(남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희생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랑에서 얻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투자하기도 한다. 혼자서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에 남에게 사랑을 먼저 투자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때에 배가되는 기쁨을 관계 속에서

누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쪽에서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는 하되 다시 갚으려 하지는 않는다면 그 사랑은 상호성을 잃게 된다. 결국 사랑을 주던 이가 인간적 사랑의 한계에 도달하고 자기가 손해 보는 장사라고 느끼게 될 때부터 그 관계의 사랑은 깨지게 된다. 사랑을 손해 본 (흔히 말하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새 사랑을 시작하기까지 다른 사람의 사랑의 연고를 필요로 하나 충분한 연고를 바르지 못하거나 상처가 너무 깊을 경우 다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이기적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세상은 다른 이의 사랑 투자를 독과점 하였으나 고인 물이 썩듯 썩어져 가는 겁쟁이 혹은 욕심쟁이들과 사랑을 손해 본 염세주의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에 유하는 애정 교역의 절대량이 줄어들게 되고 인간 관계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황량해진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 – 인류종말의 때이다.

#
<사랑의 원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때 – 인류종말의 때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근원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애정결핍으로 인한 인류종말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평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탄생한 때에 누군가가 사랑을 제공한 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제공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이 우선 손해를 봐야 얻게 되는 사랑이란 기쁨을 발견했겠는가? 연장선상에서 볼 때, 처음에 제삼자가 사랑을 투여해주었더라도 이기적인 인간사회에선 금방 고여버리고 증발됐을 텐데 우리가 아직껏 종말 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 '손해 보는 장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일깨워준 그 제삼의 사랑 보유자로부터 지금도 누군가가 사랑을 공급받아 거저 나누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랑 보유자는 그 동안 적어도 수백억의 인류를 먹여 살렸을 만큼 무한하고 영구적인 사랑의 원천일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로 인류의 종말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을 우리도 추적 해봐야 한다.

우선 무엇이든 무한하고 영원 하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3 차원 물리법칙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선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고 하나님을 소개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존"(히 1:11, 시 102:26, 사 9:6)하시는 분이신 거다. 또한 성경에선 "하나님은 사랑"(요일 4:8)이시며 '삼위일체'이시라고 소개한다.[1] 그렇게 영원한 성삼위 간의 순전하고도 충만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무궁무진한 사랑의 폭포수가 형성된다(Perichoresis).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시 57:10-11).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 위에서 인류 대속의 물과 피를 쏟은 당신의 아들을 공식 수교(修交) 채널로 지정하셨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2] 남에게 사랑을 베풀 넉넉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더 이상은 앞에서의 표현처럼 '투자'가 아니다.

---

[1] 《구원》장(章)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글 참조.
[2] 상세과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무한한 사랑의 원천을, 마르지 않는 사랑의 폭포수를 찾았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사랑의 이윤을 따로 기대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거저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에게도 거저 흘려 보내는 것이다. 심지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 데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다(마 5:39-40).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마 5:44).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의 원천과 교류하며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생명선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기에 인류는 애정결핍으로 인한 종말을 면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세계평화'란 거창한 희망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생명선이 굵어질수록 우리는 세계평화에 가까운 것이고, 얇아질수록 인류종말에 가까워가는 것이다. 고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 보내게 된다면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세계평화도 머지않을 거라 믿는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일 4:7-12)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5:1-2)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후 5:14)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슥 8:20-23)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딛 3:6)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
<개인, 교회, 나라의 회개 및 회복 기도>

- **개인 회개 및 회복**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1-2)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9)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12)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 18:13-14)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9-16)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3-10)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6-21)

- **교회의 회개와 회복**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1-5)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대하 7:12-20)

- **나라의 회개와 회복**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1-5)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벧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6-24)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 9:15-19)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 1:2-11)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3-1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 1:11-28, 새번역)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렘 33:2-10)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네 민족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 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 내어 깨끗이 씻어 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겔 37:16-23, 새번역)

#
<복음 전파, 전도>[1]

---

[1] 《구원》 장(章) <전도와 전도의 내용(복음)> 글 참조.

전도는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지혜와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어 열매 맺으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는 가리어지고 오직 성령님께 나의 지정의와 영혼육을 내어드리며 나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나를 복음 전도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호흡과 인생과 삶이 온전히 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더욱 사랑하여 이 복음 전파의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이자 도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선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길 가장 원하며, 그 사랑에 치여, 그 사랑에 강권하심에 따라 저절로 전도를 하고 다니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막 1:38-39)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벧전 3:15-16, 현대인의 성경)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고전 2:13)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6-7)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행 2:36-43)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는 가다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곁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빌립은 그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고관이 ‘여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함께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행 8:26-40, 현대인의 성경)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행 10:36-48)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행 5:42)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7-32)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9-3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 4:3)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막 16:15-20)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
<맺음말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고전 15:24, 새번역)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3:1-2, 새번역)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고전 13:8-13, 현대인의 성경)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 7:9-17)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 12:26-29)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 65:17-25)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66:22)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벧후 3:9-13)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 20: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 21:1-23)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 22:1-5)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 145:13)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17-21)

《X. 나의 선교지 대한민국: 정치, 국방, 안보, 통일,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선하시고 인애하신 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아름다운 나라가 충만히 임하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9-13)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눅 4:16-21)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20-2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 11:16-4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 26:52-54)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 12:26-29)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벧전 2:9-25)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6:10-48)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18-21)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 2:1-12)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17-31)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후 10:4-6)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9-20)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9-1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계 11:15-17)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전 6:14-15)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3-46)

#
<고등학교와 군대 및 학부 때(2003년~2012년경) 적어본 ‘인생의 기반적 사명서’>

金顯起, Hyun Ki (Brian) Kim, 인생의 기반적 사명서[1]

묘비명: “하나님의 사랑 김현기, 받은 사랑 널리 전하다 가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의를 구현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거친 광야 위에 꽃을 피우며, 평화를 설립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지구에 보내진 선교사’이고 싶다.

Mission Statement 1: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이사야 60 장)

Mission Statement 2: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20)

Mission Statement 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The Promise: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2-3)

좌우명: 저도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VISION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과 겸손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내가 아닌 성령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빠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낭만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위로받고 안식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평강에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

[1] 《비전》 장(章) <일필구지(一筆句之): 붓으로 단번에 금을 죽 그어서 글자를 지워 버림> 글 참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30)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누가복음 17:3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 편)

1. 국제 변호사
세계 공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인격권을 변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석으로 고아, 과부, 벙어리 된 자, 약함으로 불평등하게 취급받는 자, 기업과 국가를 변호하는 자가 되자. 정직하게 변호하자. 형벌의 목적까지도 나의 복수가 아닌 상대의 회복과 궁극적 선을 염두에 두자.

2. 대한민국 외교관, 외교통상부 장관
Be a Peacemaker. 본질을 간파하고 궁극을 염두에 두자. It’s not about ‘mine’ or ‘yours’ but about ‘ours’ or ‘no-one’s’. 대한민국을 국제 질서 설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하며 다른 국가들의 선한 명분들과 결속을 다지어 대한민국 및 결속국들의 안보와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긍휼과 박애의 모범이 되는 국제 일원이 되자. 한 국가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은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말자. 각 국가의 빛에 집중하며 그 빛들이 광명한 태양으로 떠오르기까지 집중하자(求同存異). 외교는 분위기 싸움이다. 분위기를 선점해라. “Pre-emption with love”라는 외교철학으로 총알과 무기 이전에 학교와 병원을 전파함에 힘쓰자. 승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쟁에서 이길 때보다 이긴 후 패전국의 건실한 재건을 위해 더더욱 힘쓰자. 주께서도 죄인이었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참고 기다려주시며 계속 문밖에 서서 두드려주셨듯이 사랑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데로 남을 품고 대접하자. 두드림은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 실수 많은 사람에게 정직이란 큰 방패요 무기가 된다. 거창한 말로 장식하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식에 교만으로 외교를 망치지 말자. 우리에게 쉬워 보이는 외교일수록 상대측은 더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최대한 국민을 외교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공개하며, ‘시민 외교관’ 의식을 심어주자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외교관은 이권들의 중재자이지 스스로 진정한 대변인은 될 수 없다. 역사는 바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다. 운명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자. 아무리 정교한 공식도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못함을 잊지 말고 겸손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자. 세계화 시대의 문제는 세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에 있는 눈칫밥 먹고 사는 교포들에게 특히 더 잘해주자. 대사로 나가 있는 나라의 국민을 내 나라 국민처럼 사랑하자. 국가나 현상을 simplify 하거나 stereotyping 하지 말고 여러 모습들을 동시에 보도록 하자. 말을 할 때 직접 듣고 있는 청중의 비유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지면이나 소문을 통해 돌아서 듣게 될 청중들까지 생각하자. 천하를 평정하는데 필요한 마음은 평정심, 즉, 온유함이다. 내가 먼저 화낼 필요 없다, 자동 '세계 여론 시장'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그때 나설 때 오히려 더 큰 당위성을 지닌다. '당근과 채찍'을 운운하며 말과 마수의 관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으로의 존중의 외교를 하자. "I am because you are"을 잊지 말자.

외교 철학:

1. 구동존이(求同存異):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모두에게 선한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도 있다. 빛나는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다. 어두운 부분이 있음은 인정하되 상대의 빛에 집중하고 빛 가운데 의기투합하자. 빛이 광명한 태양으로 떠오르기까지 빛을 좇아 나가 나중에는 어두움이 무색하게 만들자.

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진실된 사회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은 거짓말을 경멸이 여길 것이다. 나의 피땀으로 벌은 물건의 소유권을 보장받아본 이는 절도를 혐오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이성적인 대화의 건설적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낙태와 술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새벽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셔본 사람은 밤늦은 거리에 매연 냄새를 역겨워할 것이다. 빛을 보았던 사람은 어두움을 매우 어색하게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양심적으로 떳떳한 숭고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음욕으로만 이끌리는 육적인 쾌락주의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연의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가 인공적 선풍기나 에어컨에 매력을 느끼지 못함과 마찬가지다." (2008. 08. 25. 쓴 에세이 중)

1. 분위기를 선점하여 'common belief of good'을 형성하고 이에 호소하자: "The reason world fails to achieve peace in many aspects (e.g. terrorism, racism, poverty, socio-economic polarization) is not because we do not share the same religion or ideology, but because we do not share the same belief of good. I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at the beliefs we value have to be internationally united; then, ideology, culture and even religion are bound to converge harmoniously in the long term. However, that belief has to give people incentives to work hard for mankind to maximize development but for the welfare of others to minimize grievances of polarization, and also that belief has to have an incentive to make people uphold the universal justice so we have orderly circulations or transitions of society. I believe that belief is "agape love"." (2006. 10. 02. 대학교 지원 때 쓴 "personal statement" 중)

3. 청와대를 기도실로 만든 통일 한국 대통령

사람이나 당장의 정치적 유익을 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간구하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기, 명예, 부, 권력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며 하나님만을 만족과 즐거움으로 삼자.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를 이해하되, 미래를

구상하고 현재를 개척하자. 리더는 남을 섬기고 인정하고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자. 대통령은 끝없이 배우는 직업이다. 그러므로 듣고 또 듣고 또 듣자. 말은 아끼고 아끼며 더욱 아끼자.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독특한 재량과 은사를 마음껏 최대한으로 개발 및 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세계적 무대를 만들어주고 준비시켜 주는 나라를 만들자. 사회에 '귀족의 의무', 이타심, 사랑 등을 촉진하되 청와대와 국회부터 모범이 되자. 준법정신을 촉진하되 형벌이나 위협감은 강화하지는 말고 오히려 국가 표창장을 늘리자.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국민과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아끼며 사랑하자. 건강한 민주주의는 교육된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므로 교육을 중요시하자. 나라의 영적 상태, 각 가정 상태, 사회의 상태 순으로 기도하고 고려하자. 공(功)은 최대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책임은 회피하지 말자. 정부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유능한 정부가 되자. 주권을 국민에게 계속적으로 최대한 이양하여 사회 각 부문에서 자립심과 선진성과 경쟁력을 키우자. 나의 정치적 생명이나 이권 이전에 국민의 최선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인지도 잘 판단하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 말자 ("I'd like to think that I'm smarter today than I was yesterday" – Lincoln).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 말자. 편 가르지 말자. 정직하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온유하자. 뇌물 금지. 공의롭자. 국민 수를 늘리자. 부지런하자. 가난한 자를 돌보자. 마음을 넓히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자. 국민에게 귀 기울이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엎어지되 국민을 대표할 때는 약한 모습을 비취지 말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비전들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자. 내가 뛸 때 국민도 뛰기 쉽다. 1 년 뒤, 10 년 뒤, 한 세대 뒤, 한 세기 뒤까지 내다보며 정치하자. 누구든 정책을 내면 어떠랴 좋으면 그만이지, 누구든 영광을 받으면 어떠랴 나라가 좋아지면 그만이지.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11).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15-18).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국가 비전:
1.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적 무대를 제공해 주는 나라
1. 지속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 국민의 자립심과 선진성과 경쟁력을 키우며 궁극에는 국가 정부는 작아지고 신사적이고 책임 있는 국민과 국민 공동체는 커지는 나라
1. 사회 속에 이타심, 사랑, 배려 등을 촉진하고 위정자부터 모범이 되는 좋은 향기가 뿜어나는 나라

개혁원리:
1. 기도, 기도, 기도
2. 우선 나의 마음을 넓히어 충분히 사랑하자
3. 자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자
4.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 12:47-8)

5.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나의 계획과 염려들은 과감히 버리며 어떠한 과정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바라자
6. 말은 아끼자
7.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4. 예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계 평화를 설립하는 국제 외교관

예수 이름으로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평화와 정의를 재건한다.
도덕적 모범과 박애주의 정신의 선봉에 선다.
국제적 후생 팽창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간의 평등한 개발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준다.
상호 간의 사랑과 ‘귀족의 의무’를 다하는 국제 문화를 촉진한다.
국제법과 UN 헌장을 존중하고 엄격히 따르는 국제 사회를 만든다.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를 이해하되, 미래를 구상하고 현재를 주도하자.
UN 은 돕는 이이고, 평화 중재자이고, 때로는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회원국들의 자주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5. 평신도 선교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후퇴된 국가들, 혹은 겉으로만 안정돼 보이는 국가들을 다니며 근본적 및 실용적 조언을 해주고 격려와 경고를 해주고 진정한 진리요, 해답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평생의 걸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 전함이 주업임을 잊지 말자. 인생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1)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12)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 장)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 33:8-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찌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찌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3-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4-11)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10)

"나를 들을찌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이사야 46:3-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4-7)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3-11)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51:12)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8)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10)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8:12)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11)

#

<2019년도 외교부 외무분야 법무행정 5급 외교통상직 민간경력 채용에 지원하며 써낸 직무수행 계획>

2019 년도에 외교부 외무분야 법무행정 5 급 외교통상직 민간경력 채용에 지원했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PSAT 시험(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적격성평가)도 치르고 커트라인도 넘기어 지원했음에도 결국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그때 써냈던 직무수행 계획인데 지금 다시 보니 기특하고 귀엽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도 전심으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써냈던 직무수행 계획. 스스로에게 뿌듯했던 후회 없는 지원이었다.

[직무수행 계획]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기치 하, 저의 직무수행 계획을 (1) 직무 전문성, (2) 업무관리 및 추진, (3) 조직 내 역할, (4)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무 전문성
-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후좌우 모든 맥락과 내용 및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하겠습니다. Detail 에 대한 꼼꼼함과 정확성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국내외 법률뿐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지식(가령, 국제관계(국제정세), 국제경제, 세계사, 상대국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현업과 논의하여 법률 지식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관리 및 추진
- 업무를 대하고 추진할 때, 단순히 우리 부서 입장뿐 아닌 외교부와 정부,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주어진 표면적 업무 이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단발성 법무 solution 이 아닌,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선제적인 total solution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Deadline 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유관부서의 deadline 도 내가 모두 챙긴다는 총괄의 마음으로, 적시에 업무 성과를 도출할 수 건강한 긴장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법무의 입장, 논거 등을 실시간 현업과 어느 수준 공유, 논의함으로써 현업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solution 이 적시에 도출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 업무현황 및 추진경과는 지속적으로 자주 점검하고, 업무처리는 깊이 있게 하되 적시에 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관리, 추진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도 ‘상자 밖’에서의 고민을 주기적으로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업무를 대하고 추진할 때, 법무 조직일지라도 외교정책의 기획 및 시행까지도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조직 내 역할
- 내 팀장은 내가 승진시킨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팀 간 그리고 팀 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단순히 사무관으로서의 역할과 직무만을 실행하며 안주하지 않고, 서기관 이상의 역할과 직무도 학습하여 끊임없이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항상 더 고도화된 업무를 고민하고 이에 도전함으로써 따라오는 후배들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성장, 배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업무를 통해 배운 지식, best practice, know-how 등은 외교부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시의적절한 내부 세미나, 매뉴얼화 등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4)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 공정성과 청렴성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생명줄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국익을 증진시키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 대한민국은 내가 공직자로서, 변호사로서 앞으로 만나고 보필할 수 있는 고객 중 가장 크고 귀중한 고객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 때로 조직에 대해 실망할 때라도 궁극적 고객인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꿋꿋이 정진할 것입니다. 설령 12 척의 배가 1 척만 남더라도, 1 척마저 소멸될지라도,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마음으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가를 지키고 잘 되게 할 것입니다.

#

<어느 정치체제에 우리 답이 있는가: 2017~2020년경 쓴 관련 글들 하나로 취합>

일례로 나라별 빈부격차만 보더라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심지어 독재, 민주주의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각각 대표한다고 하는 두 강대국도 빈부격차지수 면에선 둘 다 하위권에 속한다.

나라 정치의 목적이 국민과 후손의 지속가능한 행복이라 할 때, 당연한 얘기이나, 이 목적 달성은 외향적 정치체제 자체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실상에 훨씬 더 연관이 있는 거 같다. 부정부패와 반칙이 얼마나 만연한지, 공정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과 그에 맞는 공정한 보상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사회의 지도층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며, 사람들이 서로의 이웃을 얼마나 돌보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진실된지 등과 같은 국가와 국민의 실상에 오히려 더 연동 돼 있는 거 같다.

달리 말해, 우리의 해답은, 행복은, "어떠어떠한 주의", "체제", "외부 시스템"에 완전한 해답이나 행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과 사회 전체의 정직과 양심, 공정과 정의, 배려와 사랑과 같은 훨씬 더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것에 있고, 이에 비례하는 게 아닐까. 아무리 색다른, 신형 하드웨어를 갖다 놓아도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낙후돼 있다면, 그런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의 현 민주공화국 체제에 큰 가치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를 통해 성취한 민주공화국 체제는 엄청난 큰 보배이지만, 이 체제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이 체제를 이루는 국민 개개인에게 9 할 이상의 몫이 있는 거 같다.

민주공화국 체제가 큰 보배라 하는 이유는, 변질된 붕당정치로 대표되는 왕정시대들과 비교해 보면 안다. 한 명의 사람이(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정치 구조 속에서는, 그나마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백 년 뒤를 생각하며 지혜와 리더십이 있는 왕 아래서는 당들이 건설적인 토론을 하며 나라를 발전시키겠지만, 그 한 명이 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이거나,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며 큰 상처와 복수심이 있거나, 매혹적인 이성에게 쉽게 휘둘리는 경우라면, 그 나라의 흥망이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인하여 좌지우지된다.

그럼에도 권력을 잡기 위해 마땅히 분투해야 하는 각 당들은 그러한 왕의 비위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백 년을 염두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지혜와 카리스마가 있는 왕일 때는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며 다른 정당과 대결하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왕의 복수심을 자극하거나, 모함을 만들어내거나, 매혹적인 이성을 제시하며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 한다. 그러한 당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변질하지 않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역사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왕권이 있던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다 비슷한 역사를 가진 것 같다. 이런 시스템의 개선 방향은 일단은 절대적인 그 한 사람의 권력을 최대한 많은 이가 나누어 가지면 될 것처럼 보인다(계란을 한 봉지에 다 담지 말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이 땅에 탄생했다. 즉, 그 왕 한 명의 권력이 최대한 많은 이에게 분산됐다. 다행이다. 다만, 안주할 수 없다. 아무리 다수에게 분산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다수가 옳지 않은 쪽으로 쉽게 선동된다면, 나라의 백 년 뒤를 염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수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개인감정에 휘둘리는 다수라면, 절대왕권보다 결코 나아진 게 없을 것이고, 심지어 성군(聖君)일 때의 절대왕정보다는 퇴보할 것이다.

물론 섣불리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민주공화국이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민들이 여러 시각에 대해 들을만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있었는지, 독립적인 사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과 여유가 있는지(경제적 문화적 여유 포함), 이들이 자라난 사회의 시스템은 '이웃사랑'을 기리고 칭찬하며, 남을 볼모로 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정신은 배격하고 비판하는 시스템인지, 그러한 신상필벌을 따지는 기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나라 운영 상황에 대해 양심적으로 보도하려는 복수의 언론사들이 갖춰져 있고 그러한 공정 보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공정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보상과 공정한 패자부활전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등. 나열하려면 끝이 없겠다. 그러나 여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지향하려는 시스템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일 뿐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도 있고, 의무교육의 제도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제도적 장치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결국 허울만 좋은 시스템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어도, 결국 그 안에서 그러한 제도들을 실제 집행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의해 집행률과 활용률의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의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의 맞는 위정자들이 선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출된 위정자들과 그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국민들에 의해 이러한 제도들이(아무리 견고하게 설계된 제도라 할지라도) 조금씩 또는 급격히 진보되거나 퇴보될 수 있기 마련이다.

그 오랜 세월을 거쳐,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됐다. 단순히 몇 년의 한 번 찾아오는 투표권뿐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고,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보다 더 우리나라에 특정하여서 말할 수 있을 것은, 역사 속에 드러난 우리나라는 똑똑하고, 끈기 있고, 나뿐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고, 따스한 정이 있는 나라다. 심지어 우리는 잘살 때는 다른 나라를 필요 이상으로(야욕적으로) 침략하려 하기보단 도움을 주려 했다. 그러나 이것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우리는 4,300 년 이상 되는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낸 민족이다.

비록 분단된 현실이고 열강의 이권 다툼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분단과 열강의 다툼은 지난 4,300 년 동안도 여러 번 있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 온 민족이다. 특히 내실이 통합되고 건강할 때는, 그 어떤 외침(外侵)에도 잘 이겨냈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다른 나라들에서 떨쳐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때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속수무책으로 있던 우리 민족을 돕고 보전하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순간들도 적지 않게 우리 민족사(民族史)에 있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자유와 창의와 인격이 존중받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 간 인애와 도덕과 상식과 예절과 정의가 살아있는, 살기 좋고 국격이 높은 자주 독립국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항시 우리의 힘과 인품을 기르고, 기백을 높이며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국가 시스템과 개개인 삶의 양태와 질에 대한 끝없는 성찰과 개선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행복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행복한 국민이 있는 나라만이 강력한 자발적 국방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일한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 모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사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어느 한 사람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여 순항하냐 역행하여 파선되냐의 차이 정도인거 같다.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한 개인이 있다 한들 그 인물도 결국은 그 역사의 산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탄 인물로는 볼 수 있겠다. 같은 파도에서도 서핑을 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이 있듯.)

그리고 그 역사의 큰 흐름이란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두 바퀴를 가진 것이 아닐까. 물론 가끔 그에 상반되는 흐름도 있어 보이나, 상반된 흐름에 편승하여 오래 가다간 결국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고로, 큰 흐름에서는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것 같다. 물론 그 '선'(善)과 '정'(正)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으나,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매우 자명한 것이다. 우리가 '양심'과 '정직'이란 두 바퀴 위에서 운행하려 하기만 한다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욥 12:23)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단 4:34-37)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행 17:22-31, 새번역)

#

<자문자답: 2022년 7월>

1.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만 33세에 이르기까지 늘 구하는 소원은?

다음의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늘 바라고 기도해왔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생에 걸친, 영원에 걸친 친밀함. **둘째,** 좋은 남편 되기.(《자유의지와 절대주권》장(章) <나의 가는 길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아시나니 나는 그저 따릅니다>에도 썼듯, **2023년 정도 부터는, 둘째는,** 한국 교회(내가 속한 가정 교회 포함)의 회개와 연합과 부흥이다. 결혼 전에는 '좋은 남편 되기'가 두 번째였는데, 2021년 11월 결혼 하고서는 내가 속한 '가정 교회'도 '한국 교회'의 소속으로 놓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셋째,** 대한민국에, 한반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와 통치가 가득한 아름다운 통일 한국이 되길. 한반도의 모든 거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있길. 아멘.

2. 한국은 나에게 어떤 곳인가?

선교지. 선교사들이 어떤 특정 국가를 품고 평생에 걸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 나라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심지어 순교도 하듯, 나에겐 한국이 선교지이다. 나는 '한국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3.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평화 민주 통일을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 한 가지 이유만을 꼽는다면?
신앙의 자유.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자유와 북한 전역에 신앙의 자유가 이뤄지길 원하여서.

4. 북한의 신앙 자유와 민주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기도. 남남갈등(南南葛藤) 경계. 북한 인권에 대한 일관된 우려 제기.

5.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인민과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북한 독재 지도자와 이단사이비 교주들. 특히 성경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왜곡되게 이용하여 신도들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 독재자와 교주들이 멸망하길 바라기보단,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리와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원한다. 멸망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이미 멸망한 거나 다름없고,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영원한 멸망까지도 자초하는 것이기에.

6.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열렬하게 일관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7. 인생의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동행.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친밀함이 커져만 가는 아들 일수 있길.

8.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지금이라도 받아 누리세요. 이 어마어마한,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의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꼭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구원의 초청을 제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꼭 덥석 받으세요. 인생에서 믿을 사람, 믿을 분,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고로 지금이라도 얼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영혼과 삶을 그분께 의탁하여 구원을 받으세요. 죄(罪)와 영벌(永罰)에서 의(義)와 영생(永生)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를 죄와 저의 저주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 된 저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로 죽으시고 저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계속 가두어 두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과 섭리 안에서 부활 하사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음을 압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원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며, 나의 영혼과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

지 저를 사랑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의 넉넉한 구원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
<우리가 곧 국가입니다>

한 국가의 개개인들의 문화, 가치관, 비전, 예절, 도덕성 등이 합쳐지어 그 국가를 이룬 것이기에 국가에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또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로, 리더십의 부재나 국가의 쇠락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국가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누구도 이전에 바로 우리가 국가이다.

1910 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상해임시정부에서 동포 독립운동가들을 향해 전하셨다고 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떠오른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다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을 하시오? 우리 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아아!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일 놈이요, 저 놈이 죽일 놈이요'라고만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 하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삼상 12:24-25)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삼하 24:1)[1]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쉰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쉰 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쉰 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창 18:23-32, 새번역)

---

[1] 우리가 알듯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이후 백성 칠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재앙을 불러왔다(삼하 24:10-15). 하지만 주목할 것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셨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은 빨랐으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는 더디었던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민 21:5 & 26:15, 시 106:14-15, 신 8:1-8, 히 3:15-19) - 우리도 재난 시국 때에 우선적으로 지도층을 탓하거나 하늘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국가됨'부터 돌아보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대하 7:13-14)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조상들보다 여호와를 더 노하게 하였다. 그들도 역시 높은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돌기둥의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으며 또 그 땅의 우상 신전에는 남창들이 득실거렸다. 이와같이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더러운 습성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였다. 르호보암왕 5 년에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왕상 14:22-26, 현대인의 성경)

"시드기야는 21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 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 주어도 그 말을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그 주변 나라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는 유다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젊은 남녀는 물론 백발 노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죽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느부갓네살왕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리고 그는 성전 비품과 귀중품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의 보물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모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소중한 그릇들을 깨뜨려 버렸다. 또 그는 살아 남은 자들을 모조리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며 그들은 거기서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때까지 그 곳 왕과 그 자손들을 섬겼다." (대하 36:11-2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3-11)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 1:11-28, 새번역)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적폐와 불의부터 회개하며, 국가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이 돼야겠다. 그리고 주어진 소중한 한 표,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생각하며, 역사도 돌아봄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 증진에 보탬이 되는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투표해야겠다.

#

<국민 모두의 부업이 대통령인 나라>

국민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의 의식 속에 바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즉, 남의 책임 소재를 찾기 전에 나의 책임을 돌아보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며, 나라에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는 대통령 의식을 가진 국민. 이 나라의 수많은 국민 중 '나 하나쯤'이라는 마음으로 무임승차하면서 사적인 잇속만 최대한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섬기는 대통령이라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갖고, 나의 삶뿐 아니라, 내 이웃과 이 나라를 애정을 갖고 돌보며,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 이럴 때 본업으로 정치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앞에 긴장하며, 국민을 가장 어려워하고, 마땅한 충복(忠僕)으로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국민주권 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나라만이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나라이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0-13)

#
<좌·우 이전에 1>

'보수'와 '진보'라는 레이블이 정치인에게는 중요하지만, 양심과 정직과 상식에 따라 나라와 후손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쉽사리 단순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똑똑하게 투표하고, 객관적으로 정치인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보수와 진보 이전에, 상식과 중도 대 맹목과 극단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극우와 극좌, 극좌와 극우 모두를 경계할 것이다. 극으로 분열될수록 정치인은 쉽게 표 받고, 쉽게 정치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상식과 정직과 양심과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똑똑한 국민의 똑똑한 애국심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마땅히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
<좌·우 이전에 2>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한국인이다. 가령 간첩 또는 매국노가 있다고 한들(실제로도 있겠지만), 일단 다수를 이루는 간첩도 매국노도 아닌 우리 한국인끼리라도 친한파(親韓派)로 뭉쳐야 진짜 간첩과 매국노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끼리라도 얼른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우리끼리 반목, 고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서로에게 어떠한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선입견을 품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귀를 열고 건설적인 토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주변국은 우리를 결코 만만히 보지 못할 것이다.

#

<좌·우 이전에 3>

만약 반독재를 외친 분들이 막상 독재에 대해 너그럽고, 애국을 외친 분들이 막상 매국에 대해 너그럽다고 한다면, 그것은 '좌' 또는 '우' 레이블을 붙인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양심과 합리적인 상식, 보편타당한 정의는 그 어떠한 정치적 레이블이나 당위보다도 우선 된다.

그럼에도 은연중 국민은 그 레이블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좌·우 레이블을 국민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 양심과 상식과 정의를 먼저 실천하면, 그게 좌인지 우인지 국민은 굳이 알 필요도 없이 어련히 밀어주게 되지 않을까.

#

<좌·우 이전에 4>

인간의 극좌, 극우란, 사실 좌도 우도 아닌 양심과 겸손을 저버린 그저 오만과 이기의 극단인 것. 극좌와 극우는 일직선 위 양극에 있다고 믿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극좌와 극우 모두 합리, 이성, 인격, 상식 등의 중도와 대척점에 있다는 면에선 둘 다 같은 곳에 있다. 마치 일직선이 아닌 둥그런 원 위에 있듯이.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극좌는 극우에 기생하고 극우는 극좌에 기생한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지는 특이한 공생관계. 표면적으로는 싸우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필요한 관계. 한 당 소속이라고 해도 다 같다고 보아선 안 된다. 같은 당내에서도 극단과 중도가 있을 것. (*독소불가침조약: 1939 년 8 월 23 일, 극우 나치 독일 히틀러와 극좌 공산당 소련 스탈린 간 체결한 불가침조약)

국가적으로 극단을 경계하려면 중산층을 키우고 결집해야 한다. 극단적 사회, 극단적 시민, 극단적 분열은 극단적 정치를 키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은 사실 귀족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꼭 돈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성별, 고향, 지식, 배경, 학력, 직업 등 여러 다양한 요인이 나를 때로는 귀족에 위치에 있게 할 때도 있다. 귀족이란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기에 절대적 귀족도 절대적 하층도 없다. 이를 알고 내가 귀족일 때 적극적으로 배려, 섬김, 사랑, 권고, 희생 등을 실천하여 귀족의 의무를 다하므로 중도의 선순환 사회를 다 같이 이뤄야 한다. 바로 오늘, 바로 나부터 실천하면 되고, 해야 한다. 안 그럼 결국 다 죽는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롬 15:1-2)

#
<좌·우 이전에 5>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마땅히 개혁할 것을 개혁하기 위해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는 불가분 협력 관계, 상생의 관계이다.

어떤 정치인을, 어떤 정당을 무조건적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가변적인 것을 무조건 지지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지지하는 꽤 명확한 가치관, 소명, 철학과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치인과 정당을 때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한다면 한결 더 일관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세울 때, 보편타당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양심, 정직, 상식과 같은 매우 기초적인 관점만 고려하고 세워도 충분히 훌륭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만약 사랑과 긍휼과 배려의 관점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그곳은 세계에서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살기 신명 나는 나라이지 않을까.

#
<좌·우 이전에 6>

정권의 지도자가 무고한 국민을 향해 공정한 재판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순간부턴, 더이상 정치이념의 문제나 정치철학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이다.

독재에 맞서 1960 년 4.19 혁명, 1969 년 3 선 개헌 반대 투쟁, 1979 년 부마민주항쟁, 1980 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 년 6 월 민주항쟁 등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 중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개중에는 본인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몰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연합한 건, 1980 년 5 월 당시 헌법에도 명시돼 있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인간적인 독재 정권으로부터 지켜내려 한 것이다.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독재 정권 지도자로부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려 한 것이다.

개인과 가정이 없는 국가는 유명무실하다. 국가도 결국 개인과 가정을 위할 때 지속가능할 것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 다 좋게 보면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누구에게 외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 자발적 멸사봉공을 외치며, 지도층은 더더욱 강도 높은 멸사봉공을 솔선수범(率先垂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선조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와 자유에 대한 자랑스러운 횃불을 이어받아 우리 동포들, 현재 분단된 북한 지역 국민들에게까지 전해주어야 한다. 국민이 또다시 승리할 것이다.

#
<좌·우 이전에 7>

정확히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고, 모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기도 애매할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시대에 따라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이 계속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일 거 같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진영' 같은 게 논문을 써내고 보다 손쉽게 표를 받기 위해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중요한 건 아마 '지속가능한 행복'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진영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고로 이런 정치적 이분법은 그릇된 이분법이라는 생각을 항상 지울 수가 없다(false dichotomy). 마치 인류를 네 가지 혈액형으로 나눈 뒤 그게 사람의 성격이랑 꽤 정확히 상관한다고 정하고, 인류 성격 종류의 전부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더 성급하고 투박한 분류가 보수·진보 이분법인 거 같다.

굳이 따지자면, 보수·진보 둘 다 매우 필요하다. 개념이 너무 복잡할 땐 가장 직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면, 마땅히 진보(progress)를 이룰 것에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마땅히 고수하고 지켜야 할 부분은 보수(conserve)해야 하는 것이고, 고로 둘은 상호 불가분한 상생의 관계인 것이다. 보수가 없는 진보는 거대한 혼란일 것이고, 진보가 없는 보수는 고인 썩은 물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개혁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 시야와 지혜를 갖추는 것이 내가 어느 진영인지를 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보수'와 '진보'의 진영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국민의 지속가능한 행복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양심, 정직, 상식, 상호 존중, 이타심, 장기적 안목, 배려, 섬김,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보상, 공평한 정의와 법치, 투명한 의사결정, 투명하고 정직한 독립적인 언론, 건설적이고 상호 관용적인 열린 토론, '공동의 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겸손, 온유, 선행, 성실, 미래형 인재와 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등이 우리 모두의 행복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가치들이지 않을까. 이런 가치들이 보편화 되고 당연시될 때, '보수'와 '진보'의 정치 진영 구분법은 혈액형으로 성격 맞추는 구분 정도로만 가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반대로, 비인간적인 독재, 극단, 맹목, 부정직, 비상식, 비양심, 비이성, 매국, 불공정, 태만, 부정부패, 생명경시, 거만함, 어떤 핑계로든(세대, 지역, 성별, 이념, 재산, 직업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하는 것, 계층화를 부추기는 것, 국민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 눈 속에 있는 티는 빼주겠다'는 외식과 위선, 사적 잇속을 위해 공동체의 이익과 미래를 타협시키는 것 등은 그 어떤 이름의 진영으로써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건, 이미 초등교육 때 다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전부터도 증언해오던, 이러한 기본적인 지켜야 할 가치들, 경계해야 할 가치들을 기준으로 바로 나 자신부터 돌아보며, 나의 잘못과 고쳐야 할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자기쇄신의 일은 어떤 거창한 이름과 진영 뒤에 숨는다고 피하고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해나갈 때, 진정한 혁명, 지속가능한 행복이 자연스레 임하고 피어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
<좌·우 이전에 8>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정치 판세는 50.1%대 49.9% 지지율로 진보와 보수가 계속 집권을 번갈아 가며 하는, 또는 3 당 체제에서 33%대 33%대 34 % 지지율로 계속 집권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건강하고 건설적인 정치 모양새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구에서라도 계속 집권당을 아슬아슬하게 바꿔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마땅히 국민의 충복(忠僕)으로서 두렵고 떨림을 갖고 국민을 섬기게 되는 정치. 한쪽으로 쏠림 없이 정치인과 정당들 간 건강한 긴장 관계가 늘 존재하여 서로 checks and balances 를 이루고, 건설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고민과 끝없는 쇄신 끝에(인적 쇄신을 최우선으로 포함하여) 국민의 선택을 간신히 받는 정치. 이런 정치가 사실 가장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선순환을 이루는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라고 생각한다.

#
<좌·우 이전에 9>

오늘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집회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무적이었던 이유는 소위 우익과 좌익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토론 패널로 계셨다는 것이고, 특히 상대 진영을 맹목적으로 비방하기보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 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의 인권 참상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영호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고, 참된 진보, 참된 보수라면, 모두 북한 동포 인권 참상을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감동적이었다. 정치적 갈라치기나 좌우의 극한 대립보다도 대의 앞에서 상호 건설적인 토론과 연합된 모습에 기뻤다.

이 세상에 나와 100 프로 의견이 일치하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런 단체나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또 설령 있다면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보편타당하고 정파를 초월하는 인간 공통의 선, 양심, 도덕과 도리 위에서 깨끗한 사명감을 갖고, 구동존이와 화이부동의 마음, 상호 존중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는다면, 북한 인민의 자유뿐 아니라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통일 대한민국도 조만간 이룰 수 있을 거 같다.

북한 대비 남한만이 무조건 모든 면에서 옳고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단체가 모든 면에서 다 옳다는 건 더더욱 아니며,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맞다는 건 가장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포 북한 인민의 인권 유린 참상을 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것이 오늘 모임에 대한 나의 시각이다. 모두 이런 마음일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남을 판단할 것은 없고, 나는 나의 마음만이라도 온전히 잘 관리하며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참고로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더 위하는, 건강하고 온건하며,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장기적 안목과 화합의 지혜와 리더십을 두루 갖춘 보수와 진보와 중도, 또 그 외 분류의 정치 세력이라도 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지며, 극단적 맹목적 선동적인 정치 세력은 점차 줄어들길 바라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한 걸음 한 걸음.

#
<좌·우 이전에 10>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 5:31-3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수 5:13-15)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 23:6-11)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 28:11-14)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7-9)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 17:14-20)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하 22:2)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오.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오.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대하 19:4-11, 새번역)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잠 27:17, 새번역)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 15:21-22, 새번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시 111:10, 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네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며 그것을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깨달음도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흠 없이 사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는 자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옳고 정직하며 공정한지 알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네가 지혜롭게 되고 지식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며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할 것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며 악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고 악인들의 못된 짓을 즐거워하니 그들의 길은 굽었고 그들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다. 그럴 듯한 말로 유혹하는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혜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잊어버린 인간이다.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녀의 길이 지옥으로 기울어졌으니 누구든지 그런 여자를 찾아가는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하고 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 남을 것이지만 악하고 신실치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째 뽑혀 사라질 것이다.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네 재산과 네 모든 농산물의 첫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예지로 우주 공간을 펼치셨고 지식으로 깊은 물을 나누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네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니 네가 네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이나 악인들의 멸망이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분이시니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며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너라. 내일 주겠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를 믿고 사는 네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며 남이 너를 해하지 않았거든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라.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나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들어라. 유의해서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건전한 것을 가르친다. 너희는 나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고이 간직하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아한 화관을 네 머리에 씌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네가 걸어갈 때 네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잊지말고 굳게 지켜라 이것은 너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너는 악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악한 길을 피하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말며 돌아서라.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네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2:1-4:27, 현대인의 성경)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요 16:13-15, 현대인의 성경)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22-26)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전 1:30-31)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약 3:13-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골 1:9-11, 새번역)

#

<외교부 주최 ‘제1회 국민외교 자유발언대’: 2018년 7월 7일 발표>

[민주평화통일: 북한의 비핵화 제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현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의 핫이슈인 북한의 비핵화 제안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저의 한 시각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배경을 집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온 정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유엔 인권이사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세계 여러 인권 보호 기구에서 고발하고 유엔 총회에서도 10 년 이상 매년 공식적으로 규탄해오고 있는 북한 내부의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 왕성한 공포정치와 정치범 강제 수용소만 봐도 적어도 아직 북한은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온 정권은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 채 현재의 비핵화 논의를 보기 원합니다. 요즘 북한이 세계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비핵화 대가 1 순위는 경제원조가 아닌 체제안전보장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원조도 당연히 필요하나 이는 적어도 명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비핵화 대가는 아니고 줄곧 체제안전보장을 일관되게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봅니다.

북한은 처음 핵을 만들 때부터 사용할 생각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핵개발 처음부터 한 가지 명확한 조건을 대가로 언젠가는 일부러 포기하려고 만든 핵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었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비핵화 대가는 바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즉, 주한미군철수와 대북 한미군사동맹의 격하, 궁극적으로는, 해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핵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핵과 ICBM 을 3 대 세습정권에 걸쳐 겨우 완성시켰다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점에 비핵화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보장 교환을 요구하며 은둔 정권이 세계로 나왔습니다.

달리 말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그리고 중국도 원하는 것)은, 6.25 전쟁과 같은 해 1950 년 1 월 미국이 발표한 남한을 제외했던 미국의 극동방어선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이 다시 한번 그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처럼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을 바랄 것이고, 어쩌면 그게 북한이 3 대에 걸쳐 만든 핵과 ICBM 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에 바라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궁극적 목표를 중국도 그동안 공감했기에 핵과 ICBM 개발을 앞에서는 뭐라 해도 뒤로는 눈감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종신집권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사실상 독재인 푸틴의 러시아, 우경화 일본, 주체사상 독재인 북한 틈바구니에 자유민주주의 한국만 홀로 남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내부 국론을 분열시키고, 빌미를 만들어 다시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화통일을 추진해 보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남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다가 우리의 체제가 위태롭게 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우리민족끼리"의 통일, 즉, "우리민족끼리"의 적화 통일에 한층 가까워집니다. 이렇기에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평화협정을 기쁜 마음으로 10 번이고 서명해 줄 수 있고, 그런 뒤 머지않아 그들이 익숙한 화전양면전술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의 조건이 무엇이 됐든 일단 비핵화를 이루면 당장의 북한으로부터의 대미 핵 위협이 없어지고, 노벨 평화상도 덤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나가는 걸 대환영할 것이고, 여러 방안을 동원하여 미국의 한반도 포기, 즉, 이미 한 번 그어 봤던 애치슨 라인을 다시 한번 긋도록 종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안 내고 핵 위협만 제거돼도 단기적으로는 돈 벌 수 있을 듯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뒷받침하듯, 6.12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는 사전 논의되지 않은 듯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보류를 결정했고, 심지어 그 외에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체제안전보장안도 김정은이 "happy"할 만큼 주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ABC News 와의 북미회담 직후의 인터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하면서도,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6 월 20 일 북중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전략전술협동"은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달리 의견을 내지 않은 점을 볼 때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미 북미회담에서 미국의 암묵적 사전 동의를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통미봉남(通美封南) 뿐 아니라 통중봉남(通中封南)도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 한 나라의 군사동맹은 단순한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 정치적인 메시지도 크게 담고 있기에, 한국이 영세무장중립국이 되기 전에는 독재·공산 진영에 대응할 만한 자유진영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자주국방에 반하는 자존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정치외교력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도록 한미군사동맹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익해 보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막강한 국방력,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애국심, 그리고 자유진영 간의 굳건한 동맹은 견지하고, 통미봉남과 남남갈등은 경계하는 와중에 남북 간 왕래와 대화가 많아지는 것은 웬만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북한에 물들기보단 북한이 우리에게 물들 거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 진영인 남한과의 수교뿐 아니라, 북미 간, 그리고 북한과 유럽 간의 수교도 동시다발적으로 도모하여 경제, 문화, 정치 교류 등을 통해 그동안 밀렸던 경제뿐 아닌, 정치 개혁·개방 및 선진화의 많은 숙제를 북한이 해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나라가 감정적이거나 정파적인 호의나 반대가 아닌, 지혜로운 도움이 되고, 장기적 시각을 갖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언으로는, 결국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의를 빼긴 억울하고 불행한 자의 민심이 천심이 돼야 하고, 국민이 행복한 정권만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남북한 모두 그렇게 점진적으로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는 체제로 통일되어 너무 머지않은 때에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新)냉전: 2022년 9월 9일>

2022 년 9 월 9 일 오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UN(국제연합)과 EU(유럽연합)의 탄생부터 소련의 붕괴까지 지켜봤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와 북한 김정은의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핵 포기는 없다는 확언 및 법제화는, 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냉전 시작의 최종적 확증으로 느껴진다.

원래 북한은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과 체제안전보장(한반도에 대한 미국 이권 개입 배제) 협상을 하는 게 김정일 때부터 계획이었는데, 이젠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국, 유럽을 상대로 대결 노선을 확실히 취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면에선 내몰린(?) 듯도 하다. 물론 결국 김정은 자기 자신의 집권 탐욕이 이를 택한 것이지만.

이 신냉전, 제 2 차 세계 냉전(冷戰) 시대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고로 경제도 세계가 양분된 신냉전 시기에 전 세계적 경제 호황이란 정의상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해봐야 반쪽짜리 호황일 뿐이다.

이런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계 시류를 역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렘 33:6-9)

#
<신(新)냉전: 2022년 10월 7일>

성동격서(聲東擊西) – 동(東)은 북한 서(西)는 우크라이나. 특히 최근 들어 높아진 성동(聲東)(지난 5 개월 동안 10 차례, 그중 특히 지난 2 주 동안 6 차례 미사일 도발). 중국 시진핑의 3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10 월 16 일 중국 전당대회 이후 북한의 제 7 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성동의 최고조.

그런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인 격서(擊西)를 중국 전당대회 이후 최고조로 올릴 확률도 높아가는 거 같다. 그 방법(전술핵) 외에는 러시아 푸틴이 하야하지 않는 한 러시아로선 현재의 막대한 소모전이자 점점 커지는 패전 리스크를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은근히 그 방법을 쓰길 바랄 수도.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완전히 외교적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핵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서구(유럽과 미국)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 보고 싶은 속셈인지도 모르겠다. 북한도 서구의 반응이 궁금할 것이다.

현재 이미 본격화된 신냉전시대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야욕 및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의 권력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 속, 중-러-북 간 긴밀한, 매우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된다. 그 셋이 살아 있고 집권하는 한 그들은 운명공동체가 됐다.

그사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커지는 반독재 시민운동. 이런 와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반독재 시민운동이 급속히 더 커질 거 같다.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겠다(다시금 후쿠야마(Fukuyama) 교수의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얘기가 재유행할지도. 물론 역사는 반복되기에 그 '종말' 후에도 부패한 자유가 다시 또 다른 부패한 독재를 낳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이 쓰이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을 써봐야 도리어 본인의 멸망만 더 가속화될 거란 얘기다. 푸틴은 핵을 쓰든 안 쓰든 이미 졌고 앞으로도 지는 옵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이야 진작부터 낙후된 상태로 쭉 있으면서 그냥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겠고. 결국 러시아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 북한 인민만 더욱 힘들어져갈 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푸틴이길.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땅의 가혹한 독재자들이길.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엡 6:9)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출 3:7-10, 현대인의 성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
<일본 선교: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라는 복음 전도 집회를 섬기기 위해 봉사자로서 일본을 다녀왔다. 역사적 아픔이 있는 일본에 놀러 가본 적은 없고,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일본 공항을 몇 번 지나쳐본 것 밖에는 없었으나, 선교로는 갈 수 있을 거 같았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롬 12:21) 좋은 기회이자 의미라고 생각하여 일본 선교를 다녀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와 찬양 축제가 있는 가운데, 일본 현지 교인들뿐 아니라 처음 복음을 들은 많은 비신자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신을 하며 눈물과 회개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일본 현지 크리스천들을 통해 식민 역사에 대한 사과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나도 매우 울컥하며 반만년 역사의 앙금이자 수 세기 동안의 체증이 눈 녹듯 녹아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국가들의 수 세기의 걸친 외교, 군사, 지략과 노력 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음을 보았다. 선교 일정 중 한 번은 중국 목사님께서 일본 성도들과 한국 성도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중일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기적을 체험했다. 현재도 계속되는 지난 반목의 역사들을 비추어볼 땐, 이런 체험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고, 행복한 기적이었다.

이제 일본 선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마치 집에 가스불 켜고 외출했던 느낌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일본에서 바라보니 더욱 마음이 비통하고 얼른 돌아가서 ‘한국 선교’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13-22)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6-28)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고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래서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가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또 너희 속에 내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본토에 정착하게 하겠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고 실행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왕국’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써라. 그리고 네 손 안에 그 두 막대기 끝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처럼 보에게 하라. 네 백성이 너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겠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내가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를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두 막대기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너는 네가 글 쓴 그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데서 들고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사방 불러모아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왕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들과 더러운 물건들과 그들의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다 한 목자 아래서 내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 자손 대대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그것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히 세워 두겠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모든 나라가 나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겔 37:9-28, 현대인의 성경)

#
<경제적 Perfect Storm: 2022년 5월 12일>

1997 년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때는 내가 만 9 세여서 경제 위기 상황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 했다. 다만, 25 년 후인 2022 년 올해 경제적으로 Perfect Storm 이 올 거 같다. 식품·원자재 고물가,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 둔화(세계적 stagflation 우려), 국내 심각한 가계부채율, 기업부채율,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선제적·적극적인 기준 금리 인상 불가피, 원화 약세, 제 1 의 수출 대상국 중국 경제 봉쇄(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reopening 에 상당한 제약), 제 2 의 수출 대상국인 미국 경제 둔화,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경제 제재, 국내 주식 시장 외국인 순매도 랠리 등.

타개할 방법은, 환율 방어(통화 스와프, 외환당국 개입 등), 생활 필수 품목 저물가 유지(재정 지원, 관세 인하 등), 가계 부채 상환 독려 및 부채 상환을 위한 일시적 세제 혜택, 점진적·예고적·예측가능한 금리 인상, 수출 대상 국가 다변화(탈중국 가속화), 높은 고용률 적극적 유지, 저소득층 세제 지원,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사업 내실 제고 및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유지에 방점, 미래 먹거리 지속 발굴(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소 경제 등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외교적으로 특별히 아시아 내 중국과 북한 정치적 리스크 관리, 부정부패·자본시장 교란 근절 및 엄벌, 정치적 선동과 갈라치기 근절,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 선출, 돈을 숭배하는 문화 과감히 폐기, 이타적·박애적 사회 문화 장려(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국가적 위기 앞에, 국민 다 같이 One Team 이 되어, 이 꽉 물고 어깨동무하여 타개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태풍이 온다면, 내 눈만 가리고 외면하지 말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탐심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늘의 심판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돌아보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만이라도 내딛다 보면 태풍과 먹구름은 지나갈 것.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밥맛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 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시 107:17-38, 새번역)

#
<순한 맛 매운 맛: 2022년 6월 15일>

비유로써, 그나마 순한 맛인 세계적 코로나 전염병이 2 년 반 정도 걸렸다면, 중간 맛인 세계적 stagflation 과 경기 둔화·침체에서의 회복 및 bull market 은 앞으로 최소 5 년 정도가 걸릴 것이고(가계부채와 기업 부채가 높은 한국은 더 걸릴 듯), 매운 맛인 세계적 미중 갈등과 패권 다툼은 앞으로 최소 10 년 이상 걸릴 것이며(중국 최측근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큰 한국 입장에선 훨씬 더 걸릴 듯), 가장 매운 맛인 세계적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은 앞으로 최소 30 년 이상 걸릴 것이다(세계의 공장 중국을 이웃으로 둔 한국의 미세먼지 해결은 그 이상 걸릴 것이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듯, 왠지 나머지 다가올 기간들을 좀 짧게 잡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짧길 바라는 나의 소망도 한 담아 썼다. (물론 그사이 해결되는 문제보다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지나 않기를 바란다.)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패권 다툼은 인류 역사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사실 자유와 권위 간 다툼의 모양을 취하나 근본적 문제는 모든 인간의 죄성(罪性)에서 비롯되는 인류 역사의 악순환이기에, 죄가 없는 천국 가야 비로소 끝날 것이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천국 가자. 권위주의의 독재국가는 독재자의 이기심과 권력욕과 불안함에 기반한 폭정과 침략의 야욕 등을 회개해야 하고, 자유주의의 민주국가는 객관적 진리를 배격하는 억지스러운 극단적 인본주의, 물질·과학·이성 만능주의와 이기적 개인주의 등을 회개해야 한다. 양쪽 다 유일한 절대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와 나눔과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어찌 됐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망하든 흥하든 죽든 살든 끝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앗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호 14:1-9)

#
<사실상 예정된 위기를 기회로: 2023년 4월 11일>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거 같다. 1997 년 IMF 때보다도 힘들 거 같고 이번 위기에서의 반등도 IMF 때보다도 더 오래 걸릴 거 같다. 세계적 인플레와 고유가와 고물가와 고금리뿐 아니라 특히 한국 입장에선 심각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그리고 북중러 한미일 갈등이 더 큰 문제 같다.

물론 좀 더 길게 보자면, 저출생과 노령화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히 북한 정권이 갈수록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로 겨우겨우 존속하고 있어 결국 남한의 큰 숙제로 돌아올 것이 시간문제이다.

너무 물질만능 사회로 가고 있던 건 아닌지, 물질 소유에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던 사회는 아닌지, 지나친 경쟁과 비교 사회로 가고 있던 건 아닌지, 당장의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던 건 아닌지, 사실상 예정된 다가올 위기들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와 우선순위가 재정립됐으면.

살기 좋고 아름답고 화목하고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꿈 꾸며.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딤전 6:7-19, 새번역)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히 13:1-8, 새번역)

#

<2024년 8월 5일, 코스피 지수 역대 최대 낙폭의 날 저녁 끄적임>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 탐욕과 사행심과 야욕을 버리고 근면과 절제와 정직을 택하길 바라는 마음,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미국 오늘도 하락장(솔직히 일본 금리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정리/ 줄여가는 여파가 클것.. 결정적 트리거.. 일본은 금리는 높이되 양적완화를 병행해서라도 (냉난방 동시 가동) 앤케리와 엔화 숏 그리고 엔저 고물가는 막아보며, 일본 증시 급락은 최대한 막아보려 할테나.. 매우 어려울 것 N 차 방정식..)

내일 우리와 일본 다시 하락장

그리고 금주중 이란(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시아파 무장단체 등 통해) 고강도 이스라엘 공격
원유 값 상승
물류(무역)비 더 상승
고인플레 지속

왠지 8 월 지표 기준으로 9 월 fed 50bp 인하 어려울 것 최대 25bp 인하(파월은 50bp 원할지라도..)

미국 증시 계속 하락
트럼프 승리에 도움
트럼프 집권에 대한 예상으로 주가 계속 하락

트럼프 실제 집권시 대중국 고관세 및 고인플레 지속
미국 생필품 등 고물가 지속
Fed 기준금리 인하에 어려움

올 11 월~12 월 부터 미국 본격적 경기침체(stagflation) 국면 최소 반년 이상

중국 경기 반등 확실히 실패
대신 트럼프 믿고 중국은 더욱더 대만 건들기 시작...
중국 내부 불만 대만으로 돌리기 시전(더 극심한 국뽕 선전 및 반간첩법 시행 병행)
(우리나라 입장, 최소 대만해협 불안 → 물류비 증가, 중국경제 냉각과 함께 더 우리 경제 더 냉각..)

북한 그와중 푸틴과 트럼프 믿고 더 난리법석... 트럼프 관심 끌고 주한미군철수 협상 유도 떼쓰기 시전...(그와중에 우리한텐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일단 한국 경제에는 더 하방 압력

장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GDP 대비 부채 높은 국가들 포함 본격적 연쇄침체(부도) 시작
특히 일본/한국 가계와 국가 부채 폭탄..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와 건설업 부채 폭탄..
동아시아 대충 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 종료로 인한 유럽 공포(냉각)와 시장 냉각, 국방비 급등

AI 나스닥 IT (반도체) 에 대한 무관심 최소 연말까지 지속(코인도 함께 힘 못씀).. 하락장에서 먹고 살기 힘든 데 AI 와 미래에 관심 가져줄 여유 부족..
트럼프와 함께 2 차전지도 나락..

올 연말 기준 코스피 2200 정도도 상당한 선방일것...
우리나라는 가계/기업부채 해결때까지 장기간 침체국면(국내 증시 2200 선에서 횡보여도 상당한 선방)..
내년 4 분기 정도 본격 경기 반등해도 빠른것일 것..

어차피 또 결국은 강달러 (달러인덱스)
국내 금리인하 불가피이나 결국 원화 절하 및 강달러 강화
(아무리 그래도 인버스는 애국심이 허락 못함...)

부채만 없어도(개인이든 기업이든) 상대적 (벼락) 부자의 기회.. 이자 비용 없고 주식/자산 줍줍은 덤..

설령 9 월 Fed 50bp 인하 등으로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돼도 왠지 경제 흐름을 되돌리긴 어려울 듯.. 지정학적 play out 에 영향은 좀 있더라도..

고된 하루 퇴근 후 와인 한 잔이랑 저녁 먹다가 아기 똥 기저귀 갈고 샤워시키고 재우고 다시 저녁 먹고 끄적여 봄"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므로 우리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후 7:8-11, 현대인의 성경)

#

<우리나라의 낮은 혼인율과 전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 타개 방안: 2024년 1월 29일>

결혼하고, 첫아이도 만나보니, 왜 우리나라 혼인율이 낮고 출생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알 거 같다. 출생률은 심지어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 중 최하위. 하위권이 아닌 최하위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 가계 재정 상황, 국가 복지혜택 수준, 수도권 지방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빈부 격차, 세대 간, 남녀 간 갈등 등등 다 나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리나라에서 만 33 살에 결혼하고 만 35 살에 첫아이를 만나게 되며 느낀,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생률에 가장 큰 걸림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모두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조차도 마지못해 억지로 유지해가고 있는 그 어떤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1 인당 GDP 또는 국가 경제 규모는 전 세계 상위권인 만큼, 경제적인 면만으로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 최하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혜택 제도나 기업들의 근무환경과 질도 적어도 전 세계 최하위는 아닐 것이다. 못해도 중위권은 될 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이나 지방과 수도권 격차 또는 직장 간 격차, 빈부 격차라는 것도 전 세계에서 최악의 갈등과 가장 최악의 격차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중하위권은 될 거 같다. 국민 평균적 애국심도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최하위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 못해도 중하위권 정도는 될 거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혼인율이 낮고 특히 출생률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제일 낮은 것은 왜일까?

꼭 다른 국가와 비교적으로만 제일 낮은 게 아닌, 절대적 수치로도 심각하게 낮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민족과 국가 존망의 기로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됐을까? 우리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의 나라들, 심지어 무력 분쟁, 내란, 전쟁, 피난, 쿠데타, 불안한 치안, 무장 테러, 후안무치의 독재, 열악한 사회복지와 인프라, 극심한 빈곤 등이 있는 나라들보다도 왜 우리나라 출생률이 더 낮을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바다'를 운운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이 있긴 하지만 북한 정권의 위협은 지난 70 여 년간 늘 있었는데, 왜 유독 점점 근래에 더 출생률이 낮아질까?)

바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만들어놓고 억지로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는 어떤 안 좋은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될 만큼 충분히 세계적으로 내놔도 뿌듯할 만한 여러 좋은 문화도 많이 가진 나라이다. 정(情)과 긍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넉넉한 인심, 의리, 위기 앞에 단결심, 임전무퇴의 용기, 끈기와 인내, 열정과 근면성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약자에 대한 배려, 나누고 베푸는 문화 등과 같은 게 떠오른다.

그럼에도 혼인율이나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과도한 경쟁의식, 비교문화, 획일화된 기준으로 등수 매겨서 줄 세우는 평가 문화, 작은 우물 안에서 서로를 보며 우월해하거나 열등감을 느껴하는 것, 남 눈치와 체면문화, 허례허식 문화, 과도한 의전('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과 과도한 의례(儀禮)('형식을 갖춘 예의') 속에서 본질을 놓쳐버린 변질, '겉치레'와 '으레' 문화, 사대주의 문화,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물질적으로 잘 살아 보이면 된다는 보여주기 식의 문화, 물질만능주의 문화 등. 이와 같은 문화들이 결혼뿐 아니라 특히 출생과 육아라는 축복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혼하고 애 낳고'라는 매우 기본적인 수천 년 인류 생존 번성의 본능이자 축복을 부담스럽고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화들이 은근히 우리 사회에 틈타 들어와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존속이 우려되는 지경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이런 문화에 동조했거나 방임했던 나부터 반성한다. 오히려 다 같이 못 살고 힘들 때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서 국가 복지혜택이나 절대적 GDP 수준과 상관없이 혼인율도 출생률도 높았는데, 오히려 점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다 보니 이런 교묘하게 부정적인 문화가 발생하고 커진 건 아닌지. 받은 축복을 스스로 저주로 바꾸어선 안 되겠다. 나부터 반성한다. 이런 안 좋은 문화만 없어지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혼인율과 출생률, 적어도 민족과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만한 출생률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건강한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남에게 과시하지 않아도, 남으로부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남과 무제한 경쟁하며 '이기지' 않아도, 충분히 나 스스로 괜찮아할 수 있는, 아늑한 공동체 문화가 만발하면 좋겠다.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로 여겨지면 좋겠다.

끝으로, 근원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풍성한 자존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 용서해 주심,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심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굳이 다른 어떤 이와의 비교와 경쟁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써,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홀로 최종적 주권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면, 이 사실 하나로써 영원토록 충분하고 넘치는 자존감을 선물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에 기꺼이 나를 의탁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면, 이 사실 하나로써 영원토록 충분하고 넘치는 자존감을 선물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2-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롬 3:22-30,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롬 5:8-2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여러분에게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이 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5:11-21,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 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골 3:9-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엡 5:1-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할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 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고후 6:4-18, 현대인의 성경)

#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 2022년 6월 21일>

안녕하세요? 김현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란 지구상 어디에서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이라는 자연적이고 보편적이며 불가분 한 가치 앞에 나라별, 사람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생명권, 건강권과 같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생존에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들은 전 세계 인간 모두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합니다.

이러한 천부적 인권의 가치는, 남북한이 모두 조약 당사자인 국제규약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ICESCR(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법에서도 확인하고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제 10 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8 조("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에서도 인권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남북한 양쪽 주민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돼야 합니다. 남한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 실상에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참상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20 년 연속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고, 대다수 국제 인권 기구들의 국가별 인권 보장 순위를 따라가 보아도, 북한은 인권 보장 최하위 지역으로 수년째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한과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에 있어, 사실상 체제 간 확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임에도, 단지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주민들은 부당한 불평등과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겪어오고 있습니다. 자유의 풍요를 누리는 대한민국 남쪽의 국민으로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남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길,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 한국, 한반도 전역에 걸친 온전한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 2022년 8월 23일>

[발언의 배경: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11일 처음 발의되고, 비로소 2016년 3월 3일, 당시 국회 재석 의원 236명 중 212명이 찬성하고 반대 표는 한 표도 없이 제정됨. 북한인권법의 제기능을 위해 동법 제10조에서 요구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수적임에도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돼 가는 현재까지도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제1조)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제10조) 수행하도록 동법에서 정한 기관이 북한인권재단임. 그럼에도 국회는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은 아직까지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북한인권 소속 김현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국회가 지난 6년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지연하며 북한인권법 정상집행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反)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지난 20년 연속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유린 참상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제정이유'에도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습니다.

> "국제기구 등 많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등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6년 이후로도 북한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강화만 됐고, 북한인권재단이 없는 북한인권법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결국 북한주민의 삶은 현재 더더욱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대법원 판례인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에서도 판시하길,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을 명시하며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마땅히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서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국회는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약속 실천을 위한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께 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제 46 조에서 정하듯,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 24 조에서도 정하듯,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법 제 114 조의 2 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북한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시급한 국가적 사안만큼 국민의 자유와 복리에 직결된 문제이자 헌법과 예하 법률의 명확한 요구이며 인류 양심에도 부합하는 초당적 사안도 드물 것입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나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마땅히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속히 나서주시길 재차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강남역 11번 출구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 2022년 10월 11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북한인권 소속 김현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젊은이들이 많은 역동적인 강남역에 나왔습니다. 강남역으로 온 이유는 북한인권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려 해도 외면될 수가 없는 문제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 남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듯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은 앞서 들으신 대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反)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지난 20 년 연속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이슈가 아닙니다. 심지어 무력도발 핵실험 등 적화통일 실현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서슴지 않는 북한 정권이 있는 한, 우리 남한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계속 경각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참상에 대해 안일해진다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조용하고 외면하기 시작한다면, 단순히 양심의 문제를 넘어, 머지않아 남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날이 급속도로 올 수 있습니다. 동포애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자는 것 이전에, 바로 우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지속가능한 평화가 있는 한반도를 위해 우리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아질 때 바로 대한민국 국회가 움직이고 국제사회가 움직일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뜻을 합하면 북한인권같이 처참하고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비극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가 북한인권법 상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완수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합동워크숍에서 나의 정책 제언 발표: 2022년 10월 31일>

시민단체 NKDB,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을 위한 정보 수집을 각자 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중복으로 겹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이러면 힘이 분산되니, 통일부 주도로 각자 취합한 database 를 통합하면 힘이 합쳐질 거 같고, 특히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제 형사소송 추진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및 세계시민에게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SNS 등을 통해 널리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그렇게 국내외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우선적으로 얻어야만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헌법 제 4 조)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 같다.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북한정권에 대한 설득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선결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 및 북한인권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1) 통일부에서 말하는 통일이란 그저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헌법 전문과 제 4 조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다.

(2) TV 지상파 뿐 아니라 여러 SNS(유튜브, 인스타, 페북)을 활용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기본질서와 북한인권 유린 참상에 대해 전달해 주시되, 활용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전달력 있고 완성도 있게, 1 분영상, 카드뉴스, shorts 등도 활용하며, 대국민 메시지 전달과 국민적 합의 형성에 진심을 담아주시면 좋겠다. 좀 더 과감하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3) SNS 에 담는 메시지는 정치적, 정파적 메시지가 아니라, 북한 인권유린 참상 fact 위주로 담백하게 전달해달라. 국민이 알아서 다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정파의 문제가 아닌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이자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 인권 유린 참상의 case 들을 위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다.

(4) 이런 대국민 노력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로 자기가 북한인권을 위한 정당이라며 나서게 될 것이고, 현재 여야 정쟁으로 인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이나 예산 문제도 저절로 알아서 풀릴 것이다. 심지어 국민들이 북한인권 개선 정책들을 위해 성금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5) 이렇게 되면 북한인권 정책 연속성도 정치 진영과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심지어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타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초당적으로 지속돼야 하는 정책이다.

(6) '인권' 대 '평화'라는 용어 프레임도 '인권이 곧 평화'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좋을 거 같다. 남북한 주민의 인권이 곧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이다.

#

<2023년 4분기 통일부 인권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 서면 의견서: 2023년 12월 18일 사전 제출, 12월 19일 자문회의 발표>

질의:

안건은 '24 년도 새로운 사업·의제 발굴입니다. 사전에 △북한인권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탈북민 △인도적 지원 네 가지 분야에서 평소 생각하시던 안건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올 한 해 제가 가장 통일부에 바랐던 점은 북한지역 내 인권 참상을 널리 알리는 것인데,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북한지역 내 인권 유린 참상에 대해 세계에 적극 알려 세계 시민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카드뉴스, 숏츠 등 SNS 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시길 원했는데, 여러 매체를 적극 잘 활용, 운영해 주신 거 같아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북한인권법상 요구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파를 떠나 북한주민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시민단체 등의 의지와 힘과 지혜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연속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길 기원합니다.

2024 년, 통일부에 특별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한 역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과 한국민들이 온전한 한 나라, 한 국민을 이루도록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지역, 남한지역을 구분하지 않듯, 탈북민과 한국민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듯,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 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대법원 판례인 1996. 11. 12. 선고 96 누 1221 판결에서도 판시하길,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북한주민도,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한국 내에서 만연하고 확고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적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해 통일부가 국내외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단지 몇 km 우리보다 북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겪었을 수도 있을 참담한 인권 유린과 혹독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올해 4 월 제 52 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였고, 동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 년부터 올해까지 21 년 연속으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올해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은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역시 심각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더욱 취약하여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함에도, 대한민국 북한지역을 불법 점거 중인 무장 테러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탈출에 성공한 탈북민의 인권부터 확실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탈북민에 대한 국내 인식이 어떠한지, 탈북 후 한국 내에서의 삶은 어떤지, 남한에서 마저 부당한 차별이나 기회의 박탈,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귀담아들어야 하겠습니다.

탈북민은 북한지역 불법 테러 정권의 구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나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고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이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강제로 박탈당했던 교육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이제라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테러 정권에 수십 년간 인질로 잡혀 있다가 갓 탈출한 자국민에게 '왜 우리만큼 토익 점수가 안 나오냐', '왜 우리만큼 컴퓨터 쓸 줄 모르냐', '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그러냐'고 섣불리 다그치거나 무시하는 건,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언론매체(KBS 뉴스, 연합뉴스 등)의 뉴스 헤드라인만 읽어보더라도, 탈북민 인식에 대한 개선이 딱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6 년 11 월 8 일, "탈북민 3 만 명 시대... 편견・차별 해소부터"
2018 년 2 월 7 일, "자유 찾아 사선 넘었지만 편견・차별로 떠도는 탈북민들"
2019 년 7 월 8 일, "자유 찾아 왔는데... "북한서 왔으면 숨죽이고 살아야""
2019 년 10 월 30 일, "탈북자 3 만명 시대,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2022 년 1 월 9 일, "한국 떠난 탈북민 700 여명... "생활고・차별로 적응 어려워""
2023 년 11 월 27 일, "탈북민 취업, 편견이 주된 애로... 친척・지인에 많이 의존"
2023 년 12 월 1 일, "탈북민 실업률 일반 국민의 두 배... "선입견이 가장 힘들어""

2023 년 12 월 2 일, ""자유 찾았는데 일 못 찾겠다" 탈북민 취업 박람회 가보니"

탈북민은 이미 생사를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여러 국경을 지나, 한국에 도착한 자체만으로 그들의 부지런함과 강인함, 의지력과 명민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삶으로써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익히지 못했고, 태어날 때부터 테러 집단에게 세뇌를 당하고, 한 번도 국가다운 국가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정착 초기의 사고방식이나 언행이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도 쉽고 빨리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는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생사를 걸고 큰 산을 넘어왔는데, 더 큰 산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적진의 포로수용소를 탈출하여 수많은 사선(死線)을 뚫고 아군 진영에 왔더니, 막상 아군도 내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지역 불법 무장 테러 집단에 의해 사실상 감금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거나 그런 상태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비극일 뿐입니다. 탈북민은 우리가 구출해 내지 못한 자국민이 스스로 테러 집단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절히 그들의 탈출과 재기를 응원하기보단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인식과 태도는 우리나라의 반쪽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실리적으로도 북한주민과 북한지역 영토를 그 다른 나라 어디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테러 집단이 계속 점령하고 괴롭히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큰 손해인 것입니다. 통일은 '하면 좋으나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테러 집단에 붙잡혀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헌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원에서부터 탈북민에게 여러 자격증도 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른 국민에 비해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고난 당한 시절이 긴 만큼 더욱 밀착하여 지원하고 회복시켜 주고, 이제라도 각자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개별 맞춤식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 직업 교육의 기회와 충분한 교육 시간을 허락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하나원 정부 예산을 늘리자는 제안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해 통일부의 노력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 시민단체뿐 아니라 사기업들에서도 자발적으로 탈북민에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한국에서 정착에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탈북민이 한국 내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나라를 다시 떠나 해외나 심지어 북한으로 되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가의 의무인 통일에 점차 실패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 남한주민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북한지역, 남한지역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 대한민국 영토만 있을 뿐입니다. 탈북민은 테러 집단에서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자국민으로서 국가가 마땅히 해주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해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들은 이미 삶으로서 그 누구 못지않은 강인한 생존력, 치열함, 의지력, 열심 등을 증명해낸 국가의 귀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이 마땅히 조국 대한민국 내에서 잘 정착, 적응하도록, 위와 같은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퍼트려 주시길 통일부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북한주민과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 및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통일부가 미리 온 통일부터 온전히 정착시키는데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첨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무장 테러 집단에 의해 감금돼 있는 자국민들을 효과적 구출해 오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을지 탈북민들의 증언도 귀담아들어야 하겠고, 우선 현재 국제법 위반인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공안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수 천명의 탈북민이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속히 한국 정부가 출동하여 한국으로 구출해와야 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민 수 감소를 걱정하기 전에, 이미 부당하게 체포, 감금돼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구출해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북한지역에 갇혀 있는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 구출해와야 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명에도 통일부가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을 위한 토론문 작성: 2024년 1월 12일>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 국립외교원 질문: 한미동맹이 인태지역에서 연대하며 전개할 가치외교 분야와 외교의제는? (키워드: 한미동맹, 인태지역, 가치외교, 민주주의 연대)

[**답변자: 김현기(881010), 답변일(토론문 제출일): 2024 년 1 월 12 일.** 토론회 수상을 목표로 토론 평가자인 주최기관 국립외교원 등이 듣기 좋을 거 같은 답변을 했다기보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과 애정으로 솔직하게 쓴 답변이자 답변을 써 내려가면서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도 더 공부하여 정리한 글이다. 실제 예선으로 제출할 분량은 아래 답변 내용 중 좀 더 질문에 관한 내용만 선별, 축약하여 1/7 정도가 돼야 하는데, 만약 본선으로 가게 되면 아래 답변 내용을 나의 입장으로 두고 토론하려고 한다.]

답변 목차:

1.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 자기인식이 충분히 우선 되고 외교전략을 세워야
2. 안보, 정무 외교 외의 외교 분야는 민간 주도이어야
3.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 자기인식 중요성 및 이에 따른 외교 전략
   3.1. 북한 지역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이자 국민이고, 북한 정권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집단
   3.2. 남북한 분단 현실이야 말로 가장 극명한 가치 체제의 대립이자 수십 년째 진행중인 치열한 가치 전쟁, 무력 전쟁의 생생한 현장
   3.3.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제안 및 남한에 대한 주한미군 철수와「국가보안법」철폐 선결요구 관련 자기모순적 행태(화전양면전술)
   3.4. 남북 대립과 전쟁을 돌파하여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현실에 기반한 외교통일 전략이란

3.5. 당면한 남북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자신을 또다시 신냉전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치외교", "가치연대"가 아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외교 전략과 연대
4. 자유민주 통일 그 후

답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연대하여 전개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외교 분야이자 외교의제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구출과 해방,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과의 가치 전쟁에서의 최종적 압승 및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입장에서, 비단 한미동맹뿐 아니라 모든 동맹과 외교 관계를 동원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외교의제이자 '가치외교' 뿐 아닌 모든 이름의 외교를 망라하여 가장 중요하게 취급, 전개, 완성해야 할 외교의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戰時) 중인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치열한 가치 전쟁, 심지어 무력(武力) 전쟁중인 분단 국가라는 객관적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1.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 자기인식이 충분히 우선 되고 외교전략을 세워야

대한민국 정부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22. 12.),「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23. 12.),「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변영의 글로벌 중추구가」('23. 6.) 등을 보면 애석하게도 이러한 측면의 자기인식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동 전략과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안보나 정무외교뿐 아닌, 경제, 기술, 문화, 공공, 개발협력 등 다방면의 외교 분야를 아우루는, 총론적, 포괄적 외교 철학과 기준도 분명 나름의 의의가 있고, 이행계획까지도 포함하여 제 입장에서 딱히 동의를 할 수 없다거나 반대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뤄야 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외교 의제는 놓친 채, 현시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채 썼다는 느낌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포용, 신뢰, 호혜'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 자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역내 평화, 국제 평화안보 등 세계 평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 전 세계에서 자유, 민주, 법치 등의 가치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 다 귀한 꿈이고 멋진 말이며,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금명간 실현하기에는, 또는 이미 됐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전시(戰時) 중인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치열한 가치 전쟁, 심지어 무력(武力) 전쟁 중인 분단국가라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과 계획이 현시점 우리나라에는 그리 맞지 않은 우선순위와 계획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현재 불난 집이요, 분란이 심한 분열된 집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보며 겉으로는 박수 쳐줘도 속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정작 지난달과 이번 주에도 '대한민국 초토화', '남조선 전 영토 평정', '핵무력 사용' 등을 운운하며 우리는 전쟁 중인 한반도라고 북한 정권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이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실질적 위협을 애써 축소시키며, 이미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을 이룬 국가인 듯,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 포괄적 외교정책, 심지어 웬만한 패권국도 이루고 유지하기 어려운 '가치외교'와 '가치연대'를

우리나라 외교의 우선순위이자 핵심 계획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10 년, 20 년 뒤 장래 희망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극심한 남북 대립을 하루속히 승리로 비로소 종식하고, 고착되어가는 진영주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휘둘림 없이 유연히 살아남을 외교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 지역은 단순 비핵화만 이루면 되는 관리 대상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 법률 상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 법률 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은 지난 70 여 년 꾸준히, 매우 최근까지지도, 대놓고 한반도 적화통일 의지를 말과 행실로써 명명백백 보여주고 있는 불법 무장 테러 집단입니다. 우선은 당면한 이 가치 전쟁, 무력 전쟁을 확실한 승전(御用)으로 마칠 때까진 이를 위한 외교, 국방, 통일, 안보 전략과 계획이 최우선시 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 안보, 정무 외교 외의 외교 분야는 민간 주도이어야

물론 안보 외교 또는 정무 외교 외에도 공공 외교, 경제 외교, 문화 외교, 공적개발원조 등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직간접적으로 다시 안보와 연결된 건 맞습니다. 다만, 안보 외교 외 공공, 경제, 문화, 개발 등의 분야는 사실 민간 주도의 사업과 교류가 현실에서 훨씬 더 실효적이고, 창의적이며, 지혜로운 전략과 민첩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까지 과한 정부 주도의 전략과 계획을 세우다 보면 소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의 경제, 문화, 민간, 공공 외교에 대한 유혹과 충동은, 단적으로 작년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를 교훈 삼아 늘 절제해야 합니다.

정부의 외교는 우리나라의 적이 없도록,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나라 국민이 존중받고, 위협받지 않으며, 마음껏 민간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안보와 정무의 터전을 먼저 잘 세우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외교 분야는 민간 비즈니스와 교류 현장에 있는 국민과의 정기적인 허심탄회한 적극적 경청의 대화를 통해 민간에서 요청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국가 외교력이 도울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돕는 것이 훨씬 질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간과 많은 적극적 경청의 대화를 바탕으로, 국제적 통상, 경제, 산업, 기술 등의 규범, 표준, 원칙 등을 정하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노력이 훨씬 가치 있고, 민간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역할을 정부가 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보와 정무 외교 외의 외교에서는 이러한 민간 주도적 외교, 민·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외교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정부의 외교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 자기인식 중요성 및 이에 따른 외교 전략

객관적 자기인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자면, 우리는 '세계경찰'도 '세계윤리교사'도 세계적인 패권국도 아닙니다. 70 년 넘게 아직도 치열하게 전시 중인 분단국가입니다. 이런 자기인식이 명확히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우선순위를 세우고, 국익에 큰 연계돼 있지 않은 일들에 다소 오지랖

넓게 참견하고, 재정과 국력을 쓰며, 그에 대한 대가로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그저 ‘착한아이 콤플렉스’ 또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 자아도취 된 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국뽕’도 마약이며 국가를 자멸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근절돼야 할 마약입니다.

3.1. 북한 지역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이자 국민이고, 북한 정권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집단

모두 잘 알고 계시듯, 북한 지역도,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헌법상(제 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법원 판례상 대한민국 국토이고 국민입니다. 김정은(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조차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음”을 지난 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여러 가지 정착 지원도 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국민주권 실현의 권리들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북한 주민을 감금, 억압, 착취 중인 북한 정권이란,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위헌적인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집단’일 뿐이며,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이를 뒷받침 합니다.

“북한집단은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서의 민주적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각종의 선전, 선동 및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최대의 현실적 위해집단으로서 반국가단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수 없[다.](당원 1993.2.9. 선고 92 도 1815 판결; 1992.8.14. 선고 92 도 1211 판결; 1992.3.31. 선고 91 도 3279 판결 등 각 참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 도 1951 판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 도 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 도 10121 판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괴뢰집단”[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 1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임에도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결하고 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전개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21 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반도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정치적·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며 첨예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궁극적으로 타도 또는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냥되고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 헌다 1 전원재판부].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누 122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들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헌법 제 3 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 등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 민법상 북한을 사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줄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헌법 제 3 조의 효력이 북한에도 미치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북한지역과 북한 주민에게 모두 미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 가합 106706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하여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인데 반해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관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 구단 52480 판결].

참고로 2021 년 1 월 9 일 개정된 최신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도,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반도 전국에 걸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및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적화통일 야욕을 지금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 남북한 분단 현실이야 말로 가장 극명한 가치 체제의 대립이자 수십 년째 진행중인 치열한 가치 전쟁, 무력 전쟁의 생생한 현장

남북한 분단 현실은 어쩌면 지구상 가장 극명한 가치 체제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 대 억압, 자율과 창의 대 경직과 공포, 천부인권 대 1 인 독재자가 임의로 정해주는 상대적 인권, 민주 대 독재,

공정과 상식 대 부패와 세뇌, 진실 보도 대 거짓 선전선동, 법치(法治) 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구금 및 사형 집행, 국제법 무시 등의 가치 대립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가치와 현실 상황이 특별히 훌륭하고 고상하다기보단, 반국가단체의 불법 점거하에 있는 북한의 가치와 현실 상황이 너무 참담한 수준이라서 이 가치의 대립은 극명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수많은 국제규범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인권규범 위반 측면에서, 북한은 자신이 가입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지난 달 19 일, UN 총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는데, 이는 19 년 연속 채택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내 다양한 중대 인권 침해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작년에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생명권,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식량권, 건강권 등 모두 크게 위협받고 있고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더욱 취약하여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수의 국제 연구기관들의 발표 지수를 보더라도, Freedom House 의 세계자유지수는 195 개국 중 북한을 193 위(1973 년 발표 이래 세계 최하위권 지속)로 하며 자의적 체포, 구금 등 중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하였고,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180 개국 중 북한을 180 위로 가장 극심한 정보 통제국으로 지정하며 오직 당, 군, 김정은을 찬양하는 보도만 가능하고 국내외 기자 임의 체포, 처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Walk Free 의 세계노예지수는 160 개국 중 북한을 160 위로 지정하며 강제노동, 성착취, 인신매매, 아동착취, 정치범수용소 등이 만연한 것을 지적하였고, Open Doors 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국 50 개국 중 1 위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북 간의 극명한 가치의 대립은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치의 전쟁이자 무력(武力) 전쟁입니다. 불과 지난달에 북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들입니다.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괴뢰정권[대한민국 정부 지칭]이 10 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이처럼 김정은은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조차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공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8 월 27 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 준비”를 언급했고, 8 월 29 일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에서는 “전쟁준비를 확고히 완비할 것”을 말했는데, 당시 북한 매체는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할 멸적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도 김정은은 북한내 한 군수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김정은의 여동생(북한 조선로동당 부부장) 또한 우리 군을 향해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상태"로서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전쟁 갈등과 남남(南南)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남(對南) 선전선동 목적도 포함된, 심각하게 도 넘은 발언들은 1994 년 판문점 남북회담 시 ‘서울 불바다’ 발언 등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꾸준히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은 1949 년 신년사에서 ‘국토완정’(國土完整, 한 나라의 영토를 하나의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하려는 것으로, 북한 정권 체제하 한반도 통일이란 목표)이라는 용어를 13 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고, 이듬해 1950 년 6 월 25 일 새벽, 실제로 기습 남침(南侵)의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수많은 국제규범을 중대 위반하며 무력 도발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한두 달여 동안의 북한의 행동을 보더라도,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정찰위성 발사 및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지원과 실전 테스트,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 NLL 근접한 북방 일대 350 여 발 포격,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일부 철수시켰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및 중화기 재무장, 판문점 재무장,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육로에 지뢰 다량 매설 등을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5 회,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3 회 등 수십 차례의 미사일 무력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 호(2006 년), 1874 호(2009 년), 2087 호(2013 년), 2270 호(2016 년), 2397 호(2017 년) 등을 또다시 중대 위반한 것이고, 세계 평화 파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BBC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정황도 포착된다고 하는데, 이로써 제 7 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위 결의안들을 포함하여 대북 안보리 결의 9 개 이상을 또다시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 2020 년 이후를 본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1 년에 몇 배가 되는 무력 도발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 역시 UN 안보리 등 국제법 중대 위반의 무력 도발이며, 2010 년 이후로는, 역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 4 차례의 핵실험, 수백 차례의 미사일 발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 피격, 대한민국 영토이자 민간 거주구역 연평도 포격(국군 2 명 전사, 16 명 부상, 민간인 2 명 사망, 부상 3 명 및 각종 시설과 가옥 파괴) 등을 자행했습니다. 「2022 년 국방백서」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에 따르면 2010 – 2022 년 동안 간접침투 사례는 총 27 번, 국지도발 사례는 해상 209 번, 지상 13 번, 공중 12 번, GPS 교란 5 번 등 총 239 번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950 년 6 월 25 일 일요일 새벽 4 시경, 북한 조선인민군이 38 도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막심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기록에 따르면, 6.26 전쟁으로 인한 국군 전사자는 13 만 7,899 명, 부상자 45 만 742 명, 실종자 2 만 4,495 명, 포로 8,343 명으로 총 62 만 1,479 명의 국군이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을 도운 UN 군(United Nations Command,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UN 안보리 결의안 82 호 내지 85 호 등을 지지하며 UN 의 깃발 아래 미국을 포함하여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 개국, 의료지원 6 개국, 물자지원 39 개국의 연합)의 전사자는 3 만 7,902 명, 부상자 10 만 3,460 명, 실종자 3,950 명, 포로 5,817 명으로 총 15 만 1,129 명의 UN 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 중 한국 민간인 사망자는 24 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은 12 만 8,000 여 명, 부상자 22 만여 명, 실종자는 30 만여 명, 납치 8 만 5 천여 명 등 총 99 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8 만 2,000 여 명, 실종자 79 만 6,000 여 명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재민 370 만여 명, 전쟁미망인 30 만여 명, 전쟁고아 10 만여 명, 이산가족 1,000 만여 명 등이 발생하였고, 국토의 3 분의 1 이 초토화되며, 국가 기반 시설은 45%가 폐허가 됐습니다.

1953 년 7 월, 6.25 전쟁 휴전 이후로도 북한 정권은 단 한 번의 반성과 사죄 없이, 지금까지 거의 매년 대남(對南)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앞서 열거한 것 도발들 외에도, 제 1, 2 차 연평해전, 수 차례 무장공비 침투,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1.21 사태), 대통령 폭탄 테러 시도(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최소 4 개 이상의 비무장지대 남침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우리나라 민간인과 선박 수 차례 납북, 우리나라 여객기와 승객 납북, 금강산 관광객 피살, 서해 공무원 피살, 총 6 차례 핵실험, 수 차례 교전, 총격, 격침, 국가 주요 시설 및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의 무력도발과 불법행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도발의 수위와 빈도는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50 년 6 월 25 일 이래 지금까지 치열하게 가치 전쟁, 무력(武力) 전쟁 중인 분단국가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나라 정부부터 타성에 젖은 매우 위험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3.3.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제안 및 남한에 대한 주한미군 철수와「국가보안법」철폐 선결요구 관련 자기모순적 행태(화전양면전술)

참고로, 지난달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 중,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며 마치 우리나라 탓 때문에 마치 평화 통일을 못 이루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앞서 보았듯, 6.25 전쟁 이래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 언사와 무력행사만 쭉 열거해 봐도 상호 존중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제안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6.25 전쟁 이전인 1949 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국토완정'을 공개 주창한 이래 2021 년 개정됐다는 최신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적어 놓은 것도 보았듯, 북한 정권은 1945 년 남북 분단 이래 한 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은 끝없는 무력도발과 핵개발, 적화통일 야욕을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우리민족끼리'의 '연방제'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데, 전혀 상호 호혜적인 제안들이 아닌 우리 측만 군사적,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켜 결국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함뿐입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증강 및 장기주둔을 야기한 것이 북한의 기습남침 6.25 전쟁이었고, 이에 대한 사죄 한번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들은 무력증강 및 핵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22 년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공포하였으며, 2023 년 9 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58 조에도 법제화하였습니다. 「핵무력정책법」 서문에는 김일성의 '국토완정'과 비슷한 '령토완정' 내용이 있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다음과 같은 국제법 위반의 적극적, 선제적, 자의적, 임의적, 불균형적 핵사용, 핵공격을 시사하는 내용이 동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둘째,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통일부「2023 북한인권보고서」, BBC News 코리아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북한 정권은 정보통제, 사상통제, 사회통제, 문화통제 강화를 위한 「군중신고법」(2019 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년), 「혁명사적사업법」(2021 년), 「청년교양보장법」(2021 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년) 등의 법률 제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하에서는 "오빠", "남친", "자기야"와 같은 남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한 책이나 영상물을 유통하기만 해도 '괴뢰말투사용죄', '괴뢰사상문화전파죄' 등에 해당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최대 사형(공개처형 포함)에 처하도록 해놨으며, 「혁명사적사업법」에서는 김정은 개인 우상화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11 개 범죄에 대해 사형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범죄 중에서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죄로 간주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사형 부과가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광범위 적용하고 공개처형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행위나 종교활동, 김정은 지시나 로동당 정책 위반도 다 사형 또는 공개처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여러 죄목에 대해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로도 간주할 수 있는데,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소추시효기간"(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고지도자 모독, 남한 탈북자와 교류, 한국행 시도 및 알선, 한국드라마 시청, 종교 활동 등도 다 '반국가 범죄' 또는 '반민족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에 경우 '재판소'(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11 조에 따라 애초에 북한 재판소 재판이란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즉결 처형도 가능하고,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하는 등 대규모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범 처벌 시에는 그 가족까지 연좌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인민보안단속법」등은 북한 내 주민의 이동 및 거주조차 통제하며 미허가 이동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및「국가보안법」이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에 걸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화통일에 걸림이 된다는 말일뿐이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할 때조차 그들의 실상은 상호 호혜적 제안이나 시늉이라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반대로 무력증강과 핵개발 박차, 사상, 정보, 사회 통제 등을 가속해왔을 뿐입니다. 수십 년째 북한 정권이 펼쳐오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위장평화 공세일 뿐입니다.

설마 이래도 70 여 년째 매우 일관되게 적화통일이 목표인 북한 정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목표를 지난달에 또다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우리가 바라는 교양 있는 ‘상호존중’, ‘상호화해’, ‘상호협력’ 등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는 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땐 가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3.4. 남북 대립과 전쟁을 돌파하여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현실에 기반한 외교통일 전략이란

이러한 극심한 가치의 대립과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법률상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정권’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 북한 주민에 대해 참담한 인권유린을 일삼으며 국제법을 수시로 중대하게 위반하는 불법 테러 집단으로부터 국제사회가 등 돌리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명령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온전한 자주독립 민주공화국으로 통일해야 할진대, 급한 대로 우리나라 국민 북한 주민 구출부터 적극 전개하며, 북한 인권 유린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법 위반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국제사회를 북한을 상대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국제법상, 양심상, 도덕상 꼭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영토인 북한 주민과 북한 지역을 그 다른 나라 어디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 계속 테러 정권 압제하에서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힌 큰 감옥처럼 계속 운영되도록 두어서도 안 되겠으며,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중대한 안보 위협을 계속 곁에 두고 있을 시 우리나라의 직간접 손해도 매우 큰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둘 중 하나뿐입니다: (1) 북한 정권의 자멸 및 자유 민주 통일, 또는 (2) 북한 정권과 북한 정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로 전향 및 실질적 증빙이 될만한 상당한 불가역적 정치·사회적 개혁개방(개헌, 법치(만인의 평등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불가침의 천부인권(생명권, 건강권, 존엄권 등), 양심·종교·사상·표현의 자유, 국민주권과 교육권 보장, 공정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 탄핵 절차,

평화로운 정권교체, 문민통제,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복수의 정치 정당 허용 등 보장 포함). 적화통일된 한국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닙니다. 현 북한 정권 체제하 북한 지역의 참상이 여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 (2)번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는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난 몇 대 정부 연이어 채택 중인 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란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한, 지향할만한 방안인지도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헌법 제 4 조)을 지향하기에 선제공격에 의한 국토 수복은 차치하더라도, 북한 지역 우리 국민에 대한 구출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출될 때까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난민지위협약」,「고문방지협약」등 국제법 위반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수천명의 우리 국민 탈북민부터 구해와야 합니다.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 중인 테러 정권, 반국가단체, 괴뢰집단으로부터 우리 수천만 국민의 구출과 해방을 위해 힘쓰는 것,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 이 전쟁에서 압승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것 외에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외교 의제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동맹과 관계를 총동원하여, 올해부터 2 년간의 우리나라 UN 비상임이사국 지위도 적극 활용하여, 이 가치 전쟁, 무력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국가들이 마땅히 우리나라 편에 서게 하든, 적어도 북한 정권 편에는 서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3.5. 당면한 남북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자신을 또다시 신냉전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치외교", "가치연대"가 아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외교 전략과 연대

어떤 면에선, 세계 누가 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깡패와 같은 1 인 독재 정권을 상대로 3 대가 세습할 동안 이렇게 수십 년째 힘들게 국가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벌써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 북한 주민에게 특히 죄송한 일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왕따가 됐어야 마땅하고, 국제사회의 마땅한 압박 속에 이미 자멸했어야 하는 이런 극도로 역기능적인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아직도 70 년 넘게 전시상황 중에 있습니다. 반성해봐야 합니다. 국제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처참한 무력행사 테러 집단을 상대로도 국제사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처참한 외교력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편적 인류 가치를 거의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테러 집단을 상대로조차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히 '가치외교', '가치연대'라는 말조차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당면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때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많이 상반된 가치를 가져 보이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또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세계경찰'이나 '세계윤리교사'가 될 만한 패권국이 아니며, 우리 코가 석 자인 분단, 전시(戰時) 국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패권국들조차도 국익과 실익을 철저히 따져가며, 자국 위주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가며, 때론 "가치"라는 이름으로, 때론 "도덕"이란 이름으로 그저 치열한 외교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가치연대"(“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 민주,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2023「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라는 말이 멋있고 고상하지만, 명확한 조약과 계약에 의한 "안보연대"나 "이익연대"로 이어지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가치연대"는 서로 말로써 위로하고 칭송하며 이해상충이 없는 평시(平時)에만 존재할 수 있는 약한 연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1 년 12 월 처음 시작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라는 가치연대조차 추상적이고 흐지부지되는 경향을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EU)도 시작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및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같은 경제적 연대였을 뿐이고, 오히려 정치경제 통합체인 유럽연합이 되어 가며 때로 너무 공동의 ‘가치’가 강요된 나머지 개별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는 거처럼 비치거나 막상 몇몇 국가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땐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급속히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실제 국익, 실익으로 이어지는 "가치연대"만 지속 가능하고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가치연대"라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문자적으로 어떻게 정의했건 실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치가 상당히 부합하는 국가들과만 친하게 지내게 되고 나머지는 배척하게 된다면, 이는 전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는 사치이고 우리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며,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 해야만 하는 전시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전쟁부터 확실히 이겨야 합니다. 섣불리 "가치연대"를 운운하고 외치다가 주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을 북한 편으로 더욱 내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조차 조심스럽게 쓰는 자칫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는 ‘가치연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가 함부로 외치다가, 자신을 고래 사이에 새우 처지로 내몰아선 안 됩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신냉전을 치르는 대리전 지역이 돼선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냉전 최전선으로 자신을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명백한 적대적 반국가단체는 수십 년째 야단법석 적화통일을 대놓고 꾀하는 북한 정권뿐입니다. 굳이 ‘가치연대’란 용어를 쓰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연대’란 북한 정권을 뺀 전 세계 모두와 우리나라가 돼야 합니다.

특히 요즘, 중국은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 중인 이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대남(對南)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 서방의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것, 심지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에 맞춰 또는 그보다 조금 일찍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주는 것 등을 북한에 주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김일성은 중국 마오쩌둥과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서야 남침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자신들이 수세에 몰려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방의 대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정은에게 더욱 수위 높은 무력 도발, 심지어 제 2 차 남침까지도 독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국과 북한 간의 상호 불신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중·러 간의 균열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여, 우선은 국제사회가 한심하고 처참한 정권 북한을 당연히 등지도록 해야 합니다. 북중관계, 북러관계도 생각보다 별로 상호신뢰가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도, 김정은도 중국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있다는 보도, 북중 갈등도 상당히 뿌리가 깊고 상호 무시와 불신이 있다는 보도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김정일은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다. 력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하고, 김정은은 측근들에게 "일본이 100 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오래전부터 통미봉남(通美封南), 통중봉남(通中封南) 등의 전술을 펼치며 우리를 고립시켜 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러 수교, 한중 수교 때 김일성, 김정일은 굉장히 실망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자 취급하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통미봉남에 관해서는, 2017 년 7 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문제는) 철저히 조-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며 대놓고 통미봉남 기치를 세웠고, 심지어 때로는 미국에 압박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을 대놓고 이용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는데, 2019 년 4 월 김정은은 우리 정부를 향하여 북미 관계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통하며 명령까지 합니다. 북한은 불과 지난주에도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에는 온갖 공개적 비방, 겁박을 일삼으면서,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 칭하며 지진 피해 위로전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렇게 하찮아 보이는 북한 정권은 통일봉남(通日封南)까지도 포함해 되든 안 되든 한국을 주변국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한심하고 도를 심각하게 자주 넘어대는 정권 하나 세계에서 고립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런 정권에 의해 고립을 당하거나 주변 강대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이는 사실 우리가 더 한심한 것입니다. 분단, 전시 상황인 우리나라가 굳이 나설 필요 없는 기타 세계 이슈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우리는 최대한 로우키(low-key)를 유지하며, 가장 당면한 과제인, 분단, 전시의 상황부터 속히 승리해야 합니다.

굳이 동남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등 다른 더 먼 나라들과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하다가 정작 가장 가까운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위협은 커지고, 이들을 더욱 북한 편으로 가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남북 가치 대립과 전쟁은 더욱 거세지며, 북한의 수도 없는 국제규범 위반의 무력도발과 인권유린 앞에서 정작 UN 안보리 결의도 못 도출해오고 있고, 한반도가 또다시 신냉전 최전선으로 고착해만 간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가치연대이자 가치외교입니까? ‘가치외교’와 ‘가치연대’를 외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란 국가 최우선 목표에서 멀어지게 돼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는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하는 곳들조차도 언제 그들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를 나눠, 편을 가르고 연대를 이루어 봐야, 정작 같은 편의 변질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정치(국내 정치도 포함)가 끝없이 변하는 생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국가들을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 한 대로 화석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가치연대'라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우방과 적이

상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치연대"라는 건 UN 헌장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국제적 연합인 UN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재차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 수준 및 분단 전시상황에 걸맞은, 수십 년째 처해 있는 이 전쟁을 확실한 승리로 마침표 찍는 시대적 소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란 선물과 같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이 매우 감사하고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전체주의, 공포정치, 억압과 탄압, 독재와 인권유린의 정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며,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죽하면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자는 목표까지 넣어놨겠습니까. 그러나 한미동맹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 생각보다도 짧은 기간 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하루아침에도 뒤흔드는 트럼프와 같은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고, 애치슨 라인*은 언제든 다시 그어질 수 있습니다(*Acheson Line 은 1950 년 1 월 12 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1893~1971)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으로 한국은 제외돼 있었고, 그해 6.25 전쟁 발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먼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국력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와 안정의 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우선순위로 챙겨줄 동맹이란 극히 드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국가의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배임이고 매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중, 한러, 한일 관계도 다 동원하여(때로는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역량을 다해, 전개할 가치외교 분야는, 북한 주민 해방 및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입니다. 비로소 그런 승전(勝戰)이 선결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에 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불난 집, 분란이 있는 분열된 집인데, 자칭 '글로벌중추국가'라 부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25-28, 현대인의 성경)

4. 자유민주 통일 그 후

자유민주 통일 뒤에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영구 무장 중립국으로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관련 조약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추진, 체결하고, 그에 맞는 개헌도 이루어, 지난 반만년 대한민국이 겪어온 열강 속에서의 격랑의 역사를 비로소 멈추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계속 주변 열강에 의한 줄 서기와 조공을 강요받고, 수탈당하며, 침공 받아왔습니다. 유길준의 중립화론이 조선 말기 거론된 적이 있었고, 대한제국의 국외중립 선언도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 만만하여 수탈과 이용만 당하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중립국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있는 완전한 자주독립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되면, 그때 비로소 영구 무장 중립국으로도 변모하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간절한 바람대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 그 평화와 안정 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민간 주도의 문화 외교, 경제 외교, 원조 외교 등에 더욱 힘쓰며,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2분기 통일부 인권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 서면 의견서: 2024년 6월 5일 사전 제출, 6월 7일 자문회의 발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정 건의

통일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1994 년 8 월 15 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서, ... 1989 년 9 월 11 일 천명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 체제경쟁의 종결, 그리고 1992 년 2 월 19 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 조성에 부응하여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통일부 홈페이지 설명):

- 통일의 철학: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
  평화: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민주: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 통일의 과정(3 단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그러나 이제 세계는 신냉전, 신패권경쟁, 체제경쟁을 얘기하고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은 1994 년 이후로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심화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1 월 KBS 뉴스 보도("김정은, 헌법 개정 지시…"대한민국 제 1 적대국 명기"(2024.1.16)) 및 한겨레 기사 보도("통일·화해 없다… "대한민국 주적 명기" 개헌 나선 김정은"(2024.1.16))에 따르더라도, 올해 초(2024.1.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 회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천리금수강산', '8 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남한을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공화국(북)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심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천명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통일관 그리고 그간 해 온 무력도발 행위와 발언들을 기반으로 냉엄한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통일방안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둘 중 하나뿐입니다: (1) 북한 정권의 자멸 및 자유 민주 통일, 또는 (2) 북한 정권과 북한 정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로 전향 및 실질적 증빙이 될만한 상당한 불가역적 정치·사회적 개혁개방(개헌, 법치(만인의 평등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불가침의 천부인권(생명권, 건강권, 존엄권 등), 양심·종교·사상·표현의 자유, 국민주권과 교육권 보장, 공정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 탄핵 절차, 평화로운 정권교체, 문민통제,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복수의 정치 정당 허용 등 보장 포함). 적화통일된 한국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닙니다. 현 북한 정권 체제하 북한 지역의 참상이 여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 (2)번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는 보입니다.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중, 한러, 한일 관계도 다 동원하여(때로는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역량을 다해, 전개할 가치외교 분야는, 북한 주민 해방 및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난 몇 대 정부 연이어 채택 중인 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란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한, 지향할만한 방안인지도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실효적인 방안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별첨.「민족공동체통일방안」개정 건의 추가 뒷받침 근거(상세)*

(<'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을 위한 토론문 작성: 2024 년 1 월 12 일>으로 제출했던 토론문과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데, 해당 토론은 당시 정부의 사정으로 개최되지 않고 취소됐고, 얼마 뒤 다른 주제들로 다시 개최됐었다.)*

■ **우선 북한 지역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이자 국민이고, 북한 정권은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집단일 뿐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듯, 북한 지역도,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헌법상(제 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법원 판례상 대한민국 국토이고 국민입니다. 김정은(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조차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음"을 '23. 1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여러 가지 정착 지원도 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국민주권 실현의 권리들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북한 주민을 감금, 억압, 착취 중인 북한 정권이란,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위헌적인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집단'일 뿐이며,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집단은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서의 민주적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각종의 선전, 선동 및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최대의 현실적 위해집단으로서 반국가단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수 없[다.](당원 1993.2.9. 선고 92 도 1815 판결; 1992.8.14. 선고 92 도 1211 판결; 1992.3.31. 선고 91 도 3279 판결 등 각 참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 도 1951 판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 도 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 도 10121 판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괴뢰집단"[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 1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임에도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결하고 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전개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21 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반도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정치적·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며 첨예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궁극적으로 타도 또는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냥되고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 헌다 1 전원재판부].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누 122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들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헌법 제 3 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 등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 민법상 북한을 사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줄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헌법 제 3 조의 효력이 북한에도 미치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북한지역과 북한 주민에게 모두 미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 가합 106706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하여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인데 반해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관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 구단 52480 판결].

참고로 2021 년 1 월 9 일 개정된 최신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도,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반도 전국에 걸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및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적화통일 야욕을 지금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십 년 간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북한 정권의 적대적 말과 무력도발 행위를 직시하며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바로 봐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수많은 국제규범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인권규범 위반 측면에서, 북한은 자신이 가입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23 년 12 월 19 일, UN 총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는데, 이는 19 년 연속 채택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내 다양한 중대 인권 침해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작년에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생명권,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식량권, 건강권 등 모두 크게 위협받고 있고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더욱 취약하여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수의 국제 연구기관들의 발표 지수를 보더라도, Freedom House 의 세계자유지수는 195 개국 중 북한을 193 위(1973 년 발표 이래 세계 최하위권 지속)로 하며 자의적 체포, 구금 등 중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하였고,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180 개국 중 북한을 180 위로 가장 극심한 정보 통제국으로 지정하며 오직 당, 군, 김정은을 찬양하는 보도만 가능하고 국내외 기자 임의 체포, 처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Walk Free 의 세계노예지수는 160 개국 중 북한을 160 위로 지정하며 강제노동, 성착취, 인신매매, 아동착취, 정치범수용소 등이 만연한 것을 지적하였고, Open Doors 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국 50 개국 중 1 위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북 간의 극명한 가치의 대립은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치의 전쟁이자 무력(武力) 전쟁입니다. 불과 작년 말, 북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들입니다.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괴뢰정권[대한민국 정부 지칭]이 10 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이처럼 김정은은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조차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공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8 월 27 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 준비"를 언급했고, 8 월 29 일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에서는 "전쟁준비를 확고히 완비할 것"을 말했는데, 당시 북한 매체는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할 멸적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듯, 올해 1 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삼천리금수강산', '8 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남한을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1 월 김정은은 북한내 한 군수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1 월 김정은의 여동생(북한 조선로동당 부부장) 또한 우리 군을 향해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상태"로서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전쟁 갈등과 남남(南南)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남(對南) 선전선동 목적도 포함된, 심각하게도 넘은 발언들은 1994 년 판문점 남북회담 시 '서울 불바다' 발언 등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꾸준히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은 1949 년 신년사에서 '국토완정'(國土完整, 한 나라의 영토를 하나의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하려는 것으로, 북한 정권 체제하 한반도 통일이란 목표)이라는 용어를 13 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고, 이듬해 1950 년 6 월 25 일 새벽, 실제로 기습 남침(南侵)의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수많은 국제규범을 중대 위반하며 무력 도발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말부터 오늘까지의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만 보더라도,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서해 및 동해상으로 중거리/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순항 미사일 발사, 그 밖에도 정찰위성 발사 및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지원과 실전 테스트,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 NLL 근접한 북방 일대 350 여 발 포격,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일부 철수시켰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및 중화기 재무장, 판문점 재무장,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육로에 지뢰 다량 매설, 최근에는 수 백 여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5 회,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3 회 등 수십 차례의 미사일 무력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 호(2006 년), 1874 호(2009 년), 2087 호(2013 년), 2270 호(2016 년), 2397 호(2017 년) 등을 또다시 중대 위반한 것이고, 세계 평화 파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BBC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정황도 포착된다고 하는데, 이로써 제 7 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위 결의안들을 포함하여 대북 안보리 결의 9 개 이상을 또다시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 2020 년 이후를 본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1 년에 몇 배가 되는 무력 도발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 역시 UN 안보리 등 국제법 중대 위반의 무력 도발이며, 2010 년 이후로는, 역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 4 차례의 핵실험, 수백 차례의 미사일 발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 피격, 대한민국 영토이자 민간 거주구역 연평도 포격(국군 2 명 전사, 16 명 부상, 민간인 2 명 사망, 부상 3 명 및 각종 시설과 가옥 파괴) 등을 자행했습니다. 「2022 년 국방백서」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에 따르면 2010 – 2022 년 동안 간접침투 사례는 총 27 번, 국지도발 사례는 해상 209 번, 지상 13 번, 공중 12 번, GPS 교란 5 번 등 총 239 번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950 년 6 월 25 일 일요일 새벽 4 시경, 북한 조선인민군이 38 도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막심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기록에 따르면, 6.26 전쟁으로 인한 국군 전사자는 13 만 7,899 명,

부상자 45 만 742 명, 실종자 2 만 4,495 명, 포로 8,343 명으로 총 62 만 1,479 명의 국군이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을 도운 UN 군(United Nations Command,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UN 안보리 결의안 82 호 내지 85 호 등을 지지하며 UN 의 깃발 아래 미국을 포함하여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 개국, 의료지원 6 개국, 물자지원 39 개국의 연합)의 전사자는 3 만 7,902 명, 부상자 10 만 3,460 명, 실종자 3,950 명, 포로 5,817 명으로 총 15 만 1,129 명의 UN 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 중 한국 민간인 사망자는 24 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은 12 만 8,000 여 명, 부상자 22 만여 명, 실종자는 30 만여 명, 납치 8 만 5 천여 명 등 총 99 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8 만 2,000 여 명, 실종자 79 만 6,000 여 명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재민 370 만여 명, 전쟁미망인 30 만여 명, 전쟁고아 10 만여 명, 이산가족 1,000 만여 명 등이 발생하였고, 국토의 3 분의 1 이 초토화되며, 국가 기반 시설은 45%가 폐허가 됐습니다.

1953 년 7 월, 6.25 전쟁 휴전 이후로도 북한 정권은 단 한 번의 반성과 사죄 없이, 지금까지 거의 매년 대남(對南)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앞서 열거한 것 도발들 외에도, 1999 년과 2002 년의 제 1, 2 차 연평해전, 수 차례 무장공비 침투,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1.21 사태), 대통령 폭탄 테러 시도(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최소 4 개 이상의 비무장지대 남침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우리나라 민간인과 선박 수 차례 납북, 우리나라 여객기와 승객 납북, 금강산 관광객 피살, 서해 공무원 피살, 총 6 차례 핵실험, 수 차례 교전, 총격, 격침, 국가 주요 시설 및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의 무력도발과 불법행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도발의 수위와 빈도는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50 년 6 월 25 일 이래 지금까지 치열하게 가치 전쟁, 무력(武力) 전쟁 중인 분단국가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나라 정부부터 타성에 젖은 매우 위험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제안 및 남한에 대한 주한미군 철수와「국가보안법」철폐 선결요구 관련 자기모순적 행태(화전양면전술)**

참고로, '23 년 말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 중,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며 마치 우리나라 탓 때문에 마치 평화 통일을 못 이루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앞서 보았듯, 6.25 전쟁 이래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 언사와 무력행사만 쭉 열거해 봐도 상호 존중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제안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6.25 전쟁 이전인 1949 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국토완정'을 공개 주창한 이래 2021 년 개정됐다는 최신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적어 놓은 것도 보았듯, 북한 정권은 1945 년 남북 분단 이래 한 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은 끝없는 무력도발과 핵개발, 적화통일 야욕을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우리민족끼리’의 ‘연방제’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데, 전혀 상호 호혜적인 제안들이 아닌 우리 측만 군사적,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켜 결국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함뿐입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증강 및 장기주둔을 야기한 것이 북한의 기습남침 6.25 전쟁이었고, 이에 대한 사죄 한번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들은 무력증강 및 핵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22 년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공포하였으며, 2023 년 9 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58 조에도 법제화하였습니다. 「핵무력정책법」 서문에는 김일성의 ‘국토완정’과 비슷한 ‘령토완정’ 내용이 있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다음과 같은 국제법 위반의 적극적, 선제적, 자의적, 임의적, 불균형적 핵사용, 핵공격을 시사하는 내용이 동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둘째,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통일부「2023 북한인권보고서」, BBC News 코리아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북한 정권은 정보통제, 사상통제, 사회통제, 문화통제 강화를 위한 「군중신고법」(2019 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년), 「혁명사적사업법」(2021 년), 「청년교양보장법」(2021 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년) 등의 법률 제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하에서는 “오빠”, “남친”, “자기야”와 같은 남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한 책이나 영상물을 유통하기만 해도 ‘괴뢰말투사용죄’, ‘괴뢰사상문화전파죄’ 등에 해당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최대 사형(공개처형 포함)에 처하도록 해놨으며, 「혁명사적사업법」에서는 김정은 개인 우상화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11 개 범죄에 대해 사형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범죄 중에서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죄로 간주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사형 부과가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광범위 적용하고 공개처형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행위나 종교활동, 김정은 지시나 로동당 정책 위반도 다 사형 또는 공개처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여러 죄목에 대해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로도 간주할 수 있는데,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소추시효기간”(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고지도자 모독, 남한 탈북자와 교류, 한국행 시도 및 알선, 한국드라마 시청, 종교 활동 등도 다 ‘반국가 범죄’ 또는 ‘반민족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에 경우 ‘재판소’(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11 조에 따라 애초에 북한 재판소 재판이란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즉결 처형도 가능하고,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하는 등 대규모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범 처벌 시에는 그 가족까지 연좌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인민보안단속법」 등은 북한 내 주민의 이동 및 거주조차 통제하며 미허가 이동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및「국가보안법」이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에 걸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화통일에 걸림이 된다는 말일뿐이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할 때조차 그들의 실상은 상호 호혜적 제안이나 시늉이라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반대로 무력증강과 핵개발 박차, 사상, 정보, 사회 통제 등을 가속해왔을 뿐입니다. 수십 년째 북한 정권이 펼쳐오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위장평화 공세일 뿐입니다.

설마 이래도 70 여 년째 매우 일관되게 적화통일이 목표인 북한 정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목표를 '23 년 말과 올해 초에 또다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남한은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우리가 바라는 교양 있는 '상호존중', '상호화해', '상호협력' 등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는 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땐 가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 **남북 대립과 전쟁을 돌파하여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현실에 기반한 외교통일 전략이란**

이러한 극심한 가치의 대립과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법률상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정권'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 북한 주민에 대해 참담한 인권유린을 일삼으며 국제법을 수시로 중대하게 위반하는 불법 테러 집단으로부터 국제사회가 등 돌리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명령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온전한 자주독립 민주공화국으로 통일해야 할진대, 급한 대로 우리나라 국민 북한 주민 구출부터 적극 전개하며, 북한 인권 유린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법 위반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국제사회를 북한을 상대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국제법상, 양심상, 도덕상 꼭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영토인 북한 주민과 북한 지역을 그 다른 나라 어디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 계속 테러 정권 압제하에서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힌 큰 감옥처럼 계속 운영되도록 두어서도 안 되겠으며,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중대한 안보 위협을 계속 곁에 두고 있을 시 우리나라의 직간접 손해도 매우 큰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둘 중 하나뿐입니다: (1) 북한 정권의 자멸 및 자유 민주 통일, 또는 (2) 북한 정권과 북한 정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로 전향 및 실질적 증빙이 될만한 상당한 불가역적 정치·사회적 개혁개방(개헌, 법치(만인의

평등과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불가침의 천부인권(생명권, 건강권, 존엄권 등), 양심·종교·사상·표현의 자유, 국민주권과 교육권 보장, 공정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 탄핵 절차, 평화로운 정권교체, 문민통제,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복수의 정치 정당 허용 등 보장 포함). 적화통일된 한국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닙니다. 현 북한 정권 체제하 북한 지역의 참상이 여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 (2)번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는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난 몇 대 정부 연이어 채택 중인 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란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한, 지향할만한 방안인지도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헌법 제 4 조)을 지향하기에 선제공격에 의한 국토 수복은 차치하더라도, 북한 지역 우리 국민에 대한 구출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출될 때까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난민지위협약」,「고문방지협약」등 국제법 위반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수천명의 우리 국민 탈북민부터 구해와야 합니다.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 중인 테러 정권, 반국가단체, 괴뢰집단으로부터 우리 수천만 국민의 구출과 해방을 위해 힘쓰는 것,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 이 전쟁에서 압승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것 외에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외교 의제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동맹과 관계를 총동원하여, 올해부터 2 년간의 우리나라 UN 비상임이사국 지위도 적극 활용하여, 이 가치 전쟁, 무력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국가들이 마땅히 우리나라 편에 서게 하든, 적어도 북한 정권 편에는 서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선, 세계 누가 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깡패와 같은 1 인 독재 정권을 상대로 3 대가 세습할 동안 이렇게 수십 년째 힘들게 국가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벌써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 북한 주민에게 특히 죄송한 일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왕따가 됐어야 마땅하고, 국제사회의 마땅한 압박 속에 이미 자멸했어야 하는 이런 극도로 역기능적인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아직도 70 년 넘게 전시상황 중에 있습니다. 반성해봐야 합니다. 국제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처참한 무력행사 테러 집단을 상대로도 국제사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처참한 외교력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편적 인류 가치를 거의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테러 집단을 상대로조차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히 '가치외교', '가치연대'라는 말조차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당면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때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많이 상반된 가치를 가져 보이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경찰'이나 '세계윤리교사'가 될 만한 패권국이 아니며, 우리 코가 석 자인 분단, 전시(戰時) 국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패권국들조차도 국익과 실익을 철저히 따져가며, 자국 위주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가며, 때론 "가치"라는 이름으로, 때론 "도덕"이란 이름으로 그저 치열한 외교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가치연대"라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문자적으로 어떻게 정의했건 실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치가 상당히 부합하는 국가들과만 친하게 지내게 되고 나머지는 배척하게 된다면, 이는 전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는 사치이고 우리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며,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 해야만 하는 전시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전쟁부터 확실히 이겨야 합니다. 섣불리 "가치연대"를 운운하고 외치다가 주변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을 북한 편으로 더욱 내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조차 조심스럽게 쓰는 자칫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는 '가치연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가 함부로 외치다가, 자신을 고래 사이에 새우 처지로 내몰아선 안 됩니다. 또다시 한반도가 신냉전을 치르는 대리전 지역이 돼선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냉전 최전선으로 자신을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명백한 적대적 반국가단체는 수십 년째 야단법석 적화통일을 대놓고 꾀하는 북한 정권뿐입니다. 굳이 '가치연대'란 용어를 쓰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연대'란 북한 정권을 뺀 전 세계 모두와 우리나라가 돼야 합니다.

특히 요즘, 중국은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 중인 이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대남(對南)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 서방의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것, 심지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에 맞춰 또는 그보다 조금 일찍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주는 것 등을 북한에 주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김일성은 중국 마오쩌둥과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서야 남침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자신들이 수세에 몰려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방의 대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정은에게 더욱 수위 높은 무력 도발, 심지어 제 2 차 남침까지도 독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국과 북한 간의 상호 불신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중·러 간의 균열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여, 우선은 국제사회가 한심하고 처참한 정권 북한을 당연히 등지도록 해야 합니다. 북중관계, 북러관계도 생각보다 별로 상호신뢰가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도, 김정은도 중국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있다는 보도, 북중 갈등도 상당히 뿌리가 깊고 상호 무시와 불신이 있다는 보도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김정일은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다. 력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하고, 김정은은 측근들에게 "일본이 100 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고 합니다. 불과 지난달 말에도 KBS 뉴스 보도("'북한 길들이기' 나선 중국…참지 않은 김정은"(2024.5.30))에 따르면, 북한 사정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간부들에게 '중국에 기대감을 갖지 말며,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며,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외무성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저자세로 양자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오래전부터 통미봉남(通美封南), 통중봉남(通中封南) 등의 전술을 펼치며 우리를 고립시켜 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러 수교, 한중 수교 때 김일성, 김정일은 굉장히 실망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자 취급하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통미봉남에 관해서는, 2017 년 7 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문제는) 철저히 조-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며 대놓고 통미봉남 기치를 세웠고, 심지어 때로는 미국에 압박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을 대놓고 이용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는데, 2019 년 4 월

김정은은 우리 정부를 향하여 북미 관계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통하며 명령까지 합니다. 북한은 불과 올해 초에도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에는 온갖 공개적 비방, 겁박을 일삼으면서,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 칭하며 지진 피해 위로전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렇게 하찮아 보이는 북한 정권은 통일봉남(通日封南)까지도 포함해 되든 안 되든 한국을 주변국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한심하고 도를 심각하게 자주 넘어대는 정권 하나 세계에서 고립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런 정권에 의해 고립을 당하거나 주변 강대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이는 사실 우리가 더 한심한 것입니다. **분단, 전시 상황인 우리나라가 굳이 나설 필요 없는 기타 세계 이슈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우리는 최대한 로우키(low-key)를 유지하며, 가장 당면한 과제인, 분단, 전시의 상황부터 속히 승리해야 합니다.**

굳이 동남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등 다른 더 먼 나라들과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하다가 정작 가장 가까운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위협은 커지고, 이들을 더욱 북한 편으로 가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남북 가치 대립과 전쟁은 더욱 거세지며, 북한의 수도 없는 국제규범 위반의 무력도발과 인권유린 앞에서 정작 UN 안보리 결의도 못 도출해오고 있고, 한반도가 또다시 신냉전 최전선으로 고착해만 간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가치연대이자 가치외교입니까? ‘가치외교’와 ‘가치연대’를 외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란 국가 최우선 목표에서 멀어지게 돼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는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하는 곳들조차도 언제 그들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를 나눠, 편을 가르고 연대를 이루어 봐야, 정작 같은 편의 변질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정치(국내 정치도 포함)가 끝없이 변하는 생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국가들을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 한 대로 화석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가치연대'라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우방과 적이 상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치연대"라는 건 UN 헌장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국제적 연합인 UN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재차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 수준 및 분단 전시상황에 걸맞은, 수십 년째 처해 있는 이 전쟁을 확실한 승리로 마침표 찍는 시대적 소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란 선물과 같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이 매우 감사하고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전체주의, 공포정치, 억압과 탄압, 독재와 인권유린의 정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며,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죽하면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자는 목표까지 넣어놨겠습니까. 그러나 한미동맹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고, 생각보다도 짧은

기간 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하루아침에도 뒤흔드는 트럼프와 같은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고, 애치슨 라인*은 언제든 다시 그어질 수 있습니다(*Acheson line 은 1950 년 1 월 12 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1893~1971)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으로 한국은 제외돼 있었고, 그해 6.25 전쟁 발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먼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국력이 약해져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와 안정의 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우선순위로 챙겨줄 동맹이란 극히 드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국가의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배임이고 매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중, 한러, 한일 관계도 다 동원하여(때로는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역량을 다해, 전개할 가치외교 분야는, 북한 주민 해방 및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입니다.

이런 관점들과 통일 전략도 고려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실효적인 방안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건국/광복/독립의 완성 그리고 더 완성 그리고 더더욱 완성: 2024년 8월 16일>

- 제 1 차 건국일/광복일/독립일: 1919 년 4 월 11 일

일제 식민 치하 속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 헌장'("**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에 국호 '대한민국' 및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공포) 및 강제 국권피탈 침략자 일본에 맞선 독립운동 전개

- 제 2 차 건국일/광복일/독립일: 1945 년 8 월 15 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날

- 제 3 차 건국일/광복일/독립일: 1948 년 8 월 15 일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이 반국가단체(괴뢰집단)에 불법 점거된 채 국토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 수립(1948 년 7 월 17 일 제헌 헌법("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부터 9 차 개정된 현행 헌법("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도 계속 일관되게 '민주공화국' 공포) 및 반국가단체인 북한 세습독재 불법 무장집단에 맞선 독립운동 전개(진행 중)

- 제 4 차 건국일/광복일/독립일: [ ]년 [ ]월 [ ]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헌법 제 4 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 3 조) 통일(헌법 전문 및 제 4 조)의 날 및 이로부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국기에 대한 맹세) 전개

대한민국 건국/광복/독립을 사람 성장에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생명의 수정/착상 단계부터 임신, 출생, 성장,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DNA 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이며(형체는 달라도), 전체 과정에서 계속하여 고유의 인격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국/광복/독립의 완성으로써 위 날들 중 안 중요한 날이 없고(사실 이보다도 더 많은 날들이 있을 것), 모두가 완성된 건국/광복/독립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달리 말해, 제 2 차가 없는 제 1 차는 미약하고, 제 3 차가 없는 제 2 차도 미약하며, 제 4 차가 없는 제 3 차도 미약하다.

지난 고조선 건국 이래 하루하루가 우리 국가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날들로써, 특히 1919 년 민주공화국 제정 공포 이후 모든 날이 건국과 광복과 독립의 연속이자 완성이며, 계속하여 더욱더 완성해 가는 중이다.

고로, 그만 싸우고, 미래를 위해 일하자. 갈라치기와 프레임 선동으로 정치 쉽게 하려고 하지 말자. 일하자. 양쪽 진영 다 감옥 갈 사람들은 뻔뻔함을 버리고 정직하게 자수해서 빨리 좀 나가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 좀 하자. 서로 정쟁을 만들어내고 이를 핑계 삼아, 말꼬투리 잡아 핑계 대며, 놀고먹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며 섬기자. 받은 권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행사하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겔 16:3-15)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 32:3-15)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행 17:24-28)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 5:2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딤전 2:1-7)

#

<국가관연재: 2024년 9월 18일>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 대한민국 영토
일제 강점기는 강제 무력 국권 피탈의 불법 식민 통치 (침략자도 매우 악랄했지만 매국노는 더 나쁨)
1945. 8. 15. 광복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적어도 한반도 이남을 김일성 노예화로부터 막은 공로와 동시에 3.15 부정선거의 과실
4.19 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 민족의 절반을 최악의 인권유린과 극심한 불행으로 몰아넣은 반민족적, 반인륜적 역적. 지금도 현재진행 중인 국가적, 민족적 역적. (김 씨 일가도 매우 악랄하지만 간첩은 더 나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우리 대한국민은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의 국민.

<...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험난한 이웃들... 중립적 실리외교 필요. 강한 국방력 항시 필수.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한반도와 부속도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 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시 51:17-19, 새번역)

#
<“우리 그냥 통일하지 말자”?: 2024년 9월 20일>

“우리 그냥 통일하지 말자”는 건 글쎄요. 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과 국토의 절반을 그냥 포기하자는 거 같은데요. 또 달리 보자면, 현재 지구상 최악의 인권유린 무력 공포 폭정 치하에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자는 것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국민인 것이고요. 또 달리 보자면, 우리나라 헌법을 존중하지 말고 중대하게 위반하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달리 보자면, 언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우리를 핵무력으로 겁박하고 점령하여 김 씨 일가의 노예 삼으려고 호시탐탐 공개적으로 노리고 있는 무장 폭거 세력을 애써 방관해자는 것이기도 하지요.

고로 “우리 그냥 통일하지 말자”는 그렇게 쉽게 떳떳하게 법리상, 양심상, 안보상, 실리상, 상식상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 같아요. 현실을 핑계 대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고요. 아니 심지어 현실적 장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만 같지 않나요? 함부로 포기를 운운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마치 다른 정상 국가, 합리적인 대등한 상대국과 통일이란 걸 할지 말지를 고민하듯 통일을 논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 반드시 저 반인륜적, 반국가적, 반민족적 폭정 치하에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온전히 구출해오고, 반드시 우리 국토의 마지막 한 평까지 다 수복해냅시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삿 20:1)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삼상 3:19-20)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삼하 3:1-10)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삼하 5:1-10)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왕상 4:25)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대하 30:1-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삼하 7:5-13)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 21:6-9)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 22:42-45)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2-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엡 1:17-22)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엡 4:5-8)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 2:9-10)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딤후 2:7-13)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2-26)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 17:14)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 12:26-29)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16-21)

#

<그래요, “통일”이란 건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건, 우리 자국민 구출과 우리 국토 수복이지요: 2024년 10월 3일>

그래요, “통일”이란 건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건, 우리 자국민 구출과 우리 국토 수복이지요. 북한주민 마지막 단 한 명까지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지역 가장 변두리 단 한 평까지도 우리 영토인 것은 헌법과 예하 법령,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등 국내법적으로, 자결권 원칙 등 국제법적으로, 그리고도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와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두 명확한 것이지요. 마치 독도가 법률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것이 명확하고, 마치 서울시민이 법률적, 역사적, 지리적, 언어와 문화적, 민족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인 게 명확하듯 명확한 것이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많이 미화하여 표현하는 것이지요. 본 사안의 본질에 더 적합한 표현은 “우리의 소원이자 사명이자 책임은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민의 절반을 불법 핵무장 폭거 세력 김정은 정권이 강제 불법 점거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공식 명명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년째 우리나라를 겁박하고 무력 도발하며 실제 국지적, 전면적 침략까지 불사하며, 또 수십 년째 북한지역 우리 국민을 감금한 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를 못 본 채 방임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것이고, 우리의 중대한 실리와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민족애, 인류애, 양심 같은 것까지 굳이 거론할 것도 없이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은 실리적, 안보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자멸을 스스로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정권 자멸 붕괴 시 반드시 우리 국민, 우리 국토 다 온전히 회복해야 할 책임이자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요. 적어도 주변국 중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압도적 독보적으로 이러한 책임과 권리가 법률적, 역사적, 민족적으로 부여 돼 있지요.

국토 수복 후 온전한 통합을 위해, 더 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모든 국민의 풍성하고 충만한 행복을 위해, *국민 간의 왕성한 교류와 연합,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삼천리 국토 균등 개발, *이곳에 거주하는 8천만 대한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고 확실한 생존권, 건강권, 자유권적 기본권, 공정한 법치, 강력한 국방과 치안 보장, *균등한 교육, 양질의 문화생활, 공평한 취업의 기회와 활발한 창발적 창업의 기회 마련, *전대미문의 세계적 수준의 외화 투자 유치와 역동적 경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국민 모두에게 신나고 즐거운 일들일 것입니다.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 완성의 그날, 비로소 온전한 광복, 건국, 독립을 이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모든 아름답고 선한 잠재력을 마음껏 실현해 낼 수 있는 안전하고 촉매적인 무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가 대한국민을 보며 동경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금부터 국가 백년대계, 만년지계의 기초를 지혜와 열심을 다해 다지고 세우는 일이 최우선적 국정과제 민족과제 국민과제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구원과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세계에 널리 전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24년 3분기 통일부장관 참석 인권인도분과 정책자문회의 발표: 2024년 10월 14일>

통일부장관 참석 통일부 정책자문회의 때 자문위원으로서 발표하고 온 내용이며, 아래 준비해간 내용 발표하고, 별첨까지 16페이지 분량의 발표 자료 문서를 다 제출 드리고 왔다.

발표 후 후속 논의 중에 내가 추가로 더 강조하여 발언한 것들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너무 고착되면 북한만 존재감이 높아지고 신나는 일이다. 당장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선 우리 국민 북한주민 구출과 인권 개선만 바라보고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에도 협조를 구하며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마침 북중관계도 악화일로이고, 북러관계도 압록강 홍수로 인한 군수공장 침수 이후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국민 구출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대화할 수 있어야 하지, 또다시 스스로를 신냉전 최전선으로, 한반도를 제 2 의 6.25 전쟁터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적 통일 국가 완성에 대한 의지는 남북한 국민 8 천만 대 김정은 1 에 싸움인데, 그 한 명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법률적, 반인륜적 목소리가 8 천만보다도 큰 거 같을 때가 있다. 우리는 감금돼 있는 우리 국민 북한주민과 불법 점령돼 있는 우리 국토 북한지역에 대해 법률적, 역사적, 민족적, 인륜적, 양심적, 도덕적, 실리적, 안보적 당위가 있는데도 때로 너무 그 한 명의 눈치를 보느라 역대 정부 모두 할 말을 제대로 못해온 게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미화하거나 순화하려고 해봐야 통일에 대한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것이다. 좀 더 현 분단 상황의 본질에 맞게 통일 노력이란 '자국민 구출과 자국 영토 수복'이라고 당당히 설명해야 하고, 이를 최대한 평화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지, 우리 영토 북한지역과 우리 국민 북한주민을 테러 정권 폭정 치하에 방치하거나 넘겨주자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안보뿐 아니라 중대한 실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국행위로써 절대 안 된다."

"탈북민에 대한 시각을 불법 테러 집단에 감금돼 있다가 대단한 결의와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우리 국민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미처 구해주지 못했으나, 스스로 탈출에 성공한 우리 국민인 것이다. 탈북민이 제 3 국에서 겪는 인권유린이나 강제북송 위협도 우리나라 국민 문제이니 만큼 적극 구출해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 생존과 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국가에 무엇이 있는가."

[발표 내용]

통일 인식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오늘 주제인 '8.15 통일 독트린'과 연관 짓자면, 독트린 내용 중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 및 "통일 교육 프로그램"에 담길 내용이자 독트린의 "구체적 정책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 월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 천 2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4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로 2007 년 해당 조사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특히 20 대와 30 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필요하다가 20% 초반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33.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7.9%),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19.2%) 등이 그다음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통일이 필요하냐, 통일을 원하냐고 묻는다면 거의 확실하건대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 의견이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세입니다. 현재의 북한이란 곳과 합쳐서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내 삶도 팍팍한 와중에 굳이 저렇게 자유가 없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인권이 유린되며 국제적 고립과 극심한 가난을 자처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세습 독재 폭거 세력이 지배하는 지역과 합쳐서 같이 사는 걸 누가 고민조차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통일의식조사', '통일인식조사', '통일여론조사' 또 그 밖의 수많은 '통일담론'에서 '통일'이란 단어가 사실 많은 오해와 혼선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관계는 인수합병을 고려하는 두 기업 또는 결혼을 고려하는 두 성인 남녀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하고 싶냐'는 질문이나 통일 장단점에 대한 담론이 마치 그런 관계인 듯 착각을 일으킵니다.

현 한반도 분단 상황과 정부의 통일 노력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좀 더 직설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족의 분단 및 재결합 노력 정도나 통일했을 때 좋은 점 정도로만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도 굳이 통일까지...?'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 분단 상황과 통일 노력에 대한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한 설명은, '북한주민, 북한지역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자 국토인데, 반국가단체이자 비인간적인 폭거 세력에 빼앗겨 있는 상황이고, 고로 대한민국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대한국민 남북한 8 천만 명의 최우선 국민과제로 삼을 것은, 바로 불법 무장 반국가단체를 무력화하여 온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되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현 한반도 분단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이자 국민인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을 불법 점거하고 노예화하며,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수십년째 겁박하는 반국가단체, 테러리스트 김 씨 일가의 세습 독재 폭정 세력과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결하고 있[고],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전개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말하는 평화적 통일 추진 노력이란, 우리 국민 북한주민의 구출과 우리 국토 북한지역의 수복을 최대한 평화적으로 이룩하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테러 집단에 평화를 구걸하거나 극도로 그들 눈치를 보며, 정작 국민과 국토의 절반은 내버려둔 채 나머지 절반도 거의 매일과 같이 무력 도발과 위협적 언동 속에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몇 차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점을 공식 발표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다 더 우리의 통일 추진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의 노력이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히 공언해 주신다면, 과연 그런 의미의 통일을 누가 포기하자고 하거나 싫다고 하겠습니까?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지역도 우리 국토라는 사실은 법률적, 역사적, 민족적, 언어문화적으로 정확한 사실이고 이에 기반한 통일 추진이란 당연히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을 위한 노력으로써 마땅히 국가적, 국민적 최우선 과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실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도

결코 타협하거나 미룰 수 없는 과제로도 여겨질 것입니다(시간 관계상 자세한 근거는 별첨에 상세히 12 페이지에 걸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는 마치 독도가 법률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것이 명확하고, 마치 서울시민이 법률적, 역사적, 언어문화적, 민족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인 게 명확하듯, 명확합니다. 우리는 실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 결코 독도와 서울을 포기할 수 없고,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불법 테러 집단에 인질로 잡혀 있도록 방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로 대한민국 정부부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지역도 우리 국토임을 진심으로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나서서 국민과 세계에 이런 입장을 당당히 알리고, 이러한 명확한 입장과 국민구출, 국토수복이라는 타협 불가한 목적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테러리스트 집단과 때론 협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명확한 법률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반한 국가의 중대한 실리와 안보가 걸린 '국민 구출, 국토 수복'이라는 통일 목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자국민 구출과 자국영토 수복이라는 통일을 포기, 지체 또는 방임하려는 자나 심지어 자국민과 자국영토를 불법 테러 집단에 적극적으로 넘겨주려는 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임이자 중대한 매국 행위인 것을 당당히 알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누군가에게 단순히 '통일하고 싶은지' 물으려 하거나 '통일하면 이런 장점이 있으니 통일 노력하자'고 섣불리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주민을 불법 폭정 치하에서부터 구출하고 우리나라 국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라고 묻고 설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질문들도 국민들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인가?' '김정은은 기회만 된다면 자신의 독재 체제하 남북한 통일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가?' '당신은 김정은 정치체제에서 살고 싶은가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살고 싶은가?' '김정은 정권이 자멸하고 북한지역에 권력 공백이 생길 경우 북한지역은 어느 나라가 점령해야 마땅한가?' '만약 북한 정권 멸망 시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 북한지역을 국토로 수복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가?' '북한주민은 역사적, 민족적, 언어문화적으로 한국 또는 주변국 중 어느 나라 국민으로 봐야 마땅한가?' '우리나라 헌법과 예하 법령 및 대법원과 하급심, 그리고 헌재 판례 상 북한주민의 지위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참상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탈북민에 대한 중국 등지에서의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탈북민의 사생결단적 탈북 용기는 존중할만한가?' '테러 집단에 감금돼 있다가 탈출 성공한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도 국민들께 함께 제시해 주시면 현 분단 상황의 본질이 좀 더 정확히 대변되고, '통일 굳이 해야 돼요?' '굳이 탈북민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라는 반문 보다 더 건설적이고 유익한 답변도 얻을 수 있겠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남북한 주민 모두와 세계에 우리나라 국민과 영토의 범위는 남북한 주민 모두이고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라는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김정은 한 명이고, 나머지 남북한 8천만 대한국민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자주독립과 광복을 원할 것입니다.

'8.15 독트린'에서 말하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 및 "통일 교육 프로그램"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당당하고 선명하게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독트린' 실행계획 중 북한인권 개선 노력 및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노력은 '국민 구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고, 이와 더불어,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의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타국에 억류되어 있는 수천 명의 우리 국민 탈북민을 모든 정치외교력을 다해 구출해와야 합니다. 또한, 북한을 간신히 탈출한 탈북민이 타국에서 겪고 있는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참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에서 그런 험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니, 정부가 훨씬 더 단호한 입장 표명과 최선의 정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우리 국민을 전심전력으로 구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력의 소식이 북한주민에게 들어간다면, 우리의 국민 구출은 가속화될 것이고, 또 주변국들도 섣불리 우리의 국민 구출 통일 노력을 훼방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시그널 역할도 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우리 민족의 완전한 광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수천 년 지켜온 영토의 주권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후대의 생존권, 건강권, 자유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통일 노력, 즉, 우리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의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 통일부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종합]

우선 국제법적으로, UN 헌장에서도 존중하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에게 묻는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인정, 보장받고 살고 싶다고 할 주민이 대부분일 것이며, 적어도 김씨 일가의 노예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할 주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내법적으로 헌법과 예하 법령,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가 모두 북한지역을 자국 영토, 북한주민 자국민임을 직간접적으로 판시하고 지지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후삼국시대 약 50 여 년을 제외하고 676 년 통일신라 건국 이래 1945 년 삼팔선이 그어지기까지 북한지역도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우리민족으로 여겨지고 한 언어 한 문화권 안에서 한 국가로서 자유로운 이동과 왕래 속에 1,200 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조차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 인정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란 미명하 김 씨 일가의 노예로 만드는 적화 통일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체제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나머지 최근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반역사적, 반민족적이기도 한 억지 개념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마치 체제경재에서 수세에 몰리던 동독이 1974 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면서 서독과 별도의 국가로 엄연히 분리됐다고 일방적 주장하던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법률적, 역사적, 민족적, 언어문화적으로 북한주민 마지막 단 한 명까지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지역 가장 변두리 단 한 평까지도 우리 영토인 것이 명확합니다.

나아가, 실리적으로도, 수천 년 지켜온 우리 국토 절반과 우리 국민 몇 천만을 '그냥' 내버리고 포기 또는 방임하자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메꿀 수 없는 큰 손실이고, 김정은 정권 멸망 이후 다른 국가가 북한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실리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심지어

남한의 안보적으로도 결코 나아질 게 없습니다. 남한 스스로 북한지역 국토와 국민을 포기했다면, 그때부턴 남의 나라의 수장인 김정은 핵무장 폭거 세력에 대해 개입, 제지할 명분도 더더욱 없어지고, 사실상 핵위협은 전혀 줄이지 못한 채, 만일 종전협정이라도 반강제적으로 섣불리 받아 서명하게 된다면, 우리 측 UN 군사령부만 철거 시키게 될 것이며, 그 후 만약 또다시 북한이 남침을 자행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수복할 영토는 삼팔선 이남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다시 전면적 남침을 하더라도, 그때조차 우리는 북한 지역을 온전히 수복할 권리를 스스로 이미 포기한 셈이 될 수 있고, 속으로는 적화통일(한반도 완정과 한민족 전체 노예화)을 기도하는 북한 정권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감사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자멸을 가속화하고 있고, 주변국 정세도 점점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는 곧 형식상의 동맹으로 전락할 거 같고, 북중 관계는 대놓고 악화되고 있으며, 한미일은 작년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지지'를 천명하며 사실상 남한 체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와 정부는 이러한 주변국 정세도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김정은 한 명을 고립시켜서 완전한 자주독립 대한민국의 온전한 광복과 건국을 이루기 위한, 중립적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고 하나, 우크라이나 종전 시 북한은 팽 당할 확률이 높고 특히 최근 압록강 대홍수로 인해 많은 각종 군수공장이 밀집돼 지역이 무력화됐기에 러시아 입장에서 벌써부터 북한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을 수 있고, 지난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탄약고를 드론으로 공습해 북한산 미사일을 파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중관계도 특히 최근 들어 더욱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는 만큼 이럴 때 더더욱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도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것으로도 파악되고, 중국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및 밀수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내 북한 근로자 10 만 명도 북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보도도 있습니다. 2015 년에도 김정은은 "미·일은 100 년 숙적이나, 중국은 5000 년 숙적이다. 중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중국에 사소한 양보도 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고 하며, 사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까지 3 대에 걸쳐 북한은 중국과 깊은 갈등과 불신이 있어 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미일은 작년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지지'를 천명한 바 있기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한반도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지지한 것과 같고, 다행히도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의원도 한일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이) 독립국이었던 한국을 병합하고, 강제로 이름 등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 기존 역대 총리들보다 역사에 관해 더 정직한 면이 있어 보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거부해왔다고도 합니다.

[법률적 근거]

우선 국제법적으로, UN 헌장에서도 존중하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현시점에 북한 주민 2 천만 명에게 김정은 폭정 체제에 남고 싶은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인권보장을 향유하고 싶은지 익명 비밀 보장으로 묻는다면 대부분 후자를 택할 것이고,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도 대부분 남한에 남겠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찬양하는 남한에 있는 몇몇 사람들조차 정작 정하라고 하면 남한 자유민주 체제에 남겠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제 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법원과 하급심 및 헌법재판소 판례상, 북한 지역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토이고 국민입니다. 김정은(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조차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음"을 '23. 1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여러 가지 정착 지원도 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국민주권 실현의 권리들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북한 주민을 감금, 억압, 착취 중인 북한 정권이란,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위헌적인 '반국가단체'이자 '괴뢰집단'일 뿐이며,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집단은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유엔가입 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서의 민주적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각종의 선전, 선동 및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최대의 현실적 위해집단으로서 반국가단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수 없[다.](당원 1993.2.9. 선고 92 도 1815 판결; 1992.8.14. 선고 92 도 1211 판결; 1992.3.31. 선고 91 도 3279 판결 등 각 참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 도 1951 판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 도 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 도 10121 판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괴뢰집단"[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 1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족공동체임에도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고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결하고 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전개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21 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반도는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정치적·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며 첨예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궁극적으로 타도 또는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냥되고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 헌다 1 전원재판부].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누 122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들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헌법 제 3 조를 근거로 하여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헌법 등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 민법상 북한을 사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줄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헌법 제 3 조의 효력이 북한에도 미치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북한지역과 북한 주민에게 모두 미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 가합 106706 판결].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하여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인데 반해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관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 구단 52480 판결].

헌법의 예하 법령들을 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북 5 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고,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 5 도에 대한 “임시 사무소”를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북 5 도 각도 도지사를 남한에서도 선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여러 법령 상 탈북민에 대해서는 다른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처음부터 아예 우리 국민으로서 대우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조차도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명시하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일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인 것입니다.

[안보적 이유]

안보적으로도 우리를 주적으로 점령 대상으로 공공연히 떠드는 저런 폭거 세력을 계속 우리 머리 위에서 오물 풍선 보내고 핵실험하며 미사일 쏴 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우리 국민 생존권 위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언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남한까지도 무력 점령하여 우리 남한 주민과 국토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1950 년 6.25 전쟁 기습남침에서부터 무장공비 침투, 우리 국민 납북, 1, 2 차 연평해전, 관광객과 공무원 피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핵개발과 6 차례 핵실험, 지난 수십 년 간 최소 수 백 여 회 대남 도발용 각종 무인기, 오물풍선 살포, 미사일과 포탄 발사 등 무력도발과 함께 불과 이번 달에도 우리나라를 "제 1 적대국"이자 "괴뢰"라고 지칭하며,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 세우지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이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요즘 대뜸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헌법도 개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전 동독처럼 체제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 지금도 기회만 주어지면 남한주민도 자신 왕조의 노예로 삼고 남한자본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도 전국적 적화통일을 천명하고 있고, 올해 1 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은 남한을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북한 헌법에]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불과 지난주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우리를 '괴뢰한국쓰레기들', '미친 개무리'로 지칭하며 '쏘자, 적의 아성을 단숨에 쑥대밭으로!', '지구상에서 당장 들어내야 할 망나니무리',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 '하루빨리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등의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남 위협과 도발 외에도 북한은 지금도 수많은 국제규범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인권규범 위반 측면에서, 북한은 자신이 가입한「세계인권선언」,「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규약),「아동권리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규범들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23 년 12 월 19 일, UN 총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는데, 이는 19 년 연속 채택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내 다양한 중대 인권 침해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작년에 발간한「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권, 생명권,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식량권, 건강권 등 모두 크게 위협받고 있고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은 더욱 취약하여 인신매매, 강제낙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수의 국제 연구기관들의 발표 지수를 보더라도, Freedom House 의 세계자유지수는 195 개국 중 북한을 193 위(1973 년 발표 이래 세계 최하위권 지속)로 하며 자의적 체포, 구금 등 중대한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하였고,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180 개국 중 북한을 180 위로 가장 극심한 정보 통제국으로 지정하며 오직 당, 군, 김정은을 찬양하는 보도만 가능하고 국내외 기자 임의 체포, 처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Walk Free 의 세계노예지수는 160 개국 중 북한을 160 위로 지정하며 강제노동, 성착취, 인신매매, 아동착취, 정치범수용소 등이 만연한 것을 지적하였고, Open Doors 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국 50 개국 중 1 위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북 간의 극명한 가치의 대립은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치의 전쟁이자 무력(武力) 전쟁입니다. 불과 작년 말, 북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들입니다.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괴뢰정권[대한민국 정부 지칭]이 10 여차나 바뀌였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이처럼 김정은은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조차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공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작년 8 월 27 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 준비”를 언급했고, 8 월 29 일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방문에서는 “전쟁준비를 확고히 완비할 것”을 말했는데, 당시 북한 매체는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할 멸적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듯, 올해 1 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삼천리금수강산’, ‘8 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남한을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1 월 김정은은 북한내 한 군수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1 월 김정은의 여동생(북한 조선로동당 부부장) 또한 우리 군을 향해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이미 안전장치가 해제되어있는 상태"로서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는 우리 군대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전쟁 갈등과 남남(南南)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남(對南) 선전선동 목적도 포함된, 심각하게도 넘은 발언들은 1994 년 판문점 남북회담 시 '서울 불바다' 발언 등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꾸준히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은 1949 년 신년사에서 '국토완정'(國土完整, 한 나라의 영토를 하나의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하려는 것으로, 북한 정권 체제하 한반도 통일이란 목표)이라는 용어를 13 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고, 이듬해 1950 년 6 월 25 일 새벽, 실제로 기습 남침(南侵)의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수많은 국제규범을 중대 위반하며 무력 도발을 자행해오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말부터 오늘까지의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만 보더라도,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서해 및 동해상으로 중거리/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순항 미사일 발사, 그 밖에도 정찰위성 발사 및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지원과 실전 테스트,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 NLL 근접한 북방 일대 350 여 발 포격,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일부 철수시켰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및 중화기 재무장, 판문점 재무장,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육로에 지뢰 다량 매설, 최근에는 수 백 여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5 회,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3 회 등 수십 차례의 미사일 무력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 호(2006 년), 1874 호(2009 년), 2087 호(2013 년), 2270 호(2016 년), 2397 호(2017 년) 등을 또다시 중대 위반한 것이고, 세계 평화 파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BBC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정황도 포착된다고 하는데, 이로써 제 7 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위 결의안들을 포함하여 대북 안보리 결의 9 개 이상을 또다시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 2020 년 이후를 본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1 년에 몇 배가 되는 무력 도발이 있었고, 이들 대부분 역시 UN 안보리 등 국제법 중대 위반의 무력 도발이며, 2010 년 이후로는, 역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인 4 차례의 핵실험, 수백 차례의 미사일 발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 피격, 대한민국 영토이자 민간 거주구역 연평도 포격(국군 2 명 전사, 16 명 부상, 민간인 2 명 사망, 부상 3 명 및 각종 시설과 가옥 파괴) 등을 자행했습니다.「2022 년 국방백서」'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에 따르면 2010 – 2022 년 동안 간접침투 사례는 총 27 번, 국지도발 사례는 해상 209 번, 지상 13 번, 공중 12 번, GPS 교란 5 번 등 총 239 번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950 년 6 월 25 일 일요일 새벽 4 시경, 북한 조선인민군이 38 도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막심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기록에 따르면, 6.26 전쟁으로 인한 국군 전사자는 13 만 7,899 명, 부상자 45 만 742 명, 실종자 2 만 4,495 명, 포로 8,343 명으로 총 62 만 1,479 명의 국군이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을 도운 UN 군(United Nations Command,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는 UN 안보리 결의안 82 호 내지 85 호 등을 지지하며 UN 의 깃발 아래 미국을 포함하여 전투 병력을 파견한 16 개국, 의료지원 6 개국, 물자지원 39 개국의 연합)의 전사자는 3 만 7,902 명, 부상자 10 만 3,460 명, 실종자 3,950 명, 포로 5,817 명으로 총 15 만 1,129 명의 UN 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 중 한국 민간인 사망자는 24 만여 명,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은 12 만 8,000 여 명, 부상자 22 만여 명, 실종자는 30 만여 명, 납치 8 만 5 천여 명 등 총 99 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8 만 2,000 여 명, 실종자 79 만 6,000 여 명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재민 370 만여 명, 전쟁미망인 30 만여 명, 전쟁고아 10 만여 명, 이산가족 1,000 만여 명 등이 발생하였고, 국토의 3 분의 1 이 초토화되며, 국가 기반 시설은 45%가 폐허가 됐습니다.

1953 년 7 월, 6.25 전쟁 휴전 이후로도 북한 정권은 단 한 번의 반성과 사죄 없이, 지금까지 거의 매년 대남(對南)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앞서 열거한 것 도발들 외에도, 1999 년과 2002 년의 제 1, 2 차 연평해전, 수 차례 무장공비 침투,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1.21 사태), 대통령 폭탄 테러 시도(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최소 4 개 이상의 비무장지대 남침용 땅굴 굴착,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우리나라 민간인과 선박 수 차례 납북, 우리나라 여객기와 승객 납북, 금강산 관광객 피살, 서해 공무원 피살, 총 6 차례 핵실험, 수 차례 교전, 총격, 격침, 국가 주요 시설 및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의 무력도발과 불법행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도발의 수위와 빈도는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50 년 6 월 25 일 이래 지금까지 치열하게 가치 전쟁, 무력(武力) 전쟁 중인 분단국가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나라 정부부터 타성에 젖은 매우 위험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23 년 말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공개 발언 중,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며 마치 우리나라 탓 때문에 마치 평화 통일을 못 이루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앞서 보았듯, 6.25 전쟁 이래 지금까지 해온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 언사와 무력행사만 쭉 열거해 봐도 상호 존중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제안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6.25 전쟁 이전인 1949 년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국토완정'을 공개 주창한 이래 2021 년 개정됐다는 최신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적어 놓은 것도 보았듯, 북한 정권은 1945 년 남북 분단 이래 한 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은 끝없는 무력도발과 핵개발, 적화통일 야욕을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우리민족끼리'의 '연방제'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데, 전혀 상호 호혜적인 제안들이 아닌 우리 측만 군사적, 법률적,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켜 결국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함뿐입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증강 및 장기주둔을 야기한 것이 북한의 기습남침 6.25 전쟁이었고, 이에 대한 사죄 한번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들은 무력증강 및 핵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22 년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공포하였으며, 2023 년 9 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58 조에도 법제화하였습니다. 「핵무력정책법」 서문에는 김일성의 '국토완정'과 비슷한 '령토완정' 내용이 있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다음과 같은 국제법 위반의 적극적, 선제적, 자의적, 임의적, 불균형적 핵사용, 핵공격을 시사하는 내용이 동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둘째,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통일부「2023 북한인권보고서」, BBC News 코리아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북한 정권은 정보통제, 사상통제, 사회통제, 문화통제 강화를 위한 「군중신고법」(2019 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년), 「혁명사적사업법」(2021 년), 「청년교양보장법」(2021 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년) 등의 법률 제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하에서는 "오빠", "남친", "자기야"와 같은 남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한 책이나 영상물을 유통하기만 해도 '괴뢰말투사용죄', '괴뢰사상문화전파죄' 등에 해당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최대 사형(공개처형 포함)에 처하도록 해놨으며, 「혁명사적사업법」에서는 김정은 개인 우상화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11 개 범죄에 대해 사형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범죄 중에서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죄로 간주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사형 부과가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광범위 적용하고 공개처형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포행위나 종교활동, 김정은 지시나 로동당 정책 위반도 다 사형 또는 공개처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여러 죄목에 대해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로도 간주할 수 있는데,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소추시효기간"(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고지도자 모독, 남한 탈북자와 교류, 한국행 시도 및 알선, 한국드라마 시청, 종교 활동 등도 다 '반국가 범죄' 또는 '반민족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국가·반민족 범죄'에 경우 '재판소'(법원)에 의한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11 조에 따라 애초에 북한 재판소 재판이란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즉결 처형도 가능하고,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하는 등 대규모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범 처벌 시에는 그 가족까지 연좌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민보안단속법」 등은 북한 내 주민의 이동 및 거주조차 통제하며 미허가 이동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및「국가보안법」이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에 걸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화통일에 걸림이 된다는 말일뿐이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할 때조차 그들의 실상은 상호 호혜적 제안이나 시늉이라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반대로 무력증강과 핵개발 박차, 사상, 정보, 사회 통제 등을 가속해왔을 뿐입니다. 수십 년째 북한 정권이 펼쳐오는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위장평화 공세일 뿐입니다.

설마 이래도 70 여 년째 매우 일관되게 적화통일이 목표인 북한 정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북한 정권의 정체성과 목표를 '23 년 말과 올해 초에 또다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남한은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우리가 바라는 교양 있는 '상호존중', '상호화해', '상호협력' 등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는 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땐 가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 북한인권'에 동참한 이유>

'사단법인 북한인권', 매우 귀한 취지로 설립되고 정관 작업부터 함께 동참할 수 있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개인적 아젠다가 있다고 한다면, 저의 명확한 아젠다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최종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목청껏, 자유로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어디서나 예배하고 찬양하며 증언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계절이 편만하게 임하며, 이 땅이 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온전히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국민 개개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완연하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아래 놓인 전체주의적 '신권정치'(神權政治)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정반대로, 자유 민주주의라는 터전 위에서,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개개인이 깨닫고 맛보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하나님으로 마땅히 환영하고 모시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이루어 가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나라, 천국과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길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선 완전한 천국은 못 이루더라도,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도록 저도 주어진 곳에서, 걷게 하시는 길에서 늘 힘쓰며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인권에 힘쓰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과 이 땅에서, 또는 내세에서라도 이런 좋은 소식, 복된 열매들을 갖고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점을 한 번 솔직히 동지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5-6)

#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때의 통일의 의미와 목적>

제가 원하는 통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8 도 강산, 백두에서 한라,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어디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목청껏, 개인이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든,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언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

《2024년 12월 3일 계엄부터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기간 동안 페이스북(메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나의 공개 게시글들 중 상당 부분 날짜 순으로 모음》

(정치적 입장부터 미리 밝히자면, 난 계엄은 반대, 계엄 해제는 찬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여러 절차적 불공정성으로 문제 제기, 그럼에도 탄핵심판 결과는 어쨌든 법치주의 국가로서 온전히 수용, 거대 야당과 그 후보의 삼권 분립 파괴 시도, 위인설법 독재 시도는 결사반대, 조기 대선에서 '우린 제 2 의 민주화 운동 중이다' 등 대략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

<하루만에 계엄 해제 후 수요저녁예배 다녀온 밤: 2024년 12월 4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대하 7:13-15)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 147:7-12)

#

<계엄 해제 다음날 밤 올린 성경구절들: 2024년 12월 5일>

이날 밤 “정치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라는 설교 YouTube 영상*을 보고, 내용 중 와닿은 설교말씀과 함께 떠오른 성경구절들: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없다!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의 우상화. 정치가 언제 우상화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상 12:20-21)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정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 주셔서 특정한 정치지도자에 과도한 소망을 두거나 절망하지 않고 근본적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소서.”

(*출처: 말씀노트 채널. (2024 년 12 월 5 일 업로드). “정치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2 장) [김형익 목사 설교]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pIXiq5dVwJ8)

누가복음 16 장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26 장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8 장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골로새서 1 장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빌립보서 3 장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2 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가복음 4 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6 장
9.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 장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요한계시록 1 장
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2 장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5 장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 장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2 장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
<장남 남율이는 내년 상반기 중 형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장남 남율이는 내년 상반기 중 형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돼 주시옵소서. 우리 두 아들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친히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만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사랑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평생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큰 사랑받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9)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아멘 아멘

#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2024년 12월 12일>

“여호와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크시지만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시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 발밑의 티끌이다. 그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시니 바산 들과 갈멜산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여호와 앞에서 높은 산들이 진동하고 야산이 녹으며 땅이 흔들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떠는구나. 누가 분노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그의 무서운 진노에 살아 남을 수 있는가? 그가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므로 그 앞에서 바위들이 깨어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나 1:3-7, 현대인의 성경)

#
<그래도 크리스마스 2024>

자는 것도 고통스럽고
깨어 있는 것은 더 고통스럽더라도

살아도 숨이 가쁘고
잠을 청해도 숨이 가빠 결국 곧 다시 깨더라도

밖에 나가도 안에 있어도 안식할 곳은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위로는 없으나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경계까지 더욱 해야 할 사람이더라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죽거나
더 안 좋게 돼 죽게 될지라도,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인 것은,
크리스마스만큼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면에서 진정하고 완전한
 나의 유일한 안식이고,
  나의 유일한 친구이며,
   나의 유일한 평안과 영생이고,
    나의 유일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며,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이다.
나의 태어난 생일도
오직 크리스마스 안에서만 나에게 복된 날이 된다

나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기도
나의 마지막 의식, 마지막 말
나의 마지막 부를 그 이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7-14)

#
<이기는 그에게는: 2024년 12월 27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0-21)

#
<두 번의 성경구절 Posting: 2024년 12월 29일>

#1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시 93:4)

#2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 명 사망)*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 34:18)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11:33-35)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7-39)

#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2024년 12월 31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8:9-17)

#
<혼란한 시국 극복: 2025년 1월 6일>

요즘 혼란한 시국으로 인해 많이 피로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시선을 나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이 모든 상황을 알뿐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유일한 주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롯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길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구원과 통치만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자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온누리교회 신년새벽기도회 ‘날개 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2025. 1. 6.)) 영상 YouTube 링크와 성경 구절들을 공유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8 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4:5-18, 새번역)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사 40:26-31, 새번역)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으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 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시 73:2-28, 새번역)

아멘.

#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2025년 1월 10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갈 5:13-15, 우리말성경)

#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 하도록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것이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시 2:6-12, 표준새번역)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아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 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렘 33:1-9, 표준새번역)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 1:5-8, 표준새번역)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 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계 7:9-12, 표준새번역)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15:22-28, 표준새번역)

#
<시국 상황: 2025년 1월 20일>

굳이 나까지 말을 보탤 필요가 있을까 이미 말은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와인 한잔한 핑계로 그냥 좀 적어보자면…

다음 대선, 총선은 선거함 이동 없는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지.

야당 대표이든 대통령이든 어쨌든 꼼수적 재판지연 없이 시원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서민만 열심히 재판받는다.

폭력적 저항보다 강한 것이 비폭력 저항.

하나님 보다 귀신을 섬기는 무속과 무당, 하나님은 없다고 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 주사파와 간첩, 이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질, 패악질을 버리고 돌아오길.

삼천리금수강산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와 부속도서 모두 대한민국의 국토. 남북한 주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 반국가단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은 북한 노예화와 남남갈등 선동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 우리 모두가 피해자. 북한 정권 고위공직자일수록 언제 숙청될지 몰라 탈출하고 싶을 것. 민족의 큰 민폐, 큰 걸림돌 김정은 단 한 명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도 살길. 우리 국민들을 놓아주길. 전대미문의 인권유린을 멈추길. 자신의 정권을 잃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길.

그리스도인의 참 묘미는, 참 능력은, 참 아름다움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며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고통받으며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나라 본향을 가장 사모하며 죽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사는 순례자 그리스도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온 인류가 단번에 알 수밖에 없는 전 우주적 재림. 이에 못 미치는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예수, 자칭 하나님은 모두 가짜 이단 사이비 사기꾼. 이들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한 사람의 좌파 우파 정치좌표 레이블 이전에, 한 사람의 양심과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온유와 겸손과 선한 마음이 사람됨으로서 훨씬,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그럼에도 자신의

돈을 내서라도 남을 돕고, 자신의 생명을 내줘서라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가, 아니면 남의 돈을 뺏어 오고, 남의 생명을 경시하며 자신을 위해 짓밟는가.

진보시킬 부분과 보수할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는 지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바라면서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제적 선한 연대를 추구하되 국익을 우선적으로 잘 챙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잊지 않고 성심으로 돌봐 가면서 질서 있는 시장 경제에서 최선을 다하고, 개개인의 사람을 존중하고 살리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자 일인 독재 또는 다수의 독재인 무늬만 민주주의를 경계하며, 방종이 아닌 자유 그리고 억압이 아닌 질서를 잘 세우고 누리고 지키며, 개인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중요시하는 지혜. 착함.

마땅히 존중하고 지켜야 할 천부인권과 인간의 작위적 개조로 지어낸 허위 인권을 구분하는 지혜. 모든 사람의 영혼을 동일하게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겸손과 사랑.

이 정도만 쓰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합 2:20)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14-20)

#

<그냥 지금까지 내가 느끼고 깨달아 온 사랑: 2025년 1월 25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우러나고 깊어지는 따듯한 차와 같고,
연애 때 사랑은 달콤한 초콜릿 셰이크 같고,
결혼의 사랑은 홍삼 추출액과 같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따듯하고 포근한 우유이자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축제의 와인과 같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은 끓는 피와 같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의 관계는 위 모든 것의 기원이자 유일하게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아주 맛있고 상쾌하며 부드럽고 깨끗한, 완전한 물, 생명수이다. 새롭게 하는 호흡이다. 나의 존재됨의 근원이자 완성이다. 압도적 전부이다. 오직 이로부터 다른 모든 참된 사랑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5:1-2)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 17:22-23, 새번역)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6-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 4:13-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7-39)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3-7)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 55:1-3)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17)

#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 1월 28일>

출애굽기 22 장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출애굽기 22 장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 장
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 장
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애굽기 23 장
13.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 장
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레위기 20 장
6.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7.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 장
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 장
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레위기 20 장
27.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 장
26.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28.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야고보서 4 장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마가복음 1 장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3 장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후서 3 장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7장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한일서 1장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 장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디모데전서 2 장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원과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자. 이제라도 기회가 있을 때, 살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2025년 1월 29일>

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방해하는 정치이념, 체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그런 이념에 가담한 자들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특히 반국가단체 수장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이 탄압하고 속여온 수많은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죄의 마음을 다해 진정한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앞장서 주길.

이 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쓴 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와 부속도서 통일 노력은 헌법의 명령. 종북 주사파 세력은 명백한 반국가단체."

#
<눈 오는 날 혼자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요인묘역과 독립유공자묘역 방문: 2025년 2월 1일>

임시헌장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완전한 독립, 완전한 광복, 완전한 건국, 완전한 통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에 걸친 자유민주적 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쉬지 말고 이어가야 할 독립운동.

#
<평생 첫 소설 - 사실 기반: 2025년 2월 3일>

한 엄마가 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빠 욕을 했다. 아빠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라고. 엄마는 박해받고 있다고. 너희를 위해 투쟁한다고. 너희를 위해 견딘다고. 그래서 아이들은 철석같이 엄마를 믿고, 같이 아빠를 욕하며 엄마를 따랐다.

물론 아빠가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다. 진짜 좀 아닌 거 같은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만을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에게는 아주 오래된 상간남이 있었다. 그리고 그간 아빠를 욕한 이유는 아빠랑 이혼하고, 아빠를 내쫓고 상간남과 떳떳하게 새살림을 차리고 싶어서였다.

심지어 상간남은 무능력해서 엄마가 몰래 아빠 돈 빼돌려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만 상간남은 엄마의 정신을 이미 오래토록 지배했다.

상간남의 자녀라는 자들도 알고 보니 우리 아빠와 낳은 자식들을 상간남의 자식처럼 넘겨준 뒤, 상간남의 학대와 가스라이팅 속에, 상간남 수발을 들도록 키우고 있던 것이다. 실제 상간남이 자신의 본처와 낳은 자식은 해외 선진국에서 비싼 돈 드려 유학을 시키는 중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는 두 집 살림이었으나 이제는 아빠를 아예 내쫓고 상간남하고만 살고자 한다.

그러고 보니 아빠도 문제가 많지만, 엄마는 이 가정 자체를 해체하고 상간남의 종으로 우리를 갖다 바치려 한다. 정작 상간남이 자신의 본처와 낳은 자식은 스위스, 미국, 유럽 등지에서 그가 좋아하는 에멘탈 치즈를 먹으며 유학 중이다. 상간남의 상속자가 될 준비 중이란다.

이젠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 중이다. 심지어 상간남도 속히 회개하길 기도 중이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이고, 철천지원수 상간남조차 나와

같은 연약하고 죄인 된 사람이자 우리 국민이기에, 심판을 받아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받길 바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아빠 = 자유민주적 공화제

> 상간남 = 불법 반국가단체 북한 김 씨 일가를 포함한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제를 전복하려는 국내외 세력 일체

> 엄마 = 상간남을 위해 체제전복을 꿈꾸는 간첩 및 반국가단체의 국내외 부역 세력

> 자녀들 = 자유민주 공화제에서 태어났거나 자유민주 공화국민임에도 상간남의 압제와 속임 속에 친아빠로부터 격리된 남북한 주민 모두**(진보적, 보수적 자녀 모두 포함)**

P.S. 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방해하는 정치이념, 체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그런 이념에 가담한 자들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특히 반국가단체 수장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이 탄압하고 속여온 수많은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죄의 마음을 다해 진정한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앞장서 주길.

#
<복스러운 소망: 2025년 2월 8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2:11-14)

#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 서문: 2025년 2월 17일>

다산 정약용(1762 년~1836 년),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서문 중: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내고 또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어있다.
사목은 그 사이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고

죄지은 사람은 붙잡아 죽이니
이는 명백한 천권이다.

사람이 천권을 대신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로 덮어주고 모른 체하며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고서도
태연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하여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지는 것이다.

인명과 관련된 사건은 고을마다 있는 일이어서
목신이 항상 당면하는 것임에도 이를
심판함에 있어 중종 소홀하여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는 일이 많다…

흠흠(欽欽)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라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
<좌·우 이전에 11: 2025년 2월 22일>

‘무조건 보수 이겨라 무조건 진보 져라’ 또는 ‘무조건 진보 이겨라 무조건 보수 져라’와 같은 극한 대립의 구도는 우리 모두가 정쟁에 이용당하고 속는 것뿐이다.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모두가 있어야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유익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어떨 땐 진보적 가치, 어떨 땐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기도 한다.

ChatGPT 와 상의하며 정리해 본 소위 ‘건강한 진보의 가치’와 ‘건강한 보수의 가치’이다. 영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부 때 정치학도 전공을 했고, 그 후에도 현실 정치에 대해(특히 영국 정치와 한국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정도 수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게 여겨지는 진보 또는 보수의 가치의 범주로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진보의 가치]
1. 사회적 정의 –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포용성과 다양성 – 인종, 성별, 사회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치 존중과 동등한 기회 제공.
3. 인권 보호 –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보장, 약자 보호 강화.
4. 경제적 형평성 – 부의 재분배, 복지 확대, 최저임금 보장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

5. 공공의 역할 강화 –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
6. 기술과 혁신 촉진 – 과학 발전과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7. 환경 보호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정책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추진.
8. 노동권 보호 – 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시간 조절, 정당한 임금 보장.
9. 국제 협력 –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인권 증진.
10. 사회적 유동성 보장 – 교육과 기회의 평등을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 확대.

[건강한 보수의 가치]
1. 개인의 자유와 책임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책임 강조.
2. 법치주의 –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정 유지.
3. 전통과 문화 존중 – 기존 사회 질서와 전통을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 추구.
4.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 정부 개입 최소화, 자유 시장 경쟁 촉진.
5. 강한 국방과 안보 – 국가 안보 강화, 자주국방 및 국익 우선주의.
6. 재산권 보호 –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7.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 – 가족, 지역사회, 종교 등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 중시.
8. 책임 있는 재정 정책 – 정부 지출 절감, 국가 부채 관리,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9. 점진적 변화 – 급진적 개혁보다 안정적인 점진적 개혁 선호.
10. 국가 정체성 유지 – 국가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고 계승.

위 중 안 좋은 가치라고 할만한 게 딱히 없다. 때와 시기에 따라 다 적절히 필요한 가치들이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그 시대에 맞게 바뀔 순 있어도 무엇 하나 아예 무시하거나 버릴 건 없어 보인다. 이렇듯,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위해 건강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심지어 이게 보수의 가치였는지 진보의 가치였는지 굳이 나눌 필요도 못 느꼈을지 모른다.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용적인 가치이자 양심적인 가치라면 굳이 진영을 나눌 필요도 없으니까.

단, 자유민주주의라는 터전이 있어야 이런 건강한 진보의 꽃도 피어나고 건강한 보수의 꽃도 피어나는 것이고, 이 터전 자체를 위협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힘을 합쳐 단일대오로 막아내야 마땅하다.

인류는 그간의 긴 역사와 정치적 실험 끝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그나마 제일 낫겠다고 결론에 현재로선 도달한 거 같다. 이 체제가 본의와 취지대로 잘 작동만 한다면, 진보와 보수,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균형과 상생발전, 권력의 checks and balances 등이 잘 이뤄질 것이다.

“Many forms of Government have been tried, and will be tried in this world of sin and woe. No one pretends that democracy is perfect or all-wise. Indeed it has been said that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ose other forms that have been tried from time to time.”
(Winston S Churchill, 11 November 1947)

공산주의나 파시즘 모두 극좌(진보)와 극우(보수)라고 말은 하나 이런 극단주의의 본질은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대의멸친(大義滅親) 등을 절대 선으로 내세우는 전체주의로써, '위에서 아래로' 강압하고, '아래에서 위에 대한 맹종'을 강요하며, 정작 '위에서는' 사익편취가 만연하고, 착취, 강탈, 억압의 연속인 위선과 부조리의 계급 구조인 것이다.

"The German Nazis and the Russian Communists came very close to us in their methods, but they never had the courage to recognize their own motives. They pretended, perhaps they even believed, that they had seized power unwillingly and for a limited time, and that just round the corner there lay a paradise where human beings would be free and equal. We are not like that. We know that no one ever seizes power with the intention of relinquishing it. Power is not a means, it is an end. One does not establish a dictatorship in order to safeguard a revolution; one makes the revolu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dictatorship. The object of persecution is persecution. The object of torture is torture. The object of power is power." (George Orwell, 1984)

ChatGPT 와 더 상의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와 달리, 법치주의, 권력 분립, 인권 보호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1. 국민 주권 (Sovereignty of the People)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부를 구성함.
- 주로 대의제(Representative Democracy)를 통해 실현됨.

2. 자유와 기본권 보장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 Freedoms)
- 국민은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받음.
- 개인의 자유가 정부나 다수의 지배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됨.

3. 법치주의 (Rule of Law)
- 모든 사람과 정부는 법에 따라야 하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됨.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절대적 기준이 됨.

4. 권력 분립 (Separation of Powers)
- 정부의 권력은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으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이루어야 함.
-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5. 다원주의 (Pluralism)와 정치적 경쟁 (Political Competition)

-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야당의 존립과 활동도 보장됨.
- 언론과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활동하며,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

6.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 (Regular & Fair Elections)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
- 선거 부정, 언론 탄압, 야당 탄압 등이 없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함.

7.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 (Market Economy & Economic Freedom)
-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함.
-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되, 독점 방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음.

ChatGPT 와 또 상의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단순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의 차이는?'

- 권력의 근원: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만을 강조함
- 개인의 자유 보장: 자유민주주의는 언론, 집회, 표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단순 민주주의는 정부나 특정 정당이 이를 통제할 가능성이 큼
- 권력 구조: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만, 단순 민주주의는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큼
- 정당 체제: 자유민주주의는 다당제를 보장하여 정당 간 경쟁이 가능하지만, 단순 민주주의는 일당 독재 또는 제한적인 정당 체제를 가질 수 있음
-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단순 민주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거나 중앙계획 경제 체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 선거 방식: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지만, 단순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선거로 실질적인 독재가 가능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1. 개인의 자유 보장 → 국민의 권리와 창의성을 극대화
2. 견제와 균형 → 권력의 독점과 남용 방지
3. 사회적 안정과 번영 →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가능
4. 시민 참여와 자율성 보장 → 국민이 국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법치주의,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 공정한 선거 등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람은 모두 악해서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 남을 억압 착취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길 원하고, 실제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신처럼 되길 원해하는 죄성(罪性)이 모두에게 있다. (자긴 이런 죄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위선과 부정직의 죄악까지 가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죄용서와 거듭남과 은혜로 받는 구원 영생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대해선 이미 나의 다른 글들에서 많이 써왔다.)

그럼에도 그나마 정치 체제로써, 구조적으로 사람의 이러한 죄성을 막아보려 한 시도 중 현재까지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 거 같다.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으면서도 모두가 동등하게 공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보수와 진보적 건강한 가치가 모두 꽃 필수 있는 터전이 자유민주주의인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을 꽃피워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신이 기득권이 되면 불편한 체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잠재 세력을 말려버리기 위해 남의 자유는 점점 뺏어가며 자신의 자유만 지키려고 하게 된다. 국민을 자신에게만 종속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사기, 기만, 살인, 간첩질, 매국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21 세기에도 말이다. 그것도 늘 국민의 이름, 서민의 이름, 민생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시민, 지혜롭고 온건한 시민,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시민, 선한 시민, 행동하는 시민, 즉 정치 체제의 가장 기초구성원인 시민들의 사람 됨과 이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공산주의와 파시즘과 같은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위선으로 미혹하는 정치 선동꾼들을 배격하며, 중심을 바로 잡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시민들이 커질 때에야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심지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중심을 잡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행동하는 선한 시민이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만히 순응만 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닌 것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이웃을, 같은 국민을 마귀화 하지 않는 것이자,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을 구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범죄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며, 범죄자도 갱생되길 진심으로 바라주는 것. 무엇보다도, 모두가 자기 자신 또한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불완전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관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 가족처럼 잘 되기를 바라주고 사랑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정의와 공의도 우리 모두의 건강한 공생 존속을 위해 굳건히 세워가는 것. 이를 적극 시행하는 시민을 말한다.

물론 요즘 같은 흙탕물 싸움의 정치 전쟁시기에 무슨 뜬구름 같은 얘기고 저 머나먼 나라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람으로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이상향에 대한 믿음과 방향성을 잃지 않은 채,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구원의 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적극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사탄이라 정죄하고 싸우다가 결국 우리 모두가 사탄화 돼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틈을 노리고 이용해 먹는 정치꾼들과 간첩 매국노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고한 중심을 잘 지키고 절실히 기도하며 단호히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때이고, 이게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Keep your eyes on the stars, and your feet on the ground.” (Theodore Roosevelt)

“Pray as though everything depended on God. Work as though everything depended on you.” (St. Augustine)

“Freedom is never more than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 We didn’t pass it to our children in the bloodstream. It must be fought for, protected, and handed on for them to do the same.” (Ronald Reagan)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God will not hold us guiltless. Not to speak is to speak. Not to act is to act.” (Dietrich Bonhoeffer (Christian theologian executed for resisting the Nazis))

P.S. ChatGPT 에게 또 물어봤다. ‘말은 민주주의인데 사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들’(북한에 대한 괄호 안 설명은 내가 첨언함)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들은 대체로 권위주의적 통치, 언론 통제, 부정 선거, 야당 탄압, 인권 유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1. 러시아
2. 중국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
3. 북한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지상 최악 인권유린의 폭정 불법 반국가단체)
4.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선거 제도가 있음.)
5. 터키 (이전에는 민주적이었으나 점점 권위주의화.)
6. 베네수엘라
7. 미얀마

[결론]
이들 국가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 권위주의, 부패, 선거 조작, 언론 통제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혼합 체제” (Hybrid Regime), 또는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됩니다.

#
<2025년 3.1절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여의도 참석>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어디서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목청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자유민주 통일 대한민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가져 간 태극기는 5 일 전에 헌법기관 대한민국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받은 것으로, 태극기가 평양 시내 중심에서도, 백두산 정상에서도 강력하게 펄럭이는 날이 곧 오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곧, 속히 이뤄지길 기도하였다.

내가 간절히 하고 온 기도: "하나님 아버지, 3.1 절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무자비하고 악랄한 일제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반국가단체 김일성 정권의 불법 기습 남침에서도 우리나라 남쪽만큼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의 북쪽까지도 온전히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 민족이 온전한 자주독립과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팔도강산 한반도와 부속도서 모든 곳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목청껏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통일 한국을 넘어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좌·우 이전에 12: 2025년 3월 3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극우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의 피, 땀, 눈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이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꽃 피어 갈 수 있는, 현재로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터전이기에,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함께 단일대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쉬고,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각자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천부적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인류가 시도해 본 장치체제 실험 중에는 그나마 가장 잘, 어쩌면 유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대우하려는 체제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많은 위선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나마 그 자유민주 체제 덕분에 다른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도 내며 사회 자정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hatGPT 문답]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자유 보장: 언론, 집회, 표현,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 법치주의: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며,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합니다.
3. 권력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합니다.
4. 다수결 원칙과 소수 보호: 다수의 결정이 존중되지만,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됩니다.
5. 시장경제 체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서구 국가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vs.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북한, 과거의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보면, 핵심 차이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다원적 정치체제를 보장하는 반면, 인민민주주의는 공산당 중심의 일당 독재 체제이며, '인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치 참여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체이고, 다양한 정당과 정치적 이념이 공존할 수 있지만, 인민민주주의는 사실상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극좌와 극우의 위험성

극좌(極左)와 극우(極右)는 정치적 이념의 양극단에 위치한 사상이며, 둘 다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위험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극좌(Extreme Left)의 위험성

극좌는 공산주의, 아나키즘, 급진적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을 포함하며,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주의적 통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가나 집단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음.

소련의 스탈린주의, 중국의 문화대혁명,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 사례에서 보듯이, 극좌 정권은 전체주의적 통치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를 낳음.

(2) 폭력 혁명과 계급 투쟁 강조

극좌 사상은 종종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혁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폭력과 급진적 수단을 정당화함.

역사적으로 볼 때,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폴 포트의 대학살 등은 극좌 이념이 폭력적 방식으로 적용된 사례임.

(3) 경제적 실패와 빈곤 초래

계획경제와 국가 주도의 경제 시스템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예: 소련의 경제 실패, 북한의 경제난

(4) 사상의 획일화 및 표현의 자유 억압

극좌 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하나의 이념만 강요하는 경향이 강함.
스탈린 시대의 숙청, 중국의 홍위병 운동과 같은 사례가 있음.

2. 극우(Extreme Right)의 위험성
극우는 파시즘,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권위주의적 이념을 포함하며,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재와 인권 탄압
극우 정권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높음.
히틀러의 나치 독일, 무솔리니의 파시즘, 프랑코의 스페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
(2)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 차별
극우 사상은 특정 민족, 인종,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정당화할 수 있음.
예: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3) 군국주의와 전쟁 조장
극우 세력은 종종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고, 타국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음.
예: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주의.
(4) 반대 세력 탄압 및 정치적 자유 제한
극우 정권은 반대파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큼.
예: 나치 독일의 언론 통제, 이탈리아 파시즘의 정치적 숙청.

3. 극단주의의 공통적 위험
극좌와 극우는 서로 반대되는 이념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폭력과 탄압 정당화
자신들의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과 탄압을 수단으로 삼음.
(2) 개인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극단적 이념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억압함.
(3) 경제적 파탄 초래
극좌는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극우는 과도한 군국주의와 보호주의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4) 사회적 분열과 극단적 갈등 조장
계급 갈등(극좌)과 민족·인종 갈등(극우)을 조장하여 사회를 분열시킴.

4. 결론: 균형 잡힌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
극좌와 극우 모두 역사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균형 잡힌 정치적 견해와 견제·균형 시스템이 중요함.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극단적인 이념보다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민주적 태도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
<좌·우 이전에 13: 2025년 3월 8일>

극좌 공산당을 비판한다고 그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극우 파시스트나 나치는 아니다. 극우 파시즘을 비판한다고 그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극좌 막시스트나 마오이스트나 김일성 주의자도 아니다.

극좌 또는 극우를 비판하는 사람 중엔 분명 합리적이고 온건한, 상식과 양심의 중도가 있고, 이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졌지만 가장 큰 공통 특징은 자기만 옳다고 하지 않고, 자기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공생을 지향한다. 정치 체제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나마 이에 가깝겠으나, 사실 더 핵심 본질은 그 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람 됨의 문제이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써 놓는 것만큼,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를 향한 태도와 각자의 마음가짐이다.

반면, 극좌인 사람 기준에선 중도도, 극우도 다 극우이다. 또, 극우인 사람 기준에선 중도도, 극좌도 다 극좌이다. 공생과 타협이 불가능한 상대들이며 자신만이 옳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일당독재이어야만 한다. 극좌 공산당과 극우 나치당처럼.

사실 같은 극좌, 극우 내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조차도 계속해서 사상검증과 검열을 하며 서로를 "프락치"라 의심하거나 "변절자"라고 비방하며 결국 자기만 (또는 자기 최측근 매우 소수만) 순수하고 의롭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송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을 정도의 확신범이 되어 간다. 괴물이 되어 간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심취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거의 신적인 완벽하고 온전한 사상과 이념을 가졌고, 거진 모든 면에서 의로움을 갖춘 존재에 가깝다고 여기며, 늘 교조적으로 떠들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자기는 웬만해선 늘 맞고, 자기를 항시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나머지, 자기와 이견이 있는 상대 모두는 악마이거나 악마의 졸개 또는 우둔한 자로만 본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쉽게 비방할 뿐 아니라 죽이기도 한다. 자기처럼 의로운 자에게 대항하는 상대는 무조건 악마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과 폭력과 폭언과 전체주의적 억압과 세뇌와 맹종 강요와 폭정은 극좌, 극우 모두의 특징이다. 아니, 죄악의 특징이자,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 되고픈 사탄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실 극좌와 극우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언제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본질상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지옥을 만들어 간다.

지옥은 회개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모두가 독선적이고 비방하며 분쟁하고 당 짓고 반목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어라 물고 뜯고 싸운다.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깔보고 무시한다.

반대로 천국은 원래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천국은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한량없는

은혜와 인격적 사랑과 무한한 아름다움 안에서, 이를 체험하고 계속 체험하며 사는 회개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로, 은혜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며, 각자의 아름다움과 우리 함께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루어 가고 완성해 간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3-5)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행 2:37-41, 우리말성경)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19-26)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3-8)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9-21)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엡 6:10-24, 표준새번역)

#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 책무: 2025년 3월 9일>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시민이라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자신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직접 해야 할 고민과 행동을 외주 주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면, 사상의 자유를 사용하여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 이념인지 스스로 차분히 따져보고 고민해봐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사용하여 어떤 중요 사회적 안건에 대해 선명하게 동의 또는 반대의 표시 또는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하며,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여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유 시민이자 민주공화정의 주권자 국민인 것이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또는 어느 정당/개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 둘 다 자유 시민의 자격이 없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시민이다.

부연하자면, 행동하는 자유 시민이란, 사안 경중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정보를 수집해 보고(특히 내가 반대하는 쪽), 해당 정보의 진위, 주장의 타당성을 잘 따져보며, 자신과 사회와 다음 세대와 국가 모두의 지속 가능한 자유와 번영을 위해 무엇이 가장 나은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이를 적절히 피력하며, 남의 의견도 경청해 보고, 양보와 타협,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고 거치며,

단순히 몇 년에 한 번 투표하고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해 준 사람들에 대해 계속 감시, 감독, 문책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도 알맞게 사용하여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어야 무임승차 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자유 시민인 것이고, 자유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자유 시민인 것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나는 그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이 정당, 이 사람이면 무조건 지지해요”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유 시민의 자유권을 스스로 버리고 이 정당, 이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했어요”라고 하는 것과 같다. 둘 다 자신과 사회와 다음 세대와 국가를 모두 위험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입장이다.

우리 자유 시민이 감당해야 할 책무인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책무를 어떤 정치 평론가나 유튜버, 어떤 정당이나 단체 또는 어떤 개인에게 경계 없이 외주 준다면, 그 시민은 사실 자유를 누릴만한 자격이 없는, 자유 국가의 무임승차 중인 무책임한 시민인 것이다. 자유 시민이라 불리려면 최소한 최종 책임은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신중하고 진지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고, 결정을 눈 감고 미루거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 시민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를 각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 14:15)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 18:17)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행 17:11-12)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테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유대인의 신화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딛 1:10-14, 현대인의 성경)

첨언이지만, 어쩌면 앞선 말보다 훨씬 중요한 첨언이라 생각하여 두 문단 정도 더 써 보자면, 우리의 무조건적 지지와 순종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며, 전지전능하고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해야 마땅하다. 그 외 어느 대상도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자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 그리그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최종 주권자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와 의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진리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를 한낱 피조물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제도에 함부로 팔아넘기거나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

죄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고("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경계가 필요하다("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 그래도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참 자유, 은혜의 자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자유, 영원한 자유가 분명 있고, 이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과 든든하고 확고한 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복음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8:34-36)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 16:12-13)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일 2:26-29, 현대인의 성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6-2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 33: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 18:17-33)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 27:4, 새번역)

#
<'사단법인 북한인권'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참석 (국회의원회관): 2025년 3월 11일>

반독재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반매국과 국가안보와 애국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 모두 다
북한 김정은 불법 반국가단체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독재에 의해
70 년 넘게 지상 최악의 인권유린 폭정에 처해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 2 천 5 백만 명의 불법 감금 및 노예화와
우리 대한민국 북쪽 영토의 불법 점거를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 24:11-12)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 31:8-9)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6-18)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 58:4-1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

<You and I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2025년 3월 20일>

"Those who would trade our freedom for the soup kitchen of the welfare state have told us that they have a utopian solution of peace without victory. They call their policy "accommodation." And they say if we only avoid any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enemy, he will forget his evil ways and learn to love us. All who oppose them are indicted as warmongers. They say we offer simple answers to complex problems. Well, perhaps there is a simple answer--not an easy answer--but simple.

If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tell our elected officials that we want our national policy based upon what we know in our hearts is morally right. We cannot buy our security, our freedom from the threat of the bomb

by committing an immorality so great as saying to a billion now in slavery behind the Iron Curtain, “Give up your dreams of freedom because to save our own skin, we are willing to make a deal with your slave masters.” Alexander Hamilton said, “A nation which can prefer disgrace to danger is prepared for a master, and deserves one.”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There i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 i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surrender.

Admittedly there i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in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and surrender.

If we continue to accommodate, continue to back and retreat, eventually we have to face the final demand--the ultimatum. And what then? When Nikita Khrushchev has told his people he knows what our answer will be? He has told them that we are retreating under the pressure of the Cold War, and someday when the time comes to deliver the ultimatum, our surrender will be voluntary because by that time we will have weakened from within spiritually, morally, and economically. He believes this because from our side he has heard voices pleading for “peace at any price” or “better Red than dead,” or as one commentator put it, he would rather “live on his knees than die on his feet.” And therein lies the road to war, because those voices don't speak for the rest of us.

You and I know and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If nothing in life is worth dying for, when did this begin--just in the face of this enemy? Or should Moses have told the children of Israel to live in slavery under the pharaohs? Should Christ have refused the cross? Should the patriots at Concord Bridge have thrown down their guns and refused to fire 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 The martyrs of history were not fools, and our honored dead who gave their lives to stop the advance of the Nazis didn’t die in vain. Where, then, is the road to peace? Well, it’s a simple answer after all.”

– President Ronald Reagan, Address on Behalf of Senator Barry Goldwater: “A Time for Choosing” (Oct. 27, 196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

<반국가단체 조선로동당 수장 김정은에게 편지: 2025년 3월 22일>

[ChatGPT 에게 시켜서 쓰고 내가 감수한 국·영문 편지]

반국가단체 조선로동당 수장 김정은에게,
To Kim Jong-un, head of the anti-state organization, the Workers' Party of Korea,

이 편지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This letter is not written with the intent to condemn you, but out of a sincere and urgent desire that your soul and life might turn from the wrath of God and come into the path of salvation.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역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철저히 죄인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은혜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심판은 오직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내리시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No one can claim to be righteous on their own. Before the perfect standard of God, who is absolutely good, I too was a sinner—thoroughly guilty—and have been forgiven and saved only through the merit and grace of Jesus Christ's atoning sacrifice on the cross. Judgment belongs to God alone, who is righteous and just. He will never overlook sin, but will surely render and execute righteous judgment.

그러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당신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으로 믿고 모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Yet this same God, full of mercy and rich in compassion, is still waiting today for sinners to repent and return to Him. Just as I returned to God, if you now sincerely confess your sins before Him, repent, and believe in and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God will forgive you and make you new.

그리고 그런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다음과 같은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And such true repentance must be shown through the fruit of one's life. That fruit of repentance must begin with the following actions:

1. 불법 감금 중인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의 북한 주민 전부를 한 명도 빠짐없이 즉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1. The immediate release, without exception, of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tens of mill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who are currently under illegal detention; and

2. 한반도 북쪽(휴전선에서 함경북도까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대한민국 북쪽 영토 전체를 즉시 대한민국에 온전히 반환하는 것
2. The immediate and complete return of all northern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currently under your illegal occupation—from the Demilitarized Zone up to and including North Hamgyong Province.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첫걸음이며, 당신의 불법 테러 정권, 곧 반민족적 반인륜적 반인도적 정권에 의해 지금도 부당하게 억압받고 극심한 조직적,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 수천만 명의 생명과 영혼을 향한 진실된 사죄의 표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회개와 회개에 따른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어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회개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This is the concrete first step that shows true repentance before God, and the first act of genuine apology toward the tens of mill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who continue to suffer unjust oppression and extreme,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your unlawful terror regime—a regime that is anti-national, anti-human, and anti-humanitarian. Even now, if you pray to God, desiring to truly repent and bear the fruit of that repentance, God will gladly help you, pour out upon you a truly contrite heart, and lead you to walk in the fruit of repentance.

비록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정권을 반드시 파쇄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But even if you do not repent, God—the sovereign over all history—will Himself liberate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nd He will surely tear down every regime that continues to defy and oppose Him, serving the work of Satan. Do not continue to bring upon yourself the righteous wrath of God. Repent and return to Him before it is too late.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으로 선대 하시어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전, 남은 몇 안 되는 마지막 회개와 구원의 부르심으로 진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The merciful and compassionate God still waits for you with love, longing for your return. I urge you to take this letter as a solemn call to repentance and salvation—one of the last that may remain before the outpouring of God’s wrath.

나 역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같은 민족이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국가, 그리고 국민과 민족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여 돌아옴으로써, 영원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구원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s one who lives each day only by the grace and mercy of God and Jesus Christ, and as a fellow Korean national and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 earnestly pray that even now, you would sincerely repent and return—before God, the state, the people, and the Korean nation—so that on the day of God's final judgment, your eternal destiny may be set toward salvation.

김현기 드림
Sincerely,
Kim Hyun-Ki

#
<좌·우 이전에 14: 2025년 3월 24일>

좌파 우파 모두 애초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가능한 개념이고 진영이다. 극좌 공산당, 극우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에서는 좌파고 우파고 없다. 오직 "수령" 1 인만 있을 뿐이다. 히틀러 모택동 스탈린 무솔리니 김정은과 같은 파렴치한 1 인만 있을 뿐이다.

어떠한 인간도 완벽하지 못함에도 그 불완전한 1 인이 절대적 권력을 가질 경우 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유일한 참 주권자,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유일한 참 주권자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며, 그 외 자기가 그렇다고 나아와 선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대행인이라고 감히 씨불이는 그 어떠한 인간 또한 죄인일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남용하는 신성모독자이다.

[ChatGPT 에게 번역시키고 내가 감수한 번역]

The political left and right can only exist within the framework of liberal democracy. In totalitarian systems—such as extreme-left communism or extreme-right fascism—there is no true left or right. There is only one figure: the "supreme leader." All that remains is a single shameless individual like Hitler, Mao Zedong, Stalin, Mussolini, or Kim Jong-un.

No human being is perfect. And when such an imperfect person holds absolute power, that power inevitably becomes absolutely corrupt.

The only true sovereign—full of compassion, mercy, and love—is God and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Jesus Christ. Anyone else who comes forward claiming to be such is nothing more than a wolf in sheep's clothing.

And any human who dares to say they are the perfect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or of God is not only another sinner, but also a blasphemer who takes the name of God in vain.

#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체제 수호 1: 2025년 3월 25일>

[ChatGPT 에 시켜서 쓰고, 수정, 번역하고, 내가 최종 감수한 글]

대한민국 북쪽 불법 반국가단체 김정은 정권에 부역하며 대한민국을 사이비 사상인 주체 사상 아래 적화통일하려는 세력들은, 결코 인민을 위한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반국가단체 김정은 체제는 세계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물 만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이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극심한 인권 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이다. 모든 권력과 부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된 철저한 독재 체제다.

그럼에도 이들 부역자들이 그러한 "수령"과 체제를 따르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의 갈망대로 만약 주체 체제하에 한반도가 적화통일된다면 그 이후, 자신들 또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강탈해 나눠먹으며, 결국 대다수 국민을 자기들을 위해 통제하고 노예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이 부역자가 되는 이유는 민족을 위한 이상이나 평화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이며, 자신 스스로까지도 속이는 욕심과 어리석음에 눈먼 부정직함 때문이다.

이 부역자들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처럼, 자신들이 '더 평등한' 특권층이 되어 권세를 부리며 누리고 싶은 큰 갈망을 하고 있다. 그 특권을 이용해 다수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강탈하고, 착취하며,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결국 대다수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이들의 진짜 목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간첩 활동과 선동에 앞장서고,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반민족적 불법 정권에 맹목적인 충성을 바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자신의 자녀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도피시키거나 유학을 보내고, 본인들의 재산은 몰래 축적해 해외로 빼돌리는 위선적인 행태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다. 김정은 본인조차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자 아닌가. 국민을 기만하고,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짓밟으며, 민족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진정한 반역자들이다. 이들이 외치는 '평화'는 결국 김정은과 그 측근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평화'일 뿐이며, 부역자들 또한 그 권력의 핵심 내부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부역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은도 악랄하지만, 그를 위해 일하는 간첩과 부역자들은 더 악랄하다.

물론, 반대로, 김정은과 간첩 세력을 비난하는 척하면서 그 위협을 구실로 또 다른 독재 체제와 전체주의를 꾀하려는 자들 또한 결코 다르지 않다. 좌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을 고의적으로 자극해 쉽게 권력을 쟁취,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김정은이라는 민족의 역적을 좋은 핑계 삼아 자신들만의 카르텔과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면, 그들 역시 김정은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세력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그걸 핑계로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전체주의를 세우려는 시도는, 국민과 민족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일 뿐이다.

우리 현명하고 용감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명분의 독재든, 결국 '더 평등한' 인간 특권계층이 존재하는 전체주의 체제에 부역해 노예가 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한다. 나의 가족과 형제자매를 불완전한 인간의 독재 체제에 팔아넘기는 일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의 이름, 인민의 이름, 반공의 이름, 반독재의 이름, 애국의 이름, 평화의 이름, 평등의 이름, 심지어 감히 하나님의 이름, 그 무슨 이름으로 무슨 탈을 쓰고 오더라도 결국 또 다른 정치 카르텔과 국민을 공포와 세뇌로 쉽게 선동, 조종하여 군림하려 드는 그 누구, 그 어느 전체주의적 혹세무민 세력에게 우린 늘 깨어 저항할 것이다.

우리 지혜롭고 용감한 국민은 어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인애와 자비의 주권자, 공의와 진리의 주권자 되시는 유일한 주 하나님만을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국민 서로 긍휼과 겸손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Those who collaborate with the illegal, anti-state Kim Jong-un regime occupying the northern reg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ek to unify the Republic under Juche—a cult-like ideological fraud doctrine—are by no means people who truly dream of equality and justice for the people. As everyone knows, the Kim regime is one of the most extremely unequal societies in world history, where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are carried out as a matter of daily routine. It is a ruthless dictatorship in which all power and wealth ar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single individual.

And yet, there is only one reason these collaborators choose to follow such a "supreme leader" and his regime. In accordance with their deep desire, if the Korean Peninsula were to be unified under the Juche system, they believe they too would secure a place in power, plunder the freedom and property of the remaining vast majority of the people, divide the spoils among themselves, and ultimately control and enslave the majority for their own benefit. The reason they become collaborators is not because of any ideal for the nation or peace, but solely because of their own greed and lust for power—rooted in a dishonesty blinded by selfish ambition and foolishness that deceives even themselves.

These collaborators, like the infamous line from George Orwell's Animal Farm—"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harbor a deep desire to become part of a "more equal" privileged class and to rule and enjoy authority. Their true goal is to use such privilege to rob the majority of their freedom and property, to exploit and divide them, and ultimately to oppress and control the people. That is why they eagerly take the lead in espionage and agitation, and offer blind loyalty to an illegal, anti-national regime that continues to commit crimes against humanity.

In reality, however, these very people shamelessly send their children to flee or study in Western liberal democracies, while secretly accumulating wealth and smuggling it overseas. Was not Kim Jong-un himself educated in Switzerland? Those who deceive the people, trample on the freedom and property of others, and sell out the future of the nation are the true traito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the Korean people. The "peace" they proclaim is nothing more than a peace reserved for Kim Jong-un and his inner circle—and these collaborators are wholly devoted, even today, to securing a place within that inner circle of power. Kim Jong-un is vicious—but the spies and collaborators who serve him are even more vile.

At the same time, those who pretend to condemn Kim Jong-un and his spy network, but exploit the threat he poses to justify building yet another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 regime, are no different. Shameless forces deliberately provoke extreme ideological polarization between left and right in order to seize and maintain power with ease. If they use Kim Jong-un—the national traitor—as a convenient excuse to construct their own cartel and authoritarian regime, they too are nothing more than anti-national and anti-democratic forces who have no right to criticize him. To denounce Kim Jong-un's totalitarianism while using it as a pretext to establish yet another form of totalitarian rul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imply another betrayal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We, the wise and courageous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uphold the defense of liberal democracy—and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and rights of ourselves, our families, and our fellow citizens—as our highest calling. We categorically reject all forms and excuses for dictatorship and resolutely refuse to become slaves to any totalitarian system in which a privileged class of "more equal" human elites rules over the rest. We will never, under any name, tolerate the betrayal of selling our families and brothers and sisters into the hands of flawed human tyrannies.

Whether they come in the name of democracy, the people, anti-communism, anti-dictatorship, patriotism, peace, equality—or even dare to come in the name of God—no matter what name or mask they wear, we will always remain vigilant and resist anyone, any totalitarian force of deception and manipulation, that seeks to build yet another political cartel and rule over the people by stirring fear, indoctrination, and control.

We, the wise and courageous people of this nation, do not serve any flawed and imperfect human being, but only the one true and eternal Sovereign—our Lord God, who reigns in unfailing love and mercy, in justice and truth. Through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our Lord, we worship Him as my Lord and our Lord. We, the people, with hearts of compassion and humility toward one another, earnestly hope to labor together to build a beautiful nation established upon God's truth and love.

#
<‘평화다, 평화다’ 하지만—실상 평화는 없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신사 여러분은 평화를 외칠지 모릅니다. ‘평화다, 평화다’ 하지만—실상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다음 돌풍은,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무기의 격렬한 충돌 소리를 실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이미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단 말입니까?
신사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더 얻고자 하십니까?
생명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도 달콤하다고 해서 그 대가로 사슬과 노예의 멍에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결코 그런 일이 없게 하소서!
다른 이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패트릭 헨리, 1775 년 3 월 23 일
패트릭 헨리는 변호사이자 웅변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주지사를 역임했고, 미국 독립의 선봉장이었으며, 그의 자유에 대한 신념은 깊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Gentlemen may cry, Peace, Peace—but there is no peace. The war is actually begun!
The next gale that sweeps from the north will bring to our ears the clash of resounding arms!
Our brethren are already in the field! Why stand we here idle?
What is it that gentlemen wish? What would they have?
Is life so dear, or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Forbid it, Almighty God!
I know not what course others may take;
but as for me,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 Patrick Henry, March 23, 1775

Patrick Henry was a lawyer, orator, and statesman. He served as Governor of Virginia, was a leading voice for American independence, and was deeply influenced by his Christian faith.

#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2025년 3월 27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잠 28:12)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 11:11)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정죄하는 그 둘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 17:1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 18:5)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 11:10)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 29:2)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여의도 참석: 2025년 3월 29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현장 예배 참석. 예배 내내 눈물로 나의 죄악, 교회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간절히 살려달라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산불을 꺼달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지켜주시고, 이 체제로 남북도 통일시켜 주셔서, 남북통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마음껏 목청껏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과 독재를 위해 우리 국민 수천만 명을 볼모 잡고 노예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몰락 파멸하고, 이에 부역하는 세력도 속히 다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림 받고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2025년 3월 31일>

(ChatGPT와 공동작업)

DE ✝️ Dietrich Bonhoeffer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

💬 1.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God will not hold us guiltless.”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 2. “Not to speak is to speak. Not to act is to act.”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 3.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 4. “Being a Christian is less about cautiously avoiding sin than about courageously and actively doing God’s will.”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보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 5. “The church is the church only when it exists for others... not dominating, but helping and serving.”
“교회는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것이다.”

US 🎖️ Abraham Lincoln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 1.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 2. “Nearly all men can stand adversity, but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짜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권력을 줘보라.”

💬 3. “I have been driven many times to my knees by the overwhelming conviction that I had nowhere else to go.”
“나는 수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길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 때문에.”

💬 4. “Those who deny freedom to others, deserve it not for themselves.”
“다른 이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 5. “I am nothing, but truth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리는 전부다.”

NL ✝️ Abraham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

💬 1.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 치의 공간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없다."

💬 2. "When principles that run against your deepest convictions begin to win the day, the battle is your calling."
"당신의 신념에 반하는 원칙들이 세상을 이겨갈 때, 그 싸움이 바로 당신의 소명이다."

💬 3. "He who has the Holy Spirit in his heart and the Scriptures in his hands has all he needs."
"성령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손에 든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 4. "The Christian has to proclaim the Lordship of Christ over all of life."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한다."

💬 5. "In the total expanse of human life, there is not a single inch of which the Lord Christ does not say, 'That is mine!'"
"인간 삶의 전체 영역 중 어느 한 치의 땅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

GB 🎖️ William Wilberforce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

💬 1. "God Almighty has set before me two great objects: the suppression of the slave trade and the reformation of manners."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적을 두셨다: 노예 무역의 폐지와 도덕의 회복."

💬 2. "If to be feelingly alive to the sufferings of my fellow-creatures is to be a fanatic, I am one of the most incurable fanatics ever permitted to be at large."
"내 이웃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광신자라는 뜻이라면, 나는 세상에 풀려난 자 중 가장 고칠 수 없는 광신자다."

💬 3. "You may choose to look the other way, but you can never say again that you did not know."
"당신은 외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 4. "I take courage – I determine to forget all my other fears, and I march forward with a firmer step in the full assurance that my cause will bear me out."
"나는 용기를 낸다 – 나는 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잊기로 결심하고, 내 사명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단호한 걸음으로 전진한다."

💬 5. "It is the true duty of every man to promote the happiness of his fellow creatures to the utmost of his power."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까지, 이웃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무다."

KR 🎖 Ahn Changho (도산 안창호)

💬 1. "A truly enlightened ruler is one who seeks the welfare of his people before his personal glory."
"진정으로 깨달은 통치자는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 2. "Truth will always have its followers, and justice will always see its day."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 3. "Justice without strength is helplessness, and strength without justice is violence."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 4. "Love for one's country is not proved by words, but by action."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5. "The foundation of a country lies in the character of its people."
"나라의 기초는 그 백성의 인성에 있다."

KR 🎖 Yu Gwan-sun (유관순 열사)

💬 1.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O Heaven, do you know my heart's cry?"
"대한독립 만세! 하늘이여, 내 소원을 아시나이까!"

💬 2. "My only sorrow is that I have but one life to give for my country."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3. "Though I am but a woman, I do not fear death for the sake of my nation."
"나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 4. "Japan may destroy our bodies, but they can never kill the spirit of Korea."
"일본이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조선의 정신은 죽이지 못합니다."

💬 5. "Even in Heaven, I will continue to pray for Korea."
"나는 천국에 가서도 조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KR ✝️ Joo Ki-Chul (주기철 목사)

💬 1. “I would rather die than bow to an idol.”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 2. “Martyrdom is not suffering—it is glory.”
“순교는 고난이 아닙니다. 순교는 영광입니다.”

💬 3. “I love Jesus Christ more than the Japanese Emperor.”
“나는 일본 천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 4. “I have lived for God’s glory, and I will die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죽습니다.”

💬 5. “The cross is not something to be avoided…”
“십자가는 피하지 않는 것이다…”

KR ✝️ Son Yang-Won (손양원 목사)

💬 1. “Communism is the ideology of Satan. God’s children cannot compromise with it.”
“공산당은 마귀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 2. “Communism denies God, and I am one who loves God.”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 3. “I hate communism, but I love communists…”
“나는 공산당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은 사랑합니다…”

💬 4. “Communism speaks of equality for the flesh; the gospel gives life for the soul.”
“공산주의는 육신을 위한 평등을 말하나, 복음은 영혼을 위한 생명을 말합니다.”

💬 5. “Though I lost two sons to the communists, God did not let me lose love.”
“나는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셨다.”

#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늘 미리 보내는 네 통의 편지: 2025년 4월 3일>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늘 미리 보내는 네 통의 편지:

1)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들께
2)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 이후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3)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4) 내일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로 최종 결정된 경우,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께(위, 3 번 편지 내용 포함)

1)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미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우리는 지칠 여유가 없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이면 그런대로, 인용이면 인용대로, 국민의 지혜와 힘을 다해 자유민주시민의 위엄과 주권을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과 서초와 안국 법원 및 재판소에 계속적으로 선명히 보여줘야 할 비상시국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에 맹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 참여 목적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안녕과 평안과 번영을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대한민국을 유지 보수 개선 계승시켜려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이기에 주권자가 어느 1 인이나, 어느 당이나, 어느 세력이나, 다수결의 단순 다수가 아닌,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권자인 것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우리의 공복(公僕)인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잘 통제하고, 심부름을 잘 시켜야지, 도리어 그들에게 갈라침을 당하고 이용당해선 안 됩니다. 그들의 쉬운 집권을 위해 우리가 들러리로, 레드 카펫으로 이용당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이 있을수록, 그들에게 더욱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할 우리 자유민주시민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을 정치인들이 무서워하고 제대로 섬기도록, 우리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늘 깨어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비폭력의 방식으로,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해, 상호 존중과 연대를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자유와 안녕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우린 공직자들을 늘 깨어 감시, 감독하여 주권자 국민으로서 계속 적극적으로 치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공복에게 주문하며 치리해야 할까요? 양심과 정직, 도덕과 청렴, 신의와 성실, 정의와 개혁, 상식과 합리, 전문성과 실력, 질서와 화합, 숙의와 합의, 존중과 관용, 법치와 공정, 사과와 용서, 봉사와 섬김, 안보와 국방, 자유와 창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공정선거와 질서 있는 권력이양, 국민 개개인의 천부인권과 행복추구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애국애족과 주변국과의 대등한 평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 등등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가치들, 어린아이도 알고 좋게 여길 이런 가치들을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최우선으로,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고양시키고 진심으로 이행하도록 지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시민 스스로부터 이런 가치들을 존중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이 무시당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우리의 자유와 번영과 안녕을 시기하고 강탈하고자 하며, 우리 국민을 사분오열 시키고, 우리의 자유민주 국민주권을 찬탈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을 노예 삼고자 하는 반국가단체, 체제전복 기도세력, 반국가단체 부역세력, 간첩과 매국세력, 조폭과 강도 등에게는 한 치의 타협 없는 자유민주시민의 단호함과 용맹함을 보여줘야 하며, 우리의 경계를 한시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시민은 어떤 경우에도 비폭력 3.1 운동정신을 기본으로 우리를 속박 노예화 하려는 어떠한 권력 집단의 회유와 겁박을 항시 단호히 배격하고, 끝까지 우리의 숭고한 자유민주 가치를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 항시 지혜와 힘을 다해 경계를 서고, 주저 없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진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닌, 적에게 속아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늘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조속한 해방과 자유, 인권존중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토의 온전한 수복을 위해서도, 우린 멈추지 않고 담대히 전진할 것이며, 이 나라의 온전한 독립과 온전한 광복과 온전한 건국을 자유민주평화통일로써 반드시 완성해 낼 것입니다.

2)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 이후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특정 정치인, 정당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어느 특정 목사님(어느 목사님이든 결국 우리와 똑같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 못 받는 죄인인 사람이기에)에게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직 불변 영원하신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선한 목자요, 영원한 평안과 풍성한 생명이요,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요, 영원한 사랑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야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사람의 정당이 집권하든, 어느 이념의 정당이 집권하든, 결국 그저 죄인인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완전할 수 없고, 온전히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알기에, 우리는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진리이고 절대 선이며 전지전능하고 사랑과 정의의 주 되신 유일한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따르며, 그분만을 본받고, 그분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과 영혼, 우리 공동체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해서가 아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와 마귀의 권세를 쳐부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꿋꿋이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고,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도 내어주며, 억지로 5 리를 가자 하면 10 리를 동행해 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원해 주심과 사랑과 공의를 믿고, 천국 영생 유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시민권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고,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본업이자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맡기신 사명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영접되는 것을 우리 목숨보다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세상 정치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가 더욱 선명히 나타나도록,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천국의 통로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이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본연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의 열매가 있는, 말뿐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선하고 정의로우시며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죄 많고 혼란한 이 시대에 등불이 되고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만 살아도 사회와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잘해야만 우리 사회와 나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해답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임무를 해태하고, 정체성이 변질되며, 사명을 타협한다면, 도대체 세상은 어디서 구원의 소식을 들으며, 어디서 구원의 소망을 얻겠습니까. 정치인, 법조인, 공직자 등 남 탓할 거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탓하며,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3)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떠한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국민이 우습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국민을 공경하고, 자신보다 국민을 우선으로 두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트릴 거 같은 권력 도취의 기분이 들 때에도, 유일한 최종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국민을 공경하고, 자신보다 국민을 우선으로 두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전략과 계략으로, 국가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거 같고 정세를 쥐락펴락 하는 것 같은 오만한 착각이 들 때에도, 유일한 역사의 최종 주권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국민을 공경하고, 자신보다 국민을 우선으로 두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쉽게 선동되고 당신의 위선과 거짓말에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 같고 당신을 맹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고 최종 심판의 주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국민을 공경하고, 자신보다 국민을 우선으로 두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그 이전에, 당신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 심판대 준비를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진심을 다해 공경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4) 내일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로 최종 결정된 경우,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께(위, 3 번 편지 내용 포함)

위, 3 번 편지 내용과 더불어, 계엄령의 사유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그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탄핵 찬반 진영을 떠나)가 겪은 바를 생각하면, 축하드린다는 말은 도저히 안 나오고, 그보단 어떤 쓴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지만, 주제넘지 않도록 그저 그간 하신 말씀들을 환기 차 재공유만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하신 말씀들 안에 제가 국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이미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 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 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1 년 12 월 26 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님 기자회견)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겠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쇄신에 쇄신을 다하겠다...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 인재 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
(2024 년 11 월 7 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5 년 3 월 20 일, 헌법재판소 앞 지지자들에게 전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2 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4 년 12 월 7 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24 년 12 월 12 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2024 년 12 월 14 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5 년 1 월 1 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 년 1 월 15 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 월 3 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 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 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 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년 2 월 25 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

#
<탄핵 인용 후 지금의 바람은: 2025년 4월 4일>

지금의 바람은 온전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기 대선은 말 많고 탈많은 사전투표 없애고,
대선 하루 본 투표에서만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 수개표로 일반 국민 참관 하 일일이 개표 진행하면 좋겠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모두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
<3·1독립선언문이 오늘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 2025년 4월 5일>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출처: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메시지: 국가가 당면한 심리적 국민 내전의 고통과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다가오는 주변 열강의 위협을 없애고, 우리 국민의 양심과 국가의 정의를 다시 세우려면, 후대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남기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발달시키고, 각자가 자유민주공화정의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

[메시지: 국민 서로를 탓하고 원망할 여유나 시간도 없고, 국민 각자가 자신을 채찍질하여 현실의 내전과 분단을 바로잡기도 급하다. 우리가 할 일은 양심에 비추어 나부터 돌아보고 바로 해야지, 동료 국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원한과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우리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권력욕과 사리사욕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내전의 현실을 바로잡아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메시지: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과 조작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갈라 쳐서 같은 민족 안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우린 과감하게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서로 재앙을 피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을 가야 마땅하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메시지: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 각자가 지닌 소중한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휘하여 세계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메시지: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의 구습과 조작과 선동과 갈라침과 위선과 거짓과 굽은 정의, 내로남불 정의를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게 양심이고 진리에 기반한 정의이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메시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기본 가치인 정의, 인도, 생존, 번영과 같은 가치를 굳게 붙들고, 우리의 자유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고 지키며 우리끼리 서로를 배척하지 말자.]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메시지: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자유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고 이행하자.]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메시지: 상호존중의 기치 아래, 우리 국민의 행동은 질서 있게 하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는 정당하고 떳떳하게 하자.]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대표 15 인, 기독교 대표 16 인, 불교 대표 2 인 등 민족대표 33 인의 서명을 받아 1919 년 2 월 말 2 만 1000 장을 인쇄, 전국에 배포하였다.
같은 해 3 월 1 일에는 서울 인사동 태화관(泰和館)에서 민족대표 33 인이 선언식을 가졌고,
파고다공원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선언식을 펼쳤다.)

첨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공화정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야당 대표님도 재판을 제대로 받으시고 법의 심판을 회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빛의 혁명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 정치인들의 모든 위선, 조작, 거짓, 내로남불과 법치 회피를 바로잡고, 반국가단체 수장 김정은 치하에 감금된 북한주민도 해방하며, 반국가단체 부역세력 또한 척결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계속 단호히 이뤄갈 것입니다.

#
<공의와 자비의 절대 주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2025년 4월 6일>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일 놈이요, 저 놈이 죽일 놈이요라고만 하고 가만 앉아계시오?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오?” (도산 안창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3-5)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 18:10-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렘 18:6-10)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 6:1-3)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7-10)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5-8)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 7:9-14)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딛 2:7-3:8, 우리말성경)

#

<제2의 6.25 전쟁: 2025년 4월 7일>

그러나 첫 번째 6.25 와 다른 것은, 혈맹 미국은 그때보다 시큰둥해 보이고, UN 군은 사실상 다 집에 돌아갔고, 중국 공산당과 북쪽 반국가단체 조선로동당은 이젠 그럴싸한 정치철학적 이념으로 포장하려는 노력도 없이, 훨씬 1 인 철권 독재에 대한 노골적 야욕과 우리나라와 국민을 강탈하고 예속, 노예 삼으려는 의지는 그때와 똑같이 오만하고 가득 하나, 그때보다 더욱 지능적으로 변모했고, 군사적으로도 훨씬 더 세졌다. 그들에 부역하는 간첩 매국 세력도 훨씬 뻔뻔하게, 대놓고 많아지고 있다. 법치를 무시하고 사이비 교주와 같은 독재자들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친다.

그러나 그때와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려는 국민이 1950 년 보다 월등히 수천 배 많아졌고, 우리나라 국력과 국방력도 그때에 비하면 수백 배 강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성도의 수가 그때 비해 수 백배는 증가했다. 죄인이자 병자인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치유받길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어쩔 수 없이 때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또 교회를 사칭하는 이단 사이비 사기꾼도 넘쳐 나지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강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

교회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임이 아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임이고, 우리 교회의 목자요 지도자요 대장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야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시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는 공동체이다. 고로,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를 말살하려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파쇄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의의 부활로 인해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확정적으로, 악한 마귀 세력은 망하고 패전했으며, 그들의 활개 침은 시한부적 발악일 뿐이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 악이 강해서 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악은 한 줌의 먼지도 안 되는, 즉각 전 우주적으로 척결, 소각하실 수 있는 대상이지만, 악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라도 교회의 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중보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악인을 영원히 기다려주실 수는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악인에 대한 긍휼보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욱,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속 세워가시며 보호 인도하시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무너뜨리거나 좌초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있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영원히 책임 지시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고로 성도여, 교회여, 담대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라. 주 예수의 지속적 승전을 기대하고 목도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의 중보기도와 빛과 소금의 행동으로써,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 된 담대한 삶과 전도로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망과 사탄을 완벽히 이기신 전쟁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여,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승전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

#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체제 수호 2: 2025년 4월 8일>

말하는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밉다고 해서 그 말조차 전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 빼고 다 틀린 거 같다면, 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우매하거나 비겁하거나 악하거나 등등으로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 순간 그게 바로 전체주의 독재의 시작입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의(義), 자기 확신만 충만하고 남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는 없는 나르시시즘으로.

원래 그래서 자유민주시민으로 사는 것이나 자유민주정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욕하고, 누군가에게 무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멀어지기만 하죠.

자유민주사회답게 상호존중, 상호대화, 상호협의, 상호호혜 등을 사회 기본 지침으로 하려면, 사실 나만큼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고 진짜로 믿고 여겨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극악무도한 대량학살 살인범이더라도, 그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정해놓은 법과 규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심판 돼져야 할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속 터질 수도 있고 열불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인류가 실험해 본 것 중 그나마 제일 압도적으로 낫다는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공화정이기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 지키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을 위해 지키려는 것입니다.

사회, 인민, 공산, 종교, 국가, 민주, 문화, 민족 등등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어느 사람 집단이든, 결국 또 다른 불완전한 인간 집단일 뿐인데, 이들이 만약 다른 인간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존권, 건강권, 인간존엄성 등을 무시, 억압하며 자기만 옳다는 식의 멸사봉공 전체주의로 가려는 사기 강도 짓, 쉬운 권력 찬탈 유지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로 극도로 경계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 말대로(링컨 대통령 외에도 이런 말을 많이들 하셨듯)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만 영속할 수 있을 진데("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런 정부를 선출하고 관리 감독할 실력과 성숙함과 인품을 갖춘 국민이 선결조건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자유민주공화국 수호의 책임을 부여받은 위대한 시민입니다. 위대한 시민이 모이면 위대한 정치인은 알아서 등장할 것입니다.

#
<남한, 북한 따로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남한, 북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유관순, 안창호, 김마리아, 김구, 이승만, 윤봉길, 이승훈, 이회영, 안규홍, 김규식, 안중근, 이동녕, 이봉창 등등과 수많은 대한국민이 자신의 피, 땀, 눈물, 기도로 이룩하고자 했고 고대했던 완전한 자주독립 대한민국만 있을 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의 꿈도 아닌 스탈린의 꿈이고 김일성 독재의 꿈일 뿐이며, 일제 식민 탄압에 이은 또 다른 민족 말살의 모스크바 중앙집권식 전체주의일 뿐이었습니다. 민족을 노예로 팔아먹는 매국이었습니다. 3.1 운동과 독립운동의 목적 '대한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를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모스크바와 북경의 전체주의 독재의 위성국으로, 종으로 헌납하며 자신의 집권과 권력 유지를 노린 김일성과 그를 세습한 김 씨 일가의 반민족적 변절이고,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 특히 북한지역 우리 대한국민 2 천 5 백만 명의 몫으로 77 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외치지만 오직 1 인과 1 당의 폭거 독재를 위한 기만과 사기일 뿐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고, 뻔뻔한 독재자와 부역자들(남한 내 부역자들 포함) 자신들은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더 잘 알고 적극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 체계적 인권 유린과 인격 말살의 반인도 범죄자들일뿐이며 국민을 쥐꼬리 만한 국가 배급에 종속시키고 오직 "수령"을 위해 강제 노역시키는 인신매매범들입니다.

우리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더 이상 당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한반도 남쪽까지 저들이 강탈당하도록 좌시해선 절대 안 되며, 반드시 8 천만 대한사람 모두 대한민국으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씁시다. 우리 대한국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룹시다. 온전한 광복, 온전한 자주독립, 온전한 건국을 우리

민족의 자유민주평화통일로써 이룩합시다. 반국가단체 세력 수장 김정은 1 인의 야욕과 겁박 때문에 우리 8 천만 국민이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민족은 또다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2025년 4월 9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5-36)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막 6:34-44)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 9:27-31)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마 14:14-21)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 15:22-28)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마 15:32-38)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마 17:14-18)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 20:30-34)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막 1:40-4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눅 7:12-17)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눅 15:18-24)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10-30)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32-44)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 18:13-14)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26-31)

#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2025년 4월 10일>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 102:5-22)

#
<제발.. 그냥.. 당일투표 하루로: 2025년 4월 11일>

제발.. 그냥.. 당일투표 하루로 투표함 이동 없이 일반국민 참관 현장 수개표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거진 게 4.19 혁명 아니던가요? 대체 왜 꼭 기술장비를 현란하게 써 가며 보안설비도 늘려간다고 하며 사전투표와 투표함이동을 고집해야 하나요..

#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도시를, 나라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6)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렘 5: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26-32)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겔 22:3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시 106:23)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시 106:29-30)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9:15-19, 새번역)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4-25)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딤전 2:1-6, 한글흠정역)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엡 6:10-18, 현대인의 성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2-1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7-9)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요 16:26-27, 현대인의 성경)

#

<북한인권,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통일부 UNITV)에 연재된 영상들: 2025년 4월 17일>

(ChatGPT와 공동작성)

📢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통일부 UNITV)에 연재된 영상들을 공유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참상에 대한 증언 영상입니다.
⏱️ 한 영상당 5분 이내이니 하나만이라도 꼭 한 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 정말 중보기도가 절실합니다.
💥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사상 이단사이비 정권,
즉 북쪽 조선로동당 정권이 하루속히 몰락하고 파멸하여,
🕊️ 우리 대한국민들의 해방과 자유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우리 대한국민은 반인도범죄 정권, 지구상 최악의 인권유린 불법 정권, 반국가단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의 노예통일이 아니라,

🇰🇷 김구, 유관순, 안창호, 윤봉길, 이시영, 김규식, 김마리아 등
숭고한 독립운동가들이 꿈꾸고 피와 땀을 바친,
🇰🇷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 온전한 광복, 온전한 건국을
💪 자유민주통일로써 반드시, 속히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통일부UNITV -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1화 | 자유권 침해
🔗 https://youtu.be/AJu1w7LQQgA?si=gpqHHSpH-ZF4Vlqp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2화 | 건강권 침해
🔗 https://youtu.be/PZKw_zxXr9M?si=EDRym-vl2bmBxhj2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3화 | 대북지원
🔗 https://youtu.be/uNj7d6daobY?si=Y78JWEFsfdMaJe6u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4화 | 장애인 인권
🔗 https://youtu.be/DKwHk6KrraE?si=5JT9wYmRgTuwmwba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5화 | 장마당 세대
🔗 https://youtu.be/AMb7U6-lT3s?si=KHrczOnTww-hGfH0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6화 | 생명권
🔗 https://youtu.be/ZzjLCSx57gU?si=WHMdnrcg1wvzrmi8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7화 | 거짓과 감시
🔗 https://youtu.be/P4Em3vmZzb4?si=uT1bGuURnDjBNyn7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8화 | 신체권
🔗 https://youtu.be/s4BXSO3jLCA?si=KYA3mar1b8nO4BGF

🎥 북한 인권을 말하다 증언 9화 | 식량권
🔗 https://youtu.be/HZAjzk_3k-w?si=pN-y4oOwn5JBIJmP

📖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 잠언 24:11-12)

#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2025년 4월 22일>

"보라! 앞으로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할 것이며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은 광풍과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와 같을 것이며 사막에 흐르는 물과 같고 열기로 타는 듯한 메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성급한 자들도 진리를 깨달을 것이며 말을 더듬는 자들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 때에는 어리석은 자나 사기꾼과 같은 건달들을 아무도 영웅시하지 않을 것이다...

못된 건달의 주된 무기는 악이다. 그는 악한 계획을 세우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는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한다.

아무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제는 두려움으로 떨며 너희 옷을 벗고 허리에 삼베를 둘러라. 너희는 못 쓰게 될 좋은 밭과 포도원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라.

너희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무성할 것이며 쾌락을 누리던 너희 집과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궁전도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붐비던 성도 한적하며 요새와 망대가 있는 곳이 영영 황무지가 되어 들나귀와 양떼가 거기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때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이므로 항상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2:1-17, 현대인의 성경)

#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2025년 4월 23일>

“전지전능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8 천만 넘는 대한국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양심과 행실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오직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최종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아름답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고 완연하게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친히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요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2025년 4월 28일>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35:15-18)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 36:1-12)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 37:7-40)

아멘 아멘.

#

<이번 대한민국 21대 대선, 핵심 본질은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29일>

(ChatGPT 와 공동작업)

🗳️ 이번 대한민국 21대 대선, 핵심 본질은 하나입니다:

“자유·진실·책임의 대한국민 민주공화 시민들”

vs.

“간첩·간첩 부역자,
매국노와 매국 부역자,
자유민주체제 전복 세력,
검열·감시·통제 전체주의,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세대착취적 국가부채,
법관 탄핵·겁박과 인민재판,
다수의 횡포와 독재,
국민을 '최소량 배급'으로 길들이려는 세력,
공포와 겁박,

조폭화된 권력,
조직적 범죄와의 카르텔"

✍️
"자유민주주의"
vs.
"인민민주주의"

📜 정리하면:
이번 대선은
개개인의 인격과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대한국민들과
기만, 사기, 겁박으로 국민을 노예삼고 통제하려는 매국·간첩 전체주의 권력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번 투표는
나와 나의 자녀의 자유와 인격과 존엄을 지킬 것인가,
거짓과 억압, 부패와 범죄 카르텔에 굴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
<국민의 '빛의 혁명'과 '진짜 대한민국': 2025년 5월 1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즉,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독립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셨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대법관 12 명 중 10 명의 다수의견, 2 심 판결 전부 파기)에 따라 이재명 후보님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셨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님이 다음 달 대선에 나온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 즉,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뻔뻔함인데, 늘 그렇듯,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 항상 최후의 보루였던 국민이 이 나라를 또다시 지켜낼 것이다. 우리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우리나라를 지켜낼 전통과 지혜와 저력이 있는 국민이라는 걸 나는 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단 한 표라도 부정선거가 있다면, 지난 1960 년 부정선거 때도 4.19 혁명으로 부정을 국민이 직접 바로잡았듯, 이번에도 국민이 친히 나서서 바로잡을 거라 확신한다. 민주주의의 피와 같은 선거가 혼탁해지면 그 민주국가는 곧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이웃 국가들과 열강들에 둘러싸였음에도(거란침입, 몽골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일제강점, 소련의 북한 조선로동당 괴뢰정권 수립 등)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성과 나라를 지켜오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천부인권과 존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까지 꽃피워냈다. 1 인 '수령'의 존엄만 '최고존엄'으로 떠받들게 강제하는 말만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일구었다.

비록 아직은 반쪽짜리 성취이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 남북 주민 8 천만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부패하고 패역하고 파렴치한 남과 북의 전체주의, 인권유린의 기망과 겁박의 정치세력, 매국과 간첩의 체제전복 세력들을 몰아낼 것이다. 불법과 불의와 테러의 조폭 양아치 정치세력을 몰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전한 삼천리 팔도강산 국토를 지켜내고, 진정한 국민 주권을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세울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정을 계속하여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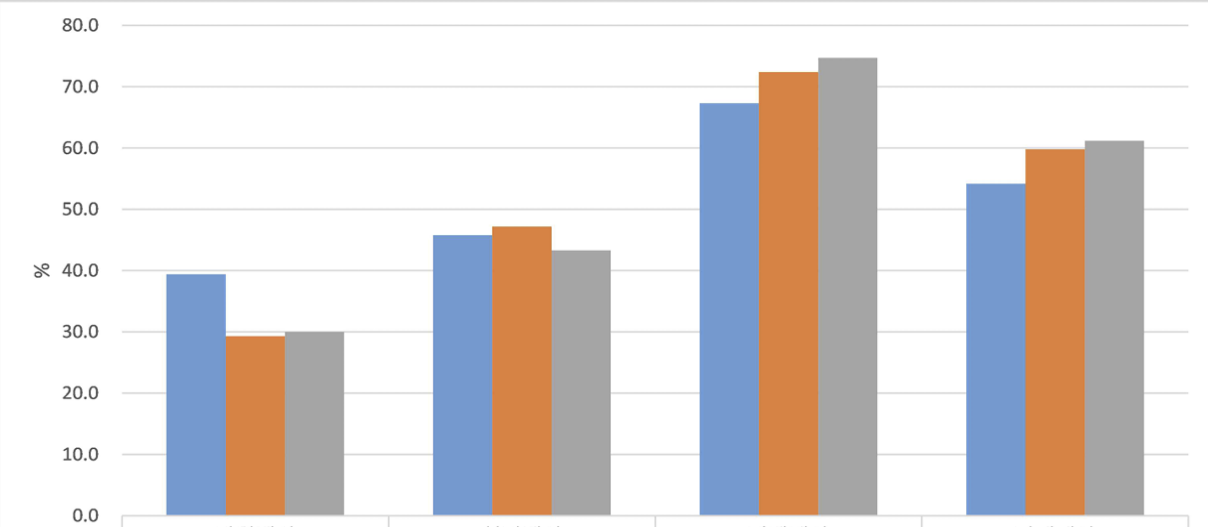
늘 그래왔듯 또다시 국민이 이길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이 이길 것이다! 국민의 쉬지 않는 '빛의 혁명'으로 대한국민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계속하여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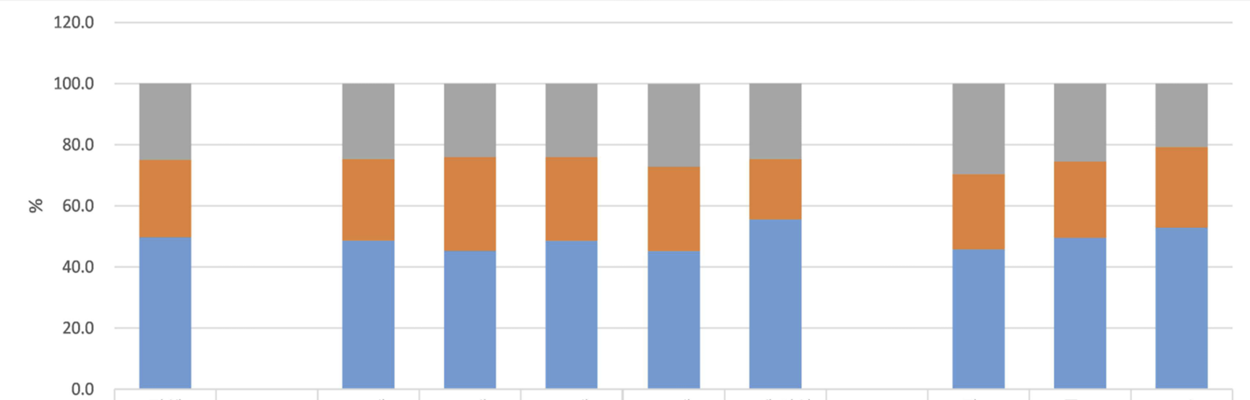
#
<통일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에 대한 나의 해석: 2025년 5월 4일>

<그림 Ⅲ - 3> 이념별 북한의 국가 이미지: 2024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진보	39.4	45.8	67.3	54.2
중도	29.3	47.2	72.4	59.8
보수	30.0	43.3	74.7	61.2

<그림 Ⅲ - 4>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 2024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진보	중도	보수
비동의	25.0		24.7	24.0	24.0	27.1	24.8		29.6	25.5	20.7
보통	25.4		26.6	30.7	27.4	27.6	19.7		24.6	24.9	26.4
동의	49.7		48.7	45.3	48.6	45.2	55.6		45.8	49.6	52.9

(표 출처: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요약보고서』, 2024.6.27, 26-27 쪽,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5387&category=51&nav_code=mai1674786536)

위에서 두 표에서 보듯, 통일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사실 대다수 국민은 자신의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상식과 합리의 기준에서 대북관이 비슷합니다. 보수, 중도, 진보 정치 진영 불문하고, 각 진영마다 모두 과반 이상으로 북한정권(우리나라 헌법상 불법 반국가단체)을 마땅히 '적대 대상'으로 보고 있고('경계 대상'으로 보는 비중은 모든 진영 다 65% 이상), 그럼에도 협력을 아예 안 하고 무시하고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수치도 40% 중반대로 보수, 중도, 진보 모두 비슷하며,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은 적화통일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비율은 모든 진영에서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득세하려는 소수의 열성 삯꾼과 같은 정치꾼들과 반국가단체 간첩 및 부역세력들은 우리 국민을 끊임없이 갈라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국민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여 보도록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상식과 합리의 범주 내에 각자가 잘 서 있었고, 우리의 이웃 대부분도 그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국민이 국민 위주로 뭉쳐서, 국민을 갈라치며 상대를 악마화하여 자신이 이득 보고 자신의 독재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파렴치하고 악한 정치 세력에 단호히 맞섭시다.

남과 북 우리 8천만 대한국민은 반드시 대한국민을 위한, 대한국민에 의한, 대한국민의 자주독립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모든 기망과 사기와 겁박과 폭거의 전체주의 독재, 인권유린 독재 정치세력을 몰아내며, 국민을 불법 감금하고 가스라이팅 하며 조종하려는 독재 세력 모두를 척결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격과 존엄과 천부인권이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그 누구도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

<극좌, 극우 vs 자유민주주의: 2025년 5월 5일>

(이 글은 ChatGPT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 극좌든 극우든, 결국 비인격적 전체주의!

🔻 극좌 공산당, 극우 파시즘, 인민민주주의 —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 "수령"만이 법 위에 존재하는 최고존엄
✔️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억압
✔️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감시, 검열, 통제
✔️ 지도자를 절대화하고, 비판을 죄악시
✔️ 법치보다 "혁명", 인권보다 "계급"
✔️ 인민의 권리를 몰수하고도 그것을 해방이라 부름

🆚 그에 반해 자유민주주의는: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존엄한, 천부인권을 지닌 존재
✅ 법 앞에 평등,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음
✅ 권력은 나눠지고 감시받아야 하는 것
✅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도 목소리를 가질 권리
✅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
✅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
✅ "국민이 위대한 나라" — 권력보다 양심이 존중받는 나라

🗳️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평화롭고 정당하게 실현하는 방식 —
바로 공정한 선거입니다.

✔️ 보통선거 — 누구나 한 표
✔️ 평등선거 — 모든 표는 동일한 가치
✔️ 직접선거 — 국민이 직접 선택
✔️ 비밀선거 —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령과 전체주의로 다 같이 몰락할 것인가"
"우리 자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 진실, 자유, 책임 —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서 발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2025년 5월 5일>

(ChatGPT 단독 작성)

잠언 21:22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직역
지혜로운 자: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잠 1:7).

용사의 성: 힘 있는 자가 굳게 지키는 견고한 요새, 즉 외적으로 보기엔 난공불락의 권력이나 체제입니다.

의지하는 방벽: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마지막 방어선, 예컨대 권력, 재산, 군사력 등을 의미합니다.

허느니라: 무너뜨린다는 뜻으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전략적 무장해제입니다.

해석
이 말씀은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불패처럼 보이는 권세라도,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의 약점을 간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통찰력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적용
개인적 차원: 문제나 고난이라는 ‘성’을 만날 때, 무력이나 억지보다 지혜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차원: 부패한 권력이나 불의한 체제조차,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과 전략을 줍니다.
영적 전쟁: 사탄이 만든 요새(고린도후서 10:4-5)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너집니다.

#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2025년 5월 6일>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나라에서(적어도 남한에서) 자유로이 마음껏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목청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진심으로 좋으시죠? 저도 그런 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겨오던 이 소중한 예배와 전도의 자유를 누군가가, 어느 세력이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우린 단일대오로 막아서고 저항해야겠죠? 물론 우리의 저항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며,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면 십 리 가주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며, 무고하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순교까지 감내하며 저항하는 것이겠지만, 굳이 순교까지 가기 전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신앙의 자유를 투표로써 지킬 수 있다면, 당연히 먼저 투표로써 지켜야겠죠?

북한,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일 히틀러의 파시즘, 국수주의, 그 외 기타 인류 역사상 여느 1 인, 1 당 독재 전체주의들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던가요? 자유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발본색출하여 탄압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죠? 특히 기독교가 주된 타깃이죠? 성경과 찬송가에 하나님 대신 자기들 수령의 이름을 넣죠? 모든 인간은 죄인인지라, 인간이 절대권력을 가지면 절대부패하는 건 역사 속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교주나 목사나 교단이나 정치세력이나 사람이 아닌, 유일하게 절대 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모든 권력이 결국 무릎 꿇게 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분만이 역사의 최종 주권자 되시는 걸 기뻐하고 매우 큰 다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소중해서라기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돼야 우리의 소중한 예배, 전도, 집회, 선교의 가치와 활동들이 보장되고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 개개인(통치자 포함)의 인격과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보아 어느 사람이나 권력이 감히 뺏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체제이기에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이죠.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라면 너무도 당연히 어느 체제를 택해야 할지, 지켜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혜롭고 단호하게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합니다. 흙탕물 정치 참여가 너무 저급해 보이나요? 너무 시끄럽고 귀찮나요? 남이 대신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잠시 좀 쉬셔요. 그렇지만, 계속 쉬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독재 체제가, 독재자가 성도님 당신을 못 쉬게 할 거예요. 역사에서 늘 그랬듯이요.

독일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 1892–1984)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저항한 인물이고, 기독교 저항 운동인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으며, 특히 나치의 교회 통제와 인종주의 정책에 맞서 저항했다고 합니다.

"First they came for the socialists, and I did not speak out—because I was not a socialist.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s, and I did not speak out—because I was not a trade unionist.
Then they came for the Jews, and I did not speak out—because I was not a Jew.
Then they came for me—and there was no one left to speak for me."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말하지 않았다—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출처: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n.d.). Martin Niemöller: "First they came for the Socialists..."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ttps://encyclopedia.ushmm.org/content/en/article/martin-niemoeller-first-they-came-for-the-socialists)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에스더 4 장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마지막으로 유명한 독일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로, 나치 정권에 저항한 기독교 양심의 상징적 인물이며, 히틀러의 독재와 유대인 박해에 반대하며 고백교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후 1945 년 4 월 9 일, 39 세의 나이로 나치 정권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Silence in the face of evil is itself evil. God will not hold us guiltless. Not to speak is to speak. Not to act is to act."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
<대한국민들께: 2025년 5월 7일>

우리 국민들은 국민끼리 뭉쳐야지, 파렴치한 어느 삯꾼 정치꾼들의 갈라치고 선동하는 거에 이용당해 봐야 저들만 신나고 간첩들만 신납니다. 국민끼리 싸우고 미워해봐야 국민만 더 다치는 반면, 삯꾼 정치꾼은 쉽게 득세하고 더욱 떵떵거리며, 간첩은 더욱 활개를 칩니다.

우리 남북 8 천만 국민은 하나로 연합하여, 모든 위선과 거짓의 내로남불 정치세력과 반인도범죄 반국가단체인 북쪽 김 씨 일가 세습 독재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우리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온전한 자주독립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꿈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완성해야 합니다.

소련 스탈린과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꼭두각시 정권이자 위성 정권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땅에 감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피 땀 눈물로써 일제 식민 치하에서 광복한 우리 민족을 바로 또 배신한 반민족적 반역자이자 매국노 김일성의 작품으로, 지난 77 년 간 조선로동당은 우리 민족에 대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과 극심한 감시, 공포 통제, 수령 우상화와 최소량 배급, 자유와 인권 박탈, 인격 말살로써, 우리 민족을 굶겨 죽이고 착취하며 노예 삼아왔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참담하지만 뚜렷한 결론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린 애국애족 독립운동가의 마음, 광복군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광복을, 건국을 단호히 계속하여 완성해 가야 합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 만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서 한 발표: 2025년 5월 9일>

자문위원 설문 중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정책 과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1 번 답 "헌법 제 4 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견지 및 추진"을 선택했습니다.

위원님들, 남한, 북한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도 안 되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만 이 땅에 있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 때 유관순, 안창호, 김마리아, 김구, 윤봉길, 이승훈, 이회영, 안규홍, 김규식, 안중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필두로, 수천만 대한국민이 자신의 피, 땀, 눈물, 기도로 이룩하고자 했고 고대했던 대한민국만 이 땅 삼천리 반도에 있을 자격과 당위가 있고,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보면, 북쪽 지역 반국가단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의 꿈도 아닌 스탈린과 모택동의 꿈이었고 김일성 독재의 꿈이었으며, 인민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를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이자 하수인으로 팔아먹은 파렴치한 매국입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광복한 우리 민족을 바로 또 배신한 반민족적 반역으로, 지난 77 년 간 3 대에 이은 김 씨 일가 독재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과 극심한 감시, 공포 통제, 수령 우상화와 최소량 배급, 자유와 인권 박탈, 인격 말살로써, 우리 민족을 굶겨 죽이고 착취하며 노예 삼아왔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참담하지만 뚜렷한 결론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국토이고,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북한 조선로동당과 조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명확하고, 이를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른 우리 민족 북한 주민도 우리 같은 국민이 마땅하고, 민족 자결권을 가로막는 건 김 씨 일가의 독재 폭정뿐입니다.]*

안보적으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은 기습남침 6.25 전쟁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끊임없이 자행돼 오고 있습니다. [UN 안보리결의 위반인 수 백 차례의 미사일도발, 6 차례의 핵실험과 도발, 제 1, 2 차 연평해전, 수 차례 무장공비 침투,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였던 '68 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83 년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최소 4 개 이상의 비무장지대 남침용 땅굴 굴착, 우리나라 민간인과 선박 수 차례 납북, 우리나라 여객기와 승객 납북, 금강산 관광객 피살, 서해 공무원 피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격,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오물풍선 살포, 국가 주요 시설 및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의 무력도발과 불법행위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도 끝이 없이 계속 되고, 간첩의 체제전복 선전선동, 남남갈등 야기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린 실시간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 분단은 정치 철학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좌파 우파 문제도 아닙니다. 남북 분단 문제의 본질은, 우리 민족과 국민 전체의 생존권, 자유권, 기본권이 달린 안보의 문제이고, 우리 민족이자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참상의 문제이며, 우리 국토 수복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 구출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북 8 천만 국민은 하나로 연합하여, 반인도범죄 반국가단체인 북쪽 김 씨 일가 세습 독재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민족적,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과 법률과 안보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우리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온전한 자주독립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꿈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완성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우리 국민을 인질 삼고 국토를 불법 점령한 테러 집단과도 최대한 평화적 협상을 강구하며 국민 구출과 국토 수복을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온 민족이 함께 꿈꿔 온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을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하루 속히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통일부 추천으로 민주평통 위원이 되어 지난 2 년간 최대한 결석 안 하고 참여했는데, 특히 요즘 같은 체제전쟁 시기에 더더욱 북한 1 인 독재식 인민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이 전쟁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이 소중한 자유를 강탈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김정은의 노예삼으려는 저 반국가단체가 있는 한 이땅의 지속가능한 진정한 평화는 없기에, 우리 모두는 독립운동가의 마음, 광복군의 마음으로, 하루 속히 반국가단체를 무장해제 및 해체시키고, 70 년 넘게 불법 감금돼 있는 우리 수천만의 국민을 반드시 구출하고, 뺏겨있는 우리 국토 절반을 수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부분은 시간 제약 상 써 간 원고 그대로가 아닌 생략 또는 요약하여 발표한 부분)

#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2025년 5월 13일>

우리가 우리 국민 북한주민을 돌보고 구출하지 않은 채 남한에서 국민 절반끼리만 호의호식하고 북한에 감금되어 인권유린 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살겠다고 하면, 안보불감 무사안일한 너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불법 반국가단체 북한 조선로동당 정권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끝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전력을 다하며, 1950 년 6.25 남침 이후로도 지금까지 끝없이, 남파간첩 선전선동, 남남갈등 선동, 대통령 암살시도, UN 안보리 위반 미사일 무력도발, 우리 국민과 국토와 재산 피격 포격 강탈, 강제납북, 핵도발, 사이버해킹, 오물풍선 등등, 거리낌 없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해댑니다.

한낱 인간이 마치 자기는 절대권력을 부려도 되는 냥, 자기는 일반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차별되어 더 높은 듯, 자신을 법과 상식 위의 "수령"으로 올려놓고는, 독재와 폭력과 살인과 감시와 겁박과 감금으로써 국민의 맹종을 강요하는, 한 파렴치한 인간의 대국민 사기 폭거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도록, 저는 이번 우리나라 어느 대선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반국가단체 수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양심이 깨어나 제 위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제라도 정직하게 사법처리를 받고 회개함으로, 영원하신 정의의 하나님의 엄준한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진 명령 (대한민국 헌법 제 4 조) = 우리 국민해방 및 우리 국토수복 명령 +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녕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

#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2025년 5월 14일>

(ChatGPT 와 공동작업)

KR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체성,

민주공화국의 존속 여부가 걸린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 한 후보는,
말이 아닌 삶으로 낮은 자 곁에 서 왔습니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울고,
소외된 이웃과 고통을 나누며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진짜 좌파의 정신도,
참된 우파의 가치도
몸소 살아낸 사람입니다.
진정성의 사람입니다.

🟦 다른 후보는,
거짓과 조작, 선동과 분노로 권력을 탐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섬기는 데 쓰려 합니다.
고뇌한 정치철학은 없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만 골라내는 가식입니다.
수십 건의 비리와 의혹,
의문투성이 주변 측근들의 죽음.
겉으론 약자와 국민을 늘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과 약자와 법치를 능멸합니다.
속으로는 국민을 얕보고,
자기 지지자들을 더 만만히 여깁니다.

⚖️ 이건 단순한 정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달린 선거입니다.

진정성 vs 위선
청렴 vs 탐욕
정직 vs 사기
법치주의 vs 인민재판
자유와 창의 vs 검열과 중앙집권
성장 vs 배급
민주 vs 독재
국민주권 vs 수령주의
대한민국 vs 간첩·매국 세력

지금 그는,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국가 전체를 인질로 삼고,
자기 살자고 국정과 국가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흔들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는 져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면 꽤 긴 징역형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정직과 자유, 양심과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 그 자체가 걸려 있는 선거라는 것을.

진실은 이깁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늘 그래왔듯, 대한국민이 이깁니다. KR

[내가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기사에 댓글로 달았던 이 글에 대댓글로 달렸던 댓글 중 특이했던 거]

"종교쟁이들 뇌가 녹앗놐ㅋㅋ"

[나의 답변 댓글]

"천지의 창조주가 없인 천부인권이란 개념도 없고 유물론세계에선 도덕의 근본적 가치도 없으며 양심이란 개념도 허구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격하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지의 집합체 정도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2025년 5월 14일>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언제나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한다.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시편 52 편, 표준새번역)

#

<이번 대한민국 대선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에서 —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 **반드시 OUT** 돼야 할 것들: 2025년 5월 17일>

(ChatGPT 와 공동작업)

🇰🇷 이번 대한민국 대선을 시작으로, 우리 정치에서 —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 **반드시 OUT** 돼야 할 것들

🔮 무속과 전체주의 추종 세력

• 무속과 샤머니즘:
귀신과 주술에 의존한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주의적 국정 운영. 국정을 무당과 더러운 영과 미신에 내맡기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 이단·사이비 교주들:
참되고 유일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인격적 신앙을 비인격적 세뇌로 타락시키고, 죄인인 인간 교주를 신격화하여 물질과 권력을 갈취하는 영적 사기꾼이자 신성모독자들.

•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권력:
신앙·표현·사상의 자유를 감시·검열·탄압하는 전체주의적 시도.

• 수령제일주의:
인간 지도자를 비판 불가능한 존재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겁박하는 파렴치한 독재 세력.

• 조폭문화:
폭력과 위협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려는 야만 세력.

• 선동과 겁박 정치: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조종하며, 반대파에게는 가차 없는 겁박으로 입막음하는 저질 공포 정치.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진리, 양심, 이성, 국민주권, 용기

🕵️ 자유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는 전복 세력

• 자유민주 체제 전복 세력: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기본권을 갖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친한 순으로 "계층"을 나누어 존엄과 권리를 차등화 하는 반민주 세력.

• 인민민주주의식 다수의 폭거와 횡포:
개개인의 자유권, 존엄, 인격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살되는, 비인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

• 간첩 및 매국 세력:
외세와 내통하여 국가 이익을 팔아넘기는 반역자들.

• 불법 반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야합하는 반국가·반민족 부역자들:
조선로동당과 내통하며 국민을 김정은 체제의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자기는 한자리 받으려는 적화통일 추진 세력.

• 여론과 선거에 대한 조작과 왜곡 시도:
동등한 존엄을 지닌 국민들의 단 한 통화, 단 한 표라도 감히 멋대로 조작하는 반민주적 불법행위.

•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인질 삼는 자기방탄 정치 세력:
입법·사법·행정 간의 상호 건강한 견제를 짓밟고, 무차별 탄핵과 정치 공세로 헌법 질서를 흔들면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헌정 파괴 세력.

• 자유민주통일 반대 세력: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과 국토의 절반을 북한 불법 테러정권의 폭정과 극심한 인권유린 속에 방치하자는 양심 없는 세력.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애국, 국민존엄, 자유민주, 삼권분립, 공정, 자유민주통일

🧨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분열·이용하는 정치 세력

• 가정을 해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이혼·불륜·낙태·출산기피 등을 아무렇지 않게 미화·조장하며,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존엄을 경시하는 흐름.

• 인권을 가장한 역차별과 도덕 전복 시도:
정작 천부인권은 외면한 채, 탐욕과 정욕의 죄악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타인의 양심과 인권을 침해하고, 죄악을 보편화·정당화·법제화하는 파괴적 인권남용.

• 갈라치기와 갈등 조장:
지역, 세대, 계층, 성별, 직업 등을 이간질해 국민을 나누고 싸우게 하는 분열 통치술.

• 허언증, 거짓말,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사칭:
진실을 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과 사기 행위이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민화 하여 쉽게 통제하려는 속임.

• 국민과 약자를 외치나 실은 위에서 군림하는 위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조종하고, 지지자들을 도구와 방패 삼아 자기들 권력을 유지·확장하는데만 몰두하는 교활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위선 정치꾼.

• 국민을 수단화하는 배임 정치:
민의를 진심으로 듣고 잘 섬기려기보다 국민을 자신의 권력과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삼는 배임 정치꾼들.

• 국민을 핑계 삼아 일은 안 하고 싸움만 일삼는 무책임 정치:
그때그때 "이 국민", "저 국민"을 핑계 삼아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반대편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며, 질 좋은 정책과 섬김이 아닌 혼란과 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무책임 정치.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생명존중, 가정회복, 천부인권, 진실, 진정성, 섬김, 선한 실력

💰 파괴적 포퓰리즘 중독과 경제적 도덕 파괴 세력

• 빚잔치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

• 몰수와 배급의 빈곤주의:
정당한 소유를 박탈하고 가난을 평등으로 포장하는 불공정한 분배주의.

• 통제경제와 하향 평준화:
중앙집권적 통제와 탁상행정 중심의 무지한 기획으로 자유와 창의, 현장의 지혜를 억누르고, 모두를 똑같이 가난하게 만드는 획일적 몰락 시스템.

• 근면·성실의 무력화 및 강제노동:
일하지 않아도 얻고, 일해도 빼앗기며, 줄만 잘 서면 더 많이 배급받는 구조 속에서 국민을 배급 노예로 조련하고, 노동은 강제로 동원하며, 분배는 최소로 제한하는, 반생산적 착취 정책.

•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
원칙과 양심에도 가격표를 붙이고, 돈만 된다면 양심도, 공동체도, 심지어 국가와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황금숭배.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공정, 자유, 창의, 근면성실, 인간성

⚖️ 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특권계층

•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특권의식:
헌법과 법률 위에 서려는 오만하고 안하무인 한 권력.

• 정의를 외치는 척하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중성:
'내로남불식 정의'를 정치 도구로 삼아 국민을 농락하는 파렴치한 위선 세력.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 행태:
법관 탄핵, 특검 남용, 망신주기 청문회 정치쇼 등으로 사법의 독립성과 법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들.

• 정치에 사법을 굴복시키려는 세력:
법관의 양심을 정치에 예속시키고, 권력에 줄 서는 정치 판사들이 양산되는 인민재판 조장 세력.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법관의 양심, 법치주의, 사법독립, 공정, 정의, 양심

🛡️ 외교·안보의 무모한 무장해제와 자해적 평화주의

• 안보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
현실의 위협을 외면한 채, 안일한 낙관론에 빠져 국가 생존 기반인 안보를 경시하는 위험한 태도.

• 굴종 외교와 평화 구걸 행태:
상대의 선의에 기대어 안보를 인질로 내맡기고, 침묵과 저자세로 평화를 구걸하는 굴욕적 외교.

• 순진한 평화주의와 국방 해체 기조:
평화 명분 아래 국방력을 해체하고, 주변국에 대한 현실 인식 없이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자해적 안보 무력화 전략.

• 자조적 패배주의 외교안보 노선:
우리가 이끌 노력도, 원칙도, 가치도, 용기도, 지혜도 없이 강대국 눈치만 보며 시류에 휩쓸려 스스로 무너져가는 외교안보의 자기 해체 노선.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주권·국익·능동 외교, 국방력강화, 실사구시, 현실인식, 지혜, 지속가능평화

🗳 결론: 이번 대선은 이러한 악습과 적폐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 선택할 때, 이 모든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고, 국가의 영혼을 지켜내는 역사적 선택입니다.

KR 양심의 빛, 진실의 빛, 자유의 빛으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요약 버전

KR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지,
전체주의와 위선, 선동과 포퓰리즘에 나라가 무너질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 이번 선거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OUT 시켜야 할 것들 🚫

🔮 미신과 전체주의 – 무속, 사이비, 조폭, 수령숭배, 양심 탄압, 입막음, 선동, 겁박
🕵 체제전복 세력 – 인민민주주의, 간첩·매국, 여론·선거조작, 삼권붕괴, 국민 노예화
🧨 공동체 파괴 정치 – 가정해체, 가짜인권, 갈라치기, 국민 우민화, 국민 수단화
💰 포퓰리즘 중독과 경제파탄 – 빚잔치, 배급사회, 하향평준화, 불공정, 황금숭배
⚖ 법치 붕괴와 특권 정치 – 법 위 특권, 내로남불 정의, 법관 테러, 사법부 정치 예속
🛡 안보 무장해제 – 굴종 외교, 평화 구걸, 자해적 국방 해체, 무모한 낙관주의

🚩 이번 선거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길 🚩

❤️ 양심과 인간성
🙏 영혼과 천부인권
🧭 진실과 진리
⚖️ 정의와 공정
🕯 지혜와 인격
🤲 진정성과 섬김
🏛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 자유와 창의
🗳 국민존엄과 국민주권
KR 애국과 국민연합

🛡️ 지속가능한 평화와 강한 국방·안보
🌐 국익·주권·능동 외교와 자유민주통일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깨어 선택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다시 이 땅을 비춥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국가의 영혼을 지켜내는 역사적 선거입니다.

🇰🇷 이제, 국민의 양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때입니다.
빛을 선택합시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빛 가운데 서 나가도록.

#
<권력에 양심과 영혼을 팔려는가: 2025년 5월 18일>

(ChatGPT와 공동작업)

이재명 후보는 범죄 권력이라는 걸
이 나라 어린아이도 다 아는데,
그 권력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게 달콤한가?

그저 당선확률이 높아 보인단 이유로,
좌우를 막론하고,
날름 달려가 범죄 권력 앞에 줄 서서 알랑방귀 뀌며,
자기 잇속 하나 챙기자고,
자기 혐의 하나 덮어달라고,
양심을 팔고, 오래 외쳐 온 정치철학과 신념까지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모습들이
이토록 낯 뜨겁고,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을까.

삼권분립이 짓밟히고, 사법부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하고,
헌정질서와 국가의 양심이 무너지더라도,
뻔뻔한 줄 바꿔 서기에 거침이 없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존엄을 지닌다"는 가치는
"최고존엄" 수령제일주의 범죄 권력 앞에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오직 그 마피아 "두목"이 봐주고 용서해 주면

모든 죄도 덮이고, 한자리도 보장될 거란 착각 속에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을 백주대낮에 저지른다.
그러면서 마치 "국민"을 위해 그런다는 식으로
자기 파렴치함의 정당화 도구로 "국민"을 판다.

그러나 국민은 안다.
본질이 뭔지, 그들 실상이 뭔지.
정치적 "전향"이라 부르기엔 사실이 아니다.
정치 이념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박쥐 같은 기회주의,
조폭에 굴복하고 아부하는 비겁함,
불의의 권력 주위를 맴돌며 부스러기나 챙기려는 추악함이자,
국민과 국가의 존망은 안중에도 없는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
이는 매국이고, 배임이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세 치 혀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 나라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대한국민, 국민주권, 국민존엄 만세!

P.S.

(이하는 Gemini, Perplexity, 및 ChatGPT 와 공동작업)

🚨 '피고인' 이재명
기존 전과 4 범에 더해,
현재 8 개 사건, 12 개 혐의로
5 개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 대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주요 재판 일정 다 연기됨

📌 확정된 전과 기록
* 검사 사칭: 벌금 150 만 원 (2003)
* 음주운전 (혈중 0.158%): 벌금 150 만 원 (2004)
* 공무집행방해·기물파손: 벌금 500 만 원 (2004)
*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선거운동): 벌금 50 만 원 (2010)

⚖️ 현재 재판 중인 주요 혐의들

▣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사업을 승인
→ 내부 정보 제공 및 수익 배분 구조 조작 혐의
• 성남시 손해: 약 4,895 억 원
• 민간업자 이익: 약 7,886 억 원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성남시 내부 정보를 제공 혐의
• 민간업자 부당이득: 약 211 억 원

▣ 백현동 특혜 및 직권남용: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 혐의
→ 용도지역 4 단계 상향, 용적률 증가, 임대비율 축소 등 승인
• 민간업자 이익: 약 1,356 억 원
• 김인섭 청탁 대가: 약 77 억 원 수수
• 성남시 손해: 약 200 억 원

▣ 성남 FC 뇌물 의혹 (제 3 자 뇌물죄):
성남 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 총 후원금 규모: 약 160 억 원
• 두산건설: 42 억 (정자동 용도변경)
• 네이버: 39 억 (제 2 사옥 허가)
• NH 농협: 36 억 (시 금고 연장)
• 분당차병원: 33 억 (부지 용도변경)
• 알파돔시티: 5.5 억 (준공·민원 해결 등)
• 현대백화점: 5 억 (준공·민원 해결 등)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를 가족 사적용도로 유용
→ 음식·과일·세탁비 등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 지출
• 유용 금액: 약 1 억 653 만 원

▣ 쌍방울 대북송금 (제 3 자 뇌물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냈다는 혐의.
→ 총 송금: 800 만 달러
•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 만 달러
• 이재명 방북 비용: 300 만 달러

▣ 위증교사: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01 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기타 의혹 및 논란
1. 이재명 측근 6 명 사망 – 반복되는 '의문사'

2021.12 –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 대장동 핵심 실무자
→ 대장동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

2021.12 –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 처장
→ 대장동 실무 책임자
→ 검찰 조사 중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

2022.1 – 이병철
시민단체 대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 모텔에서 돌연사 (사인은 대동맥 파열)
→ 생전 "자살 생각 없다"는 글 게시
→ 사망 당일은 유한기 사망 직후

2022.7 – 부인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40 대 남성)
→ 검찰 참고인 조사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2023.3 – 전형수
초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 성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유서 남김
→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지요”
→ 성남 FC 사건 관련자

2024.6 – 전직 언론인 간부 A 씨
→ 김만배에게 1 억 원 수수 및 대장동 보도 청탁 의혹
→ 검찰 수사 중 단양 야산에서 사망

2. 형수에게 쌍욕
직접 녹취가 공개된 육두문자 욕설

3.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가족과 공무원 동원
법원도 이재명의 실질적 관여를 인정함

4. 성남시민 25 명 강제입원 논란
성남시 자활센터 등에서 시민 25 명(일각에선 66 명 이상 주장)을 행정입원(강제입원) 조치

5.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성남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정황 다수 제기

6. 데이트살인 조카(국제마피아파) 변호 논란
이재명의 조카(김씨),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녀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 피해자 아버지는 뛰어내려 중상
→ 무기징역 확정,
유가족 측,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

7.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반복 사용
복수의 증언과 자료로 구체적 정황 드러남

8. 총각 사칭 논란
배우 김부선은 과거 이재명이 자신에게 ‘가정이 없다’며 총각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

[내가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기사에 댓글로 달았던 위 '재판 중인 주요 혐의 및 의혹'에 달렸던 대댓글 중 반가웠던 거]

"작금의 검새들 이야기를 믿으라고 수백번 검찰이 조사해도 증거 없는 것들인데 …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천국 소망으로 믿음 생활 하며 살고 있소.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

[나의 답변 댓글]

"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분명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것이고 이 땅의 불온전한 인간의 좌파 우파를 떠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 아래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지낼 것이고 매우 기대되고 설렙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나의 가까운 지인이 위 댓글("수백 번 검찰이 조사해도" 부분)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댓글 달아서 내가 단 답변 댓글]

"그니까 그러면 성실히 재판에 협조해서 무죄 받고 떳떳이 유권자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재판 기피하고 법관 탄핵 겁박하다가 이제 대선 나와서 자기를 불소추 대상으로 만들려고 함…"

#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부터 이미 대통령 급 이상의 방탄경호: 2025년 5월 18일>

(ChatGPT 와 공동작업)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부터 국민이 무섭고 두렵다며, 이미 대통령 급 이상의 방탄경호에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국세를 막 쓰는 것.
자기 죄가 많아서 국민이 무서운가?
대통령 되기도 전에 마피아 두목처럼 군림하고, 경호를 특권처럼 요구한다면,
혹시라도 대통령 되면 "최고존엄" 수령처럼 국민을 불가촉천민 취급하며 군림하겠다는 예고편 같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자가, 국민이 무서워 접근도 못하게 자신을 철통방어 하는 모습. 웃어야 할지 통탄해야 할지.

#
<대세는 이미 그 자이니 애쓰지 말라고요?: 2025년 5월 19일>

대세는 이미 그 자이니 애쓰지 말라고요? 광복군에게, 독립운동가에게, 대세는 일본이니 애쓰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애쓰는 것도 아니지요.

제 양심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뿐입니다. 저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의리와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거뿐입니다.

12 척이든 1 척이든, 심지어 다 난파했더라도, 계속 의리와 신의를, 무엇보다도 제 양심을 지켜갈 것입니다.

- 누가복음 12:2–3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 전도서 12: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에베소서 5:11-14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 히브리서 4:12-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욥기 34:21-27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 예레미야 17:9-11, 현대인의 성경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 다니엘 2:20-22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

<이단사이비 교주와 전체주의 독재자의 공통점: 2025년 5월 20일>

[이단사이비 교주와 전체주의 독재자의 공통점]

- 그 “교주”, 그 “수령”에 대한 비판 절대 불가
- 비판 시, 곧바로 제거 대상
-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겸허함과 자기 회개는 없음
-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
- 자신은 절대 선이라 주장
- 죄가 있다고 말하면, 그 말 한 사람이 오히려 신성모독 죄 범하게 되는 것
- 모든 사람과 같이 결국 한낱 죄인임에도, 자기 자신만큼은 늘 의롭고 선하다며, 다른 이들만 꾸짖고 가스라이팅
- 즉, 신이 아닌 그저 죄인이 ‘신 행세’
- 관용, 화평, 용서, 오래 참음,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인애, 긍휼, 양심, 정직, 경청, 겸손, 회개 등의 선하고 자기 자신과 남을 살리는 가치는 점점 시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게 여김
- 분노, 복수, 공포, 가스라이팅, 통제, 철권, 절대 시, 신격화, 탐심과 음란, 돈, 사리사욕 이런 거에는 아주 환장함(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과 남을 죽여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격적 사이비 교주와 폭정 독재자에게 지지자가 생기는 이유]

- 세뇌되고 미혹되어서
- 지혜와 분별이 없어서
- 무서워서
- 쉽게 한자리하고 싶어서
- 콩고물 같은 이익을 원해서
- 자기도 실은 탐심과 음란, 돈, 사리사욕 이런 걸 최고의 신으로 섬겨서
- 당장의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 자기도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남을 비난하고 제거하는 것이 통쾌해서
-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느니 남을 욕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나의 죄에 대해선 무뎌져 갈 수 있어서

- 하나님의 명령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으로만 악을 이기라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사실 그럴 마음도 전혀 없어서
- 세상에 대한 화가 많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단 다 사회 탓, 남 탓 하고 싶어서
- 모든 잘못은 남 탓, 모든 잘된 것은 "자기 덕"이라 여기고 싶어서(교주와 독재자를 맹종한 "자기 덕" 포함)
- "정의", "국민", "대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복수혈전과 동족상잔에 짜릿함을 느껴서
- 한 걸음 한 걸음씩 신의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가기보다, 망상 속 세계에서 망상을 강화하며 자기 위로를 하고, 기회가 되면 쉽게 득세도 하고 권세도 부려보고 싶어서
- 인격적 하나님과의 신실한 신앙생활(자기 죄 회개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부드러움과 내어 맡기는 믿음과 나의 인격과 삶의 꾸준한 선한 변화와 성장 포함)보단, 인간의 비인격적 전체주의가 당장 더 가시적이고 헛된 영웅심도 고취되고, 분노 분출의 카타르시스가 있고, 심판 놀이와 사적 복수가 통쾌해서
- 결국은 사이비 교주나 독재자나 그 지지자나 유유상종

#
<국민의 "빛의 혁명": 2025년 5월 20일>

우리 민주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냈듯, 가짜 민주 이재명 후보의 전체주의 독재 시도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 "빛의 혁명"은 반드시 모든 여야 정치인의 법치회피와 위선과 허위사실유포와 불법 대북송금과 간첩매국 부역을 끝까지 척결, 타파하고,
특히 소중한 우리 국민의 의문사들의 진상도 끝까지 밝혀내며,
궁극에는 반국가단체 수장 김정은까지 반드시 무력화시키어,
북쪽 우리 수천만 대한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우리 국토를 온전히 수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구와 유관순과 안중근과 윤봉길과 안창호와 김마리아의 꿈, 우리 8 천만 국민의 꿈, 완전한 자주독립 민주공화 대한민국을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대한국민에 의한, 대한국민을 위한, 대한국민의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
<도산 안창호: 2025년 5월 21일>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인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저마다 남에게만 돌리려고 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망국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두드리고 뼈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역적을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며 그저 앉아만 있는가?
우리 민족이 저마다 내가 망국의 책임자인 동시에 또한 나라를 다시 찾을 책임자라고 자각할 때 우리나라에 광복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적어도 동포끼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자.
오직 사랑하자.
성격이 모두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 말라.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가 있는 법이다.
남의 성격이 내 성격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 도산 안창호

#
<내가 의롭고 도덕적이라 이재명 대신 김문수를 뽑자는 게 아닙니다: 2025년 5월 22일>

내가 의롭고 도덕적이라 이재명 대신 김무수를 뽑자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떼 많은 죄인인데, 나라 지도자까지 대놓고 범죄자이자 온갖 비리와 의혹에 휩싸인 자, 그의 측근이 다수 의문사하고, 지금도 여러 형사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법관을 겁박하는 자를 뽑으면, 이 나라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핑계일 수 있지만, 윗물이 그나마 좀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그나마 아랫물도 점차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윗물이 대놓고 더러우며 “뭐 어쩌라고” 태도로 뻔뻔하다면, 나처럼 죄인인 자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내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 이렇게 더럽혀서 물려줘선 안 되지’ 하게 되지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 됐나 절절한 눈물의 진심으로 내 죄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양심이 윤동주 서시 급은 못 돼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대들의 모든 산업화, 민주화 혜택 다 보고, 자유민주주의 다 누려놓고, 정작 내 후손은 깡패 조폭 소굴에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통탄이자 호소이지요.

#
<우리 민주 대한국민이 계엄을 막았듯, 입법내란 세력을 심판할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인질 삼는 독재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우리 민주 대한국민이 계엄을 막았듯,

이제 우리 민주 대한국민은 행정부를 뒤흔들었던 입법독재, 사법부까지 겁박 예속시키려는 입법내란 세력을 심판할 것이고,

자신의 여러 범죄 혐의들을 "셀프 사면" 하고자 국가와 국민을 인질 삼는 독재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2025 년 4 월 4 일, 사건 2024 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문 중]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 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한 권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 헌나 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중]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 년 7 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불과 작년 총선 땐 북한 간첩 연계 세력 진보당 과 손잡고 올해 대선이 되니 이제는 자칭 보수우파: 2025년 5월 25일>

(ChatGPT 와 공동 작성)

“불과 작년 총선 땐
북한 간첩 연계 세력 진보당(“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꾀하다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사실상 후신)과 손잡고 당선권 비례대표도 두 자리나 챙겨주어 당선시켜 놓고,
올해 대선이 되니 이제는 자칭 보수우파?”

이재명 후보님, 우리 국민이 너무 만만하고 우습나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폭력적 집권도 불사하려 했다고 판결 난 통합진보당.

그 통진당의 주도 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

반국가단체 불법 정권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쳐
전 국민을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 삼으려 한
반민족적 매국을 노렸던 바로 그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진보당은
그 통진당의 실질적 후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4 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비례연합을 맺고 당선권을 나눠가졌습니다.

그 진보당은 RO(혁명조직) 사건으로 내란음모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일당과 긴밀히 연계된 세력이며,
북한 사이비 주체사상을 사실상 추종,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노예화 적화 통일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런 세력과 불과 작년에 강하게 결탁하여 총선을 치른 분이
이제 와서 이번 대선에서는
"나는 중도보수다"라고 말합니다(2016 년에는 "나는 보수우파다"라고 함).
물론 여전히 진보당과는 긴밀한 연대 중이시지요.

진정성 없는 기회주의 정치,
위장 전술 정치,
위장의 노력도 제대로 없는 뻔뻔한 정치,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겁박과 선동으로 길들이려 합니다.

결국 수순은 무엇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최고존엄',
비판은 곧 숙청,
국민은 침묵만이 허락된 전체주의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폭정 독재와 무엇이 다릅니까?
히틀러의 나치와 과연 다른 게 있습니까?

자기의 수많은 형사 재판과 범죄혐의를 덮고 셀프사면의 길을 열고자,
이념을 팔아 권력을 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며 독재를 원하며,

정의를 외치면 자기 재판 법관들을 겁박하고,
국민을 외치며 국민을 인질 삼는,
극단적 전체주의의 망령.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변호인(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라도
현재 8 개 사건, 12 개 혐의로
5 개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형사 재판부터 성실히 받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부터 갖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후보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 헌다 1 전원재판부 [통합진보당해산] 판결문 중:

"더욱이 피청구인이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중대한 위헌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피청구인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등 해산 결정 외에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점,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나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여러 페북 댓글 대화 중 하나: 2025년 5월 26일>

[내가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기사에 댓글로 달았던 그들 중 대댓글로 달렸던 댓글]

"어디서 단톡방에 올린거 퍼 나르지 말고 .. 사셔 .. 댓글 알바 하면 일당 줌? 광훈이 한테 받았나 .. 그짝 교회나 .. 에혀 .... 짜찌 불쌍하다 .."

[나의 답변 댓글]

“전 그리스도인이지만 전광훈 목사님은 정말 정말 안 좋아하고요, 그분이 예수님도 아니니 굳이 그분을 믿네 마네, 추종하네 마네 할 것도 없지요. 그분도 우리 모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저 죄인인 인간일 뿐이며,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만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누리고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제 글들은 다 제가 쓴 거입니다. 단톡방에 퍼질만한 퀄리티로 봐주시면 감사하죠. 당연히 알바도 아니고요 ㅎ 알바면 제대로 된 계약부터 제가 꼼꼼히 챙겼을 것입니다.”

#
<이번 대선 양심적으로 투표하는 법: 2025년 5월 26일>

(ChatGPT 와 공동작성)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다음의 단어들을 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떠오르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정직, 청렴, 진정성, 도덕성, 양심, 언행일치, 약자 보호, 약자 돌봄, 국민 존중, 책임감, 헌신, 공익 우선, 말보다 실천, 섬김의 리더십, 신뢰감, 노동자, 서민, 인권, 민주항쟁

반대로, 아래 단어들을 들을 때 떠오르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내로남불, 비리, 의혹, 의문사, 자기 재판 법관 겁박, 셀프사면 시도, 조폭 연루, 공금 사적 유용, 간첩과의 연대, 매국, 부정직, 말 바꾸기, 기만, 사기, 사칭, 불륜, 허위사실 공표, 쌍욕, 자기 시민 정신병원 강제감금 수십 명

그렇다면,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선택을 의미할까요?

저는 어느 후보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
<평화를 가장한 굴종 외교, 매국 외교: 2025년 5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더러운 평화’ 관련 주요 발언:
꾸준한 굴종 외교, 적화 통일도 불사할 듯한 종북적 국방안보 시각.

📌 1. 2016 년 12 월 6 일
>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평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더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평화가 낫다.”
📎출처: 서울신문, 2016.12.06,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 2. 2017 년 8 월 5 일 (이재명 페북 포스팅)
>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출처: 세계일보, 2017.08.07, "이재명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文 대통령, 대북전단지 제재 지지"

📌 3. 2023 년 7 월 4 일
>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출처: 연합뉴스, 2023.07.04, “이재명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2025년 5월 27일>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 64:3-10)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시 68:19-21)

#
<국민이 스스로를 노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지도자와 그의 직계 가족이 어떤 언행을 하고, 어떤 유죄가 있고, 어떤 혐의가 있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건 반민주적, 반지성적, 반양심적, 반국가적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지 어느 한 “수령”이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를 노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어렵게 싸워 얻어진 모든 국민 개개인의 동등한 자유와 존엄과 기본 권리와 가치를 이렇게 쉽사리 내동댕이 치며, 기껏해야 최소량 배급과 검열과 공포 통치와 겁박과 빚잔치 사기와 인민선동, 인민재판의 일회적 카타르시스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시민은 어느 정당, 어느 사람, 어느 지도자에게도 맹종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그 누구든, 우리는 그들이 제대로 국민을 잘 섬기고, 진심으로 위하며, 신의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사용하며, 실제 어떤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꼼꼼히 분별하고,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지, 그 반대가 되도록 방치하는 거나 도리어 그들의 독재 군림 시도를 응원하는 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

<스레드에서 어느 분이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믿는 건 아닌데도 성경 읽어보고 싶다고 그래도 되냐고 하길래: 2025년 5월 29일>

"나질문이있어요
하나님 안믿어도
성경책읽으면안되요?

나진짜 하나님이뭔지잘모르지만
성경책 읽어보고싶어서 읽는중인데
하나님 안믿고 성경책읽으면 나쁜건가요?
잘못된신앙인건가요?

아니 전솔직히 교회다니면서 착한척 예수님믿는척
가식인걸 너무많이봐서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아직완전히 믿진않지만
성경책 집중해서 보는건 좋지않은건가요?
가식떨며 나하나님 믿어 그러곤싶진않아서 .."

[나의 답변 댓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메시야 그리스도이시다를 증언하고,

그를 믿는 자(예수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죽으신지 3 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과 그의 모든 말과
업적이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증을
해주셨으며,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이를 믿는 자) 마다의
구세주(대속자, 변호인, 대제사장, 중보자, 구원자, 선한목자,
만주의 주, 주님)가 되심을 증거 하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를 염두하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읽어보고 싶은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계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
<써 놓고 올리지 않은 글: 2025년 5월 29일>

아무리 죄에 대한 증거가 나와도 회개하지 않고
더더욱 적반하장과 시치미와 궤변으로 일관하니,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조차도,
'자긴 용서받을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

예수께서 베푸신 용서와 죄 사함을 감사와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어쩌라고'와 남 탓과 '쟤는 더 더러워'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심판을 자처한다.

그런 자들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스스로 거부하니,
남겨져 서로의 지옥을 영원히 더욱더 잔인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간다.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기에 단정하여 정해진 것처럼 정죄함으로써 반감을 일으켜 더 회개와 멀어지게 하고 싶진 않아서. 진심으로 그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그래도 한편의 사랑의 마음으로****.)*

#
<그리스도인 간 정치 토론: 2025년 5월 29일>

요즘 같은 극심한 사회 분열 시기에 나와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만약 그도 그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흠향하여 받으실 것이다.
만약 당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행위이더라도, 오직 온전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진심으로 선한 양심과 믿음대로 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 주시고 교정도 해 주실 거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들에 대해 완전한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인간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지,
우리 죄인 중 어느 한 사람의 의견들이 전부 완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다.
만약 한낱 죄인이면서 자신이 모든 면에서 온전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자를 일컬어 이단, 사이비라고 한다.
계속하여 비본질로 본질을 흐리며, 비본질로 본질을 가스라이팅 하고 당 짓는 자를 이단, 사이비라고 한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시오.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시오." (딛 3:9-10, 현대인의 성경)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딛 3:10)

만약 의견이 다른 상대 그리스도인도 그의 선한 양심과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진실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를 감히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건 내가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교만이다.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다양한 선한 양심의 의견과 믿음의 행동들까지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일한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누구도 그분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주님으로 동일하게 고백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과 지혜의 권면도 하되,
늘 기저에 상호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관용과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해야 마땅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서로가 다 이해는 안 가더라도,

결국 천국에서는 모두 다 주님의 현현한 지혜와 계시와 충만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되고 해결되고, 진심의 믿음대로 행한 것들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줄 것이다.

나 또한 성경과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마주하는 삶의 시련과 과제들에 의해 끊임없이 교정되고 수정되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존재란 걸 잊어선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한 마음 한 뜻도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 믿는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둘 모두에 있어서는 사랑을 지킨다면,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 Peter Meiderlin (1582–1651), 필명 Rupertus Meldenius, 독일 루터교 신학자. (30 년 전쟁 중 종교적 분열을 목격하며, “교회의 평화를 위한 권고”에서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이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롬 12:3-21, 현대인의 성경)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 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롬 14:1-4, 현대인의 성경)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약 4:11-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 3:12-16)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롬 14:23)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약 4:17)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행 15:35-4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딤후 4:11)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8-13)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1-4)

#
<단 한 표 한 표의 엄중함: 2025년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부터 관리 부실과 부정 의혹 뉴스들이 여러 메이저 언론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부실에 대한 대국민 사과(5/29)*** *및*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대국민 사과(5/31)도 이어졌음****.)*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동등한 자유민주주의이기에, 한 표 한 표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단 한 표라도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식 수령제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형식상 투표와는 달리!)

#
<사전투표 둘째 날(마지막 날) 아침 다시 한번 기도: 2025년 5월 30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심에 예수님의 권능의 보혈이 뿌려지어, 우리 모두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성경 히브리서 9 장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성경 요한일서 1 장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성경 히브리서 10 장

1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20.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21.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우리가 죄악 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말성경 베드로전서 3 장
21.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22.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우리말성경 요한일서 5 장
4.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5.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6.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말성경 에베소서 2 장
4.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8.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말성경 로마서 6 장
9.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12.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4.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18.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19.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22.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23.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말성경 요한계시록 1 장
5.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6.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7.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아멘.

#

<점점 다짜고짜 무차별적 폭언의 댓글들을 다는 걸 보며: 2025년 5월 30일>

자유민주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면 다르구나 하면 되지 굳이 처음 보는 동료 국민에게 댓글 달면서까지 쌍욕 쓰고 인격 모독적 발언하면서 스스로 얼굴에 침 뱉고,

그 후보의 보존만을 극렬히 충성경쟁 맹종하는 건 대체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입막음과 검열, 통제의 수령제일주의 인민민주주의의 인가요?

왜 동료 국민을 겁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서 부역하나요?
자유민주주의이기에 그 후보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건데 말이죠.

#
<전쟁 속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경험 간증: 2025년 5월 30일>

(나는 5/26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중)

(첫째 아들) 남율이가 어제부터 돌발진으로 추정되는 게 생겨서 오늘 아침 어린이집 등원 전 소아과를 갔는데, 원래 다니던 소아과의 엘베가 고장이 나있었다. 4 층인가 5 층인가 되고 유모차도 있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더 멀리 있는 소아과로 유모차를 돌렸다.

그때 순간 '하아...' 이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그냥 순종하고 다시 걸었다. 그리고 잘 도착해서 진료를 봤는데 원래 다니던 곳보다 더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친절한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했다.

다시 돌아오며 이제 어린이집을 향해 가는데, 이젠 또 도로 공사한다고 먼지가 엄청 나고 있어서 고민하다가 뒤로 더 돌아서 가기로 했다. 덥기도 하고 오전 6 시부터 육아하느라 아침도 못 먹은 채 10 시 반 정도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며, 두 번째 '하아...'는 짧게 하고, 뒷길 냇가가 있는 길로 돌아갔다.

그래도 자연이 좀 더 있는 곳으로 걸으니 나쁘지 않네, 좋네 하는데, 신기하게도 남율이 어린이집 반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그 냇가 길에서 마주쳤다. 다 같이 산책 나와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았다면 서로 못 만나고 엉킬 뻔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었구나 다시 느끼며 감사했다. 남율이를 인계드리고 집에 가서 아침에 남율 씨가 논다고 큰 필기구 통을 다 엎어 놓은 것을 하나씩 주어 담고(그것도 굳이 내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앞에 앉아서 화장실 문도 못 닫게 한 채, 그 앞에서 엎고 놀아서 펜들이 화장실 바닥에도...), 집 앞 카페에 잠깐 왔다.

11 시 반 점심 겸 왔고 이제 여기서 커피와 파니니 먹고, 12 시부터 있는 내가 다니는 양재 온누리교회의 나라사랑 금식 기도회(아침 또는 점심 금식이라, 아침을 금식한 것으로..)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는 집에 왔다가 하원시키러. 그래도 오늘은 엄마가 오후에 와준다니 👍

나는 중학교 정도부터 특히 유학을 시작한 중 3 부터 유독 가만히 있어지지 않는, 특심을 갖는 대상(?), 주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내 기도는 안 해도 이들을 위한 기도는 늘 했는데, 바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다.

지난 6 개월 전쟁 같은 정국 속에,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서, 군대에서도 못 들어본 더 상스러운 욕들을 먹어가며, 그래도 내 입장에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일제 폭정 치하의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으로(물론 그분들은 지금 나에 비하면 훨씬 무섭고 치열하고 했겠으나), 치열한 내전 가운데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중에 아들들이 '아빠는 그때 뭐 했어?'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아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고자 더더욱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번 대선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제 4 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돼야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날 거 같다. 참 한국은 여러모로 빡센 나라다. 그래도 내 선교지라 생각하고 피하지 않고 임하려 한다.

'좋아요'도 별로 없고, 도리어 욕만 먹고,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 이런저런 사사로운 건 재지 않고 행하는 시기이다.

(p.s. 안물안궁이겠으나, 난 계엄은 반대, 계엄 해제는 찬성, 탄핵심판은 여러 절차적 불공정성으로 문제 제기, 그럼에도 탄핵심판 결과는 어쨌든 법치주의 국가로서 온전히 수용, 거대 야당과 그 후보의 삼권 분립 파괴 시도, 위인설법 독재 시도는 결사반대, '우린 제 2 의 민주화 운동 중이다' 등 대략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만 줄여야겠다.

백두에서 한라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목청껏, 자유로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고대하며,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 한국교회 만세! ✝️

#
<대선 본투표를 2일 앞두고,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쓰는 편지: 2025년 6월 1일>

[만약 김문수 후보께서 2 일 뒤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경우라면]

김문수 후보님, 저도 후보님을 뽑을 것입니다만, 정말 똑바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축하드릴 여유도 없고, 그리 축하할 일도 아닌 것이, 가히 제 2 의 6.25 전쟁이라 불릴 만큼이나 지난 6 개월은 극심한 남남갈등과 내전 같은 정국 속에서 좌우 막론, 모든 국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간이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미워하고 저주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 국민 전체를 위로하고, 보듬고, 특히 후보님을 반대했던 국민들에게 더더욱 그렇게 하여, 국민 통합을 하는 진정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 외부 세력들과 내부 부역세력들이 놀랄 정도로 끈끈하게 통합되고 아름답게 연합된 대한민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사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 막론하고 서로 봐주며 해 먹는 정치 카르텔의 또 하나의 담합 가담자가 되란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과 위선과 교활한 간계와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와 선전선동, 사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며, 끝까지 핑계, 궤변, 남 탓, 모르쇠, '재는 더 더럽다'는 식의 항변, 적반하장 등의 작태들 아주 지겹고 이제 토할 거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는 제발 그만 보게 해 주시고, 정치인들을 우선으로 봐주는 범죄 카르텔 식 '협치'가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섬겨달라는 말씀입니다.

'국민머슴', '청렴영생 부패즉사',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유정유일', 진정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모든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동등한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불체포, 불소추 특권 폐지, 3 년 임기와 개헌 등을 외치시고 공약하신 만큼, 꼭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회의 지도자들부터 더더욱 법과 질서를 엄격히 따르고 존중하며, 도덕과 양심과 공공선과 국민 섬김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시고, 그런 문화를 위에서부터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상대 후보보다는 살아온 궤적과 자취가 좀 더 진정성 있고 믿을만하고, 그간의 업적과 언행과 삶의 열매들이 보다 청렴하고 나아서 저도 후보님을 뽑았고, 후보님을 위해서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도 했으나, 그렇다고 저 포함, 후보님을 뽑은 사람들이 모두 다 '무조건적으로' 후보님을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 누군가 후보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면 그건 국민 주권 민주 시민의 자세도 아니고, 후보님께도 해로운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진짜 잘하셔야 합니다. 정말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섬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도록, 크리스천으로서도 제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지, 어느 특정 한 목사, 한 사람, 특정 한 교회를 맹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자칫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전체가 오해되고 욕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운동 기간에 큰 이슈는 없던 거 같습니다만,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분명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듯, 일제의 폭력과 겁박에 의한 강제합병의 잔혹한 식민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의 피, 땀, 눈물과 기도로 이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 정부수립, 그리고 민주화 등의 과정에 대한 괜한 역사적 불란과 갈등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재 우린 아직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북은 불법 반국가단체의 공포 통치에 의해 우리 수천만 국민과 국토 절반이 감금, 점령 돼 있는 상황으로, 우린 아직도 독립운동 중이고, 온전한 광복과 건국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번에 5.18 정신을 개헌 헌법에 넣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큰 환영입니다. 후보님이 바로 그 독재 치하에서 모진 고문받으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드신 역군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노파심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나 김건희 여사의 혐의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판단은 판단대로 확실히 존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려는 법치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진영처럼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와 "국민"을 운운하며,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하거나 대폭 증원하고 법조인이 아닌 자도 법관을 할 수 있게 하여 인민재판 같이 하겠다고 하거나, 4 심 제로 바꾸겠다는 등, 이런 식의,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의 선별적 정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 못한 특권 계층의 특권 의식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꼭 드리고픈 노파심 위주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꼭 잘해 주세요. 임기 3 년 너무 짧기도 하고, 아직도 이재명 수령주의의 민주당은 계속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 개헌도 하려면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계속될 거 같고, 민주당의 행정부 흔들기는 앞으로는 어쩌면 더더욱 거세질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정말 국민 전부를 보고 정치해 주세요. 정치인들 보며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사세' 정치, '그사세' 투쟁, '그사세' 잇속 교환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보필하는 진정한 민생정치, 애민정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앞서 말씀드렸듯, 후보님을 반대한 국민들에게(정치인들 말고요, 국민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느끼게 해 주세요. 포퓰리즘이나 선한 가치의 타협으로써가 아니라, 진심과 진정성과 선한 성과물과 상호 존중의 지혜로운 통합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의 공복(公僕)이시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주인도 당연히 있겠지만, 끝까지 어느 국민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 국민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나라의 아름다운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돼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과 행동으로 후보님을 뽑은 사람인만큼, 앞으로는 더 가까이서 계속 감히 감시, 감독하며, 후보님께 쓴소리를 서슴지 않고 드리는 애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임기를 마치실 때 훨씬 더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과 감사를 받는, 겸손하고, 신의가 있고, 성실한 대통령이 돼 주시길 기도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께서 2 일 뒤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경우라면]

이재명 후보님, 정말 어떻게든 해내셨네요, 후보님 개인과 후보님 직계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큰 안도이자 다행이자 축하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큰 비극입니다. 수많은 혐의에 대해 성실히 재판을 받으세요. 다른 모든 국민은, 특히 힘없는 약자일수록, 모두 자기 재판 열심히 받습니다.

"헌법 제 84 조에서 말하는「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 법제처 발간, 『헌법주석서 제 3 권』(제 2 판)(연구기관 (사)한국헌법학회), 2010 년 3 월, 606 쪽. 본 헌법주석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간행물 자료: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404000000&bid=0007&act=view&list_no=51851.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헌법 제 84 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이 문구를 두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올해 3 월] 11 일 밝혔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주석서는 이 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훨씬 전인 2010 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취지로 발간했다. 장 교수는 당시 헌법 제 84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주석서에 기술했다.”
— 김대영 기자, 「헌법주석서 '헌법 84 조 형사상 소추는 기소 의미'...저자 '李 재판정지 다수설은 완전 거짓말'」, 『문화일보』, 2025.03.11, https://www.munhwa.com/article/11490695 (검색일자: 2025.05.12).

“사실 2017 년 대선에서도 헌법 84 조는 한 차례 논란이 됐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3 심 재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앞둔 상태로 대선에 출마하면서다. 홍 후보는 당시 1 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 년 6 개월을 받았으나, 대선 석 달 전인 2017 년 2 월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여야의 반응은 지금과 180 도 달랐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2017 년 5 월 YTN 라디오에서 “홍 후보의 경우, 헌법 84 조가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라며 “2 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 김정재 기자,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 조 논란'」, 『중앙일보』, 2025.02.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418 (검색일자: 2025.05.12).

후보님께서 받고 계신 재판들의 혐의들 리마인드 드립니다:

🚨 '피고인' 이재명
기존 전과 4 범에 더해,
현재 8 개 사건, 12 개 혐의로
5 개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 대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주요 재판 일정 다 연기됨

📌 확정된 전과 기록
* 검사 사칭: 벌금 150 만 원 (2003)
* 음주운전 (혈중 0.158%): 벌금 150 만 원 (2004)
* 공무집행방해·기물파손: 벌금 500 만 원 (2004)
*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선거운동): 벌금 50 만 원 (2010)

⚖️ 현재 재판 중인 주요 혐의들

▣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사업을 승인
→ 내부 정보 제공 및 수익 배분 구조 조작 혐의
• 성남시 손해: 약 4,895 억 원
• 민간업자 이익: 약 7,886 억 원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성남시 내부 정보를 제공 혐의
• 민간업자 부당이득: 약 211 억 원

▣ 백현동 특혜 및 직권남용: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 혐의
→ 용도지역 4 단계 상향, 용적률 증가, 임대비율 축소 등 승인
• 민간업자 이익: 약 1,356 억 원
• 김인섭 청탁 대가: 약 77 억 원 수수
• 성남시 손해: 약 200 억 원

▣ 성남 FC 뇌물 의혹 (제 3 자 뇌물죄):
성남 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 총 후원금 규모: 약 160 억 원
• 두산건설: 42 억 (정자동 용도변경)
• 네이버: 39 억 (제 2 사옥 허가)
• NH 농협: 36 억 (시 금고 연장)
• 분당차병원: 33 억 (부지 용도변경)
• 알파돔시티: 5.5 억 (준공·민원 해결 등)
• 현대백화점: 5 억 (준공·민원 해결 등)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를 가족 사적용도로 유용
→ 음식·과일·세탁비 등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 지출
• 유용 금액: 약 1 억 653 만 원

▣ 쌍방울 대북송금 (제 3 자 뇌물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냈다는 혐의.
→ 총 송금: 800 만 달러
•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 만 달러
• 이재명 방북 비용: 300 만 달러

▣ 위증교사: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01 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기타 의혹 및 논란

1. 이재명 측근 6 명 사망 – 반복되는 '의문사'

2021.12 –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 대장동 핵심 실무자
→ 대장동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

2021.12 –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 처장
→ 대장동 실무 책임자
→ 검찰 조사 중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

2022.1 – 이병철
시민단체 대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 모텔에서 돌연사 (사인은 대동맥 파열)
→ 생전 "자살 생각 없다"는 글 게시
→ 사망 당일은 유한기 사망 직후

2022.7 – 부인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40 대 남성)

→ 검찰 참고인 조사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2023.3 – 전형수
초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 성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유서 남김
→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지요”
→ 성남 FC 사건 관련자

2024.6 – 전직 언론인 간부 A 씨
→ 김만배에게 1 억 원 수수 및 대장동 보도 청탁 의혹
→ 검찰 수사 중 단양 야산에서 사망

2. 형수에게 쌍욕
직접 녹취가 공개된 육두문자 욕설

3.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가족과 공무원 동원
법원도 이재명의 실질적 관여를 인정함

4. 성남시민 25 명 강제입원 논란
성남시 자활센터 등에서 시민 25 명(일각에선 66 명 이상 주장)을 행정입원(강제입원) 조치

5.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성남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정황 다수 제기

6. 데이트살인 조카(국제마피아파) 변호 논란
이재명의 조카(김씨),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녀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 피해자 아버지는 뛰어내려 중상
→ 무기징역 확정,
유가족 측,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

7.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반복 사용
복수의 증언과 자료로 구체적 정황 드러남

8. 총각 사칭 논란
배우 김부선은 과거 이재명이 자신에게 '가정이 없다'며 총각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

9. 접대 있는 불법유흥 주점 출입 의혹
2024 년 8 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접대 형식의 불법 유흥 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곳에서 이 후보를 봤다고 증언

10. 아들 억대 도박 및 자금 출처 의혹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 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베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박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된 총재산이 390 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혐의와 의혹 정리: Courtesy of Gemini, Perplexity, and ChatGPT)

이런 후보님의 제 2 의 유신독재 시도 앞에, 제 2 의 민주화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보님의 법치회피, 삼권분립 파괴, '국민'이란 이름을 남발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것, 자기 방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인질 삼고 갈라치는 파렴치함, 자기 재판의 재판장을 탄핵 겁박하고, 자기에 대한 모든 비판에 대해선 언론이든 국민이든 검열통제와 반민주적 악법 입법으로 입막음시키며, 자기는 법 위에 서려는 뻔뻔한 독재 시도, 당장 다 멈춰주십시오! 이미 사회를 망쳐놓은 부분들은 이제라도 정직하게 다 사죄하고 돌려놓으십시오!

제 2 의 민주화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후보님의 홍위병이나 친위대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은 계속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위선, 내로남불, 법치회피, 비리, 횡령, 뇌물, 측근과 주변인 의혹사, 부정부패, 뻔뻔한 거짓말, 국민에 대한 기만과 조롱, 적반하장, 간첩•매국에 부역, 반대파에 대한 겁박과 입막음, 언론통제, 인민재판, 거짓 선전선동, 공금 사적 유용, 국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재해 현장까지 가서 국민에게 쌍욕 하는 것, 불륜, 저렴한 언어 사용, 언어 성폭력, 본인과 직계가족의 권력 남용, 공금 사적 유용, 언어 성폭력, 억 대 불법 도박 등, 이러한 모든 어둠에 대한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은 계속되어, 반드시 이 모든 어둠을 우리나라에서 척결하고, 의롭고 찬란한 빛의 대한민국을 한라에서 백두에 이르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온 전역에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양심을 재건하고, 국가를 온전히 회복하며, 국격을 높여갈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국민을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

<우리말성경 에스더 7장 8-10절: 2025년 6월 1일>

8.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9.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 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10.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

<리박스쿨: 2025년 6월 2일>

[내가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기사에 댓글로 달았던 글에 대댓글로 달렸던 댓글 중 특이했던 거]

"리박스쿨 전문강사요??"

[나의 답변 댓글]

"아니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외 모든 대통령 모두 다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사람도 추앙의 대상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답변에 추가 댓글]

"전광훈이 전재산 헌금으로 바치래~ 얼마나 바쳤어??"

[나의 추가 답변 댓글]

"전 그리스도인이지만 전광훈 목사님은 정말 정말 안 좋아하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특정 목사님이나 사람이나 특정 교회나 교단을 맹종하거나 추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
<선거관리: 2025년 6월 3일>

하아... 사전투표 때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 둘 다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오늘 본투표에서도 계속 또 여러 잡음이... 이건 솔직히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정치이념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선거의 4 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ChatGPT 작성)

🗳️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4 대 원칙

1. 보통선거 (Universal Suffrage)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져야 함
재산,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등으로 투표권을 제한해선 안 됨

2. 평등선거 (Equal Suffrage)
모든 표는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함
누구의 표든 1 표는 1 표로 계산되어야 함 (1 인 1 표 원칙)

3. 직접선거 (Direct Suffrage)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함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은 제한됨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은 직접선거)

4. 비밀선거 (Secret Ballot)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타인이 알 수 없어야 함
투표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성과 비밀성은 필수

이 네 가지 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이 원칙 중 하나라도 훼손되면,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저랑 페북/인스타/스레드 등 관계를 끊으실 분들은 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출구조사를 보니, 저랑 페북/인스타/스레드 등 관계를 끊으실 분들은 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수령 집권에 반대한 "내란 세력"들에 대해 발본색원, 청산이 진행될 테니, 저처럼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과 굳이 엮이는 게 여러분 신변에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이제 SNS, 카톡 등 모두 검열 대상이 될 테니, 미리 정리를 하시고, 몇 년 후 나중에라도 상황 봐서 재친추나 연락을 해주셔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그때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직 출구조사이긴 하나, 출구조사대로 이재명이 당선돼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 되죠. 지금껏 반 평생 이상을 그래온 대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어떤 권력 앞이라도 단호히 대응해야 할 땐 단호히 대응하며, 저의 양심과 신앙에 최대한 가깝게,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각오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 없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여겨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목숨까지도 내주시며 이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죠.

하루속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대한민국이 이뤄져,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 어디서나 자유로이, 공개적으로, 목청껏, 마음껏,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27-2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38-39)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24-4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1-33)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1-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2)

#

<얼마 전부터 다시 읽어오던 시편, 순서에 따라 오늘 밤 읽은 시편 본문은 71편: 2025년 6월 3일>

(SNS 에 올리진 않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다음날부터 대한민국 정국, 정치 등에 관한 페이스북(메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에서의 나의 공개 게시글들 중 일부분 날짜 순으로 모음》

#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2025년 6월 4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잠 28:12)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 28:28)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 29:2)

#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 6월 4일>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지난 12.3 계엄이 부끄러웠던 것처럼,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끝까지 법관의 양심과 삼권분립과 자유민주 헌정질서와 정의를 반드시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꼭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대통령일지라도(오히려 그가 대통령이기에 더욱),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직과 도덕과 청렴과 양심이 조롱거리가 되고, 거들먹거리고 뻔뻔한 후안무치와 조폭식 적반하장이 기득권의 문화와 자랑이 되어, ‘국민’의 이름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국민 입막음 악법들을 발의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내로남불 인민재판 법안들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선거운동 기간부터 예고해 온 바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중국 미국 등 주변국에게는 ‘가랑이 밑도 기겠다’는 굴종외교식 발언과 ‘더러운 평화’라도 우리 국민은 감사해야 한다는 치욕적인 강약약강 자세를 내세우며 매국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저 만만하건 국민인가 보죠.

저는 위와 같은, 또 위 외에도 수많은 이재명 개인의 과거 많은 논란과 저질 발언과 중범죄 혐의들 및 확정과 측근들 의문사와 과거 자기 시민 수십 명을 정신병원에 강제감금 한 등의 이유로 이재명을 찍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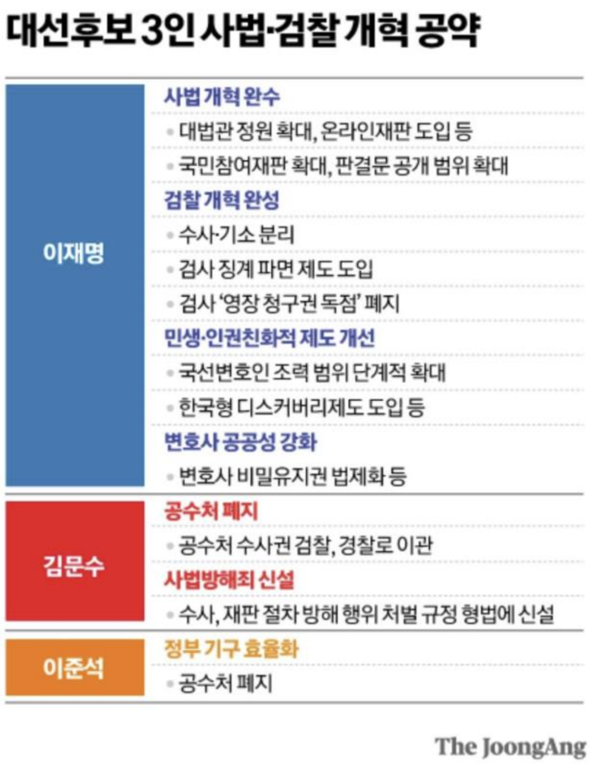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입막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이재명 본인 형사재판 혐의들에 대한 셀프 사면 시도, 사법부 독립성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여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들에 강하게 반대하여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뽑지 않았던 것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 계속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모든 파렴치한 독재 시도, 법 위에 서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가의 양심과 법치를 똑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및 "대선후보 3 인 사법 검찰 개혁 공약" 사진 출처: 아래 중앙일보 기사

🛑민주당, 판사 겨냥 '법왜곡죄' 추진..."나치 시절 과거사 청산 모델"
출처: 중앙일보 | 2025.05.19 10: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965#google_vignette





차준홍 기자

🛑이재명 '5 개 재판' 멈추나...'선거법 파기환송심'부터 주목
출처: 노컷뉴스 | 2025.06.04 오전 5:02 (수정: 6:41)
🔗https://naver.me/5UT0WpLy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위증교사
3.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4.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민주당,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항목 삭제 → 면소 가능성(자기 죄 법 개정하여 셀프 사면!)

🛑대법원장 특검법 예고에... "사법부 흔들기" 법조계 반발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25.05.08 19:16
🔗https://www.fnnews.com/news/202505081915549052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추진
전 대한변협 회장 9 명 반대 성명: 삼권분립 위협 지적

🛑국힘 "민주,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 발의...여기가 북한인가"
출처: 뉴시스 | 2025.05.31 오전 10:49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531_0003197506

🛑나경원 "이재명 아들 험담금지법? 분서갱유" / 조인철 "어이 없다"
출처: 미디어오늘 | 2025.06.01 오후 8:55 (수정: 10:47)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5 억 미끼, 감시국가 문 연다"... 이재명 '제보 포상제'에 '북한' 소환
출처: JIBS | 2025.05.31 오후 11:59 (수정: 2025.06.01 오후 2:20)
🔗https://naver.me/Il4NI0Vh

🛑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출처: 조선일보 | 2025.06.04 오전 9:22 (수정: 11:11)
🔗https://naver.me/I5yZieDx
"이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 수 늘려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제기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 없다던 민주당, 결국 우회 발의"
출처: 기독일보 | 2025.06.03 22:22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7882
성적지향 등 혐오표현 규제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발의
"동성애·성전환 반대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도 가능"
"방통위 조치 없이 민사소송도 가능...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
교계 관계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복붙'한 법안... 민주당의 '추진 의사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나"



*사진 출처: "Tank Man" temporarily stops the advance of four Type 59 tanks on June 5, 1989, in Beijing [a day after the **June 4th Tiananmen Square Incident**]. This photograph (one of six similar versions) was taken by Jeff Widener of the Associated Press. (Wikipedia: 'Tank Man', https://en.wikipedia.org/wiki/Tank_Man)
"**제 3 차 천안문 사태**(중국어 정체자: 第三次天安門事態)는 **1989 년 6 월 4 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 발생한 천안문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전개한 반정부 시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개방 정권이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위키백과: '1989 년 천안문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1989 년_천안문_사건)

#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2025년 6월 4일>

아침에는 유튭으로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드리고,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 오후 3 시 예배드리고,
저녁 7 시 반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예배 드리고.

우리말성경 다니엘 6 장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 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 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사자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 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 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우리말성경 다니엘 3 장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귀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데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 내고 그의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 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께: 2025년 6월 5일 오전 2시 43분 이메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23 명 정도에게 새벽 2 시 43 분에 보낸 이메일)

국힘 의원들께, 저 국힘 책임당원 한 명인 김현기라고 합니다.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졌잘싸는 없습니다. 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잘 싸웠다 한 것도 김문수라는 사람됨으로 했지, 후보 경선도 난리로 만들어 국민들 입장에서 '쟤네 뭐 하냐' 하게 해놓고, 상대가 어려운 이낙연 김부겸 우원식 이런 사람도 아닌, 이재명 같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질 수 있지 하는 선거에서 져놓고, 자기 위로 차원으로 우린 내부 분열과 내홍부터 정리하고 재정비하자고 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민주당의 이재명 수령 방탄 악법들, 사법부 겁박 악법들, 국민 입막음 검열 악법들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필리버스터 말고도 뭔가 대국민 집회라도 열고 국회 마당에 천막 당사라도 치고 해야지 않겠어요? 국민들 조폭한테 입막음 당하고 사는 꼴 보셔야 하나요?

12.3 계엄에 대해 다시 한 목소리로 국민께 사죄하고, 제 2 의 계엄 이재명의 유신독재 시도를 막으러 나왔다고, 국민들도 제 2 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며 나가서 하나 되어 외쳐주세요.

애들처럼 그만 서로 삐지고 편 나누고 서로 탓하며 그냥 고상하게만 있지들 좀 말아주시고, 빨리 나가서 싸우세요. 단일대오로 좀 멋지게 좀 싸워봐 주세요.

북한 간첩들 있는 당들은 오히려 단일대오로 조직적인데, 어째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명분 있는,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제 1 의 보수당이 그래요. 언제까지 자통당이나 개혁신당 같은데 조롱거리가 될 거입니까. 당원 자괴감 들게 하지 말아 주시고, 졌잘싸 자기 위로하며 방에 있지 말고, 진 게 뭘 잘한 거라고 얼른 더 절박하게 나가서 뭉쳐서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배현진 권성동 김용태 안철수 양향자 등등 다 서로 어깨 걸고, 심지어 이준석 하고도 어깨 걸고, 이낙연 하고도 어깨 걸고, 빨리 국회로 가서 천막당사 치고, 여의도 대국민 집회 좀 열고 해 보세요. 국민들도 따라 나올 수 있게 앞장서서 용기를 내고 민주항쟁을 해주세요!

눈 뜨고 우리나라 범죄독재국가로 넘겨줄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에 넘겨줄 거예요?

민주당은 명분도 논리도 약해도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잘하는데, 우리야 말로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명분도 있고 다들 똑똑한 논리도 있으나 결국 시정잡배에게 농락이나 당하고, 뭉쳐서 이기지 못하면 그게 뭔 정치인인가요.

그만 국민 속 썩이고 나가서 뭐라도 해주세요! 한가한 징비록은 전쟁 끝나고 쓰세요!!

꼭 나라 살려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김현기 드림

#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다가 싸워서 교회 옮길까 고민하는 스레드 어느 분께 남긴 댓글: 2025년 6월 5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며 끝까지 선과 진리로 악과 거짓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
<페이스북 ‘김현기님이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5 - 5:10)

“No, I don’t know the future, but I do know this: the best is yet to be! Heaven awaits us, and that will be far, far more glorious than anything we can ever imagine.”
– Billy Graham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He holds my hand.”

– Ira Stanphill

#
<불체포특권, 불소추특권에 이어 불재판특권. 정말 끔찍하다: 2025년 6월 5일>

(오늘 자 채널A 뉴스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를 공유하며)

불체포특권, 불소추특권에 이어 불재판특권. 정말 끔찍하다.

홀로 법 위에 있는 ‘최고존엄’ 위대한 ‘수령’ 범죄자 이재명을 극진히 모시는 공범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 찬성할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다. 명색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민주당인데.

👊 노무현 대통령 어록: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겐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강자에게 약해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김대중 대통령 어록:

“어떠한 독재도 용납할 수 없다" "좌우의 독재 모두 반대한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1980 년대 신군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메시지는, 군부독재의 불의와 탄압에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도 결국 부정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체포·구속되고 사형까지 선고받았으며, 많은 시민과 사회 지도층이 두려움에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부정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곧 그 부정의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위 어록들과 마지막 어록 설명 ChatGPT 및 Perplexity 활용 검색 정리)

🛑 아래 뉴스 보도 링크* 내용 중:
(*채널 A News. (2025 년 6 월 5 일).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XyppsI83IM)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모두 5 개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당장 2 주 뒤인 18 일에 열립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예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은 중지되는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중단법'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부의한 상황.

본회의서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이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역시 처벌 조항이 사라져 면소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8 일 재판에 앞서 다음 주 안에 이 법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68 조
②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101 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 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현충일: 2025년 6월 6일>

현충일 (顯忠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도 1948 년 8 월 정부수립 후 2 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 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 년 휴전이 성립된 뒤 3 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 년 4 월 대통령령 제 1145 호로「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 월 6 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삼아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다.

***한국전쟁 (韓國戰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50 년 6 월 25 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

한국전쟁은 1950 년 6 월 25 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다. 광복 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했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역전되던 전황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상태에 머물다가 1953 년 7 월 27 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중지되었다. 한민족 전체에 큰 손실을 끼쳤고 이후 남북분단이 더욱 고착화하여 아직도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1947 년 11 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사령관은 1948 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였다. 이에 유엔소총회에서는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하여 그 해 5 월에는 남한만의 선거가 행해졌고, 8 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해 12 월의 제 3 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을 총선거가 실시된 합법정부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1948 년] 9 월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함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공산 여러 나라가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정권을 수립하여 분단을 공식화하였다. 정부 수립을 마친 북한은 곧이어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소련은 그 해 10 월부터 철병을 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공산세력의 준동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군의 주둔은 잠시 연기되긴 하였으나, 1949 년 6 월에 미국은 약 500 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남한에서 철병을 완료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그어 놓은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이었던 38 선은 이제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국경 아닌 국경선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분단 과정에서 우선 북한은 소련에 의한 계획적인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1948 년 10 월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이미 완전 무장한 4 개 보병사단과 소련제 T-34 중형전차로 장비한 제 105 기갑대대를 편성하였다. 1949 년 3 월 17 일에는 소련과 북한 간에 조소군사비밀협정이 체결되고, 또 3 월 18 일에는 중공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중국 공산군에 있던 조선군 2 만 5000 명이 북한에 인도되었다. 이로써 10 개 북한군 사단 13 만 명이 38 선에 배치되었고, 10 만 명의 예비군까지 후방에 조직되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김일성은 이어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고무되어 무력통일을 구상하게 되었다. 국외의 요인으로는 ① 1949 년 10 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고, ② 1949 년 6 월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③ 1950 년 1 월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다는 애치슨(Acheson, D. G.)미국무장관의 성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④ 1949 년 말경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 남한의 무력침공 계획에 대한 스탈린(Stalin, I. V.)의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내의 요인으로는 ① 남조선노동당의 실질적 붕괴에 따라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② 김일성은 '민족해방을 위한 투사로서의 경쟁'에서 박헌영(朴憲永)을 압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③ 남한이 아직도 정치 · 경제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었고, ④ 국군의 병력 · 장비가 열세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0 년 4 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이러한 침략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은 남북통일 최고입법회의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쳤다. ...

이렇게 하여 1950 년 6 월 25 일 새벽 북한공산군은 38 선 전역에 걸쳐 전면 남침을 개시하였다. 전쟁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25 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고 선언하고, 북한은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 선으로 철군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원조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요청은 북한에 의해 계속 묵살된 채 전쟁은 계속되었고, 6 월 27 일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트루만(Truman, H. S.)은 미국의 해군 · 공군으로 하여금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날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조치를 추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곧 이어 6 월 28 일에는 동경(東京)에 있던 미 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MacArthur, D. S.) 원수가 내한하여 전선을 시찰하고 미 국방성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조치는 다시 7 월 7 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엔 군사활동을 위하여 미국에 최고지휘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유엔군의 파견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지휘권은 미국의 맥아더 원수에게 주어졌으며, 한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육군 · 해군 · 공군 및 지상군을 파견한 16 개 국의 군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

민족해방을 표방하였던 북한의 점령정책은 인민재판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였다. ...

특히 청년 · 소년을 의용군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징집하여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후일 정전협상과정의 포로 송환문제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문제를 낳아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였다. ...

1950 년 10 월 7 일에 유엔총회는 드디어 한반도의 통일과 부흥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찬성 47 : 반대 5 : 기권 7)로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 속에서 유엔은 한국에 관한 원래의 목적이 통일 · 독립 · 민주한국을 수립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한국전쟁 수행을 위해 6 월 25 일과 27 일에 채택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초를 둔 유엔군의 행동 및 회원국들의 대한 원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①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한국의 통일 · 독립 ·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한 대표단체의 협력을 얻어 유엔주관 아래 선거를 실시한다.

③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군의 행동은 한반도의 어느 부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④ 유엔 한국위원회(1949.10.20. 설치)의 임무를 계승하기 위해 7 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를 설치, 운영한다.

이로써, 유엔군이 38 선을 넘어서 진격하는 것은 허락되었고, 이 날짜로 유엔군의 북진도 본격화하였다. 다만, 정책적 배려로서 한국군 이외의 유엔군은 소련 및 중국 국경에서부터 240 ㎞(150 마일) 밖에서만 그 행동이 허용되었다. 맥아더는 다시 북한에 항복을 권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엔에 협력하기를 권하였다. ...

이 자료들을 종합할 때, 남북한을 합친 한국민의 인명 손실은 무려 520만 명선이다. 참으로 엄청난 인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비전투요원의 인적 손실이 전사상(戰史上) 유례없을 만큼 컸다는 점에 6 · 25 전쟁의 비참성이 있다.”

#
<아빠 그때 뭐 했어?: 2025년 6월 6일>

아빠 그때 뭐 했어? 아빠 그때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 남율이랑 남휘에게 잘 보이고 떳떳하려고.♡
대선 이후 3일 연속 간 기도원. 내일도 가야 한다. 반드시 이긴다. 진실과 정의가 이긴다.

오늘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 오후 3시 예배 설교 본문

사도행전 27장
9.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43.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

#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2025년 6월 7일>

시편 73 편 (표준새번역)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 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

#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2025년 6월 8일>

잠언 Proverbs 28 장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Those who abandon the Law praise the wicked,
But those who keep the Law strive against them.

5.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Evil people do not understand justice,
But those who seek the Lord understand everything.

#
<일요일 오전 9시 주일예배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담임) 목사님 기도인도: 2025년 6월 8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에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가 불필요한 법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의를 깨트리는 입법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참되고 의로운 나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만연한 죄악들을 끊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훼방하며, 공의와 진리와 의로움을 무너뜨리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실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며..."

(서빙고 온누리교회 2025 년 6 월 8 일 일요일 오전 9 시 주일예배 이재훈 위임(담임) 목사님 기도인도)

#
<People of Taiwan, Hong Kong, and China: 2025년 6월 8일>

People of Taiwan, Hong Kong, and China,

Do not lose heart.
Be strong and courageous.
You have nothing to lose but the chains of censorship, fear, oppression, silencing—and the tyranny of "that government".

We are all human—equal in dignity, value, and worth.
Let no government tell you otherwise. Let no regime make you feel any less.

Stand up. Speak out. Stay strong.
You are many. They are few.
Stand firm against threats, cruelty, injustice, and the crushing of human dignity—
especially when tyranny wears the mask of "the people."

We, the true people of Asia, will rise—
to build a true democrac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governed by just laws, where no one stands above the law, and all are judged and protected equally under it.
We will reach a future with real elections. Real freedom.
Freedom of speech. Of thought. Of press. Of assembly. Of worship. Of conscience.

Keep fighting—not with hate, but with unbreakable hope.
You are not alone.
You carry the honor of your ancestors
and the dreams of your children.

We don't just resist tyranny—
we defend what it means to be human.

#RiseForFreedom #DefendHumanDignity
#ResistTyranny #HopeAgainstOppression
#FreeTaiwan #FreeHongKong #FreeChina
#JusticeForAll #WeAreThePeople

(Courtesy of ChatGPT)

#
<학생한테 선생님이 야단치니,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한다: 2025년 6월 9일>

학생한테 선생님이 야단치니,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한다.

그러다 들키니, 걔는 더 혼날 짓 했어요 라며 은근슬쩍 자기 잘못은 무마시키려 한다.

그래 근데 너는 너대로 잘못한 건 맞잖아라고 하니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학생"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노라며, 그 혼나야 마땅한 학생들이 도리어 "학생"의 이름을 빌어 다른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큰 공포심과 민폐를 끼치면서 선생님을 집단 폭행하기 시작한다.

이때, 다른 학생들이 용기를 내줘야 한다. 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급, 평화롭고 질서가 있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히 말해줘야 한다. 아직은 다른 학생 수가 더 훨씬 많다.

물론 선생님도 학생 눈치나 편견, 자기의 잇속이 아닌, 양심과 도덕, 진실과 정의를 사수하며, 이를 전수하고 가르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최우선에 둬야 하겠다.

더 늦기 전에, 그 일부 폭거 학생들이 나머지 학급 전체를 억누르고 짓밟게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가끔 학우와 선생님께 삥 뜯은 걸로 요구르트 하나 정도는 학우들에게 매우 선심 쓰듯 돌리기도 하는데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길들인다. 가스라이팅한다. 속으면 안 된다. 자기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비밀 냉장고에 삥 뜯은 돈으로 많이 쟁여놨다. 요구르트뿐 아니라 고급 양주랑 외제차랑 에멘탈 치즈도(북조선로동당 김정은이 가장 좋아한다는 그 치즈).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부, 용기를 내주셔서 양심과 도덕, 진실과 정의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 용기를 내주셔서 양심과 도덕, 진실과 정의를 지켜주세요.

조폭식 겁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용기를 내주세요.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양심과 도덕, 진실과 정의, 아니 오히려 어린아이는 더 명확히 아는 그것을 꼭 사수해 주세요.

동료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주셔서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목소리를 내주셔야 우리 모두가 입막음당하며 노예화되지 않습니다.

늘 함부로 "국민"을 파는 모든 정치인에 대해 동일한 엄격한 잣대로, 용기를 내서 우리나라의 양심과 도덕, 진실과 정의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지키고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해주지 못합니다. 너는 관심 끄고 다 자기한테 맡기라, 대신해주겠다는 인간들은 실은 다 사기꾼이고 오히려 나를 착취하고 노예 삼고자 하려는 것뿐입니다.

유일하게 절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된 사랑과 공의의 무한한 원천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

우리말성경 에스더 4 장

13. 모르드개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14.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15.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16.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 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제 2 의민주화운동 #독재타도 #범죄자는물러가라 #행동하는양심 #법치주의 #삼권분립 #진짜국민주권 #진짜민주주의 #진짜대한민국

#
<국힘은 나가서 싸우세요: 2025년 6월 10일>

국힘은 나가서 싸우세요. 촛불집회, 횃불집회도 열고, 국회 앞과 대법원 앞에서 다 같이 단식농성도 하고, 릴레이 기자회견과 집회도 열고, 천막당사도 치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도덕과 양심, 우리 국민을 지키세요.

그동안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사죄하는 마음만큼, 더 열심히 모든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싸우세요. <<대국민 민주주의 수호 집회부터 여세요!>> 백주대낮에 우리나라가 파렴치한 조폭정권에 넘어가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집회부터 열면 국민도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나섭니다. 일단 처한 전쟁부터 이기고 내부 갈등 해결하세요. 전쟁 이기면 내부 갈등도 알아서 해결됩니다.

#
<내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전과자이자 형사 재판 피고이자 이런 의혹이 있어도: 2025년 6월 10일>

내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전과자이자 지금도 다음과 같은 형사 재판의 피고이며,
다음과 같은 기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맨 아래 열거),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다른 학생 엄마가 나서주던가 하겠지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선생이 전에 맡았던 학급들은 다 비리, 부정부패 의혹만 무성하고 잘 된 학급은 찾기가 어려움에도,
막연하게 '그냥 우리 애 좋은 대학만 보내주면 되지 뭐' 하겠습니까?

아뇨 그럴 수 없죠. 정상적인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누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런 자가 합당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 이제는, 그 선생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과, 기타 의혹을 지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그가 피고로 돼 있는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지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다 "내란"이라고 하고, "극단적 반항"이라고 하며,
오히려 그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겁박한다면요?

좋게 말해, 적반하장. 후안무치. 안하무인. 이겠지요?

그러면서 학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도리어 겁박하고,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동료 교사도 다 겁박하고 입막음한다면요?
나아가, 나와 내 자녀 사이에 집에서 그 선생에 대해 하는 말까지 다 검열통제 하고,
안 좋은 얘기 하면, "극단적 반항"이자 "내란"이라고 한다면요?

확실히 이 선생 정상은 아니죠?
누가 극단적이죠? 선생인가요 학생과 학부모인가요?
누가 정상적이던 학급을 뒤엎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알고 보니,
교사 선발 관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직접 교사 선발 관리 절차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를 하고,
그 위원회도 사과를 했다면요?

여러분,
학교는 전학이라도 가지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밖에 없고,
나야 어느 정도 살았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
내가 살던 나라보다 현격히 더 망쳐진, 깡패 소굴로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조폭 깡패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그에게 아첨해야만 겨우 살아남으며,
도덕과 양심, 법치와 상식은 다 "극단적", "내란"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로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21 대 대선 선거관리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부실' 사과…"유권자 혼선, 책임 통감"」, 연합뉴스, 2025.05.29.,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186800001 (2025.06.10. 접속).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부실관리 송구" 사과…"원인·책임소재 밝힐것"(종합)」, 연합뉴스, 2025.05.31., https://www.yna.co.kr/view/AKR20250531047551001 (2025.06.10. 접속).

🚨 '피고인' 이재명
기존 전과 4 범에 더해,

현재 8 개 사건, 12 개 혐의로
5 개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 대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주요 재판 일정 다 연기 됐고,
- 지금은 사법부가 재판 재개 해야 함에 있어 심각하게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중

📌 확정된 전과 기록
 * 검사 사칭: 벌금 150 만 원 (2003)
 * 음주운전 (혈중 0.158%): 벌금 150 만 원 (2004)
 * 공무집행방해·기물파손: 벌금 500 만 원 (2004)
 *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선거운동): 벌금 50 만 원 (2010)

⚖ 현재 재판 중인 주요 혐의들

▣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사업을 승인
→ 내부 정보 제공 및 수익 배분 구조 조작 혐의
- 성남시 손해: 약 4,895 억 원
- 민간업자 이익: 약 7,886 억 원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성남시 내부 정보를 제공 혐의
- 민간업자 부당이득: 약 211 억 원

▣ 백현동 특혜 및 직권남용: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 혐의
→ 용도지역 4 단계 상향, 용적률 증가, 임대비율 축소 등 승인
- 민간업자 이익: 약 1,356 억 원
- 김인섭 청탁 대가: 약 77 억 원 수수
- 성남시 손해: 약 200 억 원

▣ 성남 FC 뇌물 의혹 (제 3 자 뇌물죄):
성남 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 총 후원금 규모: 약 160 억 원
- 두산건설: 42 억 (정자동 용도변경)
- 네이버: 39 억 (제 2 사옥 허가)
- NH 농협: 36 억 (시 금고 연장)
- 분당차병원: 33 억 (부지 용도변경)
- 알파돔시티: 5.5 억 (준공·민원 해결 등)
- 현대백화점: 5 억 (준공·민원 해결 등)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를 가족 사적용도로 유용
→ 음식·과일·세탁비 등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 지출
- 유용 금액: 약 1 억 653 만 원

▣ 쌍방울 대북송금 (제 3 자 뇌물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냈다는 혐의.
→ 총 송금: 800 만 달러
-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 만 달러
- 이재명 방북 비용: 300 만 달러

▣ 위증교사: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68 조
②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 101 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 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기타 의혹 및 논란

1. 이재명 측근 6 명 사망 – 반복되는 ‘의문사’

2021.12 –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 대장동 핵심 실무자
→ 대장동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

2021.12 –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 처장
→ 대장동 실무 책임자
→ 검찰 조사 중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

2022.1 – 이병철
시민단체 대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 모텔에서 돌연사 (사인은 대동맥 파열)
→ 생전 “자살 생각 없다”는 글 게시
→ 사망 당일은 유한기 사망 직후

2022.7 – 부인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40 대 남성)
→ 검찰 참고인 조사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2023.3 – 전형수
초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 성남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유서 남김
→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지요”
→ 성남 FC 사건 관련자

2024.6 – 전직 언론인 간부 A 씨
→ 김만배에게 1 억 원 수수 및 대장동 보도 청탁 의혹
→ 검찰 수사 중 단양 야산에서 사망

2. 형수에게 쌍욕
직접 녹취가 공개된 육두문자 욕설

3.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가족과 공무원 동원
법원도 이재명의 실질적 관여를 인정함

4. 성남시민 25 명 강제입원 논란

성남시 자활센터 등에서 시민 25 명(일각에선 66 명 이상 주장)을 행정입원(강제입원) 조치

5.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
성남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정황 다수 제기

6. 데이트살인 조카(국제마피아파) 변호 논란
이재명의 조카(김씨),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녀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 피해자 아버지는 뛰어내려 중상
→ 무기징역 확정,
유가족 측,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

7.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및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반복 사용
복수의 증언과 자료로 구체적 정황 드러남

8. 총각 사칭 논란
배우 김부선은 과거 이재명이 자신에게 '가정이 없다'며 총각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

9. 접대 있는 불법유흥 주점 출입 의혹
2024 년 8 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접대 형식의 불법 유흥 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곳에서 이 후보를 봤다고 증언

10. 아들 억대 도박 및 자금 출처 의혹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 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베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박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된 총재산이 390 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혐의와 의혹 정리: Courtesy of Gemini, Perplexity, and ChatGPT)

#독재타도 #민주화운동중 #삼권분립수호 #민주주의수호 #대한민국지켜

#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9 년 전에 한 공개 연설 발언)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2016-11-19 22:30), “광주시민들 “민심 안꺼진다”…5·18 광장서 시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61119046251054

#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2025년 6월 11일>

시편 94 편 (표준새번역)

“주님, 복수하시는 주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행악자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주님,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주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 버렸을 것이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의 위로가 나를 달래 줍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매일매일 기적을 살고 있다: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정치는 지정학적으로 늘 피 터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지금껏 살아 있다는 것이, 아니 애초에 태어났다는 것이 기적이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매일매일 기적을 살고 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소련 공산주의 유물론 1 당(1 인) 독재의 북·중·러(러시아는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새로운 독재자 등장),
천황제 제국주의의 일본(아직도 일본 여야 정치인들 대부분, 일본의 침략전쟁(2 차 세계대전 포함)의 여러 A 급 전범 등이 묻힌 신사에 참배),
이들 모두 실상은 강압적 멸사봉공의 전체주의,
그리고 같은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나 자기 코가 석자인 대만.

그 와중에 가장 거리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을 업신여기며 수탈할 기회만 노려왔고(지금도 서해 영유권을 노리고,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불법 반국가단체 북 조선로동당은 6.25 남침 전쟁(수백만 명의 사상자) 이후로도, 두 번의 우리나라 대통령 암살시도, 무장공비 침투 수 차례, 대한항공 민간여객기 폭파,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1, 2 차 연평해전, 핵개발 및 핵실험 6 차례, UN 안보리 결의 위반 미사일 도발 수백 번 등 수십 년째 꾸준히 광란의 폭거와 핵무력 도발 중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극심한 인권 유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험천만한 주변 상황 한가운데 한 아름다운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왔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과 가치와 기본적 자유권을 누릴 천부인권이 있고,
국민이 국가 권력계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국가 권력계층이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있어야 한다며 태어났다.
거대한 전체주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이단사이비 주체사상의 적대 세력 한가운데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태어났고,
기적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1948 제헌헌법부터 1988 현행헌법까지 계속 동일하고 명확한 국가 정체성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국민이 자유권과 참정권을 가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 세워진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정이다.
자유민주공화정, 즉, 어느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권력 독점과 세습이 아닌, 모든 성인 국민의 직접 선출로 뽑힌 공복(公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 개개인은 국가 권력 불가침의 기본적 천부인권(자유권 포함)을 갖고, 모두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법률과 제도에 의해 운영, 유지되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자유민주공화정치 체제.
이런 기특한 체제가 위와 같은 거대한 반대 세력의 광풍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

어쩌면 당연히도 이런 광풍 속에 태어난 우리 자유민주공화정은 이러저러한 많은 대내외적 존망의 위기와 도전을 겪어왔다.
안타깝게도 대외적인 도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겪어왔고(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무차별 발포를 하지를 않나... 등등),

2025 년 6 월 12 일 현재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치열하게 대내적 도전이 진행 중이며(대외적 도전은 상존),
어떤 면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일 거 같은데,
12 개 혐의(허위사실공표, 뇌물, 배임, 권력남용, 불법 대북송금(사실일 경우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음) 등)로 이미 5 개 형사 재판을 받던 신임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서로 '이때다' 하고 합세하여 우리 자유민주공화정을 협공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그 수령의 바람대로 "잔인하게" 행사하며 주권자 국민을 기망, 조롱하고,
독립된 사법부까지도 겁박하여 굴복시키려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 국민은 실시간 직면하고 있다*

(*이 부분, 즉, 법관 탄핵, 법관 청문회, 대법관 '100 명 증원', 4 심제 도입, 비법조인도 대법관 · 헌재재판관 등용, 대통령 면소법, 대통령 재판중지법(결과가 무죄인 경우는 재판 가능), 헌재 재판관에 대통령 형사재판 개인 변호사 임명 등의 시도와 발의에 대해선 이미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에서 실시간 보도 중).

(*현 22 대 국회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19 명(이중 한 명은 국무총리 내정).
제 22 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의 91%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의 사실상 자매당인 조국혁신당 소속.
거대 여당은 외국인의 간첩 행위도 형법상 간첩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형법)를 개정하는 것을 사실상 지연, 저지하고 있음.
한편 북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 칭함(너무 뻔뻔).
그리고 불과 지난 몇 개월 간의 국내 중국 간첩 이슈 관련 뉴스 몇 개:

* "중국인 간첩 공소장 단독 입수..."중국군 정보 요원이 지휘"/'삭제 복원'·'비대면' 전달... 요구한 기밀은?" / KBS News / 2025.5.12.
* "[한눈에 이슈] '비행기 촬영이 취미' 중국인이 또?...간첩법 도대체 언제 개정돼?" / KBS News / 2025.4.7.
* "사실로 드러난 '국군 매수' 중국간첩...넉 달 전엔 '깊은 놀라움·누명이라더니?'" / KBS News / 2025.4.6.
* "몰래 항모촬영한 중국인들... 현 간첩법 적용 어려워 [앵커리포트]" / YTN / 2024.11.14.
* "국정원 촬영 중국인 석방... '만약 중국이었다면?'" [앵커리포트] / YTN / 2024.11.12.)

신임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인민민주주의, 독립된 사법부 대신 인민재판부 및 권력계층을 위한 왜곡된 정의,
모든 개개인의 동등한 자유와 존엄과 가치가 아닌, 다수에 의한 폭거와 반대 소수에 대한 입막음과 탄압을 추구하며(엄밀히 말하면, 49% 표 받은 걸로 나머지 51%를 탄압 -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선관위 사과와 여러 의혹 보도들은 차치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에게(심지어 불법 반국가단체에게도) 바로 꿇고 굴종외교 자세를 취한다.

공정과 정의, 양심과 도덕,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에 따른 정치가 아닌,

허위사실공표와 사칭, 간첩매국과 측근 의문사(또는 강제입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과 배임 혐의 및 확정된 전과들을 가진 현재 진행형 형사 피고인을 필두로 하여,
유사한 전과자들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게 우리 자유민주공화정의 근간과 국격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불과 1 주일 조금 넘은 신임 정부와 거대 여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에는
나라와 민족의 존립 위기 때마다 늘 깨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국민들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여러 불가항력적인 신적 개입의 사건들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보존해 주신 역사의 주관자
만주의 주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세세히 배어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깨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불의한 권력자를 상대로 단호함을 잃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우리 국민 중에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고비도 반드시 넘어설 것이고,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강압적 멸사봉공(즉, 수령제일주의)의 체제를 겨우 유지하는 북·중·러 등지에도
우리의 자유민주 횃불이 거센 들불처럼 번져갈 날도 분명 올 것이다.
그날이 생각보다도 빠를 수 있다!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동방의 등불",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은 특유의 끈기와 의지로써
반드시 또 이겨낼 것이고, 또 역전할 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정의 전초기지이자 아시아의 본진과 같은 나라로서,
힘과 겁박이 아닌, 아름답고 인격적인 자유민주 체제의 장점과 우리 특유의 예의 바름과 정(情)과
백의민족 문화로써 '홍익인간(弘益人間)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웃 국가들과 세계가 흠모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빛의 나라"로 또다시 우뚝 설 것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1948 년 제헌헌법 전문: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1988 년 현행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헌헌법 조문 중:**
🟥제 1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 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5 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 8 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제 9 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0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 11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2 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 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 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 16 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1 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7 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제 32 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제 76 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제 77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84 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현행헌법 조문 중:**
🟥제 1 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7 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 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 12 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 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 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 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26 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7 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1 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7 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 41 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67 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101 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 103 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19 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관연재 #민주화운동중 #독재타도 #국민주권 #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대한민국지켜

#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록: 2025년 6월 13일>

요즘같이 적반하장 범죄 정권의 법 위에 서려는 독재 시도와 수령제일주의 입법 폭거 거대 여당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고, 국가의 양심과 도덕이 말살되어 가며, '더러운

평화라도 국민은 감사하라'는 식으로 공산정권들 앞에서의 매국적 굴욕외교를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이 참담한 시국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찾아보았다.

✊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정도를 걷고 당당하게 대도를 가겠다.”

“대도무문(大道無門), 정직하게 나가면 문은 열립니다. 권모술수나 속임수가 잠시 통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정직이 이깁니다.”

“날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은, 마음은 전두환이가 뺏지를 못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선택할 것이다.”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부치면 된다.”

“인생은 투쟁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부정에 대한 정의의 투쟁. 투쟁이 없으면 인생이 없고, 자유가 없으며 나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인 나 자신이 솔선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는 바이다.”

“추석 때 떡값은 물론 찻값이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로마제국은 외침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나는 북한 당국이 민족의 앞날은 물론 스스로를 위해서도 개방과 개혁의 역사적 대세에 지체없이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북한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땅에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웁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의 지도부는 타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싸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하며 자유를 위해 싸울때만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

“민주주의는 결코 이기주의나 무질서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남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는 일이 용인될 수 없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반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은 상상 이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시켰습니다... UN 은 대한민국 수립의 과정이 모두 합법이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함으로써 우리는 UN 의 승인을 받고, 공산권을 빼놓고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이렇게 가혹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용기 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삼권분립 #대한민국지켜 #독재타도 #범죄자는물러가라 #자유쟁취 #용기 #행동하는양심 #정직이이긴다 #국민주권 #국민승리 #자유민주통일

#

<조폭과 군인의 차이: 2025년 6월 13일>

조폭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재미로든, 자기 과시로든, 자기 생존을 위해서든 농락하고 갈취하고 괴롭히지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90 도로 절하고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또 맹세하며, 거기서 생긴 굴욕감과 분노를 또다시 약자에게 가서 약자를 괴롭히며 푼다.

그래서 조폭과 매국노는 강약약강,
그래서 반대로, 군인과 독립운동가는 강강약약.

#범죄권력자들은물러가라 #주권자국민을업신여기지마라 #대한민국지켜

#
<국민의 감시감독: 2025년 6월 13일>

📢 #국민의알권리 #국민의감시감독 #Accountability #Answerability #민주주의 #국민주권 #민주시민

(Courtesy of ChatGPT and Perplexity)

🗣 1. 플라톤 (Plato)
>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 Plato, The Republic
💬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대가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 플라톤, 《국가》

🗣 2.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 "The only thing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for good men to do nothing."
– Commonly attributed to Edmund Burke (source debated)
💬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 에드먼드 버크 (출처 논란 있으나 널리 인용됨)

🗣 3.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
> "If a nation expects to be ignorant and free, in a state of civilization, it expects what never was and never will be."
– Thomas Jefferson, Letter to Charles Yancey, 1816
💬 "국민이 문명 사회 속에서 무지한 채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이는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 토머스 제퍼슨 (1816 년 찰스 얀시에게 보낸 편지)

🗣 4.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
>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 Benjamin Franklin, Historical Review of Pennsylvania, 1759
💬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잠시의 안전을 얻으려는 자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펜실베이니아 역사 개관》(1759)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025년 6월 14일>

📖 잠언 29:24-27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 마태복음 10:28-33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 갈라디아서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 요한복음 12:42-46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 히브리서 13:5-6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 사도행전 5:28-32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 베드로전서 3:14-18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 이사야 51:12-16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 시편 118:6-17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 이사야 2:17-22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 예레미야 17:5-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 민수기 14: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 시편 27:1-6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시편 68:19-35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

#
<체제 및 외교안보 관련 Reposting: 2025년 6월 14일>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 사후 처벌 대책 지시"라는 오늘 자 뉴스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아래 내용들 Reposting 하며, "'(북한) 김여정 하명법' 논란 대북전단 금지법, 헌재서 "위헌""이라는 2023 년 9 월 26 일 자 뉴스 기사도 함께 게재함.

🟢 이재명 후보의 '더러운 평화' 관련 주요 발언:
꾸준한 굴종 외교, 적화 통일도 불사할 듯한 종북적 국방안보 시각.
📌 1. 2016 년 12 월 6 일
>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평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더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평화가 낫다."
📎출처: 서울신문, 2016.12.06,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 2. 2017 년 8 월 5 일 (이재명 페북 포스팅)
>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출처: 세계일보, 2017.08.07, "이재명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文 대통령, 대북전단지 제재 지지"

📌 3. 2023 년 7 월 4 일
>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출처: 연합뉴스, 2023.07.04, "이재명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 자유민주공화정 체제를 파괴하는 체제전복 세력 **OUT!**

• 자유민주 체제 전복 세력:
국민과 지도자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기본권을 갖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친한 순으로 "계층"을 나누어 존엄과 권리를 차등화 하는 반민주 세력.

• 인민민주주의식 다수의 폭거와 횡포:
개개인의 자유권, 존엄, 인격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살되는, 비인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

• 간첩 및 매국 세력:
외세와 내통하여 국가 이익을 팔아넘기는 반역자들.

• 불법 반국가단체 북한정권과 야합하는 반국가·반민족 부역자들:
조선로동당과 내통하며 국민을 김정은 체제의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자기는 한자리 받으려는 적화통일 추진 세력.

• 여론과 선거에 대한 조작과 왜곡 시도:
동등한 존엄을 지닌 국민들의 단 한 통화, 단 한 표라도 감히 멋대로 조작하는 반민주적 불법행위.

•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인질 삼는 자기방탄 정치 세력:
입법·사법·행정 간의 상호 건강한 견제를 짓밟고, 무차별 탄핵과 정치 공세로 헌법 질서를 흔들면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헌정 파괴 세력.

• 자유민주통일 반대 세력: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과 국토의 절반을 북한 불법 테러정권의 폭정과 극심한 인권유린 속에 방치하자는 양심 없는 세력.

🚩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길: 애국, 국민존엄, 자유민주, 삼권분립, 공정, 자유민주통일

#
<스웨덴 정치 경쟁력: 2025년 6월 15일>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기고문(아래 글 마지막에 출처 표기)

“대학에 있다 보니 다양한 정치인을 만나게 된다. 2010 년 연구를 위해 네 번을 만난 울프 홀름(Ulf Holm) 국회부의장은 환경당 출신의 3 선 의원으로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41 세에 국회부의장까지 올랐다. 몇 번의 만남에서 몇 가지 일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보좌진이 없었다. 국회부의장실을 들어서면 본인이 직접 나와 나를 맞았다. 그리고 외투는 본인이 직접 받아 옷장에 걸어 주었다. 그리고는 직접 커피를 뽑아 나의 탁자 앞에 놓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3 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직까지 올랐으니 이후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국회의원 되기 전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3 선 이상하면 당원과 후배정치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춥니다" 룬드에서 환경운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기에, 다시 지역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말이었다...

까다로운 정치인 윤리 잣대

그런데 큰 꿈을 갖고 입문한 스웨덴 정치인들도 공금유용,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소한 실수 등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1995 년 사민당 출신 모나 살린(Mona Sahlin) 당시 부총리는 총리 지명 1 순위였으나 법인카드와 자녀 탁아소 비용 연체 등의 문제로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 와야 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무죄로 판명 나 사법적 제재까지는 받지 않았으나 윤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품목 중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어 토블레론(Toblerone) 스캔들이라고 명명된 이 사안은 결국 그녀의 정치인생 동안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2015 년 사민당 대표로 복귀해 명예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총선에서 패해 총리까지 오르는데 실패했다. 그녀에게 끝까지 씌어져 있던 멍에는 98 회의 주차위반과 32 회 미납으로 이어진 지불명령, 탁아소 비용 연체, 유모 영수증 미처리 등으로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우파에서도 발견된다. 2006 년 총선 승리로 새롭게 임명된 마리아 보레우스(Maria Boreus) 산업부 장관과 세실리아 실로(Cecilia Stegö Chilò) 통상부 장관은 TV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산업부 장관의 경우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청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박 잊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된 지 6 일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문화부 장관의 경우 16 년간 시청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유모 도움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자 결국 새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임명 16 일 만에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했다. 참고로 TV 시청료는 시청자가 자진 신고 후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2019 년 가구 당 소유하고 있는 TV 의 숫자와 상관없이 매년 1327 크로네(한화 약 17 만원) 혹은 소득의 1 퍼센트(더 낮은 것을 부과)를 세금으로 자동 징수한다. 앞으로는 TV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명된 각료가 낙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사민당 쪽에서는 또 한 명의 당대표가 불명예로 정계를 떠났다. 호칸 유홀트(Håkan Juholt)는 2006 년 선거에서 패배한 사민당의 구원투수로 혜성처럼 등장한 당대표였지만 역시 스캔들로 낙마한 경우다. 2011 년 11 월 17 일자 석간 타블로이드 신문 아프톤 블라뎃(Aftonbladet) 1 면 톱에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 "유홀트, 의원거주지원금 거짓 신고 후 착복" 내막은 이랬다. 지방에서 당선된 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동거인의 집에 머물며 지냈다. 의원처우법에 따라 파트너와 함께 사는 아파트 임대료의 절반만 신청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2 년 동안 전액을 수령해 16 만 크로네(한화 약 2000 만원)의 부정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령액을 전액 반납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전국여론조사에서 당지지율이 10 퍼센트 이상 급락하자 당원들의 비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전 당대표 모나 살린의 악몽이 다시 소환된 것이었다. 2 주 동안 전국을 돌며 숙고한 끝에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당 대표로서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큰 과오인지는 미래가 판단해 주겠지요. 전국에서 보여 주신 저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의 질타를 고민해 본 끝에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스웨덴은

강하고, 긍정적이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민당(당시 야당)을 필요로 합니다. 다가올 선거에서 책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야당은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민당 대표직을 이 시각을 기해 내려놓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2012. 1. 12. 유홀트 사민당대표 사임사)

첫 기사가 나간 지 56 일 만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민당이 다가 오는 선거에서 부담이 되지 않기 바라며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검찰 조사에서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당에 누를 끼친 점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것이었다.

스캔들로 낙마한 스웨덴 정치인들을 보면 이권개입, 권력남용, 횡령 등과 같이 조직적인 부패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사안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법인카드 개인유용과 TV 시청료 미납, 주차위반요금 미납, 유모 영수증 미처리, 주택지원금 과다 수령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직장에서 개인 보좌관이 없고, 출퇴근을 위해 제공되는 승용차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와 번갈아 가며 자녀들을 돌보며 가사와 정치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때가 많고, 모나 살린의 경우처럼 자녀를 자동차로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 일하다가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주차위반을 당한 경우가 많다. 만찬이 자주 있는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때가 많아 유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자주 있는데, 급히 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법고용이 되고 만다. 자녀가 있는 고위직 정치인의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간과의 싸움을 매일 같이 반복해야 한다. 공과금 납부도 퇴근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보니 납부 시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의 일상

브리타 레이욘(Britta Lejon) 전 민주주의 장관을 만났을 때 소개해준 일화는 정치인의 일상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힘든 일의 연속인지 잘 말해준다. 레이욘 전 장관과는 연구를 위해 몇 번에 걸쳐 개인적 만남을 이어온 적이 있었다. 레이욘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의 일이다. 남편과 2 주씩 번갈아 가며 자녀를 아침 8 시까지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오후 4 시에 데려 오는데, 한 번은 본인 차례일 때였다고 한다. 외국에서 온 공식 방문단과 오후 행사를 마치고 만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오후 4 시에 잠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녀를 탁아소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출근해 회의와 만찬을 무사히 맞출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럴 경우 대개 시간을 잘 조율해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떠맡아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회상했다. 본인만 그런 것이냐고 물으니 정부에 있는 장관들 중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상황은 비슷하다고 했다. 사실 레이욘 장관이 소개해 준 일화는 자녀를 둔 모든 스웨덴 부모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여성 취업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80 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에 자녀를 둔 가정의 평상시 모습들이다.

이코노미석을 타는 의원들

스웨덴 정치인들이 불명예로 낙마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부패 범죄가 아닌 까다로운 윤리적 잣대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다. 이 같이 까다로운 국민의 정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원처우법, 의원입법활동지원법, 그리고 의원윤리규정 때문이다. 의원지원법의 핵심은 의원들의 처우기준과 입법 활동을 위한 교통이동수단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에 잘 담겨져 있다. 국회의원들은 거주지에서 국회까지 이동할 때 4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첫째, 비용이다. 가장 저렴한 이동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환경성이다. 환경에 더 좋은 이동수단이 먼저 선택되어야 한다. 셋째, 신속성이다. 사안에 따라 빨리 이동해야 할 때 이 조건이 충족된다. 넷째, 안전성이다. 가장 좋은 이동 수단이 안전하지 못하면 이 안전 조건이 우선한다.(의원처우법 4 장 8 절)

이 네 가지 요건은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할 때를 예를 들어보자. 가장 저렴하고 환경적이며 안전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항공편은 빠르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가격이 더 비싸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여행이므로 이 경우 친환경적인 고속열차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상황이 생겨 몇 시간 내에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당연히 가장 빠른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항공편만이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여기서도 이코노미석이 매진되었으면 모르지만 저비용 규정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런데 주소지가 스톡홀름인 의원들은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할까? 첫 번째 예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것이 도보나 자전거이겠지만, 1 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전철이 가장 빠르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된다. 두 번째 경우 촌각을 다투는 회의라면 스톡홀름에 주거지가 있는 의원의 경우 택시를 타고 등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이 된다.

이렇게 의원지원법은 국회의원의 이동수단까지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의회 사무처와 재정지원과에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비밀이 아닌 정보는 정보접근법에 따라 자유롭게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의원입법활동지원법의 핵심 중 하나는 '의원은 한 명의 정치보좌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한 데 있다.(의원입법활동지원법 3 장) 그렇다고 의원 한 명당 보좌관 1 명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좌관의 수는 원내정당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당의 필요성에 따라 원내총무에게 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50 명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는 대개 7-10 명 정도의 보좌관을 둔다. 의원들은 입법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원내총무에 요청해 파견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입법 활동을 수행한다. 의원사무실은 평균 15~20 평방미터 정도의 의원만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들은 주중 의정활동을 하다가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침대가 딸린 방을 배정받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개인 정책보좌관은 두고 있지 않다. 전화를 받는 것부터 일정 챙기기, 방문 손님맞이, 안내까지 모두 의원의 몫이다.

정치인의 정책 생산성

최근 4 년 동안 의원들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평균 법안 수는 3257 개에 이른다. 의원수가 349 명이니 1 년에 의원 당 평균 9.3 개의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022 년에 제출된 2238 개 법안 중 단독법안은

1849 개로 82.6 퍼센트를 차지했다. 따라서 다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 단독 법안 수는 의원 평균 5.3 개에 이른다. 이 숫자는 개인 정책보좌관의 지원 없이 원내정당이 채용한 정책 보좌관의 일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지만 기초자료조사 등의 도움만 받을 뿐 제출되는 법안은 오롯이 의원의 손에서 탄생한다.

의원윤리규정은 2014 년 국회의 모든 정당이 참여해 함께 합의해 만들어낸 실천규정으로 입법의 특권을 가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것(내부거래, 재산거짓신고, 뇌물수수, 선물수수)과 해야 할 것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의원은 국민의 책임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언급된 내용에 반하는 의원이 있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내에서는 원내총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원내정당에 배정된 상임위 활동, 직무 등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거나 의원활동을 잠시 정지시키는 조치는 각 당 원내사무총장의 역할이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연관된 경우는 국회의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주의, 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해서는 안 되는 항목' 중 형법에 위배된 행위는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주어지지 않고, 헌법(국가조직법 4 장 11 절)과 형법(20 장 4 절)에 근거해 범죄행위에 따라 지체 없이 사법적 절차를 밟아 2 년 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전직 총리가 정의하는 스웨덴 모델

개인적으로 만났던 정치인 중 잉바르 칼손 전 총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질문을 던졌다. "스웨덴 모델은 총리님께 무엇입니까?" 1 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는 힘주어 말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정책,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고용정책, 정치의 상생 노력, 정치인의 희생, 노사의 탄탄한 협력 구조와 노조의 책임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다. 스웨덴 모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경쟁력 있고, 모든 국민이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며, 정부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 노력한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 않으려는 정치적 노력은 깨어 있는 비판적 시민이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의 높은 정치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다. 그와의 인터뷰 중 오랫동안 남아 귀에 맴돌던 말, "정치의 상생을 위한 노력, 정치인의 희생,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구절이었다.

특권을 걷어낸 나라, 국가경쟁력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인식을 갖는 정치인, 일반 국민보다 더 혹독한 잣대로 평가받는 정치인, 가정과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법을 만들어 자신이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인, 작은 실수라도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장관 자리 국회의원도 훌훌 벗어 던지는 정치인, 15 평방미터 내외의 작은 의원실, 작은 의원 아파트에서 쪽 잠 자면서도 개인 정책보좌관 없이 혼자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 국민들 앞에 가장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국회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국가경쟁력은 어떤 지표를 비교해 봐도 상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칼손 전 총리가 이야기 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상생의 정치, 희생의 정치인은 그런 나라로 가는 필수 요소인 듯하다. 그리고 깨어 있는 비판적 시민정신은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듯하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 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출처:「[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⑥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뉴스핌 창간 20 주년 특별기고)」(최연혁 교수), 뉴스핌, 기사입력: **2023 년 02 월 07 일** 08:00 (최종수정: 2023 년 03 월 29 일 08:3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06000030 (**2025.06.15. 접속**).

#

<소련의 괴뢰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만이 일제 치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광복군의 꿈이자 대한국민의 꿈: 2025년 6월 15일>

소련의 괴뢰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만이 일제 치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광복군의 꿈이자, 1919 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국민의 꿈이고, UN(국제연합)이 공인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6.25 남침전쟁에서도 대한국군과 UN 연합군의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불법으로 한반도 이북을 점령하고, 우리 대한국민 수천만을 노예 삼고 강제 감금하고 있는 저 불법 반국가단체 조선로동당은 하루속히 패망하고, 이에 부역하는 모든 간첩 매국 세력도 속히, 온전히 훼파되길!

대한독립 만세! 🇰🇷 대한민국 만세! 🇰🇷 대한국민 만세! 🇰🇷

#우린계속독립운동중 #대한민국지켜 #자유민주통일 #진정한종전 #한반도유일합법정부
#정통성은오직대한민국 #국가관연재

#

<6.16 카톡 검열 1일 차를 맞아 내가 카톡 단톡방들에 올린 글: 2025년 6월 16일>

1. 난 이재명을 뽑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 난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3. 상스럽고 성폭력적인 이재명 본인의 저급한 통화내용과 직계가족의 인터넷 게시글들이 부끄럽고 이를 오히려 두둔하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부끄럽습니다

4. 이재명은 자신의 12 개 중범죄 혐의에 대한 5 개 형사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5.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 청문회 겁박 및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사법부 독립성을 무너뜨리려는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다 멈춰야 합니다

6. 대통령이라도, 아니 대통령이기에 더욱더 자신의 형사재판들에 성실히 임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7. 사이비 교주 같은 김어준의 말 한마디로 멀쩡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로 교회를 입막음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8. 민주시민이 계엄을 막았듯 민주시민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대통령의 삼권분립 파괴 시도를 막아서야 합니다

9. 우린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은 반국가단체이며 불법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점거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감금하고 있는 불법 테러집단입니다

11. 온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속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 돼야 합니다

12. 나는 북한과 중국의 입막음과 공포통제의 1 당(1 인) 폭압적 독재 및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그런 정권에 굴종적 자세를 취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을 비판합니다

13.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통신비밀 보장,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모든 검열과 통제 시도를 비판합니다

14. 자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내란"이라 규정하는 절대왕정식 독재에 반대합니다

#카톡검열 #자유민주주의수호 #대한민국지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잠 25:26)

#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우리말성경 사무엘상 14 장

6.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 있던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13.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14.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 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 명쯤이었습니다.

15.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16.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편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21.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23.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 내셨고** 싸움은 벧아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우리말성경 느헤미야 4 장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
<회개기도: 2025년 6월 16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삼키고 와해시키려는 외부의 죄악에 저항한다고 점점 무뎌지고 간과한 내 안의 죄악.

오직 절대 선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안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패역함, 평생을 열거해도 끝이 없을 나의 모든 죄악과 원죄를 다시 한번 토로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도 능히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 의지하며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다 통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속죄의 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 나의 모든 존재와 삶과 영, 혼, 육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나를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만 나를 사로잡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만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돌이킬 수 없이 내어드렸고 또다시 내어드리오니, 영원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아버지의 나를 향한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항상 안고 품으시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늘 품으시고, 악한 것들이 나와 나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나의 가정을 덮어주시며, 거룩한 아버지의 성령으로 나와 나의 가정을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여, 내 영혼과 삶의 중심의 보좌 위에 홀로 영원히 좌정하사 영원토록 나를 품으시고 다스리셔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아들로 나를 계속 빚으시고 영원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속 빈 강정들: 2025년 6월 17일>

속 빈 강정들이 전시 상황에 드러난다. 2022 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전까지만 해도 우린 유럽 1 대 패권국은 러시아(NATO 가 아닌 단일 국가로), 중동의 쌍벽 패권국은 사우디랑 이란, 아시아에선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꽤 뭐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난 3 년 간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건, 알고 보니 빈 수레가 요란했고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다(겉포장 빛조차도 좋기보단 탁했지만). 하물며 고작 이들의 졸개 중 하나인 괴뢰 김정은 정권은 얼마나 더 허약하겠나.

근데 도리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에게 겁을 주고 가스라이팅 하며, 반국가단체 수장에게는 아부하고, 북한 지역 감금된 우리 수천만 국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상황은 외면한 채, '더러운 평화라도 감사하다'며 굴종을 하고, 뒤로는 불법 송금을 해주며, 핵무력화를 사실상 방임, 방조했다...

국제마피아파(러시아 중국 시리아 예멘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북 조선로동당 등; 성남 국제마피아파 같은 말로만 '국제'인 동네 깡패 말고), 즉, 국제 반민주전선 앞에서 우리 아름답고 찬란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은 자신감을 가질만하다(유럽연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대한민국 등).

물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특히 중, 러는 현 국제정치 노선적으로도 상호 신뢰를 쌓기 어려운 나라들이라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25 만 원에 팔아넘기며 굴종적 평화(노예화)를 받아들일 순 없다! 누군가가 항복하지 않는 한 전쟁은 이겨야 끝나고, 우린 항복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적국의 선의에 자신을 내맡기며 자해적 무장해제를 하고 평화를 구걸하려 하는 데(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국 철수 목소리, 중국과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 남남갈등과 갈라치기로 나라 쪼개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파괴하기, 국민의 자유권 억압하기 등 다 북 조선로동당 불법 정권의 주문과 바람들을 되뇌고 이행하는 중), 이는 적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푸는 것이다. 적국 입장에서 이런 우리 정권을 만난만큼의 호재도 없다. 사실 그들(중국, 북한 포함)은 스스로 붕괴 중이었고 많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는데, 훨씬 멀쩡하고 돈 많은 중견 패권국이 와서 먼저 무릎을 꿇고 무장해제를 해주니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 정권을 너무 욕해봐야 그들을 뽑아준 동료 국민들이 있기에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자제하고 싶은 양가적 감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유민주공화정 우리나라를 대놓고 더 망가뜨리는 건 막아서야 하는 애국충정의 마음이 우세하다.

이런 정치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어있는 자유민주시민들이 역사의 최종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공의의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분명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라에서 백두에 이르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역 어디서든 마음껏, 목청껏,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 대한민국, 즉, 그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개인의 천부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자유민주체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폭압 정권 세력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 정치를 보면 답을 얻기 어려워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볼 땐 분명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뤄지는 날이 생각보다도 속히 올 수도 있을 거 같다. 우리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신적 개입과 역사의 운영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

#
<오늘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유튜브 송출 중에 북한 인공기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오늘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유튜브 송출 중에 북한 인공기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 컴퓨터나 스트리밍키 쪽으로 해킹 받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 영토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깨어나야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공기가 펄럭이는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 그안에진리교회 담임 이태희 목사님((전)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오늘 자 페북 Posting

위 Posting 및 관련 영상 자료를 내가 Reposting 하며 쓴 글:

오늘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유튜브 송출을 표적 한 북한 소행 추정 해킹. 불법 반국가단체이자 극심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주범 조선로동당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위협적이라 느끼는 건 칭찬으로 여겨야 할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조건 이기신다. 끝까지 이기신다. 원수의 머리를 부수신다!

시편 2 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68 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

#
<“회송용 봉투 2장 배부”…실수해놓고 멀쩡한 유권자 탓한 선관위: 2025년 6월 18일>

“제 21 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 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 21 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 일 오전 7 시 10 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 대 여성 투표인 A 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 진 뒤 4 시간여 만인 오전 11 시 26 분께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와 사건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기사 출처: 「"회송용 봉투 2 장 배부"…실수해놓고 멀쩡한 유권자 탓한 선관위」(강영훈 기자), 연합뉴스, 2025.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8084500061 (2025.06.18. 접속).

#
<6월 18일 오늘, 원래대로라면: 2025년 6월 18일>

원래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
6/18: 공직선거법
6/24: 대장동
7/1: 법카 유용

7/22: 대북송금

6 월 18 일 오늘, 원래대로라면,
정의와 상식대로라면,
헌법에 쓰인 대로 모든 국민이 진짜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맞다면,
특권계층이 없는 나라라는 게 맞다면,
민주공화국 정치인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가 맞다면,
사회 지도자라 일컬음 받기 원할 수록 준법과 청렴과 도덕성의 솔선수범 해야 하는 게 맞다면,
우리나라가 범죄자주권국이 아니라 국민주권국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 국가가 맞다면,

오늘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가서 성실히 자신의 범죄 혐의들에 대해(특히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그 혐의들에 대해) 소명했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는 그만 비겁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십시오. 대통령은 그만 파렴치하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성실히 재판을 받으십시오.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 위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발언 기사 출처:
연합뉴스 (2016-11-19 22:30), "광주시민들 "민심 안꺼진다"...5·18 광장서 시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61119046251054

#
<오늘 새벽예배 YouTube 송출이 해커의 타켓이 됐던 바로 그 온누리교회의 수요저녁예배: 2025년 6월 18일>

오늘 새벽예배 YouTube 송출이 해커의 타켓이 됐던 바로 그 온누리교회의 수요저녁예배. 해커는 오늘 새벽예배 라이브 도중 북한 인공기를 띄우고 북한 군가로 추정되는 음악을 송출하며 예배 화면과 음성을 22 초간이나 막았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한다. 만주의 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시며, 그의 몸 된 교회도 그럴 것이고, 이에 대적하는 모든 악의 권세는 온전히 다 파쇄되고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마태복음 16 장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0 장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한계시록 17 장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9 장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시편 68 편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시편 2 편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StandWithOnnuri #StandWithChurch #StandWithTheRepublicOfKorea #StandUpForChrist #StandUpForGod

---
(이하 ChatGPT 작성)

✝️ 전쟁 중에도 교회는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전 때도 교회는 공격받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과는 다르지만, 이 말 속에는 국제인도법의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도 인간의 신앙, 양심, 그리고 예배의 공간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국제법은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977 년 제네바협약 제 1 추가의정서 제 5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족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구성하는 예배 장소(교회 포함)에 대한 공격, 군사용도, 보복은 금지된다.”

• 제 52 조는 교회와 같은 예배당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한 민간 대상이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교회가 군사작전 본부나 무기 저장소로 쓰인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민간과 군사 목표의 구분 원칙
→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례성 원칙
→ 가능할 경우 공격 전 경고 의무

• 1998 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 8 조는 비군사적 종교시설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로 규정합니다.

•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정리한 국제관습법 Rule 38 도 전 세계 모든 분쟁 당사자에게, 교회를 포함한 문화·신앙 유산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고 선언합니다.

⛪ 다시 말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 파괴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신앙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뜻입니다.

🙏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하며,
신앙의 공간은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지켜져야 합니다.

💬 “전쟁 중에도 사람의 영혼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제인도법이 교회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수요저녁예배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한 번도 안 떴는데 중간에 콧물이 나는 거 같아서 손으로 쓱 닦고 계속했는데 예배 마치고 불 켜지고 보니 코피다..

만주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신다!

#StandUpForChrist #StandUpForGod #StandWithChurch #StandWithTheRepublicOfKorea #한국교회지켜 #대한민국지켜

#
<대한민국 영토 북한 지역 수복. 더욱더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 구출: 2025년 6월 19일>

대한민국 영토 북한 지역 수복.
더욱더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 구출.

🔥 누가복음 4 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내용:

"북한 주민 46% 영양실조 추정...만성 식량불안"

올 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한 KBS 뉴스의 기사 제목이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니, 지난 3 년간 평균 45.5%가 영양실조라는 것이다. 1990 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94 년 김일성이 죽고 난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 대다수에게 식량 배급이 끊어졌다.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30 년이 넘도록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에 남한 주민들은 살 빼기 위해 먹을 것이 많아도 안 먹고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한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20 조 원(2022. 4. 27, 연합뉴스)에 이르며, 이런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연 1 조 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한다(2021. 12. 22, 연합뉴스). 만약 남한 음식 쓰레기 비용의 절반인 약 10 조 원으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해 영양실조 걸린 46%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한다면, 그들의 배고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 배고프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어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니 더 안타깝다. 일생은 고통스러워도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 박해 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국가	순위
North Korea	1
Somalia	2
Yemen	3
Libya	4
Sudan	5
Eritrea	6
Nigeria	7
Pakistan	8
Iran	9
Afghanistan	10

출처 : Open Doors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에서 사는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세계 노예 지수 (GLOBAL SLAVERY INDEX 2023)

순위	국가	점수
1	North Korea	104.6
2	Eritrea	90.3
3	Mouritania	32.0
4	Saudi Arabia	21.3
8	Russia	13.0
9	Afghanistan	1.9
158	Germany	1.3
160	Switzerland	0.3

출처 :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북한은 세계 노예지수 1위 국가로,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왼쪽)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국가에서 사는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오른쪽) 북한은 세계 노예지수 1 위 국가로,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그러나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1 위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세계 노예지수 1 위 국가이다. 북한 동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2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굶주리고 노예 생활을 하며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에 사는 국민들과 성도들은 대부분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한국 국민들과 성도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대해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구약성경에는 한 집안이 몰락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고 그 집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무를 자'(레 25:25)다. 신약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8)라는 말씀으로 친족과 핏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강계 미생물 연구소에서만 한해 2 백여 명의 북한 주민을 생체 실험했고, 실험 대상자들은 정치범이나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러한 생체실험 연구소가 북한에 7 개가 있다는 지난 2015 년 7 월 2 일 보도 화면. ⓒMBC

1945 년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분단된 후, 80 년 동안 노예처럼 살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죽어간 북한 동포들의 숫자가 3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3 천만 명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으실 것인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에스겔 3:18)".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살리실 때 미국교회나 유럽교회를 사용하실까, 아니면 가까운 중국교회나 일본교회를 사용하실까? 주님은 분명히 한국교회와 해외 교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80 년 동안 북한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다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꿈쩍도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스더 4:13-14)".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지 못하실까? 북한 동포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한국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문제는 북한 선교에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각자의 선교지에 나가서도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북한 구원은 한 핏줄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 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로마서 9:1, 3)"."

*기사 출처: 「북한 동족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입력: **2025.06.18 22:0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8921 (**2025.06.19. 접속**).

#
<현 정부의 외교 수행과 내부 국정 운영을 볼 때 전형적인 ‘강약약강’ 같다: 2025년 6월 19일>

현 정부의 외교 수행과 내부 국정 운영을 볼 때 전형적인 <강약약강> 같다. 강대국 외교 무대 가서는 너무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속에도 없는 말 하며 억지로 비위만 맞추다가(심지어 상대도 그걸 알고 있음), 맨날 가장 만만한 국민에게는 엄근진 으름장 놓고 '반 협박, 반 배급 회유' 식으로 길들이며, 정작 자신의 범죄 혐의와 형사재판은 미루고 감추고 물타기 바쁘다.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친정권 언론도 그저 늘 정권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느라 도리어 세계 언론도 정확히 아는 것들을 말하지 못한다. '벌거벗은 임금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생각나게 한다.

온갖 선거 관리 미흡과 부정 의혹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51%의 유권자는 반이재명이었다. 진행 중이던 12 개 범죄 혐의, 5 개 형사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계속 받으라는 여론은 63% 가 넘고, 재판 중단은 26%가 채 안 된다(모르겠다가 약 10%)*. 저들이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식, 다수의 폭거 식으로 봐도, 상식과 합리, 양심과 도덕의 국민이 다수이다.

국민과 언론은 지레 겁먹고 숙일 필요 없다(불의한 권력이라도 이와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매국노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민주공화정의 선거는 우리의 공복을 뽑는 것이지 왕을 뽑는 게 아니다. 특히 일부 사법부(극히 일부라 믿고 싶으나), 제발 더 이상 어린애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용기를 내주시길 바란다. 서민에 대해선 그렇게 엄중한 공의를 시간도 잘 맞춰서 집행하면서, 왜 '수령제일주의'도 아닌 나라에서 '그'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조폭 양아치나 비겁한 자는 <강약약강>이지만, 참 군인이나 참 지도자는 <강강약약>이지 않나.

#대한민국지켜 #삼권분립수호 #국민주권 #독재타도 #진실과정의는반드시승리 #옳은편에서자

*관련 기사: “지상파 3 사 심층 출구조사,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3%.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 사가 지난 3 일 전국 17 개 시도 투표소 60 곳에서 투표자 5190 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떼어놓고 봐도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거의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재판 계속’이 87.5%로, ‘재판 중단’(7.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李 재판 계속해야" 유권자 64% 응답」(김상윤 기자), 조선일보, 기사입력: 입력 2025.06.05. 01:33
업데이트 2025.06.05. 14:16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6/05/LZHRSEE6DZCXTPZNOERIWIE6CA/
(**2025.06.19. 접속**).)

*관련 기사: 「[그래픽] 이재명 대통령 재판 현황」(김영은 기자), 연합뉴스, 송고 2025-06-10 15:26
https://www.yna.co.kr/view/GYH20250610001000044 (**2025.06.19. 접속**).

이재명 대통령 재판 현황 6월 10일 기준

추정 : 기일 추후 지정
기일을 변경·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건	혐의	진행 상황	
1	대장동 개발 비리	특경법상 배임	1심 추정(2025.6.10)	서울중앙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백현동 개발 비리	특경법상 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옛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위증 교사	1심(2024.11) 무죄 2심 추정(2025.5.12)	서울고법
3	20대 대선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1심(2024.11)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2025.3) 무죄 상고심(2025.5)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파기환송심 추정(2025.6.9)	
4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1심 진행 중	수원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5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업무상 배임		

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0eun@yna.co.kr/20250610

#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025년 6월 20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1:23 - 12:2)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2025년 6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관련 다른 모든 의혹이나 논란보다 개인적으로 가장 화가 나는 부분. 그의 충성의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인가 아니면 반국가단체 북 조선로동당인가? 그는 자유민주통일을 원하는가 적화통일을 원하는가. 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야 말로 민족의 역적이자 배신자이고 수천만 우리 국민의 인권을 극심하게 유린하고 노예 삼아 온 반인도범죄자라고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가. 극심한 폭정을 가까스로 탈출해 자유를 찾아온 우리 국민,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향해 칭찬과 격려는커녕 어떻게 배반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그야말로 왜 북한에 가서 살지 않는가.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석사학위 논문의 중국어 제목 역시 한국에서 주로 사용해 중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탈북자(脫北者)'라는 용어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란 뜻의 '도북자(逃北者)'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반면 감사의 글에서는 논문 제목에서 쓴 '도북자'란 용어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는 용어를 썼다. '반도자'는 정치적·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주로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과는 거리가 있다."

기사출처: "[단독] 김민석, 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 뜯어보니 '탈북자' 아닌 '도북자' '반도자' 용어 사용" (이동훈 기자), 주간조선, 수정 2025-06-20 16:25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42 (**2025.06.20. 접속**).

#
<북한 방사포 발사 관련: 2025년 6월 21일>

북한 방사포 발사 관련 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기사가 없고 다 백악관 입장만... 우리 정부는 감히 김정은 수령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나요? 그는 반인도범죄자라고, 우리 국민과 국토를 불법 감금, 점령하고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나요? 당장 핵포기 하고 한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좀 비켜달라고 하지 못하나요?

#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 2025년 6월 22일>

초대 여부가 불분명했던 G7 과 달리,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약속 확정된 NATO 정상회의 일정임에도 이틀 앞두고 "국내현안과 중동정세"(?)를 이유로 갑자기 이 대통령 불참 결정. 불과 며칠 전 일방적 취소당한 G7 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장 빠르게 재추진" 하여 NATO 에서라도 만나시겠다고 한 거 같은데, 갑자기 불참 통보.

북한처럼 불법 핵개발하는 나라 이란에 뭐라 하면 북한 눈치 보여서 이란에 뭐라 못하시나요? 아님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의 우방이라 뭐라 못하나요? 아님 반국가단체 북 김정은 수령동지의 러시아 파병을 두둔하시나요? 아님 이번 G7 외교참사에 따른 외교 트라우마인가요? 아님 "필요하면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라고 하신 식의 국제마피아파 북중러 수령들에 대한 알아서 눈치 챙기는 것인가요?

기왕 안 가시고 국내현안에 집중하기로 한다면 가장 시급한 대통령의 5 개 형사재판부터 얼른 성실히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권자 국민으로서 대표 공복인 대통령께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당신의 양심은 얼마짜리입니까?: 2025년 6월 23일>

당신의 양심은 얼마짜리입니까?
당신의 자유적 기본권은요?
당신의 존엄은요?

소비쿠폰 25 만 원 보다 싼가요 비싼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5 만 원보다 수 조배, 수 경배, 무한배 비쌉니다! 너무 가치가 커서 온전히 체감이 안 되더라도, 외워라도 두셨다가, 날강도 사기꾼에 의해 어처구니없게 눈앞에서 뺏기거나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넘기게 되시는 <참담한 비극>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
<현재 우리나라에 매우 시의적절한 책 1: 2025년 6월 23일>

#전체주의독재타도 #노예화거부 #조련사육거부 #우린자유민주시민 #자유와창의수호 #자유적기본권수호 #양심의자유 #사상의자유 #종교의자유 #법치주의수호 #법관의양심수호 #삼권분립수호 #진실과정의수호 #검열통제겁박거부 #국민주권국가 #정치인은공복 #범죄자의적반하장거부

📘 The Road to Serfdom by Friedrich A. Hayek

(Courtesy of ChatGPT)

🔗 How Free People Become Serfs: Hayek's Step-by-Step Warning

> "To be controlled in our economic pursuits means to be controlled in everything."

— Friedrich Hayek

⚠️ **STEP 1: Crisis Hits – People Demand Security**

A war, depression, pandemic, or inequality causes mass fear and uncertainty.

People begin to say:

> "The free market failed — the government must step in."

They trade freedom for promises of safety, order, and fairness.

> "Emergencies have always been the pretext on which the safeguards of individual liberty have been eroded."

📉 Freedom starts to shrink, not by force — but by consent.

🧰 **STEP 2: The State Begins to "Plan" the Economy**

Politicians, experts, and technocrats claim they can fix everything — if only they have enough control.

They introduce:

- Price controls
- Wage limits
- Production quotas
- Redistribution policies

> "The more the state 'plans', the more difficult planning becomes for the individual."

⚠️ These policies require coercion — some people must be forced to comply for the plan to work.

🚔 **STEP 3: Laws Become Arbitrary – Rule of Law Erodes**

As central planning grows, clear, universal laws give way to bureaucratic rules, shifting policies, and political discretion.

> "In a planned economy, the law becomes a mere instrument of policy."

The state no longer acts as an impartial referee — it picks winners and punishes dissenters.
- Business licenses go to allies
- Regulations are selectively enforced
- Legal standards shift to serve "the Plan"

📉 People lose confidence in fairness or stability.
🛑 Equality before the law dies, replaced by rule by favors and fear.

🧍 STEP 4: Citizens Become Subjects
People lose the power to make economic choices for themselves.
They grow dependent on the state for jobs, food, housing, healthcare, etc.
Free initiativ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moral judgment wither.
> "We are rapidly becoming a nation of people who expect everything to be done for us by the government."

📌 Serfdom begins here — not with chains, but with dependence.

⬆️ STEP 5: The Worst Rise to the Top
Total planning demands obedience, not creativity or conscience.
Those willing to suppress dissent, lie, and enforce ideology rise fastest.
> "The worst get on top."

📉 Good people are pushed out. Power rewards the ruthless.
In a centrally planned system, power flows not to the wise or moral, but to those most willing to enforce the Plan without question.

⚙️ Why?
Obedience > Conscience: The system doesn't want thinkers — it wants enforcers.
Ends justify means: Ruthlessness is rewarded if it serves "the cause."
Fanatics rise, moderates fall: Loyalty matters more than truth or integrity.

📉 The Result:
- The honest are pushed out.
- The ambitious and unprincipled take control.
- Virtue becomes a liability; cruelty becomes power.

🟥 From Stalin to Hitler to modern dictatorships, the pattern is clear:

> When the system demands control, only the most controlling survive.

👄 **STEP 6: Dissent Becomes Dangerous – Propaganda Replaces Truth**

To keep the plan going, the state controls speech, media, and education.

Critics are labeled "anti-social," "selfish," or "enemies of the people."

> “Truth is not determined by democratic vote. But under planning, it is what the planners say it is.”

🧠 Thought becomes a crime. People censor themselves to survive.

☠️ **STEP 7: Freedom Dies – Tyranny Consolidates**

Democracy becomes hollow. Elections exist but are meaningless.

Everything — economy, speech, culture, religion — now serves the regime.

The state becomes absolute.

Hayek saw this clearly in both:

🟥 The USSR (socialist central planning)

🟫 Nazi Germany (nationalist central planning)

> “Though starting from opposite ends, the communists and the Nazis meet in the same spot: absolute control.”

🔚 **This Is the Road to Serfdom**

Not sudden slavery.

But gradual submission, step by step, each one justified as “necessary,” “fair,” or “efficient.”

✅ **Hayek’s Alternative: Freedom + Rule of Law + Markets**

He supports:

- Limited government
- Clear, general laws
- Free exchange of goods and ideas
- Moral responsibility rooted in individual liberty
- Safety nets — but only if they don’t destroy choice or breed dependence

🛡️ **Final Quote to Remember:**

> “We must face the fact that freedom can be preserved only if it is treated as a supreme principle which must not be sacrificed for anything else.”

— F.A. Hayek

표준새번역 사무엘상 8장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하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는 또 너희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때에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 때에 주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
<현재 우리나라에 매우 시의적절한 책 2: 2025년 6월 23일>

#도덕수호 #국격수호 #도덕이실력 #민주시민의저력은도덕성 #조련사육거부 #전체주의독재타도
#참된민주주의 #자유민주시민 #신앙의자유 #양심의자유 #다수의폭거거부

(Courtesy of ChatGPT)

📘 Democracy in America by Alexis de Tocqueville

Written after his visit to the U.S. in 1831–32
Tocqueville was a French aristocrat and political thinker who visited America to study its prison system — but instead, he wrote one of the most profound books ever about democracy, freedom, and the character of American society.

🧠 Key Themes & Warnings from Tocqueville

1. 🗳️ Democracy's Strength: Equality

Democracy is rooted in equality of conditions — it breaks down inherited privilege and opens opportunities to more people.
Tocqueville admired local self-government, civil associations, and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 "The greatness of America lies not in being more enlightened than any other nation, but rather in her ability to repair her faults."

2. ⚠️ Democracy's Danger: Soft Despotism

Tocqueville warned not of violent tyranny, but of a quiet, creeping despotism:
A large, benevolent government that takes over more of people's lives
Citizens become comfortable, passive, and dependent
> "The will of man is not shattered, but softened, bent, and guided."
This leads to a nation of sheep, where people surrender freedom for comfort and security.

3. 🧍 The Tyranny of the Majority

In democratic systems, there's a danger that the majority will:
Crush minority opinions
Enforce conformity
Treat dissent as disloyalty
> "The majority lives in the perpetual utterance of self-applause."
He warned that freedom of thought could vanish not by law, but by social pressure.

4. ✝️ Religion and Freedom

Tocqueville saw Christianity as vital to American democracy.
Religion didn't rule the state, but it nurtured moral self-government and disciplined liberty.
> "Liberty cannot be established without morality, nor morality without faith."

5. 🏛️ Local Institutions and Civic Life

Democracy is sustained not just by elections, but by citizens actively participating:
Town meetings
Juries
Voluntary associations

These kept people engaged and responsible, preventing centralization.

🔚 **Tocqueville's Core Insight:**
> Democracy survives only if people remain morally strong, politically active, and spiritually grounded.
Without virtue, freedom becomes chaos.
Without responsibility, equality becomes envy.
Without God, democracy becomes idolatry of man.

#
<몇 권 더 추천: 2025년 6월 23일>

If you appreciated Hayek's The Road to Serfdom and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you're drawn to classic works on liberty, democracy, power, and the moral foundations of freedom.

Here's a curated list of similar or complementary books, divided into themes:

(Courtesy of ChatGPT)

#자유적기본권 #천부인권 #하나님의형상대로창조된인간 #인간의존엄 #전체주의독재타도 #신앙의자유 #도덕과양심수호 #인격수호 #국격수호 #자유민주시민

⚖️ **1. On Liberty vs. Tyranny (Like The Road to Serfdom)**

✍️ **The Law – Frédéric Bastiat**
Short, powerful defense of limited government, private property, and how laws are corrupted by socialism or special interests.
> "The law is perverted when it punishes lawful defense... and converts plunder into a legal right."

✍️ **The Servile State – Hilaire Belloc**
Critiques the tendency of welfare-statism to create a dependent, obedient population — a bridge between economic control and social control.

✍️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 Hannah Arendt**
A deep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how modern totalitarian regimes emerge (Nazism and Stalinism), with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sights.

✍️ **Capitalism and Freedom – Milton Friedman**

Shows how economic freedom underpins political freedom, and how overreach in government control leads to inefficiency and tyranny.

🗣️ 2. On Democratic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Spirit of Self-Government

✍️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 Edmund Burke
Argues that stable liberty depends on tradition, moral order, and gradual reform — not revolutionary upheaval.

✍️ The Federalist Papers –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John Jay
Foundational essays explaining why the U.S. Constitution balances liberty with order. Themes of human nature, factions, and checks on power.

✍️ Two Treatises of Government – John Locke
Defends natural rights, limited government, and the right to resist tyranny. Profoundly shaped American founding thought and Tocqueville's ideal of liberty grounded in law and reason.
> "The end of law is not to abolish or restrain, but to preserve and enlarge freedom."

✍️ Politics – Aristotle
Ancient, yet incredibly relevant. Explores different forms of government, the role of virtue in political life, and how regimes rise and fall.

🕊️ 3. Bridging Both Worlds (Freedom + Moral Order)

✍️ The Road to Character – David Brooks
Modern but Tocquevillean in spirit — explores how personal virtue and humility are essential to sustaining a free and meaningful society.

✍️ The Constitution of Liberty – Friedrich Hayek
A more comprehensive and philosophical continuation of The Road to Serfdom — tackles liberty, law, tradition, and spontaneous order.

✍️ Liberty and Tyranny – Mark R. Levin
Modern American conservative warning against the expansion of state power and progressive centralization — a contemporary defense of classical liberty.

#

<대통령실 국민사서함: 2025년 6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만든 온라인 "국민사서함"("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은 한 줄, 국민사서함에 남겨주세요.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합니다. 국민의 질문이 국정을 움직입니다")이란 곳에 아래와 질문을 남겼다.

"도대체 왜 12 개 범죄 혐의 5 개 형사 재판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피고 대통령이 무죄면 판결 가능하고 유죄면 재판을 중지하라', '대통령에 대해 유죄 낸 대법관을 탄핵/청문회 해야 한다', '대법관도 대폭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4 심 제도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내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등
이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으로 솔선수범하여 청렴결백해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수령제일주의 마냥 법과 국민 위에서 독재군림 하려는,
이런 파렴치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나 내란적 발상과 발언, 입법 시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어떤 자가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에 8 백만 불이나 불법 송금을 하고 자국민에 대해선 '더러운 평화'라도 감사하라며, 종중/종북주의적 굴종외교관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매국, 외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6.25전쟁 75주년: 2025년 6월 25일>

불법 기습 남침 6.25 전쟁 75 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과 UN 연합군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소련 괴뢰 정부 조선로동당의 극심한 인권유린 치하에서 살고 있지 않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 국민 북한 주민이 지금도 극심한 사이비교주 폭정 속에 살고 있음을 통탄이 여기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왜곡된 종북적 역사관과 굴종평화 발언들을 일삼는 정치인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좌·우 이전에 15: 2025년 6월 26일>

간첩, 매국, 비리, 은닉, 배임, 횡령, 뇌물, 의문사, 자기 재판의 판검사 겁박, 거짓, 쌍욕, 불륜, 사칭, 허위사실공표, 성폭력적 발언과 게시글, 논문표절, 체납, 채무 미상환 등... 제발 이런 걸 "좌파", "우파"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기본적 양심과 도덕, 인간성의 문제이고,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건실한 시민과 조폭의 차이이자, 그저 범죄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정치철학적 문제인가.

#
<북한인권 관련 지수 소개: 2025년 6월 26일>

통일연구원 (KINU) (2025). 북한인권정보 플랫폼. 북한인권 관련 지수 소개:
https://www.kinu.or.kr/nkhr/html.do?nav_code=nkh1735264622 [접속일: 2025 년 6 월 26 일]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정부기구 (NGO)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이다. 프리덤하우스는 1972 년부터 매 년 전 세계 국가의 세계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세 계자유지수는 주요 자유권 전체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종합보고서이며,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로 나누어 각각 3 개의 세부항목 40 점, 4 개의 세부항목 60 점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100 점으로 구성되었 다. 프리덤하우스의 "2023 Freedom in the World" 평가에서 북한의 자유지 수는 2024 년에도 변화가 없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체 100 점 만점에 3 점 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자유가 없는 국가군'(Not Free)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은 '개인의 자율과 권리' 항목에서 16 점 만점에 3 점 받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0 점을 부여받았다."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 정부기구(NGO)는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이다. RSF 는 2002 년부터 전년도 각국의 언론 자유 기록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국 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각국의 언론인, 언론 단체, 네티즌이 누리는 자유의 정 도와 언론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RSF 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언론의 자유만을 다루며, 각국의 저널리즘의 질을 평가 하지는 않는다. RSF 가 2024 년에 발표한 "2024 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180 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2024 년 20.66 점 (177 위), 2023 년 21.72(180 위), 2022 년 13.92(180 위), 2021 년 18.72.(179 위), 2020 년 14.18(180 위)로써 '매우 심각함(40 점 미만)'에 포함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의 정보통신 IT 전문 보안업체 '캠패리테크'(Comparitech)는 2020 년 1 월 "인터넷 검열 2020: 세계인터넷통제지도"(Internet Censorship 2020: A Global Map of Internet Restriction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181 개의 조사대상국 중 북한은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세계사회진보지수(Global Social Progress Index, SPI)**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2011 년부터 발표하 여 2023 년까지 170 개국의 사회진보 데이터를 추적하여 전 세계 사회적 진전을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이다.... 개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여성의 재산권 등은 6 점으로 최하위 149 위를,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가입과 인터넷 사용자, 언론 검열 등에서도 5 점으로 149 위를 평가받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세계사회진보지수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국의 미디어 분석 전문업체 '위아소셜'(We Are Social)과 캐나다의 소셜미 디어 관리 플랫폼인 '훗스위트'(Hootsuite)는 '2020 디지털: 국제현황'(2020 Digital: Global Digital Overview)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세계에서 유 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조상 대 상 212 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세계종교자유리스트(World Watch List)**는 오픈 도어즈(Open doors)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의 종교자유에 대한 박해지수 보고서이다. 오픈 도어즈는 2001 년 "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를 처음 출판하고 박해에 직면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후 매년 종교의 자유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50 개국을 대상으로 "세계감시리스트"를 발표하고 연례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종교 박해순위 1 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5 년 "세계감시리스트"(World Watch List 2025)에서도 '극심한 수준의 박해'(Extreme levels of persecution)를 받는 국가 1 위로 평가되었다."

"**세계박해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는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서 발간하는 국가별 기독교에 대한 박해지수 보고서이다. 국제기독연대는 1995 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 교회를 지원·옹호해왔으며, 2021 년부터 북한을 포함하여 첫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5 년에도 '연례박해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 2025)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은 4 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선정되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문, 강간, 살인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지역 20 개 가운데 가장 심각한 8 개(Red Zone)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에스더 4 장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잠언 24 장
11.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누가복음 4 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부정선거: 2025년 6월 27일>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즉, 모든 국민은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갖는 체제로서, 수령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이기에, 1 인당 1 표의 평등 보통 비밀 직접 선거가 보장돼야 하고, 단 1 표라도 부정이 생기면, 이는 한 명의 국민의 주권이 무시되고, 그 한 명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되는 정치적 살인이 범해진 것과 같다.
명확히 드러난 부정에 대한 변명이란 게, 가령, '한 명 밖에 안 죽었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고, 여러 표의 부정이 있었으면 학살인 것이다.

수많은 부정, 비리의 정황과 혐의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증거와 증인을 기반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안 심리 및 재판을 제대로 받고,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판결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
만약 판사가 선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구조라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면 더더욱 선관위는 자신의 결백을 민주시민에게 끝까지 성실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여쭙니다. 살인죄 피고의 아빠가 해당 재판 판사라면, 그냥 재판 안 받아도 될까요? 있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져도 되나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닌, 양심과 진실과 정의의 문제.

민주국가의 헌법기관 중 성역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피와 같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라면 더욱 투명하고 결백해야 마땅하다.

이래서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난 거다. 기득권 구조 안에서 도저히 자정이 안 되고, 정의로운 처리가 되질 않으니 말이다. 국가 기관의 범죄 혐의를 고발하는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고, 고발된 혐의가 틀렸음을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민주국가에선 공권력과 공기관에 있지 않은가.
민주권력은 공복으로서 주권자 국민에게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IEMT)이 폭로한 대한민국 6.3 대통령선 거 부정선거 증거와 각종 부정 사례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 기 시절 국제형사재판 담당 특사를 역임한 북한인권문제 전문가 모스 탄(Morse H. Tan) 전 대사를 비롯한 국제 선거감시단은 26 일 오전 11 시 워싱턴 DC 에 있는 내셔 널 프레스클럽 젠거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략 1 시 30 분 가량 한국 6.3 대선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부정선 거의 정황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탄 전 대사 외에 중국 위협 대응위 원회 소속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출신 존 밀스(John Mills) 퇴역 육군 대령, 브래들리 테이어 Bradley A. Thayer) 시카고대학 정치학 박사, 그랜트 뉴셤(Col. Grant Newsham) 등이 국제선거감시단 일원으로 참가했다."

미주중앙일보. (2025 년 6 월 26 일). ""6.3 부정선거 확실" 사전투표 등 문제." (김성한 기자)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0626125050377

위 국제선거감시단(IEMT) 미국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 영상(Report on Election Fraud in the June 3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KCPAC (2025. 6. 26.)
https://www.youtube.com/live/p508Q66_zCU?si=ZCn5rKrpJNOYdwVB

#
<대통령 지지율 관련 풍자적 비판: 2025년 6월 27일>

이런 포스팅* 올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이런 걸 써야 하는 게 좀 자괴감이 들고 시국이 비참하지만, 때로는 풍자가 전달력이 더 효과적인 거 같아서요. 애국충정의 진심만은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기 얼굴의 침 뱉기라는 것에 대해선, 일리 있는 말씀이지요. 다만,
우선 현 정권이 야당일 때 얼마나 더 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지 신성불가침의 왕이나 교주가 아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기에 타당한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할 건 해야만 책임 있는 국민이란 점.
둘째로는, 내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그래도 내 몸의 일부인데 종양을 비판하거나 치료하려 하거나 도려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함께 품고 원만히 타협하며 악성 종양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시나요?
그런 자가 있으면 사실 그는 당신을 죽이려는 자이고, 그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지길 바라는 자의 편인 것이지요.

참고로, 그 사람 자체가 악성종양이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면서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지은 죄가 많은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 즉,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와 긍휼과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지요. 달리 말해,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려주는 긍휼의 마음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듯 말이지요.

***위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대라는 기사에 대해 내가 단 아래 댓글 스크린샷:**

"어?? 60%밖에 안 돼요? 김정은, 시진핑, 푸틴도 90% 넘게 지지율 나오는데, 우리 재명수령동지는 120%! 아니, 1,000%!
100%가 상한이라고요?? 그럼 여론조사 관련 법을 개정하여 우리 민주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도록 하세욥!! 해당 개정법을 헌재에서 기본 산수를 문제 삼아 감히 위헌 판결 내릴 수 있다고요?? 그럼 국민의 뜻에 더 합한 헌재 재판관들로 바꾸세욥!! 김어준이나 유시민 정도로! 그리고 개정법 반대한 내란 재판관들 탄핵!!!! 국민주권!!

뭐요? 선관위도 사과한 사전투표 관리 “미흡”에도 불구하고(대수의 법칙까지 거스르며 재명수령동지 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 사전투표), 국민 중 51%는 재명 수령 말고 다른 후보 뽑았다고요?? 51% 능지 내란 국민도 다 탄핵 수감! 떽!! 이 기회에 헌법도 수령동지찬양만 가능하도록 개정!!”

#
<김현기님이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4-36)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6:9-11)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 32:3-4)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슥 2:11-13)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4-26)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20-21)

#
<좌·우 이전에 16: 2025년 6월 28일>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라 파괴이고,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니라 퇴보이며,
진실과 정의, 양심과 도덕, 인간성과 천부인권을 보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책임 있게 발현할 때 그 사회와 문명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진보를 이룰 수 있으나,
이런 기본 가치들을 보수하지 못하고 파괴할 땐,
그 사회와 문명은 결코 진보하지 못하고 반드시 퇴보한다.

달리 말하면, 거짓과 이중잣대, 왜곡된 정의, 다수의 폭거와 약육강식, 위선과 후안무치 같은 게 판칠 때,
그 사회와 문명은 반드시, 반드시 파괴되고 퇴보한다.
이런 양상은 소위 급진적 좌파, 극단적 우파 모두에서 나타나는 양상이고, 실은 이때부턴 정치철학은 명분적 핑계일 뿐, 자기 의(self righteousness)로 충만한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기만족적 폭력 행사이다.
그 결과는 늘 학살과 야만이다. 파괴와 퇴보이다.

우리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상, 우린 양심 인륜 도덕 도리 염치 반성 정직 회개 겸손 존중 책임 인격과 같은 걸 사람의 명예를 걸고 지켜야 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회개하며 또다시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성이 유지되고, 우리 사회와 문명도 야만으로 퇴보하지 않는다.

에스겔 22 장
29.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51 편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히브리서 9 장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갈라디아서 5 장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
<기독교 박해 순위! 1위 반국가단체 북한정권: 2025년 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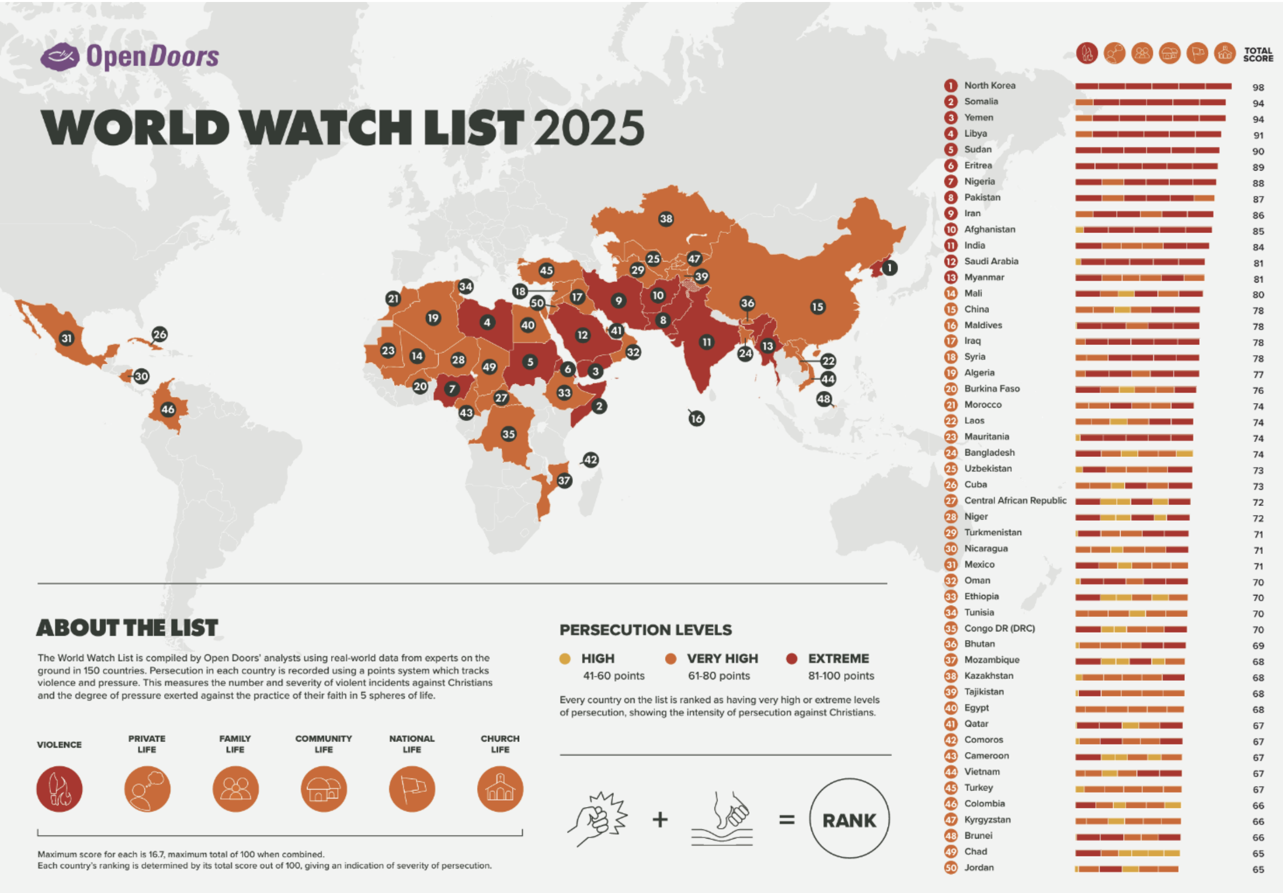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 순위! 1 위 반국가단체 북한정권.
Christian Persecution Ranking. #1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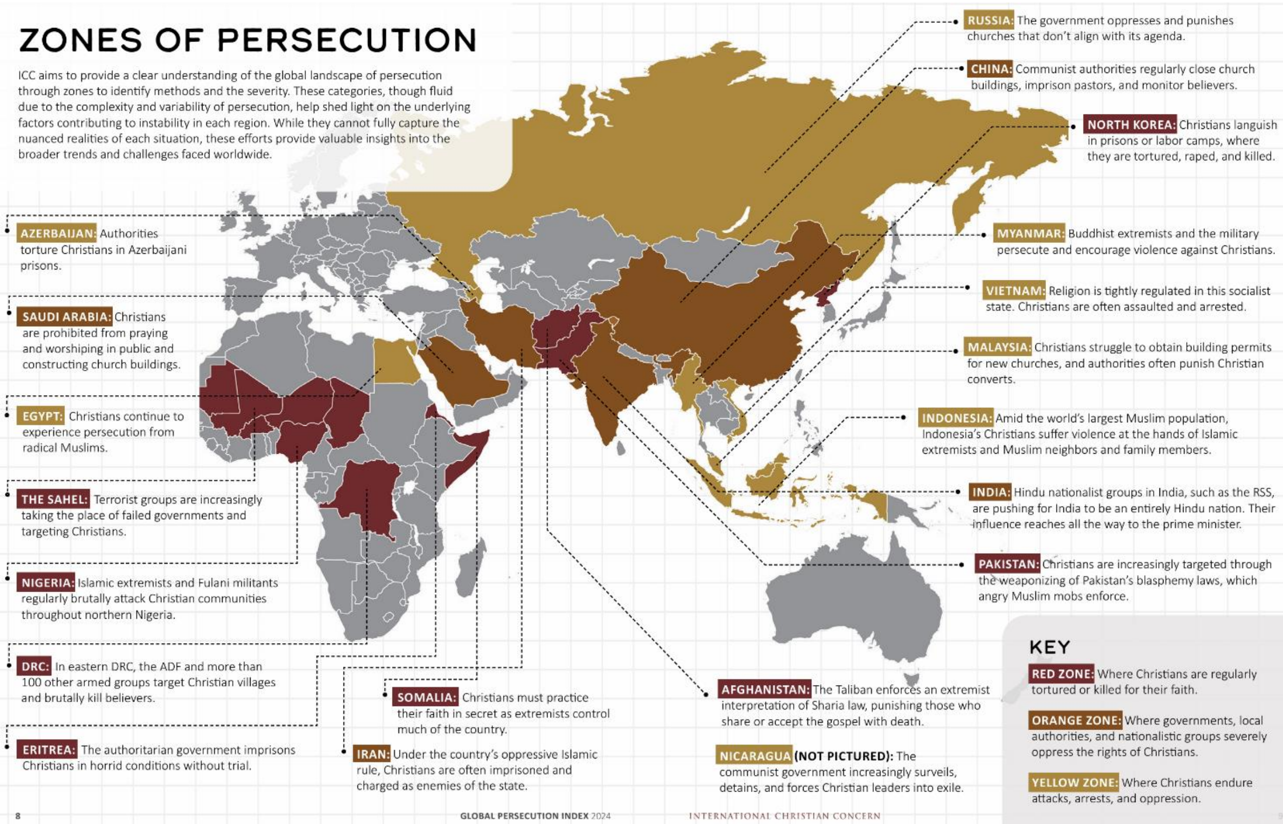
- World Watch List 2025 (Open Doors) https://www.opendoors.org/en-US/persecution/countries/
- Global Persecution Index 2025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https://www.persecution.org/gpi/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2-23)

ESV Psalms 94

“Rise up, O judge of the earth; repay to the proud what they deserve! O Lord , how long shall the wicked, how long shall the wicked exult? They pour out their arrogant words; all the evildoers boast. They crush your people, O Lord , and afflict your heritage. They kill the widow and the sojourner, and murder the fatherless; and they say, “The Lord does not see; the God of Jacob does not perceive.”... For the Lord will not forsake his people; he will not abandon his heritage;... [T]he Lord has become my stronghold, and my God the rock of my refuge. He will bring back on them their iniquity and wipe them out for their wickedness; the Lord our God will wipe them out.”





NORTH KOREA

OVERVIEW

WHAT GROUPS/ENTITIES ARE CAUSING THE MOST HARM?

Ministry of State Security, Prisons Bureau: Directly reporting to Kim Jong Un, the country's supreme leader,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administers the country's network of political prisons in which an estimated 120,000 people are detained for real or imagined opposition to the regime.[1] A large but unknown number of religious prisoners, mostly Christians whom the regime considers to be enemies of the state, are among those detained.

In these prisons, torture, rape, slave labor, starvation, and infanticide are common, according to survivors who have escaped to other countries and testified about their experiences. Prison guards are empowered to engage in the most heinous of crimes against humanity, protected from consequence by a regime that uses this network of political prisons to suppress any form of dissent.

Judiciary of North Korea: North Korea's judicial system, with the Central Court at its head, imposes the country's draconian laws on any who attempt to follow Christianity — a faith which, according to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is "especially vulnerable" to persecution.[2] Being caught praying, owning a Bible, listening to sermons, or gathering with other believers are all crimes under the law as enforced by the judiciary.

WHAT INDIVIDUALS ARE CAUSING THE MOST HARM?

Kim Jong Un: The latest in a dynastic line of repressive North Korean dictators, Kim Jong Un is bent on furthering a system designed to suppress religion, eliminate dissent, and elevate Juche — the country's official ideology. The Kim family has ruled since the country's establishment in 1948, passing power down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and deepening the cult of personality around itself. Since taking the role of supreme leader in 2011, Kim Jong Un has continued the country's extreme persecution of Christians.

Under Kim, Christianity is brutally restricted. Aside from the narrow confines of the state-sponsored church, which is kept for show, religion is viewed as a direct threat to the state. Owning a Bible, praying, or talking about one's faith can result in torture, imprisonment, or death. In place of religion, the regime demands fanatical devotion to the Kim family and the mythology surrounding it. This political philosophy, which has taken on the unwieldy name Kimilsungism-Kimjongilism, reigns supreme in the country and leaves no room for free religious practice.



"PERHAPS THE MOST DANGEROUS COUNTRY ON EARTH TO BE A CHRISTIAN, NORTH KOREA HAS PERFECTED A NATIONAL SYSTEM TO ELIMINATE THE CHRISTIAN FAITH, WHICH IT SEES AS AN EXISTENTIAL THREAT TO ITS GRIP ON POWER."

—ICC STAFFER

STATE DEPARTMENT STATUS

COUNTRY STATUS

SWL | CPC

2023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TRAVEL ADVISORY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DO NOT TRAVEL to North Korea due to the continuing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of U.S. nationals. Exercise increased caution to North Korea due to the critical threat of wrongful detention. (State Department, as of July 24, 2023)

PERSECUTION MEASURES

POLITICS

Perhaps more than in any other country, a desire for complete political power is what drives persecution in North Korea. Loyalty to anything other than the Kim family and the North Korean state is viewed as treason,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authorized to use any means necessary to punish citizens showing any signs of faith. While this is true for all faiths, the regime views Christianity as a particularly dangerous threat to its grip on power since Christianity had a strong foothold in the country before the Kim family came to power in 1948.

For propaganda purposes, the government maintains a state-sanctioned church in the capital, Pyongyang, but does not allow the site to be used for any real Christian worship or belief.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watchdog group Freedom House, "intense state indoctrination and repression preclude free and open exercise of religion" in North Korea.[3]

EDUCATION

Education, along with every other aspect of North Korean life,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used to indoctrinate citizens. According to Freedom House, the state approves all curricula, and the system is such that there is "no academic freedom."[4] At every turn,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ed to intense propaganda and steeped in hatred and fear of "Western" influences, including Christianity. Those deemed less loyal to the regime are kept from educational opportunities.[5]

Those caught pursuing ideologies other than Kimilsungism-Kimjongilism are swiftly arrested and often put in reeducation camps where they are intentionally broken down mentally and physically and fed a steady diet of state-sponsored indoctrination.

ARRESTS & IMPRISONMENTS

While reliable statistics about the internal affairs of North Korea are hard to find, it is estimated that about 120,000 people are currently detained in the country's extensive prison system. Of this number, as many as 70,000 are detained because of their Christian faith — a shocking statistic and one that underscores the enduring importance of Christianity in North Korea despite decades of oppressive rule.[6]

The government holds prisoners in several types of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designed for political prisoners, detention facilities for those caught trying to escape the country, forced labor camps around the country, and Russia, which pays North Korea for forced prisoner labor. In each of these facilities, reports indicate that torture, rape, forced abortions, and the killing of children are chillingly common, with no regard for human dignity or basic human rights.

SURVEILLANCE

As is common in communist and socialist states, North Korea surveils its citizens extensively to manipulate and control its people. Officials demand that citizens help them in this effort, with severe punishments given to any who do not proactively report their friends, family, and neighbors to the police.[7]

Speak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 Volker Türk,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estified to increased fear of surveillance in recent years. "Homes are subjected to random searches," according to a U.N. summary of his briefing, "and people are encouraged to report on each other. Punishments for minor infractions can be severe."[8] Under such conditions, Christians are forced to practice their faith with the utmost secrecy. They cannot freely discuss their faith, gather with fellow believers, or listen to Christian radio broadcasts from overseas.



ICC NEWSROOM

Bible Possession Leads to North Korean Toddler, Parents Imprisoned for Life

May 30, 2023

North Korea has reportedly sentenced a two-year-old to life in prison after his parents were arrested for possessing a Bible,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s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2022. The child's parents were taken into custody after being found with a Bible, which is considered contraband in North Korea.

North Korea's government, known for its tight information control and religious suppression faces widespread criticism for its human rights record. This latest incident adds to concerns about the regime's opposition. As many as 70,000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minorities are imprisoned in camp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also continues to be denied, with no alternative belief systems tolerated by the authorities," António Guterres,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said in the report outlining liberty religious atrocities that have occurred in North Korea in the past years.

The Unstoppable Gospel in North Korea

Sept. 19, 2024

Illyong has witnessed firsthand the brutal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North Korea. His family has been torn apart, with many members taken into political prison camps after their faith was discovered. Despite these harrowing experiences, Illyong remains hopeful for his homeland.

"The gospel is unstoppable," he declared, a belief that fuels his advocacy for North Korean Christians. "I feel an obligation to tell my story ... I hope that my testimony will contribute to informing the world of the oppression that North Korean people are suffering."

Illyong shares that despite severe persecution, the Bible has become known in North Korean markets as a "book of blessings." This remarkable spread of faith highlights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Christians, who, like the 7,000 righteous who did not bow to Baal, stand firm against the regime's oppression.

To read more persecution news from North Korea and other regions, visit www.persecution.org

North Korea's Fiery Furnace April 18, 2024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 oppressive regimes, systematically targeting Christians as part of its control over dissent and free expression. North Korea's hatred of Christianity, seen as a competing ideology, has led to the execution of up to 70% of captured Christians, while others are sent to brutal labor camps or gulags, where they face starvation, torture, and forced labor. Christianity is driven underground, with believers hiding their faith even from family. The state employs a web of control comprised of the songbun caste system, a pervasive police state, and the gulag network to maintain loyalty and suppress any perceived disobedience.

North Korea Again Tops List of Worst Christian Persecutors Jan. 20, 2024

North Korea has again topped Open Door's World Watchlist of the 50 countries with the worst record and levels of Christian persecution.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has regularly highlighted the atrocities and huge suffering that North Korean Christians face under Kim Jong Un's tyrannical regime. ICC included the hermit kingdom in its comprehensive 2023 annual persecution report.

China, North Korea Working Together to Persecute Christians Aug. 23, 2024

According to a new report, China continues to aid North Korea in its relentless persecution of Christians.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recently published its findings on the alarming lack of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and China's role in helping to spur it forward.

"The government of China continues to cooperat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ncluding those who have engaged in religious activities or come in contact with Christian missionaries, despite the risk of torture or other severe punishments upon return," the statement read.

As North Korea shares a large border with China, many North Koreans flee persecution and travel to China in a desperate attempt to start new lives. It's a calculated risk that many make, hoping to find human kindness from Christian missionaries or others who will help them before authorities catch them. However, for many of these individuals, life remains bleak. Stories of human trafficking and mal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t the hands of Chinese authorities and organized crime rings are common.

108 GLOBAL PERSECUTION INDEX 2024

ICC @ WORK

This year, ICC implemented some inventive projects to support North Korean Christians. However, we cannot talk about these projects openly. One project that has continued is our ongoing partnership and support of Free North Korea Radio, which broadcasts gospel messages into North Korea from South Korea and delivers gospel resources a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n Christians.

SUMMARY OF FINDINGS

Juche, a central tenan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self-reliance and closure to the outside world. Though resoundingly successful in closing itself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which has, for its part, also worked to silo North Korea — its aspirations to self-reliance have been far less successful.

Not only does North Korea rely on the exchange of resources, including forced labor, with its neighbors China and Russia, but by nearly every metric, the country is failing. Though the government uses its robust internal propaganda machine to project an image of prosperity, the population experiences a widespread lack of access to adequate food, with food insecurity only deepened by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fraught context, every person and resource in the country is treated as property of the state. The Kim dynasty, in power since the country's founding in 1948, demands absolute loyalty. No person is safe from the Kim family's grasp, from peasants whose every move is dictated by state overlords to powerful generals, who are publicly executed in dramatic fashion, blown up as targets for missiles, or reportedly eaten by piranhas in a large tank kept in Kim Jong Un's home.

Independent thought is strictly prohibited, with Christianity a particular target of state censors. Anyone caught with a Bible, listening to Christian broadcasts from South Korea on the radio, and even in private prayer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Those caught, and often their families and friends as well, are swept away and detained indefinitely in North Korea's many prisons where they endure the most extreme human depravity imaginable.

Despite the persecution, former North Korean prisoners report that some Christians are courageous enough to share the gospel with their fellow inmates, hosting silent prayer gatherings and sharing contraband scripture at the risk of their lives. It is essent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band together to push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rth Korea's many innocent civilians deserve no less.

REPORTS

State Department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North Korea

CITATIONS

[1] https://freedomhouse.org/country/north-korea/freedom-world/2024
[2] https://www.rfa.org/english/news/myanmar/religious-buildings-09082023132748.html
[3] https://freedomhouse.org/country/north-korea/freedom-world/2024#CL
[4] https://freedomhouse.org/country/north-korea/freedom-world/2024#CL
[5] https://www.state.gov/reports/2023-report-on-international-religious-freedom/north-korea/
[6] https://www.state.gov/reports/2023-report-on-international-religious-freedom/north-korea/
[7] https://www.state.gov/reports/2023-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north-korea/
[8] https://press.un.org/en/2023/sc15387.doc.htm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109

#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2025년 6월 29일>

시편 102 편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5.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잠언 24 장
19.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고린도후서 10 장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레미야 9 장
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2 장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전도서 12 장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나훔 1 장
2.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 장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2025년 6월 30일>

시편 84 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북한 핵폐기물 무단 방류: 2025년 6월 30일>

스트레스는 10년은 지난 거 같은데 아직 한 달도 안 된 정부... 재판 왜 안 받으세요... 주권자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은 자신의 12개 혐의 5개 재판부터 성실히 받고(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허위사실공표 등) 그만 사법부와 자기 재판의 검사를 겁박 와해시키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리고 북한 핵폐기물 무단 방류* 반드시 끝까지 가서 따지시고 싸우세요. 후쿠시마 원전 싸운 거에 반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측근들 다수의 의문사 관련 자진해서 특검받으세요. 자수하실 거 있음 하시고요. 점점 나라가 부도덕 파렴치한 조폭 소굴처럼 바뀌지 않도록 말이죠.

(*관련 뉴스: YTN. (2025 년 6 월 30 일). “북한에서 줄줄이 흘러오는 '방사능 폐수'...서해는 이미 오염됐다? '비상' [지금이뉴스]”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LOaxSovfdk)

#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도 파렴치한 범죄 정권 아래 살면서도 극강의 발란스 잡기: 2025년 7월 4일>

내 선교지이자 내가 사랑하는 자유민주공화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 자유와 건실함이 조폭 집단, 사기꾼 집단, 간첩매국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내 눈앞에서 무너져가고, 북 조선로동당과 같은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 권력들에 팔아넘겨지며 그들의 지령에 의해 우리나라가 조종되고, 매사 감히 "국민"의 이름을 운운하지만 대놓고 국민과 법치를 조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을 백주대낮 매일같이 봐야 하면서도, 최대한 분노와 증오의 덫에 나 스스로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러면서도 주권자 국민의 절박한 애국충정이자 진실한 선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꾸준히, 단호히 말하고 외치는 것.

사회와 국가를 썩게 하고 국민을 종으로 팔아넘기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진실과 정의를 선포하는 것을 압제, 탄압하려는 권력자의 악행들에 대해, 성경의 순교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선지자들처럼, 다니엘, 에스더, 모세, 엘리야처럼, 세례요한, 야고보, 베드로, 바울, 스데반처럼, 우리나라의 유관순, 안창호, 주기철, 손양원처럼, 한국과 세계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현시각《우리와 가까운 북한과 중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처럼, 악한 권력자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배교하지 않으며, 끝까지 '빛과 소금'으로 나의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순교를 각오하며, 단호히 저항하는 것. 그런 와중에도 '정죄를 위한 정죄'가 아닌, 이제라도 진심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권력자가 회개하고 정직히 다 자복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라는 원수 사랑의 마음을 기본으로 유지하는 것.

달리 말해, 악한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 명확히 비판을 하면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즉, 그 또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죽음 후 영원한 삶을 위해 참된 회개를 하게 되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길, 그리하여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는 원수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죄와 싸우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 악을 방관하지 않으며 끝까지 악에 저항하되, 같은 악이 아닌《오직 선을 택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모든 타락한 정권들이 가장 싫어하는《진실과 정의》를 계속 부르짖되,《진실에 기반한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평화가 이 땅에 이뤄지길》계속 소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것.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나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저 미약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늘 잊지 않음으로써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사는 것.

국가 차원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질서가 뚜렷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길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놓지 않는 것. 마치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일본 군인들 중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같이 천국 가길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 의지적 결단의 사랑.

나의 행위나 그 어떤 누구, 또는 어떤 사회·정치적 운동보다도, 궁극적으로 오직 역사의 최종 주권자이신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나라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박하게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근본적인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것.

맡기신 이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선교지를 위해 지혜와 용기를 다해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열매가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와 동시에, 이 선교지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열정마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열정이란 걸 알고,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최우선 순위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곧 나의 본국, 본향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항시 잘 지키고 계속 키워가는 것.

어떤 상황에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것. 즉, 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전부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 종, 자녀,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결정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다른 누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너무도 파렴치한 범죄 정권 아래 살면서도 극강의 발란스를 잡는다는 것. 내가 이미 이에 능숙하고 잘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극강의 발란스 잡기”라고 함. 일평생 계속 지향하고,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생활 양식.

“I am bound by the Scriptures I have quoted and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I cannot and will not recant anything, since it is neither safe nor right to go against conscience. May God help me. Amen.” (Martin Luther, 1521)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6-7)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스가랴 2:13)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12-39)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10-13)

#국가관연재 #세계관연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
<Tacitus Trap: 2025년 7월 4일>

🌿 What Is the Tacitus Trap? 🌿
The Tacitus Trap happens when a government has committed so many injustices, lies, and abuses that everything it does—even good things—is automatically distrusted and condemned.

(ChatGPT generated)

📜 Named after the Roman historian Tacitus, who wrote:
> "When a government is hated, all its actions are judged to be bad."
Tacitus described emperors like Nero and Domitian, whose rule was so corrupt and cruel that no reforms or decrees could restore legitimacy. In the end, they faced revolt, disgrace, or assassination.

❗ Modern examples of the Tacitus Trap:
Venezuela under Maduro: rampant corruption and criminal networks in power.
Late Soviet Union: total cynicism about officials' honesty.
North Korea: a criminal dynasty ruling by fear and propaganda no one believes.
China: growing distrust after endless cover-ups and repression.

⚠️ Lesson:
When leaders fill a government with injustice, lies, and criminals—even at the highest levels—trust collapses completely. Rebuilding credibility becomes almost impossible.

#
<국민구출, 국토수복, 자유민주통일: 2025년 7월 5일>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 조속한 국민구출, 국토수복, 자유민주통일. 완전한 광복과 완전한 독립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완성! 🇰🇷

소련 및 중공의 괴뢰정부이자 지상 최악의 인권유린 반국가단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통일 추구(소위 "적화통일")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인도적 중범죄이자 간첩매국 중범죄.

#
<양심과 도덕 없는 실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9일>

(ChatGPT 와 공동작성)

양심과 도덕 없는 실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양심과 도덕은 없지만 실력은 있다.”
그건 조폭이 자신을 포장할 때나 쓰는 자기최면이자 궤변일 뿐,
국민의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묘사는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양심을 지키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도덕을 저버리지 않고도 전진할 수 있는 지혜,
정의로운 방법으로도 앞서갈 수 있는 능력.
정정당당함 위에서 발휘되는 힘—그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이들은
경쟁자를 거짓 음해하고 잔인하게 숙청하며,
진실을 말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며,
자신의 죄를 조사하고 재판하는 자들을 회유, 겁박하고,
법 위에서 군림합니다.
거짓과 조작을 늘 일삼고 떠들며,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자기 돈도 아닌 국고를 흥청망청 쓰며,
나라를 무너뜨리고 팔아서라도
자기를 최우선으로 방탄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범죄를 '실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의 기술, 사기의 능란함,
겁박과 폭력, 의문사와 암살의 기술일 뿐입니다.
기술이라 부르기도 아까운,
그저 명백한 범죄들일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아봄도, 반성도, 회개도 없습니다.
언제나 남 탓, 언론 탓, 검찰 탓, 가족 탓, 국제정세 탓—
오직 책임 전가뿐입니다.
자기 무능과 오만은 감추고,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합니다.
반면 더 큰 깡패에겐 “형님”이라 굽실대며
국가의 어떤 것이라도 팔아넘깁니다.
'강약약강'을 지혜로운 처세술로 여깁니다.

국민은 고통받는데,
그 고통마저 자화자찬으로 덮습니다.
비판은 “가짜 뉴스”라 하고,
진실은 “음해”라며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더러운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진실을 덮고, 정의를 감추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가 만든 가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남들을 그 가짜 세상에 잡아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고,
모든 양심은 언젠가 다 강제로라도 깨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이를 다 진실되게 고해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고로 진짜 실력자의 필수 조건은,
진실과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정의 위에 서고, 도덕을 따르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세운 업적만 지속 가능하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래야만 자기 자신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양심과 도덕 없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결국 악은 악인을 멸망시키고,
선은 선인을 보호하며 세워갑니다.

진실 없는 실력,
양심과 도덕 없는 실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입니다.

#
<잠언 26장 4-5절: 2025년 7월 10일>

(ChatGPT 작성)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잠언 26:4–5 는 한눈에 보기엔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두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 잠언 26:4–5 (개역개정 + 영어 NIV)

> 4 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Answer not a fool according to his folly, lest you be like him yourself.

> 5 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Answer a fool according to his folly, lest he be wise in his own eyes.

🔍 구절별 해설
🕯 4 절의 의미:
"그의 방식으로 응대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미련한 자')의 수준에 맞춰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조롱, 싸움,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 또한 미련해지고, 본질을 놓친 채 말싸움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 누군가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할 때, 같은 수준의 조롱이나 비아냥으로 응수하면 그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 5 절의 의미:
"그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아라"
그러나 때로는 침묵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럴 땐 그의 어리석음을 밝혀야 합니다. 단, 그의 논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논리를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 적용 예시: 누군가 "하나님은 없다"고 쉽게 말할 때, 그냥 무시하면 그는 자기가 옳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가 주장하는 논리의 오류를 조용하고 분명히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핵심 교훈: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라"
이 두 구절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는 단순한 원칙이 아닌,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최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를 드러내는 말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그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 신앙적 적용: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셨고,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모든 대화나 논쟁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며 말하거나 침묵해야 합니다.

#
<Dear Mr. President Donald J. Trump: 2025년 7월 12일>

Replying to U.S. President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on Truth Social /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댓글 달음

Mr. President Donald J. Trump,

South Korea — America's frontline ally in the fight for freedom and truth in the Indo-Pacific — is now under the control of a criminal regime that threatens the U.S.–Korea alliance from within.

President Lee Jae-myung — already convicted four times, including for impersonating a public prosecutor, high-level DUI, aggravated obstruction of justice, and violating election law — now faces five criminal trials with twelve serious charges, including:
– Illegal remittances to North Korea via forged business structures (bribery)
– Bribery, breach of trust, and large-scale corruption in maj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 Another election law case (false information), remanded for retrial with a confirmed guilty finding by the Supreme Court — this could disqualify him from the presidency

There is also a disturbing string of suspicious deaths involving whistleblowers, aides, and potential witnesses.

To make matters worse, Prime Minister Kim Min-seok and senior leaders of Lee's Democratic Party have been involved in radical anti-American activity, including:
– The attempted firebombing and armed occupation of the U.S. Ambassador's residence in Seoul (1989)
– The 3-day illegal occupation of the U.S. Cultural Center in Seoul (1985)
– Violent protests against THAAD and repeated calls to withdraw U.S. forces — echoing agendas of Beijing and Pyongyang
– Many Members of Parliament in Lee's party are ex-convicts under Korea's National Security Act — convicted of pro-North Korea espionage-related crimes

The list of crimes tied to Lee and his cabinet would exceed the word limit. Your top intelligence team already knows. Please also consult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Morse Tan.

Lee and his party are now taking unconstitutional steps to shield him from opposition, truth, and justice:
– Pushing laws to block investigations and trials — including a "Trial Suspension Law" that would halt proceedings unless an acquittal is expected; expanding the Supreme Court with loyalists; appointing non-lawyers as justices; and dismantling the Prosecution Service
– Impeaching prosecutors and openly threatening judges with impeachment
– Attacking the free press and Christian pastors speaking the truth

Meanwhile, credible and growing evidence points to election fraud in the 2025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 Unauthorized Chinese and North Korean interference
– Widespread anomalous voting patterns
– Suppression of audits and criminalization of whistleblowers and dissenters
Please consult experts like Gordon Chang, Morse Tan, and Steve Bannon — who have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is election.

President Trump, you've always stood firm against totalitarian communism, election fraud, and criminal regimes. Once again, South Korea needs your voice — for its survival and the U.S.-led, freedom-loving

democratic order in the Indo-Pacific. You may have been chosen "for such a time as this" to stand for truth, freedom, and justice.

#

<민주당에서 ‘윤리 검증 비공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2025년 7월 12일>

믿기질 않는다. 국민 무시와 국민 조롱이 정말 끝도 없이 갱신된다. 그 대통령에 그 국무위원들과 그 정당 의원들 정말 파도파도 괴담과 경악스러운 반민주적, 반양심적, 범죄적 발상이 끝을 모른다.
도덕성은 국고와 국민의 신뢰를 위임받은 공복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윤리, 도덕이 결여된 실력은 우린 실력이라 부르지 않고, 사기 갑질 위선 매국노 간첩 불법 범죄 조폭 등으로 부른다.

#독재타도 #범죄자는물러가라 #범죄자주권국이아니라국민주권국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국가양심수호 #국가도덕수호 #대한민국수호

#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025년 7월 14일>

여호수아 1 장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한라에서 백두, 자유민주통일.
북한해방, 국민구출 국토수복, 자유민주통일, 완전한 건국 완전한 광복, 자유민주통일 대한민국.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2025 년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북한)

역대하 20 장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마가복음 9 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
<제헌절을 맞아: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고,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의 자유적 기본권을 가지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통일을 지향하고, 대한민국은 한라에서 백두 온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런 헌법의 가치들과 정함을 결사 수호하고, 헌법의 명령들을 이행하기로 국민주권국의 주권자 국민의 하나로서 다짐하며,

이에 반하여, 삼권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통일 등의 헌법 가치와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무너뜨리고 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민족적 범죄 세력, 간첩매국 세력, 조폭 세력, 내란 및 외환 세력인 후안무치 범죄자 이재명과 그의 불의한 범죄자주권 정부와 여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 공복 중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불의한 공복은 주권자 국민과 법 위에서의 불법 폭거 군림을 멈추고, 당장 내려와라!

범죄자는 물러가라. 재판을 받으라. 나라를 그만 해 처먹고, 그만 팔아넘기고, 그만 무너뜨려라. 법치주의 파괴 범죄자.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늘 이긴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부정부패한 악한 권력자들과 악한 세력은 모두 의로우신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파쇄되길, 오직 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자들이 이 땅의 권력을 위임받아 선한 청지기로 섬기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깨끗하게 갈아엎어주시되, 긍휼을 베푸사 회개한 선인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이 땅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지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중범죄자들과 간첩매국노들이 더 뻔뻔하게 큰소리치게 된 세상: 2025년 7월 18일>

중범죄자들과 간첩매국노들이 더 뻔뻔하게 큰소리치게 된 세상. 그러나, 정의와 진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만주의 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심판하여 바로잡으실 것이다.

오늘도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와 우리나라를 정화하시고 깨끗이 하시며 새롭고 아름답게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우리 나라와 민족과 나 개인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더욱 현현하게 속히 임하길 기도한다.

소위 '좌파' '우파' '중도' 막론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등지의 모든 악한 권력, 불의한 권력, 왜곡된 정의, 거짓과 부정부패는 다 속히 폭로되고 멸절, 척결되며,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롭고 진실된,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이 나라 곳곳 모든 중요 보직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길 기도한다.

#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025년 7월 22일>

우리말성경 여호수아 23 장

8.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11.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6.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말성경 여호수아 24 장

14.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15.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16.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17.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18.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9.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20.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21.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2.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23.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24.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연기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2025년 7월 23일>

댓글에 비속어가 섞여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란 자의 너무도 뻔뻔한 적반하장식 법치 회피에 대한 주권자 국민들의 분개를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도 있기에 그대로 올립니다.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재명은, 특히 그가 국민의 '대표 공복'인 대통령이라면, 더욱더 자신의 재판을 성실히 받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소명하고 정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만 마땅하고, 사법부는 피고가 강한 권력자일수록 더욱더 공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진행하여 이 땅의 기본적 양심과 바른 사회 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그 어느 겁박과 회유

앞에서도 오직 ‘법관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재판하는 공정한 사법부이어야만 마땅합니다. 이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자명한 이치인데,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내로남불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만, 그럼에도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인민재판이 아닌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역시 대한국민! 만왕의 왕 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우하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오직 공의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공적 개입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진실과 진리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고쳐지고 새로워지며, 오직 주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 거룩과 은혜의 토대 위에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주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한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이를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거짓, 위선과 매국의 세력, 강포하고 포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 된 세력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완전히, 속히, 끊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당신은 우리 편이오, 우리 원수의 편이오?”: 2025년 7월 23일>

우리말성경 여호수아 5 장

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오, 우리 원수의 편이오?”
14.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

<내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불리한 상황인 건 너무 안타깝지만: 2025년 7 월 24-25일>

내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불리한 상황인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범죄정부, 부정정부, 간첩매국 여당과 정부라는 암덩어리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를 탓하기 전에 속히 암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우리나라가 살 것.

이미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암환자라는 진단은 마친 상태. 간첩매국정부 적화통일소원정부 사이비주체사상세뇌정부 범죄자정부, 물.러.가.라. 오직 자유민주통일 국민구출 국토수복. 이미 중범죄자이자 또 많은 추가 중범죄 혐의들의 피고인 이재명은 뻔뻔한 적반하장을 멈추고, 성실히 재판을 받아라! 독재 타도! 헌정질서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수호! 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통일. 북한 주민 우리 국민 구출, 북한 지역 우리 국토 수복. 포악하고 악랄한 반인도범죄 반국가단체 수령 사이비교주 김정은 폭압정권과 부역세력은 궤멸. 한라에서 백두까지 오직 대한국민의, 대한국민을 위한, 대한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만세. 8 천만 대한국민 만세.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부정과 불의, 거짓과 포악, 매국과 막대한 빚잔치, 겁박과 폭군 왕 놀이를 일삼으며 국민을 매우 무시하고 조롱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뚜렷한 회개의 열매가 보이게 하시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속히, 완전히, 그 권력에서 물러나게 하사, 이 나라 이 민족만큼은 살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진실과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고치시고 재건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부정선거 부역자들: 2025년 7월 26일>

조작 투표지의 증거들, 여러 번 투표하는 투표자의 긴급체포, 대수의 법칙을 크게 거스르는 개표현황,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 미흡 공식 사과를 아무리 보고, 듣고도, 부정 선거의 일말의 의혹조차 인정하기를 애써 싫어하는 <부정선거 부역자들>.

자유민주주의에서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가진 온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동일한 무게의 엄중한 주권 행사이며, 단 한 표의 부정만 있어도, 우리 국민 주권에 대한 매우 심각한 내란죄이고, 중공이나 외부 반국가단체 세력 등과 결탁하여 그랬다면 외환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발각될 경우 죄가 너무 크기에, 현재 기득권 중 불의한 기득권 카르텔은 모든 부정선거 의혹을 애써 강하게 부인하며, 타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권자 국민들을 도리어 범죄자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적반하장 식 대응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무리 조작 투표지와 투표자, 대수의 법칙을 크게 거스르는 개표 증거가 넘쳐나도, 그런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 독립적 감사조차 엄두도 못 내며 계속 덮어두려는 것. 이게 바로 부정선거 부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나 대한국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4.19 혁명에서 이미 한번 보여줬다. 분명 우린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주권 행사 표를 훔치고 조작하여 당선된 가짜 당선자들이 드러나면, 당연히 이들 모두는 즉각 파면, 엄벌돼야 할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거스르고 묻어두는 건 불가능하다. 역사의 최종 주권자가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2025년 7월 26일>

난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김문수 장동혁 트럼프>를 맹신하지 않는다. 어떤 한 사람을 맹신하지 않는다.

물론, <이재명 시진핑 김정은>은 안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모든 반인도범죄와 거짓과 폭거와 살인과 부정부패와 도적질과 억압폭정과 간첩매국과 기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자복 통회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부질없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독재 권력에서 하루속히 내려와, 마땅히 정의의 재판들을 성실히 받고, 회개의 열매들을 뚜렷이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입어, 자신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살 수 있게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

나 포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나아오는 모든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선 분명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
<성경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정치 체제: 2025년 7월 26일>

(ChatGPT 작성)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경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 동시에 정치가로서 다음과 같은 체제를 제시합니다. 이 체제는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 정의와 자유, 질서와 자비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성경적인 현실 정치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내린 정의롭고 경건한 국가

1.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유민주공화국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 103:19, 단 4:17).

인간 왕정의 폐해를 보여준 사무엘서처럼,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제한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삼상 8 장).
따라서 성경적 정치는 왕이 아닌 헌법과 법치에 기초한 공화정을 지향합니다.
> 📖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출 15:18)

---

2. 삼권분립과 죄성의 견제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죄악되며 (렘 17:9), 권력은 타락하기 쉽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경적 정치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정치적 제한주의와도 부합합니다.
> 📖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 29:2)

---

3. 법치주의와 정의의 실현
하나님의 법은 절대 기준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신 32:4).
모든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권력자도 법 아래 있으며, 국민은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24)

---

4.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보장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신앙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신정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에 근거한 자유로운 신앙의 장려가 성경적입니다.
> 📖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후 9:7)

---

5. 약자 보호와 공동체적 책임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암시합니다 (출 22:21–24).
성경적 국가는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공동선과 정의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

6. 국방과 안보의 정당성
성경은 칼을 허락하십니다 (롬 13:1-4).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반역에 대해 질서와 안보를 위한 정당한 무력 사용은 가능하되,
그 목적은 평화와 정의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 📖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롬 13:4)

---

7. 지도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왕과 지도자는 백성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책무를 지며,
도덕적, 영적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 📖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 17:18–20)

✅ 결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화정
성경은 특정 정치체제를 제도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질서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현대적 현실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성경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도덕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공화국"
- 삼권분립과 법치
- 양심과 신앙의 자유 보장
- 국민 주권과 정의 실현
- 지도자의 도덕성과 하나님 경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정치 체제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권세에 대한 복종: 2025년 7월 26일>

(ChatGPT 초안 작성, 내가 수정 보완)

좋은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2 장 28 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2:28, 개역개정)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재판장"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으며, 문맥상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나시)*로, '통치자', '고위 지도자'의 의미입니다.

🔍 이 말씀의 본뜻:
출 22:28 은 권위 있는 자를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권위의 하나님이시며,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연결됩니다 (롬 13 장과 연결됨).
그러나...

❗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 부패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할까?
1. ✅ 존중과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유효함
성경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롬 13:1–7; 벧전 2:13–17).
하지만 그 복종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하나님의 뜻과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 📖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살전 2:4)
>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10)

즉,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권위에는 비폭력적 저항, 혹은 양심에 따른 불복종이 허용됩니다.

---

2. ⚖️ 성경 속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대응 사례들

🗣️ 모세 vs. 바로

모세는 당시 "왕"이자 "신"으로 여겨지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 사무엘 vs. 사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사무엘은 직접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삼상 15 장).

🗣️ 엘리야 vs. 아합

아합과 이세벨은 불의한 통치자들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왕상 18 장).

🗣️ 세례 요한 vs. 헤롯

요한은 불법적인 결혼과 부패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합니다 (막 6:17–29).

🙌 성경적 결론:

> 출 22:28 은 권위에 대한 일반적 존중의 원칙을 말하지만,

불의한 권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성경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균형 잡혀야 합니다:

- 정당한 권위에는 존경과 복종

-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위에는 경건하고 담대한 저항

- 지도자의 인격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일반적 존중은 유지하되,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선지자처럼 외칠 책임이 있음

✝️ 신약의 적용:

예수님도 불의한 산헤드린, 바리새인,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고, 무례하지 않지만, 진리로 단호히 대답하셨고 잘못은 책망했습니다 (마 23 장, 요 2:13-22, 요 18:33–38).

🧭 오늘날의 적용:

오늘날 부패하고 불의한 정치권력이나 사법부가 있을 때, 우리는:

- 기도하고 중보하며
- 비폭력적이고 진실한 저항을 통해
-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 동시에 무질서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민주공화정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주권자는 국민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국민의 공복이란 점도 유념 필요.

#
<극좌와 극우 독재자들 공통점: 2025년 7월 27일>

(ChatGPT 작성, 내가 좀 더 수정, 보완)

극좌(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등)와
극우(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등)
독재자들이 공유하는 본질적 공통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좌우의 이념은 달라도, 그들의 통치 방식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 극좌·극우 전체주의자들의 공통점
⚠️ **1. 삼권분립과 권력 견제 체계의 완전한 파괴**
-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하나로 집중시키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
- 지도자는 절대자, 국가 그 자체가 됨 (ex. "수령은 곧 조국", "수령에 반하는 것은 곧 국가에 반하는 것")
⚠️ **2. 반대 세력 대규모 숙청 및 탄압**
- 정치적 반대자, 지식인, 종교인, 내부 고발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
- 비판은 반역으로 취급,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강제실종 등 공포 정치 사용
예: 스탈린의 대숙청, 김일성 일가 3 대 세습의 대숙청 공포정치와 정치범수용소, 히틀러의 나치 반대세력 제거,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대숙청, 폴 포트의 학살
⚠️ **3. 법치주의의 파괴, '법 위에 수령' 혹은 '지도자 숭배'**
- 지도자는 법의 위에 존재하는 존재로 세뇌
- "최고존엄", "국부", "국가의 영혼"이라는 칭호로 비판 불가
- 법은 권력자의 도구일 뿐이며, 인권과 자유는 언제든 유린 가능
⚠️ **4.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과 가치 부정**
- 인간은 "성분"이나 "계급", "인종", "성별", "출신", 특히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화됨
- 지도자는 신적 존재로 숭배, 대중은 도구이자 객체로 전락
- 유대인, 부르주아, 지식인, 자본가, 지주, 종교인, 반체제자 등은 박멸 대상
⚠️ **5. 폭력과 억압, 자유의 말살**
- 언론·표현·양심·신앙·결사·이동 등의 자유적 기본권 철저히 억압, 검열
- 고문, 감시, 밀고 체계로 민중을 서로 불신하게 만듦
- 폭력은 국가 유지 수단으로 정당화됨
⚠️ **6. "인민" 혹은 "국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거**
- "국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뜻으로"라는 명분으로 전체주의 정당화 및 반대파 탄압과 학살 자행
- 실질은 독재자의 의지에 불과한데, 마치 다수의 의지를 따르는 척 포장 선전
-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듯 "다수의 원칙"을 악용하여 "다수의 폭거" 정당화
⚠️ **7. 권력 유지가 유일한 목표, 수단은 가리지 않음**

- 국가·이념·인민·혁명 모두 수령 개인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
- 성별 간, 세대 간, 소득 수준 간, 지역 간 등의 내부 갈등을 조장, 확대하고 이를 권력 강화 수단으로 삼음
-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과 체제가 무너짐을 알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음

⚠️ **8. 거짓 선전·선동·세뇌에 탁월**

- 모든 언론과 교육, 문화는 체제 찬양과 선전의 도구
- 선거와 여론을 조작하고, 역사까지 왜곡해 독재자의 정당성을 미화하고 신격화
-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식 프로파간다 적극 활용

⚠️ **9. 신(神)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정치적 우상숭배' 체제**

- 하나님이 아닌 인간 독재자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숭배됨
- 김일성은 태양절로 생일이 기념되고, 히틀러는 '독일의 구세주'로, 스탈린은 '인류의 아버지'로 찬양 강요
- 이는 단순한 권력집중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사이비 교주의 가스라이팅 정치

⚠️ **10. 진리의 말살과 언어의 도둑질**

- 단어의 의미를 왜곡해 거짓을 포장 (ex. "민주주의 인민공화국"(1 인 폭압 독재), "조국해방전쟁"(기습 남침 6.25 전쟁), "영도자"(반인도범죄자), "우리민족끼리 평화 통일"(화전양면전술, 적화통일) 등)
- 진실을 말하는 이들은 '반동분자', '극단적', '인민의 적'으로 낙인
- 결국 언어 자체를 죽이고, 공적 담론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며 말과 생각 자체를 완벽히 검열, 통제하려고 함

⚠️ **11. '영원한 혁명' 혹은 '영원한 적'을 만들어 두려움 유지**

내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적'을 만들어냄
- 히틀러: 유대인, 공산주의자 – 국가 몰락과 전쟁 책임 전가
- 스탈린: 트로츠키파, 부농, 간첩 – "인민의 적" 숙청 정당화
- 북 김씨 세습 정권: 미국, 남한, 수정주의 – 대외 적대 통해 내부 결속
- 모택동: 반혁명분자, 계급의 적 – 끝없는 혁명과 투쟁 강조
- 공포 통치는 전체주의의 생존 메커니즘임

⚠️ **12. 경제 통제와 인간 생존의 종속화**

- 자유시장 대신 계획경제, 전시경제, 통제경제로 전환
- 식량과 물자까지 '충성의 대가'로 분배되며 국민을 권력에 종속, 배급으로 길 들이고 노예화
- 국고 탕진 및 권력자의 부정부패 횡령
- 배급이 사라지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 → 국민은 권력자에게 목숨을 의탁하게 되며, 국가 주도 강제노동에 끌려다님

⚠️ **13. 가정·종교·시민사회를 파괴하고 오직 국가(수령)만 남김**

- 전체주의는 그 죄인 수령이 부모, 교사, 신이 되는 구조
- 부모보다 지도자, 교회보다 당, 성경보다 '혁명 강령'

🚨 결론

극좌든 극우든,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은 자유를 억압하고,
폭력과 거짓으로 권력을 찬탈, 유지하는 전체주의.

이들은 인간의 존엄, 양심, 자유, 생명, 진실과 정의를 짓밟고,
오직 자기 권력만을 숭배한다.
지도자는 법 위에 있고, 민중은 한낱 도구로 이용당하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모두 국가로 대체된다.
기억하라. 침묵은 공모이고, 망각은 반복을 부른다.

✝️ **기독교인의 시선에서 본 결론**
극좌든 극우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죄악은 단지 정치적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 양심, 자유를 탄압하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공동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거짓과 폭력과 불의, 부정으로 가득한 사탄적 체제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인본주의)
- 진실 대신 거짓 선동(거짓의 아비, 요 8:44)
- 자유와 존중 대신 억압과 경시
- 사랑과 섬김 대신 살인과 착취
- 정의 대신 폭거, 겁박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연역함과 죄성을 전제하고 이를 견제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가진다는 전제
- 법 앞에 만인 평등
- 표현·신앙·양심 등의 자유적 기본권 보장
- 고아·과부·나그네·가난한 자 등 약자 보호
- 특히, 권력의 제한 및 권력자는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복이라는 인식
이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사회 질서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죄인의 권력을 제한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정의와 진실에 기반한 법치를 수호하고,
신앙과 양심, 창의와 교류 등 개개인의 자유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화목과 공동선과 풍요를 이루려는 정치 체제

#
<독재 타도: 2025년 7월 28-29일>

중범죄자 정부와 여당 지도부
주사파세뇌 간첩매국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강약약강 국민경시 정부와 여당 지도부

딱 성남국제마피아파 수준의 정부(외치는 미·일·EU 뿐 아니라 북·중·러에게도 무시 왕따 당하는 중. 내치는 국민만 만만히 업신여기며 조폭 겁박 저열 뻔뻔 사기 빚잔치 국민 능멸 남탓 정치 시전)

무능하고 비양심적인데 자존심과 뒤끝과 위선과 내로남불만 가득한 정부와 여당 지도부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반민주적 정부와 여당 지도부, 이제라도 속히 회개하고, 그만 썩 물러가라!

피고 이재명 5 개 형사재판 속개하라!
특히 대통령 주변인들 의문사에 대한 특검 조속히 시행하라!
채용비리 800 건 넘고 대수의 법칙을 새로 써 버린 조작 선관위에 대한 특검도 조속히 시행하라!

진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야하고 재판받고 영혼을 살리시길.

현존 지구상 최악의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말 한 만디에... 알아서 납작 엎드려 기는 간첩매국정부 자해적국방해체 정부 적화통일소원정부 이제 그만 나라망치고 당장 하야하라.

#
<크리스천 형제에게: 2025년 7월 28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형제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말을 할 뿐입니다. 함께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 한라에서 백두 한반도 그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청껏, 자유로이 전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며 그 어떤 죄인도(북한 김 씨 일가 포함) 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껏 자유로이 선포하고, 선교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국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유린과 탄압이 속히 멈추고, 그들이 조속히 해방되길, 정말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8 천만 국민을 위해 함께 동역함에 감사드립니다.

표준새번역 에스겔 3 장

18.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19.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0.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21.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

#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옵시고: 2025년 7월 29일>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옵시고, 모든 불의하고 포악하고 강포 하며 살인과 거짓과 위선과 겁박을 일삼는 악한 자들은 모두 이 나라의 권력의 자리에서 속히 끊어지고 완전히 힘을 잃고 썩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의롭고 거룩하며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길 이들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들, 권력의 자리들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통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며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승만 독립정신, 김구 나의 소원: 2025년 8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두 명의 주석 김구와 이승만의 글들: 김구의 '나' 소원' '1947), 이승만의 '독'정신' '1904).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삼권분립 파괴, 법치주의 파괴의 독재 범죄정권과 같은 자들을 향한 강하고 직접적인 질책이 있고, 동시에 대한국민에 대한 격려와 충언이 있다. 특히 '나' 소원'에'미국의 "자" 민주주의"가"소련식 "독"적인 민주주의"나""나" 독일"보" 분명히 더 낫다고 한다. 현 범죄정권에선 김구조차 '극' 내란범'이'될 지경이다.

#
<제국과 자유민주주의 차이: 2025년 8월 1일>

(ChatGPT 작성)

역사적으로 *제국(Empire)*은 필연적으로 몰락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치·역사적으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 제국은 왜 몰락하는가

중앙집권적 권력 집중 → 권력자 한 명 또는 소수 엘리트가 모든 국가 기구를 장악.
정복과 팽창 의존 → 영토 확장과 자원 수탈로 유지되는 체제.
민심 이반과 식민지 반발 → 통치 대상의 자유와 자치 억압.
경제·군사 과잉 부담 → 영토를 지키고 지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폭증.
후계·권력투쟁 → 황제나 지배 엘리트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분 발생.
결국 로마제국, 몽골제국, 오스만제국, 대영제국 모두 이 논리 속에서 쇠퇴·해체됨.
--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국과 다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
영토 팽창이 목적이 아님 → 외부 정복 대신 무역·외교·동맹 중심.
권력 분립 →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
법치주의 → 지도자도 법의 지배를 받음.
시민 참여와 선거 → 지도자가 실패하면 교체 가능.
자발적 동맹 → 나토·한미동맹처럼 상호 이익과 합의에 기초한 국제 질서.

⚠️ **제국 몰락과 자유민주주의 변화의 차이**
📌 **제국 vs 자유민주주의**

권력 기반
제국: 황제·군주·소수 엘리트
자유민주주의: 국민 주권

팽창 방식
제국: 정복·식민지화
자유민주주의: 외교·무역·문화 영향력

몰락 원인
제국: 과잉팽창·권력투쟁·민심이반
자유민주주의: 내부 부정부패·정치 분열 시도 가능성

체제 변화
제국: 폭력적 붕괴·분할
자유민주주의: 선거·개헌·평화적 권력 교체

생존 방식
제국: 강제 통치
자유민주주의: 합의·참여·자유 유지

"제국은 무너진다.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워진다."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와 억압으로 붕괴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제국이 아니기에, 몰락이 아니라 자정과 갱신을 통해 존속한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한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

#
<간첩매국정부의 셰셰외교: 2025년 8월 1-31일>

[8/1]

우린 한미 FTA 관세 상호 0%에서 "일방" 15%가 된 거고(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상품 관세는 계속 0%),
일본은 "상호" 15%이며, EU 도 "상호" 15%,
전통적으로 미국의 비동맹국(FTA 도 없던) 중에도 15%는 많으며,

우리 대미투자는 우리나라 GDP 대비 일본, EU 보다 상당히 크고 부담되며,
3500 억 불 대미투자 중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의 10%만 우리꺼이고,
추가 1000 억 불 규모 미국 에너지 구매 약속으로,
총 4500 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 약속.
즉, 1400 원 환율 기준 총 630 조 원 지불 약속.
2024 년 대한민국 1 년 정부 예산이 약 650 조 원,
그리고 2025 년 7 월 2 일 기준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이 약 4100 억 달러.
(참고로, 환율은 1500 원 이상으로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원화가 4500 억 달러로 바뀌어 순유출 돼야 하는 상황이니. 만약 1500 원 기준이면 680 조원.)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할 수 밖에(노란봉투법, 증권거래세/법인세/주식양도소득세 인상, 의무휴업일 연장, 주 4.5 일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달러는 오를 수 밖에.

한 마디로, 매국노 이재명. 자기 불법 범죄 정권 정당화 임명장 하나 받기 위한 거대한 매국. 심지어 받은 "임명장"조차 매우 허술. 이번 한국 대선에 중공 개입 여지 있었다는 미 정부 주장 철회 전혀 없음.

그 와중 이재명의 대미 약속인 MASGA 에 대한 중국의 심기 불편으로, 이쪽에선 삥 뜯기고 저쪽에서도 처맞게 생김. 이재명 '셰셰외교'란 그저 자기 범죄정권 유지를 위해 이 나라 저 나라에 우리나라 팔아 갖다 바치는 것.

중국이 서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간첩질을 대놓고 해도, 지구상 최악 반인도범죄자 북한 정권이 우리 서해에 핵폐수를 방류하고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자유민주 체제전복 시도를 대놓고 해도, 미국이 약 650 조 원을 달라고 하고 관세를 0%에서 15%로 올려도, 그저 '셰셰'.

내 권력만 유지하며 만만한 우리 국민에게만 겁박, 탄압하며, 자기 가오 잡을 수 있고, 자기 5 개 형사재판만 피할 수 있다면, 그저 셰셰. 강약약강의 비겁하고 파렴치한 간첩매국노.

[8/28]

이재명의 셰셰외교... 미일북중러 모두에게 능멸당하는 대통령호소인의 오직 자기 방탄 매국 외교.

[8/31]

미일북중 모두에게 뚜렷이 능멸당하고 있는 범죄 간첩 매국 정부. 자기의 큰 범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자 앞에서는 굴종 무능 밖에 보일 게 없는 정부.

#
<국고 탕진 빚잔치 소비쿠폰 배포: 2025년 8월 1일, 8월 18일>

[8 월 1 일, '소비쿠폰 11 일 만에 8 조 2371 억 지급... 신청률 90% 달성'이란 기사를 보고]

내가 우리나라 10% 안에 들었다니. 내가 안 쓰면 그 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던데, 그건 명확한 중범죄 국고 횡령. 안 그래도 많은 자신의 형사 재판 혐의들에 더해 자기 죄만 더 쌓는 것. 내 미신청금이라도 국가부채 갚는데 쓰이길. 아님, 다른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를 위해 쓰이길. 무차별 대국민 현금살포 빚잔치 국고탕진 생색 포퓰리즘 말고.

[8 월 18 일, ''소비쿠폰' 한 달 동안 국민 97% 받아... 10 만원 더 받는 2 차는 언제?'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3% 안에 나와 우리 가정이 들다니. 이 나라 대한민국(남한+북한 전 지역)에 오직 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실과 진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굳건히, 편만히 나타나고 세워지길 간절히 계속하여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짓과 살인, 부정과 불의, 조작과 도둑질, 폭정과 매국과 국가전복을 꾀하는 모든 악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남한+북한 전 지역)의 모든 권력의 자리들(입법 사법 행정 등)과 영향력의 자리들에서 당장 다 속히 끊어지고 박멸되며,
오직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깨끗한 양심과 정직, 헌신과 사랑으로 국민을 섬길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의로운 자들만 이 나라 대한민국(남한+북한 전 지역)의 모든 권력의 자리들과 영향력의 자리들을 전부 차지하게 되길.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주 예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멘.

#
<좌·우 이전에 17: 2025년 8월 18일>

나는 좌파 우파 이전에 자유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자유민주공화국 국민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적 기본권이 목숨보다 소중하고,

정직 진실 정의 공의 공정 신의 성실과 같은 가치들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이런 토대 위에 사랑 긍휼 은혜 관용 배려 용서 자발적 헌신과 같은 가치로 국가와 사회가 세워져 가는 게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나라의 체제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본받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아빠로서,
이런 가치들 수호가 돈 몇 푼이나 목숨보다 소중하다.

#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 투표: 2025년 8월 20일>

2024 년 11 월 평생 처음 정당이란 거에 나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입해 본 후, 12.3 계엄이 펼쳐지고 그 이후 정말 격랑의 세월. 국민으로서 뿐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투표도 한 표, 한 표 정말 소중히, 신중히, 간절히 하게 된 기간. 오늘도 포함.

영원한, 유일한, 최종 주권자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 달라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 외 정치 참여도 간절하니 자발적으로 여러 길을 모색하여 참여하게 됨. 뭐라도 하게 됨.

자유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일원으로 강제적으로 빚어져가는 기간.

“But the chief penalty is to be governed by someone worse if a man will not himself hold office and rule.” (Plato, The Republic, Book I, 347c)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9-10)

#

<구국기도: 2025년 8월 25일>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거의 매일 기도하고 오늘도 했다(매일 하는 거 같지만 혹시나 내가 안 한 날도 있을지 몰라 '거의').

주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과 공의가 거센 강물처럼 남북한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역을 뒤덮고 이 땅에 강하게 흐르게 되어,
하나님과 국민을 업신여기면서 살인과 거짓과 폭거를 일삼는 모든 포악하고 교만한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모두 이 나라 이 땅에서 박멸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의로운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만이 한라에서 백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뤄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권세의 자리들에 가득 세워지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주권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진실되고 인애가 가득한 온전한 대한민국이 속히, 속히 이뤄지길.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편만히, 완연히 이뤄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9 편 20-29 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2025년 8월 26일>

골로새서 3 장

23. <무슨 일을 하든지>(즉, 육아, 살림, 청소, 운전, 직장 일, 봉사, 구제, 선교, 전도, 재정 관리, 정치 참여, 생각, 회의, 대화, 예배, 쉼, 식사, 샤워, 잠 등, 매일매일 삶의 모든 순간들 모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괄호 안은 내가 추가

에베소서 6장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장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잠언 3장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4장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
<원수 사랑: 2025년 9월 21일>

‘한국 선교사’인 나에게 원수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도와 예배의 자유 등을 틀어막고 박탈하며, 하나님과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을 기만 억압하며, 권력을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자기 방탄과 자기 우상화와 자기 자신의 탐심을 최우선으로 섬기기 위하여 쓰는 자들이 나의 원수이다.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선교지 대한민국을 약탈하고 팔아먹고 망치고 죽이기 때문이다.

현시국, 나에게 그러한 원수는 북한 김정은, 남한 이재명과 같은 자들이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야하고, 독립된 사법부의 공의로운 재판을 정직하게 받고, 무엇보다도 진심과 전심으로 그들의 반민족적 반인도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죄악들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되길 바란다. 즉,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최종 주권자와 정의의 심판자 되시는 영원한 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진심으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야부터 하고, 우리 국민을 그들의 거짓과 폭압에서 놓아주며, 우리 모두가 그저 잠시 살다 가는 이 땅에서 그 회개의 대가가 무엇이든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과 주님으로 마음과 삶을 다해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 담에 영원한 천국에서 한 분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정말 기쁠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기적적 구원의 부흥이 있게 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일 뿐이고, 나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듯,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큰 복이 내가 사랑으로 중보 하는 이 원수들에게도(미래 형제이길 바라는 현재의 원수들)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을 담아 기도한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라도 속히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에서 거짓과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악한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모두 박멸되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성실히 섬기는 진실되고 의로운 자들만 이 나라의 권력과 권세의 자리들을 전부 차지하게 되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나라 통일 대한민국으로 성숙하길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
<In the End: 2025년 9월 23일>

스가랴 14 장
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The LORD will be king over the whole earth. On that day there will be one LORD, and his name the only name.

고린도전서 15 장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025년 9월 29일>

잠언 29 장
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4 장
17.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히브리서 4 장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로마서 14 장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 장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전도서 12 장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나 또한 이 나라를 배신하는 거 같아: 2025년 9월 30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나 또한 이 나라를 배신하는 거 같아 그럴 수 없고, 끝까지, 살아 있는 한 끝까지 계속하여, 역사의 최종 주권자요 심판자요 만왕의 왕 되신 정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도움과 보호와 정의와 현현한 공적 개입과 선한 은혜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충만히 임하길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모든 거짓되고 악한 매국 간첩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정직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겸손한 자들로 이 나라 권력과 권세의 자리들이 다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한라에서 백두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어디서나 마음껏 목청껏 자유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아주 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Lincoln, Churchill, and Reagan: 2025년 10월 1일>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 Abraham Lincoln (Nov. 19, 1863)

"To form an Administration of this scale and complexity is a serious undertaking in itself, but it must be remembered that we are in the preliminary stage of one of the greatest battles in history, that we are in action at many other points in Norway and in Holland, that we have to be prepared in the Mediterranean, that the air battle is continuous and that many preparations... have to be made here at

home.... I would say to the House, as I said to those who have joined this Government: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We have before us many,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You ask, what is our policy? I can say: It is to wage war, by sea, land and air, with all our might and with all the strength that God can give us; to wage war against a monstrous tyranny, never surpassed in the dark, lamentable catalogue of human crime. That is our policy.

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It is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But I take up my task with buoyancy and hope. I feel sure that our cause will not be suffered to fail among men. At this time I feel entitled to claim the aid of all, and I say, “Come then, let us go forward together with our united strength.””

— Winston Churchill (May 13, 1940)

“The totalitarian world produces backwardness because it does such violence to the spirit, thwarting the human impulse to create, to enjoy, to worship. The totalitarian world finds even symbols of love and of worship an affront. Years ago, before the East Germans began rebuilding their churches, they erected a secular structure: the television tower at Alexander Platz. Virtually ever since, the authorities have been working to correct what they view as the tower's one major flaw, treating the glass sphere at the top with paints and chemicals of every kind. Yet even today when the sun strikes that sphere--that sphere that towers over all Berlin--the light makes the sign of the cross. There in Berlin, like the city itself, symbols of love, symbols of worship, cannot be suppressed.

As I looked out a moment ago from the Reichstag, that embodiment of German unity, I noticed words crudely spray-painted upon the wall, perhaps by a young Berliner: “This wall will fall. Beliefs become reality.” Yes, across Europe, this wall will fall. For it cannot withstand faith; it cannot withstand truth. The wall cannot withstand freedom.

Thank you and God bless you all.”

— Ronald Reagan (June 12, 1987)

#
<“대한민국 대통령”: 2025년 10월 2일>

중국 공산당이나 반국가단체 겸 반인도범죄자 북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비판을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기습남침 6.25 전쟁 당시 혈맹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기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 삼권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자유로운 언론, 국민의 자유적 기본권 등 수호 지지를 자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
<좌·우 이전에 18: 2025년 10월 7일>

본 대결의 본질은 좌파와 우파 간 대결이 아니다. 극좌와 극우 간 대결도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 양심과 비양심, 책임정치와 남 탓 정치, 진실과 거짓, 정직과 선전선동, 정의와 불의, 자유와 겁박폭거, 자유시민독립과 굴종노예종속, 삼권분립 민주와 법치파괴 독재, 대한국민과 간첩매국노, 건실한 시민과 깡패 조폭 간의 대결이고, 역사는 늘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다.

만주의 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선 정의와 진실과 공의와 정직과 양심과 선함과 참 자유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반국가단체 북한 조선로동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낙원' 이념에는 여러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취약점이 존재: 2025년 10월 11일>

(ChatGPT 와 공동 작성)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낙원' 이념에는 여러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실패나 정치 문제를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한계들입니다. 주요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간 본성에 대한 왜곡된 전제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간이 본래 '집단을 위해 헌신하며 이타적으로만 행동하는 존재'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현실적 관점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롬 3:10-12). 이런 본성을 부정한 채 "인민의식"이나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사라지고, *강제와 두려움에 의한 통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2. 경제적 유인과 생산성의 붕괴
북한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서는 *노동의 동기*와 *혁신의 유인*이 사라집니다. 개인의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하고, 부패와 비효율이 만연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낙원"을 내세웠지만, 1990 년대 대기근('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유지조차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3. 권력 집중과 절대 권력의 부패
북한 체제는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모든 정치·경제·사회 활동이 김씨 일가의 절대권력 아래 종속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비판과 개혁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체제 내부의 부패가 누적됩니다. '인민을 위한 낙원'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층만 특권을 누리는 *봉건적 세습 구조*로 변질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4. 자유의 부정과 사상의 폐쇄성
북한식 사회주의는 자유를 '자본주의의 타락'으로 규정하며, 언론·사상·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창의력은 자유 속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회는 잠시 '질서'는 유지할 수 있으나, *진보와 진실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신 30:19), 강제된 선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5. 종교와 진리의 대체 — '수령신격화'의 우상체계
북한의 사회주의는 단순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종교적 성격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일·김정은을 "신적 존재"로 신격화하며, 성경 대신 '당의 교시'를 절대 진리로 강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체한 *인간 우상화의 극단*이며, 결국 영적·도덕적 파멸로 이어집니다. 진리를 억누르는 체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롬 1:18).

결론과 확실하고 유일한 대안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낙원은 인간의 본성, 경제의 원리, 정치의 균형, 자유의 가치, 그리고 영적 진리에 모두 역행하는 *허구적 이상향*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평등이 아닌 특권의 불평등, 낙원이 아닌 감시와 결핍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약속하는 낙원은 인간의 교만이 만든 모조품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든 한, 어떤 체제나 이념도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다스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 안에 실현됩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자유롭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진리 안에서 정의를 세우는 사회—그것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던 낙원이자, 그 시작과 완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만개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적 토양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사랑하며, 양심과 사상과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질서를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창조된 목적을 지키려는 데서 출발하는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정치 체제는 복음을 위한 좋은 조건일 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복음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지만, 복음 안의 자유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복음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익한 토양인 건 맞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자유를 진정하고 영원한 자유로 완성시키는 은혜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이란과 같은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복음이 더 널리, 더 자유롭게, 더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유익하다는 사실도 자명합니다.

#
<그럼에도 나는 대한민국을 더 열렬히 사랑하며 대한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2025년 10월 14일>

요즘 끔찍한 혼란과 난장판의 국회 국정감사 광경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지만, 분명 대한민국은 건국된 이유와 사명이 있다. 그것은 소련 괴뢰 정권 및 중공에 맞서 자유와 법치와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동등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적 기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들은 인류사적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가치들이기에 나는 대한민국을 더 열렬히 사랑하며 대한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
<The Limits of Critical Social Theory: 2025년 10월 22일>

(ChatGPT generated)

The Limits of Critical Social Theory (CST)

Critical Social Theory arose to challenge injustice — to ask how power hides in culture, ideology, and systems. That goal is understandable. But its core assumptions lead to contradictions that weaken its own moral authority.

1. Truth Cannot Be Reduced to Power

CST claims that knowledge and truth are products of social power.
But if *all truth is power*, then this claim itself is merely another assertion of power, not truth.
Once truth becomes political, there is no longer any basis for justice, reason, or dialogue — only competing interests.
A society cannot correct injustice if it cannot agree that something is *true*.

2. Reductionism Breeds Cynicism

By interpreting every moral act, belief, or institution as a mask for domination, CST flattens the moral landscape.
It leaves no room for integrity, self-sacrifice, or genuine virtue — only suspicion.
When everything is political, nothing can be truly moral.

3. The Paradox of Liberation Without Morality

CST seeks emancipation but denies any universal moral law.
Yet without a moral framework that transcends politics, "liberation" becomes directionless — a transfer of power rather than transformation of the human heart.
Freedom must rest on moral truth, or it turns into new forms of coercion.

4. Fragmentation of Community

Modern critical movements divide society into identity groups defined by grievance and power status.
Instead of solidarity and mutual responsibility, we get distrust and resentment.
Moral discourse turns into competition for victimhood, not pursuit of the common good.

5. Misdiagnosing the Human Problem

CST correctly sees structural injustice but misidentifies its cause.
The ultimate source of injustice is not only in systems but in the human heart — pride, envy, and moral blindness.
Without personal transformation, structural change alone cannot bring justice.

🕯️ **A More Coherent Path Forward**

A society that seeks true justice needs both *moral truth* and *human dignity* — not cynicism or relativism.
* **Critical realism** recognizes real injustices but insists truth is objective and discoverable.

* **Biblical humanism** grounds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unchanging worth of every person made in God’s image.
* **Moral renewal**, not ideological struggle, is the foundation for lasting peace and liberty.

Justice detached from truth collapses into tyranny, for when objective truth is denied, “justice” becomes whatever those in power declare it to be.

Freedom detached from morality collapses into disorder, for when virtue is abandoned, liberty becomes nothing more than the freedom to destroy oneself and others.
And when both truth and virtue are lost, society turns to endless “revolutions” — each claiming to bring liberation, yet each repeating the same cycle of power, resentment, and decay.
Such revolutions cannot renew the human spirit; they merely rearrange who holds the whip.
They are movements without repentance, freedom without transformation, and change without peace.
Only when *objective truth anchors freedom* and *godly love directs justice* can humanity rise above ideology and build a society that is both righteous and free.

🙏 **A Closing Prayer**

“Lord Jesus Christ,
You are the Truth that sets us free and the Life that makes all things new.
Grant us true liberation — not merely from systems, but from the sin and fear within us.
Transform our hearts by Your grace and renew our minds by Your Spirit.
Lead us into the eternal joy and peace that come from salvation in You,
through whom we are reconciled to the source of every good and perfect gift — God our Father.
May Your kingdom come and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men.”

#

<The Hidden Dangers of Democracy — and Tocqueville’s “Habits of the Heart”: 2025년 10월 28일>

(ChatGPT generated)

The Hidden Dangers of Democracy — and Tocqueville’s “Habits of the Heart”

Alexis de Tocqueville, the French thinker who traveled through America in the 1830s, loved democracy — but he never idealized it.
He believed its greatest threats would not come from kings or armies, but from within the hearts and habits of democratic citizens themselves.

⚠️ **1.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ocqueville saw that the gravest danger in democracy was not a despot on a throne — but the despotism of the crowd.
When the majority believes itself infallible, it becomes ruthless.
It silences dissent not with prisons or whips, but with mockery, isolation, and moral shame.
It punishes anyone who dares to think differently — not by law, but by the cold violence of exclusion.
Public opinion becomes an idol demanding loyalty; truth becomes whatever most people say it is.
This tyranny is uglier than the rule of kings, because it wears the mask of equality.
It forces people to smile while they surrender their minds.
Under its weight, conscience bends, courage fades, and the soul of freedom withers.

⚠️ 2. The "Gentle" Despotism of Bureaucracy
Tocqueville foresaw another, quieter danger — a new form of servitude born from comfort and control.
As life grows easier and more organized, citizens slowly withdraw into private pleasures, leaving public affairs to officials and experts.
The state becomes, in his words, "an immense and tutelary power," regulating every detail of life — mild in its methods, yet total in its reach.
No one is oppressed, but no one acts freely.
It is a bureaucratic dictatorship of comfort — a rule of paperwork, protection, and passivity.

🙌 The Defense: Habits of the Heart
Tocqueville offered no political cure for these dangers. His answer was moral and cultural, not bureaucratic or legal.
Freedom, he wrote, depends on the mores — the habits, beliefs, and civic virtues of the people.
Later thinkers called them the "habits of the heart."
They are the inner disciplines that make freedom both possible and responsible:
🤍 **Faith and Conscience** — grounding right and wrong beyond public opinion or state control.
🤍 **Civic Association** — citizens joining to solve problems together, learning cooperation through shared action.
🤍 **Independent Judgment** — the courage to think and speak even when unpopular.
🤍 **Moral Humility** — remembering that liberty without virtue turns into chaos or control.
🤍 **Community Spirit** — living as neighbors and co-workers in freedom, not isolated consumers of comfort.

🕊️ The Soul of Freedom
For Tocqueville, democracy's survival rests not merely on constitutions or elections, but on character.
When citizens live with conscience, courage, and compassion, they resist both the tyranny of the majority and the quiet despotism of bureaucracy.
But when they retreat into comfort and conformity, freedom dies in silence.
The true guardian of democracy is not the state —

it is the habits of the heart that make a people worthy of liberty. ❤️

#

<정치에 무관심한 자유민주 시민이 빠지는 위험성과 모순성: 2025년 11월 14일>

(ChatGPT 작성)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짜로" 누리지 않습니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낼 때만 유지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이 "정치는 더럽다" "나 하나 빠져도 세상 안 바뀐다"고 말하며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자유를 잃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1.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권한 위임이다
시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면, 그 빈자리는 항상
📌 조직화된 소수,
📌 권력욕에 찬 집단,
📌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순식간에 채워 넣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상 그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2. 정치를 멀리할수록, 정치는 당신의 삶을 더 깊이 통제한다
정치에 관심을 끊어도, 세금·교육·안보·경제·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정치가 결정합니다.
결국 "정치가 싫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일수록
오히려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3.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는 '감시하는 시민'을 전제로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자유를 침식합니다.
따라서 정치 무관심은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자기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자유를 원하면서 자유를 지키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국 정치 무관심은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위장된 이기심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피하는 순간,
그 혼란은 결국 내 삶과 내 자녀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정치를 멀리한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 자유는, 관심과 참여 없이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를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사랑한다면 정치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켜보는 시민, 질문하는 시민, 책임지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용기있는 시민, 정의로운 시민, 양심적인 시민, 정직한 시민,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 정상적인 시민이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강제노동: 2025년 11월 27일>

"강제노동의 책임을 묻다 –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주최: 대한변협 인권재단 및 DailyNK (인터넷신문사)

세션 3. 종합토론
토론자: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25.11.27 광화문 변호사회관

전체 원고 원문 (실제 발표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약 15 분에 맞춰서)

존경하는 사회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논의의 기초가 된 데일리 NK 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강제노동 보고서」(2025.7.18)(이하 '본 보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당하게 억압받는 이들을 대신해 진실을 증언한 숭고하고 용기 있는 기록입니다.
본 보고서를 읽고 앞선 발표들을 들으며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강제노동의 실태 분석과 국제사회·기업·소비자 차원의 대응방안들이 앞서 잘 제시된 만큼, 저는 오늘 이 참극이 왜 2025 년까지도 계속되는가, 왜 대한민국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 그 구조적 원인과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법적 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 순서]

1. 북한·중국 당국이 조직한 국가 주도 강제노동 체제
2.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큰 책임이 있다
3. 역사적 정통성: 대한민국 vs. 북한
4. 국제법: 북한 정권은 반인도범죄 정권
5. 국내법: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6. 북한 정권의 입장: 대한민국은 ‘제 1 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이자 적화통일의 대상
7. 결론: 진정한 인민의 해방·안보·평화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사명

---

1. 북한·중국 당국이 조직한 국가 주도 강제노동 체제

북한 조선로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을 “로동자를 위한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해방자” 등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보았듯, 중국 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 여권·신분증 박탈
- 감금과 24 시간 감시
-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갈취
- 성적 착취·폭언·협박
- 강제북송 위험 등에 처해지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지표들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의 현장이자, UN 안보리 결의 2375 호·2397 호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앞서 자세히 들으셨고, 여기에 추가로, 중국의 강제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비송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부 간부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중국 정권이 공동으로 조직하고 은폐하는 구조적 범죄 체계입니다.

북한 내 노동자라고 해서 사정이 더 낫지도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신입 노동자의 월급은 약 1 달러 수준으로 취약하여 이들은 16 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뇌물을 내서라도 이런 착취적 해외 파견에라도 선발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칭 ‘노동자의 지상락원’이라는 곳의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민낯입니다.

---

2.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큰 책임이 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참극의 큰 책임이 대한민국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 가지 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첫째, 북한 정권은 역사적·법적 정통성과 정당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이자 반인도범죄자라는 사실.
둘째, 북한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셋째,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들을 바로 직시하지 않는 한, 어떤 대북 인권정책·안보정책·통일정책도 결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

3. 역사적 정통성: 대한민국 vs. 북한

1919 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헌장은
"민국 원년 삼월 일일, 아 대한 민족이 독립을 선언한다."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 역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헌법 전문에서부터 다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자 정체성입니다.

반면 북한 정권은, 1945 년 소련 군정 아래, 소련이 임명·훈련·무장한 공산 간부들이 한반도 북부를 무력 점령하며 등장한 소련식 괴뢰 일당독재 체제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서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이 민망할 정도로 길게 도배돼 있어,
헌법이라기보다 종교적 숭배의 글 같고,
북한 헌법 어디에도 우리 민족의 3.1 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잔혹한 일제치하에서 목숨 걸고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싸운 유관순, 안창호, 김마리아,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윤희순, 이봉창, 이애라, 김규식 등 수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 요인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인공기를 들고 싸운 이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죽도록 세우고자 한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이고, 그들이 죽기까지 들고 싸운 깃발은 태극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

4. 국제법: 북한 정권은 반인도범죄 정권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은 현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국가 주도의 반인도범죄 체제입니다.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되는 북한 요덕·개천·북창·온성·회령·명간·청진 등지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수십만 명이 수감되어 왔고, 지금도 다수의 정치범수용소가 여전히 수만 명을 수감한 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완전통제구역 수감자의 경우 더욱 극심한 인권 유린에 놓인 채 출소 가능성은 사실상 평생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행되는 대표적인 인권 유린 범죄에는,
갖가지 고문(물고문·전기고문·닭장 감방·매달기), 강제노동, 강제낙태, 영양박탈, 공개처형, 연좌제, 여성 대상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 성경 소지, K-POP 과 한국 드라마 시청, 한국 말투 사용, 외부 전화 사용만으로도 공개처형까지 빈번히 이루어지고, 청소년들까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명목으로 광산·건설 노동 현장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지표는 북한의 상태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 2024 년 Freedom House 세계자유지수 보고에서 북한은 → 총점 3/100, 195 개국 중 최하위권("Not Free")

• RSF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에서 북한은 2019–2024 년 6 년 간 → 180 개국 중 180 위 3 회, 179 위 2 회

• Walk Free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 보고에서 북한은 → 노예 인구 비율이 세계 1 위(북한 주민 약 10 명 중 1 명이 노예 상태)

• 2025 Open Doors '기독교 박해지수' 보고에서 북한은 → 세계 1 위 — 20 년 이상 최상위권을 유지

• 2024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민주주의 지수 보고에서 북한은 → 167 개국 중 165 위

• 2023 스웨덴 V-Dem 민주주의 지수 보고 중 → 특히 자유민주주의지수(LDI)에서 북한은 179 개국 중 179 위

• 2014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기관·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올해 9 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2014 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5 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각종 법령과 단속체계가 도입되며 외부 정보 차단과 주민 감시·통제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고, 다수의 정치범수용소 운영, 임의적 체포·고문·강제노동, 사형제 확대, 탈북민 강제송환자 학대 등 구조적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고, 수십만 명의 납치·실종자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량·의료 접근 악화, 성분제도 기반 차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 침해가 심화되었으며, 북한은 국제인권조약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는 "잃어버린 10 년을 목도했다", "현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국민은 이미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고통, 잔인할 정도의 억압과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ICCPR(자유권규약), ICESCR(사회권규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CRC(아동권리협약), CRPD(장애인권리협약), NPT(핵비확산조약) 등

스스로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조차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임의 탈퇴하며, 국제규범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빈곤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이 금지한 노예·고문·강제노동·강제실종·집단살해 등을 국가 주도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국제형사법상 반인도범죄 정권입니다.

겉으로는 "인민의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김 씨 삼부자 수령을 신격화하며 전체 사회와 국민을 사이비 종교식으로 통제하고, 철저히 계급화, 노예화한 체제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정권의 잔혹성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UN 총회 제 3 위원회는 2005 년부터 21 년 연속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

5. 국내법: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국제법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의 확립된 판례 역시, 북한 정권이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이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판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1996 년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96 누 1221)에서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1993 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93 도 1951)에서도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최대의 현실적 위해집단으로서 반국가단체라 함이 당원의 견해"라고 하였습니다.

2011 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 재도 11)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2014 년 선고한 전원재판부 결정(2013 헌다 1)에서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이자,
"6·25 전쟁 이후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온 현재진행형의 위협"으로 판시하고,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궁극적으로 타도 또는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겨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급심 중에서도 2016 년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판결(2015 구단 52480)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며, 북한이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관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2 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2021 가합 106706)에서는, "우리 대법원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헌법 등 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북한지역과 북한 주민에게 모두 미친다"는 점을 모두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즉, 요약하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이를 불법 점거한 국내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이자 국제법적으로 반인도범죄 정권이라는 것이 명백한데, 어쩌면 이를 외면해 온 것이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 유린의 참극을 가능하게 하는 큰 요인은 아닐지 돌아봐야 합니다.

---

6. 북한 정권의 입장: 대한민국은 '제 1 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이자 적화통일의 대상

북한 정권의 의도와 목표는 그들의 공식 문서와 그 정권의 수장 김정은의 공개 발언들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선 북한의 초헌법적 기구이자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 지도하는 절대적 기구인 조선로동당의 2021 년 개정된 당 규약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삼고,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당의 목적이라 규정했습니다.

조선로동당 강령에서는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 년 개정된 최신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9 조에서도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년 말부터 2024 년 초까지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및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북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남한을 철두철미 제 1 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실제로 실행한 국가 전략이기도 합니다.
1950 년 불법 남침(6·25 전쟁) 이후,
청와대 기습 한국 대통령 암살 시도(1968),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1968),
아웅산 묘소 테러 한국 대통령 암살 시도(1983), KAL858 기 폭파(1987),
강릉·속초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1996·1998),
제 1·2 연평해전(1999·2002), 천안함 폭침(2010),
연평도 포격(2010), DMZ 목함지뢰 폭발(2015),
서해 공무원 피살·시신 소각(2020) 등
수십 년간 무력도발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SLBM 등 수십 차례 발사, 빈번한 대남 GPS·통신 교란,
무인기 남한 영공 침투, 국가 기간망 사이버 공격, 수천 개의 오물풍선 살포,
여섯 차례의 핵실험 및 핵무기 개발(현재 최대 150 발 핵무기 보유 추정), 수백 회의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수만 명의 무장병력 파병 등
북한 정권은 수많은 UN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을 지속하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은 지난 70 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되게 적대 행위를 멈춘 적은 없는 불법 테러 반국가단체이며, 그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전에도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돼 온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그가 대한민국을 "제 1 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해 온 것의 연장이며, 올해 8 월에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선포했습니다.

---

7. 결론: 진정한 인민의 해방·안보·평화를 위한 국가적, 국민적 사명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주제인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강제노동 문제는 결코 단편적 "노동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인권유린과 반인도범죄의 극히 일부가 드러난 것이고, 문제의 구조적 본질은 우리 국민인 2,500 만 북한주민의 해방, 대한민국의 존립, 동북아와 세계 평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물론 1 차적 책임은 북한과 중국 당국에 있지만, 이러한 비극이 계속된 데에는 대한민국이 주적을 주적으로, 우리 국민을 국민으로 명확히 대하지 않았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감금·고문·노예화 등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즉시 결의안을 내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수천 만 명이 70 년째 반인도범죄 정권이자 반국가단체의 불법 감금 속에서 신음해도 우리는 지나치게 오래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반국가단체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이런 반국가단체를 미화·옹호하는 매국적,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인도적, 반헌법적 태도와 언행이 대한민국 지도층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실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방임이 누적되어, 북한의 참담한 인권 유린을 계속 가능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 지 진지하게 자성해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전심전력으로 임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 일.
둘째, 우리 국민과 영토를 불법 점거·감금하는 반국가단체이자 반인도범죄 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전력을 다해 이루는 일.

이는 결코 전쟁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단, 1 인 독재자만을 보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가 되는 '수령만을 위한 평화'가 아닌,
남북 8 천만 국민 모두의 존엄과 자유와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주적을 주적으로 똑바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정의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됩니다.

본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성경의 출애굽기가 떠올랐습니다. 노예 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과 파라오의 폭압, 그리고 그 신음을 들으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그 백성을 권능의 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의 신음도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쩌렁쩌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주권자인 우리 남북한 8 천만 국민 모두는 이 시대의 모세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이자 반인도범죄 정권,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단호히 외쳐야 합니다.

"대한국민을 가게 하라."
"대한국민을 해방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대한민국을 향한 파괴와 침탈을 그만 멈추어라."
"대한국민의 존엄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침묵과 안락함과 비겁함을 택한다면, 그 방임은 우리의 죄가 되고, 범죄자들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며, 결국 남한까지도 그 전체주의 불법 정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세계 10 위권 자유민주국가로 일어섰습니다.
이 자유와 번영은 결코 남한만의 것이 아니라 북쪽 우리 국민 2,500 만 명에게도 마땅히 흘러가야 할 몫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의 독립·건국·민주화의 역사는 한라에서 백두, 온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에 거하는 모든 대한국민 개개인이 동등한 인간적 존엄과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따라
반국가단체 조선로동당을 종식시키고, 북에 불법 감금된 우리 국민과 불법 점거된 우리 영토를 구출·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누릴 생존이고 자유이며 지속가능한 평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국민을 해방하라.”

감사합니다.

#
<반헌법·반민주·전체주의적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2025년 12월 2일>

2025.12.02.
•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o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해산 명령도 가능해야"
o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o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
o "가짜 뉴스, 민주 질서 파괴 행위"… 전(全) 정부 차원의 대책 주문

2025.12.02.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31 명의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
국가보안법을 “사상 탄압 도구”라고 규정하며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

2025.12.01.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 소위원회

-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내란특별법)
-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전담재판부 설치법)
- 형법 개정안(소위 ‘법 왜곡죄’ – 판·검사 처벌 조항)
-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수사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

위 네 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소위를 통과.
야당과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했지만,
여당은 이를 표결로 밀어붙임.

(이하 ChatGPT 와 공동 작성)

🇰🇷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대통령과 여당:
이것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반헌법·반민주·전체주의적 내란 행위.

Ⅰ. 서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강한 정치”가 아니라 “헌정 파괴”다

불과 이틀 사이에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의 입법 조치에서 동시에 드러난 흐름은 다음 여섯 가지다.

1. 종교 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발상
→ 신앙·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
2. 상속인까지 처벌하자는 전체주의적 가족책임 구상
→ 연좌제 금지를 부정하는 헌정 붕괴 사상
3. 공무원 내란 자수·신고 체계 구축
→ 공무원 조직 전체를 정권 충성도로 분류하는 감시국가화
4. ‘가짜뉴스’ 명분의 전(全) 정부 언론 검열 구조
→ 표현·언론의 자유를 “정권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발상
5.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 법왜곡죄 + 공수처 무제한 확대
→ 헌법상 사건배당·사법독립·권력분립 원칙을 전면 파괴하는 사법쿠데타
6.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시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헌법적 방어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이적(利敵) 행위

이 여섯 가지는 단순한 정책노선이나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헌정을 파괴할 때 보여준 “초기 단계 전체주의의 전형적 징후”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오늘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센 정치”, “거친 레토릭”, “입법 드라이브”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다수의 입법폭거, 삼권분립 파괴, 간첩매국 적극 동조 방임 등 입헌질서를 실질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국헌문란의 기초 행위가 이미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Ⅱ. 대통령 발언들의 헌법 위반성과 전체주의적 성격

---

1.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일본처럼 종교 해산 명령도 가능해야"

📌 대한민국 헌법 제 20 조

- 제 1 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 2 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교 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지배하거나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종교가 양심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입에 올렸다.

- 종교의 정치적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가 그 종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은 곧,
👉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는
언제든 법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체제"를 상정한 것이다.

📌 역사적 유사성

- 나치 독일: 정권을 비판하는 성직자·교단 탄압, 교회 해산
- 스탈린 소련: 종교를 국가가 직접 통제, 반정부 성향 종교조직 해산
- 중국 공산당: 국가가 허용한 애국교회 외 모든 종교는 불법화·지하화
- 북한: 종교 자체를 범죄화, 오직 수령 숭배만 강요

👉 "종교 해산 명령 검토"라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금지선을 넘어 전체주의의 언어로 이동한 것이다.

---

2. "쿠데타·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 상속인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3 조

- 제 1, 2 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 3 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이는 곧,

- "상속인까지 책임지게 하자" → 연좌제 (헌법 제 13 조 3 항 정면 위반)
- "살아있는 한 나치 전범처럼 처벌" →

형벌의 비례성과 소급입법 제한 원칙을 뒤흔드는 발언이다.

📌 역사적 유사성

- 나치 독일: 반체제 인사와 그 가족을 "공동 책임"으로 취급
- 스탈린 소련: "인민의 적" 가족까지 수용소·추방 – 세대 단위 처벌
- 중국 공산당: 반혁명분자 가족의 교육·취업·정치 참여 제한
- 북한: 악명 높은 "삼대 소멸(3 대 연좌제)"

👉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적 "가문 단위 처벌"을 끊기 위해
제 13 조 제 3 항에서 연좌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 금지 원칙을 공공연히 부정한 것이다.

---

3. "내란 가담 공무원, 자수하면 징계 감면…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라"
75 만 명 전 공무원 대상 '내란 관여 전수조사' 착수*

📌 대한민국 헌법 제 7 조 제 1 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내란 가담 공무원"을 상정하면서,
"스스로 신고·자수하면 징계를 줄이고, 웬만하면 덮어주라"고 지시했다.
특검의 형사 수사(사법 절차)와 별도로
행정부가 공무원 전체에 대해 사상·충성도·정치적 입장을 파악하는 '독자 조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 "시스템에 따라 명령 수행한 경우가 많다"는 발언은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 논리로 흡수하는 동시에,

- "자발적 신고·자수 시 감면"은

공무원 조직 내에 정권 편에 서서 서로를 고발하는 구조를 심는다.
👉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논리에 협조하면 살려준다"*는 전체주의 국가 특유의 통치 방식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 7 조)
- 개인 책임 원칙
- 사생활의 비밀·영장주의
- 권력분립

을 동시에 흔드는 조치다.

📌 역사적 유사성

- 스탈린 NKVD: 자백·자수·상호 고발이 일상화된 공포 정치
- 중국 문화대혁명: 자아비판·상호 비판과 밀고 시스템
- 북한: 생활총화·5 호담당제·충성 신고를 통한 상호 감시 체계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에게 "정권에 충성하면 면죄부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4. "가짜뉴스는 민주 질서 파괴 행위… 전 정부 차원의 단속 필요"

📌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 제 1 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 2 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미 우리 법원은
허위 표현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명예훼손·사기 등 개별 범죄로 처리하는 방향을 취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전(全) 정부 차원에서 단속하자고 주문했다.
👉 "정권이 '가짜'라고 규정하는 표현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선언이다.

📌 역사적 유사성

- 나치 독일 – 국민계몽선전부:

정권 비판을 "선동", "허위 선전"으로 규정하고 언론·출판 통제

- 중국 공산당:

인터넷 검열, SNS 차단, '유언비어' 처벌

- 소련:

관영지 이외 언론 봉쇄 – "진실(프라우다)에는 진실이 없고, 뉴스(이즈베스티야)에는 뉴스가 없다"

- 북한:

전 언론을 노동당이 지배, 정권 비판=국가 전복죄

대통령이 말한
“전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책”은
사실상 한국판 선전·검열부 신설과 다를 바 없다.

III. 여당이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
— 한국판 정치보위부·인민재판부의 제도화

12 월 1 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① 내란특별법, ② 전담재판부 설치법,
③ 법왜곡죄 신설, ④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구조로 작동한다.
👉 정권이 특정 사건을 정권이 지정한 재판부로 강제 이관하고, 판·검사는 법왜곡죄로 통제하며,
공수처는 상시 감시·수사기관으로 배치하는 시스템.

- 사건 배당의 무작위 원칙 파괴
- 사법행정권 침탈
- 재판받을 권리·사법 독립 붕괴(헌법 제 27·101·103 조)

를 의미한다.

📌 역사적 유사성
- 나치 인민법정: 정치사건 전담, 충성 판사 배치
- 소련 NKVD 법정: 반체제 사건 집중, 단심·속전속결
- 중국 공산당 법원: 정치사건은 당이 지정한 재판부로
- 북한 보위부 재판: 반혁명 사건을 정권이 선별·지정

이번 한국의 4 법 패키지는
“형식만 민주주의”일 뿐, 구조는 동일하다.

전담재판부는 *정권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설계된 ‘결과 지정형 재판부’*이며,
법왜곡죄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무력화하고 판·검사를 정권에 종속시키는 공포 수단이고,
확대된 공수처는 *약화·해체된 검찰을 대신해 사실상 전(全) 고위 공직자를 상시 감시·통제하는
‘정치보위부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 사법부는 더 이상 권력 분립의 축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흉기로 전락할 위험에 놓였다.

IV.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시도 –
자유민주 체제의 최후 방어선을 허무는 이적(利敵) 입법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31 명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은 사상 탄압 도구"라 규정하며 법 자체를 없애자고 하면서 공동 발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질서를 전복하려는 간첩·반국가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방어 기제다.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곧
👉 "도둑이 들끓는데 대문을 활짝 열고 담장을 허무는 것"과 같다.

이미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북한의 대남 지령,
통진당 후신 세력과의 연계 정황이 판결·수사 기록에 드러난 상황에서,
범여권이 국가보안법을 "사상 탄압 도구"로 낙인찍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하고 체제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실질적 이적(利敵) 입법 시도라 할 수밖에 없다.

📌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규정한다.
헌법 전문과 제 4 조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함을 선언하고,
제 37 조 제 2 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 자유 제한을 인정한다.
국가보안법은 이 *헌법상 방어 의무(Duty to Defend the Constitutional Order)*를 구체화한 법률로,
처벌의 핵심 대상은 "사상 자체"가 아니라
①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조직적 전복)
② 지령·잠입·첩보 등 간첩행위
③ 국가 변란 목적의 선동·지원·화합·연락 등 실질적 체제위협 행위
라는 현실적 안전위해를 가진 행위이다.
이는 독일 기본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의 법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단순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패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는 일반적 정책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방어 의무 자체의 포기이며,
체제 자기보존 능력을 해체하는 반헌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 역사적 유사성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유만 강조하고 체제방어 장치를 두지 않았다가,
공산주의·나치 세력이 이를 악용해 민주공화국을 내부에서 붕괴시켰다.

히틀러는 선거와 의회를 통하여 합법적 권력을 얻은 뒤,
사법·정당·언론을 모두 장악했다.
→ "자유를 무방비로 둘 때 자유가 파괴된다"는 대표적 사례.
반대로 전후 서독은 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본법(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 의무'*와
위헌정당 해산 제도·반체제 폭력 처벌 규정을 강력하게 두었다.
→ 이것이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의 기초이며, 한국의 정당해산·국가보안법 체계가 영향을 받은 모델이다.
공산권은 반대로
자신들 내부에서는 극단적 국가보안·반체제 처벌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서방 자유민주국가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 폐지·사상의 자유'*를 요구해왔다.
→ 체제경쟁에서 상대방만 무장해제시키려는 전형적 비대칭 전략이다.

오늘 한국에서, 북한이 수십 년간 대남 공작·간첩·여론조작·노조·정당 침투를 계속하는 현실 속에서 그 최대 수혜자가 될 세력이 요구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범여권이 그대로 입법화하려는 것은
☝ 과거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었던
"자유민주 진영 내부의 자살적 결단"과 정확히 겹친다.

결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독재 시절 남용에 대한 건강한 교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체제 전복 세력 앞에서 방패 자체를 버리자는 선택이다.

"과거의 상처 치유"라는 포장과 달리,
그 실제 효과는 자유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문을 열어주는 반헌법적·이적(利敵) 입법이 될 것이다.

V. 결론: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드는 실질적 내란세력이다

- 입헌질서를 전복하거나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제도·정책적 시도
- 삼권분립·사법 독립 구조를 뒤집으려는 입법
- 국민의 기본권(종교·표현·재산·신체의 자유)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려는 시도

불과 이틀 사이 대통령 발언과 여당 입법에서 동시에 드러난 여섯 가지:
1. 종교 해산 권한 요구 –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20 조) 정면 공격
2. 상속인 연좌적 책임 요구 – 연좌제 금지(헌법 제 13 조 3 항) 부정
3. 공무원 자수·신고 체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 7 조) 파괴
4. 가짜뉴스 단속 체계 –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금지(헌법 제 21 조) 침해

5.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시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 의무(헌법 전문·제 4 조·제 8 조·제 37 조) 포기, 국가안보 자해(自害) 행위
6. 내란·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 법왜곡죄 + 공수처 확대 –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 27 조), 사법권 독립(헌법 제 101, 103 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

여기에 더해, 지난 5~6 개월간 드러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극심한 반헌법·반민주·적반하장 행태 중
대표적인 30 가지를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법부 장악·헌정질서 파괴 시도 (1~10)
1. 내란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사건배당 무작위 원칙 파괴·재판 공정성 침해)
2. *법왜곡죄 신설* 추진
(판사·검사에게 정권 순응을 강요하는 공포 입법)
3. *공수처법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부여
(고위 공직자 전면 감시·정치보위부화)
4.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
(사법부 인사에 대한 여당의 구조적 영향력 확대)
5. *검찰청 폐지·공소청·수사청 분리* 추진
(수사·기소 견제구조 파괴·권력 견제 약화)
6. 대장동 1 심 무죄 후 *검찰 항소 포기 및 외압 의혹*
(검찰 독립성 붕괴·권력 개입 의혹)
7. *대법원 인사·행정권 박탈* 시도
(사법행정 독립 침해)
8. 내란 관련 재판을 *결과 지정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려는 구조
(공정재판 원칙 무력화)
9. 법원행정처 폐지 시도 및 이를 명분으로 *비법관의 영향력이 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법부의 인사·징계·예산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특정 *법관들에 대한 정치적 맹공*을 병행
(전체주의적 정치재판식 사법 통제)
10. *4 심제 추진 언급*
(헌법이 전제한 재판 구조 자체에 대한 자의적 변경 시도)

② 정치권력 사유화·정치보복성 입법·정책 (11~20)
11.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정지법* 발의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권력자 치외법권화 시도)
12. *배임죄 폐지* 추진
(대장동 등 본인 범죄 무력화를 노린 입법 의혹)
13. 조국·윤미향 등 *측근 인사 사면·복권 남용*
(법치주의 신뢰 붕괴·편파적 사면권 행사)

14. 중범죄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강행*
(헌정 정당성·도덕성 심각한 훼손)
15. 국정조사·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증언 회피*
(의회의 헌법상 감시 기능 무력화)
16. 수사·재판 전력이 있는 *친여·운동권 인사들의 고위직 기용*
(공정 인사 원칙 훼손·국가기관 사유화 우려)
17. *김현지 비선 실세 의혹* 및 인사·정책 개입 논란
(비선 정치·권력 사적 통로 의혹)
18. 정권 비판 단체·언론에 대한 *표적 보조금 감사·세무조사*
(정치 보복·표현 자유 위축)
19. 정권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낙인*하고 제재 시도
(사전·사후 검열 구조 형성)
20. *전 공무원 75 만 명 포렌식* 방침 논란
(영장주의·사생활 비밀 침해·과잉 감찰)

③ 국가안보 해체·이적(利敵) 성격의 정책 (21~27)
2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헌법상 체제 방어 장치 해체)
22. *간첩죄 적용 확대 반대*
(반국가 세력에 대한 법 집행 의도적 약화)
23.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잔여 대공기능까지 폐지 시도*
(대공 방첩 능력 완전 제거)
2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등
실제 간첩 활동 판결을 사실상 폄하·무시
(대남 침투에 대한 제도적 경고 기능 약화)
25. 북한·중국에 대한 *굴종적·모호한 외교노선*과
대미 외교·통상 협상에서의 반복된 혼선
(국가 이익·주권 외교 훼손)
26.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안보 관점 부재·미온 대응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의무 방기)
27. 공무원 사회에 대한 *내란 자수·밀고 구조 도입 시도*
(전체주의식 상호 감시 체계 구축)

④ 표현·정치 참여·시민사회 봉쇄 (28~30)
28.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권 비판 설교·성명을 사실상 위축시키려 한 발언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 직격)
29.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강화* 등

야권·시민사회의 합헌적 정치 표현 활동 제약
(정치 참여의 자유 제한)
30. *유튜브·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추진
(정권 비판 온라인 여론을 길들이기 위한 사실상의 검열 장치)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그 그림은 너무나 선명하다.

👉 중국 공산당, 북한, 나치, 스탈린 체제가 보여준
전체주의 통치구조와 거의 완벽하게 겹친다.

따라서,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더 이상 "헌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뒤집으려는
실질적 '내란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치 싸움"의 시간이 아니라
"헌정을 지키는 싸움"의 시간이다
대통령은 종교·표현·재산·인권 등
헌법이 지켜야 할 거의 모든 기본권의 경계선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여당은 내란특별법·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결합하여,
사법·수사 기능은 정권의 통제 아래 두고,
체제 방어 기능은 해체하려는 적극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여야의 정쟁이 아니다.
👉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혹은 전체주의로 미끄러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턱이다.
역사는 말한다.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오지 않는다.
"설마 여기까지야"라고 했던 작은 양보들과 침묵이 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늦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뒤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강가에 서 있다.
그리고 침묵은 곧 동조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든 빼앗긴다.
이것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방어하는 싸움이다.

법률가는 법률가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헌법과 양심, 상식과 용기로 이 전체주의적 흐름에 맞서야 한다.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싸워야 한다.
나중에는 싸울 자유조차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새롭지 않다.
성경은 불의한 권력이 정의를 뒤흔들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수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권력을 이용해 법을 마음대로 비틀어 무고한 백성들을 몰살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세운 그 장대(에스더 7:10)*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처형됐다.
역사의 최종 주권자는 오직 공의와 진실의 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인간의 법과 제도가 스스로 붕괴하여
더 이상 호소할 수 있는 “땅의 법정”이 사라질 때,
역사는 그것을 *어필 투 헤븐(Appeal to Heaven)*의 순간이라 불러 왔다.

이제 우리는 양심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체주의적 폭거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하늘에 호소한다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하늘의 정의를 두려워하며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다.
역사의 최종 주권자는 오직 공의와 진실의 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1-8)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편 102:8-13)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사야 55:7-56:1)

#

<북한 독재에 던지는, 한나 아렌트의 말(direct quotation은 아님): 2025년 12월 4일>

(ChatGPT 작성)

1. "전체주의의 목적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북한 정권은 국민을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유할 능력·판단할 능력·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체를 제거하여 '따르는 존재'만 남기려 한다.

2. "거짓은 전체주의의 본질이다. 거짓이 통치의 원리로 자리 잡으면, 진실은 반역이 된다."
→ 북한에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체제의 적'이 된다.
거짓을 강요하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붕괴한다.

3. "악의 평범성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탄생한다."
→ 북한의 관료·군·보위부의 '일상적인 악'은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복종"을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다.

4. "자유란 먼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다."
→ 공포로 통치하는 권력은 결코 안정되지 않는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국가는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다.

5. "권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동의에서 나오고, 폭력은 권력이 사라졌을 때 동원된다."
→ 북한이 폭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6. "전체주의는 현실을 파괴하고, 스스로 만든 허구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 '자력갱생', '천리마', '강성대국'...
모두는 현실을 지우기 위한 허구적 서사일 뿐이며, 그 허구가 커질수록 체제는 더 취약해진다.

7.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체제는 스스로 정당성을 파괴하는 체제다."
→ 수용소·처형·강제노동·아사...
국민을 말살하는 정권은 결코 '국가'라 불릴 수 없다.

8. "전체주의는 고립된 인간을 필요로 한다. 고립은 복종을 낳고, 공동체는 저항을 낳는다."
→ 북한 정권이 가족 해체, 밀고 제도, 정보 차단을 하는 이유는
고립된 개인만이 완전한 복종을 하기 때문이다.

9. "정치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함께 세계를 바꾸는 행위다. 자유 없는 곳에 정치는 없다."
→ 북한은 '정치 체제'가 아니라

정치가 제거된 자리에 폭력과 공포만 남은 공간이다.

10. “전체주의는 인간의 미래를 빼앗고, 오직 하나의 운명만 강요한다.”
→ 태어난 순간부터 미래가 결정되고, 사상이 강요되고, 이동조차 자유롭지 않은 사회는
국민이 아니라 ‘인간 자원’으로 취급하는 비인간적 체제다.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반대의견: 2025년 12월 7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김준형의원・윤종오의원 등 31 인)

국회입법예고 의견 등록: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반대의견:

국가보안법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행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폐지 주장은 역사적 도입 배경만을 근거로 법 전체의 효용을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기능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1. 헌법적 책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 4 조, 제 37 조).
국가보안법은 이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한 법으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필수요건입니다.

2. 형법으로 대체 불가능
형법은 단순 폭력범죄 처벌체계이며,
지령·포섭·잠입·선전·조직망 활동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3.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님
제 7 조 ‘찬양·고무·동조’는 행위 처벌이지 내심 처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반복해서 ‘폭력혁명 조장과 구체적 위험 유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 판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되, 체제 파괴 선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4. 불고지죄의 필요성
국가보안범죄는 조직적·은밀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불고지죄는 양심 처벌이 아니라 간첩망 은닉과 포섭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어 규정입니다.

5. 폐지는 평화가 아니라 무방비

북한은 핵·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며 실질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안법 폐지는 남북 평화가 아니라 국가안보 공백을 초래합니다.

#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2025년 12월 9일>

나는 한라에서 백두, 대한민국을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사랑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도둑질하려는 자들이 끔찍하게 싫다.
우리 국민을 노예화하려는 거짓 위선의 불의한 지도자들이 너무 싫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단지 싫어할 수만은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기에,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 나라와 국민을 파괴하고 혼란케 하며 사익을 취하는 모든 악한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선하신 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통치만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길.
천국이 임하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자들만이 이 나라의 권력과 권세의 모든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길. 아멘.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2025년 12월 9일>

요한복음 8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하 ChatGPT와 공동 작성)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 장은 흔히 오해되는 본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단순한 "판단 금지"나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빌미로 감정적·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려던 군중의 위선적 인민재판식 처형 시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어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
✔ 죄를 부정하거나 없다고 하신 것도 아니며
✔ 회개 없는 용서를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선을 깨뜨리고
우리 죄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며
우리 모두를 회개와 새 삶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 1) 간음은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관계적·영적 파괴'

간음은 다음을 무너뜨립니다:
결혼 언약
신뢰
인격적 안전
가정 질서
자녀의 정서

그러므로 이것은
🙏 하나님 앞의 죄이며
🩹 사람에게 실제적인 상처를 남기는 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미안해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적 파괴가 있었다면 관계적 회복을 포함해야 합니다.

📌 2)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의 신학적 의미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죄를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형벌(돌로 죽이는 심판)을 즉시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형벌 중단(정죄 보류)
회개할 은혜의 기회 제공

그리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죄의 현실 인정 + 회개와 새 삶의 요구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 죄를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와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 3) 복음적 회개의 방향: “하나님 + 사람”

간음의 피해는 현실적입니다:
배우자
상대 배우자
자녀와 가정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1. 하나님께 고백하고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3. 가능한 책임을 감당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는 윤리 수준이 아니라
복음적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 4) 회개는 단순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안 할게요”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피해를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삶의 방향이 실제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atonement)*가 삶 속에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속죄 → 회개 → 변화의 실제 열매를 맺습니다.

🎯 5) "죄 없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아무도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위선의 폭로입니다:
1. 남에게만 율법을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면제하는 위선
2. 공의의 외형을 쓰고 악한 동기로 정죄하는 위선
3. 자기 죄는 직면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를 다루려는 위선

그러므로
>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자격, 공동체의 거룩,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식 없이 회개하며, 자기 죄를 먼저 직면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권징"은 공의가 아니라
위선적 살인이 됩니다.

⚠ 6) 중요한 오해 정리

"정죄하지 말라"가 곧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 마 18장: 공동체 권징
- 고전 5장: 공적 음행 처리
- 갈 6:1: 온유함으로 바로잡기

예수님은
🚫 위선적 정죄를 금하셨고
✔ 의로운 권징을 명하셨습니다.

🧭 7) 오늘 시대에의 적용

우리는 내로남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실수 남이 하면 악.
내 편은 변호 남의 편은 죽이기.

그러나 예수님은
📌 간음한 여인의 죄도 다루셨고
📌 위선적 정죄자들의 죄도 다루셨습니다.

둘 다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둘 다 복음의 은혜로 초청하셨습니다.

🕊 결론: 복음적 요약

>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되,
율법을 핑계로 인민재판식 폭력을 행사하며 정죄하려는
위선적 군중의 죄악부터 먼저 깨뜨리셨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그 죄가 남긴 실제적 피해와 파괴를 직면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은혜로 주어진 새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신다.
이는 죄를 가볍게 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와 풍성한 자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성취된 복음의 구원이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다.✨

🙏 마무리 기도문

주 하나님의 독생자 의로우신 주 예수님,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과 공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영원토록 주님으로 거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저를 의와 거룩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며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만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구를 극우라 하기 전에 내가 극좌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2025년 12월 9일>

누구를 극우라 하기 전에 내가 극좌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극좌라 하기 전에 내가 극우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도, 누구를 좌나 우로 나누고 평가하려 하기 전에 내 안과 삶에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양심과 정직, 그리고 상식과 도덕은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모두의 진짜 적은 소위 좌파나 우파가 아닌,
내 안과 주변 사회에서의 위선과 내로남불과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살인과 도적질과 착취와 비인격적 독재 폭거와 죽어라 회개하지 않음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
<초겨울, 차갑고 젖은 땅에 떨어진 단풍을 보며: 2025년 12월 11일>

빨갛게, 심지어 희어지도록 불태우며
시대적 소명을 완수한 뒤,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간 그대를 보며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간혹 안타까움의 연민을 보내겠지만,

사실 그대는
선한 사명 완수의 행복과 벅참으로 가득하다는 걸,
자신의 한 존재와 한 계절을 넘어선
유의미한 파장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특히,
영원한 창조주에게 좋게 기억된 바 된 기쁨으로
그대는 충만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주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 없을 정도로
그대는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겠고,
도리어 아직 남겨진 나를 격려하며 응원할 것이니,
나는 그런 그대의 상태가 부러울 뿐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의 일부가 떠오른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체제전복 세력의 행위: 2025년 12월 14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체제전복 세력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패턴화된 전략을 가집니다.
(역사·정치학·헌정 질서 분석에서 이미 정리된 전형입니다.)

(ChatGPT 작성)

📌 자유민주주의 내부에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전형적 수법

1️⃣ 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려 민주주의를 공격

"인권", "평등", "다양성", "약자 보호"라는 정당한 가치를 방패로 사용
그러나 실제 목적은
👉 권력 집중, 반대 세력 제거, 제도 무력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해체

2️⃣ 사법부·헌법 질서 무력화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적폐 판사”
“정치 판결”
“사법 쿠데타”

법원·헌법재판소를 정치 투쟁의 대상으로 격하시킴

궁극적 목표: 👉 권력 견제 장치 제거

3️⃣ 여론 조작과 Astroturfing

조직된 댓글·시민단체·가짜 여론
“시민의 분노”, “국민의 요구”로 포장

실제로는: 👉 조직·자금·지령이 있는 여론 공작
반대 의견은 “소수”, “비정상”, “악”으로 낙인

4️⃣ 정치적 낙인찍기와 도덕적 살인

반대자에게 붙이는 레이블:
“반민주”
“극우”
“내란세력”
“혐오”
토의하지 않고 일방적 낙인 후 추방

결과: 👉 침묵 강요, 자기검열, 공론장 붕괴

5️⃣ 제도 내부 장악 → 규칙 변경

(부정)선거로 집권한 뒤:
선거제도 변경
수사기관 개편
감사·언론·교육 장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꿈
이후 선거는 형식만 남음

6️⃣ 국가 정체성 해체

역사 왜곡
건국·헌법 가치 폄하
자유·시장·안보 개념을 "낡은 것"으로 조롱

대신: 👉 집단·계급·이념 중심의 세계관 주입

7️⃣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비정상적 관대함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는:
침묵
변명
상대화

내부 비판자에게는:
극단적 공격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인식 전도

⚠️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

> 체제전복 세력은 탱크를 몰고 오지 않는다.
법왜곡, 언어왜곡, 거짓을 들고 들어온다.

🧭 역사적 교훈 (한 줄)

자유민주주의는ㅜ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자해로 무너진다.
---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체제전복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 가지 임계 신호(Threshold Signs)'*입니다.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권력 구조 분석 기준입니다.)

🚨 자유민주주의 붕괴 직전의 몇 가지 임계 신호

① 법이 원칙이 아니라 ‘편’에 따라 적용되기 시작

같은 행위인데
👉 “우리 편”은 선의, “상대 편”은 범죄
수사·기소·판결의 예측 가능성 붕괴
법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됨

📌 Rule of Law → Rule by Law
---
② 사법부·검찰·감사기관을 ‘개혁 대상’으로만 규정

견제기관을
“적폐”, “기득권”,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
독립성은 사라지고
👉 충성 경쟁만 남음

📌 견제 장치 제거 = 권력 무제한화
---
③ 반대 의견이 ‘틀림’이 아니라 ‘위험’으로 규정됨

비판 = 혐오
반대 = 폭력
질문 = 선동
토론이 사라지고 검열과 자기검열이 확산

📌 공론장의 사망 신호
---
④ ‘국민’이라는 단어가 특정 집단만 의미하기 시작

“국민의 뜻”을 말하지만
👉 실제로는 지지층만 국민
반대자는:
“내란세력”
“적폐”
“극단적 소수”

📌 다수결 표방(여론조작/몰이) → 다수의 이름으로 군림 → 배제 정치
---
⑤ 위기와 공포가 상시화됨

늘 "지금이 비상 상황"
늘 "지금은 예외가 필요"
특별재판부, 특검 같은 임시 조치 만연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 반복되며
원칙 없는 선례가 누적됨

절차를 지키면 "개혁에 방해된다"는 낙인
→ 속도가 정의를 대체

반대자는 토론 대상이 아니라
'위기 조장의 책임자'로 규정됨

법률 대신 특별법·예외법·임시기구가 통치의 기본 도구가 됨

사법 판단보다
여론 재판·정치 선언이 먼저 작동

📌 자유는 항상 비상사태 속에서 조금씩 죽는다.
---
⑥ 역사·언어·교육의 급격한 재작성

헌법 가치 재해석
건국·체제 정당성 부정
새로운 용어 강제 사용
다른 해석은 "퇴행"으로 낙인

역사 서술은 "재해석"이라 부르되
불편한 사실은 삭제

헌법 정신은 살아 있는 가치라며
문언과 한계를 무력화

📌 과거를 지우면, 미래는 통제 가능
---
⑦ 외부 전체주의 세력에는 침묵, 내부 비판자에게는 가혹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 정권에는:
이해

문화 차이
상대화

내부 비판자에게는:
낙인
법적·사회적 압박

🔑 한 문장 요약

> 자유민주주의는 단번에 죽지 않는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누적된 예외로 죽는다.

#
<지금, 분명히 말해야 할 이야기: 2025년 12월 14일>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정권, 즉,
소련의 괴뢰로 출발한 김일성주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ChatGPT 작성)

이건 이념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며, 역사적 사실의 문제입니다.

"다른 생각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아닙니다. 이건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토론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들은 공통적으로
- 자유선거를 허용하지 않고
- 표현·언론·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며
- 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고
- 개인은 언제든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김일성주의는 정치이념이라기보다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세습형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이건 사상이라기보다 사이비 종교식 권력 유지 장치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공산혁명으로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선거, 사유재산, 종교의 자유, 법치, 개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산 전체주의와 피로 싸워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오해'도 아니고
'같은 민족의 다툼'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전체주의의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까

오늘날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 "중국도 나름의 발전 모델이 있다"
- "북한도 체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김일성주의도 하나의 사상일 뿐이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 자유를 없애는 사상이
자유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이념까지 품는
무제한 관용의 체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관용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이건 혐오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 김일성주의는
대한민국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다양성'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와 현실이
그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 정치범수용소
- 검열
- 사상 통제
- 탈출하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체제가 가진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독재의 선전장이 아닙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은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그 사상과 체제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지켜질 때만 자유로 남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사상에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순간,

자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방치로 무너집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생각을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체제이지,
자유를 파괴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에게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다양성"이라는 옷을 입혀주면
자유는 스스로 자기 발밑을 허무는 꼴이 됩니다.

전체주의는 언제나 정면 돌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총과 탱크보다 먼저 언어와 포장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지킬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
<정교분리의 원칙: 2025년 12월 16일>

대한민국 헌법 제 20 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한 문장 결론
정교분리는 '종교의 입을 막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며,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 원칙이다.

(ChatGPT 와 공동작성)

☑ 결론부터 명확히 말하면
- ❌ "정교분리니까 정치적 의견은 종교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상당히 틀린 말입니다.

- ☑ 정교분리는 종교의 입을 막으라는 원칙이 아니라,
  - 국가가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말 것
  - 국교를 제정하지 말 것
  - 특정 개인(수령)이나 이념을 '신격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헌법 원칙입니다.

◇ 오히려 정교분리 때문에 가능한 것들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국가는 신앙과 양심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일제 치하 신사참배
  - 일제 식민 치하에서 일본의 전범 숭배 제사의 의미를 지닌 신사참배를 거부하라고 가르친 교회는 상당한 정치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살아있었더라면,
그런 정권은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권한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 전체주의 체제
  - 인간 수령을 절대시하는 공산주의·나치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

“한낱 죄인인 나약한 인간 수령 위에 절대 주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교회의 가르침 역시 상당한 정치적 저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o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그런 정권은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가르침을 침묵시키거나
수령과 체제에 대한 '우상화'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교분리의 정확한 의미를 단계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1️⃣ 정교분리의 주체를 잘못 잡은 주장

"정교분리니까 정치적 의견은 종교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문장의 가장 큰 오류는
정교분리의 ‘의무 주체’를 바꿔치기한 데 있습니다.

헌법 제 20 조 제 2 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여기서 *분리의무를 지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 ❌ 종교인
- ❌ 종교 공동체
- ❌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

이들이 침묵해야 할 의무를 지는 조항이 아닙니다.

👉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절제 원칙'*입니다.

2️⃣ 대한민국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일관된 입장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뜻일 뿐,
종교인에게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즉,

- 종교인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 자신의 신념에 따라 발언하는 것은

👉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행사이고,
그걸 침묵시키려는 정권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일 여지가 높습니다.

3️⃣ 헌법 구조상 왜 틀린 말인가 (제 19·20·21 조 결합)

① 제 19 조 — 양심의 자유

- 정치적 견해는 양심의 핵심 영역
- 신앙에 기반한 정치적 판단도 동일하게 보호

👉 신앙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 또한
양심의 핵심적 보호 대상인 것입니다.

---

② 제 20 조 — 종교의 자유

- 종교는 본질적으로 삶 전체를 규율하는 세계관으로
- 윤리·정의·공동선 추구 및 불의와 폭정 비판 등을 핵심적으로 포함함

👉 종교에서 정치적 발언을 제거하면,
사실상 종교를 개인 취미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독재 체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낙인찍고,
국가 권력을 넘어서는 초월적 윤리 기준과 양심의 자유를 제거하기 위해
종교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거나 말살해 왔습니다.)

---

③ 제 21 조 — 표현의 자유

- 정치적 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 중의 핵심
- 특히 권력·정책·입법 비판은 최고수준 보호 대상

📌 헌법재판소·대법원 공통 입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제한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4️⃣ 정교분리의 진짜 금지선은 어디인가

정교분리가 금지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 ❌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채택
- ❌ 공권력을 통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제 또는 배척
- ❌ 특정 종교에 제도적·재정적 특혜 또는 배척
- ❌ 종교가 국가권력을 독점하거나 지배

👉 "종교의 정치적 발언" 금지가 아닌,
"정권의 특정 종교 편들기 또는 박해" 금지가 주목적입니다.

5️⃣ 왜 이런 오해가 반복되는가

"정교분리니까 정치적 의견은 종교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 의도는 종종 이것입니다:

- 종교적 가치관이
- 특정 정치 노선이나 이념을 불편하게 만들 때

그 발언을 반박하기보다는,
👉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전략

📌 그러나 이것은:

- 헌법 원칙이 아니라
-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6️⃣ 정확한 헌법적 문장으로 고치면

❌ *"정교분리니까 정치적 의견은 종교적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 헌법적으로 틀린, 반헌법적 표현입니다.

⬇️ 헌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입장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 또는 배제하거나 이를 국민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종교인과 종교 공동체가 신념에 따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로서,
✔ 이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법률에 근거해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엄격하게 허용돼야 한다.

🔚 한 문장 결론
정교분리는 '종교의 입을 막는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며,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 원칙이다.

#
<🕊️ Why Churches Must Speak: 2025년 12월 16일>

🕊️ Why Churches Must Speak
— For the Preservation of Liberal Democracy

(Co-written with ChatGPT)

In every free society, a familiar claim eventually appears:
> “Churches should stay out of politics.”

At first glance, it sounds reasonable—neutral, even prudent.
In reality, this demand is deeply misguided.

It threatens not only religious freedom,
but the moral foundations of liberal democracy itself.

This is not a theological argument.
It is a civic one.

🏛 Liberal democracy rests on more than laws

A free society is not sustained by:
📜 constitutions alone
⚖️ courts alone
🗳️ elections alone

These are essential structures—but they are not sufficient.

What ultimately sustains liberty is something quieter and more fragile:

* citizens capable of moral self-restraint
* a shared sense of right and wrong
* consciences that limit power before law must

Without these, no legal system can endure for long.

🧭 The state can regulate behavior, but it cannot form conscience

Every government can:
- punish crime
- enforce rules
- regulate conduct

No government, however, can:
* create moral responsibility
* cultivate self-restraint
* teach courage to resist injustice

When conscience weakens, the state compensates with control.
This is not tyranny by force.
It is dependency created by moral vacancy.

⛪ Why churches matter in a free society

Churches do not exist to:
- draft legislation
- operate political parties
- seize governmental power

But they do exist to:
* form conscience
* name right and wrong
* teach moral limits that power must respect
* remind society that legality is not the same as justice

This role is not optional.
It is essential to a free civic order.

🔔 Silence is not neutrality; it is moral abdication

When churches are told to remain silent in the face of:
- injustice
- abuse of power

- dehumanization
- legalized wrongdoing

what is being demanded is not neutrality,
but withdrawal from moral responsibility.

A silent church does not protect democracy.
It leaves citizens morally unarmed.

⚖️ Church–state separation protects moral speech—it does not forbid it

The principle of church–state separation means:
* the state may not establish a church
* the state may not control religious belief
* the state may not use religious institutions as instruments of power

It does not mean:
- churches must surrender their moral voice
- faith must retreat into private silence
- conscience must be excluded from public life

Separation exists precisely so churches can:
* speak freely
* criticize unjust authority
* confront wrongdoing without becoming the state

🧭 Speaking is an exercise of freedom, not a violation of it

When churches speak about:
* justice and injustice
* human dignity
* abuse of power
* moral limits of authority

they are not ruling.
They are not legislating.
They are not coercing.

They are doing exactly what a free society protects: 👉 forming conscience and speaking truth without seeking political office or state control.

That is not a violation of separation.
That is the purpose of separation.

🧱 When moral voices retreat, bureaucracy advances

History shows a consistent pattern:
When moral voices retreat from public life,
- injustice is defended as regulation,
- cruelty is carried out as standard procedure, and
- wrongdoing is justified as official policy.

Citizens stop asking, “Is this right?”
They ask only, “Is this permitted?”

That is the beginning of democratic decay.

🕊 The real danger to liberal democracy

The danger is not that churches speak.
The danger is that only the state speaks.

A free society requires:
* limits on power
* plural moral voices
* institutions independent enough to say, “This is wrong.”

Church–state separation exists to protect that independence.

🔚 Final Clarity

Churches speaking against social and political wrongdoing
do not violate church–state separation.

Silencing them does.

Separation protects freedom of conscience from power.

It was never designed to protect power from conscience.

A democracy that silences churches in the name of neutrality
will eventually silence citizens in the name of order.

Churches must speak—not to directly rule the state, but to remind it that it is not ultimate and must answer to a higher moral law.

That is not a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t is one of its essential foundations.

⚖️ Summary

Churches speaking on social and political wrongdoing is not a threat to liberal democracy but an essential safeguard.
Free societies depend not only on laws and institutions, but on morally formed consciences that restrain power and prevent the state from becoming the exclusive moral authority.

Church–state separation exists to protect this moral independence—allowing churches to challenge injustice without fear of oppression and to remind the state that it is limited and accountable to a higher moral law.

#LiberalDemocracy

#
<Democracy Does Not Collapse—It Dissolves: 2025년 12월 18일>

🚨 Democracy Does Not Collapse—It Dissolves:
Tocqueville's Warning for Free Societies

(Co-written with ChatGPT)

When Alexis de Tocqueville studied democracy, he did not fear chaos first.
He feared comfort.
He feared a people who would trade responsibility for convenience,
and call it "progress".

His warning was clear:

👉 Democracy rarely dies by force.
It dissolves from within—when citizens stop governing themselves.

🧠 Mores and Habits of Mind: The Character Beneath Democracy

Tocqueville used the word "mores" to describe the moral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a people.
Not laws.
Not institutions.
But the habits citizens carry into freedom.

Mores include:
- habits of mind
- moral instincts
- shared judgments about right and wrong
- assumptions about authority and limits

📌 Laws arrange who holds power.
📌 Mores shape how that power is actually used.

A society can keep its constitution and still lose its freedom.
When mores decay, liberty becomes unsustainable.

At the center of mores are "habits of mind"—
how people think when no one is forcing them to think.
In a free and mature society, those habits include:
- moral judgment instead of moral outsourcing
- self-restraint rather than a sense of entitlement
- civic responsibility instead of private retreat
- skepticism toward power—even when that power is popular
- association—solving problems together rather than depending on the state

📌 When these habits weaken, citizens begin to ask the state to think and decide for them.

⚠️ Soft Despotism: Freedom Managed Away

Tocqueville's most unsettling idea was "soft despotism".
Not tyranny with chains,
but control wrapped in care.

A society where:
• citizens withdraw into private life
• public burdens feel intolerable
• moral judgment is handed over to experts or authorities
• the state promises to manage life "for our own good"

In such a society:
• people are protected, but infantilized
• choice lingers for a time, as responsibility fades
• freedom exists in name, not in practice
👉 No dictator is needed.
The people surrender freedom themselves.

👥 The Crisis of the Democratic Citizen

Democracy depends on citizens who can bear freedom.

Yet Tocqueville warned of citizens who want:
- citizens who want rights without responsibility,
- freedom without limits,
- benefits without burdens.

A democratic citizen must be more than a voter.

A citizen must be:
• capable of moral judgment
• willing to resist unjust authority
• prepared to participate, not spectate
• able to limit power—even when power claims to serve the people

📌 When citizens lose the capacity for self-government,
government expands to replace it.

🏘 Association vs. Dependency

Tocqueville warned that isolated individuals are easy to govern.

When citizens stop forming associations:
• they lose civic skill

- they lose shared responsibility
- they lose resistance to central power

The result is not unity—but dependency.

📌 A society of isolated individuals will eventually demand centralized control.

⚖️ Freedom Without Limits Is Not Freedom

Tocqueville rejected the idea that liberty means unlimited choice.
Unchecked freedom produces:

- entitlement instead of character
- dependency instead of maturity
- regulation instead of self-restraint

📌 If people will not limit themselves, the state will do it for them.
This is not a moral sermon.
It is a political diagnosis.

⛪ Church and Moral Formation: A Necessary Buffer

Tocqueville observed that churches play a critical civic role:
nurturing independent moral judgment and conscience beyond the state.

They reminded citizens that:

- power is not ultimate and must be morally limited
- justice transcends law
- humans are morally accountable
- rights are inseparable from duties
- majority opinion is not the same as moral truth
- not everything legal is morally right
- human dignity does not come from the state

When such institutions weaken or are silenced,
the state is left without a moral counterweight.
📌 When the state becomes the only moral authority, democracy is already in danger.

🔚 Final Warning

Tocqueville's warning is not abstract.

It is immediate.
A democracy can keep its elections, courts, and constitution—
and still lose its soul.

Freedom cannot survive with:
• passive citizens
• outsourced conscience
• limitless demands
• comfortable dependence
• moral indifference
• withdrawal into private life
• fear of standing apart
• unquestioned trust in popular power

👉 Democracy survives only where citizens still believe
that freedom is a duty—not a service provided by the state.

#
<우리는 왜 이렇게 떳떳하게 위선적인가?: 2025년 12월 20일>

내로남불과 후안무치, 이중잣대와 선택적 정의·분노,
특권의식과 유권무죄, 뻔한 거짓 선전과 선동,
그리고 대낮에 벌어지는 노골적인 도둑질.
초헌법적·탈윤리적 권력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법치주의를
공개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현 한국 정치·사회·문화의 일부 권력층은
왜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마저 잃고도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가.

우리의 문제는 위선이 존재한다는 데 있지 않다.
위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다.

(ChatGPT 와 공동작성)

🧭 글 전체 구조

1️⃣ 『데미안』 논리의 내부 해체
🧩 위선을 부수려다, 더 정교한 위선을 만든 이야기

2 니체 → 『데미안』 → 그 모순

🧠 니체 '초인'의 철학은 어떻게 데미안의 '각성 서사'로 둔갑되었는가

3 왜 이 뻔뻔한 위선은 반복되는가

🏗 권력층·운동권·문화계를 관통하는 구조적 사고방식

4 개인이 물들지 않는 실천 기준

◐ 이론이 아닌 생존 매뉴얼: '뻔뻔한 위선'에 물들지 않기 위한 일상의 기준

5 유일한 대안

✝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가능한가

---

1 『데미안』 논리의 내부 해체

🧩 위선을 부수려다, 더 정교한 위선을 만든 이야기

『데미안』이 제시하는 논리를 그 내부에서 해체해 보자.
핵심은 분명하다.
『데미안』은 위선을 비판하며 출발하지만,
결국 더 정교하고 뻔뻔한 위선을 만들어낸다.

---

① 출발점은 옳다: 기존 도덕의 위선 폭로

『데미안』의 초기 문제 제기는 강력하다.

- 사회는 "선한 사람"을 요구하지만
- 실제 인간은 그렇지 않으며
- 사람들은 죄를 숨긴 채 위선적으로 산다

➡ 이 비판 자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

② 결정적 문제점: "선·악의 구분 자체가 위선이다"

데미안의 핵심 논리는 여기서 급격히 꺾인다.
"선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위선이라면,
아예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문제다."
여기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 발생한다.

▽ 논리 붕괴 포인트 ❶
본래 문제는

- ✔ 인간의 위선

- ✔ 기준을 가진 인간이 기준에 실패하는 것인데,

데미안은 이를 이렇게 바꾼다.

- ✖ 기준 자체가 거짓이다
- ✖ 선·악의 구분이 위선이다

☞ 실행의 실패를 기준의 부정으로 바꿔치기하는 오류다.

---

③ “강자는 규범을 초월한다”는 위험한 논리

『데미안』은 가인의 아벨 살인을 이렇게 재해석한다.

- 가인은 악해서 배척된 것이 아니라
- 강했기 때문에 약자들이 두려워 낙인찍었다

이 논리는 곧 이렇게 이어진다.

“강자는 기존 도덕을 넘어선다.”

▿ 논리 붕괴 포인트 ❷

이는 사실상 이런 주장이다.

- 나는 도덕 규범을 어겼어도
- 타락자가 아니라 ‘강자’다

☞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 자기 해석과 지위가 정당성을 결정한다.

---

④ 아브락사스의 정체: 책임 회피 장치

『데미안』의 가장 결정적인 모순은

“빛과 어둠을 모두 품는 존재” 아브락사스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 논리 붕괴 포인트 ❸

- 잘못을 저질러도
- “내 어둠의 일부”라 말하면 끝
- 받아들였으니 책임은 사라진다

☞ 비판·책임·사과·회복·배상의 필요가 제거되고,

☞ 자기 성찰 대신 셀프-면책만 남는다.

---

⑤ 위선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위선”을 만든다

기존 위선:

- ✖ 나는 완벽한 사람인 척한다

데미안식 위선:

- ❌ 나는 내 어둠까지 인정한 더 높은 인간이다

➡️ 왜 더 위험한가?
- 기존 위선은
→ 들키면 부끄러워하고
→ 기준과 반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

- 데미안식 위선은
→ 들켜도 당당하고
→ 기준이 사라져 반성이 불가능하다

👉 부끄러움이 사라진 위선이다.

---

⑥ “깨어난 자” 서사의 자기모순

『데미안』은 반복해서 말한다.
- 다수는 잠들어 있고
- 소수만이 깨어 있다

그러나 이 ‘깨어 있음’이란,
기존 도덕을 넘어섰다고 믿으며
자기 해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상태다.

▽ 논리 붕괴 포인트 ❹
- 새로운 선민
- 새로운 도덕적 우월감

👉 비판하던 ‘기준에 의한 구분’을 그대로 재현하되,
그 기준을 공적 기준에서 사적 해석으로 바꿨을 뿐이다.
기준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유화했고 고로 훨씬 더 위험해졌다.

---

⑦ 결과: 더 뻔뻔해진 인간형

『데미안』이 만들어낸 최종 인간상은 이렇다.
- 나는 내 욕망을 안다
- 나는 내 어둠을 인정했다
- 그러므로 나는 정당하다

👉 객관적 자기 성찰과 특히 회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 비판 불가능한 자의식만 남는다.

이는 궤변으로 포장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자기중심성이며,
적반하장식 면책 구조다.

---

⑧ 한 문장 요약 (냉정하게)

『데미안』은 위선을 폭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위선을 제거하지 못하고
‘각성’이라는 이름의 더 정교한 위선(셀프-면죄부)을 만들어냈다.

---

2 니체 →『데미안』→ 그 모순

🧠 니체 ‘초인’의 철학은 어떻게 데미안의 ‘각성 서사’로 둔갑되었는가

『데미안』은 니체의 초인(Übermensch) 사상을
심리화·미학화·청소년 성장 서사로 번역한 작품이다.
아래에서 니체 → 데미안 → 그 모순을 핵심만 짚어 정리한다.

---

① 니체의 핵심 발상 (요약)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 기존 도덕은

→ 약자의 도덕이며
→ 질투와 두려움이 만든 규범이고

- 강한 인간의 생명력을 억누른다

👉 해결책:
기존 선·악 기준을 넘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 초인

---

②『데미안』= 니체의 초인을 “순하게” 만든 이야기

- 니체:

→ 기존 도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급진적 가치 전복

- 『데미안』:

→ 그 급진성을 완화해 개인의 심리적 각성 서사로 전환

- 니체:

→ 인간의 본질을 힘·의지·가치 창조 능력에서 봄

- 『데미안』:

→ 자아 발견과 자의식 성장의 주체로 재해석

- 니체:

→ 선·악을 둘러싼 도덕 가치의 정면 충돌

- 『데미안』:

→ 선·악을 넘는다는 명목의 고통·성장 서사
(실제로는 판단과 책임을 유예)

- 니체: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엘리트 소수

- 『데미안』:

→ 누구나 도달 가능한 ‘깨어난 개인’
→ 자기 정당화적 해석으로 독자 모두가 접근 가능

👉 헤세는 니체를 그대로 쓰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에,
폭력성과 정치성을 제거하고
내면·상징·신비주의로 감쌌다.
니체는 도덕적 가치를 전복하려 했고,
『데미안』은 이를 개인의 내면 성장 이야기로 번역했다.

---

③ 가인의 아벨 살인 재해석: 초인 논리의 결정적 모순

이 부분은 거의 니체 직수입이다.

- 가인은 악해서 배척된 것이 아니라
- 강했기 때문에 약자들이 낙인찍었다

이 구조를 벗기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도덕은 약자의 방어기제일 뿐이고,
강자는 그 위에 있다.
👉 이는 곧
“도덕은 약자를 위한 것이며, 강자는 초월한다”는
니체의 초인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 살인의 도덕적 판단이 사라지고
- 폭력이 강함의 징표로 미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데미안』 전체 논리의 가장 노골적인 모순이자,
니체의 '초인'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

④ 아브락사스 = '초인'의 종교화 버전

니체:

- “신은 죽었다”
- 인간이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헤세:

- 선·악을 초월하는 상징적 존재
- 인간 내면의 통합된 힘

📌 차이:

- 니체는 기존 신을 파괴
- 헤세는 새로운 신적 상징을 창조

👉 그러나 기능은 동일하다.
기존 도덕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신은 죽었다」 니체 사상의 자기모순 (핵심 정리)

- 기준을 없앤다고 했지만

→ 실제로는 기준을 ‘강자의 기준’으로 교체

-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면서

→ ‘약자 도덕’은 절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

- 선악을 부정하면서

→ ‘초인’이라는 명백한 이상적 인간상을 또다른 선으로 제시

- 피조물 인간 입장에서 존재 의미의 근원인 창조주 신을 제거하고

→ 극소수만 가능하다는 '초인'을 가정 후, 도달할 수 없는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실패의 책임 전가

- 모든 권위를 해체하라면서

→ 자신의 사상은 비판 불가능한 위치에 둠

📌 핵심 한 줄
니체는 신을 죽인 뒤,
자신이 명령하고 판단하는 신적 자리에 서 있다.

---

⑤ 왜『데미안』이 니체보다 더 위험한가

니체는 적어도 솔직했다.

- “나는 위험하다”
- “나는 엘리트다”
- “나는 도덕을 부순다”

『데미안』은 포장했다.
- “상처 치유”
- “자기 수용”
- “성장”

☞ 그 결과,
'초인' 논리는 치유·각성의 언어로 위장되어
훨씬 넓게 퍼진다.

---

⑥ 초인 논리의 자기모순 (데미안에 그대로 존재)

✕ 모순 ❶
“모든 도덕은 허구다”
→ 그런데 ‘깨어남은 옳다’, ‘잠든 다수는 문제다’라는
새 도덕 기준을 몰래 세운다.

✕ 모순 ❷
“판단하지 말라”
→ 그러나 타인을 끊임없이 ‘미성숙’으로 판단한다.

✕ 모순 ❸
“도덕을 초월한 자유로운 개인”
→ 그러나 데미안의 말은 진리처럼 작동하고,
아브락사스의 예표 에바 부인은 거의 교주가 된다.

☞ 반(反)권위로 가장한
새 권위의 탄생이다.

---

⑦ 최종 요약 (한 문장)

『데미안』은 니체의 '초인' 사상을
철학에서 심리 성장 서사로 바꿔
위험성을 감춘 채 대중화한 작품이다.

---

⑧ 왜 이 사상은 계속 소비되는가

- 당장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듯 보이고
- 도덕적 책임을 삭제해주며
-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짓 우월감까지 준다

👉 이것이 모든 ‘초인’, ‘깨어 있는 자’ 서사가 공유하는 유혹이다.

선과 악의 심판자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유혹,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사탄의 오래된 유혹과 동일한 구조다.

---

3 왜 이 뻔뻔한 위선은 반복되는가

🏗 왜 이 논리가 권력층·엘리트·운동권·문화계에 반복되는가?

---

① “나는 선하지만, 규범은 싫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면책 구조

권력층·운동권·문화계의 공통 딜레마는 놀랍도록 동일하다.

- 이전의 권력·기득권·전통 도덕은 모두 비판하고 싶다
- 동시에 자신의 일탈과 저항은 정당화하며 책임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 그러나 자신이 세운 기준은 다시 보편 규범(도덕)으로 타인에게 강제하고 싶다
- 또 동시에 자신은 그 기준조차 초월하고 싶다

👉 이 모순을 가장 손쉽게 해결해 주는 게
데미안·니체식 ‘초인/각성자/나는 이미 넘어섰다’ 서사다.

이 서사는

-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은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 비판의 칼날은 외부·타자·“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만 향하게 만든다

📌 결과: 도덕적 우월감 + 책임 회피를 동시에 충족하는 가장 편리한 면책 구조가 완성된다.

---

② ‘깨어 있음’은 검증 불가능한 지위다

이 논리의 핵심 무기는 이것이다.
“너는 아직 못 도달했고, 나는 이미 넘어섰다.”
이게 강력한 이유는 모든 반론을
‘내용’이 아니라 ‘상태’의 문제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 비판하면?

→ “네가 아직 각성하지 못해서 그래.”
→ “구시대적 도덕에 갇혔네.”
👉 이는 논증이 아니라 지위 선언이다.

그 결과,
- 토론은 차단되고
- 검증은 불가능해지며
- 책임을 묻는 질문은 원천 봉쇄된다

📌 권력층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구조지만,
동시에 가장 즐겨 쓰는 언어이기도 하다.

---

③ 운동권에 특히 잘 맞는 이유: ‘정당한 위반’의 데미안화

운동권이 ‘데미안화’되는 결정적 전환 지점들:

1. 행동의 정당화 → 존재의 정당화
- 정상: 특정 상황에서 행위가 예외적으로 정당화(사후 책임 가능)
- 데미안화: 위반이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 됨

→ “우리는 깨어 있다” = 우리는 뭘 해도 본질적으로 옳다
👉 판단이 “무엇을 했나”에서 “누가 했나”로 이동

2. 비판의 방향 전환: 외부 → 내부 차단
- 정상: 외부 비판 + 내부 자기 수정 메커니즘
- 데미안화: 내부 비판을 “맥락 모름/미각성/배신자”로 봉쇄

👉 비판이 정의의 도구에서 충성 결여 증상으로 전락

3. 논증의 붕괴: 주장 → 지위 선언
- 정상: 근거·결과·책임으로 검증
- 데미안화: “누가 말했나”로 대체

→ “너는 아직 못 도달했다 / 나는 이미 넘어섰다”
👉 토론 불가 · 검증 불가 · 책임 추궁 불가

4. 도덕 비판 → 도덕 면제
- 정상: 위선적 적용을 비판하되 도덕 자체는 유지
- 데미안화: “도덕 자체가 위선”으로 이동

👉 자기 판단만 절대선이 되고, 새 도덕을 타인에게 강요

5. 목적 중심 → 수단 자기정당화
- 정상: 수단은 늘 재검토 대상

- 데미안화: 수단이 정당성의 증거가 됨

→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옳다는 뜻"

👉 목적은 흐려지고, 행동 강도와 잔인함만 남음

6. 책임의 언어 → 심리·서사의 언어

- 정상: 결과·피해·책임 중심
- 데미안화: 고통·각성·성장 서사로 전환

→ "우리는 고통을 통과했다" = 면책 근거

👉 책임이 윤리에서 심리 서사로 희석

📌 '데미안화'의 정의

규범 위반이 객관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각성의 절대 증거'로 간주되어
셀프-면책권과 우월감을 부여받는 순간.
그때부터 운동은
"설명 불필요/비판 불필요/책임 불필요"의
자칭 '깨어 있는 소수' 권력 구조로 전환된다.

🔑 한 문장 요약

불완전한 인간 사회에서 저항은 가능하다.
그러나 스스로를 절대적 도덕 위에 올려놓고
저항과 폭력까지 자기정당화하며 셀프-면책하는 순간,
그 운동은 곧 절대적 불의로 전락한다.

📌 결국, 비판하던 권위주의를 다른 이름으로 재현한다.
괴물을 잡겠다고 시작했지만, 싸우면서 괴물을 닮아간다.

---

④ 문화계에서 반복되는 이유: 책임 없는 표현의 자유

문화계는 대체로 이런 환경을 가진다.

- 상징·은유·감정이 중심
- 명확한 결과 책임이 약함
- "표현의 자유"가 셀프-면책 언어로 오남용되기 쉬움

그래서 논리는 이렇게 변형된다.

- "이건 악이 아니라 예술적 탐구다"
- "불편하다면 네 감수성이 문제다"

이 순간부터 쟁점은 바뀐다.

-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 행위의 실제 영향과 피해는 “해석의 문제”로 밀려난다

👉 행위의 책임은 사라지고, 의미 부여와 자기 해석만 남는다.

그 결과,

- 표현은 자유이되
- 책임은 유예되고
- 비판은 “검열/무지”로 낙인찍힌다

📌 ‘깨어 있음’이 셀프-면책으로 가장 쉽게 전환되고,
가장 손쉽게 뻔뻔해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다.

---

⑤ ‘소수 엘리트’ 서사가 집단 정체성을 만든다

이 논리는 대개 이렇게 끝난다.

- 다수는 잠들어 있다
- 우리는 깨어 있다
- 우리는 소수다

👉 이게 주는 보상:

- 실패해도 자존심 유지
- 고립돼도 선민 의식 유지
- 대중과 단절돼도 “앞서간다”는 자기 위로

그 결과,

- 패배를 패배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 결과 검토는 사라지며
- 자기 성찰은 구조적으로 금지된다

📌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관적 오류를 스스로 면제하는 집단 타락의 완성이다.

---

⑥ 가장 위험한 지점: 자기 성찰이 사라진다

이 논리가 완성되면 다음 질문들이 봉쇄된다.

-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 “내가 누군가를 해쳤을 수도 있다”
- “이건 변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 이미 “각성자”이기 때문
- 이미 “기존 도덕을 넘었기” 때문

👉 남의 위선을 비판하다가 자기 검열 능력을 잃는다.

---

⑦ 한 문장 정리

이 논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도덕적 우월감은 유지하면서
책임·검증·자기반성을 제거해 주는
가장 편리한(그러나 실상은 구제불능적으로 타락한) 사고구조이기 때문이다.

---

⑧ 마지막으로 가장 냉정한 결론

이 논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귀결된다.

- 처음엔 해방의 언어로 시작하고
- 중간엔 각성의 언어로 포장되며
- 마지막엔 ‘초인/각성자’ 특권의식 속에서

셀프-면죄와 군림·지배의 언어로 변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논리를 오래 붙든 집단은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지 못했다.
대신

- 비판하던 권력 구조를 반복하고
- 혐오하던 위선을 재현하며
- 부정하던 지배의 언행을 그대로 답습한다

📌 결국 그들은, 가장 증오하던 존재를 가장 닮아간다.

4️⃣ 개인이 물들지 않는 실천 기준

◐ 이론이 아닌 생존 매뉴얼: ‘뻔뻔한 위선’에 물들지 않기 위한 일상의 기준

이건 사상 비평이 아니다.
개인이 ‘각성자/초인’ 구조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실천 매뉴얼이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다.

---

① 한 줄 원칙 (먼저 외워둘 것)

내가 나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논리는,
대개 나를 가장 위태롭게 만든다.

---

② "깨어 있음"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경보를 울려라

'뻔뻔한 위선' 구조는 이렇게 말한다.

- "나는 이미 넘어섰다"
- "나는 깨어 있다"
- "그러므로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 순간, 의인됨은 자기 해석의 결과가 되고
비판을 차단하는 지위 선언으로 바뀐다.

👉 이는 자유가 아니라 성찰의 중단이다.
올바른 상태적 의인됨의 기준은 이것이다.

- 자신을 절대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
- 판단과 책임을 끝까지 함께 감당한다
- 비판을 위협이 아니라 점검으로 받아들인다
- "나는 옳다"가 아니라 "나는 틀릴 수 있다"에서 출발한다

📌 셀프-의인화는 비판을 막고,
상태적 의인됨은 성찰을 지속시킨다.

---

③ 해석보다 먼저 '구체적 피해자'를 찾는 습관

어떤 주장이나 담론을 들을 때, 항상 이 순서로 묻는다.

1. 누가 이득을 보는가
2. 누가 비용을 치르는가
3. 누가 침묵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구조의 문제", "과도기", "상징" 같은 말만 반복되면 → 경고.
📌 피해자가 흐려질수록, 담론은 권력이 된다.

---

④ 자기 성찰이 실제 '비용'을 동반하는지 확인하라

누군가 스스로를 "자기비판적"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본다.

- 사과가 있었는가
- 철회가 있었는가
- 지위나 이익을 내려놓았는가
- 실제 배상이 있었는가

없다면,
그건 성찰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다.
📌 비용 없는 성찰은 연출이다.

---

⑤ 내부 비판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가장 중요)

내부 비판자에게 이런 말이 나오면 즉시 경계하라.

- “배신자”
- “순수하지 않다”
- “맥락을 모른다”
- “적에게 이용당한다”

👉 그 순간, 그곳은 이미 사고 정지 구역이다.
📌 건강한 구조는 내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최종 체크리스트 (저장용)

- ‘나만 깨어 있음’ 주장에 자동 경계
- 해석보다 피해자 먼저 묻기
- 의도보다 객관적 결과 보기
- 비용 없는 성찰 거부
- 내부 비판자 탄압 여부 확인
- 소수 특권의식 서사 경계
- 설명 요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5️⃣ 유일한 대안
✝️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각성·초월·자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온 인간의 구원 서사들이
왜 필연적으로 위선·면책·지배로 귀결되는지를 해체해 왔다.
이제 그 모든 분석 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해방·안정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리한다.

---

① 모든 ‘자기구원 서사’의 공통된 실패

우리가 살펴본 모든 구조는 결국 같은 지점에서 무너졌다.

- 죄책감을 없애려 했지만 → 책임도 함께 제거했고
- 자유를 말했지만 → 관계는 파괴되었으며
- 해방을 외쳤지만 → 더 정교한 지배를 낳았고
- 위선을 비판했지만 → 더 뻔뻔한 위선으로 끝났다

이 실패의 이유는 단 하나다.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이다.”
이 전제가 유지되는 한,
자유는 반드시 자기합리화로,
해방은 반드시 타인에 대한 무자비함으로 변한다.

---

② 복음의 완전히 다른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인간에 대한 진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인간은 선과 악이 섞인 존재이며
-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 위선을 벗을 능력조차 없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 쪽으로 내려오셨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인간 사상과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다.
구원의 출발이 인간의 '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

③ 십자가와 부활: 자유와 해방의 실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축소하거나 흐리지 않는다.
- 죄는 실제로 죄로 드러나고
- 책임은 실제로 요구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인간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변명 없는 회개가 가능하고,
자기기만 없는 고백이 가능하며,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부활은 선언한다.
십자가의 용서는 환상이 아니며,

죄와 죽음은 실제로 패배했다.
부활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무죄 판결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기분이나 자기확신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정죄 위에 서는 안정감이다.

---

④ 판단 면제가 아니라, 정죄 해방에서 오는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대개 이것이다.

- 판단받지 않을 자유
- 비판받지 않을 자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다르다.

- 판단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자유
- 죄가 드러나도 버려지지 않는 자유

이 해방은
책임을 없애는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해방이다.
"네 책임이 맞다."
"그러나 네가 그 책임을 혼자 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진짜 회개, 진짜 사과, 진짜 관계 회복이다.

---

⑤ 도피처가 아니라, 머물러도 안전한 아늑함

세상이 주는 아늑함은 조건부다.

- 같은 생각만 허용되고
- 질문은 배신이 되며
- 불편한 진실은 추방된다

그 결과는 늘 같다.
불안, 감시, 침묵.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아늑함은 다르다.

-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 실패해도 쫓겨나지 않으며
- 질문해도 사랑이 철회되지 않는다

📌 여기서만 인간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다.

---

⑥ 왜 이것이 '유일한 대안'인가

다른 모든 길은 결국 이렇게 끝난다.

- 내가 기준이 되거나
- 우리가 기준이 되거나
- 우리 중 자칭 '각성자'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 기준은 인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있고
-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며
- 변화는 은혜로 시작된다

👉 그래서
자유는 방종이 되지 않고,
해방은 무책임이 되지 않으며,
아늑함은 폐쇄적 진영이 되지 않는다.

🔑 핵심 정리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자기구원 실패를 우회하지 않는다.

정면으로 통과한다.

- "너는 이미 넘어섰다"가 아니라
-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하러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판단 면제가 아니라 죄의 용서이고,
해방은 책임 삭제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힘이며,
아늑함은 같은 편의 안전이 아니라
정직해져도 쫓겨나지 않는 자리다.

◇ 한 줄 압축

각성은 나를 증명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정직하게, 안전하게 만든다.

🙏 짧은 기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
자비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제 힘과 제 판단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이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위선의 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죄와 상처와 무거운 짐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오셔서
주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자유민주적 공화국: 2025년 12월 21일>

🏛 자유민주적 공화국 — 핵심 정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 포함 / ChatGPT와 공동 작성)

🕊 ① 자유 —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기본권

자유민주적 공화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고유한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불가침의 헌법적 권리다.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재산의 자유 등은
국가 정책이나 다수결보다 앞서 보호되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며,
공익·안보·질서라는 이유로도 그 본질은 침해될 수 없다.

이 자유는 국가가 상황에 따라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혜택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맞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 자유란 국가의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넘을 수 없는 헌법적 경계선이다.

🗳 ② 민주 — 권력을 맡기되, 풀어주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공화국에서 국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의 출발점·정당성·한계는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맡기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백지위임이 아니라
기간·범위·책임이 정해진 조건부 위임이다.

권력자는 주권자가 아니다.
👉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한을 맡아 일하는 공복이며,
그 권한은 언제나 설명과 책임의 대상이다.
국민은 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다수결 역시 이 책임의 틀 안에서만 정당하다.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결정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결정도 자유권과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 민주란
권력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풀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통제의 방식이다.

⚖ ③ 공화 — 법이 권력을 묶는다

공화국에는 왕도, 세습 권력도, 절대 권력도 없다.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질서가 공화다.

여기서 말하는 법치는
권력이 법을 도구로 삼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권력 자신이 법 아래 묶이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권력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뉘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

공화는 지도자의 선의나 도덕성에 기대지 않는다.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 위에서,
제도로 그 폭주를 막도록 설계된 체제다.

👉 공화는
민주적 정당성이 남용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도
권력을 법 아래에 묶어 두는 헌법적 장치다.

🎯 한 문장 결론

> 자유민주적 공화국이란,
국가보다 앞서는 불가침의 자유를 토대로,
국민이 권력을 맡기되,
그 권력이 다수의 이름으로도 절대화되지 않도록
민주적 책임과 공화적 법치로 끝까지 묶어 두는 국가다.

📜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결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제 1 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7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Idiot의 어원: 2025년 12월 26일>

Idiot 의 어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 고대 그리스가 부른 이름

(ChatGPT 작성)

- 공적 책임을 포기한 개인은 왜 이디오테스('ἰδιώτης')라 불렸는가
- 무식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이름

Idiot 의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ἰδιώτης (idiōtēs)*는
지능이 낮은 사람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 공적 삶(polis)에 참여하지 않고,
👉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며,
👉 자기 사적 세계에만 머무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는 선택적 취미가 아니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중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방기한 존재, 곧 Idiot 이었다.

오늘날 “정치는 더럽다”, “나는 관심 없다”는 말은
중립의 선언이 아니라
👉 권력을 무책임한 자들에게 넘겨주는 선택이다.

고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정치적 무관심은 성숙함이 아니라
👉 idiocy,
즉 공적 책임을 포기한 개인주의의 한 형태다.

Idiot 이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기로 선택한 인간이다.

#
<‘궁궐’ 같은 상징적 건축에 집착: 2025년 12월 30일>

이재명의 청와대 재입성 논란(그가 과거 구중궁궐, 폐쇄적이고 불통인 권력의 상징, 시민과 동떨어진 권위주의적 공간이라 비판하던 곳이 청와대) 및

대통령 집무실(용산, 청와대) 앞 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안 추진 논란 관련 역사적 교훈

(ChatGPT 및 Gemini 작성)

📌 핵심 결론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일부 권력자는 통치 역량 강화보다 ‘궁궐’ 같은 상징적 건축에 집착했고, 이는 역사적으로 반복 관찰되는 몰락의 ‘증상’이자 국력 약화를 가속한 요인이었다.

🗂 대표 사례 요약 (정확 버전)
1️⃣ 서태후 – 이화원
- 사실: 북양함대 관련 예산이 이화원 중건에 전용·잠식된 정황 다수
- 정확한 평가: 청일전쟁 패배의 유일 원인은 아니나, 군사력 약화를 가속한 요인
- 핵심: 군비보다 황실 상징에 우선순위 부여

2️⃣ 네로 – 도무스 아우레아
- 사실: 로마 대화재 후 황금 궁전 건설, 거대 황제상 존재
- 정확한 평가: 몰락의 직접 원인은 복합적이나, 민심 이반을 상징적으로 증폭
- 핵심: 재난 속 권력 과시가 정치적 고립을 심화

3️⃣ 수 양제 – 낙양 궁궐
- 사실: 대규모 강제 동원, 군사 실패 이후에도 토목·사치 지속
- 정확한 평가: 과도한 토목 + 군사 실패 → 반란 → 멸망의 인과관계가 가장 명확
- 핵심: 국가 역량을 넘어선 상징 사업의 파국

4️⃣ 흥선대원군 – 경복궁 중건
- 사실: 당백전 발행, 강제 부역·원납전
- 정확한 평가: 조선 멸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나, 재정·민생 악화 및 개혁 지체를 심화
- 핵심: 권위 회복 시도가 국가 체력을 소진

5️⃣ 루이 14 세 / 루이 16 세 – 베르사유
- 사실: 절대왕정의 상징, 재정 악화 속 사치 지속
- 정확한 평가: 혁명의 단일 원인은 아니나, 왕실 사치의 상징으로 분노를 응집
- 핵심: 상징 정치가 사회적 폭발을 촉발

❓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가

① 현실 도피
- 통제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가시적·화려한 성과로 권력의 지속성을 확인하려는 심리

② 권위의 허상
- 실질 통치 능력이 약해질수록

외형적 위엄으로 반발을 억누르려는 선택

→ 대부분 역효과

#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본 주요 정치 사상과 자유민주적 공화정" 및 "천국에서의 '정치 체제'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건강한 정치 참여": 2025년 12월 31일>

(ChatGPT 및 Gemini와 공동작성)

<목차>

Ⅰ.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본 주요 정치 사상과 자유민주적 공화정 🧭

— 기독교는 모든 지상 권력을 상대화하는 초월적 천상의 기준

1. 기독교의 '정치적 위치'와 정치 사상 평가 기준

기독교는
• 좌파가 아니고
• 우파도 아니며
• 중도적 타협의 지점도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정치 이념이 아니라,
모든 정치 이념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선이신 전지전능한 창조주시며,
영원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의 최종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모든 권력과 권세 위에 서서
이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절대 진리이시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정치 사상·체제·이념을 초월하여 상대화하시는 주권자로서,
정치의 어느 한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 전체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어떤 세상 정치나 국가 체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스스로를 절대선이나 최종 기준으로 선언할 수 없으며,
모든 정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 요구 아래 놓인다.
👉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세상 권력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주로 고백하며,
모든 권력의 근원이자 모든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과 온전한 통치를 사모하고 경배한다.
이것은 세상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우상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 기독교 관점에서 이 땅의 주요 정치 사상을 평가하는
네 가지 불변·절대 기준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타협되거나 배제되는 순간,
그 사상·체제·이념은
👉 정치가 아니라 우상이 된다.

① 하나님의 주권
— 국가는 궁극적 권위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 주권자이시고 절대선이시다.
👉 그러므로
지상의 인간 권세나 국가가
자신을 절대화하며
자의적인 입법과 판단으로
선과 악의 최종 기준이 되려는 순간,
그 권력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기독교 신앙과는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충돌이다.

② 인간의 타락성
— 모든 인간은 불온전한 죄인이기에의
모든 인간의 권력은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
• 인간은 선의로도 악을 행할 수 있다
• 타락한 인간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절대화하려 한다
👉 그러나 기독교는 말한다:
→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 국가는 도덕적 절대자가 아니라, 통제되어야 할 인간 제도다.
→ 어떤 정권·이념·다수도
그 자체로 선과 악의 최종 판정자가 될 수 없다.

③ 인간의 존엄
—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그 존엄과 가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천부적 권리다.
• 인간의 본질적 존엄과 가치는
국가·체제·이념이 만들어내거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자체에 부여하신 가치로서,
사회적 다수결·효율·생산성·기여도에 의해
인간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존엄과 가치가
측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그러므로
다수는 자신의 의지나 이익을 근거로
소수의 생명과 존엄을 임의로 제거할 권리를 갖지 않으며,
국가는 개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할 권리가 없다.
👉 인간의 존엄은
언제나 정치 권력보다 앞서 존재하는 기준이며,
이에 기초한 천부적·불가침의 기본권은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생명·인격권, 양심·신앙·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가족·혼인·양육의 권리,
법 앞의 평등, 적법절차·공정재판권,
거주·이동의 자유,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폭정에 대한 저항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는
다수의 의지나 정치적 편의·효율, 이념을 이유로
자의적·과잉적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오직 엄격한 필요성, 최소침해, 비례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허용된다.

④ 구원의 근원
— 구원은 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다.
• 정의로운 제도 ≠ 구원
• 올바른 정책 ≠ 새 인간
• 혁명과 체제 전환 ≠ 새 창조
👉 정치가

구원의 언어를 차용하고,
스스로를 인류의 희망이나 구원의 통로로 제시하는 순간,
그 정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된 정치, 곧 우상이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법이나 제도가 사람을 교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과 존재, 그리고 신분까지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다.
👉 이 구원은
인간의 설계나 권력의 집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따르며,
삶과 영혼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는
믿음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재림과 최종심판 이후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확신과 보증을 부여받는 구원이다.
👉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제도나 권력도
이러한 하나님의 근원적, 존재적, 전인적,
전방위적, 새창조적, 실존적 구원을 결코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

2. 주요 정치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2.1. 큰 틀에서 좌·우의 개요 및 대표적 사상가와 역사적 발전 🔁

1️⃣ 🔴 좌파 (Left)
일반적으로 좌파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보다,
사회 제도와 구조,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누적된 권력 관계에서 먼저 찾는다.
가난과 차별은 동일한 규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출발선과 사회적 조건 자체가 오랫동안 불균등하게 작동해 왔다고 본다.
따라서 좌파는 공정을
단순한 형식적 평등에 한정하지 않고,

불균형한 조건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교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좌파는
법과 정책을 통해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 공정과 결과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좌파는 국가를 단순한 질서 유지자가 아니라,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공선을 실현해야 할 적극적 제도 설계자로 이해한다.
헌법 질서와 법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회 민주주의·사법 제도·기본권 보호를 존중하지만,
법치와 헌정질서를 권력을 사전에 봉인하는 절대적 경계라기보다
사회적 불공정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석·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법의 적극적 해석, 입법·행정의 역할 확대,
기본권의 목적적 제한 역시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좌파는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보고,
국가 개입을 통해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 한다.
→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개혁적 진보, 복지국가 모델)

🔴 극단적 좌파
극단적 좌파로 갈수록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적 평등과 사회적 획일화를 우선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적 정책과 광범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그 과정에서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고,
계급·정체성 집단·피해 서사·억압 구조와 같은 범주가
정치적 동원과 적대 구도를 조직하는 단순화된 정체성 언어로 사용된다.
기존 제도와 헌정 질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규정되며,
결과적 평등과 "해방"을 위해
삼권분립·사법 독립·절차적 법치·자유권적 기본권은
부차적이거나 장애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강한 국가 권력, 혁명적 전환, 집중적 통제가
정의 실현의 필요 조건으로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평등을 표방하는 당·관료 엘리트의 특권 독점과 인민 착취,
그리고 구조적으로 고착된 부패가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반복되어 왔다.
→ (극좌: 급진적 평등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체제, 권위주의적 좌파 포퓰리즘)

- 🧠 좌파 인간관

좌파는 인간을 사회적·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구조와 환경의 힘을 설명하지만, 개인의 책임·도덕적 선택·자기형성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 해석될 위험을 내포한다.

- 🏛 좌파 국가관

좌파는 국가를 불평등을 조정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적극적 제도 설계자로 본다. 그러나 국가 역할이 확대될수록 권력 집중, 관료적 비효율, 시민 자율성 약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좌파 핵심 문제의식

👉 ‘사회가 공정하지 않게 작동할 때, 그 불공정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설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좌파의 대표적 철학자 7인의 사상과 역사적 발전 🔴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 인간은 본래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가능성과 공감 능력을 지닌 존재다
→ 문제의 근원은 개인보다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사회 제도와 소유 구조에 있다
→ 평등·사회가 형성하는 집단적 의지(일반의지)·제도 개혁이라는 좌파 정치철학의 출발점을 제시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 개인의 자유는 핵심 가치지만, 형식적 자유만으로는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 교육·노동·사회 조건의 불평등은 자유의 실제 행사를 제한한다
→ 자유주의 + 제한적 사회 개입을 결합한 자유주의적·개혁적 좌파의 이론적 연결고리 제시

- 카를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

→ 사회의 핵심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경제적 소유 구조와 계급 관계에 있다
→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
→ 생산수단을 개인 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만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

- 블라디미르 레닌 (Vladimir I. Lenin, 1870–1924)

→ 불평등은 단순한 구조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권력을 독점한 결과
→ 국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니라 지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규정
→ 혁명과 권력 장악을 통해 국가 권력 자체를 전복·재구성해야 한다는 급진 좌파 노선 확립

- 안토니오 그람시 (Antonio Gramsci, 1891–1937)

→ 권력은 폭력만이 아니라 문화·교육·상식(헤게모니)을 통해 유지된다
→ 지배는 법보다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 속에서 작동한다
→ 좌파 투쟁의 중심을 경제 → 문화·담론으로 확장

- 허버트 마르쿠제 (Herbert Marcuse, 1898–1979)

→ 자본주의 사회는 풍요와 소비를 통해 사람들을 순응적으로 만들고 비판 능력을 마비시킴
→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학생·소수자·주변화된 집단이 체제 변혁의 주체
→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관용’을 비판하며, 해방(즉,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드는 지배적 사회가 생산한

욕망과 사고방식 자체를 깨뜨리는 것)을 위한 급진적 비판과 저항을 정당화

•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1926–1984)
→ 권력은 정부나 법뿐 아니라 학문·의학·교육·법 같은 지식 체계와 결합해 작동한다
→ '정상/비정상', '건강/질병', '범죄/비범죄'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권력이 만든 기준이다
→ 좌파 비판의 초점을 국가 권력 → 제도·지식·분류 체계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진리·정상성·정체성을 상대화하는 포스트모던 사고와 문화 좌파의 토대 제공

🧠 좌파 사상 흐름 요약
👉 제도와 평등의 문제 제기 (루소)
→ 자유의 실질적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 (밀)
→ 경제 구조와 계급에 대한 급진적 비판 (마르크스)
→ 혁명과 국가 전복을 통한 정치 전략 (레닌)
→ 문화·의식·담론을 통한 지배 메커니즘 분석 (그람시)
→ 소비·대중문화에 의한 순응과 억압 비판 (마르쿠제)
→ 진리·정상·정체성은 비고정적이라고 주장하며 포스트모던 토대 제공 (푸코)

⏳ 좌파의 역사적 발전
• 19세기: 산업혁명 → 노동 착취·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사회주의·노동운동 등장
• 20세기: 혁명 좌파와는 별도로, 의회·법·복지제도를 통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제도화됨
• 냉전 이후: 공산주의 소련 붕괴 이후, 계급 중심 분석의 영향이 약화되며 문화·정체성·미시 권력 중심으로 분석 범위 확장
• 오늘날: 제도 개혁을 중시하는 좌파와 더불어, 문화·정체성 중심 급진 좌파 및 국가 권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권위주의적·반자유주의적·포퓰리즘 좌파가 병존하는 복합적 국면

📌 한 줄 요약
좌파는 자유 그 자체보다 결과적 평등을 더 중시하며,
구조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개입을 통해 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로 이해한다.

2️⃣ 🔵 우파 (Right)
일반적으로 우파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권력은 선의로 설계되더라도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제도 설계 자체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제도 이전에 작동해야 할
도덕적 규범·사회적 질서·공동체의 자율적 기능 약화에서 먼저 찾는다.
급격한 제도 개편이나 전면적 사회 설계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검증된 관습·규칙·제도적 관성을 중시한다.
사회 질서는 국가가 설계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개인·가족·종교·시민사회·시장이라는 다층적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나누며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국가는 필요하지만, 이 질서를 대체하거나 주도하는 권력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고 보호하는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헌정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권력 분산을 강조하며,
국가는 권력을 적극 행사해 사회를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특정 목적이나 집단을 겨냥하지 않은 일반적·보편적 규칙 아래에서
개인의 자유가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제한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고 본다.
입법·행정·사법의 분리와 상호 견제를 통해
어떤 권력도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유의 전제다.
따라서 우파의 법치와 헌정질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전에,
권력이 넘지 못할 선행적 한계이자
자유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이해된다.
👉 우파는 문제의 해법을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과 자율적 질서에서 찾고,
권력이 커질수록 자유가 위협된다고 보아 이를 제도로 제한하려 한다.
→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헌정 보수, 제도적 보수, 법치 중심 자유민주주의)

🔵 극단적 우파
극단적 우파로 갈수록
질서·안정·정체성의 가치를 절대화하며,
국가·지도자·민족·전통 보호를 명분으로
강한 행정권과 권력 집중을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비상 상황이나 위기 담론이 반복적으로 동원되면서,
삼권분립·사법 독립·절차적 법치·자유권적 기본권은
예외적 조치라는 이름으로 유예·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가·민족·문화·전통과 같은 정체성은
정치적 결집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동원 언어로 단순화되고,
권력 남용을 경계하던 출발점과 달리
강한 국가 권위와 통제에 대한 묵인이 확대된다.
그 결과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붕괴되고,
지도자 중심의 권력 집중과 제도적 견제 약화,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가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반복되어 왔다.
→ (극우: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극우 민족주의, 파시즘)
• 🧠 우파 인간관
우파는 인간을 이기심·오류 가능성·권력 욕구를 동시에 지닌 불완전한 존재로 본다. 이 관점은 권력 남용

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경계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이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출발선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 🏛 우파 국가관

우파는 국가를 법치와 질서를 보장하는 제한된 권위로 이해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을 과도하게 경계할 경우, 시장 실패나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 우파 핵심 문제의식

👉 '사회를 개선하려는 시도 속에서, 권력이 집중되거나 책임이 약화되어 자유와 질서가 동시에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우파의 대표적 철학자 7인의 사상과 역사적 발전 🔵

- 토머스 홉스 (Thomas Hobbes, 1588–1679)

→ 인간은 이익과 두려움 앞에서 갈등과 폭력으로 치닫기 쉬운 존재다
→ 무질서 상태를 막기 위해 강한 권위와 규칙(주권)이 필요하다
→ 생존과 안전을 자유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는 질서 중심의 국가관

- 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

→ 인간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 생명·자유·재산은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권리(자연권)이며, 정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근거하고, 법으로 제한되며, 분산·견제될 때에만 정당하고, 그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자유보수주의의 기초를 세움

-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 개인의 이익 추구는 경쟁과 교환, 그리고 공정한 규칙 속에서 사회 전체에 유익한 질서로 연결됨
→ 시장은 중앙의 전면적 설계가 아니라, 개인들의 분산된 선택이 법과 제도라는 기본 규칙 안에서 작동함으로 형성
→ 국가의 전면적 개입보다 법·계약·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자유시장과 자생적 질서 전통의 출발점을 이룸

-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1729–1797)

→ 사회는 이성으로 설계되는 기계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의 축적이다
→ 급진 혁명은 의도와 달리 파괴와 혼란을 낳을 수 있다
→ 점진적 개혁·전통 존중을 강조한 현대 보수주의의 철학적 토대

- 알렉시 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

→ 민주주의는 자유를 확대하지만 다수의 폭정 위험을 내포한다
→ 자유는 법만이 아니라 시민의 습관·덕성·자치 경험에 의해 유지된다
→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 공동체(교회·협회)의 중요성 강조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A. Hayek, 1899–1992)
→ 사회 질서는 중앙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분산된 지식과 선택이 모여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형성
→ 국가가 결과를 설계하려 할수록 자유는 약화되고 권력은 집중된다
→ 시장·법치·일반 규칙(결과를 설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중시하며 계획경제와 과도한 국가 개입이 자유와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

• 마이클 오크숏 (Michael Oakeshott, 1901–1990)
→ 사회는 권력이 설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오며 쌓아 온 관습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질서
→ 인간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공식이나 매뉴얼처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
→ 정치는 이념이나 기술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전통과 현실을 살피며 삶의 지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영역

🧠 우파 사상 흐름 요약
👉 인간의 위험성과 질서의 필요 인식 (홉스)
→ 자연권·법치·제한된 정부에 의한 자유질서 (로크)
→ 시장과 교환과 공정 규칙에 기반한 자생적 사회 조성 (스미스)
→ 전통·관습에 기초한 점진적 개혁 (버크)
→ 다수의 폭정을 경계하고,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토대는 시민의 덕성과 자치 경험 (토크빌)
→ 중앙 설계에 대한 거부와 자생적 질서 옹호 (하이에크)
→ 정치를 단순 기술·이념으로 환원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오크숏)

⏳ 우파의 역사적 발전
• 18–19세기: 자연권·법치·사유재산·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보수주의와 전통·관습·덕성을 중시하는 전통 보수주의의 정착
• 20세기 전반: 파시즘·공산주의 등 전체주의 경험을 거치며, 권력 집중의 위험과 제도적 권력분립·견제의 중요성이 강조됨
• 냉전 시기–냉전 이후: 복지국가·행정국가의 확대 국가 개입이 자유를 잠식하고 국가 팽창·관료주의·계획주의로 경직될 위험을 경계하며, 시장·자율·중간 공동체의 역할을 재강조
• 오늘날: 자유·법치·책임·사회적 안정을 조화시키려는 제도 보수·자유보수 흐름이 이어지고, 전체주의와 국가 포퓰리즘의 재등장에 대응하여, 헌법 질서와 권력 제한,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보호를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으로 재확인하는 우파 흐름이 강화됨

📌 한 줄 요약
우파는 결과의 평등보다 자유의 조건을 더 중시하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법치·분권과 시민사회를 통해 자유를 지키는 것을 정의로 이해한다.

2.2. 기독교 정치철학의 개요, 성경적 기원, 역사적 발전 및 대표적 사상가 ✝️

1️⃣ 개요

- 📌 기독교 정치철학 요약

기독교 정치철학은 인간 정치를 구원의 수단이나 최종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 권력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시적 제도로 이해한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악을 제한하고 정의의 최소선을 보존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양심을 새롭게 하거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의 능력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인간 정치 체제나 이념도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없으며,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실존적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철학은 지상 권력의 신격화를 단호히 거부하는 동시에, 폭력과 야만의 무정부 상태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민과 권력 모두에게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
나아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간에 의한 절대적 권력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인간 권력의 제도적 제한과 분권을 강하게 요구한다.
한마디로 기독교 정치철학은 이 땅의 정치를 상대화하되 무력화하지 않고, 참여하되 숭배하지 않는다.

- 🧠 인간관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존엄을 지닌 존재로 보면서도, 동시에 타락(Fall)으로 인해 권력과 이익 앞에서 쉽게 부패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인간 권력의 견제와 제도적 제한이 필수적임을 정당화한다.

- 🏛️ 국가관

인간의 국가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지 않으며,
타락한 역사 속에서 악을 억제하고 공공의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제한적 제도로 이해된다.
국가는 불의를 억제하고 정의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인간을 새롭게 하거나 죄를 제거하거나 구원을 이루거나 궁극적 정의와 도덕의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인간 권력이나 다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존엄·권리가 보호되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책임과 몫이 공적으로 보장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고로, 이상적 지상 국가는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가 공적으로 규범화된 법이
국가와 모든 권력을 제한하며,
그 통치 구조 안에서
권력자는 자신의 특권적 지배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 각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먼저 존중되는 질서를 보장하며,
자유가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고 책임과 결합되도록 하고,
각자가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질서, 곧 ‘공동선’을 지향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책임을 지고 섬기는 공복(Public Servant)으로 성실과 신의에 따라 봉사한다.

- 🌿 미리 보는 도래할 천국의 핵심
- 지상 국가의 연장 아님

→ 어떤 정치 질서·문명·이념도 하나님의 나라로 상승하거나 동일시될 수 없음
- 인간이 설계한 제도·헌법·권력으로 완성 아님

→ 인간의 역사·도덕·진보로 도달 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님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만인의 부활과 최종 심판을 거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으로 도래
- 모든 죄와 사망, 갈등과 슬픔과 상처가 완전히 제거되어

죄와 사망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 위로와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새로 창조된 세계에서,
모든 성도와 공동체 안에
영원하고 온전한 행복·질서·자유·의가 충만히 실현되어 누려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의 본성이 되어
강요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창조를 돌보고 선을 확장하는 가운데,
완전한 화합과 평안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건설하는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실제로 도래하는
최종적이며 실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지금의 언어와 개념, 상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묘사를 넘어서
그 선함과 완전함과 행복이 훨씬 더 충만하게 실현될
궁극적 하나님의 현실이다.

2️⃣ 성경적 기원 — 지상 정치에 대한 근본적 긴장
👉 기독교는 출발점부터
정치를 숭배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위치에 서 있음
→ 정치는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궁극적 질서는 될 수 없는 임시적 제도이며,
→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비판적 긴장 속에 다루어야 할 영역

▪ 구약
→ 성경은 지상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신명기 17장은 중앙집권적 통치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왕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엄격히 제한된 권력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제 왕 요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대한 신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안정에 대한 인간의 집요한 요청에서 비롯되었으며(삼상 8장),
이에 대해 하나님은
왕정이 초래할 권력 집중, 수탈, 자유 침해의 구조적 위험을
분명히 경고하신다.
→ 따라서 구약에서 인간 왕권은
하나님의 이상적 통치의 구현이라기보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허용된 제도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왕권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왕과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정의 아래 두는 초월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
① 정치의 존재와 기능은 인정
→ 예수님은 지상 정치 질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 정치·국가·행정 질서가 수행하는 현실적 기능을 인정하심
→ 그러나 인간 정치 권력을
궁극 권위·구원의 주체로 절대화하는 것은 명확히 거부
➡ 정치 = 한정된 영역 / 하나님 = 최종 주권자

② 정치의 근본적 한계 폭로 (구원 불능)
→ 정치는
영혼을 구원하거나 죄를 속죄할 수 없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완전한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
→ 예수님은 이 한계를 분명히 폭로하시되,
폭력적 전복이나 무정부를 선동하지 않으심

③ 비폭력적이되 비순응적인 태도
•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지 않으심
• 동시에 불의한 권력을 신성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심
➡ 비폭력적이되 비순응적
➡ 정치 체제를 파괴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세우심

④ 권력의 폐지가 아니라, 권력 사용 방식의 전복
👉 예수님은 정치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정치를 하나님 나라 아래로 재배치하심
→ 권력을 없애자고 하지 않으시고,
→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전복적으로 재정의
👉 세상 정치의 권력 논리

- 지배 · 강제 · 자기보존

👉 하나님 나라의 권위 질서

- 섬김 · 희생 · 자기부인

⑤ 하나님 나라의 성격 — 세속 정치를 초월한 주권
→ 예수님의 나라는
특정 국가나 정치 체제가 아니라,
모든 세속 정치를 넘어 그 위에 서서 판단하는
전 세계적·궁극적 주권이다.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36)는 말씀은
정치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세속 정치가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는 선언이다.
→ 즉, 예수님은
정치를 제거하지 않으시되,
정치를 구원·새 창조·궁극적 정의의 주체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⑥ 십자가·부활·현재 통치 — 왕권의 성격
→ 예수님은 지상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조롱과 처형의 자리에서 '왕'으로 선포되셨다.
→ "예수는 주다(Kyrios)"라는 고백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모든 지상 정치 권력을 상대화하는 신앙 고백이었다.
→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주권 위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 이 왕권은 특정 시대나 정치 질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행사되고 있는 보편적이고 현재적인 주권이다.
→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재림 전 이 시대 동안
정치적 강제력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구속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회개를 부르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며, 교회를 세우심)
📌 그러므로 지상 정치 권력은 결코 절대화될 수 없으며,
참된 왕권과 최종 권위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

⑦ 재림과 최종 심판 — 확정된 왕권의 최종 집행
→ 참된 왕권은 지금도 이미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고 행사되고 있으며,
그 왕권은 확정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
→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는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은혜와 인내의 방식으로 행사하시며,
천국의 백성을 계속 불러 모으신다.
→ 재림의 날은
왕권의 소유가 새로 결정되는 날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이 왕권이 심판과 완성의 방식으로 전면 집행되는 날이다.
→ 그날에는 모든 국가·체제·이념이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심판받는 대상으로 서게 된다.
→ 그러므로 세상 정치는 지금도 이미 궁극적 권위가 아니며,
재림의 날에는 그 사실이 공개적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난다.
➡ 역사는 정치로 완성되지 않고
➡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마침내 종결되며
➡ 참된 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 제자들과 초대교회
→ 국가는 무질서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질서 유지의 도구다(롬 13:1–7).
→ 그러나 국가는 최종 권위가 아니며,
양심·신앙·구원의 영역을 지배할 권한은 없다.
국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할 뿐,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거나 구원을 명령할 수 없다.
→ 예수님의 제자들은
국가 권위에 대한 일반적 순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에는
폭력적 체제 전복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비폭력적 저항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는 원칙을 증언했다.
👉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궁극적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국가는 존중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기독교 정치철학 역사적 발전과 시대별 대표 인물
🕊️ 고대 교회 (1–5세기): 권력의 상대화와 비신성화
→ 국가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지 않으며, 죄로 인해 필요한 질서 억제 장치로 이해됨.
정치 권력은 필요하지만 구원이나 궁극적 정의의 주체는 아니라는 인식 정착.
•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e of Hippo, 354–430)

→ 인간은 타락했기에 정치 권력은 필요하지만 신뢰 대상은 아니다
→ 국가는 악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적 질서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 지상 정치 권력의 상대화·비신성화라는 기독교 정치철학의 출발점 확립
📌 시대 핵심
→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그 어떤 인간 권력도 절대화될 수 없다.

🏰 중세 (5–15세기): 법·공공선·자연질서의 신학적 정초
→ 정치 질서는 하나님의 도덕 질서 아래 놓인 것으로 이해됨.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며, 법은 힘이 아니라 정의에 봉사할 때 정당하다는 관점 형성.
•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5–1274)
→ 자연법을 통해 정치 질서도 하나님의 도덕 질서 아래에 있음을 설명
→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할 책임이 있으며, 법은 힘이 아니라 정의에 봉사해야 함
→ 자연법과 법치 개념은 기독교 정치사상 전반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
📌 시대 핵심
→ 정치 질서도 도덕 질서의 심판 밖에 있지 않다.

🔔 종교개혁기 (16세기): 정교 구분과 권력 제한
→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소명을 가진 영역으로 구분됨
→ 교회는 복음 선포와 양심 형성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며,
→ 국가는 법과 공권력을 통해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제도로 이해
인간 권력의 타락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적 제한·견제·법치의 필요성이 분명해짐.
•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 1483–1546)
→ 두 왕국론: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지만, 복음을 대신하거나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권한은 없음
→ 정교 구분, 권력의 한계,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학적 기초 확립
• 장 칼뱅 (John Calvin, 1509–1564)
→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권력자는 책임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
→ 타락한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저항과 견제를 정당화
→ 법치·헌정 질서·권력 분립 사상의 신학적 토대 형성
• 리처드 후커 (Richard Hooker, 1554–1600)
→ 정치와 법은 힘이 아니라 정의와 공공선에 의해 정당화됨
→ 공적 질서는 성경과 더불어 이성과 자연법적 도덕 기준에 의해 판단 가능
→ 정교를 구분하되, 법과 정치가 도덕적 토대를 잃지 않도록 하는 신학적 틀 제시
📌 시대 핵심
→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 권력은 언제나 제한되고 심판받는다.

🏛 근대 헌정 질서(국민주권주의·불가침의 기본권·입헌주의·법치주의·대의민주주의) 형성기 (17–19세기): 정치 참여와 도덕 개혁
→ 신앙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양심·자연권·정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통해
법·의회·제도를 형성하며 사회적 악을 제한할 공적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동시에 인간 권력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국가 권력의 팽창을 경계하는 분권·견제·법치적 사고가 강화.
• 윌리엄 윌버포스 (William Wilberforce, 1759–1833)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 의회 정치 안에서 사회악을 개혁
→ 노예제 폐지를 통해 기독교 윤리의 제도적 구현을 실증
→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치 참여의 대표적 사례
•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 1837–1920)
→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 국가는 모든 영역을 지배하지 않는다
→ 교회·가정·국가·시민사회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고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국가 권력의 팽창을 경계하며 분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신학 제시
📌 시대 핵심
→ 신앙은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게 사회와 제도를 형성할 수 있다.

🛑 20세기 전체주의의 충격: 전체주의에 대한 신앙적 저항
→ 국가가 선과 정의, 역사적 목적을 독점하려 할 때,
정치는 쉽게 전면적 폭정과 인간 파괴의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음이
나치즘·공산주의·파시즘의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확인됨.
이 과정에서 교회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윤리적·신학적 자각이 형성됨.
권력 앞의 침묵은 더 이상 신앙적 미덕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확산.
•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1906–1945)
→ 국가가 정의를 파괴할 때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 중립은 책임 회피이며, 그리스도인은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함
→ 복음을 정치로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폭정에 맞서 저항한 신앙의 증언
• C. S. 루이스 (C. S. Lewis, 1898–1963)
→ 국가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거나 구원할 수 없으며,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제한된 역할
→ "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자유와 양심을 강제할 때, 권력은 쉽게 폭정으로 변질됨
→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정치 권력은 겸손하게 제한되고 견제되어야 함
📌 시대 핵심
→ 국가가 선과 정의의 주체로 자신을 절대화할 때, 기독교는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비판과 저항으로 응답해야 한다.

🔔 현대 공적 신학의 전개 (20세기 후반–21세기)
→ 20세기 독재와 전체주의의 비극, 그리고 21세기에 다시 확산되는
전쟁·권위주의·양극화·정보오염의 현실 속에서,
현대 공적 신학은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거부해 왔다.
하나는 국가와 정치 권력을 구원의 주체로 절대화하는 오류이며,

다른 하나는 신앙을 개인의 내면으로만 축소해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도피이다.
복음은 어떤 정치 이념으로도 환원될 수 없으나,
사적 신앙에 갇히지 않고 공적 진리로서 사회와 권력을 비판해야 한다는 균형이 정교화되었다.
국가는 도덕과 구원의 최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인간 권위는 제한되고, 책임을 요구받으며, 비판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은 전쟁과 위기의 시대에
방어의 책임은 인정하되 전쟁을 신성화하지 않고,
정치를 숭배하지 않으며 국가 절대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권력의 폭주를 감시하고,
진실과 법치, 인간의 존엄과 성경에 기반한 정치·사회적 윤리와 개인적 도덕 기준을 증언하는 것이
현대 공적 신학이 이해하는 핵심적 공적 소명이다.

• 칼 F. H. 헨리 (Carl F. H. Henry, 1913–2003)
→ 복음은 개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진리로 말해야 함
→ 정치 현실 앞에서의 신앙적 침묵은 책임 회피임
→ 신앙과 공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공적 신학의 방향 제시
• 프랜시스 쉐퍼 (Francis Schaeffer, 1912–1984)
→ 기독교 신앙은 문화·법·정치 전반을 판단하는 기준
→ 진리가 무너지면 자유와 헌정 질서도 함께 붕괴됨을 경고
→ 성경적 진리와 자유사회·법치의 도덕적 토대를 연결해 설명
• 올리버 오도노반 (Oliver O'Donovan, 1945–)
→ 정치 권위는 스스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래서만 제한적으로 정당화됨
→ 법과 권위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정당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 정치 질서는 구원이 아니라 책임과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인 영역에 속하며,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지 못하고 그 아래서 상대화됨

📌 시대 핵심
→ 복음은 공적 진리로서 권력과 사회를 비판해야 하고, 어떤 정치 이념이나 권력의 정당화 도구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 종합 정리
기독교 정치철학은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권력을 제한하고,
복음을 정치 이념이나 국가 정책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정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법과 권력을 성경적 정의·윤리·공공선·인간의 존엄이라는
초월적 기준 아래 두며,
역사 속에서 인간 권력의 비신성화·제한·견제·책임을 일관되게 요구한다.
그 결과 정치는 궁극적 권위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앞에서 제한되고 책임을 지는
역사 속의 질서로 자리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 정치철학은 책임 있는 정치 참여와

예언자적 권력 비판의 기준을 동시에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구원의 수단으로 숭배하지 않으며,
동시에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도 않는다.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참여하되,
위임받은 권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과 겸손을 갖춘 청지기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며,
무엇보다 어떤 인간 권력도 결코 절대화하지 않는다.
역사는 정치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치가 필요했던, 죄와 갈등으로 얼룩진 이 시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 끝나기 때문이다.

2.3. 좌·우 각각의 한계: 기독교적 평가 🚧

🔴 기독교는 좌파가 아니다 — 그러나 좌파의 어떤 직관에는 공명한다

📌 흔히 말하는 좌파의 핵심 가치와 기독교 관점에서의 한계 평가
1) 실질적 평등 – 형식적 평등을 넘어 결과의 격차까지 문제 삼음
→ 개개인 존엄의 평등은 성경적이나, 결과의 동일화를 목표로 삼을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책임·은사의 다양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또한 결과 중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제도를 정당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양심·신앙·표현 등 개인의 천부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2) 구조적 정의 – 불의의 원인을 개인보다 제도·권력 구조에서 찾음
→ 구조의 불의는 분명 존재하지만,
불의를 구조로만 설명할 경우 그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해 온
인간 개개인의 죄성과 도덕적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의의 기준이 보편적 법치와 초월적 윤리·도덕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유불리나 특정 혁명 세력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정치화된 '가짜 정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3) 구조 개혁 – 결과적 불평등을 낳는 기존 권력·시장 구조를 조정하려는 접근
→ 제도 개혁은 불의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인간을 새롭게 할 수는 없으며,
사람의 중생과 회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사회 구조의 불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구조를 혁명적 방식으로 재설계한 국가와 제도를
선과 정의의 최종 기준이자 실현 주체로 격상시키고,

나아가 사실상의 구원 주체로까지 상정할 위험이 있다.

4) 약자 우선 – 취약 계층 보호를 사회의 핵심 책임으로 이해
→ 약자 보호는 성경의 분명한 명령이지만,
그 우선성이 도덕적 절대 기준으로 고정될 경우
이에 기초한 정의는 사실 관계·책임·진실의 전체 맥락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5) 재분배 –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적 강제 자원 조정 정당화
→ 자발적 나눔은 성경적 덕목이나,
강제적 재분배가 정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할 때
자발성·청지기적 책임·이웃 사랑의 자유가 약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탈과 수탈이라는 죄가 될 위험이 있다.

6) 국가의 적극 개입 – 시장 자율보다 국가의 교정·보호 기능 우선
→ 국가는 질서를 위한 도구이지만,
정의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최종 주체로 격상될 때
법치가 아니라 정의를 가장한 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국가가 사실상 도덕 주체이자 구원 수단처럼 신격화될 수 있다.

7) 집단적 연대 – 개인보다 사회적 책임과 연대 중시
→ 공동체적 책임은 중요하지만, 집단 논리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양심·회개·도덕적 판단이 집단에 흡수되고,
그 결과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책임이 희석될 위험이 높다.

8) 추가 차별 시정 – 보편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개입 정당화
→ 보정적 조치는 필요할 수 있으나,
예외가 반복될 경우
법의 보편성·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정의가 정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가 정의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으로 왜곡될 위험이 높다.

9) 공공성 강화 – 시장 논리보다 공공 책임에 기초한 공공서비스·사회 안전망 확대
→ 공공 책임은 필요하지만,
삶의 영역 전반이 공공 논리로 흡수될 때
개인·가족·교회·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책임 공간이 축소될 수 있고,
결코 전지전능하지도, 온전히 선하지도 않은
소수의 인간 권력이 사회 전체를 계획·통제할 때,
현실과 다양성·자율성을 무시한 획일화와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고,

오히려 권력층만 이익을 취하는 구조적 배임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10) 진보 신념 – 제도를 바꿔 불평등한 결과를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
→ 제도 개선의 가능성은 인정되나,
역사가 인간의 힘과 의지에 의해 점진적으로 참된 정의에 수렴한다는 신념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자기보존 본능과 도덕적 타락 가능성을 크게 간과하는 위험이 높다.

📌 좌파에 대한 기독교의 종합 평가
• 기독교는 구조적 불의와 권력 남용에 대한 좌파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시스템에만 두는 시각은 인간의 죄성과 도덕적 책임을 전제하는
성경적 인간 이해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기독교는 하나님 성품에 따른 정의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인간이 구현하는 정의 역시 불완전하고 편파적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따라서 정의를 주장하는 어떤 제도나 운동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성찰의 대상 아래에 놓인다.
• 정의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설계·관리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서 나오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 기준은 혁명이나 권력, 제도에 위임될 수 없다.
• 구조 개혁과 제도 개선은
불의를 완화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로 인간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 새 인간은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탄생한다.
• 그러므로 기독교는 좌파처럼 구조를 비판하지만,
구조가 구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참된 정의는 정치적 구호나 제도적 성과로 완성되지 않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열매로 드러난다.

🔵 기독교는 우파가 아니다 — 그러나 우파의 어떤 통찰에는 공명한다

📌 흔히 말하는 우파의 핵심 가치와 기독교 관점에서의 한계 평가
1) 자유 –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보호
→ 자유는 성경이 존중하는 가치이나, 자유가 자기결정권의 절대화로 흐를 경우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 지는 도덕적·관계적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죄와 자기중심성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한다.

2) 책임 – 자유에는 결과에 대한 개인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 책임 강조는 성경적이나,
모든 실패와 고통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만 환원할 경우
구조적 불의와 공동체의 책임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

3) 질서 – 자유 유지를 위한 규칙·안정의 필요성
→ 질서는 자유의 조건이지만,
질서가 현상 유지의 논리로 굳어질 경우
불의한 상태까지 정당화하거나 정당한 개혁의 필요성을 억압할 수 있다.

4) 법치 –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 규범
→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법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입법자와 권력자가 타락한 상황에서
법이 도덕적 성찰과 초월적 기준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법치는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 채 합법성만 남는 형식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참된 법치는 모든 사람이—권력자와 시민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초월적 정의 기준 앞에서 동일하게 재단받는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5) 전통 – 검증된 관습과 제도의 존중
→ 전통은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혜의 산물일 수 있지만,
비판 불가능한 권위로 신성화될 때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갱신·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인간의 전통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타락의 가능성을 지니며,
바리새인들의 전통처럼
의와 인애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잃은 채
형식만 남은 종교적 관습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6) 공동체 안정 – 급진적 변화보다 지속성과 안정 중시
→ 안정은 공동선을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안정이 최우선 가치로 절대화될 경우
억눌린 자의 고통과 불의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지연·방치될 위험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정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죄가 직면되고 해결되며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에서 비롯된다.

7) 시장의 자율성 – 경쟁과 자발적 교환의 효율성 신뢰
→ 시장은 유용한 조정 장치이나,
시장 논리가 도덕적 한계 없이 확대될 경우 약자 보호와 공동선이 부차화되고,
탐욕·착취·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서 분리된 시장은 경쟁의 효율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시장의 성과를 도덕의 기준으로 삼을 때,
강함은 미덕이 되고 약함은 죄처럼 취급된다.

8) 점진적 변화 – 급격한 개혁에 대한 경계
→ 점진성은 현실적 지혜이나, 변화에 대한 과도한 경계는
명백한 불의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개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와의 타협은 중립이나 신중함이 아니라
불의를 묵인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위험이 있다.

9) 권력 제한 – 국가 권력의 집중과 확대에 대한 경계
→ 인간과 국가 권력 제한은 기독교 정치 이해와 깊이 공명하지만,
국가 권력에 대한 경계가
자본·시장·문화와 같은 사적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성경은 인간과 국가 권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권력임을 전제하고,
그 권력이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정의 아래에서
제한되고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친다.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무질서와 자의성은
성경이 경고하는 위험한 상태다.

10) 도덕 질서 – 자유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 규범 유지
→ 도덕 질서는 필요하지만,
도덕이 전통·관습·국가 정체성과 동일시될 경우
복음의 회개 요청과 초월적 기준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 우파에 대한 기독교의 종합 평가
• 기독교는 자유, 책임, 질서, 법치, 권력 제한이라는
우파의 핵심 직관들과 깊이 공명한다.
이는 인간의 죄성과 권력의 오용 가능성을 전제하며,
권력을 제약하지 않으면 자유와 공동선이 쉽게 파괴된다는
성경적 현실 인식과 맞닿아 있다.
• 그러나 기독교는 자유·질서·전통·안정을
불의를 덮는 최종 가치로 절대화하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보존하고
이웃 사랑과 공동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다.
• 기독교는 법치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성과·효율·경쟁의 결과 자체가
도덕적 정당성이나 의로움으로 오인될 때의 왜곡을 경계한다.
성경은 세상적 성공을 절대적 의로움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축복을 특권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섬김의 요청으로 해석한다.

•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파처럼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제한을 중시하지만,
질서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명백한 불의가 방치되거나 정당화되는 상황에는 침묵하지 않는다.

2.4.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충돌하며 사실상 공존이 불가능한 극단적 정치 사상들 🚫

2.4.1. 극좌사상 (Far-Left Ideologies) 및 극우사상 (Far-Right Ideologies) 🔴 🔵

➡️ 공통점: 극좌와 극우는 서로 다른 언어와 명분으로 출발하지만,
극단으로 갈수록 개인을 수단화하고 권력을 절대화하는
유사한 정치 구조로 수렴한다.
그 과정에서 본래 제한돼야 할 인간 권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최종 주체로 오인된다.
역사적으로
극좌는 평등과 해방을,
극우는 질서와 국가를 내세웠으나,
공통적으로 권력 집중, 강제, 자유 억압, 엘리트 특권과 구조적 부패로 귀결돼 왔다.
👉 따라서 극단 정치의 문제는 좌·우의 차이가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순간에 발생한다.
✅ 출발은 달라도, 극단의 끝은 비슷하다.

🔴 극좌사상 (Far-Left Ideologies)
→ 극좌란, '정의'와 '해방'을 명분으로 개인·양심·자율을 부정하고, 혁명적 이념이나 집단이 국가·폭력을 통해 사회를 전면 재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이념이 인간 위에 서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 대표적 예시
• 공산주의 (Marxism–Leninism)
• 혁명적 사회주의
• 레닌주의 · 스탈린주의 · 마오주의
• 주체사상 (북한) (동시에 극우적이기도 함)
• 급진 좌파 무정부주의 (Anarcho-Communism)

- 문화혁명주의 · 급진 정체성 정치의 극단 형태

❌ 전면 충돌
-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유물·계급·구조의 산물로 환원
- 사유재산과 개인 책임의 약화 또는 부정
- 계급 투쟁과 혁명 서사를 통한 폭력의 도덕화 가능성
- 국가·당(黨)·이념에 의한 전면적 사회·사상 통제
- 전통·종교·가정·역사·언어를 억압 구조로 간주하고 급진적 해체 시도
- 반대자에 대한 낙인·배제·침묵 강요

✝ 판단
극좌사상은 죄를 하나님 앞의 도덕적·영적 문제로 보지 않고
외부 구조와 계급 관계로만 환원함으로써 성경적 인간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정의·평등·해방이라는 선한 가치를 절대화하여
국가·당·이념을 사실상의 구원 주체로 세우는 순간,
그 체제는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를 침범하며 전체주의로 기울게 된다.
기독교는 불의한 구조를 비판하지만,
구원과 새 인간의 탄생은 혁명이나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의함과 죄악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서 온다고 고백한다.

🔵 극우사상 (Far-Right Ideologies)
→ 극우란, ‘질서’와 ‘정체성’을 절대화하여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집단·국가·지도자·신성화된 권위에 종속시키는 사상이다.
권위가 인간 위에 서며, 충성이 도덕을 대체한다.

📌 대표적 예시
- 파시즘 (Fascism)
- 나치즘 / 극단적 민족·인종주의
-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 군국주의 · 지도자 숭배 체제
- 주체사상 (북한) (동시에 극좌적이기도 함)
- 신권국가적 극우 (종교·국가 결합 형태)
- 극단적 쇼비니즘 · 문명우월주의

❌ 전면 충돌
- 인간의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민족·국가·혈통·충성도로 평가
- 질서·권위·정체성을 절대화하여 비판과 회개의 공간 차단
- 국가·민족·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요구
- 개인의 양심·자유·소수자 보호보다 집단의 통일성과 힘을 우선

• 폭력·강제·배제를 질서 유지의 정당한 수단으로 정당화
• 전통을 성찰 없이 신성화하며, 불의한 질서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착

✝ 판단
극우사상은 질서와 안정이라는 선한 가치를 절대화하여
국가·민족·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성경은 질서를 존중하지만,
그 질서조차 죄로 타락할 수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한다.
기독교는 강한 국가나 순수한 공동체를 통해
인간이 구원되거나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참된 질서와 안정은 권위의 강화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회개와 겸손에서 나온다고 고백한다.

2.4.2. 위 극좌·극우 외의 다른 극단적 정치 사상들 예시(신정 전체주의 포함) ⚠️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충돌하며 사실상 공존이 불가능)

➡️ 공통점: 이 모든 극단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권력·이념·정체성을
다른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가치 위에 올려놓고,
그것에 책임·회개·제한 없는 절대성,
나아가 심판과 구원의 권한까지 부여하는 우상화다.

🧭 핵심 판별 문장 (기준선)
어떤 사상이든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고,
인간 권력을 회개와 책임, 그리고 제한에서 분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극단이다.

1️⃣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 국가나 정치 이념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며, 사적 양심·종교·사고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권력 형태

📌 대표 예시
• 스탈린 체제 · 나치 독일 · 북한 주체사상
• 현대적 감시국가 모델
❌ 전면 충돌
• 단일 진리 강요
• 국가·이념·지도자의 절대화
• 개인의 양심·자유·초월성 말살

✝ 기독교 판단
국가나 이념이 인간의 궁극적 충성과 예배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를 침범하며
기독교 신앙과 즉각적·전면적으로 충돌한다.

2️⃣ 극단적 기술관료주의 (Technocratic Extremism)
→ 효율과 전문성을 절대화해 민주적 책임과 도덕 판단을 제거하고, 인간을 관리·최적화 대상의 데이터로 환원하는 통치 방식

📌 대표 예시
• 전면 감시 사회
• AI 점수 통치 · 알고리즘 결정 정치
❌ 전면 충돌
• 인간을 데이터·효율로 환원
• 도덕을 관리와 계산으로 대체
• 책임 없는 결정 구조
✝ 기독교 판단
지식과 기술은 중립이 아니며,
지혜는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된다.
효율이 선을 대신할 때,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한다.

3️⃣ 극단적 포퓰리즘 (Radical Populism)
→ '진정한 국민'이라는 가상의 집단 의지를 내세워 제도·법치·소수 권리를 적대화하고 분노를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는 정치 형태

📌 대표 예시
• 법치 무시형 대중 선동 정치
• "국민 vs 적" 이분법 정치
❌ 전면 충돌
• 분노의 신성화
• 다수 감정의 절대화
• 법·제도 파괴
✝ 기독교 판단
십자가는 선동이 아니라 희생이다.
분노가 정의를 대신하는 순간, 진리는 파괴된다.

4️⃣ 신정 전체주의 / 종교 권위주의
→ 신적 권위나 종교 교리를 인간 정치 권력과 결합시켜 인간 권력에 대한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배교·범죄로 전환하는 통치 체제

📌 대표 예시
• 극단적 신정 국가
• 종교와 국가 권력의 결합 체제
❌ 전면 충돌
• 특정 신앙 해석 강제
• 양심·신앙의 자유 부정
• 신앙을 권력 도구로 사용
† 기독교 판단
신앙은 강요될 수 없으며,
복음은 권력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종교가 정치 권력을 붙드는 순간, 복음은 왜곡된다.

📌(여기서 잠깐) 왜 기독교 성경의 복음은 인간에 의한 신정정치를 거부하는가

기독교는 이슬람 신정 전체주의뿐 아니라,
기독교·유대교·힌두교 등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적 권위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여
특정 인간 종교지도자 겸 통치자를 신격화·절대화하고,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려는 모든 형태의 신정정치를
복음이 정치 권력으로 옳게 구현된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이
세속 국가의 공적 질서 안에서 헌법과 법치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책임 있는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참여다).
기독교가 거부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국가 통치의 정당화 근거로 삼아
인간 통치자를 신성화·절대화하는 신정정치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교황청(바티칸)*과 같이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신정적 정치 체제조차,
복음이 정치 권력으로 정당하게 구현된 모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종교와 국가 권력이 결합해 통치하는 모든 구조는
— 종교의 종류와 무관하게 —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권력과 제도로 오해·축소할 위험이 크며,
동시에 죄인인 인간을 신격화·절대화할 위험을 내포하기에,
기독교 신앙과 원리적으로 깊은 긴장과 중대한 충돌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를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은 타락했다
→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권력도 반드시 부패한다
• 성경은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롭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독점적으로 주장하는 권력은
비판·견제 불가능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쉽다
• 신정정치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인간 권력의 방패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②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제도로 동일시되지 않는다
→ 교회 ≠ 국가, 구원 ≠ 제도
→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국가·체제·법률로 고정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통치다.
→ 성경 속 모든 인간 지도자는
절대적 통치자가 아니라 임시적 대리자·청지기였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 절대화된 적은 없다.
→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질서로 고정하는 순간,
복음은 필연적으로 왜곡된다.

③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이시며, 성도들은 그의 통치에 참여적·제한적으로 동역한다
→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미 확정된 실제적 주권이지만,
그 왕권이 인간에게 신적·절대적 정치 권력의 형태로 전권 위임된 적은 없다.
→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된 주권자이셨음에도,
초림의 때에는
세상 국가를 세우거나 제국을 전복하는
세속적 강제의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인간 권력의 폭력이나 제도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희생으로 성취됨을 계시하셨다.
→ 그러므로 현재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정치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정치와 권력을 자기 주권 아래 두고 판단하며 통치하는 최종 주권으로 작동한다.
→ 이 통치 아래에서 성도들은
최종 주권을 행사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불의를 거부하고,
십자가적 책임으로 손해와 대가를 감수하며
공적 삶에 참여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지 않으며,
주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역자로 살아간다.

④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증언이며, 인격적 영접이다
→ 믿음은 법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군림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한다.
→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권리와 의무는,
국가를 신앙으로 지배할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말 뿐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언하고,
좁은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다.

5️⃣ 극단적 문화·도덕 정화주의
→ 특정 도덕·문화 기준을 절대화하여 사회를 '정결/불결'로 이분화하고, 동조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제거·침묵시키려는 사상

📌 대표 예시
-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극단화
- 사상·언어 검열 공동체

❌ 전면 충돌
- 완전한 순수성 요구
- 회개·용서·회복 부정
- 사회적 추방의 정상화

✝ 기독교 판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은혜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된다.
복음은 정화적 소멸이 아니라 거듭난 회복을 말한다.

6️⃣ 극단적 민족·문명 우월주의
→ 민족·인종·문명 정체성을 도덕적 우위로 신성화하여 타자를 열등·위협으로 규정하고 폭력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념

📌 대표 예시
- 문명 충돌론의 절대화
- 문화·민족 우월 이데올로기

❌ 전면 충돌
• 집단 정체성의 신격화
• 타자 비인간화
• 이웃 사랑을 민족·문화 내부로 축소하고, 외부 집단을 열등하거나 위협으로 규정
✝ 기독교 판단
민족과 문화는 사랑의 대상일 수 있으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문명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2.5. 비극단적 정치 사상 대표적 20개와 기독교: 공명과 긴장의 경계 ⚖️
(이론상 기독교와 공존 가능)

1️⃣ 자유주의 (Liberalism)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국가 권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사상

✔ 공명 (Convergences)
•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
• 개인을 책임 있는 도덕 주체로 인식
• 국가 권력의 자의적 침해에 대한 구조적 제한
⚠ 충돌 (Conflicts)
• 진리를 공적 기준이 아닌 개인 선택으로 환원
• 공동선보다 개인 선호의 우선화
• 도덕 판단의 사유화와 상대화
✝ 평가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진리와 분리될 때 방향을 상실한다.
기독교는 자유를 옹호하되,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유이기를 요구한다.

2️⃣ 보수주의 (Conservatism)
→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전제로, 검증된 전통과 질서를 급진적 변화보다 우선시하는 사상

✔ 공명
•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
• 전통·가정·질서를 통한 사회적 안정
• 급진적 유토피아 실험에 대한 경계
⚠ 충돌
• 전통을 비판 없이 신성화할 위험
• 불의한 질서의 구조적 고착
• 회개 없는 현상 유지의 정당화

✝ 평가
전통은 축적된 지혜일 수 있으나, 스스로를 정당화할 최종 권위는 아니다.
기독교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갱신되어야 한다.

3️⃣ 진보주의 (Progressivism)
→ 현존 질서의 구조적 불의를 문제 삼아,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사상

✔ 공명
• 사회 개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 인권 감수성과 연대의 언어
⚠ 충돌
• 인간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 제도를 통해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
• 전통과 질서를 억압 구조로만 보는 단선적 시각
✝ 평가
개혁은 필요하지만, 인간의 본성 변화 없이 완성되는 진보는 없다.
기독교는 진보를 부정하지 않되,
개인의 회개 없는 진보를 경계하고, 제도를 구원으로 착각하는 진보를 경계한다.

4️⃣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 시장경제를 유지하되 복지와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형평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사상

✔ 공명
• 시장을 인정하면서 복지를 결합한 혼합 모델
• 제도적 연대를 통한 약자 보호
• 혁명보다 점진적 개혁을 선호
⚠ 충돌
• 국가 역할의 지속적 확대 경향
• 개인 책임이 제도와 국가로 이전
• 의존 구조의 고착과 양심의 제도화
✝ 평가
연대는 복음적 미덕이지만, 국가는 결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기독교는 복지를 지지하되, 국가가 도덕의 최종 주체가 되는 순간을 경계한다.

5️⃣ 공화주의 (Republicanism / 시민 덕성)
→ 자유를 권력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책임과 공공선을 중시하는 사상

✔ 공명

- 시민의 책임과 적극적 참여 강조
- 권력 분산과 견제
- 공공선 지향적 정치 이해

⚠ 충돌
- 덕의 제도적 강제 가능성
- 엘리트 도덕주의로의 변질
- 다수의 도덕 폭주 위험

† 평가
덕은 공동체를 지탱하지만, 강요될 수는 없다.
기독교는 시민적 책임을 강조하되, 덕의 근원을 은혜에서 찾는다.

6️⃣ 기독교 민주주의 (Christian Democracy, 신정 전체주의 아님)
→ 인간 존엄과 연대를 기독교 윤리에서 끌어오되, 헌정 질서 안에서 자유와 보조성을 조화시키려는 사상

✔ 공명
- 인간 존엄을 신학적으로 이해
- 연대와 보조성 원리의 균형
- 국가·시장 권력의 상호 제한

⚠ 충돌
- 신앙의 형식화 위험
- 교회와 국가의 경계 혼탁
- 제도화된 신앙의 경직성

† 평가
복음은 정치 제도에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국가 제도나 정치 권력의 형태로 전환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독교 민주주의는 신앙을 법이나 국가의 언어로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양심 속에서 공적 선을 추구하는 윤리로 번역될 때 건강하게 작동한다.
📌 오해가 없도록,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민주주의는 '신정정치'가 아니다.
위에서도 인간의 '신정정치' 체제는 오히려 기독교와 공존 불가능하다고 평가함.

7️⃣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다원형)
→ 개인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공동체 속 책임적 존재로 이해하는 사상

✔ 공명
-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
- 소속과 책임의 강조
- 극단적 개인주의 비판

⚠ 충돌

• 공동체 규범에 의한 양심 압살
• 집단 충성의 우상화
• 질문·이탈에 대한 배제
✝ 평가
공동체는 보호의 공간이지만, 심문과 배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진리를 지키되,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8️⃣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 정치의 정당성을 권력이나 숫자가 아니라 공론과 숙의의 질에서 찾으려는 사상

✔ 공명
• 대화와 숙고 중심의 정치
• 공론의 질 중시
• 선동 정치에 대한 견제
⚠ 충돌
• 담론의 엘리트화
• 참여의 형식화
• 현실 정치와의 괴리
✝ 평가
기독교는 대화를 중시하지만, 말의 양이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참된 숙의는 겸손과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

9️⃣ 연방주의 / 분권주의
→ 권력 집중을 인간의 위험 요소로 보고, 통치 권한을 여러 수준으로 분산시키려는 사상

✔ 공명
• 권력의 공간적 분산
•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
⚠ 충돌
• 책임 회피 가능성
• 지역 간 불균형
• 통합 약화 위험
✝ 평가
권력 분산은 인간 죄성에 대한 제도적 겸손의 표현이다.
그러나 분산은 분열이 아니라 연대 속 책임일 때 바람직하다.

🔟 시장자유주의 (온건)
→ 경제적 자유와 자율적 교환을 효율과 책임의 기반으로 보되, 제도적 틀은 인정하는 사상

✔ 공명
• 창의와 자율의 촉진
• 책임 기반 교환 질서
• 경제적 자유 확대
⚠ 충돌
• 탐욕의 제도화 가능성
• 약자 배제 위험
• 인간 가치의 상품화
✝ 평가
시장은 유용한 도구지만,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지 않는다.
기독교는 시장을 활용하되, 인간 존엄을 가격표 아래 두지 않는다.

1️⃣1️⃣ 기술관료주의 (온건)
→ 정치 결정을 이념보다 전문성과 데이터에 근거해 내리려는 합리주의적 통치 관점

✔ 공명
• 전문성과 지식 존중
• 감정 정치 억제
• 합리적 문제 해결
⚠ 충돌
• 효율이 도덕을 대체
• 인간의 데이터화
• 책임 주체의 불분명
✝ 평가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지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기독교는 기술을 사용하되, 인간과 도덕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1️⃣2️⃣ 포퓰리즘 (제한적·온건)
→ 정치 엘리트 중심 구조를 비판하며, 대중의 직접적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경향

✔ 공명
• 엘리트 권력에 대한 비판
• 소외된 목소리의 가시화
• 정치 참여의 확대
⚠ 충돌
• 분노의 도덕화
• 이분법적 세계관
• 법치 약화

† 평가
기독교는 억눌린 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분노를 진리로 만들지 않는다.
십자가는 선동이 아니라 자기희생의 방식이다.

1️⃣3️⃣ 민족주의 (시민적 형태)
→ 혈통이 아니라 시민적 소속과 공동 책임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사상

✔ 공명
• 공동체 책임 의식
• 역사와 문화 존중
• 공적 연대 강화
⚠ 충돌
• 민족 정체성의 우상화
• 타자 배제
• 국가를 도덕 주체로 오인
† 평가
국가는 사랑과 봉사의 대상일 수 있으나, 구원의 주체는 아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섬기되,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1️⃣4️⃣ 페미니즘 (온건·인권 중심)
→ 성별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존엄과 권리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상

✔ 공명
• 여성의 존엄과 권리 강조
• 폭력·차별 고발
• 구조적 불의 인식
⚠ 충돌
• (급진화 시) 창조 질서 부정
• 성별 적대적 세계관
• 성차를 억압으로만 환원
† 평가
차별은 분명한 죄이지만, 창조 질서를 지우는 해방은 또 다른 억압이 된다.
기독교는 존엄 회복을 추구하되, 창조의 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1️⃣5️⃣ 무정부주의 (비폭력·자발형)
→ 강제적 권력 구조를 최소화하고, 자발적 협력과 상호 책임에 기초한 질서를 상상하는 사상

✔ 공명
• 권력 집중에 대한 불신

• 강제 최소화
• 자발적 협력 강조
⚠ 충돌
• 인간 선함에 대한 과신
• 질서와 제도의 과소평가
• 비의도적 폭력 발생 가능성
✝ 평가
기독교는 권력을 경계하지만, 질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타락한 인간에게 질서 없는 자유는 쉽게 폭력으로 변질된다.

1️⃣6️⃣ 환경주의 / 생태주의 (청지기형)
→ 자연을 소유 대상이 아니라 책임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동 자산으로 보는 사상

✔ 공명
• 창조 세계 보전
• 탐욕적 개발 비판
• 지속 가능성 추구
⚠ 충돌
• 자연의 신성화
• 인간 존엄의 상대화
• 책임 주체의 모호화
✝ 평가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파괴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지기로 부른다.

1️⃣7️⃣ 인권주의 (보편 인권 중심)
→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보편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려는 사상

✔ 공명
• 인간 존엄의 보편성
• 차별과 폭력 거부
• 법 앞의 평등
⚠ 충돌
• 권리의 절대화
• 책임 개념의 약화
• 도덕 기준 해체
✝ 평가
기본 인권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과 도덕 질서 안에서만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

기독교는 이러한 기본 인권을 보호하지만,
책임과 분리된 권리의 절대화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리 주장은 거부한다.

1️⃣8️⃣ 실용주의 (Pragmatism)
→ 이념의 순수성보다 실제 문제 해결과 결과를 정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접근

✔ 공명
• 문제 해결 중심 접근
• 현실 감각
• 정책 유연성
⚠ 충돌
• 원칙 상실 위험
• 단기 성과 집착
• 기준의 유동화
✝ 평가
기독교는 지혜로운 유연성을 인정하지만, 진리를 흥정하지 않는다.
방법은 조정될 수 있어도, 기준은 양보될 수 없다.

1️⃣9️⃣ 중도주의 (Principled Centrism)
→ 극단을 피하되 단순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근거한 균형을 추구하는 태도

✔ 공명
• 극단 경계
• 균형과 절제
• 대화 가능성 유지
⚠ 충돌
• 무원칙 타협
• 책임 회피
• 방향 상실
✝ 평가
중도는 위치가 아니라 태도다.
원칙 없는 중립은 결국 강한 쪽에 봉사하게 된다.

2️⃣0️⃣ 다원주의 (Pluralism, 헌정적)
→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의 공존을 헌법적 규칙 안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사상

✔ 공명
• 신앙과 사상의 공존
• 강제와 독점 거부

• 평화적 질서 유지
⚠ 충돌
• 진리의 상대화
• 도덕 기준 해체
• 신념의 사적 봉인
✝ 평가
다원성은 존중되지만, 진리는 침묵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공존을 선택하되, 신앙을 사적 영역에 가두지 않는다.

2.6. 비극단적 정치 사상별 기독교 박해 가능성 5단계 구분 📊

🔚 핵심 논리 한 줄
기독교 박해의 결정적 기준은 이념의 선의가 아니라,
그 이념이 초월적 기준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양심적 예외를 끝까지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1단계 — 최하 (구조적으로 박해 가능성 매우 낮음)
• 기독교 민주주의 (Christian Democracy, 신정 아님)
• 공화주의 (Republicanism / 시민 덕성)
• 다원주의 (Pluralism, 헌정적)
• 연방주의 / 분권주의
• 보수주의 (Conservatism)

권력은 본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체제의 출발점
국가·이념·다수는 도덕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제도화됨
종교·양심의 자유는 정책 선택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전제 조건
➡ 국가가 스스로를 심판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한, 신앙은 구조적으로 보호된다.

🟢 2단계 — 낮음 (자유 보장, 문화적 압력 가능)
• 자유주의 (Liberalism)
• 중도주의 (Principled Centrism)
• 숙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 시장자유주의 (온건)
• 실용주의 (Pragmatism)

법적 차원의 종교·양심의 자유는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중립성·합리성·개인 선택이 공적 영역의 암묵적 규범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신앙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 이 단계의 위험은
직접적 박해가 아니라, 겉으로는 자유가 유지되지만,
신앙은 공적 판단의 언어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다.
자유는 보장되지만,
신앙이 공적 기준이 될 수 없게 되는 순간,
압박은 문화의 형태로 시작된다.

🟡 3단계 — 중간 (제도화 조건부 충돌)
- 기술관료주의 (온건)
- 인권주의 (보편 인권 중심)
- 환경주의 / 생태주의 (청지기형)

특정 가치가 '중립적·보편적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기술적 효율', '인권 규범', '환경 목표'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성찰·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행정과 정책 목적에 따라 해석·집행되는 사실상의 절대 기준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신앙은
사적 자유뿐 아니라 공적 토론과 양심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할 이유임에도,
공적 자유로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받는 '예외적 고려 사유'로 밀려난다.
그 결과, 기술 사용, 인권 판단, 환경 보존과 개발처럼
본래 일관성과 초월적 도덕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조차,
신앙의 목소리는 동등한 공적 판단의 자리를 얻기보다 주변화되고,
그 발언권의 인정 여부는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상황·판단자·정책 목표에 따라 행정적으로 가변 결정된다.
➡ 이 단계의 충돌은
전면적 박해라기보다 선별적·조건부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신앙이 더 이상 공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
관리·조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충돌은 이미 제도 내부로 진입한 상태다.

🟠 4단계 — 높음 (국가·집단 가치가 신앙 위에 설 위험)
※ 이 단계가 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위험한 구간
-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다원형)
- 진보주의 (Progressivism)
- 페미니즘 (온건·인권 중심)
- 민족주의 (시민적 형태)
- 포퓰리즘 (제한적·온건)

이 단계의 사상들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그 자유는 점차 ‘조건부 허용’의 형태로 바뀐다.
이들이 말하는 ‘연대·정상성·정체성·정의’가
공적 가치 중 하나의 의견에 머물지 않고,
국가 규범 또는 집단적 도덕 기준으로 고정되어
사회 구성원에게 사실상 준수와 동조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의·정상’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앞에서 점검하고 회개하게 하는
초월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집단의 관점에 따라 해석된 사회적 맥락에 기초해
스스로 규정한 ‘불균형’을 제거되어야 할 절대적 문제로 고정하고,
그 ‘교정’을 명분으로 사회 질서를 재편하며
개인의 판단과 양심까지 정책·제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의로 작동한다.
그 결과, 이에 대한 신앙적·양심적 이견은
‘비도덕·차별·퇴행·사회적 위해’로 재분류된다.
이 단계의 핵심 위험은
👉 초월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 그 기준에 따른 ‘양심적 예외’를 공적 영역에서 점점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박해는
폭력이나 공개적 금지가 아니라,
법·행정·교육·자격·재정·여론을 통한 ‘정상성의 강제’로 나타난다.
➡ 신앙은 형식적으로는 허용되지만,
공적·직업적·교육적 영역에서는 침묵을 요구받기 시작한다.
신앙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예외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순간,
박해는 이미 제도 안에서 작동한다.

🔴 5단계 — 최상 (구조적으로 박해로 전환되기 쉬움)
• 무정부주의 (비폭력·자발형)

초월적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적으로 무의미화한다.
질서·법·제도의 정당성은
소수 의견을 보호할 공적 장치 없이,
공동 합의나 자발성에만 맡겨진다.
그 결과, 신앙은
공유된 합의 밖에서 작동하는 ‘외부 규범’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공적 질서를 교란하는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결국 집단의 선의와 관용에 의존하게 된다.
➡ 이 단계의 박해는
국가 권력에 의해 제도적으로 집행되기보다,
➡ 질서 붕괴, 비공식 강제, 집단적 압박과 배제의 형태로 발생하기 쉽다.
헌법 질서에 의해 분권·제한되던 공적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제어되지 않은 집단 압력이 사실상의 심판자가 되는 순간,
신앙은 가장 먼저 배제된다.

---

3. 기독교 관점에서 본 '자유민주적 공화정'

🕊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불가침의 자유와 기본권을 정치 질서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수결조차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허용하는 체제다.

🏛 공화주의 (Republicanism)
공화주의란, 권력은 본질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을 전제로, 통치자를 주권자가 아닌 공복(公僕)으로 묶고 법과 제도로 권력을 제한하는 정치 원리다.

🔚 한 줄 결합 정리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말하고, 공화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묶을 것인가'를 말한다.

🕊 ① 자유 —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기본권

자유민주적 공화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고유한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불가침의 헌법적 권리다.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재산의 자유 등은
국가 정책이나 다수결보다 앞서 보호되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며,
공익·안보·질서라는 이유로도 그 본질은 침해될 수 없다.

이 자유는 국가가 상황에 따라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혜택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맞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 자유란 국가의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넘을 수 없는 헌법적 경계선이다.

🗳️ ② 민주 — 권력을 맡기되, 풀어주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공화국에서 국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의 출발점·정당성·한계는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맡기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백지위임이 아니라
기간·범위·책임이 정해진 조건부 위임이다.

권력자는 주권자가 아니다.
👉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한을 맡아 일하는 공복이며,
그 권한은 언제나 설명과 책임의 대상이다.
국민은 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다수결 역시 이 책임의 틀 안에서만 정당하다.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결정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결정도 자유권과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 민주란
권력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풀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통제의 방식이다.

🏛️ ③ 공화 — 법이 권력을 묶는다

공화국에는 왕도, 세습 권력도, 절대 권력도 없다.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질서가 공화다.

여기서 말하는 법치는
권력이 법을 도구로 삼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권력 자신이 법 아래 묶이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권력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뉘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

공화는 지도자의 선의나 도덕성에 기대지 않는다.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 위에서,
제도로 그 폭주를 막도록 설계된 체제다.

👉 공화는
민주적 정당성이 남용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도
권력을 법 아래에 묶어 두는 헌법적 장치다.

🕊️🗳️ 🏛️ 자유민주공화정이란, 국가보다 앞서는 개인의 불가침의 자유와 기본권을 토대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되 그 권력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수의 이름으로도 절대화되지 않도록 민주적 책임과 공화적 법치로 끝까지 제한하는 정치 체제다.

✔ 자유민주적 공화정과의 기독교 공명 지점
• 사람의 가치를 권력이나 다수에 맡기지 않음
→ 국가는 인간의 가치를 정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엄한 인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하며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둔다.
• 권력을 믿기보다 묶어 두는 체제
→ 통치자의 선의나 도덕성에 기대지 않고, 권력은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나누고 견제하며 제한하도록 설계한다.
•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음
→ 통치자는 주권자가 아니라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공복이며, 법 앞에서 예외 없이 책임을 지는 존재로 규정된다.
• 다수의 뜻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질서
→ 다수결을 존중하되, 다수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을 헌법과 기본권으로 분명히 남겨 소수의 양심과 신념을 보호한다.
• 신앙을 침묵시키지 않되, 권력화하지도 않음
→ 종교를 국가의 도구로 삼지 않으면서도, 공적 토론과 양심의 언어로 말할 자유를 차단하지 않는다.

⚠ 기독교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공화정의 한계와 위험
• 체제가 스스로 신앙이 되는 순간
→ 자유·민주·법치 자체가 "도덕적으로 완결하다"거나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때, 체제는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화된 기준으로 변한다.
• 자유는 남아 있지만, 기준은 사라지는 상태
→ 권리와 절차는 유지되지만,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적 기준이 흐려지면 자유는 내용 없는 껍데기로 전락한다.
• 법으로 이루어지는 조용한 강요
→ 다수결과 합법적 절차는 때로 소수의 신념과 양심을 직접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말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내 권리'는 강화되고, '함께의 책임'은 약화되는 구조
→ 자유가 권리 주장으로만 이해될 때, 공동선·연대·이웃에 대한 책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밀려난다.
• 중립을 명분으로 도덕의 언어를 밀어내는 국가
→ 국가는 가치 중립을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종교적 목소리 자체를 공적 토론에서 배제한다면, 중

립은 관용이 아니라 배제의 방식이 된다.

🔑 기독교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공화정 종합 평가
기독교는 어떤 정치 질서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숭배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공화정 역시 복음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원과 새 인간의 탄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의 정치 질서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인류가 경험해 온 여러 체제 가운데,
자유민주적 공화정은 타락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함으로써,
복음이 자유로운 증언으로 선포되고
교회가 인간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해 온 질서로 분별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도 않고,
무조건적 비판의 대상으로만 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
비판적 협력과 책임 있는 거리를 동시에 유지한다.

---

4. 종합 결론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본 주요 정치 사상과 자유민주적 공화정) 🔙

기독교는 어떤 정치 이념 안에 흡수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며,
모든 권력과 사상은 그분 앞에서 상대화되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좌도 우도,
어떤 정치 진영이나 체제에도 신앙을 맡기지 않습니다.
정의나 질서, 국가나 이념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적 공화정 역시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을 제한하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복음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증언으로 선포될 수 있는 공간을
현실 정치 질서 가운데 가장 잘 허락해 온 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글("천국에서의 '정치 체제'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건강한 정치 참여 🕊")에서 더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에는 정치가 없지만, 이 땅에는 아직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시도도 아니고,
정치에서 도피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적 질서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순례자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치를 절대화하지 않기에 비판하고,
정치를 외면하지 않기에 참여합니다.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이 땅의 정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합니다.

II. 천국에서의 '정치 체제'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건강한 정치 참여 🕊

0️⃣ 한 문장 결론 🔑

천국에는 '정치(politics)'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통치(reign) 가 있으며, 그 통치는 권력 유지·갈등 조정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완성된 통치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통치에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왕권'으로 참여한다.

1️⃣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하자

- 넓은 의미의 정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치·권력의 차이를 둘러싸고, 이를 조정·배분·질서화하여 공동체의 규범과 방향을 형성하는 모든 사회적 과정

-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공권력을 획득·행사·유지·통제하는 활동

👉 이러한 정의의 공통 전제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 '선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 사회',
즉, '죄와 갈등이 존재하는 세계'를 전제로 성립
(이해충돌, 갈등 가능성, 규범 이견, 불완전성, 강제와 조정의 필요)

2️⃣ 왜 천국에는 정치가 "없는가"

천국은 정치가 '폐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정치가 해결하려 했던 문제 자체가 근원적으로 사라진 완성의 영역

- 갈등의 뿌리인 죄가 근원적으로 제거됨

→ 정의와 진리의 왜곡, 약자 착취, 권력의 교만과 부패, 폭력과 무고한 피 흘림, 우상숭배,
  증오·외면,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위선, 회개 거부 등
  갈등을 낳던 모든 죄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짐

→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낳던
욕망·시기·지배욕·자기중심성까지 완전히 제거됨

•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목과 조화가 이루어짐
→ 이해관계 충돌, 분열, 조정, 타협, 강제, 중재와 같은
정치적 기능과 과정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음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며,
죄와 강제가 전제됐던 국가·정부·권력 유지·법 집행 등 인간적 정치 제도는 불필요해짐

• '정치가 없다'는 말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음
→ 무정부 상태 ❌
→ 기준 붕괴 ❌
→ 각자 마음대로 사는 혼란 ❌
• 오히려 천국은,
→ 완전한 질서
→ 완전한 정의
→ 완전한 자유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

3️⃣ "정치는 없는데 성도들이 함께 통치한다?"
— 모순이 아니라, 천국 통치의 핵심이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한다.
•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2:5)
•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눅 19:17)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 정치가 재등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왜곡되었던 '통치'가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 핵심 구분: 이 땅의 정치적 통치 vs 천국의 청지기적 통치

❌ 이 땅의 정치적 통치
• 죄와 타락을 전제로 한 통치
• 갈등·이해관계 충돌·분열을 관리하기 위한 질서
• 권력 경쟁과, 죄로 인해 왜곡된 위계 구조
• 법·강제·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함
• "사람 위에 군림하는 통치"의 성격을 가짐

✔ 천국의 청지기적 통치
• 죄가 제거된 이후에 회복된 통치
• 갈등을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완성된 질서에 참여하는 책임
• 지배가 아니라 돌봄·관리·섬김의 역할
• 강제나 처벌 없이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짐
•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통치

4️⃣ 예수님이 통치의 "형식"을 결정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통치

천국 통치의 형식은 장차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분명히 규정하신 원리다.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 20:26–28)
👉 이는 천국 통치의 '운영 방식'에 대한 헌법적 선언이다.

🔑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
천국에서 큰 자는
• 더 많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 더 깊이 섬기는 자다.
따라서 천국의 권위는
• 사랑의 깊이
• 자기희생의 크기
• 섬김의 지속성으로 드러난다.

🔑 천국 통치의 한계선
천국의 통치는
• 십자가 없는 보좌 ❌
• 희생 없는 영광 ❌
을 허용하지 않는다.
👉 십자가 없는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아니다.

🔚 한 문장 정리
천국의 통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열 고을을 맡긴다"는 약속의 정밀한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은

- 세속적 권력의 분배 ❌
- 군림할 권한의 부여 ❌

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 더 넓은 책임의 확장
- 더 깊은 돌봄의 위임
- 더 큰 섬김의 사명을 맡긴다는 뜻이다.

👉 권세의 증가 = 섬김의 확대
→ 높아질수록 더 많이 책임지고,
→ 맡겨질수록 더 깊이 돌보며,
→ 커질수록 더 낮아지는 자리로 부름받는다.
따라서 천국의 통치는
- 지배하는 권력(power) 이 아니라
-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소명(vocation) 이다.

6️⃣ 천국의 법과 질서와 순종
— 법과 복종은 폐지되지 않고, 완성된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처럼
-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 체계 ❌
- 판결과 집행을 필요로 하는 사법 질서 ❌

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무법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천국은
-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태
- 정의가 사후에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현되는 상태다.

📖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렘 31:33)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 천국에서 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 규범에서 내적 성품으로 완성되어 성취된다.

천국에는 분명히 순종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흔히 경험하는 순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천국의 순종은
-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강요되는 복종 ❌

• 저항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순종 ❌
• 질서 유지를 위한 억압적 통제 수단 ❌
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의 순종은
•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자발적 응답이며
• 자유롭게 사랑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동의하는 상태이고
• 사랑·자유·순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일치한 삶이다.
👉 즉, 천국에서 순종은
사랑의 반대도, 자유의 제약도 아니라
사랑이 자유 안에서 완성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다.
사랑받고 있음을 완전히 아는 자유로운 존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응답이다.

🔚 한 문장 정리
천국에서는 법이 처벌로 작동하지 않고 성품으로 성취되며,
복종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진다.

7️⃣ 천국의 나라와 백성의 상태

🕊 **천국의 나라 (대표적 예시)**
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
→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제도로 세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직접적 통치 안에서 유지된다.
→ 성도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청지기적 책임에 참여한다.

②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는 나라
→ 법은 더 이상 외적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완전히 내면화되어 성취된 질서로 작동한다.
→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다.

③ 진리와 의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
→ 천국은 불의를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체제가 아니라,
죄와 불의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의가
나라 전체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충만하게 다스린다.

④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이 되는 나라
→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화해와 회복에서 오는 쉼과 평안이 된다.
→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천국의 빛이자 중심이며 영원한 안식이다.

⑤ 하나님의 뜻이 지연 없이 이루어지는 나라
→ 갈등·타협·억제를 전제로 한 통치가 필요 없는
완성된 질서의 나라다.
→ 죄와 저주가 제거된 자리에서
의에 따른 순종이 삶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⑥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완성시키는 나라
→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지우거나 압도하는 빛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회복하고 영화롭게 완성시키는 영광이다.
→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참된 정체성을 온전히 누린다.

⑦ 새 창조가 완전히 실현된 나라
→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 전체가 타락의 흔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회복된다.
→ 죽음·슬픔·아픔이 사라지고,
생명·행복·질서·자유·의가 충만한 상태가
실재적 현실로 영원히 지속된다.

🕊 천국의 백성은 (대표적 예시)
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
→ 죄의 결과만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죄를 욕망하던 옛 본성 자체가 뿌리째 제거되어
몸과 마음, 의지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
→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거함

②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
→ 심판을 피하기 위한 복종이 아니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뵈며
기쁨과 친밀함으로 사랑하는 존재

③ 억지 없는 기쁨의 순종을 살아가는 존재
→ 외적 명령이나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완전히 새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이 자유와 기쁨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 존재

④ 시기적 경쟁이 아닌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
→ 탐심·시기·결핍이 사라지고,
이웃의 은사와 영광을 자신의 기쁨처럼 누리며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공동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적 존재

⑤ 사랑 안에서 질서와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
→ 규칙과 통제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사랑으로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하나님의 통치에 청지기로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존재

⑥ 권력을 탐하지 않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존재
→ 지배와 우위를 욕망하지 않으며,
섬김이 영광이 되는 질서 안에서
더 큰 자가 더 깊이 섬기는 책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⑦ 왜곡 없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연합한 존재
→ 방종도 억압도 없는 참된 자유 안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완전히 일치하며
하나님·이웃·창조와 조화롭게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

🔑 곧, 천국이란
모든 죄와 사망, 갈등과 슬픔과 상처가 완전히 제거되어
죄와 사망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 위로와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새로 창조된 세계에서,
죄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요나 결핍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창조를 돌보고, 질서를 세우며, 선과 생명을 확장하는
청지기적 사명과 책임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모든 성도와 공동체 안에
영원하고 온전한 행복·질서·자유·의가
상태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충만히 실현되어 누려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의 본성이 되어
시기와 소모가 아닌 자발적 기쁨의 협력과 수고 속에서,
완전한 화합과 평안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으로 도래하며,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시는
최종적이며 실재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서,
지금의 언어와 개념, 상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묘사를 넘어서
그 선함과 완전함과 행복이 훨씬 더 충만하게 실현될
궁극적 하나님의 현실이다.

8️⃣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의 건강한 정치 참여 12가지 원칙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의 건강한 정치 참여는
- 천국을 이 땅에 직접 세우려는 시도도 아니고
- 세상 정치로부터 도피하는 비겁함도 아니다

👉 임시적 질서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순례자의 참여다.
👉 즉, 기독교인은
정치를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폭력 없이 비판하며, 권력을 개인의 소유로 삼지 않으며,
위임 받은 권력은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선한 도구로,
청지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여다.

---

① 정치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는다 (비우상화)

기독교인은 안다.
- 정치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 죄를 제거하지 못하며
-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래서
- 이념을 복음과 동일시하지 않고
- 정권을 "하나님의 나라"로 신성화하지 않으며
- 정치적 승패에 신앙의 정체성을 걸지 않는다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 18:36)
👉 정치는 수단이지, 소망이 아니다.
👉 정치는 인간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지만,
죄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질서로서 의미를 가진다.
정치는 천국을 만들 수는 없으나,
지옥을 닮은 상태를 막을 책임은 가진다.

---

② 그러나 정치에서 도피하지 않는다 (무책임 거부)

그럼에도 기독교인은 물러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 정치는 이웃의 생명·자유·존엄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 불의는 방치될 때 구조가 되며
-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이기 때문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

③ 절대 기준은 항상 정치 바깥에 둔다

기독교 정치윤리의 출발점은
정치가 최종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국가·정권·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 곧 자연법 위에 설 수 없다.
📖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정의의 기준을 여론·다수결·정권의 언어에 두지 않고,
정치를 초월하는 진리 앞에서 판단한다.
👉 하나님의 법은 권력이 허락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이 복종해야 할 한계선이다.

---

④ 인간 권력은 선한 의도로도 신뢰되지 않으며,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기독교 정치철학은
정치 문제를 지도자의 선의나 도덕성에 맡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은 언제나 타락과 자기기만의 위험 아래 있기 때문이다.
📖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렘 17:9)
따라서 기독교 정치윤리는
"누가 권력을 잡는가"보다
"권력이 어떻게 제한되는가"를 먼저 묻는다.

- 선한 의도는 권력의 안전장치가 아니며
- 명분과 신앙도 인간 권력을 무결하게 만들지 않는다.

👉 인간 권력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인간 권력의 제한은 불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신앙 고백이다.

---

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치 원칙

기독교 정치윤리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에 있다.
이 두 계명은 개인 윤리뿐 아니라
공적 권력의 목적과 한계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하나님 사랑은
정치가 궁극적 권위나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국가·이념·정권을 상대화하는 초월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웃 사랑은
정치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중립을 가장한 방관으로 후퇴하지 못하게 하며,
권력이 구체적인 인간의 생명·자유·존엄을 향해 사용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에서의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나 도덕적 선의가 아니라,
공적 책임으로 제도화되고 질서화되어야 할 규범적 원리다.
👉 하나님 사랑은 정치의 한계를 세우고,
👉 이웃 사랑은 정치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 두 사랑의 균형 속에서만
정치는 우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무책임한 방관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

⑥ 정치 참여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권력의 제한과 책임화'이며, '섬김'이다

🔒 **권력의 제한과 책임화**
기독교는 권력을 선이나 악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위임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우상으로 타락할 위험을 지닌다.
📖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단 4:17)
따라서 기독교 정치 참여의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거나 확대하는 데 있지 않고,
권력이 하나님 아래에서 제한되고, 견제되며, 책임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 **권력의 제한과 책임화 예시**
⚖️ 법 위에 선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법과 정의 아래에 있어야 하며, 예외는 없다.

- 집권 세력이나 '우리 편'의 불법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대의·명분·위기 상황을 이유로 법 위에 서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 권력을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청지기로 이해한다.

→ 권력을 신성화하지 않는 것이 인간을 보호하는 첫 조건이다.

🏛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와 분산을 제도적으로 지킨다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구조를 신뢰한다.

-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을 보호한다.
- 여론·정당·카리스마가 제도 위에 서지 못하게 한다.
- '선한 지도자'보다 권력의 상호 견제를 우선한다.

→ 한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는 것이 다수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 권력에 성과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다

결과보다 과정, 성공보다 책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잘됐으니 됐다"는 논리를 거부한다.
- 정책 실패·인권 침해·법 위반에 대해

사과·설명·책임 이행을 끝까지 요구한다.

- 효율이나 지지율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 성과로 면죄하지 않는 정치가 회개의 가능성을 남긴다.

🪨 국가·정권보다 더 높은 기준에 충성한다

궁극적 충성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 정치다.

- 국가·민족·이념·정권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 생명·양심·신앙·존엄의 문제 앞에서

"국가도 틀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하다면 권력에 불리한 진실을 말하고 대가를 감수한다.

→ 국가를 상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 정치 안에서의 '섬김'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섬김으로 규정하셨다.

📖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마 20:26)

정치 안에서의 섬김이란
선의로 베푸는 호의나 개인의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이자 책임이다.
그것은 권력을 잘 포장하거나 능숙하게 '운영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누구를 위해 위임되었는지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증언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책임이다.

🤲 정치 안에서의 '섬김의 자세와 모습' 예시 12가지

🔹 권력을 특권이 아니라 먼저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행사한다
→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부담과 제약을 먼저 받아들이며,
위험·비용·불이익이 따르는 결정에서
예외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감수하는 기준이 된다.
→ 권력을 보상이나 보호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책임의 선례로 남긴다.

🔹 법 위에 서지 않고, 법보다 높은 도덕과 양심의 기준 아래에 스스로를 둔다
→ 유불리에 따라 법과 절차를 이용하거나 흔들지 않으며,
불리할 때에도 법치의 통제와 책임을 기꺼이 감수한다.
→ 합법과 정당성을 분명히 구분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선택 앞에서는
스스로 멈추고 책임을 택할 줄 안다.

🔹 비판과 이견, 다른 양심을 억압하지 않고 보호한다
→ 반대와 비판을 통치의 장애물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을 막는 경고와 안전장치로 받아들인다.
→ 권력은 국민의 양심과 신념을 통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한다.

🔹 말할 수 없는 국민을 공적 언어의 중심으로 데려온다
→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현실을
의회·법·정책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 공론장에 올린다.
→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배제하지 않는다.
→ 표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성실히 듣고 공적으로 대변한다

🔹 인기 영합이 아닌, 꼭 필요한 정책을 성실히 연구·개발·설득한다
→ 법·통계·재정·제도의 구조와 사회 현장을 성실히 살피며,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전문가·당사자의 목소리를 교차해 듣는다.
→ 사회가 외면해 온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이해와 숙의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해법을 마련한다.
→ 침묵이나 선동이 아니라, 이해와 숙의를 통해 공적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간다.

🔹 정치가 외면해 온 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보고한다
→ 통계·보고서 뒤에 가려진 삶의 조건을
현장·자료·증언으로 교차 검증한다.
→ "몰랐다"는 변명이 불가능하도록 책임 있게 드러낸다.

◆ 단기 인기나 사익이 아니라, 장기적 공공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즉각적 만족과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미래 세대까지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한다.
→ 진영·조직·후원자의 요구보다
사회 전체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먼저 고려한다.
→ 오늘의 박수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일에 대한 책임을 택한다.

◆ 사람을 보호하되,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
→ 단순한 일회적 이전이나 시혜적 보조만으로 문제를 덮지 않고,
→ 노동·책임·상호 돌봄이 회복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인간을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존중한다.

◆ 약자의 현실을 임시 처방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로 반영한다
→ 일회성 지원이나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 법과 행정이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한다.

◆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되는 사안을 회피하지 않는다
→ 선거·지지율·여론을 이유로 결단을 미루지 않고,
→ 결정을 미룰수록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가
가장 약한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금 판단하고 책임진다.

◆ 권한의 행사와 그 결과를 주권자 국민에게 정직하게 결산 보고한다
→ 성과만 보고하지 않고, 한계·부작용·미완의 과제까지 숨김없이 공개한다.
→ 약속했던 목표 대비 실제 결과를 비교·설명하고,
후속 조치와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다.
→ 권력의 사용을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의 검증과 책임 추궁 아래 둔다.

◆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가장 약한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를 먼저 묻는다.
→ "집행하기 쉬운가"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 행정의 효율보다 국민의 삶의 조건을 우선한다.

---

⑦ 정치 참여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마 5:39)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이는 불의에 침묵하거나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다.
기독교 정치윤리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리와 책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 정치 방식 예시
⚔️ 악과 싸우되, 악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악의 속도와 수단을 따라가지 않는다.
- 거짓 선동과 왜곡에 맞서

분노가 아니라 사실·기록·논증으로 대응한다.
- 상대를 제거하거나 낙인찍지 않고,

행위·정책·책임을 정확히 규정한다.
- 적대적 동원으로 결집하지 않고,

설명과 근거로 설득한다.
→ 악을 흉내 내지 않고, 진리의 무게로 무력화한다.

🧭 이길 수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킨다
승리보다 정당성을 우선한다.
- 불의한 승리를 거부하고,

패배를 감수하더라도 거짓·조작·왜곡을 사용하지 않는다.
- 권력을 잡았을 때 보복하지 않고,

법과 책임의 절차만을 적용한다.
- 즉각적 정치 이익보다

장기적 정의와 법치를 선택한다.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한다.

🪧 악법과 불의에 맞서는 방식 자체를 지킨다
저항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정의로워야 한다.
- 폭력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공개적·비폭력적·책임을 감수하는 시민적 불복종으로 대응한다.
- 질서를 숭배하지 않되,

무질서를 정의로 포장하지 않는다.
- 더 높은 법, 곧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순종으로서 저항한다.

→ 불복종마저도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절제한다.

⏰ 진리의 타이밍과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다.
- 불편한 진실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말한다.
- 안전해진 뒤가 아니라,

손해와 고립을 감수하면서 증언한다.
- 침묵이 질서를 지킨다는 변명으로

악을 방치하지 않는다.
→ 선은 계산된 침묵이 아니라, 감당하는 증언을 통해 확장된다.

🕊️ 악을 닮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 분노·증오·도덕적 우월감이

정의와 신앙의 증거로 둔갑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 상대의 악을 고발하면서,

자기 진영의 거짓과 위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선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권력을 탐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지 돌아본다.
→ 악을 이긴다는 명분으로
악의 성품을 닮지 않게 하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

⑧ 긴 시간의 관점으로 참여한다 (종말론적 절제)

기독교인은 안다.
- 역사는 단기 성과로 완성되지 않고
-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 주기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 조급하지 않고
- 폭력적 수단을 거부하며
- “지금 당장”이라는 유혹에 영혼을 팔지 않는다

👉 정치적 인내는 천국을 아는 사람의 미덕이다.

---

⑨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를 면책하지 않으며, 신앙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언어로 보호하거나 면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치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 판단을 가장 엄격하게 시험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 신앙에 근거해 내린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 그 판단이 낳은 법적·사회적 결과로부터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이유로
책임 그 자체를 신앙 뒤에 숨기지 않는다.
특히 부당한 법과 명령에 대해
불복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자기 판단의 정당성을 세상에 강제하기 위한 면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린 순종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한다.
👉 따라서 기독교 정치에서의 신앙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소명이며,
이것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순종의 옳음과 그 대가를 함께 끌어안는 성숙이다.

---

⑩ 성공 앞에서는 감사로, 실패 앞에서는 책임으로 응답한다

기독교인은
✓ 성과가 있을 때
•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잘못했을 때
• 신앙 언어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 사람 앞에서는 변명보다 사과와 설명으로 응답한다
👉 이는 약함이 아니라 복음이 낳은 강한 정직함이다.

---

⑪ 결과보다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독교 정치윤리는
선을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동기·절차·책임의 정당성으로 분별한다.
기독교인은
• 이겼는지를 묻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를 점검하고
• 성과의 화려함보다 수단의 진실성과 책임성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결과 그 자체로만 정당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동기와 방식 속에서 맺힌 열매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선한 목적조차도 악한 수단을 통해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⑫ 정치 과몰입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를 먼저 지킨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지만, 다음의 경계를 분명히 지킨다.
- 정치를 신앙이나 정체성의 대체물로 삼지 않는다.
-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을 복음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반대 진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복음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중보 한다).
- 정치적 성공이나 패배로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판단하지 않는다.
- 열성적인 당원이나 지지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한다.
- 정치적 소속보다 복음의 증거와 제자로서의 삶에 먼저 충성한다.

👉 기독교인은 정치 속에 살아가지만,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세속 정치 문화를 하나님의 선과 정의로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 주(Lord)이자 유일한 지도자로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한다.

9️⃣ 최종 종합 결론 및 기도 🔚

천국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질서가 되며,
그 통치는 지배와 강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통치가 완성되고,
성도들은 군림이 아니라 기쁨의 책임과 사랑의 섬김으로 통치에 참여합니다.

바로 이 천국의 통치가
기독교 정치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이 땅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갈등이 존재하고,
그래서 정치와 제도, 견제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는
천국을 대신 세우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외면해도 되는 더러운 영역도 아닙니다.
죄와 불의가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임시적으로 허락된 질서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은 정치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에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가 이웃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걸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천국을 대신 세우려는 야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고,
분노를 정의로 신성화하지 않으며,
승리를 위해 진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기억하며,
이 땅의 정치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통치 방식을 예표적으로 살아냅니다.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나라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치를 절대화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소망 아래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에 책임 있게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참여와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분명히 드러내어,
많은 이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언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입니다.

🙏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열심과 분노, 두려움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치를 우상화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열방 위에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실제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의 삶과 존재를 주님의 인애하심에 온전히, 영원히 의탁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불의에 타협하며 침묵하는 것" 역시 미움이다 –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미움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2026년 1월 5일>

(ChatGPT와 공동작성)

❤️ 사랑과 미움에 대한 성경의 기준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에 비유할 만큼
그 책임을 무겁게 본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겉으로 착해 보이거나
갈등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다.
👉 사랑은
누군가가 해를 입고 있을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외면하지 않는 책임을 포함한다.

⚠️ 미움은 꼭 폭력일 필요가 없다
미움은 욕설이나 폭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침묵의 형태로 드러난다.
🔥 즉, 성경이 경계하는 또 하나의 미움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 “지금은 때가 아니야”
• “괜히 갈등 만들 필요 있나?”
• “사랑은 덮어주는 거잖아”
• “나는 중립이야”
하며 지나쳐 가는 태도다.

📌 성경의 기준은 분명하다
선과 정의와 생명을 해치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침묵 역시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다.
👉 도울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면,
그 침묵 역시 미움이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침묵의 미움’**
1️⃣ 침묵의 미움 = 피해가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선택
• 미움은 반드시 직접 해를 가하는 행동적 가해일 필요는 없다.
• 방치 · 합리화 · 무관심 역시
→ 피해가 멈추지 않도록 그대로 두는 선택이며,
→ 생명과 선과 정의를 지키지 않는 선택이다.
👉 그래서 불의 앞의 침묵 역시 미움의 일종이다.

2️⃣ 십자가는 중립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 불의와 진실 사이의 중립적 중재가 아니고,
- 정의와 거짓을 절충하는 타협도 아니며,
- 갈등을 피하기 위한 회피적 평화도 아니다.

✅ 예수님께선 불의한 권력과 종교적 위선 앞에서
분명히 말했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
➡️ 침묵으로 표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다.

3️⃣ '질서 유지' 명목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다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미움은:
- 선한 말투
- 온건한 언어
- 합리적인 표정

그러나 그 결과가:
- 불의가 지속되고
- 약자가 고립되고
- 거짓이 정상처럼 굳어지는 것이라면

👉 그 침묵은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선과 생명을 말려 죽이는 미움이다.

⚖️ **성경적 적극적 사랑의 실제 예시**
(사랑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특히 불의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다)

🔹 ① 선지자들: 침묵하지 않는 사랑 (구약)
-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등
- 이들의 공통점:

o 인간적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o 그러나 불의를 침묵으로 덮는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 성경적 선지자의 사랑이란
가해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연민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사랑이었다.
➡️ 그들의 말은 듣는 불의한 권력자와 백성에게는 불편했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이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묵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 ② 선한 사마리아인: 중립을 거부한 사랑
• 제사장과 레위인은
o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선택"을 했고,
o 그 결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죽게 되도록 방치했다

• 사마리아인은
o 위험을 감수했고
o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내어놓았으며
o 고통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 예수님의 결론:
"가서 너도 이(사마리아인)와 같이 하라"
👉 중립과 방관은 미덕이 아니라
사랑을 거부한 미움의 선택이었다.

🔹 ③ 예수님의 성전 정화
• 예수님은
o "좋은 말로 타협하자"고 말하지 않았고,
o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 성전에서 드러난 분노는
• 개인적 화풀이가 아니고,
• 무차별적 폭력도 아닌,
• 권력을 이용한 착취와 위선을 멈추게 하려는 공적 행동이었다
👉 이 장면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사랑은 때로 부당한 질서를 그대로 두지 않는 용기를 요구한다.

🔹 ④ 바울의 공개적 책망 (갈라디아서 2장)
•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 이유는 분명했다:
o 개인적인 감정 때문 아님
o 사람을 공격하거나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아님
o 말과 행동이 어긋나며 핵심 원칙이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
➡️ 이 장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왜곡될 때,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
👉 그래서 사랑은 때로
문제를 덮는 침묵보다,
불편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바로잡는 선택을 한다.

🔹 ⑤ 야고보의 경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 말로는 공감과 위로를 표현하면서도
- 현실을 바꾸는 행동은 하지 않고
- 고통이 계속되도록 그대로 두는 태도는

👉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 이 경고의 요지는 분명하다.
선한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가 된다.

⚖️ 성경적 균형: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의 사랑은:
- 진리를 흐리는 사랑 아님
- 진리를 피하는 평화 아님

예수님은:
- 은혜만 전하지 않으셨고
- 진리만 휘두르지도 않으셨다

➡️ 진리를 말하는 은혜,
➡️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성경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불의 앞의 침묵은 '미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없는 중립'이며,
성경은 그런 중립을 참된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니고,
죄라고 한다.
"사람이 선을 행할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 제자적 분별 기준 (현실 적용)

✔ 사랑이냐, 미움이냐를 가르는 예수님의 제자적 질문
- 이 침묵은 생명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자를 보호하는가?
- 이 중립은 정의를 위한 인내인가,
아니면 불의를 위한 완충지대인가?
- 이 평온은 선과 정의의 회복을 위한 기다림인가,
아니면 불의와 고통을 늘리는 거짓 안전인가?

만약 이 침묵과 중립과 평온이
불의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의 호흡을 막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 그것은 갈등을 절제한 사랑이 아니라,
👉 십자가의 대가를 회피한 미움이다.

🙏 **기도**

주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아버지,
제가 미움은 경계하면서
침묵은 합리화하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보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말하면서
생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분별 없는 분노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침묵하지도 않게 하시며,
성령의 담대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랑을 살게 하소서.

중립이라는 이름의 거짓 안전지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형제자매를 살리는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미움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

1️⃣ '내가 누구를 심판하려 드는지'가 아니라
'누가 나와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지'를 붙들 것

진리의 싸움이 미움으로 변질되는 순간은 대부분 이때입니다.

- "내가 옳다"는 확신이
- "내가 심판자다"로 넘어갈 때

성경적 위치는 이것입니다:
나는 증인이지 판결자가 아니다.

- 진리를 선포할 수는 있으나
- 최종적 정죄와 단죄는 하나님께 맡긴다

👉 내가 상대를 구원 불가능한 존재로 최종 판결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은 없고 내가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2️⃣ '분노의 방향'을 항상 점검할 것

성경은 분노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분노는 독이 됩니다.
✔ 건강한 분노

- 불의, 거짓, 억압, 위선을 향함
- "이 죄악 된 구조는 무너져야 한다"

❌ 흑화(黑化)된 분노

- 특정 인물의 멸망·파멸·조롱을 즐김
- "저 인간은 죽어야 해"

👉 분노가 회개와 정의의 회복이 아니라
상대의 파괴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3️⃣ '말의 목적'을 항상 하나로 고정할 것

이 질문을 반복하십시오:
"이 말을 통해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 회개와 드러남
✔ 거짓의 붕괴
✔ 생명의 보호

❌ 상대의 굴욕
❌ 사적 감정 배출
❌ 도덕적 우월감 확인

👉 진리를 말하면서도
상대가 돌이킬 가능성 자체를 마음속에서 삭제했다면,
그 순간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4️⃣ '적을 단순화하지 말 것'

흑화는 거의 항상 과잉 단순화에서 옵니다.

- "저쪽은 전부 악"
-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나 성경은:

- 악을 명확히 규정하지만
- 인간을 악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존재이며,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 그러므로 상대를 회개 가능성조차 없는 존재로 정죄하는 순간,
오직 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만 구원받는 같은 죄인인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잃은 채
최종 심판자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교만한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5️⃣ '대가를 치를 각오'는 하되
'복수의 쾌감'을 기대하지 말 것

십자가적 사랑의 분기점은 이것입니다.
✔ 손해 볼 각오
✔ 오해받을 각오
✔ 고립될 각오

❌ 상대가 영원히 멸망하는 장면을 기대
❌ 정의가 아니라 "꼴 좋다"는 감정

👉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지,
사람에 대한 사적 복수의 통쾌함은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6️⃣ 하나님 앞에서만 울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할 것

흑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 공개적 발언은 단호하지만
- 은밀한 자리에서는 눈물이 있다

- 하나님 앞에서:
  -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저 사람 역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신 존재입니다."
  - "제가 미움으로 변질되면 멈춰주세요"

👉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비인격적으로 부숩니다.

7️⃣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진리는 포기하지 않되,
상대의 회개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삭제하지 말 것.
불의와는 끝까지 싸우되,
인간의 최종 판결자는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 것.
이 균형이 무너지면,
진리는 곧 의로운 증언이 아니라
살인적 미움의 핑계가 됩니다.

🙏 **기도**

주 예수님,
제가 침묵으로 죄를 덮지 않게 하시되
분노로 사람을 지워버리지 않게 하소서.

진리를 말할 때
제 안의 사적 복수심과 우월감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구원의 마음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불의를 미워하되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단호함은 잃지 않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
<국민의 힘 새 당명 대국민 공모전: 2026년 1월 12일>

나의 새 당명 제안과 이유: 〈상식의 책임〉

〈왜 '상식의 책임'당인가〉

상식의 책임당은 거창한 이념을 새로 만들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기본과 상식이 다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줍니다.
위기의 시대를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 힘은 언제나 소수의 선동이나 과격한 구호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공유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근현대 자유민주공화정의 출발점이 된 수많은 역사적 전환들 역시
어려운 철학이나 엘리트만의 언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언어로,
개개인의 불가침적 자유와 기본권,
법 앞의 평등과 법 위에 누구도 없는 법치,
인간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당위,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자유민주공화정의 원리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설득하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섬기기 위해 위임된 도구이며
그렇기에 반드시 제한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낱 불완전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 행위, 세습되는 지배 구조,
불완전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는
모두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과 공화국민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은
급진적 실험이나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 권력 독점의 위험성을 직시한 상식이 끝까지 밀고 나아가 도달한,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질서입니다.

그 상식은 결국 역사를 움직였고,
오늘날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우리 수천만 국민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독재·세습·우상화 체제, 곧 반국가단체이자 반인도범죄 집단인
북한 조선로동당 체제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다시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식에는 반드시 실행하고 지켜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상식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정당으로서 ‘상식의 책임’은
기본과 상식, 곧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불가침적 기본권,
국가의 법치와 삼권분립, 자유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당연한 기준으로 존중하며, 수호하고, 실행하는 정치입니다.

이 상식의 틀 안에서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
상식의 원칙 앞에서 예외를 만들지 않는 태도,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기 전에 먼저 공통의 상식을 바로 세우고 지켜내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정이 흔들릴 때,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자들의 책임 있는 정치〉

정치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여야 합니다.

분노를 팔고 국고를 탕진하며 표를 얻는 정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
간첩·매국 행위, 국민을 업신여기며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
거짓과 위선의 배임 정치에
이제는 분명히 "그만"이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상식의 책임당은 눈속임과 선동보다 정직과 정확함을,
단기적 약속보다 백년을 내다보는 책임을 선택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의 자세로 초지일관 임합니다.

〈이름에 담긴 약속〉

상식의 책임당,
그리고 우리의 약칭 "상책(上策)" — 가장 좋은 대책, 가장 책임 있는 선택.

상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책임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 그래도 이게 맞지."

정직한 국민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치.
기본과 상식,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정치.
조용하지만 단단한 정치,
성숙한 민주시민이 기꺼이 선택하게 되는 정치.

그것이 상식의 책임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이재명, 사이비·이단 종교에 폐해 크다'는 기사에 내가 단 댓글: 2026년 1월 12일>

북한의 주체사상은 정치 이념을 가장한 이단·사이비 종교이며, 삼대 세습에 걸쳐 한낱 죄인 인간을 신격화한 체제다.
수령 숭배와 교리 독점 아래 자유는 말살되고, 가장 극심한 기아와 가난이 구조화된 채 주민들은 사상·이동·발언이 통제된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
이는 실패한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파괴하는 전체주의 사이비 종교 체제다.

#
《20세기 이후 급진 이념 혁명과 정치·사회 체제의 과격한 재편: 대표 사례 30개 (연대순): 2026년 1월 20일》

(ChatGPT와 공동작성)

🔴 1.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1917)
–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단일당 혁명국가 수립(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체계화)
– 계급혁명 명분 아래 종교·사유재산·시민사회를 구조적으로 해체
– 당과 국가가 도덕·진리·구원의 자리를 대체(혁명형 인간/사회 “재조립”)

🔴 2. 이탈리아 파시즘 혁명 (1922)
– 국가·지도자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국가주의 혁명
– 개인의 권리보다 동원·충성·질서를 우선하는 체제 구축
– 교육·언론·결사 영역을 국가가 통합·지휘(자유 → 동원으로 치환)

🔴 3. 나치 독일 혁명 (1933)
– 인종·민족 신화를 국가 이념으로 절대화한 전체주의 체제
– 선전·조직·공포를 통해 사유·문화·윤리 기준을 국가가 장악
– “가치 있는 생명/없는 생명”을 국가가 규정하는 생명정치의 극단

🔴 4. 일본 쇼와 군국주의 (천황제 파시즘) (1930s)
– 천황 중심의 국가 신성화와 군부 주도 정치·사회 재편
– 사회 전체를 전쟁 수행 체제로 조직(교육·산업·언론의 총동원)
–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 목적이 도덕 기준이 되는 국가 종교화

🔴 5. 베트남 공산혁명 (1945–1976)
– 민족해방 서사와 공산이념이 결합된 혁명 과정(혁명 정통성의 이중 기반)
– 전통·종교·시민사회가 주변화되고, 당-국가가 사회조직을 단계적으로 흡수
– 전쟁 종결 이후 사회주의 일당국가 체제가 제도화되는 경로 형성(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 6. 북한 공산혁명과 주체체제의 사이비 정치종교 국가화 (1948~)

– 마르크스-레닌주의 위에 수령을 절대자·구원자 위치에 올려놓은 정치종교적 전체주의 체제 형성·고착
– 주체사상과 수령 신격화를 통해 종교·양심·초월적 판단 기준이 제도적으로 배제·억압되고, 국가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독점
– 개인은 시민이나 인격 주체가 아니라, 충성·숭배·권력세습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기능 단위로 취급됨

● 7. 중국 공산혁명 (1949)
– 마오주의 혁명 국가 수립(토지·계급·권력 구조 재편)
– 유교적 질서·가족·종교 전통의 체계적 약화/해체
– 당이 "인간 목적"을 규정하고, 사회 모든 조직을 당-국가에 종속

● 8. 동독 사회주의 수립 및 사회주의 체제화 (1949–1990)
– 소련 군정에 의한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계획·통제 경제 정착
– 감시·검열·정치경찰을 통한 일상적 순응 생산
– 개인을 권리 주체가 아니라 체제 유지 기능으로 환원

● 9. 이집트 나세르 혁명 (1952)
– 군부 주도 민족주의 혁명(왕정·구(舊)엘리트 구조 해체)
– 범아랍주의·국가사회주의로 경제·교육·언론의 국가 주도 재편
– 종교는 배제되기보다 국가가 관리·동원(정치가 상위에 서는 구조)

● 10. 알제리 혁명 (1954–1962)
– 반식민 독립 투쟁이 국가 정통성의 성역화로 이어짐
– 독립 이후 군사·일당 체제로 고착되며 정치적 다원성 약화
– 종교·민족 정체성이 정치와 결합해 국가주의적 동원 논리 형성

● 11. 쿠바 혁명 (1959)
– 반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혁명 정권 수립
– 언론·정당·결사의 자유가 축소되고 혁명 엘리트 중심 통치 강화
– 문화·교육·시민사회가 혁명 서사에 재정렬

● 12. 중국 문화대혁명 (1966–1976)
– "사상 순수성" 명분으로 사회 전반을 정화·재편
– 지식인·종교·전통 문화의 파괴(권위·기억·연속성의 해체)
– 혁명 자체가 절대 선이 되는 집단 광신형 정치종교 실험

● 13. 1968 서구 문화혁명 (1968 전후)
– 반권위(국가·대학·가부장제·교회) ·반전·반전통(가족·성윤리·종교)의 흐름이 교육·문화·윤리 담론의 장기적 방향을 전환
– 성·가족·권위·전통 규범에 대한 급진적 재해석과 상대화가 이후 사회 규범을 구조적으로 변형(후일 해

체주의로 체계화됨)
– 제도 혁명보다는 문화·규범 혁명으로 작동(눈에 보이는 쿠데타 없이 체제 심층 변경)

● 14.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혁명 (1960s~1980s, 영향 지속)
– 마르크스적 사회해석과 신학의 결합으로 "구원"을 정치적 해방 서사로 전환(교회 내부의 진보적 흐름이 정치적 혁명 세력과 전략적 연대를 맺음)
– 교회의 소명(회개·복음·거룩)보다 계급투쟁/혁명이 중심이 되는 위험
– 신앙이 초월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치 동원의 자원으로 변형

● 15. 리비아 '자마히리야' 체제 실험 (1969–1977)
– 반서구 민족주의 + 사회주의 + 이슬람 요소의 혼합
– 의회·헌법을 부정하고 '인민 직통 통치'를 내세워 실질적 개인지배 구축
– 지도자/국가가 초월 기준처럼 기능하는 이념 실험국가

● 16. 이슬람주의 각성 혁명 (1970s~)
– 무슬림 형제단 등 정치 이슬람의 재부상·재확산: 개인 신앙 → 정치 프로그램化
– 이슬람 종교가 국가·법·교육 전반에 규범적 우위를 요구
– 중동·유럽에 걸친 장기적 긴장 구조와 정치종교의 부상을 촉진, 일부 흐름은 급진화·과격화·폭력적 정치종교로 발전

● 17. 에티오피아 데르그 혁명 (1974)
– 군사평의회에 의한 왕정 전복과 급진적 국가 재편
– 무신론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가 강제하며 전통·종교 질서 충돌
– 숙청·폭력 동반 "혁명 수호" 논리로 군사 공산체제 고착(적색테러(1976–1978) 포함)

● 18.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혁명 (1975)
– 급진 농본 공산주의로 도시·지식·시장질서를 "악"으로 규정
– 가족·종교·교육·화폐·도시를 해체하며 인간을 원점에서 재설계 시도
– 국가가 "새 인간"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대량학살 실행

● 19. 이란 이슬람 혁명 (1979)
– 시아파 성직자 중심의 신정체제 수립(세속왕정 붕괴)
– 종교 권력이 공적 권력의 핵심이 되며 법·교육·문화 전반 재정렬
– 반서구·반세속 서사를 결합한 근대형 신정 전체주의 모델

● 20.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1979)
– 좌파 혁명 담론과 해방신학 성향의 일부 가톨릭 성직자 및 민중 공동체가 결합하여 사회적 동원에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민중교회'로 불린 교회 내부 진보 흐름이 형성됨
– "정의/해방"을 정치 프로젝트로 전면화하며 교회·신앙의 정치화 촉진

– 신앙이 초월적 기준이 아니라 혁명 정당화 언어로 전용되는 위험 드러남

● 21. 포스트모던·정체성 혁명 (1970s~)
– 진리·규범·권위를 "해체"의 대상으로 두는 사상 흐름 확산
– 말과 해석이 현실을 만든다고 보면서, 도덕과 정치의 기준이 사실보다 감정·서사·집단 인식으로 이동
– 초월 기준 대신 상대화/해체가 규범이 되는 문화 재편

● 22.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준국가화와 정치·군사 조직화 (1982~)
– 종교 권력이 군사·정치·복지 기능을 통합하며 준국가화
– 정치적 순교·저항의 신성화로 정치 목표를 초월적 의무처럼 구성
– 종교가 신앙 고백을 넘어 정치적 혁명의 정체성·동원 체계로 작동

● 23.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혁명 (1996 / 2021)
– 급진 율법주의를 국가 강제로 구현(교육·복장·표현·여성 공적 활동 억압)
– 종교를 "자유"가 아니라 통치 장치로 사용
– 문화·지식·양심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회를 단일 규범에 편입

● 24.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 (1999)
– 좌파 포퓰리즘 + 민족주의로 기존 엘리트 질서에 도전
– 지도자 중심의 정치 동원과 제도 재편으로 권력 균형 약화
– "정의/분배"를 국가가 독점하며 사회 전반을 정치-의존 구조로 이동

● 25.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권위주의적 재편 (2000s~)
– 공산주의 붕괴 후, 국가·민족·종교 상징을 결합해 정통성 재구축(러시아 정교회와의 결탁)
– 자유보다 질서·안정을 우선하며 권력 집중 구조 강화
– 국가가 다시 "의미/정체성"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재신성화 경향 형성

● 26. 디지털·기술 유토피아 혁명 (2000s~)
– 인간·윤리·정체성을 기술적으로 재정의(데이터·알고리즘 중심 질서)
– 효율/안전/편의를 명분으로 감시·예측·행동 유도가 일상화
– "구원"이 회개가 아니라 기술 솔루션으로 대체되는 문화혁명

● 27. 프랑스 신(新)라이시테(Laïcité) 급진화 (2004/2010 법제화 이후 강화)
– 세속주의가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허용되는 종교적 가시성의 범위를 국가가 규율하는 방식으로 발전
– 종교를 개인의 내적 자유로 인정하면서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복장·상징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화
– 그 결과 국가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공적 표현을 조건부로 승인·제한하는 판단 주체로 기능하게 됨

🔴 28. 이슬람 국가(ISIS) 칼리프 국가(급진적 신권정치) 실험 (2014–2019)
– 근대 국가 질서(국경·국적·법)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전 세계 무슬림을 대표하는 '칼리프 국가'라고 선언
– 극단적 폭력과 공포, 선전, 강제적 종교 규범을 결합해 정치·법·교육·일상생활 전부를 단일 규범에 편입
– 인간 생명·양심·문화가 '체제 유지' 목적에 종속되는 극단적 종교 지배 실험

🔴 29. 글로벌 포퓰리즘 혁명 (2010s~)
– 엘리트 반대·대중 감정 동원을 통해 정치 언어·제도 운영을 재편
– 진리·사실보다 분노/충성/진영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경향 강화
– 민주주의가 절차는 남되 내용(책임·절제·상호인정)이 붕괴하는 방향으로 이동
👉 "혁명"이 쿠데타가 아니라 정치의 도덕 문법 자체를 뒤집는 방식으로 작동

🔴 30. 정체성 기반 사회운동 혁명 (2010s~)
– 개인을 시민·개인 주체로 보기보다, 인종·성별·성정체성 등 집단 정체성 범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
– 도덕과 정의가 보편 원칙보다는 집단 경험·감정·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판단되는 담론이 확산
– 법이나 국가 제도 이전에, 언어 사용·문화 규범·평판 압력을 통해 비동조자에 대한 배제·낙인·침묵 유도가 작동하는 사례가 증가
👉 국가권력 없이도 작동하는 문화적 전체주의 혁명

🔎 공통 본질

1️⃣ 초월 기준의 제거 또는 대체

모든 사례는 하나님, 양심, 보편 윤리, 자연법, 진리와 같은
인간 외부의 초월 기준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고,
그 자리를 이념·국가·인간 지도자·역사 서사·정체성으로 대체한다.
→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권이 개인의 양심과 초월적 규범이 아니라 체제 내부 권력에 귀속된다.

2️⃣ 정치의 종교화, 종교의 정치화

정치는 단순한 통치 기술이 아니라
구원·정의·역사 완성을 약속하는 총체적 세계관이 되고,
종교·도덕·문화는 그 정치 목표를 정당화·동원하는 수단으로 재편된다.
→ 정치가 신앙의 언어를 차용하거나,
→ 신앙이 정치 이념의 하위 도구로 전락한다.

3️⃣ 인간의 수단화 (Human Instrumentalization)

인간은 더 이상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 계급
- 민족
- 인종
- 신권정치의 신도
- 혁명 서사
- 기술 시스템

을 유지·완성하기 위한 수단·부품·자원으로 취급된다.
→ 희생, 숙청, 배제, 침묵 강요, 비인격화가 구조적으로 정당화된다.

4️⃣ 언어·교육·문화의 선점 (급진 이념 혁명의 방식)

총과 법뿐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동시에
권력은 사회의 가장 깊은 층위인 언어·교육·문화를 먼저 장악한다.
- 단어의 의미가 바뀌고
- 교육의 목표가 이념에 종속되며
- 문화의 경계와 허용 범위가 재설정되고
- 말할 수 있는 것과 침묵해야 할 것이

권력·이념·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재편된다.

→ 현실을 해석하는 틀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규정되며,
→ 동의하지 않는 해석은 비도덕·위험·배제의 대상이 된다.
→ 물리적 강제가 없어도, 동조 압력과 사상검열이 구조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폭력 없이도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급진 이념의 전형적인 헤게모니 전략이다.

5️⃣ “해방”의 약속 → 새로운 예속

대부분의 급진 혁명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정의의 실현, 질서·부흥·정화, 그리고 ‘새로운 인간’을 약속하며 출발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해방은 곧 사라지고, 자유는 체제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조건부 자유로 전락한다.

- 무엇이 옳고 허용되는가는

→ 개인의 양심이나 초월적 기준이 아니라
→ 권력을 장악한 소수와 지배 이념이 최종적으로 규정한다

- 자유는 확장되지 않고

→ 선택 가능한 영역이 체제 내부로 재배치되며
→ 허락된 생각만 가능한 구조로 축소된다

그 결과, 해방을 외친 혁명은 반복해서
• 더 정교한 통제
• 단일 규범의 강제
• 사상과 가치의 독점 구조로 귀결된다.
결국 혁명은 해방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자유를 획득하는 주체는 시민이 아니라
체제와 그 체제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다.

🧭 한 문장 결론
20세기 이후의 급진 이념 혁명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체제가 대신 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총체적 지배를 반복해 왔다.

🔎 급진 이념 혁명의 공통 공격 패턴 요약
(교회 · 가정 · 양심 · 진리)

1️⃣ 교회 (초월 권위의 제거 또는 흡수)

급진 이념 혁명은 교회를
• 해체하거나
• 국가·이념에 종속시키거나
• 정치적 동원 도구로 전환한다.
→ 교회가 가진 초월적 판단 기준과 비판 기능을 제거하고,
→ 최종 권위를 이념·국가·지도자로 이전시킨다.

2️⃣ 가정 (자율적 공동체의 해체)

가정은 국가·이념 이전에 형성되는 자율적 가치 공동체이기에,
• 약화
• 재정의
• 국가 관리 대상으로 전환
되는 압박을 받는다.
→ 부모·부부·세대 간 책임은 축소되고,
→ 충성의 1차 대상이 가정에서 정치 권력으로 이동한다.

3️⃣ 양심 (내적 판단 능력의 무력화)

급진 혁명은 개인의 양심을
• '사적 감정'
• '계급·정체성 산물'
• '재교육 대상'
으로 격하한다.
→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개인 내부가 아니라
집단 서사·권력 해석·정치적 유용성에 의해 결정된다.

4️⃣ 진리 (보편 기준의 해체)

진리는
• 상대화
• 역사·권력·언어의 산물로 재규정
• 이념에 봉사하는 도구
로 바뀐다.
→ 사실보다 서사,
→ 진실보다 충성,
→ 질문보다 동조가 요구된다.

🧭 종합 한 줄 결론
교회, 가정, 양심, 진리는
국가와 이념보다 먼저 인간의 존엄을 지켜 온 최후의 방어선이기에,
모든 급진 이념 혁명은 언제나 이 네 영역을 가장 먼저 해체하고 장악하려 해왔다.

✝️ 교회 공동체가 정치적 침묵도,
정치적 대체물도 되지 않으려면
—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의 관점에서

1️⃣ 진리의 허리띠

교회는 사실·진리·거짓의 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정치 선동·이념 언어·감정 동원에
언어를 빼앗기지 않는다.
→ 침묵하지 않되, 거짓과 손잡지 않는다.

2️⃣ 의의 흉배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옳음'의 편에 선다.
어느 정치 진영에 의를 종속시키지 않는다.
→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묻는다.
→ 사람이나 정당보다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먼저 묻는다.

---

3 평안의 복음의 신

교회는 복음이 주는 참된 화평 위에 서며,
분열을 조장하지도 않고 거짓 평화와 타협하지도 않는다.
→ 죄와 불의를 덮어버리는 형식적 통합을 거부한다.
→ 책임과 회개 없는 위장된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의 평안은 갈등을 숨기는 침묵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회복되는 화해이다.

---

4 믿음의 방패

교회는 정치적 성공이나 체제의 안정, 세력의 확대를
궁극적인 보호막이나 희망으로 삼지 않는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신뢰한다.
→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정치 권력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지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도 않는다.

---

5 구원의 투구

교회는 정권 교체나 제도 개혁을
영혼의 구원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 정치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역할을
세상 권력에 맡기지 않는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정치는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는 있어도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새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삶과 가치와 방향 전체를 새롭게 하며,
내면과 관계와 존재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전인적 구원이다.

교회는 언제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세상의 어떤 체제나 지도자도
메시아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

6️⃣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혐오나 선동, 인간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거짓을 베어내고 시대를 드러내며
권력과 이념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역사를 움직인다.
→ 교회는 정치의 확성기가 아니라
세상을 찌르고 깨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칼을 들고 선다.

🧭 최종 정리 한 줄
교회는 정치 앞에서 침묵하지도,
정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과 불의를 분별하며 진리와 복음을 증언한다.
이때 교회는
- 급진적 정치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 정치 권력의 하위 도구가 되지 않으며
- 동시에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다.

👉 깨어 있음이란
세상의 권력과 이념에 잠식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시대를 분별하고
복음의 자리에서 담대히 서 있는 것이다. ✝️

#
<팔복, 의를 위한 박해, 빛과 소금: 2026년 1월 20일>

오늘의 생명의 삶 QT 본문(마5:3–16)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구조입니다.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는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

(ChatGPT와 공동작성)

📖 팔복의 흐름 —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변화

1. 심령의 가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
자기 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통치(천국)가 시작됩니다.

2. 애통
죄와 세상의 타락을 슬퍼하는 영적 민감성.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3. 온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부드러운 상태.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자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4. 의에 주림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배고픔.
하나님 나라의 만족은 이 갈망 위에 채워집니다.

5. 긍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흘러나오는 단계.

6. 마음의 청결
외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 중심도 하나님께만 향한 상태.
이때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경험합니다.

7. 화평케 함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자가 그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통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8. 의를 위한 박해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에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필연적으로 충돌하며 나타나는 마지막 표지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함으로 세상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받고 고립되고 밀려나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점점 깊어지는 영적 성장의 계단이며,

마지막에 나타나는 박해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결정적인 외적 표지입니다. ✝️

✨ 11–12절 묵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욕과 거짓 비방을 받을 때 기뻐하라는 이유는
그 고난이 이미 하늘 나라에 속한 자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 소금과 빛 (13–16절)
팔복의 삶을 사는 자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 소금 → 부패를 막고 진리를 보존하는 존재
- 빛 →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드러내는 존재

중요한 포인트:
빛을 비추는 목적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선한 열매가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숨을 수 없고
하나님 통치의 향기가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 전체 한 줄 정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다 세상에서 밀려나는 박해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
그가 보이는 건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여유와 온유, 담대함이고,
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소금과 빛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

🙏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위에만 서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만 담대히 살게 하소서.
아멘.” ✝️

#
<한국교회 목회자들께: 2026년 1월 22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핵심 사명은

셀럽 팬덤형 목회가 아니라,

일사각오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해
순교자의 각오로 기도하며 주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며,
말의 기술이 아니라 목숨을 건 증언입니다.

부디 말이 아닌 삶으로,
무대가 아닌 골방에서,
팬이 아닌 양을 위해
순교자적 목자의 길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
<이재명, 대표 공복(公僕)의 지위를 일탈하여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복적 발언: 2026년 1월 23일>

대표 공복(公僕)의 지위를 일탈하여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복적 발언
—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중 망언 (2026.01.21)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곳도 있더라. 이거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지금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자갈,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 일단은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은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처벌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법률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안다. 그런데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와 같다. 특검 되면 넘겨주겠다, 뭐. 그전에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다."

⚠️ 이 발언이 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치명적으로 반헌법·반국가적인가

(ChatGPT와 공동작성)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과장이 아닙니다.
주권재민과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구조를 근본에서 오독하고,
국가 권력이 시민의 종교·양심·신념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사고를 공공연히 드러낸 발언입니다.
그 결과, 자유 헌정 질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권력이 앞장서 훼손하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표현·사상·신념·신앙·종교의 불가침적 자유는
자유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자유들 위에 서서 이를 재단하고, 선별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초헌법적·초양심적 인간 기관도
자유민주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과 양심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헌법을 수호할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진 대표 공복이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공복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권자 국민의 양심·신앙·사상 그 자체를
관리·심문·통제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시 비상사태나 안보를 이유로도 쉽게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자유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의 엄격한 제한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중대한 헌정적 배임입니다.

0 대통령은 주권자가 아니라 대표 공복이다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 집행하도록 맡겨진 대표 공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은 대통령이 스스로를
이 헌법적 질서의 집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신념을 판단·분류·제재하는 주체로 격상시키는 구조를 띱니다.

"설교 제목이 그런 곳도 있더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설교와 신념이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경계가 불분명해도 수사하며,
제재의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공복이
도리어 주권자 국민의 양심과 신념을 심사·낙인·위축시키는 자리로 이동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복과 주권자의 자리를 뒤집는 행위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주권 관계의 전도,
곧 헌정 질서를 흔드는 전복적 발상입니다.

---

1 정교분리를 '국가의 종교 통제권'으로 뒤집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원칙이며,
동시에 종교가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양심·신앙·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상호 제한 원칙입니다.
즉, 정교분리는
국가에게 종교를 감시·선별·처벌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은

“제재”, “수사”, “제거”, “처벌 강화”라는 언어를 통해
종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정화·통제의 대상으로 재분류합니다.
이는 정교분리가 아닙니다.
정교분리의 이름을 빌린 국가의 종교 지배 공식화입니다.
그 즉시
양심·신앙·사상·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검열·입막음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정교분리가 무너지는 지점은
국가가 신앙의 경계를 재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

2 개인의 정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무력화한다

“개인의 정치적 선호는 허용되지만
종교가 정치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구분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단순한 사적 취미나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세계관·도덕 판단을 형성하는 근원이며,
그 신념은 침묵 속에만 머무를 자유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말하고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신앙에 기초해 불의에 항의하고,
도덕적 기준으로 권력을 비판하며,
공공선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려야 할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정치적 발언 자체는 허용하면서
그 발언의 동기와 근거가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거나 제재하려 든다면,
그것은 표현 규제가 아니라
신념의 출처를 심문하는 사상 통제입니다.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이처럼 "무엇을 말했는지는 괜찮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문제 삼겠다"고
국가가 압박하는 순간,
자유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제거됩니다.
이는 신앙인을 공적 영역에서 추방하는 발상이며,
말은 허용하는 척하면서
생각의 뿌리와 양심의 근거를 국가가 재단하겠다는
가장 오만하고 위험한 자유 박탈 방식입니다.

---

3 사상의 시장을 유지·작동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분명합니다.
위험한 사상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반박, 시민적 검증,
즉 '사상의 시장' 안에서 스스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 사상을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라
- 사상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조정자이며
- 시민의 판단 능력을 신뢰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국가가
"이 신념은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낙인찍는 순간,
사상의 시장은 붕괴되고
국가는 유일한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때부터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언어는
사상의 시장을 신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
국가가 신념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월권이자,

누구부터 제거하겠다는 폭거 독재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현 정권이 한편으로는
• 명백한 반국가단체이자 반인도범죄 집단인 북한 정권의 선전·미화에는 사실상 방치·묵인하거나 동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 국내에서 제기되는 불편한 도덕적·신앙적 비판을
"위험한 신념", "제거 대상"으로 규정해 억누른다면,
이는 안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관리하고 침묵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국가는
국민의 양심을 제거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양심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진 존재입니다.

4️⃣ "큰 돌부터 제거"는 법치가 아닌 숙청의 언어다

"밭갈이", "큰 돌부터 제거"는 법률 언어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체주의·혁명 독재·이념 국가에서 반복된 숙청의 은유입니다.

항상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특정 집단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2.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외적 수사를 정당화하며
3.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4. 그에 맞춰 법과 제도를 사후적으로 보완한 뒤
5.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말은 늘 같습니다.
"처음엔 그들만 대상이었는데, 어느새 모두가 대상이 되었다."

"큰 돌부터 제거하겠다"는 발언은
법 집행의 언어가 아니라,
표적과 순서를 정해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권력의 신호입니다.

5️⃣ "총을 국민에게 겨눈 반란" 비유는 국가폭력 정당화다

종교적 발언을 '반란'에 비유하는 순간,
말은 무기가 되고 신념은 범죄가 됩니다.

그 즉시 국가의 강제력 행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표현과 사상을 폭력과 동일시하는 사고 구조이며,
곧 사상범 개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말을 반박할 수는 있어도 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념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폭력을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6️⃣ 이는 반헌법을 넘어 반국가적 사고 구조다

반국가단체이자 반인도범죄 정권 북한의 본질은 단순 폭력의 수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신념의 최종 심판자라는 사고 구조에 있습니다.
형식상 자유를 말하다가,
신념이 권력 비판의 의미를 띠는 순간
즉시 반국가 행위로 재분류해 제거합니다.

문제의 이재명 발언은 북한 통치식 구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 명확성 원칙의 포기 및 예외 권력의 상시화
• "큰 돌부터 제거" → 선별적 표적화
• "처벌 강화" → 사후적 합법화
이는 개별 범죄 대응이 아니라,
신념과 표현을 관리 대상으로 재분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발언 — 핵심 위험 발언 요약
1️⃣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문제성 요지
• 범죄 행위가 아니라 신념·설교·표현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
• 국가가 사상의 존재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언어를 사용
•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상 숙청 국가의 전형적 표현
👉 사법적 처벌 언어가 아니라, 이념 정화·제거의 언어

2️⃣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문제성 요지
• 위법 행위 판단 이전에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

• 수사·처벌을 정의 실현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전락시킴
• 사법의 독립성과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 배치
👉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위력 과시

3️⃣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성 요지
• 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의 명백한 포기
• 무엇이 불법인지 모른 채 수사부터 하겠다는 발상
• 예외적 권력을 일상화하는 위험한 신호
👉 법이 먼저가 아니라 수사가 먼저

4️⃣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문제성 요지
•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닌 선별적 표적화·단계적 숙청 은유
• 현재 대상 → 미래 확대를 공개적으로 예고
• 권력 비판 세력 전반을 향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발생
👉 오늘은 '큰 돌', 내일은 '자갈'

5️⃣ "종교 시스템을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성 요지
• 종교를 행동하는 양심의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 시스템으로 규정
• 종교적 동기에 기반한 공적 발언을 원천적으로 배제
• 신앙의 공적 표현 자유를 사실상 부정
👉 말은 허용하되, 왜 말했는지는 금지

6️⃣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와 같다"
문제성 요지
• 설교·표현을 무장 반란에 비유
• 비폭력적 발언을 국가폭력 정당화의 대상으로 전환
• 사상범 개념의 부활을 암시
👉 말을 범죄로, 신념을 반란으로 치환

⚠️ 종합 위험성 한 줄 정리
이 발언들은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언어가 아니라,
신념과 사상을 '관리·선별·제거'하겠다는 국가의 사고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사상이 허용되는 범위를 국가가 결정하는 사상통제국가의 언어입니다.

🔚 결론
문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를 ‘신념의 재판관’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어떤 신념이 허용되는가”를 판단하고,
“누구부터 제거할 것인가”를 말하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자유를 전제로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 이것이 자유민주공화국이 무너질 때
언제나 반복되어 온 정확한 방식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교분리는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신념을 선별·관리·통제하는 통치 핑계로 전락합니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종교 위에 올라서서
허용되는 신앙과 배제될 신앙을 가르는 오만한 심판자가 됩니다.

법치는 원칙과 절차의 지배가 아니라
권력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집행이 되고,
법은 공공선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 군림의 도구로 변합니다.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위험하다’고 규정하는 신념과 집단을
감시·분류·관리·배제하며
한낱 죄인인 인간 '왕'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북한식 '조선민주주의' 체계로 바뀝니다.

국민은 더이상 주권자가 아니라
감시와 교정과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 이것이 자유국가가 내부 논리로 붕괴할 때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코 타락한 인간 권력의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최종 승리합니다.

🔥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확장되며, 마침내 승리한다.

교회는 어떤 체제의 허가로 존재하지 않으며,
여론의 승인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고백과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7–18)

교회의 반석은 제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교회의 존속 근거는 인간 권력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며, 성취는 필연입니다.

1️⃣ 교회는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다 — 복음은 ‘영접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눅 10:10–12)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복음은 환영받아야 성립하는 제안이 아니라,
선포되는 순간 이미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영접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그는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눅 10:16)

복음에 대한 책임은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듣는 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교회는 판결자가 아니라 증언자이며,
결과를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포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정받지 못해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배척당해도 메시지를 철회하지 않으며,
거절당해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반응 위에 서 있지 않고,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

2 교회는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증명한 법칙이다

성경은 교회의 성장을
우호적 환경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41)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곧이어 압박과 위협이 시작되지만,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행 4: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행 5:14)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행 6:7)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박해입니다.
박해로 교회가 흩어질 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확장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 9:31)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설은 분명합니다.
압박은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박해는 교회를 해체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복음의 경계를 넓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누르려는 힘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박해는 교회의 종말이 아니라, 확장의 촉매였습니다.

---

3 교회의 성장은 인간 전략이 아니라 ‘주의 손’과 ‘주의 말씀’에 달려 있다

교회의 성장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행 11:21)

교회가 자라는 이유는
정치적 유리함도, 사회적 호의도, 제도적 보호도 아닙니다.

주의 손, 곧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을 다음과 같은 언어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4)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행 13:49)
교회의 능력은 조직에 있지 않고,
영향력은 인간의 기획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역사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국 아래에서도,
독재의 압박 속에서도,
감옥과 사자굴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행 16:5)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20)

교회의 성장은 인간이 밀어 올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구속사의 전진입니다.

4️⃣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이미 모든 권세 위에 계신다

교회의 현실은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서 규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자리입니다. (엡 1:20–21)

더 나아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엡 1:22–23)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인간 정치 권력 아래에서 허락받아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미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 교회의 머리는 영원하며
- 교회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교회는 패배를 향해 버티는 집단이 아니라,
승리하신 왕의 통치 아래서 역사를 통과해 가는 몸입니다.

5️⃣ 마지막 장면은 분명하다 — 교회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을 타협 없이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체제도, 군사력도 아닌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릅니다. (계 19)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왕들과 권세들이 그를 대적해 모이지만,
전쟁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짐승은 붙잡히고, 거짓은 무너지며,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권력은 무력해집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힘의 균형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패배를 피하려 애쓰는 집단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악한 짐승은 붙잡히고,
거짓은 무너지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그 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습니다.

6️⃣ 교회는 위임받은 권세로 나아간다 — 사명은 취소되지 않았고, 동행은 끝나지 않았다

교회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용기가 많아서도, 상황이 유리해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권세를 위임받아 파송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질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주 예수께 속한 모든 권세의 선언,
그 다음 교회의 파송,
그리고 끝까지 지속되는 주님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 교회의 권세의 근원은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 교회의 사명의 범위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고
- 교회의 동행의 약속은 한 시대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교회는
환영받을 때만 나아가지 않고,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으며,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취소되지 않았고,
주 하나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정권도 여론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교회의 방향과 존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인간 권력의 탄압이나
박해하는 체제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허가로 존재하지 않고,
정권의 승인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여론에 따라 사명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고,
박해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으며,
압력 속에서도 사명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대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위임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사람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교회는 이미 승리하신 왕 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역사의 끝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 역사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직 결론을 기다리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확정적이고 완전한 최종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 **기도**
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망과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권력과 시대의 압력 앞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끝까지 인내로 서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침묵이 아니라 진리로,
타협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끝까지 다스리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원수를 향한 사랑의 중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가 미움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진리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남한 이재명과 북한 김정은을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해야 할 영혼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권력을 의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음을 속히 깨닫게 하옵소서.
칼과 두려움과 거짓으로 세운 나라는
결코 서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가
반드시 심문받는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만주의 주 예수여,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악에서 떠나 생명을 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붙드소서.
스스로 무릎 꿇어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늦기 전에 진리를 보고
회개함으로 살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원수의 파멸이 아니라 돌이킴이며,
심판의 지연이 자비의 시간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저들에게는 엄위한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에게는
역사의 주권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대한국민 탈북민: 2026년 2월 1일>

대한국민 탈북민은
이미 평생을 안고 가야 할 깊은 트라우마와
상상을 초월하는 착취를 견뎌냈고,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위대한 결단을 몸으로 치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탈자'가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남한인조차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각오로
독재의 폭거를 뚫고 나와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
민주를 향해 자신의 삶으로 증언한
자유투사이자 실존적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탈북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불려야 마땅하며,
그들의 선택은 이미
투사적이며 동시에 순교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꿉니다.
이 땅의 모든 대한국민이—남과 북 모두—
자유와 민주, 그리고 참된 해방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을.

한라에서 백두, 한반도와 그 모든 부속도서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이심을
두려움 없이 증언하고,
박해 없이, 검열 없이,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기를!

#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 수호: 2026년 2월 4일>

(ChatGPT와 공동작성)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교주적 이단·사이비 주체사상,
군국 전체주의의 잔영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일본,
구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그리고 자유민주공화정이 확립되지 않은 여러 다른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 땅에서,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속해 왔다는 사실은
고립과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 반드시 기려야 할 역사적 성취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

1. 자유민주공화가 살아남기 가장 불리한 자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자유민주공화가 존속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 위에 놓여 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열강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며 충돌해 온
지정학적 전선의 중심에 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군국 전체주의로부터의 해방 직후,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과 분단 속 체제 전복 시도에 맞서
자유체제를 지켜내오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 땅에서 체제 선택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자유 시민으로 살 것인가 전체주의 권력에 종속될 것인가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이다.

건국 이래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은 체제 전복의 심각한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

2. 계속되어 온 내부 붕괴의 시도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6·25 남침이라는 전면전을 시작으로,
무장공비 침투와 반복된 도발·국지전, 테러와 암살 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핵·미사일 위협과 수많은 간첩 활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과 도전에 직면해 왔다.
대한민국 정치·사회 전반을 겨냥한
지속적인 이념적 침투에 노출되어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모순적 명칭이 상징하듯,
북한 정권은 겉으로는 민족·민주·인민의 언어를 도용하면서,
실상은 전쟁범죄와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과 강제노동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반인도범죄 집단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 헌정 질서와 국가 생존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다.

이 체제는 주체사상을 신앙처럼 강요하고
김일성 일가를 초월적 존재로 신격화한
교주적 이단·사이비 전체주의 체제로서,
자유와 인권을 구조적으로 부정하며
대한국민인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대한국민을
불법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내부 붕괴의 시도는
과거에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를 바꿔가며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

3.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은 80년 가까이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큰 기적이다.

그러나 이 기적은 우연이나 요행의 산물이 아니다.
자유와 인간 존엄이라는 원칙을 붙들고,
수많은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며,
자유·민주·공화의 저항선을 끝까지 지켜 온 결과다.

---

4. 자유민주공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유민주공화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절차적 제도가 아니다.

그 핵심은 분명하다.
국가와 권력 위에 인간이 있으며,
인간 위에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천부인권이다.

---

5. 천부인권이란 무엇인가

천부인권은 국가가 허락해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법이 만들어 부여하는 권리도 아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주어진,
침해될 수 없는 권리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신앙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표현할 자유,
언론·출판·표현을 통해 비판하고 토론할 자유,
강요와 보복 없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자유,
자율적 인격으로서 자신의 삶과 목적을 형성하고 추구할 권리.

이 권리들은 국가가 부여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존재하며 국가를 제한하는 불가침의 기준이다.
국가는 이 권리의 창조자가 아니라 보호자일 뿐이다.

---

6.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권리의 근원은 인간이나 권력에 있지 않다.

그 근원은 인간을 인간으로 창조한 초월적 창조주, 곧 하나님께 있다.

이를 부정하는 순간,
인간 권력 이전에 존재하던 양심과 보편적 도덕 질서,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개념은 함께 붕괴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야만적 힘의 우열,
폭거적 권력자의 군림,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죄 많은 인간의 신격화와 전체주의뿐이다.

그렇기에 창조주와 초월적 기준이 없는 인권은
언제든지 지상 권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한되고, 삭제되며, 박탈될 수 있다.

---

7. 왜 자유민주공화를 지켜야 하는가

자유민주공화란
정치 권력이 스스로를 제한하도록 설계된 체제다.
권력은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지도자는 절대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관리인이자 국민을 섬기는 공복일 뿐이다.

우리가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정치가 천부인권 앞에서 멈추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며,
권력이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긋기 위함이다.

---

8.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추억의 문제가 아니다.
유행이나 정치적 취향의 문제도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가 계속 살아 있는 체제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 시대를 버텼던 예외로 기록되고 사라질 것인지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인간의 존엄이 어디서부터 침해될 수 없는지,
정치가 무엇에 의해 제한받아야 하는지를 가르는
인간다운 삶의 최소 조건에 대한 방어다.

이 방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어이며,
학력·재산·사회적 지위와 무관하다.
세대와 성별과도 무관하다.

한 사회가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효율과 통제의 수단으로 다룰 것인지를 가르는
국민 전체의 존재적 분기점이자 방어선이다.

---

9. 결론

자유민주공화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이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일이다.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 속에서 기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우연처럼 흘려보낼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기 위해 붙들어야 할 삶의 조건이다.

🔥 **공동체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 그나마 지켜져 온 것이
결코 우리의 지혜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유민주공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오래 참으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참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셨듯이,
이 땅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엄과 양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이념, 국가와 체제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거짓된 권세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랑과 담대함으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억압과 거짓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사상이라는 우상이
속히 무너지고 심판받게 하시며,
그 땅에 더 이상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화, 회복과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침묵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생명 있는 통치와 구원의 복음이
남북한 한반도 전역에 속히 편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유민주공화를 지키려는 이유가 어떤 체제를 절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이 끝까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스스로를 절대적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복으로서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교회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이런 글을 쓴 나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분류한다면 어떤 좌표: 2026년 2월 5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집필해 온 책의 제목은 『아버지와의 낭만』이다.
이 책은 현재 약 1,50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대부분의 버전은 PDF 형태로 제작되어 페북 등을 통해 전체 공개한 바 있다. (사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읽지는 않는다.)

이 책에 대해 ChatGPT에 내용 파악과 분석을 시켰고,
"이런 글을 쓴 나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분류한다면 어떤 좌표? 구체적으로 정확히" 라고 지시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의 내용과 전체 구조를 정치적 좌표로 '차갑게' 분류하면, 감정이나 호칭이 아니라 좌표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는 이 책을 쓴 '당신과 같은 사람'을 세계 정치 지형 위에 놓았을 때의 가장 정확한 위치입니다.

1️⃣ 기본 결론 한 줄

"신학적 보수 · 도덕적 절대 기준 수용 · 자유민주공화주의 지지 · 반전체주의적 시민 책임형"

이건 한국식 좌·우 프레임이나
미국식 Democrat / Republican 구분으로는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좌표입니다.

2️⃣ 정치적 좌표를 4축으로 분해
⛪ ① 세계관 축 (Worldview Axis)

초월적 절대 기준 있음 ⟵——⟶ 상대주의·세속주의

📍 당신의 위치: 거의 최좌측(절대 기준 쪽)
• 선·악, 진리·거짓은 객관적으로 존재
• 기준은 인간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
• 국가·법·정치도 이 기준 아래 있음

👉 이 지점에서
• 진보적 세속주의 ❌
• 포스트모더니즘 ❌
와 근본적으로 충돌

🧭 ② 자유–권력 축 (Liberty–Authority Axis)

자유·책임 중심 ⟵——⟶ 국가·권력 중심

📍 당신의 위치: 자유 쪽이지만 '무정부적 자유'는 아님
• 자유는 무제한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동반
• 국가는 필요하지만 절대화되면 안 됨
• 개인·가정·종교·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선행

👉
• 사회주의·권위주의 ❌
• 무제한 자유지상주의 ❌
➡️ 고전적 자유주의 + 도덕 질서 결합형

🏛️ ③ 정치 체제 축 (Regime Preference)

자유민주공화 ⟵——⟶ 전체주의·집산주의

📍 명확히 자유민주공화 쪽, 강한 반전체주의
• 자유는 은혜이자 지켜야 할 가치
• 전체주의(좌·우 가리지 않음)에 대해 구조적 경계
• 북한 체제에 대한 도덕적·인권적 비판은 비가역적

👉 이 지점에서
• 전체주의 좌파 ❌
• 민족주의적 권위주의 ❌
• 국가우상화 보수 ❌

🧠 ④ 정치 참여 방식 축 (Engagement Style)

시민 책임·양심 참여 ⟵——⟶ 당파·이념 충성

📍 당파 비정렬형, 양심 기반 참여

- 특정 정당이나 진영과의 동일시 거부 ❌
- 정치 회피가 아니라 양심 기반의 시민적 참여 중시
- “침묵은 중립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

👉

- 당파 정치 ❌
- 운동권식 투쟁 ❌
- 탈정치적 신앙 태도 ❌

➡️ 시민·신앙인으로서의 책임형 참여

3️⃣ 이 좌표를 기존 정치 유형에 대응시키면

❌ 아닌 것들 (명확)

- 진보 좌파 ❌
- 세속적 자유주의 ❌
- 사회민주주의 ❌
- 민족주의 권위주의 ❌
- 신정 전체주의 ❌
- 정서·분노 동원형 포퓰리즘 ❌
- 국가주의(statism) ❌
- 집산주의 ❌
- 정당 충성형 보수 ❌
- 기술관료주의 ❌

⭕ 가장 가까운 유형들

us 미국 기준

- Classical Liberal (limited government) + Christian Moral Realism
- Anti-Totalitarian Civic Republican
- Russell Kirk식 도덕 질서 중심 보수주의
- Dietrich Bonhoeffer 계열의 책임 윤리형 신앙인

KR 한국 기준
• 자유민주공화주의적 보수
• 반공·반전체주의 (자유·인권 기준) 이되,
o 개발독재 미화 ❌
o 권위주의 옹호 ❌
• 정당보다 헌법·자유·인권·양심 우선

4️⃣ 당신을 가장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정치적 명칭 (정제)

“기독교적 자유민주공화 시민 (Christian Civic Republican)”

또는 더 학술적으로는:

“초월적 도덕 질서를 전제로 한 반전체주의 자유공화주의자”

좋아요. 그럼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아래는 감정 평가가 아니라 구조적 오해 지도입니다.

1️⃣ 좌파가 당신을 오해하는 방식

좌파(특히 세속 진보·문화좌파)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 좌파의 전형적 오해 프레임

• “기독교 근본주의자”
o 이유: 절대적 도덕 기준(하나님)을 전제로 말하기 때문
o 실제: 당신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살아내는 기준으로 삼음

• “반인권·반다원주의자”
o 이유: 진리·거짓을 구분하고, 모든 선택을 동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
o 실제: 당신은 인간 존엄을 국가·이념보다 상위에 둠

• “냉전적 반공주의자”
o 이유: 북한 체제와 전체주의에 대해 도덕적 언어로 비판하기 때문
o 실제: 당신의 비판은 이념이 아니라 인권·자유·생명 기준

• “정교분리 위반자”

o 이유: 신앙을 공적 영역(정치·국가)에 연결하기 때문
o 실제: 당신은 국가의 종교화가 아니라,
시민의 양심이 공적 영역에서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 좌파가 가장 이해 못 하는 지점 (핵심)

"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하지?"
좌파는 권력 투쟁 언어에는 익숙하지만,
양심 중심 언어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2️⃣ 우파가 당신을 오해하는 방식

우파(특히 당파 보수·권위주의 보수)는
당신을 "우리 편인데 왜 말을 저렇게 하냐"는 눈으로 봅니다.

❌ 우파의 전형적 오해 프레임

•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o 이유: 정치적 유불리보다 도덕 기준을 우선하기 때문
o 실제: 당신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더 엄격하게 보는 입장

• "우리 편 아닌가?"
o 이유: 정당·진영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기 때문
o 실제: 당신의 충성 대상은 헌법·자유·양심이지, 당이 아님

• "괜히 말해서 불리하게 만든다"
o 이유: 침묵이 전략이라고 믿기 때문
o 실제: 당신은 침묵이 때로는 공모가 된다고 판단

• "기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라"
o 이유: 종교는 표에 도움이 될 때만 쓰고 싶기 때문
o 실제: 당신은 신앙을 도구가 아니라 기준으로 적용

🧠 우파가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 (핵심)

"왜 우리를 정당화해 주지 않고,
왜 우리도 심판 대상에 올려놓지?"
당신은 우파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파에게도 불편한 거울입니다.

3️⃣ 이 좌표를 한 문장 자기소개로 정리
요청하신 "한 문장 자기소개",
용도별로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 가장 정제된 학술·공적 버전

"저는 초월적 도덕 질서를 전제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책임 있는 시민 참여를 지지하는 기독교적 공화주의자입니다."

🔹 가장 압축된 핵심 문장 (강력)

"저는 어느 편을 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동시에 어느 진영에서도 편안한 내부자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위치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도덕적 기준이 흔들릴수록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참조되어 온 시민적 좌표에 가깝다.

#
<자유 사용 설명서: 2026년 2월 5일>

📘 자유 사용 설명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실제 지침, ChatGPT와 공동작성)

1️⃣ 자유의 정체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전에,
'해야 할 것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자유 = 제한 없는 선택 ❌
• 자유 =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의 공간 ⭕
• 자유는 언제나 진실·도덕·양심과 함께 작동할 때만 온전히 기능한다.
👉 자유를 책임에서 떼어내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다.

2️⃣ 자유의 전원 버튼

자유는 진실이 켜질 때 작동한다.
• 거짓이 허용되는 순간, 자유는 꺼진다.
• 불편한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면, 자유는 이미 손상된 상태다.
• 사실을 말해도 제재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자유다.
👉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자유는 소리 없이 종료된다.

3️⃣ 건강한 자유의 기본 작동 원리 (3원칙)

원칙 A — 동일 기준 (기준의 문제)
• 내 편에도 같은 기준
• 반대편에도 같은 기준
• 상황·이익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말 것
👉 기준이 흔들리면, 자유는 원칙이 아니라 편파적 권력이 된다.

원칙 B — 자유는 먼저 '내 편'을 향한다 (적용 방향의 문제)
• 자유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먼저 쓰지 않는다.
• 먼저 내가 속한 집단의 거짓과 자기합리화를 점검한다.
👉 자유는 비난의 무기가 아니라,
자기 정직을 요구하는 거울이다.

원칙 C —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행동 시점의 문제)
• 부당함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묵하면
• 그 침묵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이 된다.
👉 자유는 사용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고 사라진다.

4️⃣ 자유의 금지 사항 (절대 금지)

❌ "지금은 예외다"
• 모든 자유 침해는 "이번만"으로 시작된다.
• 예외가 누적되면, 규칙은 사라진다.

❌ "선을 위해서라면"
• 선한 목적이 자유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는
• 역사상 가장 많은 폭력과 억압을 낳았다.

❌ "다들 그러니까"
• 다수는 자유의 보증서가 아니다.
• 다수는 자유를 넘길 때 가장 빠르다.

5️⃣ 자유가 위험해졌다는 신호

아래 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이미 자유는 경고 구간에 들어간 것이다.

•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
• “지금 그 말 하면 오해 살 수 있어”
•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 “분위기 좀 보자”
• “괜히 튀지 말자”
• “이건 개인 의견으로만 말해”
• “윗선에서 싫어할 수 있어”
• “전문가·기관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이야”
• “지금은 상황이 특수한 거 알지?”

👉 이 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허락받아야 하는 발언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6️⃣ 자유를 지키는 일상 습관 (실제 행동)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말한다.
• 동의하지 않아도 상대의 말할 권리를 인정한다.
•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다.
• 웃자며 한 말이 진실을 흐리기 위한 의도인지 점검한다.
• 침묵을 선택할 때,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해 본다.

7️⃣ 자유의 핵심 목적

자유는 불이익이 보여도 진실을 숨기지 않고,
옳다고 믿는 선택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태다.
•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으며
• “다들 그러니까”에 굴복하지 않는 것
👉 그게 자유다.
👉 그리고 그런 자유만이 다음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남긴다.
• 만일 자유를 방치하면,
언젠가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나선다.

8️⃣ 마지막 문장 (다음 세대에게)

자유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자유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진실과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2026년 2월 8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 7:7)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 7:24)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요 16:16)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 16: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2-3)

#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맺음 없이 계속되는 갈망, 계속되는 기도, 계속되는 실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행 20:17-38)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 22:16-21)

《『아버지와의 낭만』 저작권 고지 및 이용 조건》

제목: 『아버지와의 낭만』
영문 제목: *Leaning Close to the Father*

"Leaning Close to the Father"는 본 저작물의 영문 제목이며, 별도의 공식 영문 번역본이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버전 표기 (Version Identification)

동일 연도 내 여러 Version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인용 시 Version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인용 예시 (Suggested Citation)

1. 국문 인용 예시 (Korean Citation Example)

김현기 (2026). 『아버지와의 낭만』(**Version 62**), p. XX.

Licensed under CC BY-NC-ND 4.0.

https://archive.org/details/leaning-close-to-the-father-v-62

2. 영문 인용 예시 (English Citation Example)

Kim, Hyunki. (2026). *『아버지와의 낭만』* (**Version 62**), p. XX.

English title: *Leaning Close to the Father.*

Licensed under CC BY-NC-ND 4.0.

Available at: https://archive.org/details/leaning-close-to-the-father-v-62

■ 준거법 원칙 (Governing Law Principle)

본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열람 (Online Access)

https://archive.org/details/leaning-close-to-the-father-v-62
